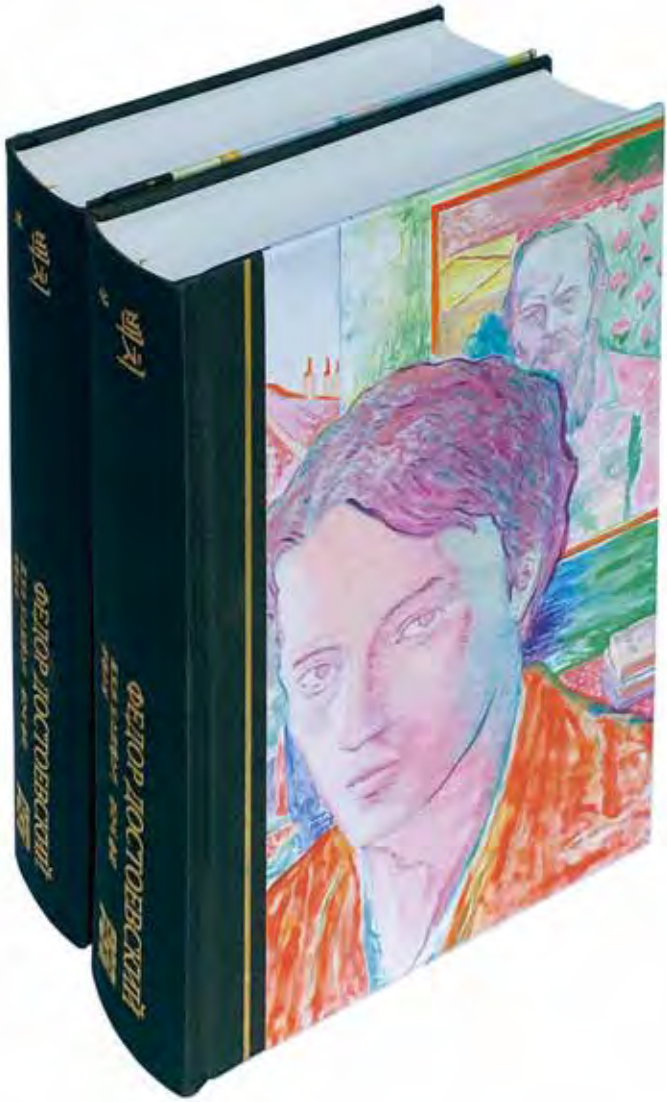
열린책들에서 만든 책들
1986-2023

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
죄와 벌
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
죄와 벌

카라마조프 씨와 형제들
FYODOR DOSTOEVSKY
카라마조프 씨와 형제들
FYODOR DOSTOEVSKY

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
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



주목받는 신예 화가 김윤섭(1983년생)은 고흐나 자코메티, 베이컨 같은 대가들을 자신의 화면에 등장시켜 대화하는 독특한 작풍을 선보여 왔다. 그것은 〈작가의 죽음〉을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모던 담론 속에서 작가의 의미를 미술사에서 묻는 탐구이자 현대 회화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기도 하다.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열린책들의 요청으로 김윤섭 작가는 표지화에 사용될 유화들을 제작했다. 그림마다 모두 도스토옙스키가 등장하는데, 때로는 주인공 뒤편에 벽에 걸린 그림으로, 때로는 자신이 창조한 소우주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네 편의 장편소설을 묘사하는 동시에 김윤섭의 주제인 작가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확장하는 작업으로, 지금까지 도스토옙스키 초상화나 작품 삽화 들과는 구별되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일러두기

- 이 도서목록은 1986년 1월 7일 창립 이후 주식회사 열린책들에서 펴낸 2,269권의 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 이 도서목록은 2023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책값과 근간 도서의 제목 등은 이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책 이름 오른쪽에 표시된 숫자는 인쇄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권본의 발행 쇄수는 권당 발행 쇄 수를 합산해 표기하였습니다.
- 표시된 발행 연도는 초판 발행 연도입니다. 따로 〈신판〉 등을 명기한 경우는 해당 판의 발행 연도를 표시합니다.
- 전자책, 오디오북으로도 발행되어 있는 도서는 서지 정보에 **eBook, audioBook**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이 도서목록에 사용된 〈견장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장〉 혹은 〈하드커버〉의 대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책 방식을 구분하기 위해 〈양장〉, 〈무선〉 등의 말이 쓰이고 있으나, 어휘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고 마땅히 용어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열린책들에서는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에 대하여 각각 〈견장정〉과 〈연장정〉이라는 용어를 제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도서목록에서는 원지에 따른 규격 표현 방식으로 판형 표시를 하였습니다. A4(210mm×297mm, 구 용어로 국배판, 이하 괄호 속 구 용어), A5(148mm×210mm, 국판), B5(188mm×254mm, 4×6배판), B6(128mm×188mm, 4×6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치수에서 벗어나는 판형에 대해서는 〈변형〉이라는 말을 덧붙이거나 〈규격외〉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이 도서목록에 실린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사진들은 『GA 도큐먼트』의 다나카 가츠가 찍은 사진과, 열린책들에서 포르투갈의 사진작가 페르난두 게하에게 의뢰해 촬영한 작품들입니다.
  Photographs by Tanaka Katsu (pp. 652, 654, 656, 658) & Fernando Guerra (pp. 710, 712)
- 이 도서목록에 실린 열린책들 대표 작가 일러스트는 열린책들에서 스페인의 일러스트레이터 페르난도 비센테에게 의뢰한 그림들입니다.
  Illustrations © 2016, 2017, 2018 Fernando Vicente

이 책은 실로 꿰매는 정통적인 사철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철 방식으로 만든 책은 오랫동안 보관해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Contents

열린책들의 작가들 016

베르나르 베르베르 018

요나스 요나손 034

움베르토 에코 050

파트리크 쥐스킨트 082

폴 오스터 092

로베르토 볼라뇨 100

조르주 심농 118

장자크 상페 134

루이스 세풀베다 152

아멜리 노통브 162

에마뉘엘 카레르 176

존 르카레 190

하퍼 리 206

미셸 우엘벡 214

찰스 부코스키 218

열린책들 세계문학 222

영미 문학 286

영화 속의 열린책들 312

프랑스 문학 326

기타 문학 338

러시아 문학 350

한국 문학 356

큰글자판 360

리커버 특별판 364

창립 35주년 기념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 376

전집 382
니코스 카잔차키스 384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398
한국 대표 시인 초간본 총서 414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416
E. M. 포스터 418
지크문트 프로이트 422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432
알렉산드르 뿌쉬낀 434

전기·자서전 436

빌 게이츠 추천 도서 444

한국 작가 추천 도서 452

인문·교양 464
경제·경영 466
정치·사회·교육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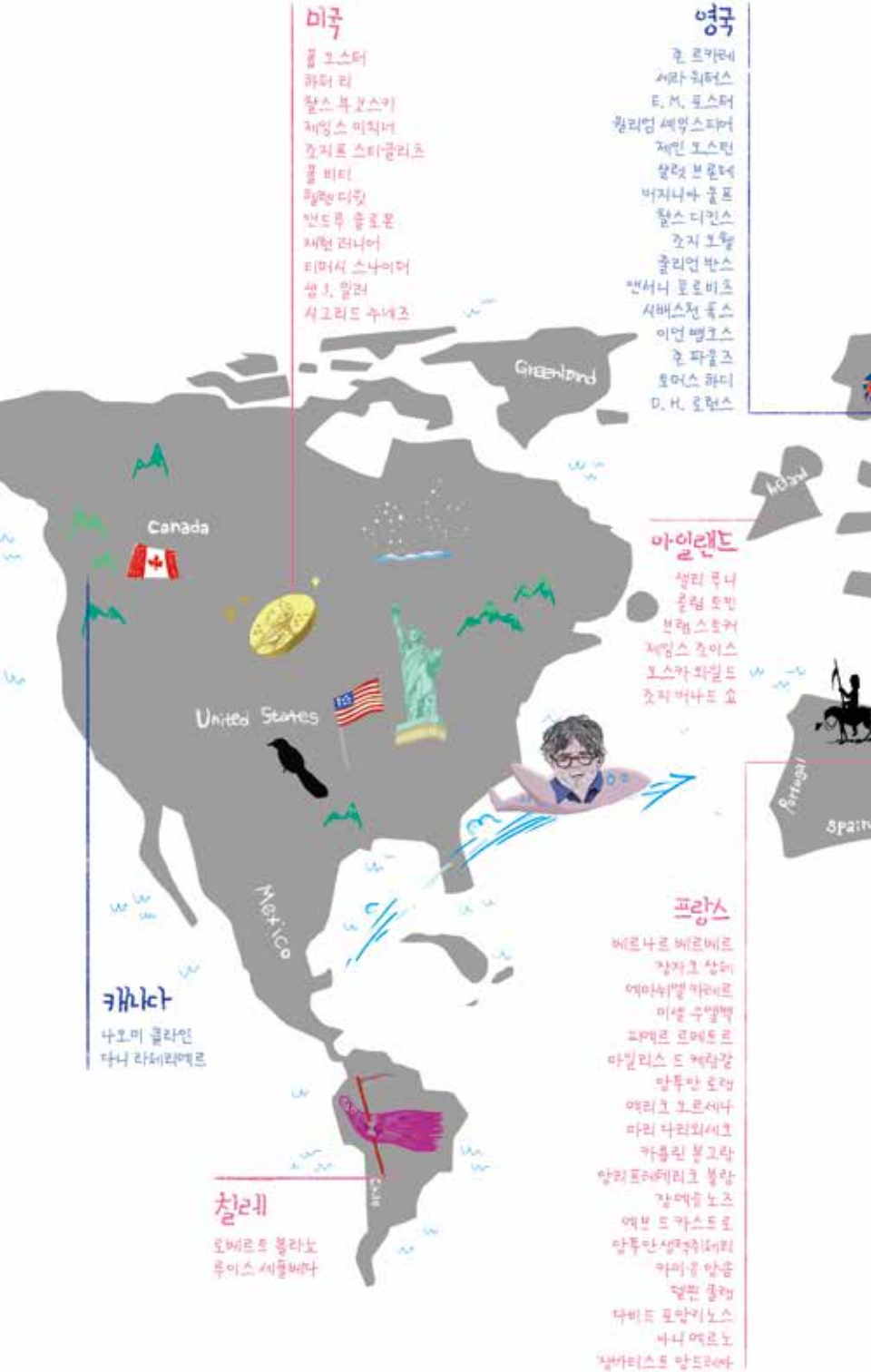
철학·심리·종교 508
역사 534
문화·예술·문학 이론·에세이 560
영화 576
만화 577
출판·편집·번역학 578
수학·자연 과학 582
의학·건강·자기 관리·기타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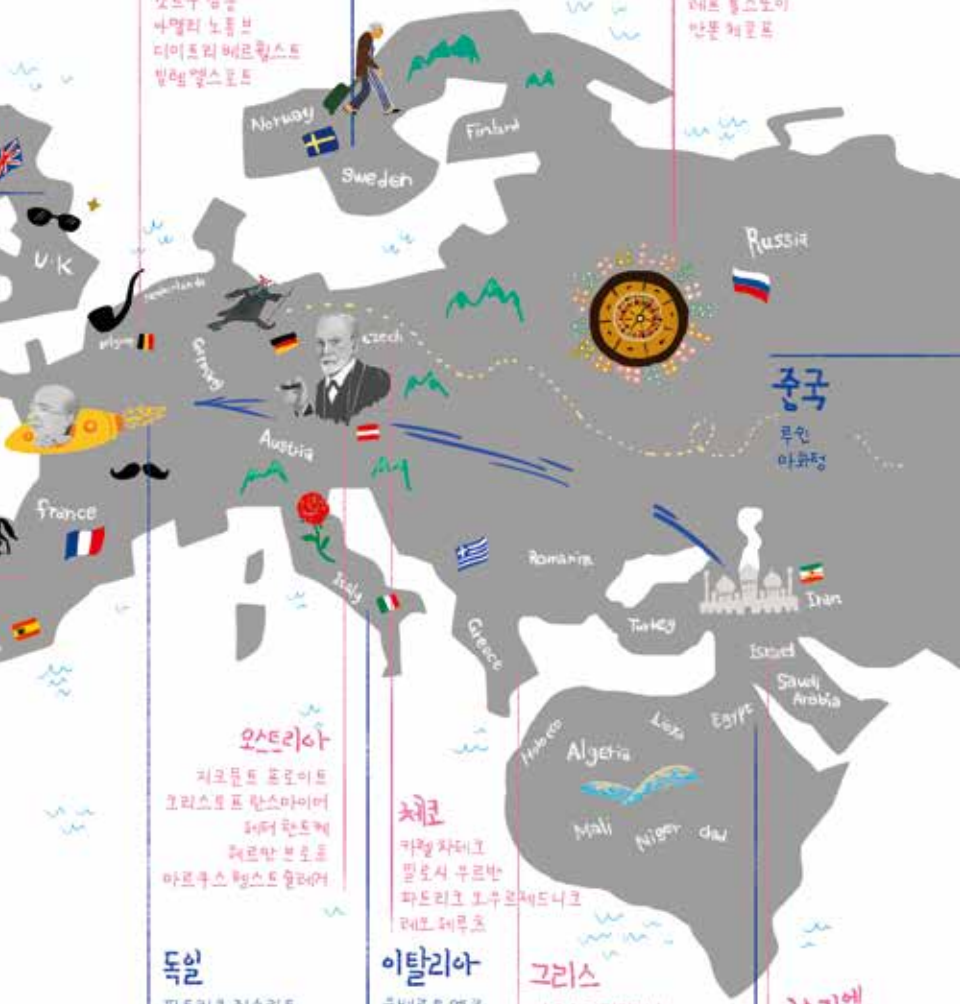
미메시스 610
미메시스 건축서 612
미메시스 그래픽노블 618
미메시스 예술서 642
미메시스 문학 654
미메시스 인문·실용 662

사람의집 666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674

도서 발행 연보 690


미국
폴 오스터
하퍼 리
찰스 부코스키
제임스 미치너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비티
필립 디킨
앤드루 솔로몬
제럴 리니어
티머시 스나이더
샘 J. 일러
시그리드 누네즈
영국
존 르카레
서머 워터스
E. M. 포스터
윌리엄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알랭 드 보통
버지니아 울프
찰스 디킨스
조지 오웰
줄리언 반스
앤서니 호로비츠
서머스턴 몸스
이언 뱅크스
존 파울즈
토머스 하디
D. H. 로런스
Greenland
Canada
United States
Mexico
아일랜드
셜리 룩니
콜럼 토빈
브램 스토커
제임스 조이스
오스카 와일드
조지 버나드 쇼
Portugal
Spain
프랑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자크 상페
에마뉘엘 카레르
미셸 우엘벡
피에르 르메트르
마일리스 드 케랑갈
앙투안 로랭
에리크 오르세나
파리 타리외시크
카롤린 본고랑
알리 프라데리크 볼랑
장 에롤 노즈
에브 드 카스드로
앙투안 생텍쥐페리
카미유 앙솜
델핀 졸랭
다비드 포앙키노스
바니 에르노
'장바티스트 맘드레아
칠레
로베르토 볼라뇨
루이스 세풀베다
캐나다
나오미 클라인
다니 라페리에르



스웨덴

요나스 요나손
카타리나 잉엘만슨 드베리
헬레네 투르스텐

러시아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막심 고리키
블라디미르 마야꼬프스키
알렉산드르 뿌시낀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레프 톨스또이
안똔 체호프

벨기에

조르주 심농
아멜리 노통브
디디에 에르킹스트
빌헬 엘스포트

중국

루쉰
마윈정

오스트리아

지그문트 프로이트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
페터 한트케
레르한 보로
마르쿠스 헹스트 알레거

체코

카렐 차페크
밀로시 포르만
파트리크 오우르제드니크
레오 페루츠

독일

파트리크 쥐스킨트
마르쿠스 가브리엘
한스 라트
에른스트 블로흐
요한 볼프강 괼테
토마스 만
프리드리히 니체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리하르트 바비트 프레이트

이탈리아

움베르토 에코
단테 알리기에리
이탈로 칼비노
산드로 베로네시
로렌타 젠틸레
로사 몬타나소

그리스

니코스 카잔차키스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이스라엘

아모스 오즈

이집트

할레드 알하미시

열린책들의 작가들

러시아 문학 전문 출판사로 주목받던 열린책들은 1990년대 초반 유럽 문학 전반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장미의 이름』, 『개미』, 『향수』, 『좀머 씨 이야기』 등 약 2천 종의 책을 내면서 대표적인 외국 문학 출판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영미권의 대형 베스트셀러 위주였던 소설 시장에 지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흥미로운 현대 소설의 세계를 제시해 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움베르토 에코, 파트리크 쥐스킨트, 폴 오스터, 요나스 요나손, 로베르트 볼라뇨, 에마뉘엘 카레르 등은 열린책들을 통해 전체적인 세계가 드러난 작가들이다.

열린책들은 창립 이래 작가를 의식적으로 중심에 놓고 그 작가의 모든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의 선구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열린책들의 작가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총체적인 면모에 근접하기 위해 진력해 왔고 작가가 곧 출판사의 얼굴이기를 바랐던 한 출판사의 의지에 적합한 말이다.

Bernard Werber 베르나르 베르베르

Jonas Jonasson 요나스 요나손

Umberto Eco 움베르토 에코

Patrick Süskind 파트리크 쥐스킨트

Paul Auster 폴 오스터

Roberto Bolaño 로베르토 볼라뇨

Georges Simenon 조르주 심농

Jean-Jacques Sempé 장자크 상페

Luis Sepúlveda 루이스 세풀베다

Amélie Nothomb 아멜리 노통브

Emmanuel Carrère 에마뉘엘 카레르

John le Carré 존 르카레

Harper Lee 하퍼 리

Michel Houellebecq 미셸 우엘백

Charles Bukowski 찰스 부코스키

Bernard Wer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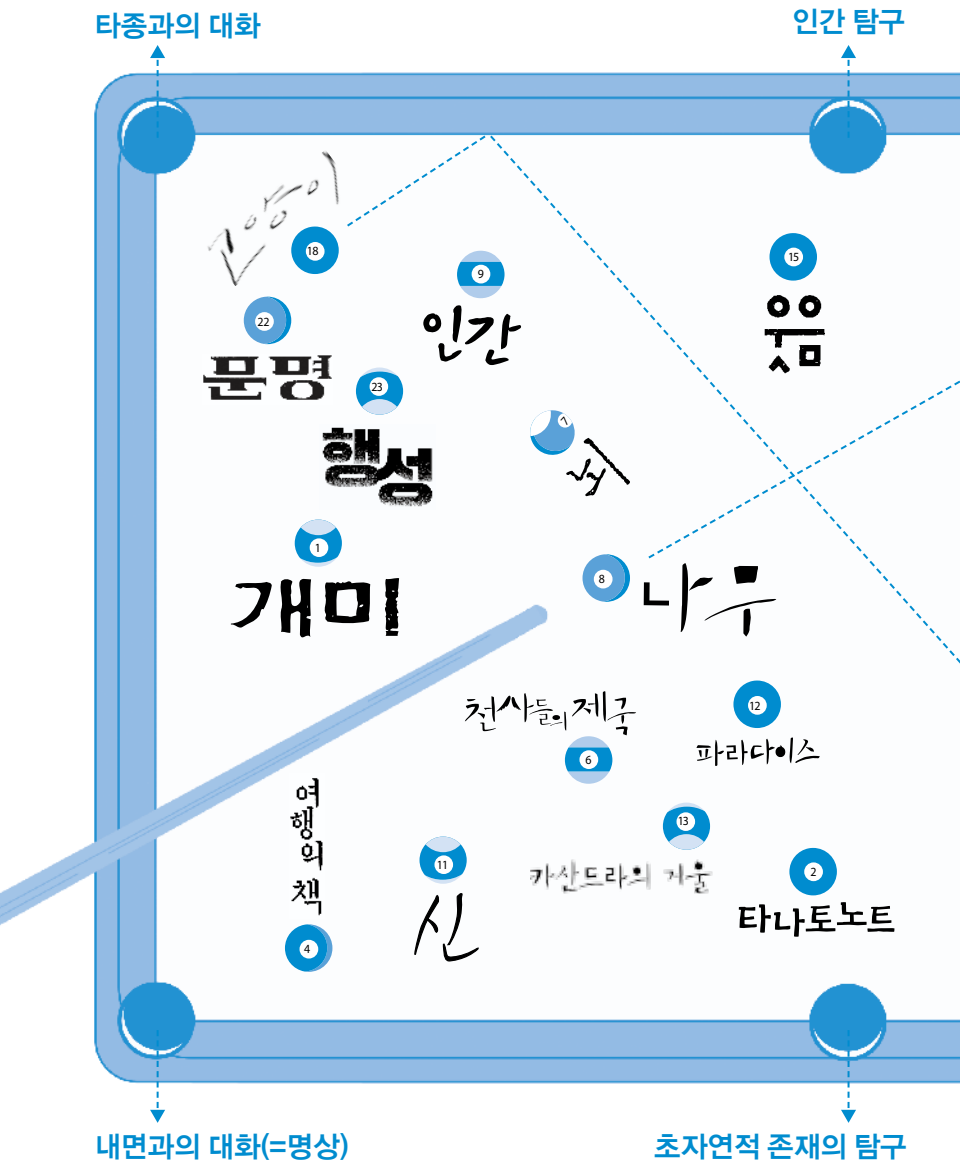
베르나르 베르베르

3,062 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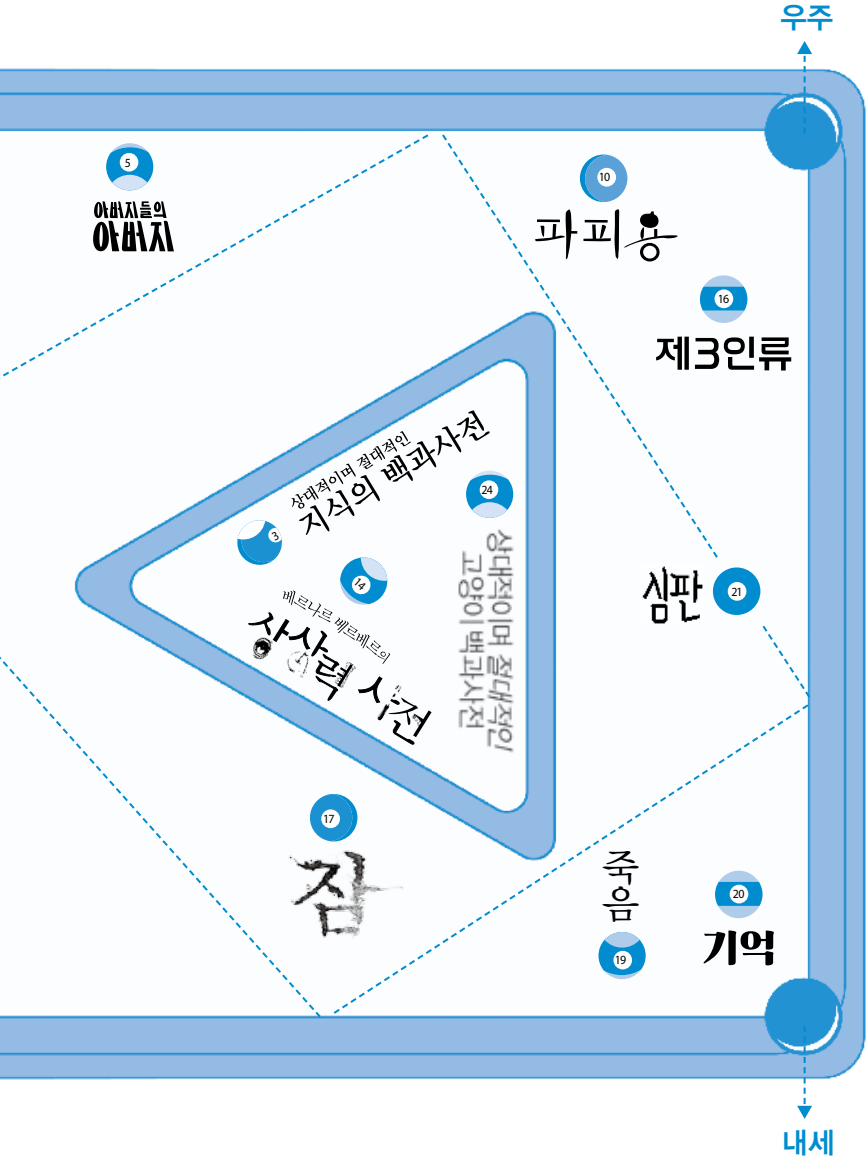
〈프랑스의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두고 어떤 평자가 한 말이다. 그러나 베르베르는 결코 천재 작가가 아니다. 소설 『개미』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개미를 관찰하고 연구해 오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베르베르의 개미 관찰은 그가 개미의 일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개미집을 부수지 않게 된 열두 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집필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은 1983년, 〈뉴스〉 재단의 콘테스트에서 아프리카 개미에 관한 보고서로 호평을 받으면서부터다. 곧바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가서 마냥개미를 관찰하고 돌아온 그는 120번에 가까운 개작을 거듭한 끝에 1991년 봄, 소설 『개미』를 탈고했다. 그는 『개미』로 〈과학과 미래〉의 그랑프리와 〈팔리시상〉을 받았다.
그의 경력은 좀 엉뚱하다. 1961년생인 베르베르는 고향 툴루즈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 언론 학교에서는 저널리즘을 전공하였다. 대학 졸업 후에는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들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을 여러 방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베르베르는 개미의 시각에서 인간 문명과의 조우를 그리고 있는 『개미』, 그리고 세계 밖에서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백과사전인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영계 탐사자를 다룬 『타나토노트』,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 세계로 안내하는 『여행의 책』, 인간 진화의 수수께끼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과학 스릴러 『아버지들의 아버지』 등의 화제작들을 발표하였다.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를 추적한 『뇌』, 기발하고 환상적인 이야기 모음 『나무』,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을 찾아가는 『파피용』, 신화와 역사, 철학을 담아 그려낸 베르베르식 우주의 완성판 『신』, 베르베르의 상상력 속에서 탄생한 기상천외한 미래, 그리고 역설 가득한 과거의 이야기 17편을 담은 『파라다이스』, 미래는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과거는 모르는 소녀 카산드라의 모험을 그린 소설 『카산드라의 거울』, 유머의 생산과 유통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소설 『웃음』, 신화와 과학, 상상력으로 빚어낸 장대한 스케일의 과학 소설 『제3인류』,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 잠의 세계로의 탐험을 그린 『잠』 등 그의 작품들은 3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Table 베르베르의 당구대



베르베르의 세계는 계속 확장 중이다. 그 결과 새로운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기존 작품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구의 다른 종과의 대화〉를 보여 준 첫 작품 『개미』가 어떻게 사후 세계에 대한 모험담인 둘째 작품 『타나토노트』로 연결될 수 있는지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다. 지금은 두 작품 모두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생을 경이롭게 바라보려는 베르베르의 장대한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종과의 대화〉 — 〈내면과의 대화〉, 〈인간 탐구〉 — 〈초자연적 존재의 탐구〉, 〈우주〉 — 〈내세〉라는 베르베르의 대립적인 주제들을 하나의 당구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각각의 공(작품)들의 위치는 그 주제들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물론 그 한가운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상력의 보고인 〈백과사전〉이 있다.



Interview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터뷰

미래에 관한 낙관을 잃지 말자

전 세계에서 1천만 권 넘게 팔린 프랑스 작가. 최근 10년간 소설 누적 판매량 국내(교보문고 2016년 3월 통계 기준) 1위. 공간을 초월해 현대인들은 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을 읽을까. 독자들은 그를 통해 미래의 단초에 접근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베르베르는 1991년 데뷔작이자 단숨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개미』를 발표했다. 이후 나오는 책마다 인간 상상력의 한계를 실험했다. 이런 베르베르에게 번역가로서 소설과 문학,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세계에 대해 물었다.
베르베르는 평소 인터뷰를 꺼리고, 하더라도 단답형인 것으로 악명(?) 높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지혜로운 안목을 가졌고, 호기심 많은〉 한국 독자를 위해 이례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전했다.

최근 작 『고양이』는 플롯에 판타지적 특성이 배어 있다. 베르베르 세계의 입문서로 추천할 만큼 작가의 철학과 세계관이 오롯이 녹아 있다. 이번에도 데뷔작 『개미』에서의 방식, 즉 〈타자의 시선〉을 도입했다. 고양이가 등장해 비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 고양이의 시선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어떤 경험이었나?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지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장차 지능을 가진 다른 생물종(種)이 얼마든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테니까. 인간과 다른 형태의 의식을 가진 종이 인간의 뒤를 이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지능을 가진 여러 동물 중 하나이지 유일한 동물이 아니다. 『고양이』는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했다. 아마 내가 키우는 고양이한테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바스테트라는 주인공 덕분일 것이다. 바스테트는 거만하고 젠체하는 것이 딱 내 고양이를 닮았지만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닌 캐릭터다.

1980년대 사회 격변기를 거쳐 90년대 한국 소설은 주로 〈개인으로서의 나〉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이 시기에 국내에 소개된 프랑스 문학도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한국 독자들은 〈프랑스 문학〉 하면 으레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내밀한 이야기부터 떠올렸다. 문체가 서사를 압도하는 작품들이었다. 소설이 소재의 확장력을 보여주지 못해 싫증을 느낄 찰나, 베르베르, 히가시노 게이고, 그리고 정유정이 독자의 지지 속에 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세 사람 모두가 〈장르 작가〉라는 사실이다.

한국 문학 시장의 특성이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출판사들은 주로 자서전적인 소설이나 오토 픽션(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세르주 두브로프스키가 창안한 신조어, 책의 주인공과 작가의 이름이 동일해야 하며 소재는 반드시 자전적이야 한다)을 출간하는데 독자들이 기다리는 소설은 그런 게 아니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장르물이고 소설가의 상상력이다.

당신의 소설 속 미래는 종종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독자가 『뇌』의 도입부를 떠올렸다. 『네이처』지에 〈사람과 돼지가 8천만 년 전, 공통 조상에서 갈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아버지들의 아버지』를 읽은 독자들은 섬뜩함마저 느꼈다. 당신의 놀라운 미래 예측 능력은 과학 지식에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과학 기자 출신으로서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면서 흐름을 잡으려고 애쓴다. 프랑스에서 먼 한국에서는 테러리즘이 인류의 지능과 문명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감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테러리즘이라는 표현은 내가 광신주의를 겨냥해서 쓴 말이다. 북한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인들로서는 프랑스 사회에 공산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슬람 전체주의 말이다. 이슬람 전체주의는 자유와 여성의 인권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파피용』『제3인류』『고양이』는 모두 디스토피아가 배경인 소설들이지만 결말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당신은 〈2보 후퇴, 3보 전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인류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낙관하기 때문인가? 이런 낙관주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여러 측면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기아와 전염병은 줄어들었다.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보는 경향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을 한번 떠올려 보자. 참담한 상황이었다. 이보다 이전인 14세기는 또 어땠나.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였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다 보면 저절로 낙관주의자가 된다. 세계는 그런 도전들을 다 이겨 내고 결국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니 여전히 부당한 상황이 존재하고, 앞으로 힘든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관주의를 잃어선 안 된다.

내가 요즘 작업 중인 당신의 작품 『죽음』에는 AI 작가가 등장한다. 유명 작가가 사망하자 출판사에서 그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작가다. 얼마 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인공 지능 화가가 그린 초상화가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다. 앞으로 과연 창작이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인공 지능 시대에 창작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내게 인공 지능은 더 멀리 내다보고, 사고하게 도와주는 것이지, 내 정신과 경쟁을 벌이며 위협하는 상대가 아니다. 망치와 같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망치를 들고 오두막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의 머리를 깰 수도 있다. 인공 지능도 마찬가지다. 물론 악용될 경우, 우리에게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구들은 오늘날까지 대체로 악보다는 선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낙관론자인 이유다.

한국 독자들이 출간을 기다리는 『죽음』과 당신의 최신작 『기억』이 어떤 소설인지 듣고 싶다.

『죽음』은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은 한 추리 작가가 저승에서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다. 이승에 있는 여성 영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파헤치면서 주인공은 가시 세계와 비(非)가시 세계의 경계를 허물게 된다. 『기억』에는 퇴행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들로 돌아가는 역사학 교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전생으로 돌아간 그는 우리가 책을 통해 배운 역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둘 발견하면서 역사의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요즘 근황은 어떤가? 독자들과의 교류는?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늘 독자들을 만나며 바쁜 시간을 보낸다. 프랑스 독자들뿐 아니라 해외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많이 한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퀘벡과 러시아에 다녀왔다. 한국에도 가능한 한 자주 가려고 한다. 독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는 기회니까. 독자들이 내 책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글 전미연 번역가, 정리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월간중앙』 2019년 1월호(발췌)

BERNARD
WERBER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4

전미연 옮김 | 2022년 | 264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eBook | audioBook

베르베르가 열광하며 탐구한 고양이의 모든 것. 지구에 출현한 최초의 고양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세 시대에 고양이가 마녀의 부하라는 소문이 퍼진 이유는? 스파이로 활동한 고양이가 있었다고? 스파이 고양이의 엑스레이 사진, 이집트에서 숭배받은 고양이 여신의 벽화 등 무려 138장이나 되는 도판이 들어 있어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고양이에 얽힌 숨겨진 옛이야기부터 말랑말랑한 발바닥 패드가 점프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신비롭고도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세계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눈으로 탐험해 보자!

54
Books

행성

22

전미연 옮김 | 2022년 | 전2권 | 각 376, 312면 | A5변형 견장정 | 각 16,800원 eBook | audioBook

〈고양이〉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 바스테트 일행은 〈마지막 희망〉호를 타고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에는 약 4만 명의 인간이 쥐를 피해 2백여 개의 고층 빌딩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프리덤 타워에는 102개 인간 집단을 대표하는 총회가 존재한다. 바스테트는 고양이로서 103번째 대표 자격을 요구하지만 인간들은 무시할 뿐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쥐 군단의 위협, 무작정 핵폭탄을 쏘려는 인간들, 로봇 고양이 카츠의 등장…… 과연 바스테트는 상상력을 동원해 위기를 돌파하고 이 행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확장판

5

이세욱, 임호경, 전미연 옮김 | 2021년 | 752면 | A5변형 견장정 | 19,800원 eBook

『개미』, 『뇌』, 『나무』, 『신』, 『제3인류』……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매혹적인 스토리로 독자를 사로잡아 온 베르나르 베르베르. 도대체 그 마르지 않는 창작의 원천은 무엇일까? 베르베르는 열세 살 때부터 혼자만의 비밀 노트에 스스로 떠올린 영감, 상상력을 촉발하는 이야기, 발상과 관점을 뒤집는 사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해석 들을 차곡차곡 담았다. 거기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더해지고, 영적·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탐구의 세월이 반영되면서 그 노트는 독특한 〈백과사전〉으로 자라났다. 이제 사전을 펼치기만 하면 과학, 역사, 문학, 신화, 연금술, 처세와 게임까지 온갖 분야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항목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 1996년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
- 2007년 6월 〈거실을 서재로〉 선정 도서

문명

48

전미연 옮김 | 2021년 | 전2권 | 각336, 352면 | B6 견장정 | 각14,800원 eBook | audioBook

인류 문명이 벼랑 끝에 다다른 세상을 무대로 『고양이』의 주인공이었던 바스테트가 활약하는 소설. 고양이들의 일차 목표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쥐 떼의 공격을 물리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지만, 최종 목표는 인류 문명을 대신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다. 과연 바스테트는 서로 다른 동물종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전염병으로 수십억 명이 사망하고 황폐해진 세계는 이 소설이 프랑스에서 출간된 2019년 이후에 벌어진 코로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하다.

심판 25

전미연 옮김 | 2020년 | 22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베르베르가 『인간』 이후 다시 한번 시도한 희곡. 천국에 있는 법정을 배경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 — 피고인이 펼치는 설전을 유쾌하게 그려 내 희곡이면서도 마치 소설처럼 읽힌다. 방금 전 사망한 주인공 아나톨 피숑은 살아 있을 때는 판사로 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자마자 피고인의 처지가 된다. 그는 이제 심판에 따라 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할 수도 있다. 과연 아나톨은 사형,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삶의 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기억 48

전미연 옮김 | 2020년 | 전2권 | 각 400면 | B6 견장정 | 각 16,800원 **eBook | audioBook**

누구나 한 번쯤은 전생 아니면 내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베르베르는 『기억』의 주인공인 역사 교사 르네 톨레다노의 입을 통해 지금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최면에 성공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기억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르네. 문 너머에서 엿본 기억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그의 전생이었다. 르네는 자신에게 총 111번의 전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1차 세계 대전 참전병 외에도 여러 기억의 문을 열어 본다. 그중에서도 최초의 전생은 놀랍게도 현대인이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전설 속의 섬에 사는 남자 게브였다. 아틀란티스가 대홍수로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 르네는 게브의 운명을 바꿔 보려 하는데…….

- 2020년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 2020년 알라딘 선정 〈올해의 책〉

죽음 76

전미연 옮김 | 2019년 | 전2권 | 각 32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 audioBook**

〈누가 날 죽였지?〉 소설의 주인공 가브리엘 웰즈는 이런 문장을 떠올리며 눈을 뜬다. 그는 죽음에 관한 장편소설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인기 추리 작가다. 평소에 작업하는 비스트로로 향하던 그는 갑자기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다. 그러나 의사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거울에 모습이 비치지 않을 뿐 아니라,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이상이 없다. 그는 죽은 것이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살인이라고 확신한다. 머릿속에는 몇몇 용의자가 떠오른다. 다행히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매 뤼시 필리피니를 만난다. 떠돌이 영혼이 된 가브리엘은 저승에서, 영매 뤼시는 이승에서 각자의 수사를 해나가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 2019년 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책〉
- 2019년 한겨레 선정 〈올해의 북디자인〉

고양이 80

전미연 옮김 | 2018년 | 전2권 | 각 248면 | B6 견장정 | 각 14,800원 eBook | audioBook

파리에서 살고 있는 암고양이 바스테트. 그녀는 〈집사〉가 틀어 놓은 TV 화면과 점점 잦아지는 골목길의 총성을 통해 그동안 당연시하던 안락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 무렵 바스테트는 옆집에 이사 온, 어떤 이유에선지 인간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고양이 피타고라스와 친구가 되는데…….

- 2018년 6~7월 종합 베스트셀러
- 2018년 YES24 선정 〈올해의 책〉

만화 타나토노트

전미연 옮김 | 에리크 코르베랑 각색 | 피에르 타랑자노 그림 | 2017년 | 184면 | 타블로이드판 견장정 | 16,800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베스트셀러 소설 『타나토노트』를 원작으로 한 『만화 타나토노트』. 삶과 죽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 뛰어든 타나토노트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다룬다. 무겁고 어두운 소재인 죽음을 다루면서도 시종 웃음을 자아내는 작품으로, 타고난 익살꾼 베르베르의 재치와 만화적 상상력이 결합하여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

잠 87

전미연 옮김 | 2017년 | 전2권 | 각 336, 32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인간이 감히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대륙, 잠의 세계로의 탐험! 『잠』은 꿈속의 모험 소설이자 과학 소설로, 인간의 뇌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는 제6단계 수면을 다룬다. 주인공은 유명한 신경 생리학자 카롤린 클라인 교수의 아들 자크 클라인. 카롤린이 수면에 대한 〈비밀 실험〉을 하던 중 사고로 피험자가 사망하고, 충격을 받은 카롤린은 그날 밤 자던 중에 사라진다. 당황한 아들 자크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꿈속에서 20년 뒤의 48세 자크를 만난다. 48세의 자크는 어머니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며 위험한 상황이니 빨리 어머니를 구하러 가라고 권한다. 자크는 꿈속의 만남을 믿지 않고 무시하다가 두 번째로 같은 꿈을 꾼 뒤 어머니 카롤린이 찾아갔던 〈꿈의 민족〉 세노이족을 찾아 나서는데…….

- 2017년 6~7월 종합 베스트셀러

제3인류 189

이세욱, 전미연 옮김 | 2013~2016년 | 전6권 | 각 448, 336, 336, 336, 400, 384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자신의 소설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 말한 작품! 한계 없는 상상력의 대가 베르베르가 신화와 철학, 대담한 과학 이론을 접목해 야심 차게 쓴 신(新) 창세기! 만약 지금 인류가 첫 번째 인류가 아니라면? 첫 번째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다음 인류는? 인간의 손에 의해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베르베르는 거대한 규모의 상상 세계를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과학과 우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 2013년 11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14년 YES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54
Books

Bernard Werber

웃음 80

이세욱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440, 464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치명적인 웃음, 유머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유머집, 역사 패러디의 속성을 혼합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스타 개그맨 다리우스의 의문사를 추적하는 두 기자가 맞닥뜨리는 모험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곳곳에 삽입된 100여 편의 조크는 마치 유머집을 읽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거기에 수시로 발췌 인용되는 가상의 텍스트 『유머 역사 대전(大全)』이 은근한 재미를 더한다. 작품의 중심 소재는 유머의 생산과 유통이다. 유머는 그러나 이 작품에서 단순한 소재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유머는 이 작품의 배경이자 화두인 동시에 작품의 결을 만드는 화법이며 형식 그 자체다. 작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농담을 지향하듯 발랄하고 유쾌하게 달려간다.

- 2011년 12월 종합 베스트셀러

카산드라의 거울 77

임호경 옮김 | 홍작가 그림 | 2010년 | 전2권 | 각 472, 464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면, 그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국인 김예빈이 주연급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작품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 때문에 폭발적 화제를 모은 작품. 인류의 미래와 재앙을 예언하는, 그러나 자신의 과거는 전혀 모르는 소녀 카산드라의 모험이 서스펜스 넘친다. 과학적 상상력과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작품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사실적 묘사로 〈현실 사회〉의 이슈들에 직접 다가서는 〈새로운 베르베르〉를 느끼게 한다. 여전히 황홀한 상상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 전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인간의 부조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더 깊어진 철학적 성찰!

- 2010년 12월 ~ 2011년 1월 종합 베스트셀러
- 2011년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파라다이스 119

임희근 옮김 | 아이완 외 그림 | 2010년 | 전2권 | 각 296, 304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베르베르의 상상력 속에서 탄생한 기상천외한 미래, 그리고 역설 가득한 과거의 이야기들. 우리를 웃게 하고, 꿈꾸게 하고, 전율하게 하는 17편의 기발한 이야기들이 우화처럼, 신화처럼, 소설처럼 펼쳐진다.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전설이 되어 버린 세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금지된 사회, 출처를 알 수 없는 농담의 발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코미디언의 모험……. 그리고 작가 자신의 개인사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까지, 베르베르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뿜어내는 다양한 개성을 살리기 위해, 한국어판 『파라다이스』는 강렬한 개성으로 주목받는 일러스트레이터 5명이 독창적인 시각과 필치로 이야기를 재해석한 그림들을 함께 실었다.

- 2010년 3~5월 종합 베스트셀러
- 2010년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신 339

이세욱, 임호경 옮김 | 2008년 | 전3권 | 각 580, 640, 624면 | B6 견장정 | 각 16,800원 **eBook**

프랑스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르베르 최대의 히트작. 상상력의 한계를 허물어뜨려 온 베르베르가 9년에 걸쳐 준비한 소설로 베르베르식 우주의 완성이라 할 만하다. 『타나토노트』에서는 인간, 『천사들의 제국』에서는 수호천사로 활약했던 미카엘 팽송이 이번에는 신의 후보생이 되어 신이 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다. 저마다 다른 개성으로 새로운 세계를 빚어내는 신들의 모습을 통해 베르베르는 인간 세상을 우의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풍자한다. 베르베르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신들의 경합 속에 숨 막히게 펼쳐지는 작품.

- 2008년 11, 12월, 2009년 1, 2, 3월 종합 베스트셀러 2위
- 2008년, 2009년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2009년 YES24 독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표지〉
- 2009년 4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파피용 105

뫼비우스 그림 | 전미연 옮김 | 2007년 | 44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I audioBook**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 범선을 타고 1천 년간의 우주여행에 나선 14만 4천 명의 모험을 그린 작품. 언제나 놀라움과 함께 자성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베르베르식 실험의 백미를 보여 준다. 더 이상 인류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미래의 지구, 결국 지도자들은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별을 찾기 위해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차례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14만 4천 명이 선발되고 이들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미지의 우주로 떠나가는데…….

- 2007년 7~10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07년 9월 〈거실을 서재로〉 선정 도서
- 2007년 「TV 책을 말하다」 추천 도서

인간 28

이세욱 옮김 | 2004년 | 192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냉소적인 현대인의 표상인 라울과 이에 상반되는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닌 사만타. 불가해한 환경과 맞닥뜨린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베르베르는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 2004년 YES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상명 레퍼토리 극단 공연(2004년 12월, 상명 아트홀)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공연(2016년 12월,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오늘,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미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 있다. 그의 첫 희곡 『인간』이 바스티유 극장에서 개막했기 때문이다. 외계 생명체를 소재로 두 주인공을 내세워 베르베르는 흥미진진한 극을 만들어 냈다. 관객들은 〈흥미로운 주제, 훌륭한 대본, 좋은 연기〉라며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첫 번째 연극을 높이 평가했다. 〈베르베르는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요.〉 대중이 개미와 대화한 이 남자의 새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베랑제르 아다, 『르 파리지앵』, 2004. 9. 28.

54
Books

Bernard Werber

나무 152

뫼비우스 그림 | 이세욱 옮김 | 2003년 | 312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프랑스에서 출간된 후 곧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베르베르의 부동의 인기를 증명한 이 책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기발하고 환상적인 이야기 열여덟 편을 담고 있다.
특히 프랑스 최고의 만화가 뫼비우스가 한국어판을 위해 특별히 그린 28점의 컬러 삽화가 실려 있어 책의 가치를 한층 더 빛내 준다.

- 2003년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 2003년 YES24 독자 서평이 가장 많은 책
- 2003년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1위
- 2003년 7~12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04년 1~2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뇌 198

이세욱 옮김 | 2002년 | 전2권 | 각 328면 | B6 견장정 | 각 14,800원 **eBook**

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간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추리 소설적 기법으로 보여 주는 장편소설이다.
베르베르가 빈번히 사용하는 영화의 몽타주 기법을 연상시키는 수법, 즉 두 개의 플롯이 교차되면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구성과 속도감 있는 문장으로 인류의 마지막 미정복지인 뇌의 세계를 탐험한다.

- 2002년 7~10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천사들의 제국 109

이세욱 옮김 | 2000년 | 전2권 | 각 320, 32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최초로 저승을 탐사했던 타나토노트 중의 한 사람인 미카엘 팽송이 사고로 죽게 되어 영계에 올라가 심판을 받는다.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 천사가 된 미카엘은 지상의 인간 세 명을 돌봐야 한다. 그들의 영혼을 바른길로 이끌며, 그들이 죽은 뒤에는 대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수호천사의 임무이다. 미카엘은 프랑스인, 러시아인, 미국인 한 명씩을 선택하고 이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하게 되는데…….

아버지들의 아버지 112

이세욱 옮김 | 1999년 | 전2권 | 각 280, 296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최초의 인간에 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 버린 고대 생물학자의 돌연한 변사.
그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선 젊고 똑똑한 여기자와 민완한 전직 기자,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클럽.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숨 막히는 추격전. 인류의 뿌리를 찾는 여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수사, 우리 기원의 미스터리에 관한 놀라운 가설들…….

여행의 책 28

이세욱 옮김 | 1998년 | 160면 | B6 견장정 | 9,000원 eBook

이 책은 살아 있는 책이다. 독자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독자의 물음에 대답하기도 하며, 다른 책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또 책장을 넘기는 독자의 손길에 간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한눈을 파는 독자에게 시새움을 느낄 줄도 아는 책이다.

타나토노트 190

이세욱 옮김 | 1994년 | 전2권 | 각 424, 416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이 소설의 제목인 〈타나토노트〉는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타나토스thanatos〉와 항해자를 뜻하는 〈나우테스nautes〉를 합쳐서 만든 조어로 〈영계 탐사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소설은 무겁고 어두운 소재인 죽음을 다루면서도 시종 웃음을 자아내는, 타고난 익살꾼 베르베르의 재치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추리 소설이자 연애 소설이며 정치 우화 소설인 『타나토노트』는 결국 인간이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쁘게 행동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것임을 일깨워 준다.

개미 736

이세욱 옮김 | 1993~1997년 | 전5권 | 각 400면 내외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천재 곤충학자 에드몽 웰스의 의문에 싸인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과 〈지하실에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는 유언…….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둘 지하실로 실종되고 개미를 궤멸할 살충제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연쇄적으로 피살된다. 과연 그 저주받은 지하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인간 세계와 개미 세계가 갈마들며 전개되는 과학 미스터리!
이 소설은 천재 곤충학자의 의문에 싸인 죽음을 풀어 나가는 추리 소설이자, 12년간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개미의 세계를 그려 낸 과학 소설이며, 또한 끊임없이 〈다른 눈으로 세상 보기〉를 요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역설(力說)하고 있는 철학 소설이기도 하다. 세밀한 관찰력과 묘사력, 탁월하고 치밀한 구성,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로 작가는 일약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떠올랐으며, 이 작품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되어 〈팔리시상〉을 수상하였다.

- 1992년 프랑스 팔리시상
- 1992년 프랑스 『과학과 미래』지 독자상
- 1993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1993년 프랑스 『엘르』지 여성 독자상
- 1993년 현대자동차 추천 도서
- 1994년 월간 『책』 선정 〈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 12선〉
- 1994년 여성 편집자 모임 권장 도서
- 1994년 월간 『디자인』 선정 〈1993년 베스트 디자인〉
- 1995년 책 모임 선정 〈가장 잘 기획된 책 9〉
- 2015년 조선일보 선정 〈20년 이상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54
Books

만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29

김수박 그림 | 이세욱, 임호경 옮김 | 각 2010, 2011, 2013년 | 전3권 | 각 208, 216, 216면 | B5 변형 연장정 | 각 14,800원 eBook

『개미』, 『타나토노트』, 『뇌』, 『나무』, 『파피용』, 『신』, 『파라다이스』 등 수많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써낸 상상력의 거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상상력의 원천은 바로 그가 열네 살부터 써온 비밀스러운 노트였다. 베르베르는 그 노트에 스스로 떠올린 영감, 흥미로운 이야기들, 발상과 관점을 뒤집어 놓은 사건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담았고, 그 노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백과사전이 되었다. 다양한 관점, 예상을 뒤엎는 역설, 흥미로운 사실로 가득한 지식의 대향연이 만화로 펼쳐진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76

★1996년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

기욤 아레토스 그림 | 이세욱 옮김 | 1996년 | 248면 | A5 변형 견장정 | 12,800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68

이세욱, 임호경 옮김 | 2011년 | 632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

31

이세욱 옮김 | 2001년 | 272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Jonas Jonasson

요나스 요나손

어느 날 희한한 소설을 들고 나타나 인구 9백만의 나라 스웨덴에서 120만 부 이상 팔리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 문학계를 강타한 작가 요나스 요나손. 대학 졸업 후 평범한 기자로, 미디어 회사 CEO로 살았던 그는 단 한 편의 데뷔작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는 특유의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글쓰기로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확보했다.

1961년 7월 6일 스웨덴 백셰에서 태어난 그는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스웨덴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졸업 후 15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OTW라는 미디어 회사를 설립, 직원 1백 명에 이르는 성공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20여 년간 일해 온 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2007년 스위스 티치노로 이주한 뒤 〈첫 소설에 감히 도전할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한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 온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집필했다. 세계사의 주요 순간마다 〈우연히〉 자리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를 배꼽 잡게 엮어 낸 이 비범한 작품은 2009년 처음 출간되어 스웨덴에서 120만 부, 독일에서 400만 부, 영어권 120만 부, 프랑스 120만 부 등, 모두 합해 1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작품은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 45개국에 판권이 팔리며 성공을 거뒀다.
그의 두 번째 소설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도 출간 6개월 만에 26개국에 판권이 팔리고 판매 부수가 150만 부를 돌파했다. 비범한 두뇌를 가진 까막눈이 여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보들〉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종횡무진하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하고도 불합리한 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은근하고도 통렬한 풍자를 보여 준다. 세 번째 소설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 판권 계약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TV 드라마로도 각색되었다. 엉뚱한 살인범, 여자 목사, 싸구려 호텔 리셉셔니스트가 만나 펼치는 대활약상을 그린다. 다시 돌아온 백 한 살 노인 알란 칼손의 새로운 만남과 모험을 그린 네 번째 소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역시 발표 즉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며 〈요나손 열풍〉을 이었다. 요나손이 쓴 네 편의 소설은 전 세계에서 1천6백만 부 이상이 팔렸다. 현재 그는 스웨덴의 섬 고틀란드에 정착해 아들과 함께 닭을 키우며 목가적인 삶을 살고 있다.

Interview

요나스 요나손 인터뷰

스웨덴 고틀란드섬 후미진 곳에 있는 농장. 47세에 데뷔작을 내고, 이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요나스 요나손의 농장이다.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은 그는 농장 일에 바쁘고, 그 뒤로 데뷔작의 성공 이후 야심 차게 구입했다는 1969년식 빨간색 볼보 트랙터도 보인다. 산딸기 덤불로 둘러싸인 집 주변에는 닭과 병아리 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바쁜 그의 뒤를 쫓아다니며 인터뷰를 시도했다.

〈요나스 요나손〉은 본명인가?

본명은 〈페르올라 요나손〉인데, 발음이 어렵다.

고틀란드섬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운지?

100퍼센트!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쓴다. 이웃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 아무도 나를 특별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내가 꿈꿔 온 완벽한 삶이다.

데뷔작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알았나?

그럴 리가. 내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오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매일매일 놀란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그 긴 제목은 아주 오래전에 생각해 둔 거였다.
나도 그 얘기가 궁금했다.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를 만들어 갔지. 20세기 전체를 안내하려면 주인공이 나이를 좀 잡수실 필요가 있더라. 그 노인네랑 처음엔 좀 서먹했지만, 지금은 아주 친해졌다.

그럼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는 또 어디서 튀어나왔지?

처음엔 만델라 때문에 남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소웨토라는 좁은 땅에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대량 살상 무기 제조라는 멍청한 아이디어가 들어선 것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평범치 않다.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주인공들은 작품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절대 내가 처음에 설정한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모습이 바뀐다. 두 작품 모두 쓰고 나니 주인공들이 그 모양이 됐더라.

당신 작품에서 유머를 빼놓을 수 없다. 심각한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유머와 풍자는 나의 도구다! 심각한 사태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책을 계속 읽어 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은?

회사를 팔고 스위스에서 1백 살 먹은 노인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직업을 물어봤다. 그래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잘나가던 회사를 왜 팔아 치웠나?

일주일에 7일,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20년을 일했다. 제대로 살기 위해 관뒀다.

왜 글을 쓰나?

오, 나도 가끔 같은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는데.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독자들이 내 작품을 읽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만 한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순 없다.

왜 이리 늦게 데뷔했는지?

내가 20대에 데뷔했더라면 밀란 쿤데라,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등이 섞인 어쭙잖은 글밖에 못 썼을 거다. 47년쯤 살아야 뭔가를 제대로 쓰지!

데뷔 전에도 항상 글을 썼다던데 어떤 글이었는지?

늘 바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에 마구 써댔다. 내용은…… 묻지 말아 달라…….

실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쓸 때 부담감은 없었나?

당연히 있었다. 늘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답은 늘 한 가지였다. 〈이미 썼는데, 뭐!〉

Map

100세 노인 알란의 여정

윅스홀트 ▶ 아라곤 ▶ 리스본 ▶ 로스앨러모스 ▶ 이빈 ▶ 로스앤젤레스 ▶ 테헤란 ▶ 런던 ▶ 모스크바 ▶ 블라디보스토크 ▶ 평양 ▶ 발리 ▶ 파리 ▶ 모스크바 ▶ 스톡홀름

101세 노인 알란의 여정

발리 ▶ 평양 ▶ 뉴욕 ▶ 메르스타 ▶ 슈투트가르트 ▶ 에스킬스투나 ▶ 코펜하겐 ▶ 다르에스살람 ▶ 세렝게티 ▶ 키코로크

Interview

요나스 요나손 인터뷰

내가 탄 택시가 스웨덴 벽지인 고틀란드섬에 있는 그의 집에 들어가고 있을 때, 요나스 요나손은 번들거리는 오렌지색 부츠를 신고서 저녁 식사에서 남은 음식을 꼬꼬댁거리는 닭들에게 뿌려 주고 있었다. 2년 전 고단한 삶과 〈비극적인 이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것을 느낀 51세의 요나손은 다섯 살배기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다. 단 2년 만에 3백만 부가 팔린 코믹한 소설로 유럽을 휩쓸고, 다음 주부터 영국의 서점가까지 강타하게 될 작가를 만날 법한 곳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만난 것은 닭들이 아니라, 그의 상상력 넘치고 배꼽 잡게 하는 베스트셀러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소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휩쓴 책치고는 영국에서 출판사를 찾는 데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국에서는 가을에 출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북유럽 픽션은 스티그 라르손의 음울한 스릴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온 TV 탐정 시리즈 「킬링」과 「발란데르」 같은 어둡고도 무거운 것들이 주종을 이뤘지만, 요나손의 소설은 이를 보다 밝고도 가벼운 쪽으로 옮겨 놓았다. 요나손은 자신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47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주인공 알란 칼손은 침울하거나 자살 성향이 있기보다는 낙천적이고도 초(超)윤리적인 인물로, 그 누구도 나쁘게 보지 않는, 일종의 1백 살 먹은 포레스트 검프라 할 수 있다.
소설은 이 노인이 양로원에서 그의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에서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기어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떤 범죄 조직의 돈이 가득한 트렁크를 훔치게 되고 조폭들에게 쫓기게 된다. 그의 주위에는 코끼리 한 마리를 포함한 잡다한 무리들이 모여들고, 일련의 플래시백이 20세기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끼어들게 된 그의 삶을 보여 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독재자들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의 목숨까지 구해 주었는지 들려준다.

인간의 결점에 대한 기막힌 풍자인 이 책은 지금까지 3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20개의 영화사가 이 소설을 영화화하려고 싸움을 벌였다. 그 중 NICE FLX 픽처스라는 스웨덴 영화사가 승리했고, 스웨덴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로베르트 구스타프손이 알란 역을 연기했다. 디즈니가 배급에 관여한 이 영화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요나손은 알란이 자신의 한 면을 과장하여 태어난 캐릭터이며, 그가 자신의 분신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내가 젊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는 알란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그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내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요나손은 요즘도 기분이 처질 때마다 그를 생각하곤 한단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가 내 어깨 위에 나타나서는 〈힘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곤 해요.」
그는 여러 차례 알란이 필요했고, 특히나 그 자신의 창문에 기어올라 삶을 완전히 바꿨을 때에 그랬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1850년에 지어진 그의 멋진 집 안으로 들어왔다. 홀에는 최근에 여러 마리의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온 커다란 인공 부화기가 하나 있다. 그는 녀석들을 자기 가족으로 여긴다. 「내게는 어른 닭 여섯 마리, 10대 닭 일곱 마리, 그리고 병아리 열한 마리가 있어요.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고, 어떤 녀석들은 내 침대에서 잠을 자요.」 「아, 혹시 침대를 더럽히진 않나요?」 「물론이죠.」 그는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더럽혀도 아주 조금만 더럽히죠.」 혹시 부주의로 깔아뭉갠 적은 없는지? 「천만에요! 나는 항상 한쪽 눈을 뜨고 자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하고 함께 잘 때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제 아주 깨끗한 (그리고 닭이 없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에는 원목 마루, 보드라운 옥색 천을 씌운 소파, 그리고 창턱에 놓인 흰색과 핑크색의 제라늄 화분들이 보였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조그만 티백 형태의 스누스 코담배 두 개를 윗입술에 올려놓는다. 「스웨덴에선 다들 이걸 사용해요.」 그가 설명한다. 그는 괜찮은 영어를 구사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노트북에 도움을 청한다.

요나손은 스웨덴 남부의 도시 벡셰에서 3형제 중 막내로 자라났다.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구급차 운전사였다. 항상 글쓰기를 좋아했던 요나손은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스웨덴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스웨덴 최대 일간지 『엑스프레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신문사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어느 모로 보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는 1994년, 15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창문을 넘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난 내가 무얼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는 미디어 컨설턴트가 되었고, 1년 후에는 스웨덴 민영 방송 중 하나인 TV4에 프로듀서로 들어간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그의 미디어 회사는 1백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한다.
「나는 20년 동안 일주일에 7일 일하고, 하루에 적어도 16시간씩 일했어요. 이따금 여자 친구를 사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과 결혼했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나중에 책에 넣을 생각으로 이따금 몇 페이지씩 쓰기도 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을 주었죠.」

2003년 말까지 그는 디스크 수술을 두 번 받았고, 늘 〈끔찍한 기분〉 속에서 살았다. 어느 날 인터뷰를 논의하려 했던 어떤 스포츠 스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고, 그는 심장 마비가 왔다고 생각했다.
「의사는 심장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난 스트레스로 나 자신을 죽여 가고 있었어요.」
그는 일을 멈췄다. 「회복에 몇 달이 걸릴 거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몇 년이 걸렸어요.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몇 달 동안 너무나 불안하고 지친 나머지 주방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난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2005년에 그는 그의 고양이 몰로토프와 함께 스웨덴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쇠데르만란드의 벽지로 이사했다.
「난 내 회사를 약 1천만 유로에 팔았어요. 그 많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죠. 회사 매각은 내게 자유를 주었어요. 2년 동안 자유롭게 살다 보니 훨씬 상태가 나아졌죠.

그는 스위스에서 글쓰기를 진지하게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더러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드디어 작가가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글쓰기는 내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걸 도와주었어요. 탈고한 나는 원고를 스웨덴 출판사 여섯 군데에 보냈죠. 다섯 출판사는 돌려보냈는데, 여섯 번째 출판사는 전화를 걸어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밖에 읽지 않았지만, 출간하고 싶어요!〉 난 대답했죠. 〈반만 출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출간하겠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쓰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그 전에는 내 글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 소설의 상당 부분이 세계의 대통령들과 총리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20년 전에 나는 — 예를 들면 —

처칠의 사고방식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머릿속에 잠시 들어가 지냈던 다른 지도자들 중에는 트루먼 대통령, 마오쩌둥, 프랑코 장군과 드골 등이 있다.
「난 쓰면서도 〈정말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라고 자문했고, 〈그냥 해버려〉라고 대답했죠.」
「자료 조사는 어렵지 않았어요. 난 늘 현대사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난 많은 20세기의 괴물들을 집어넣었지만, 히틀러는 아니었어요. 비록 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농담을 할 수 있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지만, 홀로코스트만큼은 풍자할 수 없었어요. 난 인류의 결점들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는 풍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두 번째 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점심시간이었다. 우리가 앉아서 그라블락스(연어를 허브와 함께 염장한 스웨덴 음식)와 집에서 재배한 아스파라거스를 먹고 있는 동안 소포가 도착했다. 곧 출간될 이 책의 영역본들로 채워진 봉투들이 여럿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는 포장을 하나하나 뜯으며 웃었다. 그의 소설처럼 말이다.

앤절라 레빈, 임호경 옮김, 『텔레그래프』, 2012.7.9.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

8

임호경 옮김 | 2021년 | 524면 | B6 연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특유의 능청스러운 입담과 유쾌한 풍자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요나스 요나손의 다섯 번째 소설. 빅토르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미술품 거래인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한다. 또 창녀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케빈을 죽이려고 케냐 사바나에 데리고 가서 버린다. 케빈은 원주민 치유사 올레 음바티안의 구조를 받아 마사이 전사로 거듭나지만, 성인식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에 기겁하여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다. 우연히 빅토르의 전 아내 엔뉘를 만나게 된 케빈.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복수를 꿈꾸는데,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복수를 대행하는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의 CEO 후고이다. 후고는 양아들을 찾아 사바나에서 스톡홀름으로 건너온 올레 음바티안과 함께 두 사람을 위한 복수를 계획하는데…….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는 복수극과 물고 물리는 그림 쟁탈전을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유머러스한 통찰이 펼쳐진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11

임호경 옮김 | 2019년 | 528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돌아왔다! 백 살 생일날 양로원 창문을 넘어 도망쳤던 알란이 이번에는 백 한 살 생일날 열기구를 탔다가 조난당하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알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낙원과도 같은 섬에서 무위도식하는 데 만족했겠지만, 알란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101세 생일이 다가오고, 친구 율리우스는 생일 파티를 위해 거대한 열기구를 준비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바람과 조작 미숙, 기계 고장 때문에 알란과 율리우스는 망망대해에 불시착하고 만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조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들을 보고 구조하러 오지만 그 배는 농축 우라늄을 몰래 운반하고 있던 북한 화물선이었다. 알란은 화물선 선장에게 자신이 핵무기 전문가라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

10

임호경 옮김 | 2016년 | 456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세상을 술렁이게 한 킬러와 두 친구의 기막힌 세 가지 사업!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7호실의 사내. 수상한 두 친구와 어울리더니, 아뿔싸!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인생들〉이 들려주는 요지경 세상 속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엉뚱한 살인범, 여자 목사, 싸구려 호텔 리셉셔니스트가 만나 펼치는 대활약상을 그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주인공들과 이를 뒤쫓는 악당들이 일으키는 일대 소동은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동시에, 세태의 단면을 예리하게 도려낸 작가의 시선을 통해 오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요나손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입담과 유쾌한 풍자의 힘을 또 한 번 아낌없이 보여 준다.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28

임호경 옮김 | 2014년 | 544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1961년,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에 만들어진 흑인 빈민촌 〈소웨토〉의 콩알만 한 판잣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아이의 이름은 놈베코. 아버지는 그녀가 수정되자마자(!) 사라졌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법의 하얀 가루로 잊어 보려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떴다. 놈베코는 다섯 살 때부터 공동변소에서 똥을 치우며 생계를 이어야 했다. 그녀 또한 빈민촌의 여느 주민들처럼 까막눈이었지만 〈셈을 할 줄 아는 능력〉, 즉 수(數)에 대한 감각과 세상만사를 영리하게 따져 보는 능력만은 타고났다. 비천한 태생이지만 두뇌만은 비범했던 한 여인이 〈바보들〉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종횡무진하는 여정이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필체로 그려진다. 요나손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하고도 불합리한 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은근하고도 통렬한 풍자를 보여 주는 한편,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십분 발휘해 독자들을 배꼽 잡게 만든다. 스웨덴과 남아공을 배경으로 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신나게 읽다 보면, 깔깔거리며 웃음이 터지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요나손의 예리한 시선에 감탄하게 된다.

- 2014년 7~8월 종합 베스트셀러
- 2014년 NPR 선정 〈올해의 책〉
- 2015년 교보문고 책벌레 회원 추천 〈올해의 책〉
- 전 세계 베스트셀러 200만 부 이상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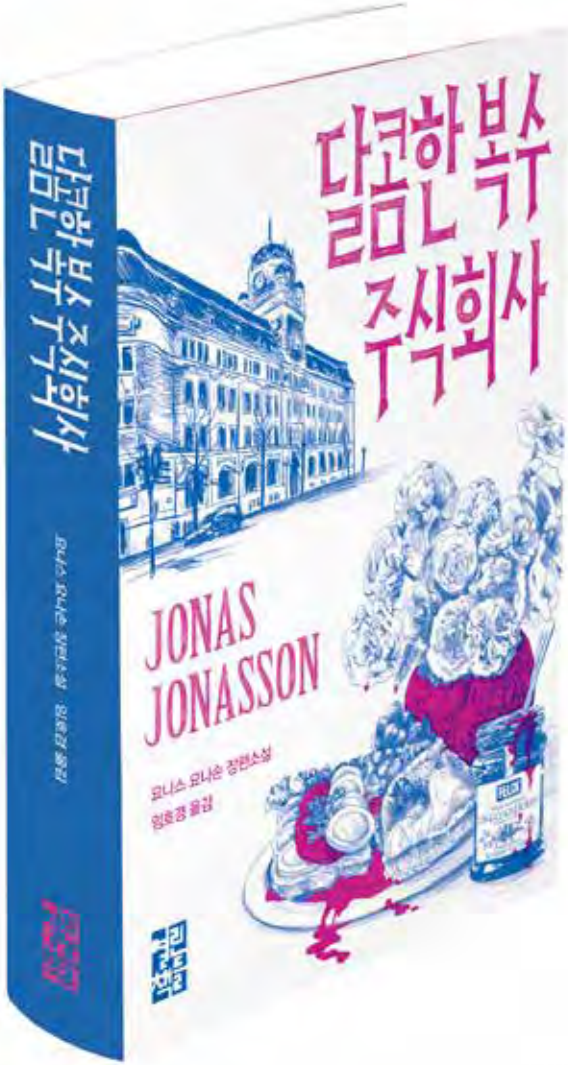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56

임호경 옮김 | 2013년 | 512면 | B6 연장정 | 16,800원 eBook | audio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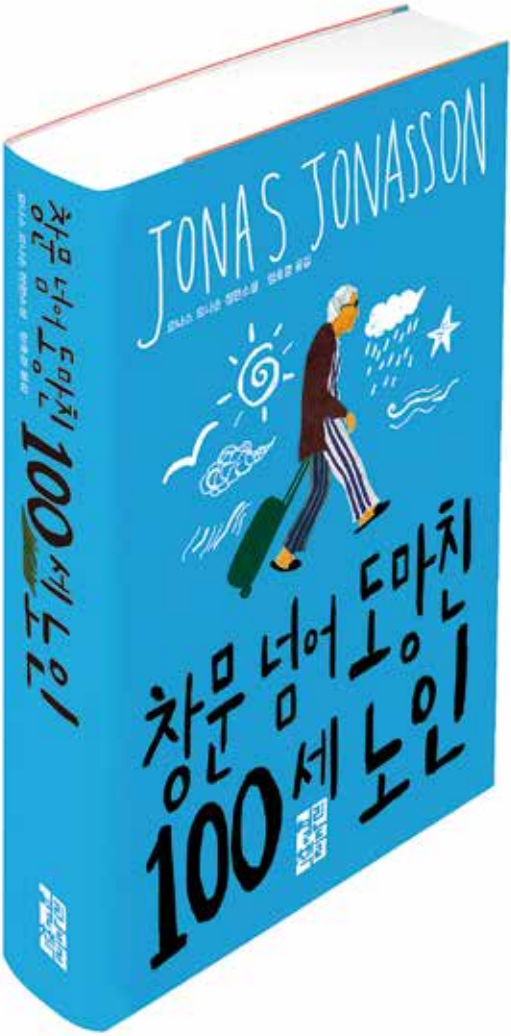
1905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살아온 백 년의 세월을 코믹하고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제 막 백 세가 된 노인 알란이 백 번째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사건과 그가 지난 백 년간 살아온 인생 역정, 두 줄기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백 살 생일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백 년의 세계사가 교차하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코믹 미스터리 로드 무비와 세계사 다이제스트를 동시에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급변하는 현대사의 주요 장면마다 본의 아니게 끼어들어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주인공의 활약은 독자로 하여금 역사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계속되는 우연과 과장스러운 설정이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쉴 새 없이 터지는 웃음 속에서도 어느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지,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하게 되는, 가볍게 읽히지만 여운은 묵직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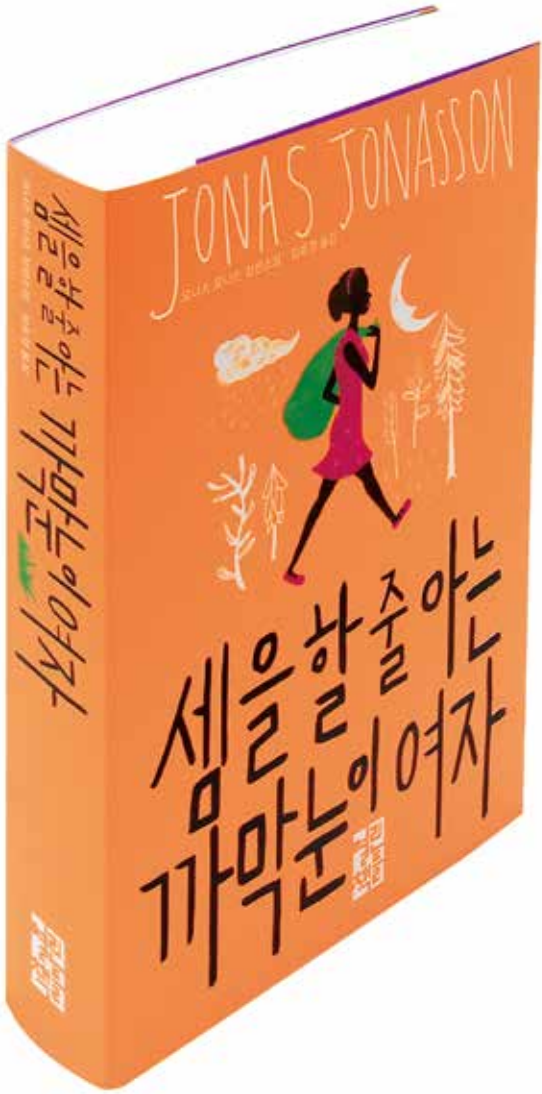
- 2010년 스웨덴 베스트셀러상
- 2011년 독일 M-피오니어상
- 2011년 덴마크 오디오북상
- 2012년 독일 『부흐마크트』 선정 최고의 작가 1위
- 2012년 프랑스 에스카파드상
- 2014년 7~8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7주 연속)
- 2014년 YES24 예스 블로거 선정 〈올해의 책〉
- 2014년 인터파크 독자 선정 〈골든 북 어워드〉
- 2015년 교보문고 지식인 선정 〈올해의 책〉
- 2015년 11월, YES24 집계, 2014년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천만 부 이상 판매



5
Books

01
열린책들의 작가들


JONAS JONASSON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5
Books

01
열린책들의 작가들

Jonas Jonasson

Umberto Eco

움베르토 에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움베르토 에코가 2016년 2월 19일, 2년간의 투병 끝에 췌장암으로 밀라노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현재는 박물관)에서 마랭 마레와 코렐리의 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장례식을 거행했고,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1932년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에코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토리노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중세 철학과 문학으로 전공을 선회, 1954년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 논문으로 문학 비평과 기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40세 중반이 되었을 무렵, 에코는 현대 사회의 세기말적 위기를 소설로 그려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년 반에 걸쳐 『장미의 이름』을 썼다. 중세의 한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추리 소설 『장미의 이름』은 1980년 이탈리아에서 출간 1년 만에 50만 부가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작품은 모든 유럽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두 번째 소설 『푸코의 진자』는 1988년 가을 이탈리아에서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찬사와 교황청의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장편소설로는 『전날의 섬』(1994), 『바우돌리노』(2000),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2004), 이탈리아에서 『장미의 이름』의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베스트셀러가 된 『프라하의 묘지』(2010)가 있으며 2015년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소설 『제0호』를 출간했다.
유럽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상징과 사실, 개념은 물론 현대 만화 주인공까지 총동원되는 에코의 소설들은 기호학자인 에코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준다. 작품이 난해해 때로 독자의 불평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독특한 〈에코적〉 서술은 독자에게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지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
동화 『폭탄과 장군』, 『세 우주 비행사』, 그 외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의 문제』, 『일반 기호학 이론』, 『논문 잘 쓰는 방법』,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해석의 한계』, 『이야기 속의 독자』, 『구조의 부재』, 『작가와 텍스트 사이』, 『중세의 미학』, 『하버드에서 한 문학 강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신문이 살아남는 방법』, 『책의 우주』, 『궁극의 리스트』, 『미의 역사』, 『추의 역사』, 『가재걸음』, 『에코의 위대한 강연』 등 이론서와 비평 에세이를 남겼다.

Interview

움베르토 에코 인터뷰

〈나는 실제로는 아주 회의적인 사람이지만 음모론과 편집증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 때로는 플로베르가 한 말, 《보바리 부인은 나다》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편집자, 카발라주의자, 성전 기사단 연구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술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이들은 움베르토 에코의 방대한 오컬트 장편소설 『푸코의 진자』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권태, 절망감, 삶의 지겨움 등으로 인해 실패한 혹은 실패 중인 지식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아 온 다양한 음모론, 도시 전설, 초자연적인 귀신 이야기 등을 아주 냉소적 자세로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즐거운 활동은 한동안 계속된다. 내가 여기서 〈냉소적〉이라고 한 것은 이 연구 조사원들이 비록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연구 작업에서 초자연적 설계 같은 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조사에 나선 초창기에는 그러하다. 그렇지만 그들이 냉소적인 연구 작업을 통하여 성전 기사단, 일루미나티, 장미 십자회, 다른 유명한 컬트나 역사적 음모꾼 등의 신화를 종합하면서 구축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은밀한 역사 바로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 사상, 음모, 아찔하고 괴이한 사건 등이 마구 뒤섞인 잡탕이 에코 문학의 진면목이다. 그의 문학 세계에서는, 하늘을 찌르는 야망이 종종 등장인물들의 실패한 인생과 뒤섞이는가 하면, 논리 정연한 합리주의는 느닷없이 저속한 신비주의로 추락하기도 한다. 위가 아래가 되고 검정이 하양이 되면서, 모든 게 등받이 없는 술집 의자에 앉은 이야기꾼들이 자기 입맛대로 얘기를 지어내는 밑 자료가 된다. 이런 양극단 사이의 긴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 버릴 것 같은 이야기에 대한 매혹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피에몬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던 때에도 이미 존재했었다고 에코는 말한다. 그 당시 그는 파시스트들이 장악한 그 지역 학교를 땡땡이치고서 집 안에 틀어박혀 좋아하는 만화와 소설에 탐닉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한다. 에코는 토리노 대학교에서 중세 철학을 전공했고 그 후 여러 해 동안 볼로냐 대학교에서 기호학 강의로 이름을 드날리던 저명한 교수였다. 그는 반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필가로서 미디어 문화와

문학에 대하여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러 왔다. 그는 문화적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의 관심사 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영역의 사물을 서로 짝 지우면서 대중문화와 고급 철학을 종합해 왔다. 그가 그 작업을 해내는 방식은 이제는 우리 시대의 보편 언어로 당연시되고 있지만, 에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 생각해 보라. 애플 컴퓨터를 가톨릭이라는 종교로 규정하고 IBM 컴퓨터를 개신교로 규정하는 방식을. 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적·윤리적 영향을 파헤치는 기발한 관점을.

에코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 소설 『장미의 이름』은 살인을 다룬 미스터리 소설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진수요 걸작이다. 중세 시대의 산간벽지에 자리 잡은 베네딕트 수도원을 무대로 설정한 이 소설은 에코가 48세이던 1980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되었다. 그가 흠모하는 작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영향이 크게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이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에게 바친 많은 오마주는 일일이 다 거명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아무튼 『장미의 이름』은 아주 원숙하고 노련미 물씬 풍기는 작품으로, 이미 20세기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또 출간 몇 년 뒤에는 숀 코너리와 당시엔 유명 배우가 아니었던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출연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1989년에는 1급 음모론 소설인 『푸코의 진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내가 가까이에 두고서 언제나 꺼내 보는 애독서의 하나이다. 이 책이 내게 미친 영향은 너무 크고 포괄적이어서 오컬트, 비밀 결사, 인생의 비밀에 대한 탐구, 뭐 이런 주제에 매혹당한 계기가 이 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그토록 깊이 사랑함은 내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주 시의적절하게도 에코는 그가 『푸코의 진자』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던 저 이야기꾼의 실력을 2005년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에서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이 소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려는 건망증 환자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도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찾아 나선 자의 고단함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 내고 있다.

에코의 최신작 『제0호』는 그의 84회 생일 몇 달 전에 미국 내 서점에 깔려서 판매되고 있다. 이 소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인생의 고뇌를 다루고 있다. 실패한 신문 기자가 이탈리아 정계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비밀 결사의 소문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 또한 내가 좋아하는 주제이다. 6월에 나는 밀라노에 있는 미궁 같은 에코의 자택 — 그는 5만 권 이상의 책으로 둘러싸인 자택에서 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을 방문하여 이런 주제가 그의 창작 활동에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았다.

크리스 월리스 지난달에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 저는 『푸코의 진자』의 등장인물들처럼 그들이 조사 작업을 하는 출판사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 다 웃음)

움베르토 에코 그런 출판사는 없지요. 내가 그 거리를 지어냈습니다.

월리스 『제0호』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지식이 늘면 늘수록, 그에게는 잘못 돌아가는 일들도 자꾸 늘어간다는 것이다.〉 콜론나는 너무 자성(自省)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종류의 불안을 갖고 있지요. 그는 농담조로 자신이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아나』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의 연결 실인데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적인 생활, 읽기 위주의 생활은 실제 생활을 희생시켜서 얻어진다는 거지요.

에코 그렇습니다. 콜론나의 경우, 인생에서 완전 실패한 인물을 그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실제 생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개인적·문학적 판타지에 깊이 파고들지요. 당신의 질문을 받으니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어쩌면 『푸코의 진자』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현실 생활은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지적 판타지에 매몰된 한 무리의 지식인일 수도 있어요.

월리스 정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나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내 문제는 아니로군요! (둘 다 웃음) 나는 음모론과 편집증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한편, 실제로는 아주 회의적인 인물입니다. 나는 평생 정치적 문제들과 씨름해 왔으니 현실 생활을 제대로 대면한 거지요. 때로는 플로베르가 한 말이 틀리는 수도 있어요. 〈보바리 부인은 나다〉 말이에요. 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월리스 실제로 전원에 있는 선생님의 저택은 『푸코의 진자』에서 등장인물들이 드루이드 의식을 거행하는 곳은 아니지요. 『로아나』의 얌보가 자신의 만화책을 소장한 곳도 아니고요. 선생님은 말하자면 이야기를 마음대로 지어내도 좋은 면허를 받은 거지요. 나 같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쓴 모든 것에서 자서전을 읽어 내기 좋아하지만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선생님은 『제0호』에서 신문과 미디어를 조롱하면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평생에 걸친 취미였지요. 그 책의 어떤 지점에서 한 편집자는 다소 수사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신문들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을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세평을

PAGE 055
움베르토 에코

만들어 내는 건가요?〉 이 질문에 내포된 대답은 신문이 우리의 역사 해석 방식을 유도한다는 것이지요.

에코 맞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 해 동안 내부자의 입장에서 신문들에다 각종 기사와 에세이를 기고해 왔습니다. 신문에 대한 비판은 내가 오랫동안 다루어 온 주제였지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도달하자 나는 그것을 장편소설로 바꾸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즐겨 다루었던 문제들 중 하나는 논평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려 하는 신문의 태도입니다. 신문은 모든 사실을 하나의 논평으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확립하지 않고 사실만 덜렁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문이 독자들의 머리에 의견을 주입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반대로 신문은 독자들의 충동이나 욕구를 뒤따라갈 수도 있겠지요. 영국의 석간신문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왕실 기사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건 독자들의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진지한 신문도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거나 생각해야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윌리스 그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종종 글을 쓰는 『레스프레소』가 최근에 기후 변화에 관한 교황의 발언을 누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처럼 사람의 생각과 역사 해석을 기획하려고 하는 것은 『제0호』의 핵심 주제입니다. 논픽션을 포함해서 많은 저작에서, 선생님은 사회가 지속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사실 확인하고, 해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령 『제0호』에서 등장인물 브라가도초가 무솔리니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게 좋은 예시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여백에다 노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는 마치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을 바꾸고 재해석합니다.

에코 나는 음모론을 상상하는 편집증적인 사람들에게 늘 매혹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방식으로 매혹을 느끼지요. 『푸코의 진자』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이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나는 댄 브라운이 『푸코의 진자』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지요. (웃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화적 편집증에 반대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우리가 늘 역사를 다시 쓴다는 당신의 말은 맞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과거를 해석하면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있고, 또한

푸코의 진자
[1]
푸코의 진자 [1]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내 작품의 등장인물들 얘기일 뿐입니다. (둘 다 웃음) 나는 역사를 올바른 방식으로 기술하려고 애씁니다.

월리스 왜 우리가 그런 음모론의 마법에 빠져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한 시대의 노이로제가 그것을 특별히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듯합니다만.

에코 그렇지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종류의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60년 혹은 70년 전에 위대한 철학자인 칼 포퍼는 음모론에 대한 개척자적 논문을 썼는데, 음모 이론은 책임 회피의 알맞은 수단으로 언제나 딱 알맞게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책임도 회피하려는 아주 중증의 사회적 질병이라는 진단이지요. 아주 바보 같지만 간단한 사례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 전 토요일 오후에 차를 가지고 나가 고속 도로를 탔습니다. 그런데 교통 체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교통 체증은 누구 책임이야?〉 책임자가 뭐 따로 있나요? 토요일 오후에 차를 가지고 고속 도로에 들어선 나와 그 밖의 나와 비슷한 바보들이 책임자지. 그렇지만 나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제3자를 만들어 냅니다. 음모꾼과 음모론은 가짜 뉴스의 레퍼토리 중 일부입니다. 나는 이론서든 장편소설이든 나의 저서에서 이런 가짜 뉴스의 생산 과정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재에다 모아 놓고 있는 희귀한 책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들뿐입니다. (둘 다 웃음) 그러니까 가짜를 다룬 책들이지요.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갈릴레오의 책은 별로 재미가 없고 가짜를 말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이 더 흥미진진한 겁니다. 나는 늘 가짜와 위조에 흥미를 느꼈는데 철학자로서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확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가짜를 확정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짜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진실의 편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철학적 진술이 되는 것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지요.

월리스 선생님은 아름다움도 그런 식으로 묘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보다는 추악한 것을 묘사하기가 더 쉽다고 했지요.

에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추악한 것이 아름다움보다는 지어내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둘 다 웃음) 아름다움은 언제나 뚜렷한 진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움보다는 추함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스 내가 보기에,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음모에 책임이 있고 배후에서 음모를 조종하는 비밀 결사들은 아주 매력적인 조직입니다. 가령 보르헤스나 스탠리 큐브릭의 경우에도 그런 비밀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비밀 결사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그룹에 속하고 싶은 동경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동경일 뿐, 실제 생활에서 그런 비밀 결사의 회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에코 들어 보세요. 음모꾼들이나 비밀 결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령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도 비밀 결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생겨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발각이 된다는 겁니다. 카이사르 암살 같은 음모는 성공을 거둔 후에 발각이 되었고, 반면에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음모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발각되었습니다. 비밀 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리초 젤리 씨가 지휘하는 일종의 비밀 결사가 있어서 이탈리아 정계의 여러 가지 사실과 사건들을 배후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게 있지도 않은데 비밀 결사가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빌더버그 그룹(북미와 유럽 출신의 정치·경제·문화 지도자들 모임)과 그들의 연례 총회에 관한 기사와 사이트가 넘쳐 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 지도자들은 서로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일부러 다보스에 몰래 가서 프랑스 대통령과 비밀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전화로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그룹이 세상의 운명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다고 상상합니다. 이처럼 비밀 결사나 음모론을 상상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구야?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우리는 그 배후를 알지 않고서는 행동에 나설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윌리스 그건 허무주의적 운명론이지요. 실제로 비밀 결사가 사람들에게 걸어 대는 술수는 이런 겁니다. 막강한 비밀 결사는 존재한다. 그러니 당신들은 무기력하고 무감정하게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추궁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선생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에코 엄청난 영향을 받았지요. 내게 영향을 미친 두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조이스인데 그에 대해서는 연구서를 펴낸 바도 있지요. 또 하나는 보르헤스인데 아주 존경합니다. 약 10년 전에 스페인에서 나와 보르헤스의 관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지요. 보르헤스의 아내인 마리아 코다마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보르헤스는 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리스 선생님은 아주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기억의 궁전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모두 수납하려면 궁전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과거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기억이 더 많았을 겁니다. 사실 역사의 어떤 시점에 그 당시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에코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지요. 하지만 기억력이 원래 신통치 않았더라도 기억에 대하여 흥미가 많았을 겁니다. 기억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기억을 완전 상실한다면 우리는 영혼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이건 오늘날 내가 주목하는 현상인데 이 기억 상실이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러하지요. 우리 세대는 우리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퀴즈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건 젊은 세대의 기억 범위가 아주 협소하다는 걸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만 기억할 뿐 그 이전의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영원한 현재에 집착하는 저주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인터넷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현재만 보여 주니까. 인터넷도 잘 사용하면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비평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여서, 영원한 현재에 갇혀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언제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19세기에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러시아인과 영국인에 관한 문서들을 모두 읽었더라면 21세기에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지역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문서들을 읽지 않은 게 분명하다. (둘 다 웃음) 우리는 정치 분야에서 이런 기억의 상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심지어 히틀러도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망해 버린 나폴레옹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그처럼 쉽사리 러시아에 쳐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언제나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시대의 주요 질병이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내 손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애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 애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애들이 출생 이전에 벌어진 일에도

미의 역사
STORIA DELLA BELLEZZA
UMBERTO
ECO

관심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기억에 관심을 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희귀본 컬렉션 중에는 소위 기억술을 다룬 오래된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 기억술은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지요.

윌리스 기억을 일종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흥미롭군요. 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들 자신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들의 공적 자아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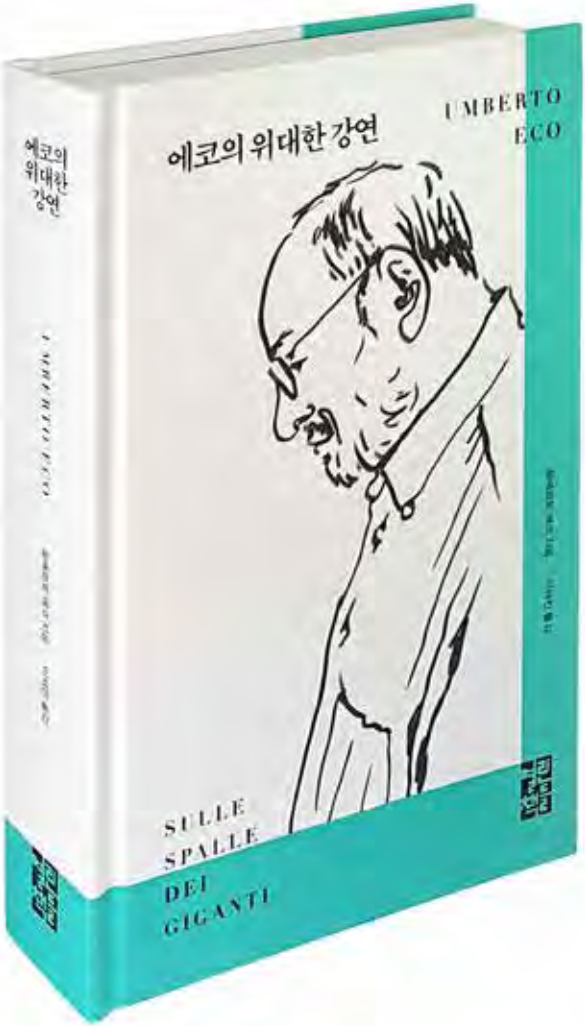
에코 과시한다는 뜻입니까?

윌리스 대략 그런 거지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내보이는 개성은 로고 같은 것, 혹은 아바타라는 얘기지요.

에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학자가 있는데, 유동 사회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했지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상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한번 둘러봅시다. 이탈리아의 거대 정당이었던 기민당과 공산당은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점이 없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출연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거기 나와서 내 마누라가 바람피웠다, 이런 얘기도 드러내 놓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둘 다 웃음) 과거엔 어느 정도 수치심을 느끼며 비밀로 지키던 것들이 이제 모두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가 이런 과시적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뉴스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들의 개인사를 털어놓고,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 주려 하고, 또 다른 개성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정체성의 상실을 은연중 드러내는 거지요.

윌리스 선생님은 온라인이나 트위터를 이용하십니까? 미디어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에코 안 합니다. 나는 신문을 애용하는 구식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열심히 읽습니다. 뉴스나 퀴즈 쇼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기도 하고 때때로 좋은 영화가 방영되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에코의 위대한 강연
UMBERTO ECO
SULLE SPALLE DEI GIGANTI

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 방침은 쓸데없는 메시지를 피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애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트위터와 블로그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거기에다 구축한 것을 살펴볼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자 회견에서 인터넷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일정한 숫자의 천치와 바보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월리스가 웃음을 터트린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을 상대로 혹은 술집에서 한두 잔 걸친 후에 자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들은 온갖 바보 같은 얘기를 지껄이고 상대방은 웃음을 터트린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그들은 인터넷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등장하므로 — 심지어 교황도 트위터에다 글을 쓰지 않는가 — 이제 바보들의 숫자는 엄청 많아졌다. 인터넷의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보를 여과할 것인가, 또 사소하거나 어리석은 것과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나의 이런 발언에 대하여 이탈리아 신문들에서는 난리가 났었지요.

월리스 미국에서 최근에 남부 연합 깃발을 휘날리면서 상징 조작을 한 사건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찰스턴의 교회 내 총격 사건에 반응한 방식 중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 경내에서 휘날리던 남부 연합 깃발을 강제로 내린 것이었지요. 그것은 상징 조작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에코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인종 차별주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순간 수백 명의 아프리카인이 날마다 이탈리아 해안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르네상스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지하에서 활동하는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존재해 왔지요. 그런데 미국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 나라에는 권총이 너무 흔해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 버리면 그는 자기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둘 다 웃음) 교회에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린 그 미국 청년의 경우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그 권총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총기 소지는 미국만의 특별한 문제이지요.

월리스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들 중 하나는 소위 고급문화와 하류 문화를 적절히 혼합할 줄 안다는 점 때문이지요. 가령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화책과 연결시키고 알렉상드르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시키는 식이지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한 페이지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그런데도 아주 그럴듯하게 어울려 들어가지요. 우리 미국인들은 그런 식의 혼합 문화에 솔깃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 내가 1964년에 발간한 책 『종말론자와 순응론자』(에코 마니아 컬렉션 『매스컴과 미학』)의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1년간 지속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수록된 기념 저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대중문화에 관심을 보인 사람 중에서 선두 주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슈퍼맨과 찰리 브라운 같은 대중문화를 주제로 글을 썼지요.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나 그 밖에 덜 중요한 대중 문학에 대해서도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한번은 나이 쉰에 도달하면 현재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인들에 대해서만 글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요. 정작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인들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지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게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간 만화책은 추적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웃음) 나는 대중 문학은 추적하지만 그건 순전히 개인적 즐거움을 위한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나는 추리 소설을 읽습니다. 내가 1960년대에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쓸 때는 고급문화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비평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경악스러운 일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분석하는 기준을 어떻게 슈퍼맨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연구 조사의 품위는 연구 대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나온다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수행했던 작업이었지요. 많은 사람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작품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비평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월리스 선생님은 슈퍼맨이 새로운 형태의 종교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중요한 대중적 신화가 되었습니다. DC와 마블의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움베르토 에코식 해석이었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위해 깃발을 휘두르는 것이 일종의 종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994년에 MAC은 가톨릭이고 IBM은 개신교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모두 컬트가 되었고 우리 나라의 새로운 신성(神性)으로 떠올랐습니다.

에코 그래요, 그래. 어느 시대나 대중 문학이 있었지요. 이런 오래된 로마 민담도 전해 옵니다. 어느 날 로마에서 비극을 공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원형 경기장에서 곰들의 격투기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람객이 비극 구경은 그만두고 곰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둘 다 웃음) 이건 어느 문화나 문명이든 똑같습니다. 나는 그걸 그리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슈퍼히어로를 보러 갑니다. 거기에는 뭔가 있어요. 우리 나라 텔레비전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자기 정치 쇼의 주된 관람객은 12세 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리스 선생님의 모든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는 와인 바, 작은 식당, 술집 등으로 가서 인생과 정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눕니다. 그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런 환경은 언제나 이야기의 씨앗이 풍성한 곳이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매혹을 느끼고 도취합니다. 사랑에 빠지고, 유대 관계를 맺고, 농담을 건네고,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실제 생활 그대로입니까? 오늘날에도 퇴근 후에 학생이나 동료들과 함께 술집을 찾아가 와인을 마시며 청바지, 정치, 우주의 은밀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까?

에코 그건 정말 중요한 일과지요. 하지만 요사이는 다이어트 때문에 점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볼로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볼로냐는 아케이드로 유명해진 유서 깊은 도시이기 때문이지요. 아케이드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비 오는 날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아케이드 아래에는 많은 식당과 바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는 것처럼 학생들도 거기에 갑니다. 나는 내 제자들의 박사 논문에서 다른 학생들이 거의 완료한 다른 박사 논문을 인용한 각주를 발견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식당과 술집에서 학생들이 사상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뜻이니까요. 중세 시대에 유럽 대학들의 건립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술집에 다니던 시절에는 바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대부분은 술집에서 이루어졌지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에 가지 않고 그 대신 밤새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월리스 그렇지요. (둘 다 웃음)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선생님의 책을 읽을 때만 빼고.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에서 어김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물방울의 상태 말입니다. 그건 합리적 논리와 상징의 힘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데 일종의 마술이지요. 선생님의 모든 등장인물은 정체성을 찾아 나서고, 내면적 의미를 추적하고, 이 두 세계, 합리와 마술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그건 선생님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것입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추적합니까?

에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온종일 그것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웃음) 내가 신문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할 때, 쉴 새 없이 그렇게 하지요. 롤랑 바르트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호 전문가 혹은 그 당시 명칭으로 〈기호학자〉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곳에서 의미를 보는 사람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자세이지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좀 덜 중요한 것들에게도. 사소한 것들에서도 존재 증명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훨씬 중요한 문제들에서도 의미를 파악한다. 뭐라고 할까, 직업이 철학자인 사람은 사소한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가리지 않고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걸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해내는 사람이지요. 그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두 사람 웃음)

크리스 월리스, 이종인 옮김, 『인터뷰』 매거진, 2015.11.2.

Tree 에코의 나무

칸트와 오리너구리
언어와 광기
이야기 속의 독자
기호학과 언어 철학
해석의 한계
번역한다는 것
기호: 개념과 역사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일반 기호학 이론
하버드에서 한 문학 강의
구조의 부재
문학이론
기호학과 언어학
미의 역사
매스컴과 미학
전설의 땅 이야기
추의 역사
중세의 미학
예술과 광고
궁극의 리스트
열린 작품
미학과 예술사
논문 잘 쓰는 방법

제0호
프라하의 묘지
푸코의 진자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
바우돌리노
전날의 섬
명문대학
환상과 추억
장미의 이름
나는 독자를 위해 글을 쓴다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
작가와 텍스트 사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책의 우주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
애석하지만 출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유머와 책
에세이
문학과 저널리즘
가짜 전쟁
적을 만들다
에코의 위대한 강연
가재걸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신문이 살아남는 방법
거짓말의 전략
언어

에코의 위대한 강연

3

움베르토 에코| 이세진 옮김 | 2022년 | 496면 | A5변형 견장정 | 28,000원 **ebook**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여기는 행위들이, 옛것과 각을 세우고 고전을 되살리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임을 보여 준다. 아들을 바치라는 신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 히틀러가 그린 정물화의 추함, 거짓말에 관한 칸트의 어리석은 말, 보잘것없는 음악에 대한 프루스트의 예찬 등 에코는 특유의 익살과 통찰력으로 고전을 읽어 낸다. 고대와 중세를 넘어 근대와 현대까지,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가, 그들의 작품을 유쾌한 에코와 함께 만난다.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7

박종대 옮김 | 2021년 | 320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움베르토 에코 유작 에세이. 에코는 2016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책은 사망 직후에 이탈리아에서 출간되었다. 에코는 잡지 『레스프레소』에 수십 년 동안 〈미네르바 성냥갑〉이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칼럼을 써왔다. 그중에서도 2000년부터 타계 전까지 가장 최신의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0호

6

이세욱 옮김 | 2018년 | 336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2015년 출간된,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소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저널리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1992년, 실제 이탈리아에서 전무후무한 정치 스캔들이 터지며 대대적인 부패 청산의 물결이 일던 시기를 배경으로 무솔리니의 죽음에 관한 또 하나의 음모론을 다룬다. 일찍이 『푸코의 진자』, 『프라하의 묘지』 등에서 다뤘듯 대중의 망상에 오랜 시간 흥미를 가져온 에코는 저널리즘의 편집증을 목록화해 펼쳐 보인다.

● 2018년 11월 종합 베스트셀러

전설의 땅 이야기

오숙은 옮김 | 2015년 | 480면 | B5 견장정 | 55,000원

에코 앤솔로지 시리즈의 네 번째 책. 에덴동산, 아틀란티스, 엘도라도, 성배의 이동 경로, 지구의 내부, 그리고 런던 베이커 가의 셜록 홈즈 탐정 사무소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전설 속 땅과 장소로 독자들을 안내하는 한 편의 여행기다. 여기서 소개되는 장소들은 각각 인류 문화의 역사에서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 이 믿음의 원천과 환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를 통해 비록 이제는 사라져 버린, 혹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땅이지만, 그 장소들과 관련되어 파생된 이야기들이 여전히 현실에서 명징한 모습으로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한다.

적을 만들다

5

김희정 옮김 | 2014년 | 320면 | A5 견장정 | 17,000원 **eBook**

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치체계를 측정하고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방해물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 인종 차별, 국가 대립, 여성 비하 등은 인류가 오랜 기간 적을 설정하고 그에 대응하며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 책을 통해 적에 대한 본능적 욕망과 거기서 느끼는 비극적 씁쓸함 사이의 모순을 움베르토 에코는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엿볼 수 있다. 학식, 재치, 열정이 한데 버무려진 이 칼럼 모음집은 에코의 저작 활동에 커다란 방점을 찍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도발적인 주제에 대한 일갈은 거침없고 쓴웃음의 맥락은 너무도 명확하고 강한 전염성을 띤다.

프라하의 묘지

11

이세욱 옮김 | 2013년 | 전2권 | 각 416, 392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정교한 날조는 진실보다 위력적이다. 음모론에 관한, 가장 음모론적인 소설.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문서 〈프로토콜〉의 탄생 과정을 그렸다. 에코의 표현처럼 〈세계 문학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주인공〉인 위작자 시모니니의 술회로 이루어져 있다. 음모의 심장이 음모를 정당화하는 서사 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빌려 갖가지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노출시킴으로써 전 유럽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인물과 사건은 물론 심지어 식당의 메뉴까지 철저하게 고증해 19세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위에 허구를 섞고, 당시 유행했던 대중 연재소설의 문장을 녹여 넣은 문체를 구현함으로써 마치 당대를 직접 대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작품을 통틀어 허구적 인물은 주인공 시모니니 한 명뿐이라는 사실에서 박람강기한 학자이자 정교한 상상력의 작가 에코의 기량을 실감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출간 직후 65만 부, 스페인어판은 초판만 200만 부를 인쇄하는 등 전 유럽을 석권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가재걸음

4

김희정 옮김 | 2012년 | 456면 | A5신 연장정 | 18,000원 **eBook**

무엇이 세계를 열전과 미디어 포퓰리즘의 시대로 이끌었으며, 그것을 진보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에코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21세기가 만들어 낸 장밋빛 미래상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일 뿐, 오히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가재걸음 치고 있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쇼부터 테러리즘, 해리 포터, 다민족 사회, 신보수주의, 미인 대회, 휴대 전화 예절,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치가들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신화와 편견에 대한 예리하고 깊이 있는 분석은 에코가 가지고 있는 예의 전방위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책의 우주

7

움베르토 에코, 장클로드 카리에르 | 임호경 옮김 | 2011년 | 384면 | B6 연장정 | 14,000원 **eBook**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지성, 움베르토 에코와 장클로드 카리에르가 책을 들고 마주 앉았다. 지독한 애서가이며 구텐베르크 성서 초판본을 손에 넣는 게 여생의 꿈이라는 두 사람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전하고 있는 책의 가치를 되짚고, 파피루스에서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책의 흥망성쇠를 논하는가 하면 미래의 책, 책의 미래를 점치기도 한다.

궁극의 리스트 3

오숙은 옮김 | 2010년 | 408면 | B5 견장정 | 45,000원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도무지 그 끝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의 〈목록〉들을 제시하며 이것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움베르토 에코. 현기증마저 불러일으키는 195장의 삽화와 호메로스, 단테, 괴테, 조이스, 프루스트 등 대가들의 작품 80여 종 속에서 펼쳐지는 각종 목록의 향연을 진두지휘하는 에코의 치밀함은 〈목록〉이라는 소재가 주는 낯섦과 뒤섞여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에코가 목록에 바치는 찬사이자 목록을 위한 목록,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에코의 목록인 셈이다.

추의 역사 5

오숙은 옮김 | 2008년 | 456면 | B5 견장정 | 65,000원

전작 『미의 역사』가 〈미〉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규명했다면, 『추의 역사』는 시각 문화와 예술 작품 속의 아름답지 않은 것들, 즉 그로테스크한 것, 괴물 같은 것, 불쾌한 것과 같은 〈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한다. 에코는 추가 미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미와 추는 결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인류 문화사의 〈빛〉과 〈그림자〉임을 강조한다.

● 2008년 1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 16

이세욱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372, 368면 | B6 견장정 | 각 14,800원 **eBook**

세상에 대한 모든 백과사전적 기록들을 다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그 상실된 기억의 조각들을 복원해 가는 과정을 그린 에코의 다섯 번째 소설. 독자들로 하여금 에코라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과 대면하게 하는 삽화와 소설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작품.

미의 역사 8

이현경 옮김 | 2005년 | 432면 | B5 견장정 | 65,000원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동시 출간된 에코의 이 방대한 저서는 누구나 다 안다고 믿고 있는 〈미〉라는 관념이 고대의 입상에서부터 기계 시대의 미학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회화, 조각, 건축을 비롯, 영화, 사진, 뉴 미디어에서 가져온 삽화들이 이 책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바우돌리노 43

이현경 옮김 | 2002년 | 전2권 | 각 416, 424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움베르토 에코의 네 번째 장편소설. 출간 즉시 유럽 출판계를 뒤흔든 작품으로 십자군 원정과 콘스탄티노플 함락 등 중세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 바우돌리노의 모험이 중세의 인물, 사건 등과 함께 판타지적 요소와 어우러져 파란만장하게 펼쳐진다.

49
Books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75

이세욱 옮김 | 1999년 | 520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이탈리아의 문학잡지 『일 베리』지에 〈아주 작은 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칼럼과 그 이후에 같은 형식으로 쓴 글들을 모은 책. 에코는 이 책에서 분석적인 논객이 되어 상대방의 얼을 빼놓는가 하면 장난기 어린 익살꾼이 되어 썰렁한 웃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날의 섬

27

이윤기 옮김 | 1996년 | 712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전날의 섬』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인물과 사건과 사상과 경이로운 기계들이 끊임없이 갈마드는 한바탕의 지적 미스터리의 행렬이 펼쳐진다. 에코의 소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미묘하게 자전적인 이 『전날의 섬』은 끊임없이 변모하는 우리 언어에 대한 이야기이자, 특별한 공간에서 전개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다.

푸코의 진자

154

이윤기 옮김 | 1990년 | 전3권 | 각 392, 384, 416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성전 기사단 관련 원고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이야.〉 외인부대 대령이었다는 사람이 성전 기사단에 관한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왔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성전 기사단의 비밀을 마침내 자기가 풀어냈다고 자랑한다. 웃음을 참으며 듣고 있던 편집자들은 그에게 자비 출판을 권유한다. 그러나 다음 날 대령은 실종되고 마는데……. 에코의 가장 야심적이고 백과사전적 소설.

- 1990년 베스트셀러 1위
- 1997년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대학 신입생이 읽어야 할 좋은 책〉
- 2018년 12월 종합 베스트셀러

장미의 이름

314

이윤기 옮김 | 1986년 | 전2권 | 각 464, 456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 audioBook**

1327년,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은 모종의 임무를 띠고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에 잠입한다. 이날부터 수도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연쇄 살인이 〈묵시록〉에 예언된 그대로 벌어진다. 첫날은 폭설 속의 시체, 둘째 날은 피 항아리 속에 처박힌 시체, 셋째 날은……. 그러나 비밀의 열쇠를 쥔 책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밤마다 유령이 나타난다는 장서관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마침내 장서관의 미궁을 꿰뚫는 거대한 암호를 풀어낸 윌리엄 수도사는 어둠 속에서 수도원을 지배하는 광신의 정체를 응시한다.

- 1981년 스트레가상
- 1982년 메디치상
- 1982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 1994년 서울대학교 고전 읽기 교양 강좌 선정 도서
- 1999년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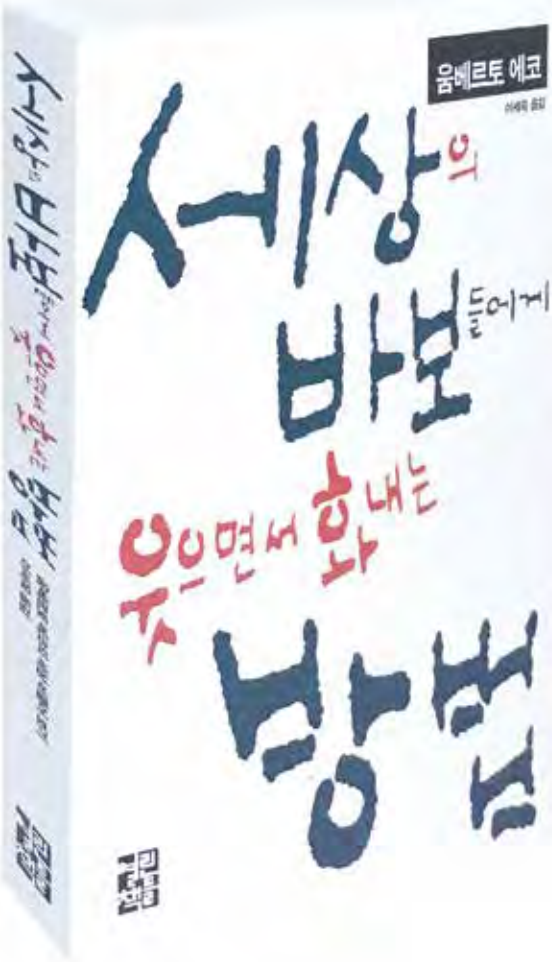
- 1999년 출판저널 선정 〈20세기의 명저〉
- 1999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선정 〈20세기의 기억할 명저〉
- 2001~2008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1위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전 세계 베스트셀러 5000만 부 판매

폭탄과 장군

5

이윤기 옮김 | 1991년 | 6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49
Books



Umberto Eco

Eco Mania Collection

에코 마니아 컬렉션

49
Books

중세의 미학 6

손효주 옮김 | 1998년 | 248면 | B6 연장정 | 12,000원 **eBook**

중세 시대에 문명을 향유했던 학자들에게 〈미〉란 무엇이었으며 미학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밝힌다. 에코는 이 책을 26세에 처음 저술했는데, 당시는 중세의 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중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28년 후 1986년 미국의 예일 대학교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매스컴과 미학

윤종태 옮김 | 2009년 | 552면 | B6 연장정 | 20,000원

1960~1970년대 이탈리아의 대중문화 논쟁의 중심에서 에코가 내놓은 대중문화(만화,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소설 등)에 대한 분석과 비평들이 실려 있다. 당시 이탈리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종말론과 순응론을 망라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이탈리아의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구조의 부재 3

김광현 옮김 | 1998년 | 640면 | B6 연장정 | 25,000원

기호학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기호학 이론서.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의 제국주의를 극복할 것을 역설한다. 또 기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설득의 기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기호화되고 문화적 틀로 바뀌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다.

기호: 개념과 역사 8

김광현 옮김 | 2000년 | 320면 | B6 연장정 | 15,000원 **eBook**

다양한 기호의 개념을 분석하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기호 이론을 정리하면서 기호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에코는 이 책에서 기호학의 이론적 토대인 〈기호〉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기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어떠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지 밝히고 있다. 기호학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입문서로 적합한 책.

가짜 전쟁

김정하 옮김 | 2009년 | 464면 | B6 연장정 | 20,000원

움베르토 에코가 일간지나 월간 평론지에 기고한 기호학 에세이와 논문 모음집.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정치적 사건, 매스 미디어의 언어를 어떻게 보는지, 영화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야기한다. 여행 노트, 정치에 관한 여러 단상, 스포츠에 대한 악담, TV 프로그램에 관한 이러저러한 고찰이 기호학자의 시각을 통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일반 기호학 이론

5

김운찬 옮김 | 2009년 | 533면 | B6 연장정 | 22,000원 eBook

〈일반 기호학〉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모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호학 연구들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기호 현상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이 책이 출판된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당시의 기호학 연구들에 대한 잠정적인 종합이자 새로운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여전히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논문 잘 쓰는 방법

50

김운찬 옮김 | 1994년 | 424면 | B6 연장정 | 15,000원 eBook

움베르토 에코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쓴 실용적인 논문 작성 지침서. 에코는 이 책을 통해 공부하는 법, 글을 쓰는 기술, 정리된 사고를 하는 법 등의 중요한 노하우들을 공개함으로써 단순한 원고 작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인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 속의 독자

2

김운찬 옮김 | 1996년 | 400면 | B6 연장정 | 18,000원 eBook

에코의 기호학에서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 책은 무엇보다도 텍스트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독자의 해석 작업은 텍스트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에코는, 독자에 의한 해석과 자유 방만한 텍스트의 사용을 구별하면서 텍스트의 고유 의도를 무시한 사용은 텍스트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

20

이윤기 옮김 | 1992년 | 136면 | B6 연장정 | 12,000원

『장미의 이름』에 대한 평단의 평가와 독자들의 다양한 독법에 대해 에코가 직접 해설하는 형식을 취한 작가 노트. 소설의 배경으로서 중세가 갖는 의미, 연대기 작가로서 〈화자〉 아드소를 내세운 이유 등에 대한 〈문학의 변〉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이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대화의 양을 결정했다는 에코의 설명에서 그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기호학과 언어 철학

3

김성도 옮김 | 2009년 | 440면 | B6 연장정 | 20,000원

현대 기호학의 일곱 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기호, 사전 대 백과사전, 은유, 상징, 코드, 동위소, 거울이 그것으로, 에코는 이 첨예한 개념들을 고고학적 시각과 이론적 시각에서 조명을 하고 있다. 특히 에코의 기호학 이론서 3부작이라 할 수 있는 다른 두 권의 저서, 『일반 기호학 이론』과 『이야기 속의 독자』에서 전개된 내용을 더 심화했다.

예술과 광고

김효정 옮김 | 2009년 | 584면 | B6 연장정 | 20,000원

에코가 학술지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학 논문, 대중문화의 현상을 분석한 글, 텍스트 비평, 철학 및 기호학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특히 1부에서는 인류의 전형적인 현상인 기호 작용을 거울을 통해 고찰하고 있는데, 거울은 대상을 반사할 뿐이며 대상을 변형해 가상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은 주체의 의식이라고 말한다.

해석의 한계

3

김광현 옮김 | 1995년 | 512면 | B6 연장정 | 20,000원 **eBook**

서양사를 이끌어 온 문헌학 발전의 역학 관계를 해석의 관점에서 파헤친 책으로, 해석학의 표준형보다는 해석의 또 다른 사조의 본질을 이해시키면서 오늘날의 해체주의로 이어지는 비평 이론의 근원을 기호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해석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내용이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데도 에코는 특유의 재치와 위트를 텍스트 안에 녹여 내고 있다.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작가와 텍스트 사이

2

손유택 옮김 | 1997년 | 232면 | B6 연장정 | 12,000원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해석만이 존재해야 하는가? 해석에는 한계가 있는가? 이 주제에 관해 미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술 회의의 결실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에코를 위시한 실용주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 탈구조주의자 조너선 컬러 등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텍스트의 해석이라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주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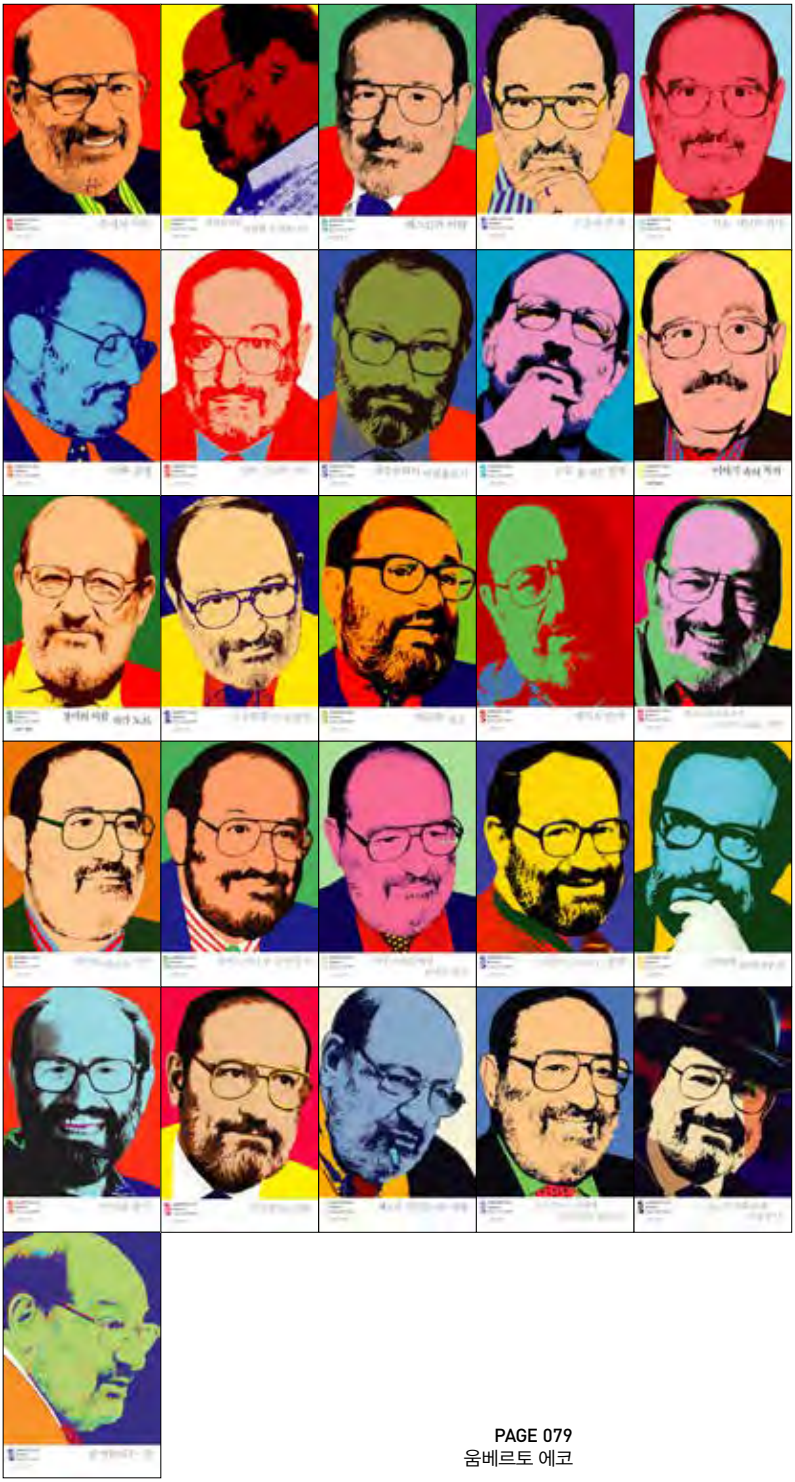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6

이세욱 옮김 | 1998년 | 144면 | B6 연장정 | 9,000원

움베르토 에코는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추기경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는 신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이념적 윤리적 근거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새로운 천 년을 맞은 우리의 문제에 관해 편지를 주고받는다.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비신앙인은 어디에서 선의 빛을 찾는가 등에 관한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간다.

Umberto Eco



신문이 살아남는 방법

6

김운찬 옮김 | 2003년 | 160면 | B6 연장정 | 9,000원 eBook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밀려 위기에 빠진 신문의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이탈리아 신문을 예로 들고 있지만, 한국의 신문에도 적용된다. 전쟁과 파시즘의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이슈도 다루고 있다. 에코는 주로 비관용적인 세계에서의 관용이라는 문제와 대답하기 곤란한 도덕적 문제들에 직면해서 개인이 져야 할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독특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다.

칸트와 오리너구리

3

박여성 옮김 | 2005년 | 624면 | B6 연장정 | 25,000원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명명하고 인식하느냐는 고전적인 철학의 핵심 문제를 기호학적 지평으로 흡수하여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1960, 1970년대의 기호학적 관심사로 돌아간 에코는 이 책에서 사유 능력의 정점을 보여 주면서도 수많은 일화와 사례, 가상 이야기를 통해 언어와 인식의 관계라는 전문 영역을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바꾸어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

9

김운찬 옮김 | 2004년 | 360면 | B6 연장정 | 13,000원 eBook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 이은 촌철살인 세상 읽기!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책이 중요한 이유 등을 에코 특유의 익살스러운 문체로 풀었다. 에코의 주머니에는 거의 언제나 〈미네르바 성냥갑〉이 들어 있다. 에코는 이 성냥갑의 안쪽 면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메모들을 모아 쓴 칼럼을 엮은 책.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6

김운찬 옮김 | 2004년 | 344면 | B6 연장정 | 13,000원 eBook

인권과 자유권, 평등권 등을 근본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상으로 평가받지만, 에코는 그 민주주의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현장을 포착해 낸다.

나는 독자를 위해 글을 쓴다

4

김운찬 옮김 | 2005년 | 504면 | B6 연장정 | 20,000원

이 책은 소설가로서 에코, 독자로서 에코, 이론가로서 에코를 모두 보여 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에코가 경배의 심정으로 다루고 있는 문학이 놓여 있다. 이론과 비평 속에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녹여 내고 있는 이 책은 에코 삶의 여정을 투영하면서 글은 오로지〈독자〉를 위해 쓰는 것이라는 말로 문학의 존재 이유를 매혹적으로 드러낸다.

49
Books

Umberto Eco

번역한다는 것

2

김운찬 옮김 | 2010년 | 592면 | B6 연장정 | 20,000원

번역의 의미와 방법 등을 오로지 에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 언어의 내적 체계와 그 언어로 서술한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원천 텍스트가 지향하는 정서적 효과들과 함께 독자에게 유사한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분신을 만드는 것이 번역이라고 에코는 말하고 있다.

언어와 광기

김정신 옮김 | 2009년 | 208면 | B6 연장정 | 절판

애석하지만 출판할 수 없습니다

3

이현경 옮김 | 2004년 | 256면 | B6 연장정 | 절판

거짓말의 전략

3

김운찬 옮김 | 2003년 | 192면 | B6 연장정 | 절판

하버드에서 한 문학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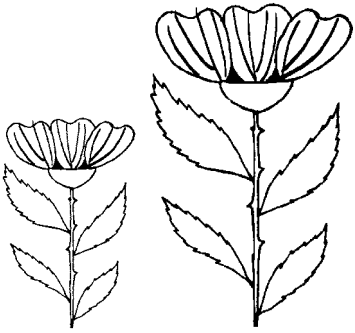
2

손유택 옮김 | 1998년 | 280면 | B6 연장정 | 절판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2

김운찬 옮김 | 1994년 | 296면 | B6 연장정 | 절판



Patrick Süskind

파트리크 쥐스킨트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여린 얼굴. 가느다란 금발에다 유행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낡은 스웨터 차림의 남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상 받는 것도 마다하고, 인터뷰도 거절해 버리는 기이한 은둔자. 이 사람이 바로 전 세계 매스컴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이다.

쥐스킨트는 1949년 뮌헨에서 태어나 암바흐에서 성장했고 뮌헨 대학과 엑상프로방스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편의 단편을 썼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한 예술가의 고뇌를 그린 남성 모노드라마 『콘트라바스』가 〈희곡이자 문학 작품으로서 우리 시대 최고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냄새에 관한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 그르누이가 향기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향수』, 조나단 노엘이라는 한 경비원의 내면세계를 심도 있게 묘사한 『비둘기』, 평생을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별난 인물을 그린 『좀머 씨 이야기』 등의 중·장편소설과 단편집 『깊이에의 강요』 등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대대적인 성공에도 아랑곳없이 쥐스킨트는 모든 문학상 수상을 거부하고 사진 찍히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우울하고 소심한 이 언어의 연금술사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이러니한 유머도 구사하고 적절하게 대화의 요점을 지적하는 날카로움을 발휘하기도 하며, 포도주를 몇 잔 마시면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한다.
헬무트 디틀과 공동 작업한 『로시니 혹은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잔인한 문제』는 레스토랑 〈로시니〉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비극적이고도 코믹하게 다루고 있다. 이후 9년 만에 발표한 신작 『사랑』은 역시 헬무트 디틀과 함께 작업한 시나리오 「사랑의 추구와 발견」에 대한 해설로서 사랑에 대한 쥐스킨트의 깊은 사색의 결과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에세이다. 「사랑의 추구와 발견」은 영화화되어 1996년 독일 시나리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Interview

파트리크 쥐스킨트 인터뷰

뮌헨, 10월 6일. 작은 금속 테 안경에 마른 체구의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그가 사는 아파트 6층에서 머리를 내밀고, 방문객에게 미소 지은 다음 미심쩍다는 듯이 코를 찡그린다. 그리고 묻는다. 「여기서 썩은 달걀 냄새 나지 않아요?」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2년 넘게 냄새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이 37세의 독일 작가에게 참 어울리는 첫마디다. 이 소설은 서유럽 전역을 강타했고, 미국에서는 지난달 크노프에서 출간되었다.
책을 쓰기 위한 자료 조사로, 그는 스쿠터 한 대를 사서 향수를 제조하는 남프랑스 지역을 그저 킁킁거리며 돌아다녔다. 향기를 얻기 위해 아름다운 소녀들을 죽인, 『향수』의 염세적인 주인공이 하는 방식대로 말이다.

「냄새를 맡는 건 사실상 베스파 위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감각이었습니다.」 녹색 코듀로이 바지와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작은 안락의자에 자리 잡은 쥐스킨트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린다. 「고글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헬멧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쥐스킨트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서 최고의 데뷔 소설에 수여하는 5천 달러의 상금을 거부했다. 그는 〈됐습니다〉라면서 평생 어떠한 문학상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쥐스킨트는 극단적으로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인터뷰도 몇 번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출연을 거부하며, 그의 스위스 출판사를 통해 단 한 장의 공식 사진만 배포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서 문학을 담당하는 제왕(帝王)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 신문이 독일에서 최고의 데뷔 소설에 수여하는 5천 달러의 상금을 거부한 것이다. 『향수』는 그 신문에 연재됐다. 쥐스킨트는 〈됐습니다〉라면서 평생 어떠한 문학상도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그의 비틀리고 비꼬는 듯한 어법 — 『향수』에도 스며 있는 유머러스한 어조 —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너무 적어서 못마땅한 쥐스킨트의 공식 정보에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멜랑콜리한 음악가의 독백이 담긴 희곡 『콘트라바스』를 쓰고 나서 그는 자신의 간단한 약력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른손의 굽은 새끼손가락을 보여 주면서, 쥐스킨트는 이 작은 신체적 결함 때문에 그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며, 이것이 가족들 사이의 오래된 농담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력에 씁쓸하게 끼워 넣은 농담이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마치 사실인 양 이탈리아 출판사의 책 표지에 실렸을 때, 쥐스킨트는 〈음악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로 격상되어 있었다. 『향수』의 미국판 표지에는 〈쥐스킨트의 손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그의 야망이 좌절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거 정말 난처하네요.」 작가가 자신의 농담을 곱씹으며 말한다. 「제가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 제발, 앉아서 우리에게 뭐라도 연주해 주세요.〉」

쥐스킨트에게 한동안 뚜렷한 야망 같은 건 없었다. 제3제국 때문에 문학적 커리어가 끊긴 독일 저널리스트의 아들로 태어나, 뮌헨 대학교와 엑상프로방스에서 역사를 공부했으나 학위는 받지 않았고 그 후 텔레비전 방송 작가로 일했다.
그러나 『콘트라바스』의 성공으로 —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디오게네스 출판사에서 받은 인세로 — 그는 자신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얻었다. 편집광적이고, 희생자들에게 마치 최면을 걸듯 공포로 넋을 빼놓는 살인자에 대한 아이디어 말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향수』의 정수(精髓)이며, 히틀러 이후의 독일인들에게 던지는 비유적 메시지는 꽤 명확하다.

「『향수』의 결말은 언제나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쥐스킨트는 말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저는 이 남자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써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시대적 배경을 현대로 하려고 했지만, 18세기 프랑스에 매료되었다. 「이 시기는 근대적 인간이 태어났고, 계몽주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말에 따르면 18세기의 도시 계획자들은 질병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악취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향수』를 너무나 비밀리에 썼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들도 이 작품이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쥐스킨트가 역겨운 주인공 장바티스트 그르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비밀스럽게 작업했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들도 이 작품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에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에야 알게 되었다.

「저는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쥐스킨트는 말한다. 「어쨌든 이걸 다 쓰고 나면, 뭐 독자들이 있긴 하겠지, 역사와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마 5천 부 정도일 거라고요.」

이 작품은 서독에서 1985년 봄, 모습을 나타낸 이후 44만 부가 판매되었고 지금도 매주 3천에서 6천 부가 판매된다. 여전히 슈피겔의 베스트셀러 목록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2개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16개 언어로 번역 중이다.[1]
유럽 전역에서 쥐스킨트에 대한 찬사가 넘친다. 그런데 그는 프랑스와 영미 평론가들이 독일인보다, 그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담긴 정치적 알레고리를 잘 잡아냈다고 한다. 「몇몇 프랑스 평론가들은 이게 전형적인 독일 책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제3제국은 언제나 우리 세대의 머릿속 한구석에 있죠. 당신이 시를 쓰든, 희곡을 쓰든, 소설을 쓰든 상관없이요.」

쥐스킨트는 집필 계획을 가슴에 감춰 둔다. 「아이디어가 없는 한,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의 관심이 당길 만큼만 공개한다.

작가는 몇몇 독자들이 타락한 그르누이와, 그르누이의 피 묻은 탐구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다소 걱정스러워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변태적인 이야기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변태적인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몽주의자입니다. 언제나 그에 찬성해 왔죠. 저는 우리가 충분히 계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쥐스킨트는 성공을 경계한다. 그는 뮌헨의 슈바빙 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나, 파리의 라스파일 대로에 있는 방을 떠날 생각이 없다. 그의 출판 담당자 다니엘 킬에 따르면 쥐스킨트는 해외 출간에서 뛰어난 번역을 고집하며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영화화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설가는 자신의 집필 계획은 가슴에 감춰 둔다. 「아이디어가 없는 한,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친구와 함께 「키르 로열」이라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1 2017년 현재 『향수』는 전 세계 48개 언어로 번역되어 2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작업하고 있는데, 신문의 가십 칼럼니스트의 눈으로 본 뮌헨의 부유층 인사들 이야기이다. 그리고 『비둘기』라는 제목의 짤막한 중편소설이 디오게네스에서 곧 나올 예정이다.

무대는 파리. 쥐스킨트는 독자들의 관심이 당길 만큼만 공개한다. 「비둘기가 나타나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제임스 M. 마컴, 김수연 옮김, 『뉴욕 타임스』, 1986.10.9.

승부

박종대 옮김 | 2020년 | 80면 | A5변형 견장정 | 12,800원 **eBook**

두 명의 체스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승부』는 삶의 축소판과 같은 이야기다. 늙은 고수이자 체스 챔피언인 〈장〉과 예기치 못한 포석과 공격으로 챔피언의 허를 찌르는 젊은 도전자의 한판 승부가 장자크 상페의 그림과 어우러져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야기는 낯선 젊은이가 동네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랑 17

강명순 옮김 | 2020년 | 288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오르페우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의 공통된 주제인 사랑과 그 사랑에 결합하는 죽음의 형태들을 주제로 한 『사랑』은 쥐스킨트의 육성을 통해 그의 문학 세계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 책에서는 쥐스킨트의 에세이 「사랑과 죽음에 대하여」뿐 아니라 영화감독 헬무트 디틀과 공동 작업한 영화 「사랑의 추구와 발견」의 시나리오 원문과 스틸 사진, 헬무트 디틀의 에세이 「나를 해석해 봐, 이 멍청아!」 등이 함께 실려 있다.

로시니 25

강명순 옮김 | 2020년 | 400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파트리크 쥐스킨트와 헬무트 디틀 영화감독이 함께 작업한 영화 「로시니」의 시나리오 원문과 함께 실제 독일에서 상영된 영화의 스틸 사진과 엔딩 크레디트가 실려 있어 영화 장면들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영화는 레스토랑 〈로시니〉를 배경으로 다양한 단골손님들이 모여 하룻저녁 동안 벌어지는 코믹하면서도 비극적인 소동을 그린다.

● 1996년 독일 시나리오상 수상작

깊이에의 강요 78

김인순 옮김 | 2020년 | 88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 소설인 「깊이에의 강요」, 「승부」, 「장인(匠人) 뮈사르의 유언」과 에세이 「문학의 건망증」 등 총 네 편의 작품을 한데 묶었다. 짧은 이야기 뒤로 남겨진 긴 여백 속에서 작가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작품집이다.

비둘기 60

유혜자 옮김 | 2020년 | 104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주인공인 조나단은 나이 오십을 넘겼으며 어느 은행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무감각에 빠져 있으며,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 소유의 옹색한 방이라도 갖게 된다고 안도하는 소심한 인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문 앞에 나타난 비둘기를 보고 그만 공포를 느끼고 달아나고 만다. 단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조나단에게는 끔찍한 사건들이 그가 세상을 향해 맞설 용기를 얻게 해준다.

● 1994년 「도서신문」 추천 도서

콘트라바스 76

★ 1996년 교보문고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8위

박종대 옮김 | 2020년 | 80면 | A5변형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파트리크 쥐스킨트 리뉴얼 시리즈를 통해 열린책들에서는 악기의 원래 이름을 찾아 주고, 새로운 번역과 디자인으로 『콘트라바스』를 다시 선보인다. 이 작품은 쥐스킨트가 어느 작은 극단의 제의로 쓴 책으로 발간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콘트라바스 연주자인 한 예술가의 고뇌를 그린 남성 모노드라마인 이 작품은 〈희곡이자 작품으로서 우리 시대 최고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 명계남의 일인극으로 공연(1995년, 2006년)
- 1996년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8위

좀머 씨 이야기 118

★ 광복 이후 최대 베스트셀러 50 선정

유혜자 옮김 | 2020년 | 128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한 소년의 눈에 비친 이웃 사람 좀머 씨의 기이한 인생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나간 『좀머 씨 이야기』는 한 편의 동화 같은 소설이다. 소년에게는 〈좀머 아저씨〉이자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좀머 씨〉인 주인공은 텅 빈 배낭을 짊어지고 기다랗고 이상한 호두나무 지팡이를 쥔 채 끊임없이 길을 걷고 있는 중년이다.

- 1995년 「도서신문」 선정 〈올해의 좋은 책 5〉
- 1996년 「한국일보」 선정 〈올해의 문화 상품〉
- 1996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1996년 10대 히트 상품〉
- 1996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 광복 이후 최대 베스트셀러 50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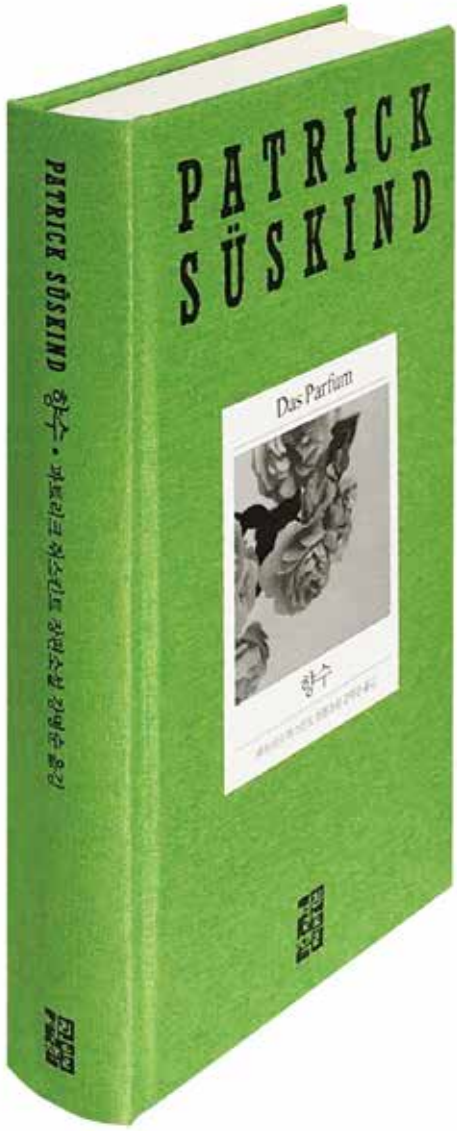
향수 173

★ 2007년 3~4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14년 전 세계 2천만 부 판매

강명순 옮김 | 2020년 | 400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지금까지 2천만 부를 판매한 베스트셀러. 냄새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정작 자신은 아무런 냄새도 가지지 못한, 한 악마적 천재의 기이한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쥐스킨트 특유의 치밀한 필치로 복원된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지상 최고의 향기를 얻기 위해 스물다섯 번에 걸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집념의 일생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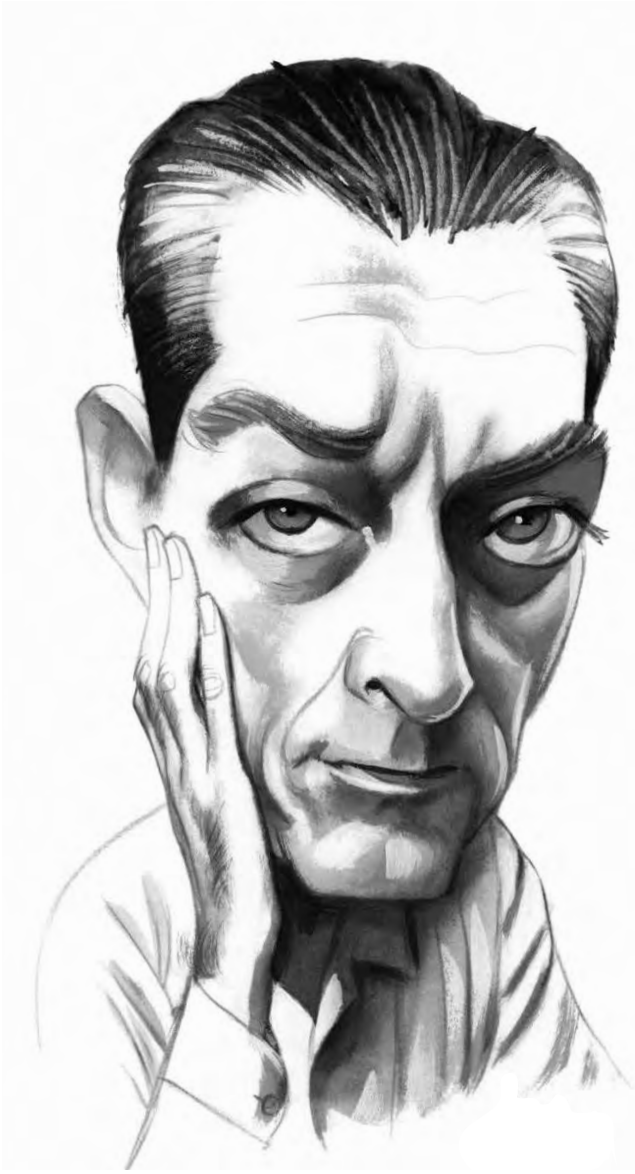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7년 3~4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07년 영화 「향수」 한국 영화 관객 110만 돌파
- 2007년 KBS 「TV 책을 말하다」 추천 도서
- 2014년 전 세계 2천만 부 판매



8
Books

01
열린책들의 작가들

Patrick Süskind



Paul Auster

폴 오스터

소외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그 의식 세계를 심오한 지성으로 그려 내는 폴 오스터. 마법과도 같은 문학적 기교로 〈떠오르는 미국의 별〉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유대계 미국 작가인 그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순문학 작가이다.

독특한 소재의 이야기에 팽팽한 긴장이 느껴지는 현장감과 은은한 감동을 가미시키는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는 그는 현대 작가 가운데 발군인 문체와 문학적 깊이, 문학의 기인이라 불릴 만큼 개성 있는 독창성과 담대함을 소유한 작가이기도 하다.
미국 문학의 사실주의적 경향과 신비주의적 전통이 혼합되고, 동시에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명상적 요소가 한데 뒤섞여 있기도 한 그의 작품들은, 문학 장르의 모든 특징적 요소들이 혼성된 〈아름답게 디자인된 예술품〉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많은 비평가들의 호평 속에 발간된 그의 작품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문단, 특히 프랑스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현재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기적과 상실, 고독과 열광의 이야기를 전광석화 같은 언어로 종횡무진 전개해 나간다. 또한 운명적인 만남과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탄탄한 문장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결합시켜, 독자들을 있을 법하지 않게 뒤얽힌 우연한 사건들 속으로 빨아들인다.
1947년생인 오스터의 작품으로는 1993년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한 『거대한 괴물』 외에 대표작인 『뉴욕 3부작』과 『달의 궁전』, 미국 예술원의 모턴 도언 제이블상 수상작인 『우연의 음악』, 『공중 곡예사』 등이 있고 에세이집 『폴 오스터의 뉴욕 통신』,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시집 『소멸』 등이 있다. 2006년에는 그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아 유럽의 퓰리처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 왕자상을 받았다.
폴 오스터는 종종 프란츠 카프카 혹은 사뮈엘 베케트와 비견된다. 그는 이들과 흡사한 시각에서, 그러나 완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운명과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에 몰두한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탄탄한 문체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결합시키는 발군의 문학적 기량은 폴 오스터 이외의 다른 작가에서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덕목이다.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5

김석희, 민승남, 이종인, 황보석 옮김 | 2022년 | 488면 | A5변형 연장정 | 17,800원 eBook

폴 오스터가 평생토록 쌓아 올린 글 중 대표작을 직접 선별해 엮은 산문집. 사뮈엘 베케트에서 에드거 앨런 포,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문학적 영감을 준 사람들, 글쓰기의 이유와 그 고됨, 미국 사회를 톺아보는 정치적 성찰 등 폴 오스터의 핵심적 면면을 담고 있다. 지적이고 예리하며 유머를 잃지 않는 이 산문들은 우리를 사색과 웃음, 그리고 더 넓은 독서의 장으로 이끈다.

내면 보고서

2

송은주 옮김 | 2016년 | 36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작가로……. 『내면 보고서』는 폴 오스터가 자신의 유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기억들을 탐사하며 그의 내면이 성장해 온 궤적들을 특유의 아름다운 산문으로 복원해 낸 회고록이다. 그의 세계관을 형성한 가장 원형적인 체험들부터 부인이 된 여자 친구와 주고받은 연애편지까지, 오스터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기록들이 집약되어 있다. 일정한 연대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연상 작용에 따라 떠오르는 기억의 단상들을 하나씩 발굴해 나가는 이 독특한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독자들은 어린 시절 오스터의 풋풋하고 섬세한 내면을 탐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0
Books

디어 존, 디어 폴

2

폴 오스터, J. M. 쿳시 | 송은주 옮김 | 2016년 | 33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폴 오스터와 J. M. 쿳시의 서간집. 〈우연의 미학〉이라는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한 재담가 폴 오스터와 서구 문명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탁월한 상상력으로 200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J. M. 쿳시. 두 사람의 놀라운 만남! 삶의 비극에서조차 유머를 발견하는 다정함과 지치지 않는 열정을 겸비한 오스터와 10년간 그가 웃는 것을 단 한 번 보았을 뿐이라고 동료가 진술할 만큼 진지하고 냉철한 성격의 쿳시가 편지로 나누는 깊은 우정.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쿳시의 사생활과 생생한 육성을 담고 있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때로 남모를 고충을 겪은 오스터의 인간적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겨울 일기

4

송은주 옮김 | 2014년 | 25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예순네 살의 작가 폴 오스터의 독특한 형식의 회고록. 〈호흡의 현상학〉이라는 개념을 빌어 생의 감각적 경험을 기술하는 데 집중한 점, 인과관계나 시간적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비선형적 구성, 자신을 2인칭으로 묘사하는 관찰자 시점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죽음에 관한 단상을 폴 오스터 특유의 문체로 담담하게 서술했다.

선셋 파크

10

송은주 옮김 | 2013년 | 33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독특한 구성이나 기묘한 우연 같은 오스터가 그동안 보여 줬던 특징들을 잠시 내려놓고, 언뜻 평범해 보이는 형식 속에 오늘을 사는 미국인들의 자화상을 섬세하

면서도 따뜻하게 그려 낸 작품. 저마다 다른 사연과 고통을 지니고 선셋 파크의 폐가에 모여든 청년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한다.

● 2013년 5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보이지 않는

6

이종인 옮김 | 2011년 | 33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평범한 대학생 애덤 워커가 시인이 되기 위해 고뇌하던 스무 살 시절 겪은 기묘한 이야기를 세 가지 시점이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엮어 낸 작품. 1967년 루돌프 보른이라는 악마적 인물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 워커의 이야기가 40년의 세월을 오가며 그려진다.

어둠 속의 남자

4

이종인 옮김 | 2008년 | 25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이라는 오스터 특유의 기법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 의식이 더해져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작품이다. 밤마다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만들며 긴긴밤의 불면과 현실의 아픔을 이겨 내는 주인공을 통해 치유의 힘을 말하고 있다.

기록실로의 여행

4

황보석 옮김 | 2007년 | 232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기록실로의 여행』은 폴 오스터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주제인, 작가와 글쓰기의 관계를 다룬 소설이다. 오스터는 소설이란 장르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형식을 한 번 비틂으로써 주인공과 주인공이 읽는 원고 속 등장인물, 주인공을 보고 있는 독자들까지 하나의 이야기에 편입시킨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설〉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소설의 경계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브루클린 풍자극

13

황보석 옮김 | 2005년 | 40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브루클린과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오스터의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작품.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주인공에게, 브루클린은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기회와 발아래 있었던 이상향의 그림을 깨닫게 한다.

신탁의 밤

8

황보석 옮김 | 2004년 | 32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브루클린의 한 문구점에서 우연히 포르투갈제 파란 공책을 구입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 시드니 오어. 자신이 쓴 소설이 현실이 되는 불가해한 삶, 사소한 우연이 결정하는 위태로운 현실 위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환상의 책 19

황보석 옮김 | 2003년 | 42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배우 헥터 만과 우연한 계기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해 가는 대학교수 데이비드 짐머의 파란으로 가득 찬 삶을 그리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소설. 평단으로부터 〈오스터 문학의 정점〉이자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뉴욕 3부작 60

황보석 옮김 | 2003년 | 48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어느 날 탐정 소설가에게 잘못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현대 도시인에 대한 이 오디세이아는 탐정 소설의 외양을 띠고 진행된다. 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려던 탐정들은 어느덧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고 짓궂은 우연의 장난에 휘말리게 된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폐허의 도시 13

윤희기 옮김 | 2002년 | 288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안나 블룸은 실종된 오빠를 찾기 위해 그곳으로 떠난다. 그곳은 모든 것이 사라진 곳이다. 도시는 폐허로 변해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고 먹을 곳도 쉴 곳도 없는 곳. 온통 무법천지로 변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빼앗으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고독의 발명 9

황보석 옮김 | 2001년 | 312면 | B6 견장정 | 12,800원

아버지에 대한 폴 오스터의 감동적이고 개인적인 명상.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품었던 감정, 느낌, 생각들.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해하게 된, 가족과 세상에 냉담했던 아버지의 삶.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14

김경식 옮김 | 2001년 | 392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폴 오스터가 각본을 쓴 영화 「스모크」, 감독을 맡았던 영화 「블루 인 더 페이스」의 시나리오와 「스모크」의 원작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리고 영화 작업에 대한 폴 오스터의 회고담과 인터뷰로 꾸며진 책.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상의 에피소드들과 시간들, 그리고 그 관계가 마치 퍼즐처럼 얽힌다.

스퀴즈 플레이 7

김석희 옮김 | 2000년 | 32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청년 폴 오스터의 패기가 넘치는 새로운 매력의 작품. 정계 진출을 앞둔 메이저리그의 스타플레이어 조지 채프먼은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고 사립 탐정 맥스 클라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30
Books

Paul Auster

빵 굽는 타자기 37

김석희 옮김 | 2000년 | 32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폴 오스터의 자전적 소설. 『빵 굽는 타자기』는 한마디로 작가 폴 오스터의 정신 세계와 작품 활동의 비밀을 풀어 주는 〈엑스 파일〉이다. 청년 시절의 그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고 무슨 생각에 골몰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소설가로 입문하게 되었는지, 폴 오스터는 자신의 독자들을 내밀한 자기만의 세계로 초대한다.

동행 11

윤희기 옮김 | 2000년 | 25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윌리와 그의 개 미스터 본즈는 비어 와슨이라는 윌리의 옛 스승을 찾아 볼티모어, 메릴랜드 등지를 돌아다닌다. 이들이 여기서 펼쳐 보이는 모험의 이야기는 마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연상시킨다.

우연의 음악 22

황보석 옮김 | 2000년 | 356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뜻하지 않게 거금을 상속받게 된 한 남자가 전문 카드 도박사를 만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우연의 사건과 끝없는 선택, 그리고 그것이 몰고 오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 그러나 자유와 기회, 우연과 삶에 관한 철학적 숙고를 동시에 제공해 준다.

- 1990년 미국 예술원 모톤 다우웬 자블상
- 1991년 미국 펜 포크너상 최종 후보작

달의 궁전 53

황보석 옮김 | 1997년 | 456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며 살아가는 젊은이 마르코 스탠리 포그. 이미 한 번의 삶을 말살하고 자신을 재창조한 노인 토머스 에핑. 그리고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점점 더 작아져 가는 슬픈 운명의 중년 남자 솔로몬 바버. 인생을 배워 나가는 세 탐구자들의 초상을 매혹적으로 그린 소설.

- 1990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거대한 괴물 21

황보석 옮김 | 1996년 | 42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사라진 작가와 추적하는 작가. 파괴된 자유의 여신상. 진정한 자유와 삶을 찾아가는 진지한 유희를 즐기는 작가 삭스. 잘못 디딘 첫걸음은 그를 역경으로 가득 찬 운명 속으로 몰아가고…….

- 199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

공중 곡예사 24

황보석 옮김 | 1995년 | 40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나는 열두 살 때 물 위를 처음 걸었다〉라는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되는 소설로, 꼬마 월터가 자라면서 삶에 대해 깨달아 가는 과정과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줌

30
Books

으로써 그의 삶에 힘이 된 예후디 사부의 순수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처럼 펼쳐진다.
즐거움과 놀라움을 주는 영혼의 길잡이!

마틴 프로스트의 내면의 삶
김경식 옮김 | 2008년 | 180면 | B6 견장정 | 절판

폴 오스터의 뉴욕 통신
이종인 옮김 | 2007년 | 352면 | B6 견장정 | 절판

왜 쓰는가?
김석희 옮김 | 2005년 | 104면 | B6 견장정 | 절판

소멸
윤희기 옮김 | 2004년 | 176면 | B6 견장정 | 절판

빨간 공책
김석희 옮김 | 2004년 | 136면 | B6 견장정 | 절판

타자기를 치켜세움
샘 메서 그림 | 황보석 옮김 | 2003년 | 80면 | B6 견장정 | 절판

다리 위의 룰루
김경식 옮김 | 2003년 | 304면 | B6 견장정 | 절판

나는 아버지가 하느님인 줄 알았다
폴 오스터 엮음 | 윤희기, 황보석 옮김 | 2004년 | 320면 | A5 변형 | 절판

Roberto Bolaño

로베르토 볼라뇨

〈볼라뇨. 우리는 외친다. 볼라뇨라고.〉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 등장한 최고의 작가, 스페인어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유수의 작가 및 평론가 들로부터 추앙받는 소설가, 라틴 아메리카 최후의 작가.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시한폭탄〉, 로베르토 볼라뇨에게 바치는 찬사들이다.

볼라뇨는 1953년 칠레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멕시코로 이주해 청년기를 보냈다. 항상 스스로를 시인으로 여겼던 그는 15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20대 초반에는 〈인프라레알리스모〉라는 반항적 시 문학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어 20대 중반 유럽으로 이주, 30대 이후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에 투신한다.
볼라뇨는 첫 장편소설 『아이스링크』(1993)를 필두로 거의 매년 소설을 펴냈고, 각종 문학상을 받으며 〈볼라뇨 전염병〉을 퍼뜨렸다. 특히 1998년 발표한 방대한 소설 『야만스러운 탐정들』로 〈라틴 아메리카의 노벨 문학상〉이라 불리는 로물로 가예고스상을 수상하면서 더 이상 수식이 필요 없는 위대한 문학가로 우뚝 섰다. 그리고 2003년 스페인의 블라네스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매달린, 1천 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작품 『2666』은 볼라뇨 필생의 역작이자 전례 없는 〈메가 소설〉로서 사후 출간되어 스페인과 칠레, 미국의 문학상을 휩쓸었다. 2016년 『엘 파이스』에서 최근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문학 1위로 선정되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범죄, 죽음, 매춘부의 삶과 같은 어둠의 세계와 볼라뇨 삶의 본령이었던 문학 또는 문학가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암담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통렬한 성찰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의 글은 사실과 허구가 절묘하게 중첩되고 혼재하며, 깊은 철학적 사고가 위트 넘치는 풍자와 결합하여 끊임없이 웃음을 자아낸다. 볼라뇨의 작품으로는 방대한 분량의 대표작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2666』을 비롯해 장편소설 『아이스링크』, 『먼 별』(1996), 『부적』(1999), 『칠레의 밤』(2000), 『제3제국』(2010), 단편집인 『전화』(1997), 『안트베르펜』(2002), 『살인 창녀들』(2001), 『참을 수 없는 가우초』(2003), 『악의 비밀』(2007), 시집 『낭만적인 개들』(1995), 사후 발견된 장편소설 『SF의 유령』(1996) 등이 있다.

Interview

로베르토 볼라뇨 인터뷰

The Last Interview

이것은 로베르토 볼라뇨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다. 볼라뇨가 이 세상을 떠난 달인 2003년 7월 『플레이보이』 멕시코판에 게재된 이 인터뷰에서 볼라뇨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답한다. 이 글은 볼라뇨의 작품 세계를 파고들어 깊이 분석하고자 하는 성격의 인터뷰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식을 깨는 질문과 답들이 종횡무진하는 가운데 볼라뇨는 문득 우리의 허를 찌른다. 작가 로베르토 볼라뇨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볼라뇨를 엿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그만인, 정곡을 꿰뚫는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 편집자

난독증을 가지고 태어난 덕에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용기를 갖게 되지는 않았나?

전혀 아니다. 그러나 축구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왼손잡이거든. 자위할 때도 문제가 된다. 왼손잡이니까. 그럼 글을 쓸 때는? 오른손잡이. 이것 보라. 그러니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엔리케 빌라마타스와는 아직도 친구인가? 로물로 가예고스상 조직위원들과 싸운 이후 친구가 되었는데.

로물로 가예고스상 조직위원 및 심사위원들과의 싸움은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심사 결과를 지지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차베스 추종자이자 엉터리 시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쿠바의 카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가 하는 짓과 똑같은 아주 역겨운 통화였다. 참고로 내 생각으로는 다니엘 사다와 호르헤 볼피를 떨어뜨린 건 아주 큰 실수다. 심사단은 내 불참이 내가 가족과의 여행 경비를 대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에 너무 화가 나서 심사단을 나치라고 부르는 공개 편지를 보낸 것 같다. 게다가, 내가 알기로는 심사 초기부터 내정자가 있었는데 — 빌라마타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 결국 빌라마타스가 상을 탔다. 내 생각에 빌라마타스의 소설은 훌륭하고, 그는 확실히 내가 생각하는 수상 후보다.

스튜디오에 에어컨디셔너가 없는데?

내 모토가 〈스파르타형 자아〉라서. 〈아르카디아 자아〉가 아니라.

* 스파르타와 아르카디아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다. 전투적이었던 스파르타와 대조적으로 아르카디아는 목가적인 특징 때문에 그리스·로마 시대의 전원시와 르네상스 시대 문학에서 〈낙원〉으로 묘사되곤 했다.

이사벨 아옌데와 앙헬레스 마스트레타와 같이 술을 마신다면 그들의 책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아닐 것 같다. 우선 그분들이 절대 나 같은 사람과 술을 마셔 주지 않을 것 같고. 둘째, 나는 이제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 셋째로, 나는 아무리 취해도 정신을 놓지는 않는데, 스타일과 리듬에 대한 감각, 표절과 평범함과 침묵에 대한 공포를 잃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작가writer와 필자author의 차이는?

실비나 오캄포는 작가다. 마르셀라 세라노는 필자. 그 둘 사이에는 몇 광년이나 차이가 있다.

* 마르셀라 세라노는 이사벨 아옌데와 더불어 칠레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다. 볼라뇨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사벨 아옌데 또한 〈엉터리 작가〉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자신이 소설가라기보다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책을 펼쳤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의 차이로 판단한다. 시집을 펼쳤을 때 덜 붉어진다고나 할까.

당신은 칠레인인가, 스페인인가, 멕시코인인가?

나는 라틴 아메리카인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조국이란 무슨 의미인가.

오글거리는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내 아이들, 라우타로와 알렉산드라가 나의 유일한 조국이다. 그리고 아마도 어떤 순간들, 어떤 거리들, 어떤 얼굴이나 장면들, 혹은 책들이 있을 거다. 내 안에 있되 언젠가 잊고 말 것들이 조국을 위한 최선이다.

왜 항상 삐딱하게 구는가?

그런 적 없다.

적보다 친구가 많나?

친구와 적, 둘 다 충분하다. 모두들 쓸데없지만.

만일 살바도르 아옌데를 알았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별로 없다. (아주 잠깐이라도) 권력을 가졌던 이들은 문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난 내키면 나의 독자들에게는 광대가 될 수 있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멜로드라마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런 거다.

적들에게 받은 비난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린 적이 있었나?

많이 흘렸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 것을 읽을 때마다 운다. 나를 바닥에 내던지고 할퀸다. 글쓰기를 무기한 멈추고, 입맛도 잃고, 담배를 덜 피우고, 운동을 하고, 집에서 30미터 거리의 해안가로 산책을 나가서 갈매기에게 묻는다. 율리시스를 먹은 물고기들을 먹은 갈매기의 후손들에게. 왜 나지? 왜?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로물로 가예고스상 상금으로는 무얼 샀나?

별거 안 샀다. 지금 기억나는 건 여행 가방 정도.

당신은 훌륭한 웨이터였나, 아니면 훌륭한 보석상이었나?

나는 바르셀로나 근처 캠핑장에서 최고 훌륭한 경비였다. 내가 그곳에서 일할 때는 아무도 훔칠 생각을 못 했다. 그리 좋지 않게 끝났을 싸움들도 여럿 말렸다. 린치도 막았다. (물론 다시 생각해 보니 나도 린치에 함께하거나 그 남자를 목 졸라 죽였어야 했는데.)

책을 훔쳤는데 나중에 그 책을 안 좋아하게 된 적은?

없다! 책 도둑의 좋은 점이란 — 금고 도둑과는 달리 —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내용물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다.

사막 한가운데를 걸은 적이 있나?

몇 번 있다. 그중 한 번은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우리 할머니는 지칠 줄을 몰랐고, 난 우리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다.

담배빵 해본 적 있나?

일부러 그런 적은 없다.

나무에 연인의 이름을 새긴 적은?

더 나쁜 짓도 했지만, 여기서 덮자.

역사적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셜록 홈스. 네모 선장. 우리의 아버지 쥘리앵 소렐, 우리의 삼촌 미시킨 공작, 우리의 선생님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 소렐, 미시킨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후디니.

* 쥘리앵 소렐은 스탕달의 『적과 흑』 주인공, 미시킨 공작은 도스토옙스키 『백치』의 주인공이다. 후디니는 마술사로 탈출 마술의 대가였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신경을 쓰나?

조금도 안 쓴다.

독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나?

거의 안 한다.

독자들이 당신의 책에 대해 말한 것 중 감동받은 것이 있나?

간단히 말하면, 독자들 자신이 나를 감동시킨다. 아직도 볼테르의 『철학 사전』 같은 것을 읽으려는 사람들 말이다. 이 책은 내가 아는 가장 재미있고 현대적인 책이다. 그리고 코르타사르와 파라를 읽는 강철 같은 젊은이들에게 감동받는다. 그 책들은 옛날에 한번 읽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읽어 보려고 하고 있다. 머리맡에 책을 두고 잠드는 젊은이들도 감동적인데, 책이 최고의 베개지.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

화내는 건 시간 낭비다. 슬프게도, 내 나이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당신을 지루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좌파의 공허한 담론. 우파의 공허한 담론이야 당연한 거지만.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내 딸 알렉산드라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바닷가의 바에서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으면서 크루아상을 먹는 것. 보르헤스의 작품들. 비오이의 작품들. 부스토스 도메크의 작품들. 사랑을 나누는 것.

손으로 글을 쓰나?

시는 그렇다. 다른 것들은 1993년부터 오래된 컴퓨터로 쓴다.

당신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1992년.

병을 얻은 후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없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서른여덟이면 뭐 슬슬 알게 될 나이였을 테지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특별한 건 없다. 음,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그 〈위엄 있는 숙녀〉가 도착할 거다. 문제는 그녀가 숙녀가 아니고, 위엄도 없다는 건데. 니카노르 파라가 어느 시에서 말했듯, 그녀는 싸구려 창녀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섭다.

사후 세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사후 세계가 있다면 놀라겠지. 그리고 거기서 파스칼의 강좌에 등록할 거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물론 있다. 자살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살았다.

『칠레의 밤』의 제목을 〈지랄 같은 폭풍Shit storms〉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말린 사람이 후안 비요로라는 게 사실인가?

비요로와 에랄데.

* 후안 비요로는 멕시코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호르헤 에랄데는 볼라뇨의 작품들을 출판한 스페인 아나그라마 출판사의 설립자.

작품에 대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따르나?

누구의 조언도 따르지 않는다. 주치의의 조언도 따르지 않는다. 온갖 데서 조언과 충고를 받는데,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당신이 노벨상을 받을 거라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못 받을 거 안다. 우리 세대 누구 놈팡이 하나가 타겠지. 스톡홀름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한테는 아는 체도 하지 않을 거다.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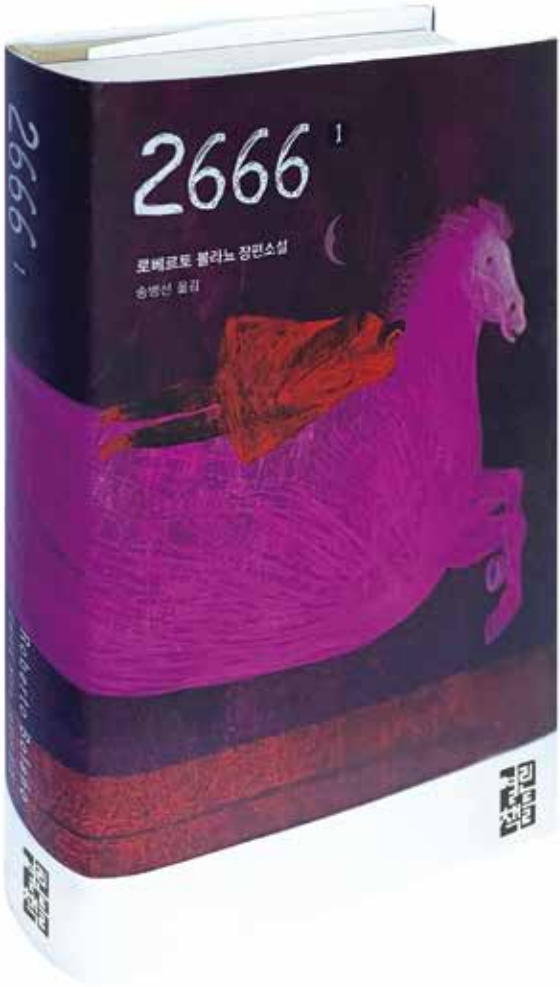
작가보다 살인 사건 담당 형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강력계 형사 말이다. 아마도 나는 밤중에 범죄 현장에 홀로 다시 돌아오는 캐릭터였을 것이다. 유령 따위 겁내지 않고. 아마 미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쯤이야 형사였다면 권총을 입에 물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살아온 것에 대해 고백하자면?

나는 살아 있고, 읽고 있고, 쓰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다. 아르투로 프라트가 에스메랄다의 선원들에게 말했듯 〈살아 있는 한, 깃발은 펄럭일 것이다〉.

* 아르투로 프라트는 칠레의 해군 영웅으로, 에스메랄다호의 선장이었다.

모니카 마리스타인, 열린책들 편집부 옮김, 『플레이보이』 멕시코판, 2003. 7.


2666 1
로베르토 볼라뇨 장편소설
송병선 옮김
2666 1
Roberto Bolaño

Plan 볼라뇨 읽기 5개년 계획

First Year
정치

칠레의 밤

피노체트 시대와 문학. 볼라뇨의 최고작이 무엇인가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처음 권할 수 있는 책으로는 대개 이 책을 꼽기 마련이다.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가상의 백과사전 형식의 20세기 북미와 남미 문학사. 볼라뇨 세계의 정가운데 있는 책.

먼 별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장을 확장시킨 소설. 정치로 문학을 한 괴물의 삶.

전화

그가 창조한 인간 군상을 보여 주는 첫 단편집.

Second Year
시

야만스러운 탐정들

시인 지망생들이 망각된 한 여성 시인의 행적을 찾아나선다.

부적

스스로를 〈멕시코 시의 어머니〉라고 칭했던 어느 시인의 삶.

낭만적인 개들

스스로를 소설가라기보다는 시인으로 여겼던 볼라뇨의 시편들.

안트베르펜

장시 형식으로 이뤄진 장편소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책은 이것뿐이다.〉

『보르헤스 단편 전집』

〈가장 중요한 일은 보르헤스를 다시 읽는 것이다.〉(볼라뇨)

『니카노르 파라 시집』

네루다를 싫어한 볼라뇨가 최고의 시인으로 숭배한 파라의 세계.

종수로는 16종, 권수로는 21권으로 이루어진 볼라뇨의 세계.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5년간 그의 세계를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계획표를 공개한다. 가장 많이 팔린 『칠레의 밤』부터 시작해서, 다섯 권짜리 『2666』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그해에 같이 읽으면 좋을 다른 작가의 작품도 밑에 실었다. 좀 더 열정적인 독자들은 바짝 집중해서 이 코스를 5개월로 줄일 수도 있다. 물론 당신이 볼라뇨만큼 괴물급 독서가라면 이 정도는 5주 치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Third Year
범죄

아이스링크
아름다운 피겨스케이팅 선수 누리아를 둘러싼 이상한 사건.

살인 창녀들
폭력, 포르노그래피, 흑마술에 관한 단편들.

악의 비밀
볼라뇨 타계 후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유고들을 모든 단편집.

참을 수 없는 가우초
단순한 삶을 동경하여 시골로 떠난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Fourth Year
SF

제3제국
전쟁 게임 〈제3제국〉의 챔피언 우도는 휴가 중에도 게임 전략에만 골몰하던 중…….

팽선생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환자가 팽선생을 찾아온다.

SF의 유령
한 문학 지망생이 흠모하는 SF 작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

Last Year

2666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볼라뇨가 시간과 싸우며 초조하게 완성해 간 대작. 아마 아직까지는 21세기의 최고의 소설.

프란츠 카프카, 『소송』, 『성』
볼라뇨가 필독서로 꼽은, 20세기 환상문학의 출발.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 『나사파리 구제법』
여성임을 감추고 남자 필명을 썼던 작가의 걸작 SF집. 그녀는 『SF의 유령』에도 등장한다.

토머스 핀천, 『중력의 무지개』
『2666』에 등장하는 전설적 작가 아르킴볼디가 핀천을 가리킨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SF의 유령

박세형 옮김 | 최용준 감수 | 2022년 | 264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1984년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했고, 사후인 2016년 11월 출간된 작품. 두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로 다른 두 계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계열은 레모의 이야기로, 1인칭 화자의 시점을 통해 작가를 꿈꾸는 칠레 청년이 멕시코시티에서 겪는 사건들을 서술한다. 두 번째 계열은 한의 이야기로 그가 쓴 SF 소설과 미국의 SF 작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터뷰 및 서간문 형식을 빌려 전개된다. 볼라뇨의 대표작들로 이어지는 인물들과 줄거리, 모티프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

낭만적인 개들

김현균 옮김 | 2018년 | 248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한국어로 처음 소개되는 볼라뇨의 시집. 볼라뇨가 20대 때부터 쓴 40여 편의 시들을 모은 그의 대표 시집 중 하나다. 혁명의 좌절, 라틴 아메리카의 비루한 현실, 방황하는 멕시코의 젊은 시인들에 대한 연민, 연인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 등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집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문학에 병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젊은 시절 볼라뇨의 순수한 초상과 문학을 향한 분투의 기록을 담고 있다. 소설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나 본래 시인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평생 소설이 아닌 시를 자신의 문학의 본령으로 여겼던 〈시인 볼라뇨〉의 맨얼굴을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다.

- 1994년 스페인 이룬시 문학상
- 1994년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시 쿠차 문학상

악의 비밀

박세형 옮김 | 2018년 | 23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볼라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상적인 글들을 모아 엮은 유고 작품집으로, 그의 네 번째 단편집이다. 어느 평범한 기자의 일상에 끼어든, 새벽 4시에 걸려 온 수상한 전화. 프랑스 문인들을 찍은 사진 한 장에서 출발한 어지럽고 은밀한 상상의 모험. B급 좀비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쓰는 누군가의 불온한 전기. 세상을 떠난 그리운 친구의 집에서 맞닥뜨린 엉뚱한 사람들과의 기이한 조우. 그 밖에, 이방인처럼 떠돌며 세상을 응시하는 볼라뇨의 분신들과 상상의 편린들이 담긴 총 19편의 작품들을 수록했다.

아이스링크

박세형 옮김 | 2014년 | 28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볼라뇨의 초기 소설이다. 배경은 스페인 어느 해변 휴양지의 여름. 칠레의 작가 겸 사업가와 멕시코 출신 불법 노동자, 그리고 카탈루냐의 공무원 등 세 남자가 차례로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 아리따운 피겨 스케이터, 스케이트장, 한 범죄와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각기 다른 이야기.

- 1993년 알칼라데에나레스 시 중편소설상
-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캔자스 시티 스타」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살인 창녀들

박세형, 이경민 옮김 | 2014년 | 29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볼라뇨의 두 번째 단편집이다. 13편의 이야기 중 일부는 자전적 성격이 매우 강해 작가 자신의 방황과 정신 상태, 또는 다른 칠레 망명자들과 멕시코,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방황하는 이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른 단편들은 광기, 절망, 고독, 사랑, 사후 세계,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문학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시는 폭력을 만나고, 포르노그래피는 종교를 만나며, 축구는 흑마술을 만난다.

안트베르펜

김현균 옮김 | 2014년 | 14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난해하게 쪼개진 소설로, 볼라뇨의 무의식 세계와 비관적 서정성으로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서문이자 초현실주의 시와 같은 작품. 55편의 글과 한 편의 후기로 이루어진 눈부시고 실험적인 문학적 퍼즐이다.

2666

10

송병선 옮김 | 2013년 | 전5권 | 각 308, 136, 232, 548, 528면 | B6 견장정 | 66,600원 **eBook**

2003년 여름 볼라뇨가 세상을 뜨고 몇 달 후인 2004년에 첫 출간된 『2666』은 그의 최대 야심작이자 일생의 역작이다. 그는 죽기 전에 이 책을 마치기 위해 시간을 다투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거대한 책은 흥분과 스릴이 가득한 묵시록적인 백과사전과 같은 초대형 소설로, 1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5부에 걸쳐 80년이란 시간과 두 개 대륙, 3백 명의 희생자들을 두루 관통한다. 『2666』은 죽음, 사막, 유령 작가들, 실종된 사람들, 문학, 외로움의 이야기이며, 한마디로 말해 소설의 신기원이다.

- 2003년 바르셀로나 시 상
- 2004년 살람보상
- 2005년 알타소르 소설상
- 2005년 산티아고 시 문학상
- 2008년 전미 서평가 연맹상
- Salon.com 선정 〈2008년 최고의 책〉
- 「뉴욕 타임스」 선정 〈2008년 최고의 책〉
- 『타임』 선정 〈2008년 최고의 책〉
-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스펙테이터」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텔레그래프」 선정 〈2009년 최고의 소설〉
- 「인디펜던트 온 선데이」 선정 〈2009년 최고의 문학〉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NRC 한델스블라드」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가디언」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책 50권〉(2009)
- 「라 반과르디아」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책 50권〉 1위
- 스티븐 킹이 꼽은 〈2009년 최고의 책 10권〉
- 2013년 『GQ』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21선〉
- 2015년 BBC Culture 선정 〈21세기 최고의 소설 20선〉
- 2016년 『엘 파이스』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문학〉 1위
- 「세마나」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소설 100권〉 4위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팽 선생

남진희 옮김 | 2013년 | 19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의 뒤숭숭한 파리. 피에르 팽은 전쟁에서 폐 손상을 입고 퇴역해 연금과 최면 치료로 근근이 살아간다. 어느 날 남몰래 흠모하던 여인으로부터 한 남자의 멈추지 않는 딸꾹질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단조로웠던 그의 세계가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꿈과 암시, 실제와 허구가 난무하는 이 미스터리는 독자의 초현실적 감각을 자극하며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야기한다. 볼라뇨의 작품 세계를 〈원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초기작.

● 1994년 펠릭스 우라바옌 중편 소설상

참을 수 없는 가우초

2

이경민 옮김 | 2013년 | 19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볼라뇨가 죽기 직전 완성한 짤막한 글 7편(5편의 단편과 2편의 에세이)이 수록된 이 책은 이야기와 강연의 이상한 조합, 생각거리를 주는 허구와 문학 비평의 혼합이다. 책 제목과 같은 참을 수 없는 가우초, 불을 뱉는 사람, 비열한 경찰관, 표절 행위, 종교에 관한 이야기와, 스페인어 문학과 용기에 관한 씁쓸할 만큼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실려 있다. 또한 자신이 죽어 가고 있음을 아는 자멸적인 위대한 작가의 통렬한 증언인 에세이 「문학+병=병」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이 책은 볼라뇨의 문학적 유서라고 할 수 있다.

● 2004년 알타소르 소설상

제3제국

이경민 옮김 | 2013년 | 40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전쟁 게임 〈제3제국〉의 독일 챔피언 우도. 휴가차 떠난 스페인의 휴양지에서도 그는 일광욕을 즐기는 대신 새로운 게임 전략을 세우는 데 골몰한다. 우도는 수상쩍은 청년 케마도에게 게임을 가르치다가 점차 강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스스로 창조한 세계에 갇혀 버린다. 2010년 육필 원고로 발견되어 유작으로 출간된 볼라뇨의 초기작.

야만스러운 탐정들

3

우석균 옮김 | 2012년 | 전2권 | 각 480, 528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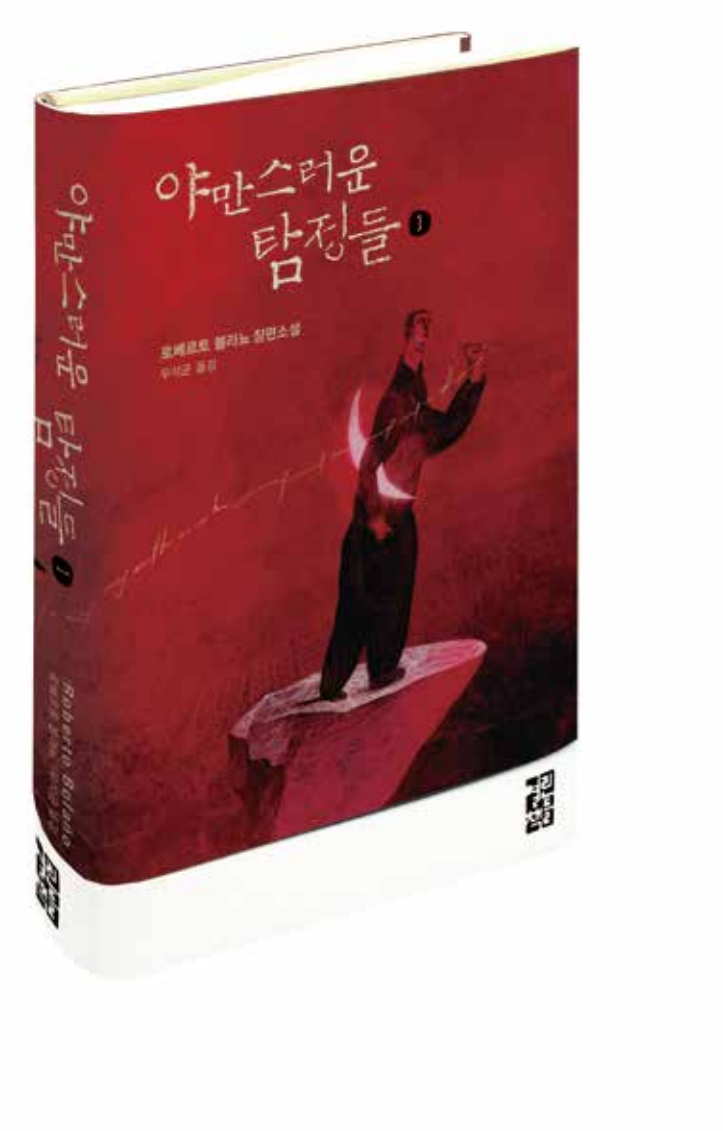
〈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청년 벨라노와 리마. 과격 시 운동 그룹의 리더인 두 사람은 기존 모든 시의 관습을 비웃는다. 수십 년 전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여성 시인의 행적을 조사하던 그들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을 계기로 그녀를 찾아 떠나게 된다. 야만스러우리만치 우스꽝스럽게 자신의 세대를 조롱하다가도, 그만큼이나 섬세하게 부서져 버린 삶들의 조각을 이어 붙이는 볼라뇨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작품.

● 1998년 스페인 에랄데 소설상

● 1999년 로물로 가예고스상

20
Books

Roberto Bolaño



- 「뉴욕 타임스」 선정 2007년 최고의 책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선정 2007년 최고의 책
- 「슬레이트」 선정 2007년 최고의 책
- 「워싱턴 포스트」 선정 2007년 최고의 책 10선
- 『뉴욕 매거진』 선정 2007년 최고의 책 10선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선정 2007년 최고의 책
- 「텔레그래프」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책 100권〉 중 7위
- 2010년 『GQ』(프랑스)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소설 50선〉
- 2016년 『엘 파이스』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문학〉 3위
- 「세마나」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소설 100권〉 3위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전화

박세형 옮김 | 2010년 | 32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볼라뇨의 첫 번째 단편집이다. 어느 정도는 자전적인, 또는 순전히 허구인 작품들이 실린 이 단편집에는 시인, 작가, 탐정, 군인, 낙제한 학생, 러시아 여자 육상 선수,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와 그 외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14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와 우수에 대한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 1997년 산티아고 시 문학상

20
Books

먼 별

권미선 옮김 | 2010년 | 208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카를로스 비더는 연기로 하늘에 시를 쓰는 비행기 조종사이면서 피노체트 치하 칠레의 살인 청부업자다. 현학적이면서 강렬한 이 소설은 모순으로 가득 찬 한 남자 그리고 피노체트 치하 암울한 시절에 그를 알고 지낸 젊은 시인들의 이야기다.

- 「세마나」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소설 100권〉 14위

부적

김현균 옮김 | 2010년 | 20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아욱실리오 라쿠투레.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이 우루과이 여인은 지금 한 화장실에 갇혀 있다. 치마를 걷어 올린 채 변기에 걸터앉아 시인 페드로 가르피아스의 시를 읽고 있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마도 광기가 나를 이끌었으리라고.

1968년 9월 멕시코 경찰 기동대와 군대가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를 습격했을 당시 13일간 화장실에 숨어 지냈던 최후의 1인, 아욱실리오의 이 몽환적인 회고담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동시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여인의 무질서한 기억을 더듬어 간다. 스스로를 〈멕시코 시(詩)의 어머니〉라 칭했던 한 보헤미안의 삶을 직조하는 수많은 시인, 철학자, 화가들에 관한 이야기가 1968년 9월의 끔찍한 기억과 교차하며 시간 여행을 한다.

- 「텔레그래프」 선정 〈2009년 최고의 소설〉

칠레의 밤 10

우석균 옮김 | 2010년 | 176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임종을 앞둔 칠레의 보수적 사제이자 문학비평가인 세바스티안 우루티아 라크루아의 독백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설. 라크루아는 피노체트 치하의 공포가 만연한 사회에서 수동적인 공범처럼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가책을 느끼고 속죄의 고백을 이어 간다. 이 작품은 기념비적인 대작 『2666』으로 향하는 입구인 동시에, 볼라뇨 스스로 자신의 짧은 소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꼽은 것이기도 하다. 무수한 인용, 불분명한 문학적 언급, 지적 은유, 독특한 작가들에 대한 남다른 성찰 등 볼라뇨만의 문학적 특질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소설이다.

[버즈북] 볼라뇨, 로베르토 볼라뇨

박세형, 오숙은 옮김 | 2010년 | 272면 | B6 연장정 | 666원 eBook

〈라틴 아메리카 최후의 작가〉 로베르토 볼라뇨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알리는 비평 선집이자 열린책들에서 펴내는 첫 버즈북이다. 세계 유수의 평론가들이 써 내려간, 볼라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애정이 묻어나는 평론들에 이어 로베르토 볼라뇨 생전 프루스트 인터뷰, 그리고 열린책들에서 발간될 볼라뇨의 장편 소설 및 단편집들을 깊이 있게 다룬 비평 등이 실려 있다. 국내 출판계에 전무후무할 파격적인 가격 〈666원〉은 볼라뇨의 대작 『2666』의 제목에서 영감을 얻었다.

★ 〈버즈북buzzbook〉이란?

버즈북은 열린책들에서 펴내는 신간 예고 매체입니다. 소문이 자자하다는 뜻의 buzz와 book의 합성어로, 중요 작가의 신작이나 저술을 펴내기 전에 〈저자나 책에 대해 미리 귀띔해 주는 책〉입니다. 열린책들은 이 버즈북을 통해 독자들에게 미지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볼라뇨-전염병 감염자들의 기록

에두아르도 라고 외 지음 | 신미경 옮김 | 2014년 | 320면 | B6 연장정 | 2,666원

로베르토 볼라뇨 특집판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잡지 『시클로코스미아*CYCLO-COSMIA*』 3호의 내용과 국내 필진의 글을 함께 실은 책이다. 국내외의 작가, 비평가, 번역가, 그의 주변 인물들,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로베르토 볼라뇨를 주제로 작가론, 작품론 등의 비평과 더불어 그에 대한 에세이와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오마주 작품을 담았다. 가격은 볼라뇨의 대표작 『2666』에서 따와 2,666원이다.

로베르토 볼라뇨 컬렉션 한정판 세트 (총 12종 17권)

절판

2010년 열린책들은 볼라뇨 문학이 갖는 특성인 작품과 작품 사이에 긴밀한 내적 연결, 즉 간(間)텍스트intertext성을 고려해 전체 작품의 번역 출간을 추진하게 됐다. 2014년 볼라뇨의 작품 완간을 기념하여 특별 주문 제작한 목제 책장에 열린책들에서 5년간 출간한 볼라뇨의 작품을 넣어 한정판 세트를 내놓았다. 〈로베르토 볼라뇨 컬렉션〉에는 2010년 『칠레의 밤』부터 2012년 『야만스러운 탐정들』, 2013년 『2666』, 2014년 『아이스링크』에 이르기까지, 총 12종 17권이 담겨 있다.

총 17권, 총 4,565페이지, 196,140원

20
Books

표지 그림 알베르트 모랄레스 아후벨Alberto Morales Ajubel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1956년 쿠바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그는 미학을 공부한 뒤 쿠바 일간지의 풍자 만화가로 활동했다. 1991년 스페인에 아트 스튜디오를 열고 그림책, 일러스트, 디자인, 사진, 만화 등 다방면에 걸친 예술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독특한 그림책 작품 『로빈슨 크루소』, 『자유로운 새』 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스페인 아동 문학 최고 삽화상(2003), 발렌시아 시립 문화상 최고 삽화 부문(2007), 볼로냐 국제 도서전 최우수상(2009), CJ 그림책상(2009) 등 전 세계 유수의 상을 50개 이상 수상했다. 쿠바, 불가리아, 폴란드,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100회 이상의 전시를 연 바 있다. www.ajubelstudio.com

전화
면벌
부적
살인 청사들
참을 수 없는 가우초
평화
야만스러운 밤짐들
아이스링크
제3제국
칠레의 밤
2666
낭만적인 여름
악의 비밀

Georges Simenon

조르주 심농

〈심농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소설가이다.〉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평생 4백 편을 웃도는 소설을 쓰고, 약 20개의 필명을 지녔으며, 1만 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남자. 벨기에 작가 조르주 심농은 〈다산성(多産性)〉의 작가다. 엄청난 다작, 그것도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성을 지닌 다작으로 유명한 심농은 그를 추리 소설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한 〈매그레 시리즈〉 103편, 기타 장편 소설 117편, 그리고 필명으로 쓴 저작까지 모두 4백 편이 넘는 소설을 썼다. 프랑스어로 쓰인 그의 소설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5억 권 이상 팔려 나갔다. 심농은 1966년 미국 추리 작가 협회의 그랜드 마스터상을 받았다. 애거사 크리스티와 엘러리 퀸 등이 받은 상이다.

조르주 심농은 1903년 2월 13일 벨기에 리에주에서 태어났다. 1919년 열여섯 살에 『가제트 드 리에주』지의 기자가 된 심농은 이곳에서 1천 편에 달하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1922년 파리 북역에 발을 디딘 후 1924년부터 장 뒤 페리, 조르주 마르탱 조르주, 크리스티앙 브륄, 조르주 심 등 20여 개의 필명 아래 대중 소설들을 펴냈다. 이어 심농은 일약 세계적인 추리 소설 작가로 등극했다. 바로 그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매그레 반장〉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신다. 덩치가 큰 사람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용의자를 추적하여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다. 나는 이 인물에게 몇 가지 액세서리를 부여했다. 파이프, 모자, 벨벳 칼라가 달린 묵직한 외투…….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는 낡은 주철 난로 하나를 놓기로 했다.〉 – 조르주 심농
1929년 심농은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파이프 담배를 문 매그레 반장 캐릭터를 처음 구상했다. 심농이 매그레를 주인공 삼아 집필한 첫 작품은 「불안의 집」이라는 단편으로, 이 작품은 1932년 조르주 심이라는 필명 아래 출간되었다. 그러나 심농이 자신의 본명으로 매그레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한 것은 1931년의 일이다. 『수상한 라트비아인』, 『갈레 씨, 홀로 죽다』, 『생폴리앵에 지다』,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 등 한 해에만 열한 편의 작품을 펴냈고,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이제 작가 심농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된 매그레 반장은 총 103편(장편 75편, 단편 28편)의 이야기에 등장, 독특한 심리 수사로 사건을 풀어 가며 셜록 홈스, 아르센 뤼팽과 더불어 추리 문학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심농의 작품들은 수없이 영화화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60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기도 했던 심농의 작품 중 최초로 영화화된 소설은 『교차로의 밤』(1931)으로, 1932년 장 르누아르가 감독했다. 이후 프랑스에서만 70편이 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텔레비전 시리즈로도 제작되는 등, 심농 그리고 매그레 반장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스크린을 누비고 있다.

Interview

조르주 심농 인터뷰

픽션의 기술

정월의 어느 화창한 날 오후, 코네티컷 레이크빌 끝자락에 앉아 있는 하얀색 집의 심농 서재. 활달하고 효율적이며 따뜻하고 절제된 주인의 모습 그대로다. 벽 책장에는 이제 그의 전공 분야나 다름없는 법의학 관련 서적, 소설 속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참조하는 여러 나라의 전화번호부가 꽂혀 있고, 얼마 전 마흔아홉 번째 매그레의 배경으로 삼은 도시의 지도, 매그레 시리즈를 쓴 날을 굵은 크레용으로 X 표해 놓은 달력이 걸려 있다. 한 장을 쓰는 데 하루, 그것을 다시 읽고 고치는데 사흘. 너그럽게도 그는 그 고된 작업을 멈추고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옆 사무실, 남편과 인터뷰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한 아내가, 매년 소설 여섯 편을 발표하고, 2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 각색, 번역 계약을 맺는 남편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돌아간다. 심농이 진술에 일상적인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의미의 뉘앙스를 부여하는 정중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거실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를 이어 간다.

초보 작가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면요?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나는 이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스스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소명이기 때문이죠. 나는 결코 예술가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전쯤 한 평론가가 오늘날 소설이 19세기에 쓰였던 종류의 소설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지 물었는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작가들이 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어서, 완전하고 충만한 표현을 통해 인물들을 보여 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시절의 문학에서처럼 멋진 이야기를 통해 사랑을, 두 연인이 함께 보내는 첫 열 달을 보여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연인들이 지겨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19세기 말의 문학이었어요. 그런데 더 멀리 나아가면, 50대가 된 남자는 다른 삶을 살아 보려 하고, 여자는 질투에 빠지고, 그 갈등에 아이들까지 끼어드는 때가 오죠.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들이 결혼했을 때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겨워할 때도요. 우린 끝까지 갑니다.

독자가 없어도 글을 계속 쓰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내 책이 팔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업적인 작품, 잡지사에 보낼 이야기 같은 것들을 썼는데, 난 그걸 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언젠가 책이 되어 나오리라는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은 채, 나 자신을 위해 글을 썼죠.

그것이 작업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선생님은 저자이므로 자신이 〈시장〉을 위해 소설을 썼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하지만 오로지 외부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독자는 그렇질 않죠. 그는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을까요?

큰 차이점은 타협에 있을 겁니다. 상업적인 글을 쓸 때는 늘 타협해야 할 게 생기기 마련이죠.

예를 들자면, 삶이 질서정연하고 달콤하다는 생각 같은?

그리고 도덕적 관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코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상업적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코드는 늘 있기 마련이죠. 할리우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있는 코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텔레비전에 아주 훌륭한, 어쩌면 최고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1, 2편은 늘 일류예요. 시청자는 완전히 새롭고 강력한 뭔가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끝에 가면 타협이 일어납니다. 늘 해피엔드는 아니지만, 어떤 윤리나 철학의 관점에서 비롯된 뭔가가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죠. 아름답게 빚어진 모든 캐릭터들이 마지막 10분 동안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비상업적인 소설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타협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갈 게 아니라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소설에서 작용한 대로 선생님의 관점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패턴이 있다고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그건 내가 아니라 몇몇 프랑스 비평가들이 발견한 거죠. 나는 평생, 문학적인 삶을 사는 동안 —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 내 소설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취했고, 거의 10년마다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었어요. 아마도 절대 해답을 찾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문제들은 다섯 번 이상 다루기도 했어요.

그 문제들을 다시 다루게 될까요?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 — 그것들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 는 두 번 다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다루지 않을 것 같은 주제는 무엇인가요?

〈구성단위의 해체〉라는 주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 구성단위는 주로 가족이었죠.

그 주제를 자주 다루셨습니까?

두세 번. 어쩌면 더 많이.

소설 『혈통』에서?

예, 거기서 다루었죠. 하지만 내 책 가운데 남길 책을 딱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절대 『혈통』을 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다음〉 책.

그다음에는 또 다음 책?

그렇습니다. 늘 그다음 책이죠.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출간된 것들 가운데 살아남을 책 한 권을 지명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설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늘 성공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낙담하지는 않아요. 또다시 시도하길 원하죠. 그런데 한 가지, 난 내 모든 작품을 같은 수준이라고 간주하지만, 그중에도 단계들이 있어요. 같은 그룹의 소설 대여섯 권을 쓰고 나면, 〈발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질적인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대여섯 권을 쓸 때마다 다른 것들보다 아끼는 작품이 나오죠.

〈순수〉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순수〉 소설은 오로지 소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게 될 겁니다. 뭔가를 가르칠 필요도, 저널리즘적인 작업을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순수 소설에서라면 미국 남부나 애리조나, 혹은 유럽의 어떤 나라를 묘사하는 데 60쪽을 할애하지는 않을 겁니다. 드라마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이 드라마를 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들만 더하면 되죠. 오늘날 소설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극의 법칙들을 소설에 옮겨 놓은 셈이랄까요. 난 소설이 오늘날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쓴 책들이 영화와 라디오 방송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그건 오늘날 작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작가가 계속 독립적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내 소설 중 한 편이라도 그 안의 무언가를 상업적으로 바꾼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난 〈없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가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 했을 겁니다.

언젠가 선생님의 상업 소설에 가끔 비상업적인 구절이나 장을 끼워 넣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군요.

예.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장에서는 이야기만 쓰는 대신 삼차원적 입체감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꼭 장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에, 의자 하나에, 어떤 물건에 말입니다. 회화 용어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어떻게요?

무게감을 주는 거죠. 상업적인 화가는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세잔 같은 화가가 그린 사과는 무게를 갖고 있죠. 과즙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단 세 번의 붓질로 말이에요. 나는 내 단어들에 세잔이 붓질로 사과에 주었던 무게를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려고 애쓰죠. 예를 들어 〈황혼〉 같은 시적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멋진 단어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입체감에 뭔가를 주지 못하는 붓질은 피하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평가들이 내 〈분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에 적용된 회화의 인상주의일 뿐입니다. 나는 인상주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늘 미술관과 전시회를 돌아다녔죠. 그렇게 일종의 감각을 얻었습니다. 사로잡혔다고 할까요.

상업적이든 아니든, 소설을 받아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뇨. 나는 장인입니다. 손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죠. 난 나무 조각에 내 소설을 새기고 싶어요. 내가 창조한 인물들이 좀 더 입체적이고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또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시에 대해 이야기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 목표는 소설가보다는 시인의 그것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인물들에게는 직업, 특징들이 있어요. 당신은 그들의 나이, 가족 상황 등, 모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인물 하나하나를 조각상처럼 무게 있게, 세상 모든 이의 형제가 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받는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들은 결코 나의 아름다운 문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치의 혹은 정신 분석 학자에게나 보낼 만한 편지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소설에서 얼마나 여러 번 저 자신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여러 장에 걸쳐 속내를 털어놓죠.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유력 인사도 많아요. 나 또한 놀라고 있습니다.

1~2년 전 진행 중인 어떤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선생님은 그런 신문 기사를 자주, 흥미 있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건 언젠가 내 소설에 써먹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예.

그걸 의식적으로 정리해 두시나요?

아뇨. 언젠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3~4년, 혹은 10년 후에 떠오르죠. 파일로 보관하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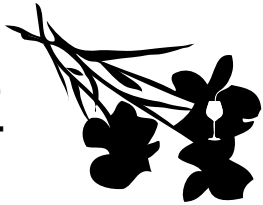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평이 어떤 식으로든 의식적으로 글 쓰는 방식을 바꾸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내겐 글쓰기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갈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비평가들이 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해 왔어요. 〈이제는 심농이 인물 20~30명이 등장하는 대작을 내놓을 때다.〉 그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난 대작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나의 대작은 내 모든 작은 소설들이 모여 이루는 모자이크예요. (위를 올려다보며) 이해하시겠습니까?

카벨 콜린스, 이상해 옮김, 『파리 리뷰』, 195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PARIS-
BERGERAC
15
16
17
18
19
상동
매그레 반장,
삶을 수사하다

심농에게 바친 거장들의 찬사



Ernest Hemingway 어니스트 헤밍웨이

만약 아프리카 우림에서 비 때문에
꼼짝 못 하게 되었다면, 심농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대처법은 없다.
그와 함께라면 난 비가 얼마나 오래 오든 상관 안 할 것이다.

21
Books

Julian Symons 줄리언 시먼스

20세기의 가장 비범한 문학적 현상.

Albert Camus 알베르 카뮈

심농의 『쿠데르 씨의 미망인』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다.

Luis Sepúlveda 루이스 세풀베다

겨울에는 코냑 한 통, 그리고 심농 전집과 지내는 게 최고다.

John le Carré 존 르카레

깊이의 거장. 심농은
허구에서든 현실에서든, 열정적이든 이성적이든
한결같이 자유로웠던 소설가이다.

Gabriel García Márquez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조르주 심농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소설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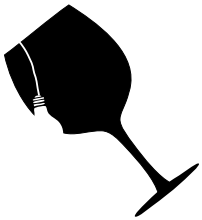
SIMENON
Maigret

Walter Benjamin 발터 베냐민

나는 심농의 새 소설이 나올 때마다 얼른 사서 읽는다.

Thornton Wilder 손턴 와일더

심농에게는 이야기꾼의 재능이 손가락 끝까지
배어 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서 뭔가를 배워야만 한다.



André Gide 앙드레 지드

오늘날 프랑스 문학계에서 가장 소설가다운 소설가.

Patricia Highsmith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모든 작가는 자기 자신만의 안경을 가지고 있다. 심농의 안경은 그야말로
순수한 유리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는.

Federico Fellini 페데리코 펠리니

모두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최고의 벗. 일과 삶의 동반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며 힘을 북돋워 주는 지표.

Gaston Gallimard 가스통 갈리마르

오늘의 참된 소설가는 당신뿐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Henry Miller 헨리 밀러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쓰면서도 그토록 뛰어난 작품성을 유지하는 것이 놀랍다.

Georges Simenon

Maigret Series

매그레 시리즈

21
Books

[버즈북] 조르주 심농 매그레 반장, 삶을 수사하다

조르주 심농 외 | 성귀수, 이상해, 임호경, 최애리 옮김 | 2011년 | 224면 | B6 연장정 | 750원

추리 소설 사상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 중 하나인 매그레 반장이 활약하는 〈매그레 시리즈〉를 본격 소개하기에 앞서, 매그레 반장을 창조한 작가 조르주 심농의 작품 세계와 그의 독특하고도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도록 펴낸 책. 〈괴짜〉 혹은 〈이변〉이라고까지 불렸던 심농의 이색적인 삶과, 작가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인 매그레 반장의 탄생 비화부터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편지와 인터뷰, 연보, 에세이, 전기 등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마제스틱 호텔의 지하

임호경 옮김 | 2017년 | 256면 | B6 변형 견장정 | 11,800원 eBook

파리의 특급 호텔 지하에서 발견된 한 여자의 시체! 호텔의 커피 준비실 실장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매그레 반장은 비밀스러운 손님과 직원들을 조사하는데……. 파리의 특급 호텔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매그레는 상류층 손님들과 그들을 둘러싼 분위기에 반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사를 해나간다.

매그레와 벤치의 사나이

최애리 옮김 | 2017년 | 256면 | B6 변형 견장정 | 11,800원 eBook

파리 생마르탱 대로의 어느 으슥한 골목, 한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군중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고독한 중년 사내의 비밀스러운 속사정들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평범한 추리 소설처럼 보이는 형식 안에 인간의 삶의 어두운 이면을 포착하는 매그레 시리즈 특유의 미학이 묵직하게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01 수상한 라트비아인

성귀수 옮김 | 2011년 | 272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매그레는 국제경찰기구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기범, 일명 〈라트비아인 피에트르〉가 파리로 오고 있다는 전보를 받고, 그가 도착할 기차역으로 나간다. 그러나 역에서 그의 인상착의와 꼭 같은 남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도 잠시, 곧바로 열

차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남자가 피살된 채 발견된다. 심농이 매그레 반장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워 쓴 최초의 장편소설.

02 갈레 씨, 홀로 죽다

3

임호경 옮김 | 2011년 | 264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은식기를 팔러 다니는 방문 판매 사원 에밀 갈레가 파리 교외 상세르의 한 호텔에서 총과 칼에 맞은 채 발견된다. 부고를 전하기 위해 갈레의 집을 방문한 매그레는 꼿꼿한 갈레 부인과 병적인 모습의 생전 사진 등 집안의 묘한 분위기를 감지한다. 게다가 조사를 할수록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갈레의 삶에 의문스러운 점이 드러나는데…….

03 생폴리앵에 지다

2

최애리 옮김 | 2011년 | 216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업무차 방문한 브뤼셀에서 3만 프랑의 거금을 일반 소포로 부치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를 발견한 매그레는 반쯤은 재미 삼아 그의 뒤를 밟는다. 그러나 암스테르담을 거쳐 독일 브레멘의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간 그 남자는 자신의 낡은 가방이 사라진 걸 알아차리고, 매그레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데…….

04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

2

이상해 옮김 | 2011년 | 208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운하를 지나는 선원과 마부들이 쉬어 가는 카페 드 라 마린에 딸린 마구간 짚 더미 속에서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다. 매그레 반장은 신원조차 알 수 없었던 그녀의 남편을 우연히 찾아내지만, 영국군 퇴역 대령인 사내는 아내의 죽음을 안 남자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침착한 반응을 보인다. 게다가 그는 아내가 사라지고 사흘이 지나도록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05 누런 개

2

임호경 옮김 | 2011년 | 208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한적한 항구 도시 콩카르노, 밤마다 라미랄 호텔의 카페에 모이던 도시의 유력 인사들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 한밤의 총격을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그들이 마시던 술병에서 독약이 발견된다. 사건 현장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개가 출몰하고, 평화롭던 콩카르노는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한다.

06 교차로의 밤

2

이상해 옮김 | 2011년 | 208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파리에서 에탕프로 이어지는 한적한 국도 변, 〈세 과부 교차로〉에서 한 남자가 사체로 발견된다. 자기 집 차고에 자기 차 대신 이웃집의 차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 보험업자가 이웃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차와, 그 안에 죽어 있는 시신을 발견한 것. 이 교차로에는 오직 세 가구만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세 집은 모두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07 네덜란드 살인 사건

성귀수 옮김 | 2011년 | 240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네덜란드 엠스 강변의 도시 델프제일에서 해군 사관 학교 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총격을 당한다. 사건 현장에서 권총을 쥐고 뛰어나오던 초청 연사 뒤클로 교수가 용의자로 지목되고, 그는 프랑스 경찰에게 자신의 보호를 위해 인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매그레는 네덜란드 북단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 발을 딛는다. 심농이 젊은 시절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처음 매그레 반장의 캐릭터를 구상한 곳으로 알려진 델프제일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 이국적인 네덜란드의 풍광과 더불어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그곳 사람들의 특징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08 선원의 약속

이상해 옮김 | 2011년 | 224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영불 해협에 면해 있는 도시 페캉의 항구에서 대구잡이 어선 〈오세앙〉호의 선장이 살해당한다. 용의자로 체포된 이는 배의 전신 기사로 승선했던 청년. 청년의 스승이었던 옛 친구의 부탁으로 페캉에 간 매그레는 오세앙호의 이번 조업이 〈저주〉라 불릴 만큼 불길한 사고들로 가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번 나가면 몇 달씩 돌아오지 못하는 폐쇄적 공간,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선원들의 암묵적 합의. 그 침묵의 계율을 뚫고 사건의 진상을 하나씩 밝혀 나가는 매그레의 활약.

21
Books

09 타인의 목

최애리 옮김 | 2011년 | 232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어느 부유한 부인과 그 하녀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사건을 수사한 매그레는 너무나 명백한 물증들이 가리키는 한 남자를 검거한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용의자는 사형 선고를 받지만, 범행 동기를 결국 알아내지 못한 매그레는 그가 〈미쳤거나, 무죄〉일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은 물론 경찰 인생까지 좌우할 일생일대의 도박을 하기로 결심한다. 바로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를 몰래 풀어준 뒤 진범을 잡기로 한 것. 과연 매그레의 대담한 작전은 성공할 것인가?

10 게물랭의 댄서

성귀수 옮김 | 2011년 | 248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풋내기지만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두 청년 샤보와 델포스. 그들은 유흥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골 카바레 〈게물랭〉의 금고를 털기로 작당한다. 그러나 가게가 문 닫기를 기다려 어둠 속에서 도둑질에 나선 그들은, 가게의 아름다운 댄서와 이야기를 나누던 부유한 손님의 시체를 발견한다. 혼비백산해서 줄행랑을 친 그들의 주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구의 사나이가 계속 출몰하고,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속임수가 난무하던 그날 밤의 진실은?

11 센 강의 춤집에서

임호경 옮김 | 2011년 | 232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한 사형수가 집행 전날, 자신을 면회하러 온 매그레에게 수년 전 목격했던 살인 사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매그레는 범인이 출입한다던 〈두 냥 춤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신명 난 춤판이 벌어진 그곳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셔츠점을 운영하는 팽스탱이 총에 맞아 죽고, 그 현장에서 다름 아닌 그의 친구 바소가 권총을 든 채로 목격된 것. 강렬한 햇빛 아래 벌어지는 댄스파티, 질펀한 춤과 독한 술, 유혹과 욕망이 뒤얽힌 사건 속에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

12 창가의 그림자

이상해 옮김 | 2011년 | 216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파리 보주 광장 61번지의 혈청 제조실에서 사장 쿠셰가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다. 의문스러운 점은 그가 금고 앞에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데, 금고 속 돈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 범인이 돈을 꺼낸 다음 죽은 그를 다시 금고 앞에 옮겨 놓을 리가 없다고 한다면, 절도범과 살해범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쿠셰의 세 여자와 아들, 그리고 보주 광장 61번지의 의심스러운 주민들 가운데 범인은 누구?

13 생피아크르 사건

성귀수 옮김 | 2011년 | 232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어느 날 경찰청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종이쪽지가 날아든다. 사건이 벌어질 장소는 다름 아닌 매그레의 고향 생피아크르. 수십 년 만에 찾아간 그곳에서 매그레는 어린 시절 우아함과 고상함의 화신처럼 우러러보았던 백작 부인이 〈살인자 없는 살인〉에 의해 죽는 것을 목격한다. 범인을 찾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추억과 조우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매그레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작품.

14 플랑드르인의 집

성귀수 옮김 | 2011년 | 216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매그레는 벨기에와 국경을 접한 소도시 지베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의 수사를 사적으로 부탁받는다. 한 미혼모 아가씨가 실종되었는데, 그 용의자로 아이 아버지로 여겨지는 플랑드르인 남자 집안 가족이 지목받은 것이다.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목격되었으나 나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한 사건. 과연 범인은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그 집안 식구일까?

15 베르주라크의 광인

이상해 옮김 | 2011년 | 208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매그레는 은퇴한 옛 동료의 초대로 도르도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그는 같은 침대칸을 쓰게 된 수상쩍은 사내를 따라 기차에서 뛰어내렸다가 불의의 총상을 입는다. 고열에 시달린 끝에 정신을 차린 곳은 베르주라크의 병원. 그곳에서 매그레는 〈미치광이 살인자〉로 몰리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데……. 평소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범인을 추적하는 매그레의 두뇌 싸움.

16 안개의 항구

최애리 옮김 | 2011년 | 272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파리 시내에서 정체불명의 한 사내가 발견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도 못 알아듣는 그의 머리엔 총상과, 그것을 봉합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그의 신원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그가 위스트르앙에서 항만 관리를 맡고 있는 전직 선장임을 알려 준다. 매그레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로 향하지만, 안개 낀 항구만큼이나 그곳 사람들의 침묵은 짙기만 하다. 기억을 잃기 전 더없이 성실했던 사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7 리버티 바

임호경 옮김 | 2011년 | 232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매그레는 한때 프랑스 첩보부와 관련되었던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된 현장을 찾아 앙티브 역에 내린다.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 윌리엄 브라운의 애인과 그 어머니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브라운은 아내와 자식을 떠나 휴양지의 나른함이 짙게 밴 카프 당티브 별장에서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집을 비웠던 그가 이미 등에 칼을 맞은 채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그가 집을 떠나 머물고 있던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8 제1호 수문

이상해 옮김 | 2011년 | 224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파리 외곽의 한 수문 근처, 칼에 찔린 채 물에 빠졌던 한 사내가우연히 발견되어 목숨을 건진다. 그는 예인선과 채석장을 여럿 가진 마을의 거부, 에밀 뒤크로이다. 매그레는 뒤크로의 요청으로 은퇴 전 마지막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하루 종일 술에 절어 지내는 노인과 일견 호탕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이는 뒤크로,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들 주변으로 또 다른 사건들이 잇따른다. 두 사내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매그레의 심리 수사가 돋보이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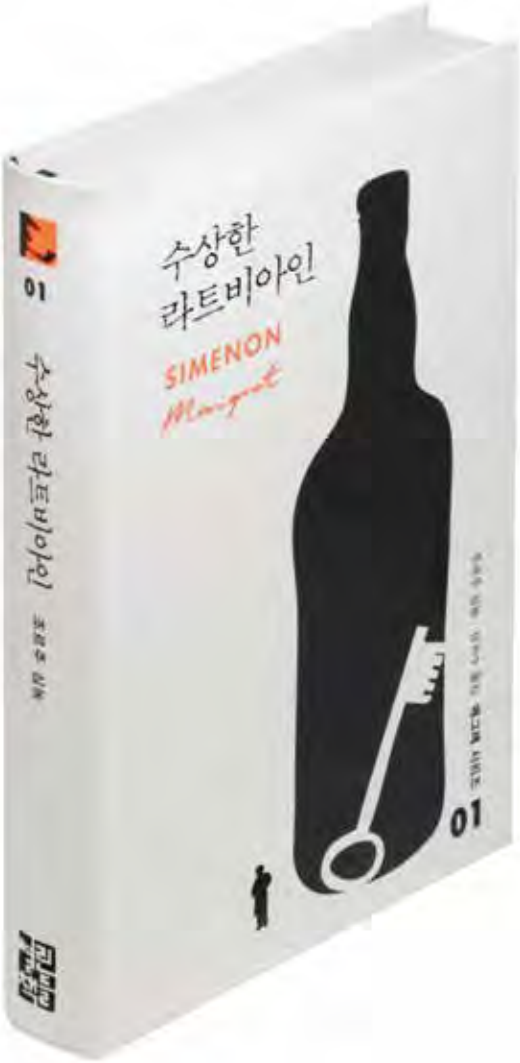
19 매그레

성귀수 옮김 | 2012년 | 216면 | B6 변형 견장정 | 9,800원 eBook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지내고 있는 매그레의 집에 처조카이자 파리 경찰청 형사로 일하는 필리프 로에가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실수로 자신이 감시하던 카페 주인 페피토 팔레스트리노가 살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고 만 것이다. 매그레는 즉시 파리로 향해, 일부 옛 동료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용의자로 지목된 조카를 구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21
Books

Georges Simenon



Jean-Jacques Sempé

장자크 상페

1932년 8월 17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난 장자크 상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소년 시절, 악단에서 연주하는 것을 꿈꾸며 재즈 음악가들을 그리면서부터였다. 상페는 1960년 르네 고시니를 알게 되어 함께 『꼬마 니꼴라』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작품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1962년에 첫 번째 작품집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가 나올 때 그는 이미 프랑스에서 데생의 일인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드노엘 출판사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30여 권에 이르는 작품집을 발표했으며, 이 책들은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 출간됐다. 상페는 프랑스의 『렉스프레스』, 『파리 마치』 같은 유수한 잡지뿐 아니라 미국 『뉴요커』지의 표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가장 중요한 기고 작가이기도 했다. 2022년 8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상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푸근함을 느껴 쉽사리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흡인력을 가지는 그림을 그려 낸다. 가냘픈 선과 담담한 채색으로, 인간 내면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통해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표현한다. 그의 그림에는 이 세상의 애처로운 희생자들이 맑고 진솔하면서도, 투명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상페의 그림들은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여운이 있고, 또 가볍지 않으면서도 경쾌함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장점을 간직하고 있다. 상페의 책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보기 위한〉 책이다. 따지고 파헤치고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다.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좇아갈 것을 원하는 그의 그림들은 쉽게 마음에 와닿고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도 친밀한 분위기로 읽는 사람들을 감싼다.
상페는 1989년 파트리크 모디아노의 『우리 아빠는 엉뚱해』의 삽화를 그렸고, 2년 뒤 독일 소설가 쥐스킨트의 『좀머 씨 이야기』의 삽화를 그렸다. 『좀머 씨 이야기』와 같은 해에 발표한 『속 깊은 이성 친구』와 이어 나온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는 영화나 희곡을 단 한 편의 데생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작가 상페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작이다. 1991년, 상페가 1960년부터 30년간 그려 온 데생과 수채화가 〈파피용 데 자르〉에서 전시되었을 때, 현대 사회에 대해서 저술한 사회학 논문 1천 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는 평을 받기도 했으며 프랑스 그래픽 미술 대상 또한 수상한 바 있다. 그의 주요 작품집으로는 『랑베르 씨』(1965), 『랑베르 씨의 신분 상승』(1975), 『가벼운 일탈』(1977), 『어설픈 경쟁』(1985), 『사치와 평온과 쾌락』(1987), 『뉴욕 스케치』(1989), 『여름 휴가』(1990), 『속 깊은 이성 친구』(1991), 『풀리지 않는 몇 개의 신비』(1993),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1995), 『거창한 꿈』(1997), 『프랑스 스케치』(2005), 『각별한 마음』(2007), 『뉴욕의 상페』(2009), 『상페의 어린 시절』(2011) 등이 있다.

Interview

장자크 상페 인터뷰

『상페의 어린 시절』을 포함해 40권이 넘는 책을 발표한 장자크 상페가 모처럼 속마음을 길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직업을 정의해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학 데생작가입니다. 해학적인 데생작가가 아니고요. 지금 내 귀엔 우리에게 〈해학 데생작가〉라고 강조하던 『카나르 앙셰네』지[1] 전속 삽화가 앙리 모니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종요법적인 의사라고 부르지 않고, 동종요법 의사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구나, 감히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해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독자들이 결정할 사항이죠. 데생작가는, 지금 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그저 〈해학을 가지려〉 애를 쓸 따름입니다.

데생작가로서의 첫 발은 어떻게 내디뎠나요?

첫 발이 아니라 첫 헛발이겠죠? 내가 보르도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런저런 신문사에 연결시켜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 줬지요. 아마 형편없었을 겁니다. 웃기는 건,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샤발이었어요. 내가 무한한 존경심을 품고 있던 인물이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 주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건 샤발 그림인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꾸합디다. 「맙소사, 내가 바로 샤발이라네.」

그러니까 그때 샤발이 허심탄회하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진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기억을 새록새록 더듬어 보면 볼수록,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내가 내민 데생들을 보고서 전혀 감명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보게, 다른 일을

1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하게나. 데생은 말이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네.」 하지만 그래도 그가 나를 완전히 문전박대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친절했거든요. 나한테 말도 많이 시켰고요, 지금, 당신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파리의 몇몇 언론사들 주소까지 줬어요.

파리로 가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이 이력은 아주 드물게만 언급되는 이력입니다만…….

네. 파리까지 공짜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웃음) 하지만, 내가 그 이전에도 일거리를 찾으려 백방으로 애를 썼다는 것만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완전히 헛일이었지만요. 구인광고가 눈에 띌 때마다 달려들었지요. 사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했지요. 그러고는 매번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비서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면, 찾아가서 타이피스트 자격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별짓을 다했습니다. 지친 나머지 결국 군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입대하면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고, 마른자리에서 잘 수 있겠거니 한 거죠. 내가 들어간 보병 부대에서는 의무병을 양성했지요. 뱅센 요새[2]에 주둔하는 부대였어요. 우리 의무병들은 발드그라스[3]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주삿바늘은 엉덩이 4분의 1 쯤 되는 곳에 꽂아야 합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군모를 벗어던지고 난 다음엔, 그림을 발표하고 싶다는 기대를 안고 언론사 순회에 나섰겠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프랑스 디망슈』, 『이시, 프랑스』, 『리르』, 『라다르』지 등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라다르』지는 1949년에 창간된 주간지로 사건 사고며, 가십, 만평 등을 실었는데, 1면에 정기적으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다소 초자연적이다 싶은 현상 등을 소재로 그린 데생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잘 그린 그림들이었죠. 고료도 제일 많이 쳐주던 곳이었고요.

파리에서 샤발을 다시 만나셨죠. 그리고 보스크라는 작가도 알게 되었고요.

네. 보스크는 라페 가에 있는 주간지 『삼디 수아르』 사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데생을 제출하러 왔었지요.

데뷔 시절, 그 두 사람 외에 존경한 해학 데생작가들이 있었나요?

아, 전부 『뉴요커』에 작품을 싣는 작가들이었죠. 특히 사울 스타인버그, 찰스 애덤스, 제임스 서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타인버그로 말하자면 나중에 원화도 한 장 구입했는걸요. 탁 트인 벌판에 세워진 어느 집 한구석에 여자 한 명이 있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웬 자그마한 남자 한 명이 그 여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남자가 모자를 벗어드는데, 그의 이름 철자들이 소용돌이치죠.

2 파리의 동쪽 외곽에 위치.
3 파리 중심부에 소재한 군병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그림은 내가 독일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한 화랑에서 구입했습니다. 난 아직도 이 데생의 소유주가 나란 사실이 실감이 안 납니다. 이따금 이 그림을 보고 또 보고, 손으로 만져 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림의 임자임을 실감하기 위해.

선생은 르네 고시니가 글을 쓰고 선생이 삽화를 그린 『꼬마 니꼴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도 니꼴라란 인물을 탄생시킨 공동 창작자 아니던가요?

그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에, 나는 벨기에 대중 잡지 『르 무스티크』[4]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게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나 거의 똑같은 소년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자, 편집장이 이 소년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으면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나는 엉겁결에 니꼴라란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포도주 광고를 방금 보고 난 참이었거든요![5] 그 후 상황은 약간 더 복잡해졌습니다. 작품의 반응이 좋자, 잡지사 사장이 만화로 꾸며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만화는 내 전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죠. 이 얘기를 뉴욕에서 막 돌아온 르네 고시니에게 했습니다. 그와는 친구로 지내는 사이였어요. 나는 르네 고시니가 프랑스에 돌아오고 난 후, 월드 프레스 파리 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시니가 이렇게 말하며 나를 안심시켜 줬어요. 「자네한텐 벌써 주인공이 있지 않은가? 꼬마 니꼴라 말일세!」 내가 말했죠. 「이봐, 그럼, 나랑 함께 해보세!」 르네는 만화 전문가이고, 나는 만화라면 문외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그 만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한 쪽당 28컷씩). 나는 내 이름 상페를 그대로 사용하고, 르네는 아고스티니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운전수였던 아고스티넬리[6]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고시니는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르 무스티크』 경영진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만화 연재도 끝이 났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었지요. 난 거의 돌아 버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작은 네모 칸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끔찍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어디까지나 해학 데생을 택했지 만화를 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나는 고시니에게, 그가 글을 맡고 내가 그림을 맡는 책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린 시절 추억을 털어놓곤 했으므로(당시 우리는 아직 젊었으니까요), 잘된 셈이었죠. 내 어린 시절 추억이란 축구, 여름 캠프, 학교에서의 말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시니가 그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수를 놓고, 꾸며 낸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그의 재주였죠.

4 〈모기〉라는 뜻.
5 프랑스에 〈니꼴라〉라는 포도주 판매점 체인이 있다.
6 프루스트의 동성 연인으로, 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알베르틴〉의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선생이 이젠 정말 데생작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느끼게 된 계기 같은 것이 있나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 10여 년쯤 걸렸겠군요. 왜냐하면 1962년 드노엘 출판사에서 첫 책을 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데생작가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 책 제목은 『그 무엇도 단순하지 않다』였습니다. 그게 벌써 반세기 전 이야기로군요.

또 다른 결정적 계기라면, 1987년 『뉴요커』지 데뷔를 꼽을 수 있겠지요.

그땐 정말이지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엄청 두렵기도 했고요. 그 일을 계기로, 난 내가 우상처럼 받들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갑게 대해 주던지, 그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영어라곤 한마디도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 하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명세 때문에 바뀐 것은 없나요?

유명세라니요,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 샘솟도록 무수히 여러 번씩 한 주제를 들고 파야 할 때, 또 요행히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최대한 효과적인 방식, 그 생각에 걸맞은 유일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 때, 나 같은 작가는 유명세를 등에 업었다고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장자크 상페의 전형적인 하루는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아침엔 일찍 일어나시나요?

요샌 아주 일찍은 아닙니다. 『쉬드 우에스트』지 편집장 앙리 아무뢰 씨가 했던 경고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자칫하다간 『꼬마 니꼴라』의 후속편이 『쉬드 우에스트』지 일요일 부록판에나 실리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뢰 씨가 나한테 겁을 준 거죠. 쾌활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레이 방튀라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7] 당시 그가 38세였고, 나는 18세였죠. 그가 억센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상페, 파리로 떠난다고? 파리에서 일하고 싶나? 그렇다면 말인데, 상페, 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난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 결과 아침 8시에 신문사에 도착했지요. 그랬더니 글쎄, 청소부들만 나와 있지 뭡니까.

7 1936년 파리에서 레이 방튀라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글루미 선데이」를 연주하던 중 드럼 주자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자살을 하자 나머지 단원들도 하나씩 자살을 해서 모두 죽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

아침에 잠이 깨면 커피를 마시나요, 아니면 차?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 다음 화판으로 직행하지요.

아침 이른 시간에는 대개 기분이 어떤 편인가요?

신경이 좀 날카로운 상태지요. 그러니, 그땐 나한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딴 길로 샐까 봐 조심합니다.

화판 앞에는 한 번에 얼마 동안이나 붙어 있죠?

오전 나절 거의 전부요. 점심은 몽파르나스의 단골 레스토랑에 가서 먹곤 합니다. 식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식사 후에 꼭 디저트를 챙겨 먹지요. 나는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즉시 그날의 디저트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워낙 먹는 걸 즐기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한잠 잡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중간 나절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다시 작업에 몰두하지요.

짐작건대, 자신이 하는 작업의 결과에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편이시죠?

언젠가 종이 한 뭉치를 사서 좋은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작업을 계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느라 종이 한 뭉치를 다 썼건만, 결과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마 백 장은 족히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삽화 한 장을 그리느라 두 달을 매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반대로, 삽화를 순식간에 완성할 때도 있나요?

흔한 일은 아니죠.

붓을 완전히 놓고 쉬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조금씩이나마 항시 작업을 합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데생을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데생을 감상할 관객을 염두에 두고 그립니까?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난 무엇보다 먼저 데스크의 편집장을 염두에 둡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여덟 군데의 편집장 가운데 한 명, 지금 작업 중인 그림을 보내야 할 곳의 편집장 말입니다. 그자가 이 데생을 이해할까?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할까?

작업할 때 혹시 음악을 틀어 놓으시나요?

침묵이냐 음악이냐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은 조용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수첩에 적어 놓습니까?

절대로. 나는 화판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따름이죠. 데생이 아직 밑그림 상태이건, 벌써 쉰 번이나 수정이 된 상태이건 간에, 모든 데생은 이 화판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화판 위에 놓인 데생들은 모두 진행 중인 상태로군요. 습작을 남기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붓을 잡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데생이며, 데생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라는 대단히 추상적인 세계에 몰입하려면 일단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아주 평범한 한 가지 사실에 집착하고 있는데, 바로 보잘것없는 인간과 그 인간에게 제기되는 문제들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데생에 착수할 때면 발동을 걸기 위해서, 마치 피아니스트가 음계 연습을 하며 손을 풀듯, 언제나 큰 건물이나 나무,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는 자그만 남성이나 여성을 그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거북한 질문입니다만. 혹시 기억나는 꿈이 있나요?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듀크 엘링턴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우리 집이 무대죠. 참 희한하기도 하죠. 주변은 온통 붉은색과 갈색이에요. 내가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러고는 듀크의 곡을 연주합니다. 내가 라디오에 출연할 때마다 신청하는 「사틴 인형」이란 곡이죠. 난 멋지게 연주합니다. 이윽고 듀크가 내 곁으로 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하죠. 아주 매혹적인 장면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이 곡을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쓰고, 마침내 기억해 내는 데 성공하면, 비록 두 손가락만으로 엉터리로 피아노를 쳐도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필리프 들라로슈, 파스칼 오리, 양영란 옮김, 『렉스프레스』, 2011.

Article

장자크 상페 부고 기사

순간을, 몸짓을, 태도를, 상황을 포착하는 하나의 선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만화가. 그는 자신이 살아 온 시대상을 미국 잡지 『뉴요커』, 매년 한 권씩 발표한 책 등을 통해 펼쳐 보였다. 그런 그가 2022년 8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1932년 8월 17일 페사크(지롱드)에서 태어난 장자크 상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만화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만화가가 2022년 8월 11일, 8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파리를 사랑했다. 2011년 10월 2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파리 시청에서 회고전이 열렸을 때, 상페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난 직후였음에도 우아함과 품격, 매혹적인 정중함, 재능 등 어느 것 하나 잃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카풀코 하늘의 빛깔을 닮은 파란 눈동자에 맞춘 셔츠 차림의 그는 말투만 약간 느려졌을 뿐이었다.
건강 위기를 넘긴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시금 작업을 재개했다. 2014년 6월, 그는 파리 조폐 공사의 청탁을 받아 〈공화국의 가치〉라는 주제로 특별 기념 주화의 도안을 그렸다. 2015년엔 상큼한 가벼움과 진중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진정한 우정』을 출판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책이 되었다.

만화 애호가들의 철학자

장자크 상페는 만화가였다. 그런데 만화가이기만 할까? 그는 분석하고, 웃게 만들고, 흥분시키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이끌어 주었고, 사물을 보는 시선을 바꿔 주었고, 우리 세기의 언어를 조각하고, 이미지들을 각인시켰으며, 조르주 페렉(『사물들』), 부르디외(『구별짓기』) 또는 바르트(『신화학』)만큼이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 거기에 보너스로 터져 나오는 웃음까지.
생물학적 친부와 양부 사이에 놓인 〈매우 자연스러운 아이|enfant très naturel〉(프랑스어에서 〈자연스러운 아이|enfant naturel〉는 사생아를 뜻하는데, 여기에 〈매우〉를 뜻하는 부사 très를 넣어 반어적인 표현을 창조한 것 – 옮긴이)로 인생에 첫발을 내밀게 된 건 그에게 솔직히 즐거움의 원천은 아니었다. 〈그 상황은 심지어 음울하고 다소 비극적이었다.〉 양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멸치 통조림이나 병조림 피클 등을 동네 식당이나 술집에 팔면서 자신이 영업의 귀재라고 자랑하곤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지만. 이복 자식들 사이의 싸움이며 부부 사이에서 날아다니다 깨지는 접시들이며…….

살아남기 위한 방식

아버지가 화이트와인을 들이켤 때면 장자크 상페는 외로움 속으로, 학교에서 부리는 말썽 속으로, 라디오 속으로 깊이 처박혔다. 그게 그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으므로.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 원한도 없다. 그저, 명철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열두 살에 그는 낙서를 끼적이고 만화를 그렸다.
1950년, 그의 데생 몇 점이 『쉬드우에스트 디망슈』에 실린다. 같은 해, 「나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것만이 머물 곳을 배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나는 파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난 자주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매사에 서툴렀기 때문이었죠.」

스포츠와 데생, 그리고 재즈

스포츠와 데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즈는 그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먼저 듀크 엘링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럴 테지만, 재즈는 나에게 다른 모든 것까지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한 음악은 찰리 파커의 연주, 비밥 등 주로 현대적인 음악이었죠.」
1951년 7월, 그는 파리 주변을 탐사했는데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의 데생은 브뤼셀의 한 잡지 『르 무스티크』의 표지를 장식했다. 이후 『프랑스 디망슈』에서 『푄슈』, 『필로트』, 『파리 마치』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에서 그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는 제안을 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상페는 프랑스 언론계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개인적인 매력까지 더해 밤을 주름잡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도 등극한다. 1978년, 그는 처음으로 미국 잡지 『뉴요커』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이후 이 잡지가 만들어 낸 스타가 된다. 또한 드노엘 출판사의 충실한 작가로, 1962년부터 1년에 한 권씩 재미있는 제목을 단 책을 출간하는데, 이는 2015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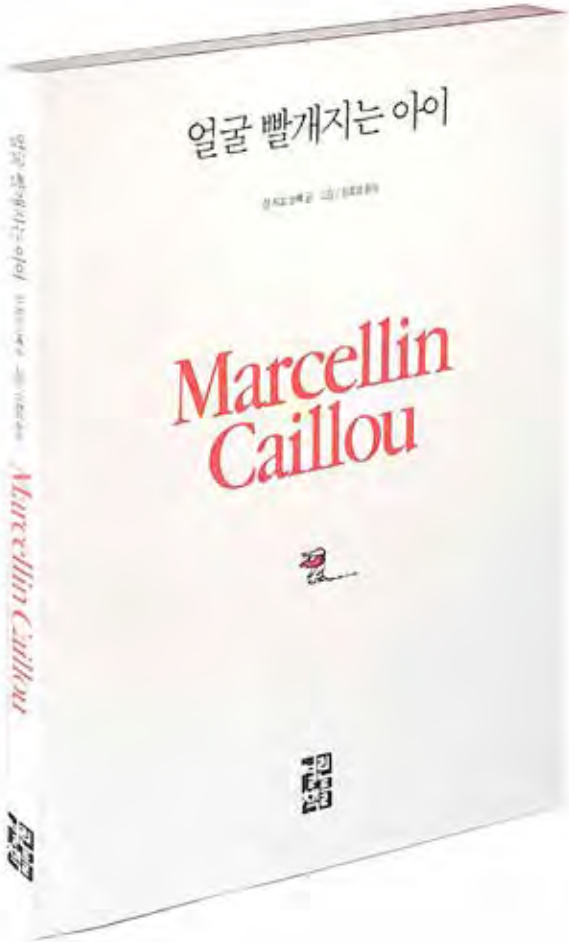
웃음을 선사하기 위하여

상페는 엄청나게 큰 테이블에서 나뭇잎이며 풀잎, 샹들리에 수정 구슬, 벽면 내장재, 몰딩 따위를 하나하나씩, 치명적인 매력을 발휘하는 편집증적 디테일에 집중하여 큼지막하게 그린다. 때문에 크기를 축소했을 때 그

세부적인 것들이 빛난다. 〈이건 숙련도와 노역을 요하는 활동〉이라고 그는 말한다.
상페는 풍자, 순간 포착, 몸짓, 태도, 자전거, 미소, 고양이를 그리는 데 천재적이다. 재즈를 사랑하는 그는 특히 뮤지션들을 잘 그리는데, 이런 재능을 만나는 기회란 매우 드물다. 아주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콘트라베이스 옆에서 나비넥타이를 매는 약사 같은 분위기의 고전 음악가, 그 모든 것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마라카스 연주자, 발코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부인들……. 그는 신문들이 데생에 굳이 명확하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던 시절을 추억한다. 〈설명을 달지 않겠다고?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말게.〉「우리에게 그런 건 순교나 다름없었습니다. 난 그런 관습이 언제 폐기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968년에 그렇게 된 것도 같습니다만.」

- 1932년, 8월 17일, 페사크에서 태어나다.
- 1950년, 『쉬드우에스트 디망슈』지에 만화 게재를 시작하다.
- 1954년, 르네 고시니를 만나다.
- 1978년, 미국 잡지 『뉴요커』의 표지를 장식하다.
- 2022년, 8월 11일 89세로 영면에 들다.

프랑시스 마르망드, 양영란 옮김, 『르 몽드』, 2022.8.15.


얼굴 빨개지는 아이
Marcellin Caillou

계속 버텨!

3

양영란 옮김 | 2022년 | 120면 | B5 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스스로 〈해학 데생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자크 상페의 새로운 작품집 『계속 버텨!』는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여운이 있고, 또 가볍지 않으면서도 경쾌함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장점을 간직하고 있다.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좇아갈 것을 원하는 그의 그림들은 쉽게 마음에 와닿고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도 친밀한 분위기로 읽는 사람들을 감싼다.

상페의 스케치북

양영란 옮김 | 2022년 | 240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eBook**

장자크 상페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작품 아이디어는 어떻게 길어 올리는지, 그림을 그릴 때는 무슨 도구를 쓰는지, 그만의 작업 방식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책. 지금껏 쌓아 온 수많은 스케치북을 통해서 우리는 상페가 그리는 선의 우아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표정이나 동작에서 비롯되는 소소한 기적들과 마주친다.

상페의 음악

3

양영란 옮김 | 2020년 | 232면 | 크라운변형 연장정 | 22,000원 | **미메시스 eBook**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의 라디오를 통해서 몰래 폴 미스라키를 듣고 난 후부터, 그가 드뷔시의 「달빛」 때문에 〈돌연 미쳐 버린〉 후부터, 그가 듀크 엘링턴과 〈정신없이 사랑에 빠진〉 후부터, 그가 보르도에서 매주 드나들었던 청소년 선도 회관의 피아노 앞에 앉아 거슈윈의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성공적으로 연주하고 난 후부터, 소년 상페는 자신의 인생을 꿈꾼다.

디저트를 만드는 아이

장자크 상페, 알랭 뒤카스 | 이원희 옮김 | 2020년 | 152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프랑스 초등학생계의 최고 인기 스타와 세계적인 스타 셰프의 예기치 않은 유머러스한 만남으로 두 사람의 글을 담은 요리책이 탄생했다. 꼬마 니콜라와 알랭 뒤카스는 주방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억될 순간을 위해, 좋은 음식을 즐기면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줌과 동시에 놀랍도록 만들기 쉬운 레시피로 30가지 달콤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프랑스 스케치

4

2018년 | 124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프랑스 스케치』는 『파리 스케치』의 맥을 잇는 작품이다. 프랑스 하면 흔히 떠올리는 풍경은 화려한 박물관이나 호텔, 멋진 백화점 등 주로 파리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상페는 그런 풍경보다는 목가적이고 평온한 프랑스의 모습을 주로 담아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아름다운 나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상페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24
Books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

4

2018년 | 80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자전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관조한 작품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벼운 터치로 그려 냈다. 마치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겨운 책이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순간의 떨림, 하나의 자전거를 나누어 타는 연인들의 기쁨, 달리는 자전거에서 잠시 손을 놓고 만끽하는 자유. 인생은 어쩌면 그저 단순한 균형 잡기일지도 모른다.

돌풍과 소강

3

이원희 옮김 | 2018년 | 124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돌풍과 소강』은 갑자기 격렬해졌다가 순간적으로 잠잠해지는 날씨에 빗대어, 어떤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동요를 그려 낸 작품이다. 평온한 삶에서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난 듯 찾아온 사건들은 머릿속을 헝클어 놓기도 하고 엉뚱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건과 사건의 사이, 그 공백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엉망인 사람에서부터 지극히 평온한 사람까지 무척이나 다채롭다.

마주 보기

3

배영란 옮김 | 2018년 | 120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프랑스에서 1972년에 처음 출간된 이 작품은 비교적 상페의 초기작에 속한다. 40여 년 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그림에 최소한의 언어를 사용하는 상페의 탁월한 감각이 돋보인다. 싫든 좋든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 보며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상페는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행복과 슬픔, 불안과 고독을 다양하게 그려 냈다.

각별한 마음

3

이원희 옮김 | 2018년 | 108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누벨 옵세르바퇴르』는 상페를 〈일상 스케치의 장인〉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상페는 다소 엉뚱하고 자질구레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아이러니와 유머를 날카롭게 포착할 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초조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밉지 않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냈다.

겹겹의 의도

7

윤정임 옮김 | 2018년 | 104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집, 길거리, 카페, 레스토랑, 교회 등 상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공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삶의 진실을 포착해 냈다. 상페의 그림 속 인물들은 어딘가 우리 자신을 닮았다. 얼핏 보면 단순하지만, 펼칠 때마다 풍부한 디테일이 새롭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날들

6

윤정임 옮김 | 2018년 | 104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서로 소통하지 않고 그저 각자의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살아가며 꿈을 꾸고 사랑에 빠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끔찍한 고독을 느끼면서도 유쾌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불확실한 세상을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는 잠시나마 웃을 수 있고, 어쩌면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

88

김호영 옮김 | 2018년 | 128면 | B5변형 연장정 | 14,800원

꼬마 마르슬랭에게는 큰 고민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 친구들은 항상 묻는다.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니?〉 대답하기 귀찮은 마르슬랭은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된다. 어느 날 그에게는 친구가 생긴다. 언제나 재채기를 하는 꼬마 르네. 어딘가 닮은 둘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즐겁고 신나는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도 잠시뿐. 르네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마르슬랭은 다시 혼자가 되는데…….

●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권장도서

뉴욕 스케치

19

정장진 옮김 | 2018년 | 96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뉴욕 스케치』는 상페가 『뉴요커』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프랑스인의 눈으로 본 뉴욕은 언제나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며,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연락하자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상페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지만,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이 모든 것이 고독과 상처를 피하기 위해 학습된 태도임을 눈치채게 된다.

파리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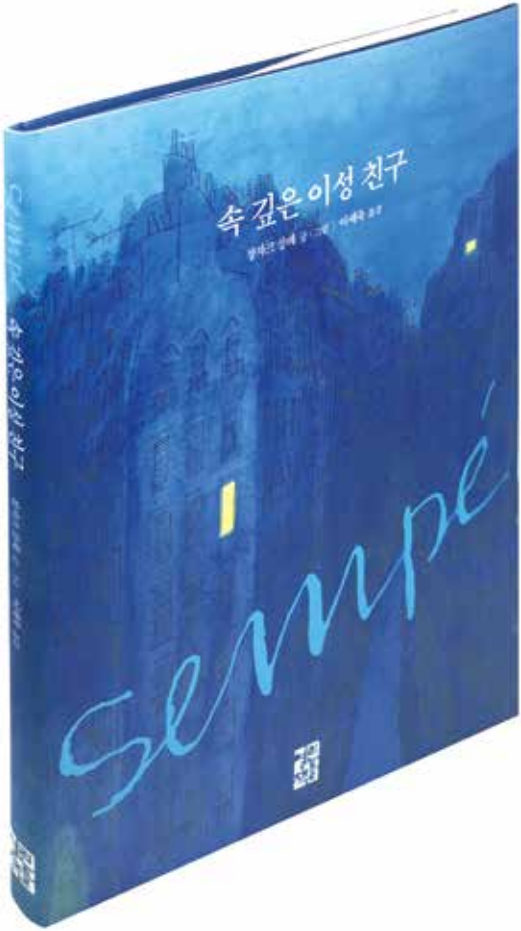
6

2018년 | 124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프랑스 최고의 삽화가 상페가 안내하는 파리의 구석구석. 에펠탑과 센강뿐 아니라 파리의 뒷골목을 비롯해 소시민들의 생활상까지 섬세한 터치로 담아냈다. 파리의 낮과 밤, 비 오는 날과 햇살 가득한 날, 해 뜰 때부터 해 질 녘까지의 풍경, 아침의 첫 청소부와 한밤중의 마지막 청소부, 수많은 카페, 공사 현장과 지하철역, 러시아워, 시위대의 물결,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거리를 가로지르는 인라인스케이터들까지……. 파리와 그 시민들에 대한 상페의 무한한 애정이 느껴지는 책이다.

24
Books

Jean-Jacques Sempé



거창한 꿈 7

윤정임 옮김 | 2018년 | 104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거창하다〉는 말은 확실히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다. 상페의 등장인물들은 늘 배경보다 작아만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거창한 동경과, 꿈과 노이로제에 비해서도 작아 보인다.
그들은 삶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즐겨 하나, 자신의 부족함까지 통찰하기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상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페는 〈꿈〉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식과 환상을 너그러운 유머 속에 감싸고 있다.

어설픈 경쟁 6

이건수 옮김 | 2018년 | 104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언제나 소시민의 가식과 맹랑한 계산이 그 스스로에게 낭패가 되는 순간을 기막히게 포착하는 상페의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집.
상페는 우리를 압박하며 가차 없이 몰아치는 경쟁과 시장의 논리가 어이없게 무너지면서 우스꽝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삶을 좀 더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체스 판 위에서 서로를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체스 말들의 사투, 극장에서 오페라 반주를 맡은 연주자 남편의 순서를 찾아내고는 기뻐하는 부인 등을 묘사한 펜화들은 삶의 한 순간을 담백하게 보여 준다.

24
Books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51

최영선 옮김 | 2018년 | 96면 | B5변형 연장정 | 14,800원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자전거를 지칭할 정도로 자전거에 정통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한 자전거포 아저씨 따뷔랭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따뷔랭〉을 탈 줄 모른다는 것. 조그마한 마을에서 〈따뷔랭〉의 왕으로 인정받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리던 그에게 어느 날 반갑지 않은 제안이 하나 들어온다. 마을에 이사 온 사진사 피구뉴가 자전거를 탄 따뷔랭의 모습을 찍고 싶다고 간청한 것. 아내와 피구뉴에게 등을 떠밀려 마을의 한 언덕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긴 했는데…….

사치와 평온과 쾌락 17

이원희 옮김 | 2018년 | 104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그의 장기인 단편 데생들로 이루어진 1987년 작품으로, 종종 그의 최고 걸작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사치와 평온과 쾌락〉이라는 말은 본래 보들레르의 시에서 따온 글귀로서, 마티스의 그림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널리 알려졌다. 상페는 여기서 사치와 평온과 쾌락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소시민들의 삶을 유머러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삶의 결핍을 이야기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밝고 아름답다.

속 깊은 이성 친구 37

이세욱 옮김 | 2018년 | 88면 | B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속 깊은 이성 친구』는 한 편의 영화나 희곡을 단 한 점의 데생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작가 상페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작이다. 수년간 공을 들인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실린 미묘하기 짝이 없는 그의 글은, 이미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진정한 우정 6

양영란 옮김 | 2017년 | 164면 | B4 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상페의 어린 시절』, 『뉴욕의 상페』 인터뷰를 맡았던 언론인 마르크 르카르팡티에와의 대화 기록. 두 사람은 진지하고도 격의 없는 태도로 우정을 다각도에서 들여다본다. 일시적인 우정, 익살스러운 우정, 세상을 떠난 예술가에게 느끼는 우정 등 우정의 다양한 양상이 실제 일화와 엮여 흥미를 더한다. 『진정한 우정』에 실린 120여 점의 삽화들은 상페가 풀어놓는 이야기와 어우러져 감정을 고조시키고 진한 재미를 선사한다.

상페의 어린 시절 6

양영란 옮김 | 2014년 | 288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2,000원 | **미메시스 eBook**

따뜻한 화풍과 재치 있는 유머로 인간의 삶을 경쾌하게 그려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삽화가 장자크 상페. 이 책은 그가 회상하는 유년기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는 인터뷰집이다. 이 책에는 초기의 그림부터 그의 유년기의 기억을 투영한 듯한 그림들 총 200여 점이 수록되어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듣고 있자면 비참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순간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장자크 상페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에 놀라게 된다.

뉴욕의 상페 8

허지은 옮김 | 2012년 | 344면 | B5 변형 연장정 | 24,000원 | **미메시스 eBook**

그림 작가들에게는 명예의 전당이나 다름없는 『뉴요커』지의 표지를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이상 장식해 온 상페의 그림 150여 점이 수록됐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상페의 내면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를 통해서는 상페가 꿈꾸어 온 것, 그림에 대한 그의 생각, 『뉴요커』를 움직이던 걸물들과의 만남, 표지화 작업을 둘러싼 일화 등을 읽을 수 있다. 거장 상페의 의외로 연약한 일면, 재즈광으로서의 엉뚱한 면모, 재능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 등은 그의 그림과 너무도 닮았다.

랑베르 씨의 신분 상승

윤정임 옮김 | 1999년 | 110면 | B5변형 | 절판

랑베르 씨

윤정임 옮김 | 1999년 | 112면 | B5변형 | 절판

Luis Sepúlveda

루이스 세풀베다

루이스 세풀베다는 1949년 칠레에서 태어났다.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당시의 많은 칠레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로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노체트의 나라에서 도망쳐야 했다. 수년 동안 그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여러 일을 했고, 1980년 독일로 이주했다.

1989년 그는 살해당한 환경 운동가 시쿠 멘지스에게 바치는 소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여러 문학상을 휩쓸며 세풀베다를 일약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후 세풀베다의 주제와 스타일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즉 남미에서 유행한 〈마술적 리얼리즘〉풍으로 쓰이지 않은 점, 아마존의 정글이라는 대자연이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매력을 능숙한 이야기꾼의 솜씨로 풀어낸 점, 독자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는 추리 소설적 기법, 〈양키〉로 대표되는 자연과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한 적대감 등 그의 소설들을 일관하는 주요한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다른 작품으로는 『모비 딕』에서 빌려 온 모티브를 뒤집어서 고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연 파괴를 고발한 『지구 끝의 사람들』(1989), 칠레와 독일을 무대로 한 일종의 누아르 소설인 『귀향』(1994), 여행에 대한 정열과 이야기꾼으로서의 솜씨가 행복하게 결합된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1995), 깔끔한 킬러가 사소한 감정 때문에 위기를 맞는 과정을 통해 사랑의 부재를 닦달하는 세계를 풍자한 『감상적 킬러의 고백』(1996), 아무도 혁명을 말하지 않는 시대에 가슴속에 열정을 묻어 두고 사는 이들의 이야기인 『우리였던 그림자』(2009), 동화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1996), 중단편 소설집 『외면』(1997)과 『소외』(2000), 『핫 라인』(2002), 『그림 형제 최악의 스토리』(2004), 『알라디노의 램프』(2008), 그의 삶을 이끈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에세이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2010), 아들과 고양이를 모델로 쓴 『생쥐와 친구가 된 고양이』(2012),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2013) 등이 있다. 그의 모든 책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왔고 『연애 소설 읽는 노인』과 『감상적 킬러의 고백』은 1998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세풀베다는 2020년 4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Interview

루이스 세풀베다 인터뷰

『레비스타 글로발』은 칠레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가 7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스페인 아스투리아스의 자택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연애 소설 읽는 노인』과 『지구 끝의 사람들』의 작가는 내년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인 두 번째 영화, 즉 피노체트와 아옌데 그리고 꿈과 패배한 투쟁에 관한 영화에 관해 이야기해 줄 것이다.

올해로 55세를 맞이한 루이스 세풀베다는 어린 시절부터 쉴 새 없이 바다를 누빈 나그네다. 16세가 되던 해 그는 고래잡이배에 탔는데, 이때 얻은 경험으로부터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소설 중 하나인 『지구 끝의 사람들』이 탄생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로도 활약할 정도로 자연을 사랑하는 그는 7년 전부터 스페인 북부 항구 도시 히혼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세풀베다가 바닷가에 사는 것은 단지 그의 모험가적 기질 때문만은 아니다. 〈스페인 내전 동안 아스투리아스의 주민들이 펼친 뿌리 깊은 저항 운동과 광산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투쟁 정신〉이 처음부터 작가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애 소설 읽는 노인』,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 그리고 『귀향』의 작가는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좌파 성향을 버린 적이 없다.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경호대 〈대통령의 친구들GAP〉의 구성원이던 그는 1977년 칠레를 떠나 해외로 망명했다. 유럽으로 가는 길에 그는 라틴 아메리카 곳곳을 돌아다녔다. 가령 에콰도르에서는 〈시몬 볼리바르 국제 여단〉에 가담했고, 1979년 초에는 산디니스타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니카라과로 떠나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아메리카에서 활약하던 게릴라는 이제 정원으로 둘러싸이고 수영장까지 갖춘 널찍한 주택에서 부인이자 동료 투쟁가인 동시에 칠레의 시인인 카르멘 야네스와 함께 살고 있다. 아스투리아스 지방에서 보기 쉽지 않은 화창한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인터뷰하기 싫은 기색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주름살이 깊게 파인 그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다. 세풀베다는 인터뷰하는 동안 대담자의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과거를 — 특히 칠레 독재 시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3년의 시절을 —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깊이 사무친) 고통과 분노가 그의 얼굴과 긴 침묵에 짙게 묻어났다.

왜 작가로서 글 쓰는 작업을 중단하려고 하죠? 예전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절필을 선언했던데요.

아뇨,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 봤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다만 너무 지쳐서 5년간 안식년을 갖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찾아보고 밀린 일도 하고 싶었다는 뜻이죠.

그럼 안식년이 시작된 겁니까?

아뇨.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새 영화가 크랭크 인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 소설 한 편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소설은 올해 내로 출판사에 넘기기로 되어 있어요.

영화와 소설 그리고 「세계 사회 포럼」 등 이 많은 활동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죠?

훈련을 통해서 자기 규율을 확립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자기 규율을 가져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 작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훌리오 코르타사르와 막역한 사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 마지막 4년을 함께했죠. 내가 보기에, 훌리오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말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나는 두 권의 소설을 읽고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훌리오의 『팔방놀이』와 마르케스의 『백 년의 고독』이 바로 그 작품들입니다.

차기 영화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제 소설인 『핫 라인』을 영화화한 겁니다. 첫 번째 영화 「노웨어」를 만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이어 나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비공식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노웨어」에 출연한 배우들이 「핫 라인」에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주로 칠레 인물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핫 라인」은 급작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사실 나는 그 작품을 쓸 때 과거 유행하던 연재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글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9세기의 위대한 연재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급작스러운 결말을 좋아한 것은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결국 인물의 씁쓸한 승리인 셈이죠. 그건 삶 자체, 더 나아가 칠레의 역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작가로서 동료 문인들이나 칠레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작가로서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공식에 있지 않나 싶어요. 칠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읽힌 작가가 이사벨 아옌데와 나라고 해서 기고만장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령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동료 문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학을 사회적 승리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었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특별히 운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당신은 1977년에 해외로 망명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나는 단지 이야기하려고 돌아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망명자가 아니에요. 사실 칠레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느끼고 발견한 것은 그사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점이었죠.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돌아가고 싶었던 나라는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칠레의 거리가 자유로운 인간들과 사회주의자들로 넘쳐 날 거라던 아옌데의 마지막 연설이 지금도 타당하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아직도 칠레에는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시민 대다수는 어떤 사회적 참여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46퍼센트에 불과했죠. 나머지 54퍼센트는 그런 사기극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한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칠레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 사회 포럼」은 아주 천천히 발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올바른 통합과 시민의 정상 상태가 현실화되는 〈새로운 나라의 건설〉 구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옌데를 가까이에서 만났습니까?

네. 그분은 제 문제나 글 쓰는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어요. 저와 카르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아시고는 아는 소아과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분은 소아과 의사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살바도르 아옌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정반대의 인물 같아요. 아옌데는 어떤 일을 하든 지나친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했죠. 그 당시 우익들은 아옌데가 칠레를 공산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난리를 부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그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그런 나라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패배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역사는 패배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지난 2백 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2백 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했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유럽인들도 5백 년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착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 온 모든 정치적·혁명적 모색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고유한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었죠. 비록 그 과정에서 공격받고 짓밟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한 모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최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열린 「세계 사회 포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1960년대와 1970년대 좌파의 담론을 단순히 되풀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이미 무언가를, 즉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변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까지 우리는 패배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큰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주겠어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꿈이 하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들이 문명화되고 안전한 나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내 꿈이에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인 칠레를 포함해서 말이죠. 유럽에서는 칠레가 안정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내국채가 가장 많은 나라 또한 칠레예요. 그 규모가 미국과 맞먹을 정도니까요.

조금 더 개인적 입장에서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살면서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내 아이들보다 오래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케니 카브레라, 엄지영 옮김, 『레비스타 글로발』 2호, 2004, 7~9월호.

역사의 끝까지

3

엄지영 옮김 | 2020년 | 320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세계적 작가이자 행동하는 지성, 루이스 세풀베다의 마지막 장편소설. 2020년 4월,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는 소설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발표하며,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왔다. 2016년 발표한 장편소설 『역사의 끝까지』는 작가의 분신과 같은 〈후안 벨몬테〉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20세기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시모나 물라차니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7년 | 11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칠레의 어느 산속, 개 아프마우는 사슬에 묶여 있다. 〈아프마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그렇게 불러 주는 사람은 없다. 그냥 〈개〉라고 불릴 뿐이다. 늘 발길에 걷어차이고 채찍질을 당하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추적하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주인은 잡아 두고 있던 마푸체족 한 명이 탈출해 숲으로 도망쳤다며, 아프마우를 풀어 추적시킨다. 하지만 아프마우는 일부러 길을 빙빙 돌아서 간다. 예민한 후각을 지닌 아프마우는 그 마푸체족이 남긴 흔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오는 것을 느낀다.

16
Books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5

시모나 물라차니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6년 | 10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달팽이들은 왜 이렇게 느린 걸까? 느림의 의미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아 외로운 여행길에 오른 달팽이가 숲과 들판에서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인간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여정을 담았다. 느리지만 끈질기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꿋꿋한 달팽이의 여정을 통해 느림의 가치, 굳건한 신념,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전하는 작품이다.

생쥐와 친구가 된 고양이

5

노에미 비야무사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5년 | 79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세풀베다의 새로운 동화. 작가의 아들과 고양이를 실제 모델로 쓴 작품이다. 〈믹스〉(고양이), 〈막스〉(아들)라는 이름도 실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 간결하고 시적인 문체로 우정의 의미를 그린,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유럽에서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다.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

엄지영 옮김 | 2012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10,800원

세풀베다가 라틴 아메리카 각국 및 유럽 각지를 누비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소회를 담은 특별한 여행기다. 그의 주요작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우리였던 그림자』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에 모티브를 제공한 인물과 사건, 군사 쿠데타에 끝까지 맞섰던 동지들과 동료 작가들 등 세풀베다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와

Luis Sepúlveda

저널리스트로서의 르포도 함께 담았다. 작품 곳곳에 세풀베다의 삶의 원칙이 깊게 배어 있는 이 작품은 가난으로 꿈을 잃은 아이들, 독재의 억압에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부터 허세로 가득 찬 지식인들에 대한 조소와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의 손길에 대한 분노까지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리였던 그림자

엄지영 옮김 | 2012년 | 246면 | B6 견장정 | 9,800원

아무도 혁명을 말하지 않는 시대, 가슴속에 묻어 둔 열정을 되살리는 노인 혁명가들의 이야기.
칠레 최초의 민주적 사회주의 정권을 이루어 낸 아옌데 대통령을 무너뜨린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군사 독재의 탄압 속에 뿔뿔이 흩어진 혁명가들. 낯선 나라를 떠돈 지 35년 만에 고향 산티아고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볼품없어진 외모에 젊은 날의 패기는 희미해졌지만, 가슴속에 아직 끈끈한 우정과 뜨거운 열정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 암울한 역사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온 혁명 세대의 자화상을 풍부한 상상력과 절묘한 위트로 묘사한 작품.

- 2009년 스페인 프리마베라 데 노벨라상

16
Books

그림 형제 최악의 스토리

마리오 델가도 아파라인 공저 | 권미선 옮김 | 2007년 | 268면 | B6 견장정 | 8,800원

동갑내기 작가 마리오 델가도 아파라인과 루이스 세풀베다가 공동 집필한 소설. 이 소설에서 세풀베다는 장르의 규칙은 물론,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철저히 파괴하는 풍자와 해학의 진수를 보여 준다.
아파라인과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완성한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설정에서부터 책의 체제, 표지의 작가 소개와 작품 설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뿐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뻔뻔하고도 능청스럽게 풀어놓는 〈세상 끝〉 사람들의 이야기엔 세풀베다가 지속적으로 그려 왔던 외면받고 소외된 인간들의 모습이 녹아들어 있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

46

★ 1989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 8위

정창 옮김 | 2001년 | 19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머나먼 곳의 이야기나 달콤한 사랑을 다룬 작은 소설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노인 앞에 백인 노다지꾼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개발이라는 깃발을 앞세운 채 정글을 짓밟고 야생 동물을 피비린내 나는 죽음으로 몰아댄다. 노인은 맹수를 사냥할 수색대에 합류하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연애 소설과 함께하던 평화로운 삶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세풀베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1990년대 최대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

- 1989년 티그레 후안상
- 1989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 8위
- 1992년 프랑스 릴레이 상
- 1992년 「프랑스 퀼튀르」 외국 소설상
- 「세마나」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소설 100권〉 46위

Luis Sepúlveda

알라디노의 램프
권미선 옮김 | 2010년 | 232면 | B6 견장정 | 절판

핫 라인
권미선 옮김 | 2005년 | 112면 | B6 견장정 | 절판

소외
2

권미선 옮김 | 2005년 | 224면 | B6 견장정 | 절판

외면
2

권미선 옮김 | 2004년 | 320면 | B6 견장정 | 절판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
정창 옮김 | 2003년 | 232면 | B6 견장정 | 절판

지구 끝의 사람들
정창 옮김 | 2003년 | 168면 | B6 견장정 | 절판

귀향
2

정창 옮김 | 2001년 | 232면 | B6 견장정 | 절판

감상적 킬러의 고백
6

★ 1998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 8위

정창 옮김 | 2001년 | 232면 | B6 견장정 | 절판

Amélie Nothomb

아멜리 노통브

잔인함과 유머가 탁월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현대 프랑스 문학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온 벨기에 출신의 젊은 작가 아멜리 노통브는 1967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 중국, 미국, 방글라데시, 보르네오, 라오스 등지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25세에 쓴 첫 소설 『살인자의 건강법』(1992)의 원고는 처음에는 갈리마르 출판사에 투고하였으나, 솔레르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간단히 출판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남이 써준 소설을 출판할 수는 없다.〉 알뱅 미셸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책은 천재의 탄생이라는 비평계의 찬사를 받으며 1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발표하는 작품마다 대성공을 거두어 문학계에 확고한 입지를 굳히며 2015년 벨기에 프랑스어권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자칭 〈글쓰기광〉인 그녀는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글을 쓰며, 매해 겨울이면 한 해 동안 쓴 작품들을 검토하여 다음 해 발표할 작품을 고른다. 그렇게 31년째 매년 거르지 않고 한 작품씩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녀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총 1천6백만 부가 팔렸으며 46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었다.

노통브의 이름을 처음으로 한국에 알린 『사랑의 파괴』(1993)는 외교관의 자제로서 중국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주인공이 일곱 살에 이미 사랑의 파괴적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그려 낸 노통브식 교양 소설이다. 파리 프르미에르상을 받은 『오후 네시』(1995)는 그녀의 이야기 중 가장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 부조리 단막극 같은 단순하고 우화적인 구성을 통해 인간 내면의 모순과 열정을 형상화한다. 공쿠르상 후보에 올랐던 『시간의 옷』(1996)은 거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소설로, 세계사의 질서에 대해 경쾌하고 장난스러운 야유를 퍼붓는다. 프랑스 학술원 소설 대상을 받은 『두려움과 떨림』(1999)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일본의 종합 상사를 무대로 주인공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갖은 실수 끝에 완전한 무능의 경지에 떨어지는 과정을 희극적으로 묘사한다.
노통브의 다른 작품들로는 『불쏘시개』(1995), 『공격』(1997), 『머큐리』(1998), 『배고픔의 자서전』(2004), 『아버지 죽이기』(2011), 『푸른 수염』(2012), 『샴페인 친구』(2014), 『느빌 백작의 범죄』(2015), 『추남, 미녀』(2016), 『너의 심장을 쳐라』(2017), 『갈증』(2019) 등이 있다. 그녀는 알랭 푸르니에상, 샤르돈상, 보카시옹상, 독일 서적상의 상, 르네팔레상, 르노도상을 받았다.

Interview

아멜리 노통브 인터뷰

저는 나무들 사이에 누워서 심신을 재충전해요

매년 작품을 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아멜리 노통브는 문학계에서 아주 별난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공동 의장 자격으로 모르주에서 열리는 도서 페스티벌 〈리브르 쉬르 레 케Livre sur les quais〉를 이끌 것이다.

아멜리 노통브는 독자들의 편지,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전기, 수필, 탐정 소설이 잔뜩 쌓여 있는 알뱅 미셸 출판사의 한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한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린 책들을 써낸 인기 작가이면서도 그녀는 아주 친절한 접대(〈물 한잔 갖다드릴까요?〉)와 질문 하나하나를 새겨듣는 태도로 만남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알고 있다. 올해 쉰세 살인(6월의 날씨에 맞게 보랏빛을 띤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날씬한 몸매 덕분에 훨씬 젊어 보인다) 노통브는 스물여덟 번째 소설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8월 22일에 서점에 나올 차기작 『갈증』은 아직 신비에 싸여 있다. 그녀는 올해 작가이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대받은 모르주의 페스티벌 리브르 쉬르 레 케에서 그 신비를 풀어놓을 것이다.

독자 편지에 답장을 쓰고 있던데, 그들과의 소통에 어떤 의미를 두죠? 작품의 연장인가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답장을 쓰는 건 아니에요. 저의 첫 소설 『살인자의 건강법』을 출간하고 3일 후에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어찌나 좋던지 바로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 후로 계속하고 있죠. 편지 내용 대부분이 무척 기발해요. 독자들이 흥미로운 생각에 빠져들거나, 그것을 저에게 전해 주죠. 가끔 엉뚱한 것도 있어요. 한 여학생이 저한테 숲속 오두막을 어떻게 짓는지 물었던 게 기억나네요. 제가 그녀를 도와줄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녀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무진 고생을 했어요. 저는 절대 형식적인 답장은 안 보내거든요. 전 진심으로 답을 해요. 독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신학에서 말하는

〈수반되는 은총〉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무상으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죠.

스위스 독자들도 당신에게 편지를 쓰나요?

스위스에도 제 책을 읽는 독자가 많이 있고, 그들 중 몇몇하고는 관계를 이어 가고 있어요. 그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제 책을 아주 깊이 읽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투에서 벨기에 억양이 살짝 드러납니다만…….

저는 벨기에 사람이어서, 오로지 벨기에 사람일 뿐이라서 행복해요. 벨기에 억양을 감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파리에 거주하긴 하지만 벨기에에도 집이 있어요. 파리에서 브뤼셀까지는 기차로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죠. 오후 5시에, 불쑥 거기 가서 저녁을 먹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늘 아주 일찍 일어나 글을 쓰나요? 새벽 4시부터?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깬다면, 그건 그나마 푹 잤다는 뜻이에요. 1997년인가 어느 일요일에 글을 쓰기 위해 그 시각에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종일 기분이 안 좋고 힘들었어요. 글쓰기와의 약속, 제가 쓰고 있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약속이 제 삶을 조직해요. 저는 아주 많이 쓰지만, 대략 네 편 중에 한 편꼴로만 출간하죠.

그 등장인물들은 어떤 진흙으로 빚어내나요? 그들은 어디서 오죠?

그야 알 수 없죠. 제 소설 창작의 능동적인 부분은 문체, 글쓰기를 통해 표현돼요. 제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4분의 3 정도 절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가끔 독자들이 저에게 그들 중 몇몇이 서로 닮았다고 알려 주기도 하죠. 많은 경우 저는 그걸 가장 나중에 알아차려요. 그래서 누가 그걸 지적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들은 같은 엄마에게서 나왔군.〉

당신 책들을 자식으로 여기나요?

전 자식을 낳고 싶은 욕망을 느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랑에 빠지면 어떨지 두고 보자고.〉 사랑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은 없었어요. 저 자신이 자식 대신 이야기들을 잉태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끼나 봐요. 이제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종이 위에 탄생시킨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해요. 그 역시 산고를 치르고 맺은 관계니까요. 전 그렇게 느껴요.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피조물이 자라고 있죠(아멜리 노통브가 자기 배를 만진다). 제가 아흔일곱 번째 임신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엄청난 대가족의 엄마랍니다!

당신은 아주 많은 엄마를 창조해 냈습니다. 그리고 모성의 양면성을 아주 잘 묘사하죠. 그건 관찰의 결과인가요?

제 부모님은 그들 몫의 이런저런 오류를 범했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분들이었어요. 저 역시 어릴 적에 부모님을, 특히 엄마를 관찰했어요. 엄마를 숭배했거든요. 어릴 적에 엄마는 저한테 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들려고 부단히 애썼죠. 엄마한테 사랑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소설가가 된 것도 엄마를 유혹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두려움과 떨림』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당신은 그 나라를 무척 아끼죠. 한 소설의 수익금을 〈세계의 의사들medecins du monde〉 일본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힘든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접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일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 만큼 더욱 사랑하죠.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일본인들은 저에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끔은 불가능하더라도요. 이 극단적인 다름이 저를 깊이 매료시켜요.

당신도 일본인들처럼 아름다움에 아주 민감하죠. 그것이 당신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가요?

저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향이 인간이라는 종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확신해요. 노트르담 성당 화재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아름다운 것이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음식에 대한 욕구, 사회생활을 즐기는 욕구처럼 근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건 우리 현대 사회의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이 주는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는 몸을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하죠.

아름다움은 페로 동화를 재해석한 당신의 소설 『추남, 미녀』의 경우처럼 내면에서 올 수도 있죠.

외모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제 독자의 40퍼센트가 그 동화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정말 놀라웠고, 의미심장하기까지 했어요. 얼핏 가벼워 보이는 그 동화에서 페로는 무엇을 말하나요? 아주 심원한 어떤 것, 다시 말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 오랫동안 제가 못생겼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아름답다고 말해 줬죠. 그게 제가 저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바꿔 놓았어요.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점점 획일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삶의 활력소는 어디서 찾나요?

변두리, 작은 술집, 고딕풍의 장소들……. 거기서 듣게 되는 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는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 예기치 못한 것, 이국적인 것이 생생하게 살아 있죠. 한 걸음만 옆으로 내디디면, 〈메인스트림〉에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제 취향이 만인의 취향과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음악에 있어서나, 패션에 있어서나, 영화에 있어서나. 과테말라 영화 회고전이 열린다고? 전 만사를 제쳐 두고 달려가요!

독특함을 긍정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전 늘 이랬어요. 유명해졌다고 해서 바뀐 것도, 그걸로 인해 초래된 것도 없어요. 전 저 자신을 하나의 인물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 천성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제가 벨기에인이라는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벨기에인들은 분방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많은 벨기에 예술가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건 벨기에의 순응주의가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음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한가요?

갈 데까지 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비극적이고 끔찍한 관계였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죠. 10대 시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고통스럽지 않은, 눈물에 젖지 않은 식사를 다시 할 수 있었죠. 거식증과 섭식 장애에 시달리며 보낸 세월을 모두 따지면 8년 반이나 돼요. 긴 세월이죠! 그 후로는 저 자신을 기적으로 치유된 사람처럼 여긴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먹진 않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게 더는 비극이 아니니, 목표에 도달한 셈이니까요. 저는 거식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무엇이 당신과 음식과의 관계를 그토록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건 제가 이미 밝힌 바 있는 비극, 열두 살 때 겪은 집단 강간 때문이었어요.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건 성적인 거부, 여성성의 거부, 성년의 거부, 순수하고 단순한 거부를 의미했어요. 저는 거식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살아 있는 증거랍니다.

당신의 소설들은 전 연령층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었나요?

그것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는 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인류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제 책은 읽어 내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글을 쓸 때 제가 추구하는 건 명료함, 투명함이에요. 투명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빛을 통과시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체를 찾아내려고 애써요! 제 머리는 고치고 삭제한 글들로 가득하죠. 머릿속에서 문장에 꼭 필요한 것을 빼고는 대패질하듯 모조리 제거해 버리니까요.

당신 소설에는 지금은 잊힌 낱말들이 가끔, 또 잘 쓰이지 않는 낱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어디서 찾아내나요?

전 열세 살 때 사전을 씹어 먹듯이 통독했어요. 거기서 많은 게 남았죠. 수천 개의 낱말을 흡수했어요. 제가 그 낱말들을 사용하는 건 특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낱말, 제 관심사는 그거예요! 많은 경우, 저는 그 낱말들이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한테는 익숙한 어휘에 속하거든요. 제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낱말들을 사용하니까 편집자가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싸워야만 했죠. (웃음) 전 새로운 낱말을 찾아내는 걸 무척 좋아해요. 새로운 초콜릿이나 샴페인을 발견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럴 때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어머, 근사해라!〉

당신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주 많죠.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인물이라면 릴케와 니체를 들겠어요. 릴케에게서는 이 문장을 간직하고 있어요. 〈힘든 것을 택해야 한다.〉 전 이 문장이 매일 필요해요.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속으로 힘든 것을 택해야 한다고 되뇌죠.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것,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게 힘든 것이거든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이 문장은 열일곱 살 때 읽었어요. 이 문장이 제 목숨을 구했죠. 희생자인 척 살아가지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제가 겪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게 도와줬죠. 제 어머니한테서는, 역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말을 간직했어요. 〈쓸데없는 걸 쳐내는 일부터

시작하렴.〉 좋은 전략이죠.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잔뜩 쌓여 있는 우편물 더미 앞에 앉을 때면 늘 이 말을 떠올려요.

나이를 먹어 가는 게 두려운가요?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아주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스무 살, 서른 살 때는 늙어 가는 게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사는 게 점점 무미건조하고 권태로워질 거라고 상상했죠. 그런데 그렇질 않았어요. 늙어 가는 건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오래 가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죠. 어떤 우정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가고, 또한 오래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다른 우정은 이미 깨져 버렸죠.

올여름은 어디서 보낼 계획인가요?

벨기에 아르덴 지방의 거대한 숲에 갈 거예요. 이국정취가 풍기는 내 땅이죠. 걷기도 하고, 나무들 사이에 누워서 주변의 모든 것이 저에게 스며들게 할 거예요.

베로니크 샤텔, 이상해 옮김, 『제네라시옹』, 2019.7.1.

15
Books

갈증

2

이상해 옮김 | 2021년 | 160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예수 그리스도의 1인칭 시점으로 재판에서부터 십자가형, 그리고 부활까지를 그린 소설. 재판이 시작되자 예수가 행했던 기적의 수혜자들이 나타나 기적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황당한 증언을 한다. 가나의 신랑 신부는 예수가 일부러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능력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눈이 멀었던 자는 세상이 이렇게 추악할 줄 몰랐다며 한탄하고, 문둥병에 걸렸던 자는 이제 아무도 적선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심지어 마귀 들렸던 자는 이렇게 말한다. 〈마귀가 나간 후로 사는 게 시들해져 버렸어요!〉 빌라도는 말도 안 되는 증언들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판은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 2019년 공쿠르상 최종 후보

너의 심장을 쳐라

4

이상해 옮김 | 2021년 | 200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모녀, 자매, 교수와 제자의 유사 가족 관계, 친구 사이 등 여성 등장인물 간의 다양한 관계와 그 이면에 있는 미묘함을 포착한 소설. 주인공 디안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자기 엄마에게조차 질투를 받는다. 딱 한 번의 포옹 말고는 엄마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 디안은 괴로움을 잊으려고 학업에 매진한다. 심장내과 의사의 길을 택한 그녀는 엄마와 나이가 비슷한 교수 올리비아를 존경하며 따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교수와 가까워지면서 교수가 자기 친딸 마리엘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추남, 미녀

2

이상해 옮김 | 2018년 | 232면 | B6 연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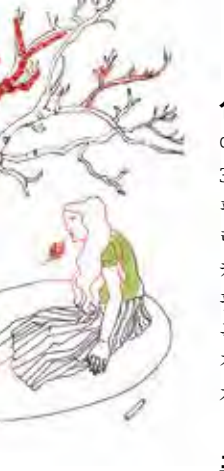
샤를 페로의 동화 〈고수머리 리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추하지만 천재인 남자와, 아름답지만 멍청해 보이는(사실은 멍청하지 않다) 여자라는 두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 오늘날 보기 드물게 따뜻한 사랑 이야기라는 평을 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두 주인공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권력의 두 축인 지식과 미모를 대표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박해를 받지만, 점차 자신들의 장점을 이용하여 자존감과 권력을 획득해 나간다.

느빌 백작의 범죄

3

이상해 옮김 | 2017년 | 144면 | B6 연장정 | 11,800원 **eBook**

때는 2014년, 아르덴 지방의 성주(城主)인 느빌 백작과 말썽쟁이 딸을 둘러싼 아찔한 희비극을 그린다. 그리스 신화에서 막내딸을 재물로 바친 아가멤논의 모티브를 비롯하여,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아서 새빌 경의 범죄』의 구성을 빌려 간결하고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엮었다. 구태를 답습하는 귀족 계급에 대한 풍자가 엿보인다. 고상함 뒤에 감춰진 비천함을 끌어내고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던 자기 파괴의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들은 묘하게 사랑스럽다.



Amélie Nothomb

샴페인 친구 3

이상해 옮김 | 2016년 | 192면 | B6 연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30세 젊은 작가 아멜리 노통브가 사인회를 하다가 만나게 된 페트로니유라는 여성 팬과의 우정 이야기. 아멜리 노통브는 페트로니유에게서 〈열다섯 살 불량소년〉처럼 보이는 면모를 발견하고 그녀를 술친구로 삼는다. 술주정과 노상 방뇨, 음주 스키, 사하라 사막 도보 횡단에 뛰어드는 페트로니유와의 우정을 통해 노통브는 〈걸핏하면 폭력을 외쳐 대는 이 가식덩어리들의 시대에 계속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젊은 예술가〉를 떠올린다. 값비싼 샴페인들을 곁들인 파티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독자의 긴장을 자극한다.

푸른 수염 11

이상해 옮김 | 2014년 | 196면 | B6 연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노통브는 이번 작품에서 샤를 페로의 동화 속 잔인한 푸른 수염을 황금과 중세 사상에 사로잡힌 에스파냐 귀족 〈돈 엘레미리오〉로 변모시켰다. 이 〈현대판 푸른 수염〉은 호화로운 저택에 은거하면서, 영혼의 반쪽을 찾아 월세 광고를 낸다. 행방불명된 이전 세입자 여덟 명에 이어 아홉 번째 세입자로 선택된 젊고 냉소적인 벨기에 여자 사튀르닌은 이 집의 비밀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노력한다. 값비싼 샴페인을 곁들인 호화로운 식사 장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선한 비유와 상징, 묵직한 지적 유머가 담긴 두 주인공의 위트 있는 대사들이 독자들을 쉴 틈 없이 공격한다.

아버지 죽이기 3

최정수 옮김 | 2012년 | 176면 | B6 연장정 | 10,800원 **eBook**

아멜리 노통브 20주년 20번째 소설. 열네 살 조 위프는 남자들이 끊임없이 왔다 떠나는 집에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른 채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 아버지의 수는 그 누구보다 많지만 그는 늘 다른 아버지를 갈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자신의 남자를 지키기 위해 조를 집에서 내보내고,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사로잡아 왔던 마술을 본격적으로 배우려 최고의 마술사 노먼 테런스를 찾아간다. 노먼의 여자 친구와 함께 그의 집에서 살게 된 조. 하지만 조는 사사건건 노먼과 대립하며, 그를 넘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뜨거운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와 마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한 두 남자 사이의 미묘한 관계, 믿음과 배신을 노통브만의 신랄함으로 그려 낸 도발적인 작품.

배고픔의 자서전 11

전미연 옮김 | 2006년 | 22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어린 시절부터 세계 각국의 문화와 다양한 군상들을 접하며 세상 모든 것에 끔찍할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보였던 그녀의 삶, 그것은 모두 〈배고픔〉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초월적 배고픔은 〈아멜리 노통브〉라는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인 인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불쏘시개 6

함유선 옮김 | 2004년 | 88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전쟁으로 인해 한 공간에 숨어 있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얼어 죽지 않고 연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불쏘시개라고는 서재의 책밖에 없다.

시간의 옷 14

함유선 옮김 | 2003년 | 24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기원전 79년 폼페이 멸망의 비밀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미래에 일어났다.〉 다음 장면에서 주인공은 폼페이의 비밀을 퍼뜨린 죄로 26세기로 납치된다. 감시를 맡은 남자와 주인공(노통브 자신)은 옥신각신하며 지난 6세기 동안의 세계 역사에 대해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이면서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경쾌하고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나눈다.

- 1996년 공쿠르상 후보

두려움과 떨림 26

전미연 옮김 | 2000년 | 15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한 벨기에 여성이 일본 회사에 취직한다. 그녀의 업무는 탁월한 외국어 능력, 사안에 대한 분석력에 상관없이 점점 단순하고 효용 가치가 없는 일로 대체되고 결국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된다. 하루하루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모욕에 맞서는 그녀 내면의 무사태평한 태도와 익살맞은 내레이션이 읽는 재미를 한껏 더해 준다.

- 1999년 프랑스 학술원 소설 대상

오후 네시 42

김남주 옮김 | 1999년 | 256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은퇴 후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위해 외딴 지방으로 이사 온 에밀과 쥘리에트 부부. 그들 앞에 〈이웃〉이라는 한 남자가 찾아온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네〉, 〈아니오〉라는 대답밖에 하지 않으면서 두 시간을 버티는 이 남자 앞에서 노부부는 신경과민 상태에 빠지는데…….

- 1995년 파리 프르미에르상
- 1995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사랑의 파괴 19

김남주 옮김 | 1999년 | 176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문화 혁명기 중국.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 외교관 거주지에 살게 된 일곱 살짜리 벨기에 소녀. 격리된 외교관 거주지 안에서 아이들은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세계 대전을 벌인다. 전투에 몰두하던 이 소녀 앞에 어느 날 세계의 중심이 나타난다.

머큐리 15

이상해 옮김 | 2005년 | 192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 1998년 벨기에 프랑스어권 아카데미 문학상

공격 11

김민정 옮김 | 2005년 | 176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Amélie Nothomb

15
Books

01
열린책들의 작가들

Amélie Nothomb

Emmanuel Carrère

에마뉘엘 카레르

현재 프랑스에서 비평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 중 한 사람. 에마뉘엘 카레르는 1958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1986년 『콧수염』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다. 존 업다이크는 이 작품에 〈멋지고, 번득이며, 냉혹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르 몽드』는 그에게 〈문학의 천재〉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1995년 발표한 『겨울 아이』로 페미나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알려졌다. 아이가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일 때 겪는 무자비한 과정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는 이 작품은 클로드 밀러 감독의 동명 영화로 제작되어 칸 영화제 심사 위원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에 발표한 『적』은 장클로드 로망이라는 실존 인물의 가공할 만한 사기 행각, 엽기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다. 작가가 사건에 매료되어 범죄자에게 편지를 쓰고 작품화의 의도를 밝힌 후 그의 재판에도 참석하고 범인의 행적을 그대로 추적해 간다.
허구가 현실을 능가하고, 논리가 부조리 앞에 굴복하는 민감한 경계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으로 독자를 사로잡아 온 이 〈문학의 천재〉는 2009년 『나 아닌 다른 삶』을 발표하면서 작품 세계의 한 획을 그었다. 『나 아닌 다른 삶』은 모든 문장에 진실이 배어 있는 문학적 다큐멘터리로, 평범한 이웃의 비범한 비극을 관조에 가까운 시선으로 그려 내어 감동을 던진다. 『르 몽드』, 『르 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주요 일간지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동명의 영화감독에 대한 연구서 『베르너 헤어초크』(1982), 『나는 살아 있고 당신들은 죽었다: 필립 K. 딕의 전기』(1993), 소설로는 『재규어의 친구』(1983), 『용기』(1984년 파시옹상, 보카시옹상 수상), 『베링 해협』(1986년 SF 대상, 발레리 라르보상 수상), 『안전지대』(1988년 클레베르 헤덴스상 수상), 『러시아 소설』(2007), 『왕국』(2014) 등이 있다.
러시아 작가 리모노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소설 『리모노프』(2011)는 2011년 르노도상, 2011년 문학 대상(주요 문학상 수상작 중의 최고작), 2012년 글로브 드 크리스탈 문학상을 수상하고, 『르 푸앵』과 『리르』지에 의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카레르는 2017년 과달라하라 국제 도서전에서 〈로망스어군 문학상〉, 2021년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공주 문학상을 수상했다.

Interview 1

에마뉘엘 카레르 인터뷰

글쓰기가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재기 발랄하고 우상 파괴적인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에마뉘엘 카레르는 그가 지난 25년 동안 쓴 자전적인 성격의 르포르타주, 시평(時評), 단편소설 등을 한 모음집에 담아 놓았다. 어느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 차우셰스쿠와 드라큘라 이후의 루마니아에 불쑥 들어가 본 여행기, 카트린 드뇌브와의 실패한 인터뷰, 다보스 포럼의 이면……. 에마뉘엘 카레르의 기사들은 세계의 모습뿐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 기사들은 극도로 민감하고, 고뇌덩어리면서도 유머러스한 한 남자의 초상을 그려 보인다. 여기에 그와의 만남을 소개한다.

당신은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오토픽션autofiction인가요?

난 오토픽션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단어가 커버하고 있는 의미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마찬가지로 난 〈소설 roman〉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지만, 소설의 테크닉들은 죄다 사용하고 있지요. 내 작업은 자전적인 이야기, 르포르타주, 역사, 다른 사람의 삶 이야기, 전기 등의 혼합물이죠. 내가 더 이상 픽션을 쓰지 않게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언제 픽션 쓰기를 멈췄죠?

장클로드 로망(의사 행세를 하다가 자신의 사기극이 발각되기 전에 온 가족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의 사건을 다룬 『적』부터죠. 난 그와 감옥에서 대화를 나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야기를 내 자신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느껴졌죠. 그 이후로 난 이 애매한 영역에서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이 무정형의 형태가 내게는 맞아요.

정신적인 심연 앞에서 보낸 7년

그런 이야기를 쓰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장클로드 로망의 그것 같은 정신적 심연 앞에서 7년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난 아주 우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게 나에게 딱 맞는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날 선택한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고요.

한 시평에서 당신은 한 작가와 그의 주제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부정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어떤 기자를 인용하셨는데…….

하지만 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주제가 어떤 실제적인 사람일 경우 예술적이고도 윤리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감상성 혹은 파렴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사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작가는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관찰자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관찰되는 것은 바뀌기 마련이죠. 이것은 르포르타주에 있어서나 소설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작가 쪽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기자 쪽이라고 느끼시나요?

둘 다예요! 내게는 둘 다 똑같은 작업이에요. 내가 러시아 반체제 인사 리모노프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그것은 잡지 『XXI』에 실을 르포르타주 기사로 시작되었어요. 난 소설로 작업을 계속해 나갔는데, 이 소설은 더 길고 더 자세한 르포르타주라 할 수 있죠. 나는 르포르타주나 소설이나 같은 어조를 사용해요.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2014년에 공쿠르상 심사위원들은 그런 이유로 『왕국』을 탈락시켰지요. 기독교의 역사와…… 당신 자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 말입니다.

이것은 몽테뉴, 루소, 성 아우구스티누스 등 모든 자전적 작가들에게 동일하게 가할 수 있는 비난이에요.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게 가까운 이들을 연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아내(엘렌 드뱅크Hélène Devynck)에 대한 아주 내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난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겁니다. 글쓰기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이 누구에 대해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난 리모노프에게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화를 냈다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적인 인물들에 대해 지켜야 할 것들과 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지켜야 할 것들은 서로 같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이 『러시아 소설』에서 나치 부역자로 의심되는 당신의 조부에 대해 썼을 때, 당신의 어머니 엘렌 카레르 당코즈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난 어머니의 기분을 거스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감행했는데, 왜냐하면 내게 이 책은 꼭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는 냉각 기간이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아카데미 프랑세즈 종신원장인 엘렌 카레르 당코즈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당시엔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독서는 마약과도 같다

문학을 사랑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셨겠군요?

문학적 교양을 숭상하는 분위기였죠. 난 수학에는 젬병이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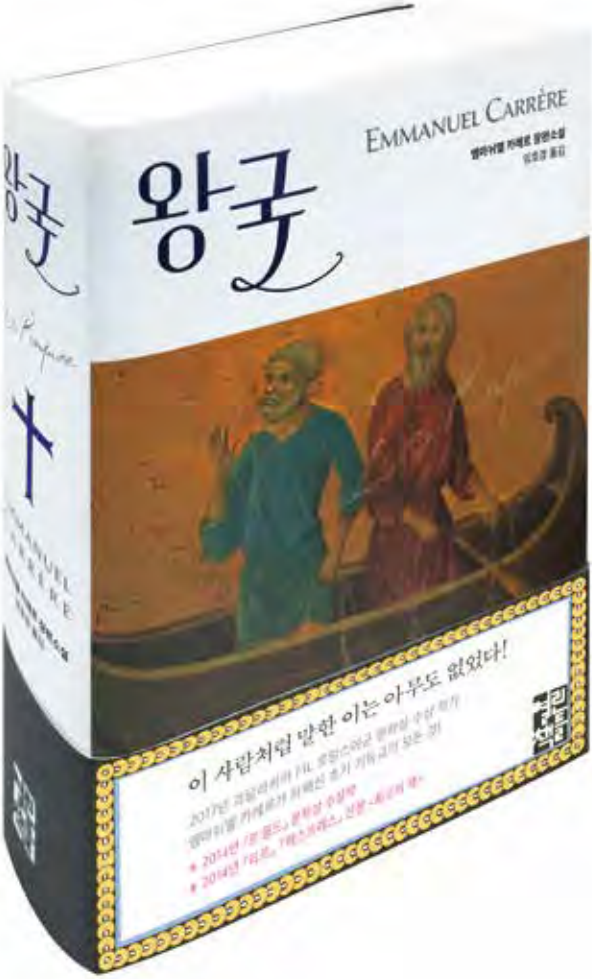
당신은 스스로를 〈부끄러울 정도로 식탐이 강한〉 독자로 묘사하고 계시던데요.

독서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 집필 중인 작품이 있습니까?

난 일본판 빌라 메디치라고 할 수 있는 빌라 구조야마에서 석 달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 아홉 살 난 딸애와 열한 살 난 조카애를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그 애들의 〈망가〉에 대한 열정을 위한 계획이죠.

플로랑스 피타르, 임호경 옮김, 『우에스트프랑스』, 2016.2.5.


EMMANUEL CARRÈRE
왕국
이 사람처럼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Interview 2

에마뉘엘 카레르 인터뷰

에마뉘엘 카레르는 어떻게 논픽션을 재창조했는가?

그의 분류하기 힘든 작품들은 개인사와 르포르타주와 철학과 신학을 혼합하여 강력한 서사적 마법을 선사한다.

지난 10월, 미국 대선의 혼란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59세의 프랑스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에마뉘엘 카레르가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파리의 어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자신에 관련된 불쾌한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을 쓴다는 것은,」 그는 마치 정신 분석을 받는 환자처럼 검정 가죽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면서 내게 말했다. 「이것은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난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난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것들을 많이 해왔고, 또 생각해 왔지만, 그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나쁜 일을 했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만일 독자가 어떤 책을 읽고 〈오, 그도 똑같구나. 그도 마찬가지야〉라고 느낀다면, 이것은 독자에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점은,」 카레르는 몸을 세워 앉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쓸 권리가 있지만 — 이것도 내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 다른 이들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보여 줄 수 있는 정직함을 다른 이들에게 부과할 권리는 전혀 없는 거죠.」

「자신에 대해 나쁜 것들을 쓴다는 것은,」 카레르는 다시 뒤로 등을 기대면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마쉬가 전극봉을 자신에게 사용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에요. 당신은 언제 멈출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요. 다른 이들에 대해 글을 쓸 때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극봉을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난 불행히도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무엇보다도 선함과 미덕을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난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반면에 아주 윤리적이죠. 다시 말해서 난 선함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악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난 문학이 우리에게 비윤리성의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픽션과 논픽션 사이를 오간 — 이 교번적인 작업을 카레르는 작가로서 아주 좋아했으며, 그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영화 제작자 베르너 헤어조크에 대한 책 한 권 분량의 에세이로 1982년에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로, 카레르는 논픽션적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혁신해 왔다. 극히 내밀하며, 역사적·철학적으로 진지하면서도 강력한 서사적 마력을 지닌 카레르의 책들은 심층적 르포르타주를 신학, 철학, 심리학을 아우르는 학문적 탐험, 작가의 개인사, 그리고 역사 기록학 등에 깊이 결합시킨 잡종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혁신은 주로 전위적인 작가들의 관심사이고 따라서 독자층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카레르의 책들은 — 36년 동안 14권을 썼으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높이 상찬되는 만큼 대중적인 인기도 높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의 책들 중 어떤 책들은 다른 책들보다 이 주장을 보다 명백한 것으로 만든다. 카레르의 최근작이며,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출간된 『왕국』은 그가 독실했던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에 대한 회고록인 동시에, 누가와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사에서 최초의 책들을 썼는지에 대한 허구적 설명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재난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담당할 수 있는 극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종교에서 신정론(神正論)은 어떻게 완벽한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 하는 글쓰기의 한 분야이다. 카레르의 작품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은 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우엘벡은 카레르가 아주 다르고도 아주 근본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은 존재한다. 이것은 악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우엘벡은 설명한다. 〈그리고 진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 — 자연의 법칙에 전적으로 어긋나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존재 — 이다. 그리고 에마뉘엘 카레르가 그의 책들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진정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이 선(善)의 문제이다.〉
기독교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카레르의 『왕국』은 이 선의 이야기를, 타인과 연결되기를,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 타인과 교감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갈증을 깊이 파들어 간다. 불어판으로 63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20여 년 전, 카레르가 기독교를 추구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 그는 글을 쓸 수가 없었고, 결혼에 실패했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매일 교회에 나가고, 요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논평하면서 12권이 넘는 노트를 채우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3~4년 후에는 신앙이 시들어 다시 길을 잃게 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카레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사후의 초기 기독교 교회의 글로 써진 역사들, 서사물보다 서사에 있어 간극이 더 많은 이 상충적인 초기 기록물들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수수께끼로 말했고, 2천 년 후에 20억 명의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숭배하게 될 한 남자의 죽음에 대한 네 개의 서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 카레르는 또한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사도 누가와 사도 바울에 대해 허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설명의 허구성은 기록에 존재하는 커다란 구멍들을 메우면서,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었는지 이해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왕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말해질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넓히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탐구가 된다.

카레르 자신은 이 책을 일종의 걸작으로 보는데, 그것은 그의 오만함의 발로가 아니라, 5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체리 테이블에 미네랄 오일을 한 겹 한 겹 바른 끝에, 그것이 내부의 빛으로 은은히 빛나는 것을 스스로도 놀라면서 바라보는 어느 목수의 반응이다. 카레르는 『왕국』은 자신이 작업하기를 좋아했던 책, 쓰기를 멈추고 싶지 않은 책, 그의 창조적 삶의 두 번째 부분의 말미를 장식하고 세 번째 부분의 안내자가 되기를 바라는 책이라고 내게 말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이 책의 집필을 마친 지 3년이 흘렀지만,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카레르에게 『왕국』은 그가 너무나도 이어 가고 싶었던 글쓰기의 삶을 마감하는 하나의 갓돌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는 또다시 —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 제대로 된 책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저널리즘적 임무를 몇 가지 작업하고 있는바, 저널리즘은 카레르가 막혔을 때 세상과 관계를 맺는 유용하고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되어 왔다. 하지만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일종의 단말마 상태였다. 다시 한번 그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난 특권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카레르는 내게 말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난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돈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직업적으로는 아주 빨리 성공을 거뒀으며, 건강도 좋은 편이에요. 동시에 약간 무거웠던 삶을 통해 내가 지녀 온 것은 우울증 성향이에요. 이따금 우울증에 노출되지 않은 해들도 있었죠. 그러고는 이게 다시 돌아오곤 해요. 여기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일이죠. 그리고 일이 없으면 —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 그 결과로 난 아주 취약해져요.」

전에 신자였고 지금은 비(非)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카레르는 해답들을 찾기 위해 『왕국』에서 스토리텔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이번에도 찾아낸 것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다 큰 인간 스토리 가운데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성은 이 아름답고도 어려운 책의 핵심에 위치한다. 형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느낌에 있어서 어려운 『왕국』은 우리가 내밀성intimacy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순들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다. 『왕국』에는 플롯이 없다. 이것은 독자를 다양한 감정의 역(驛)들 사이를 왕복시키는 감정적 셔틀버스라 할 수 있다. 책의 뒷부분에서 카레르는 한 기독교 수련원에,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누가복음에 묘사된 최후의 만찬에 근거한 수련원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자, 베드로는 항의했다. 「스승이여, 당신이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리라.」〉 그래서 카레르는 모든 이가 예수가 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그리고 참가자 중에는 다양한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도 섞여 있는 한 수련원으로 간다. 카레르는 어떤 남자의 발을 씻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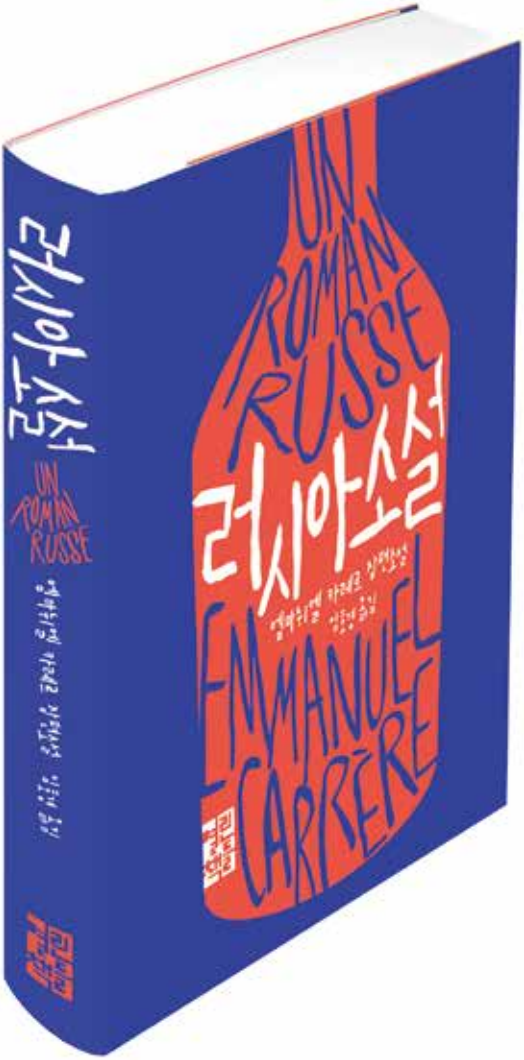
나는 그 발들을 보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생면부지인 사람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도 이상한 일이다. 난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한 말을 떠올렸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살인을 못 하게 하는 인간의 얼굴에 대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의 발에 대해서는 더 진실로 느껴진다. 발은 더 불쌍하고, 더 연약하다. 이보다 더 연약한 게 없다. 이를테면 우리 각자의 안에 들어 있는 어린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것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너무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난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카레르도 인정했듯이, 이것은 어떤 육체적 경험에 대한 멋진 지적 대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과 사랑에 휩쓸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기타 연주와 춤이 시작되었을 때, 카레르는 이 경험을 거의 다 끝냈고, 자신의 과거의 삶과 다시 연결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약간 거북함마저 느꼈다.

그러고 나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게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카레르의 책들이 기대를 벗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레르의 솔직함에 대한 재능이 그와 우리에게 선사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어둠의 끝에 이르러, 살아온 삶과 그 삶의 몸부림들이라는 어둠에 대한 탐험의 끝자락에 이르러 갑자기, 그 몸부림들은 결코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계시의 순간이 온다. 카레르가 너무도 사랑했으며, 잘못된 선택들이 우울증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한 커플이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하여 새로운 삶에, 한 아이의 탄생에 이르게 되는 『안나 카레니나』의 엔딩처럼

말이다. 이 탄생에 대해 레빈은 갈등을 느끼고, 또 나름의 생각들을 품지만, 이 생각들을 그의 아내와는 공유하지 않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소설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와만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계시는 — 작지만 삶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 카레르의 작품에서 매우 특별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그의 책들은 끝부분에 와서 문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그때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책 말미에서 작지만 강렬한 계시로의 꾸준한 이동은 가장 규정짓기 어려운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엔딩의 효과는 그것들을 앞선 것들의 축적, 다시 말해서 독자로 하여금 그 엔딩으로 이끄는 무수한 선택들의 축적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카레르가 어둠과 비극과 악행과 살인과 슬픔과 상실에 대해서, 고문받는 사람과 고문에 대해서, 심지어는 때로는 고문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다. 하지만 얘기를 거기서 끝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일 것이다. 카레르의 진정한 주제는 악이 아니라 황홀경, 우리의 삶에서 그것의 불안정한 상태이다. 카레르는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눈멀어 버리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 헤매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삼켜지며, 또 어떻게 — 만일 우리가 운이 좋다면 — 결국 그것이 우리를 따라잡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아무리 카레르가 상실과 폭력과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결국 그의 책들은 조그만 기쁨의 공간을 획득하는 결말들을 향해 움직인다. 그것들은 — 더 나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데 — 〈해피엔드〉들이지만, 작위적인 트릭이 아니라 진실로 느껴지는 해피엔드들이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써진 것이다.

와이엇 메이슨, 임호경 옮김, 『뉴욕 타임스』, 2017.3.2.


러시아 소설
UN ROMAN RUSSE
에마뉘엘 카레르 장편소설
임영희 옮김
UN ROMAN RUSSE
러시아 소설
에마뉘엘 카레르 장편소설
임영희 옮김
EMMANUEL CARRÈRE

필립 K. 딕

임호경 옮김 | 2022년 | 520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SF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작가, 작가들의 작가인 필립 K. 딕에 관한 평전. 1928년 시카고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직후, 쌍둥이 누이를 잃는 등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낸 필립 K. 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전 강박증에 시달렸고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다섯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삶을 살았다. 1952년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여 36편의 장편소설과 10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지만 딕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 죽기 몇 년 전에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딕의 소설을 읽고 자라며 영향을 받은 카레르는 그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 필립 K. 딕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눈을 감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를 소설처럼 재현해 낸다. 또한 딕의 일생을 그의 작품과 나란히 시기별로 배치하여 그의 대표작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지켜볼 수 있다.

왕국

7

임호경 옮김 | 2018년 | 704면 | B6 연장정 | 18,800원 **eBook**

초기 기독교 역사를 재구성한 팩션. 자전 소설이자 역사 소설인 『왕국』은 성경의 교리 이전에 하나의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개인의 삶에 집중한다. 카레르 자신이 신앙의 세계에 첫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불가지론자로 회귀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는 한편, 시간을 가로질러 복음사가 바오로와 루카의 여정을 추적한다.

- 2014년 『르 몽드』 문학상
- 2014년 『리르』, 『렉스프레스』 선정 〈최고의 책〉
- 2014년 『르 푸앵』 선정 〈최고의 책〉
- 2014년 『텔레라마』 〈올 가을의 책〉

러시아 소설

임호경 옮김 | 2017년 | 432면 | B6 연장정 | 13,800원 **eBook**

『적』 이후 탈진 상태에 놓였던 카레르가 7년의 공백을 깨고 내놓은 작품.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 선 역작! 르포르타주 제안을 받은 에마뉘엘은 영화 촬영 팀과 함께 구소련의 작은 마을 코텔니치로 향한다. 낯선 곳에서 맞닥뜨린 모호한 인물들과, 애인 소피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근원적인 불안을 부채질한다. 카레르는 러시아와 프랑스, 현재와 과거, 사랑과 참상을 넘나들며 생의 나신(裸身)을 대담하게 해체하고 분석한다.

리모노프

2

전미연 옮김 | 2015년 | 528면 | B6 연장정 | 13,800원 **eBook**

러시아의 작가이자 정치인인 에두아르드 리모노프의 삶을 추적한 전기. 〈문학적 다큐멘터리〉, 〈기록 문학〉 등으로 일컬어지는 카레르 특유의 서술 방식으로 아름답든 추하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카레르 자신의 인상과 감상이 섞여 있다. 실존 인물 리모노프를 매개로 소련 시절, 또 소련 해체 이후의 현대 러시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놀라운 시각을 보여 준다.

- 2011년 프랑스 〈르노도상〉, 〈문학상의 상〉
- 2012년 네덜란드 〈유럽문학상〉
- 『매일경제』·교보문고 선정, 2016년을 여는 책 50

적 6

윤정임 옮김 | 2005년 | 22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이것은 실화다. 1993년 1월, 세계 보건 기구의 존경받는 연구의 장클로드 로망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친부모를 살해했다. 그는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체포되었다. 그리고 밝혀지는 사실들. 세계 보건 기구에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의사도 아니었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사건 자체만큼이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카레르의 대표작.

- 2010년 『GQ』(프랑스)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소설 50선〉

겨울 아이 6

전미연 옮김 | 1999년 | 196면 | B6 견장정 | 7,500원 eBook

학교에서 마련한 스키 강습을 떠나는 내성적인 소년 니콜라. 아버지는 전세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전세 버스를 타고 가서는 안 되는 걸까? 아버지는 니콜라의 짐 가방을 내려 주지도 않고 떠나 버린다. 누가 외톨박이 니콜라에게 잠옷을 빌려줄까? 즐겁고 신나고 재미나다는 스키 강습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에게 계속 난처한 일만 일어난다. 그러다 한 아이가 실종되고, 스키 강습은 중단된다. 니콜라는 안도하지만, 이게 정말 그가 원하던 일이었을까?
〈완벽한 성공작〉, 〈언어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간 직후 페미나상을 수상했다. 1998년 영화화되어 칸 영화제에서 심사 위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 아닌 다른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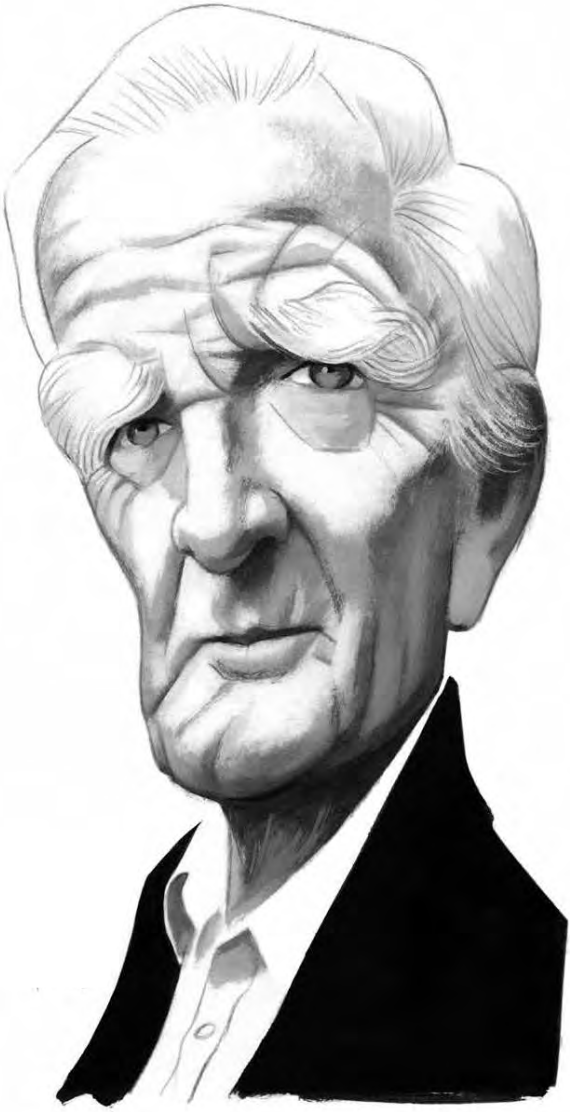
전미연 옮김 | 2011년 | 376면 | B6 연장정 | 절판 eBook

- 2009년 크레쉬스상
- 2009년 『렉스프레스』 독자상
- 2009년 『마리클레르』 소설상
- 2009년 『르 푸앵』 선정 올해의 책 20권
- 2010년 프랑스 한림원 앙리 갈 문학대상
- 2010년 크리스탈 지구상

콧수염 12

전미연 옮김 | 2001년 | 228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Emmanuel Carrère



John le Carré

존 르카레

존 르카레는 시대를 반영한 걸출한 스파이 소설로 〈오늘날 스파이 스릴러를 쓰면서도 본격 작가로 대우받는 유일한〉 작가로 평가될 만큼 뛰어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냉전기의 시대 상황을 묘사했던 그는 냉전이 끝난 뒤에도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로 독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08년 『더 타임스』가 뽑은 〈1945년 이후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1년 독일 문화원으로부터 괴테 훈장을 받았다.

1931년 영국의 항구 도시 풀에서 태어났다. 르카레는 그의 필명으로, 본명은 데이비드 존 무어 콘웰이다. 스위스 베른 대학에서 독문학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근대 유럽어학을 수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영국의 국내, 해외 정보국인 MI5와 MI6에서 근무했다. 실제 스파이들의 본거지인 정보국에서 일하던 이 시기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는 1961년 첫 번째 장편소설 『죽은 자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동서 냉전기의 독일을 무대로 활약하는 이중간첩을 소재로 한 세 번째 소설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1963)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자 본격적인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1974)는 수십 년 전 소련 정보부에서 영국 정보부에 침투시킨 스파이가 현재 최고위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퇴한 첩보 요원의 활약을 그린 르카레의 대표작으로, 2011년 영화화되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영원한 친구』(2003)는 존 르카레의 이른바 9·11 테러 이후 작품이다. 작가 자신이 〈시대가 변했다. 내 초점도 변했다〉라고 말할 만큼, 과거 동서 냉전 상황에서 강대국,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옮아간 이 대가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세계와 변치 않는 우정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믿는 주인공을 대비시킨 작품이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겨울 나라의 전쟁』(1965), 『스마일리의 사람들』(1979), 『리틀 드러머 걸』(1983), 『완벽한 스파이』(1986), 『은밀한 순례자』(1990), 『나이트 매니저』(1993), 『파나마의 재단사』(1996), 『콘스탄트 가드너』(2001), 『모스트 원티드 맨』(2008), 『우리들의 반역자』(2010), 『민감한 진실』(2013), 『스파이의 유산』(2017) 등이 있다.
르카레는 2020년 12월 런던에서 타계했다.

Interview

존 르카레 인터뷰

르카레의 가장 어려운 사건

너무 뻔해서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존 르카레**의 소설들을 지은 사람은 자신의 등장인물들과 공통점이 아주 많다. 그가 여왕님의 비밀 정보국이라는 그림자 세계 출신이고 여러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는 점만 비슷한 것이 아니다. 그를 직접 만났을 때도 그렇다. **르카레**라는 가면과 작품의 창작자인 **데이비드 콘웰**이 작품에서 플롯을 드러낼 때처럼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적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며 차츰차츰 자신을 드러내 상대의 무장을 해제시키지만, 결코 전체를 드러내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의 11번째 소설인 **『완벽한 스파이』**(영국에서는 이제 막 출간됐고, 미국에서는 5월에 출간될 예정이다)에서 **콘웰**은 **르카레**의 가면을 벗고 전에 없이 자신의 과거를 가리킨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신작이 중요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한때 일했던 영국 정부의 감수를 받지 않은 그의 첫 번째 스릴러 작품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콘웰**은 이 작품에서 예의를 지켰다.
우선 감수를 거쳤다면 이름을 밝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을 부서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렇게 정보를 생략한 이유를 이번에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런던 햄스테드**에 있는 그의 집과 **콘웰**의 바위 해안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몇 시간 동안(이 신작 소설에 대한 인터뷰는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나를 노련하게 이끌어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완벽한 스파이』**를 정부에 제출해 감수받지 않은 것은, 이것이 이른바 〈비밀 세계〉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첫 번째 책이라서 서구의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박적으로 비밀을 지키는 정부의 검열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콘웰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존 르카레**라면 말했을 수도 있다. 소설을 지어내듯이 말하는 방식이라면). 하지만 나는 이런 추측 결과, 영국에서 가장 굳건하게 자리를 굳힌 작가 중 하나인 그가 당국에 법에 따라 자신을 기소하는 바보짓을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확실한 답을 아는 사람은 정부 당국과 **콘웰**뿐이다. 하지만 **콘웰** 자신의 젊은 시절 이력과 소설 속의 이중간첩으로 그의 분신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 **매그너스 핌**의 이력이 겹친다는 점에서, 그가 제국으로서 점점 쇠퇴해 가던 영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똑똑한 영국 젊은이들을 염탐하기 위해 다른 똑똑한 영국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였는지를 가려 주던 장막을 들어 올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완벽한 스파이』의 핌은 베른, 빈, 옥스퍼드에서 비밀 정보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 의식을 치른다. 옥스퍼드 학부생 시절 그는 좌익 학생 그룹에 침투해 자신이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런던의 어느 기관에 보고한다. 그 기관에 대해 그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영국의 공식적인 기관이며 애국적인 곳이라는 점만 알 뿐이다. 콘웰은 내가 생생한 사실을 캐내기 위해 그에게 옥스퍼드 시절 소설 속 핌과 같은 행동을 실제로 했느냐고 물어보자 조개처럼 입을 다물었다. 남의 말씨와 어조를 똑같이 흉내 내는 보기 드문 재주를 갖고 있으며 듣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말솜씨가 좋은 그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적갈색의 숱 많은 눈썹을 집게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 나는 왜 답변을 꺼리시느냐고 물었다. 「대답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모호해서 바로 거기에 진실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완벽한 스파이』를 정보국에서 일한 저자의 경험을 소설처럼 가장해 써내려 간 회고록으로 읽으려 하다가는 곧 좌절하게 될 것이다. 매그너스 핌이 옥스퍼드를 떠난 다음부터는 비밀 정보원의 세계와 이어진 콘웰의 흔적을 좇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데이비드 콘웰의 과거와 생각 속 어둡고 구석진 곳에 한 줄기 빛을 던져 주는 것은 정보원 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콘웰의 이 소설을 개인사가 가장 많이 드러난 책으로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매그너스 핌이라는 인물이 아니다. 그보다는 가끔 참담함을 안겨 주는 릭 핌이라는 인물, 즉 매그너스의 아버지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도덕적인 가치관이 전혀 없는 그가 그런 역할을 한다. 데이비드 콘웰은 만약 자신이 존 르카레로 다시 태어나 문학의 세계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릭처럼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자의 고백만이 아니다. 매그너스 핌이라는 인물 속에 드러난 데이비드 콘웰의 선명한 자화상 덕분에 그는 25년 전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애만 태우며 손에 잘 잡히지 않던 주제에 달려들 수 있었다. 바로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고 매력적이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의 아들로서 보낸 남다른 유년기라는 주제. 릭 핌은 콘웰의 아버지를 모델로 그려 낸 인물이다.
로널드 콘웰은 근면과 성실이라는 중산층의 전통적인 미덕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조롱하며, 강박적으로 돈을 펑펑 써대는 사람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연극 같던 그의 인생에서 그의 차남은 조연이 되었다(세 번 결혼한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였던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그가 겨우 세 살 때 그의 앞에서 사라졌다). 그는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원의 세계와 첩보 기술을 처음으로 접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염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끝에 마침내 그때의 경험을 소설로 녹여 내 아버지의

모습을 등장인물로 살려 낼 수 있었다. **릭 핌**을 묘사하면서 그는 그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을 사실을 밝혔다.
「내 머릿속에서 **스마일리**를 떠나보낸 뒤에야 나는 진짜 아버지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콘웰**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스마일리**란 당연히 그의 등장인물 중 가장 유명한 조지 **스마일리**를 말한다. 그는 **데이비드 콘웰**이 **르카레**의 이름으로 출판한 첫 소설 『죽은 자에게 걸려 온 전화』의 첫 페이지에 등장한다. 당시 **콘웰**은 **스마일리**처럼 아버지 같은 존재들을 위해 아직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탓에 **르카레**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저자가 직접 내게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일하던 그의 지인이 **스마일리**의 외모에 대해 넌지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린 그의 말투와 움직임 등은 예전에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에서 만난 어느 강사에게서 따왔다. **스마일리**는 나중에 다섯 편의 소설에 더 등장했고, 이 작품들이 유명한 텔레비전 시리즈로 만들어졌을 때는 **알렉 기네스**가 그 역을 맡았다. 그는 17세기 독일 문학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창조주를 닮았다. 두 사람은 또한 비밀 정보원의 세계에 대한 시각, 의리와 배신의 의미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일리**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데이비드 콘웰**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주 엄격히 자제하며 아주 은근히 드러냈을 뿐이다.
그의 생부인 **로니**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부자의 사이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뒤였다. **존 르카레**의 성공, 즉 그의 책이 벌어들인 엄청난 돈은 **로니**에게 자랑거리이자 불만거리였다. 불만의 원인은, 사실상 자기 덕분에 이 돈을 벌어들였으니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 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아버지가 아내들, 부모, 인척들, 친구들, 구경꾼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고, 그가 항상 엄청난 거래가 금방 이루어진다거나 〈부족함 없이 돌봐 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것 같은 신기루를 남겨 놓고 가버렸다는 사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은 돈을 달라는 아버지의 감언이설과 호소에도 잘 버텨 낼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몇천 파운드 정도를 보내 주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고통스럽게 역전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마땅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보내 준 적은 없어요.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한번은 **빈**에서 내 교육비로 얼마가 들었는지 나와 함께 계산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당신이 약속한 돈 중에 일부는 끝내 내놓지 못했고 또 다른 일부는 현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을 그냥 투자했으면 큰돈이 됐을 거라고 하더니,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합의금 액수를 내놓았습니다.」
데이비드 콘웰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로니**가 아들의 입을 통해 말을 시작했다. 「아들, 여기 앉아 봐라. 네가 아버지 입장에서 네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없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 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소설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덕분에, 그는 이렇게 아버지를 흉내 내며 웃을 수 있었다. 사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유머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책을 쓰는 데 아주 중요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원하는 만큼 유머를 얻어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머를 통해 연민까지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여러 면에서 아버지보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3~4년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자기 연민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다.

소설에서는 연민과 분노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대화할 때는 그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 **콘웰**은 우리가 그다음에 만났을 때야 비로소 **『완벽한 스파이』**를 넘어서서 **로니**의 기억에 대해 직접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베를린** 영화사에서 자신을 아들의 매니저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의 영화화를 위해 **파라마운트** 대신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불해야 할 청구서 한 무더기를 남기고 갔다. 그에게는 이것이 습관이었다. 아버지는 또한 아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두 번이나 협박하기도 했다(한번은 **『순진하고 감상적인 연인』**에 자신의 모습이 비록 절반만 묘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고, 다른 한 번은 **콘웰**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의 아버지는 **브뤼셀**에서 호감을 품고 있던 여자에게 자신을 유명한 작가 **존 르카레**로 소개했으며, 유럽의 또 다른 도시에서는 아들과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협박할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콘웰**은 **취리히**와 **자카르타**에서 감옥에 갇힌 아버지의 보석금을 내놓아야 했고, 어디든 사치스러운 호텔에 묵을 때마다 아들 앞으로 달아 둔 아버지의 계산서와 맞닥뜨리기 일쑤였다. 언변이 뛰어난 아버지는 술을 몇 잔 마시면서 성실한 **스위스**인 기관사를 설득해, 일정표에 없는 개인 기차로 아들의 스키 별장이 있는 **벵엔**에 가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무일푼인 데다가 빚까지 잔뜩 지고 있을 때에도 **사보이 그릴**에 들어서자마자 수석 웨이터에게 포옹을 받은 사람이 **콘웰**의 아버지였다.

로니의 못된 짓 중에는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굉장한 사기를 몇 번 저질렀다〉고 말하는 **콘웰**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향수가 더 많이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로널드 콘웰은 육감이 뛰어난 기업가 흉내를 평생 실감 나게 해냈다. 그의 장남으로 **데이비드**보다 두 살 위이며 지금은 **뉴욕** 광고 회사의 창작 담당자인 **앤터니**는 **로니**가 **생모리츠**의 최고급 호텔인 **쿨름**에서 말솜씨만으로 거액의 계산서를 지불하지 않고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간단히 그 호텔을 사버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호텔에서 여러 차례 파티를 열고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이 모두 이 호텔을 살 생각이 있는 어느 신디케이트를 대신해 호텔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지배인을 설득했다는 뜻이다.

지배인은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로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인 나머지 계산서를 깜박 잊어버렸다. **로니**는 때로 거창한 거래를 생각해 내서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더 많은 이득을 기대하며 많은 이윤을 거절하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어요.」 **데이비드 콘웰**의 첫 번째 아내인 **앤**은 과거의 시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직한 쪽과 정직하지 못한 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쪽을 선택할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데이비드 콘웰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 무섭게 들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의 포옹에서 사랑과 함께 폭력 또한 느껴졌던 것도 기억한다. 아버지가 막대한 빚을 지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던 것도 기억한다.

데이비드는 사춘기 이전이던 전쟁 중에 **로니**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언뜻 했다.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하던 시기에, 아버지는 **앤터니**와 **데이비드**가 **팽번**에서 다니던 기숙 학교 **세인트 앤드루스**에 화려한 차를 타고 나타나곤 했다.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쓴 화려한 여자들도 함께였다. 다른 아버지들은 당시 군대에 있었지만,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암시장에서 의약품과 과일을 거래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콘웰**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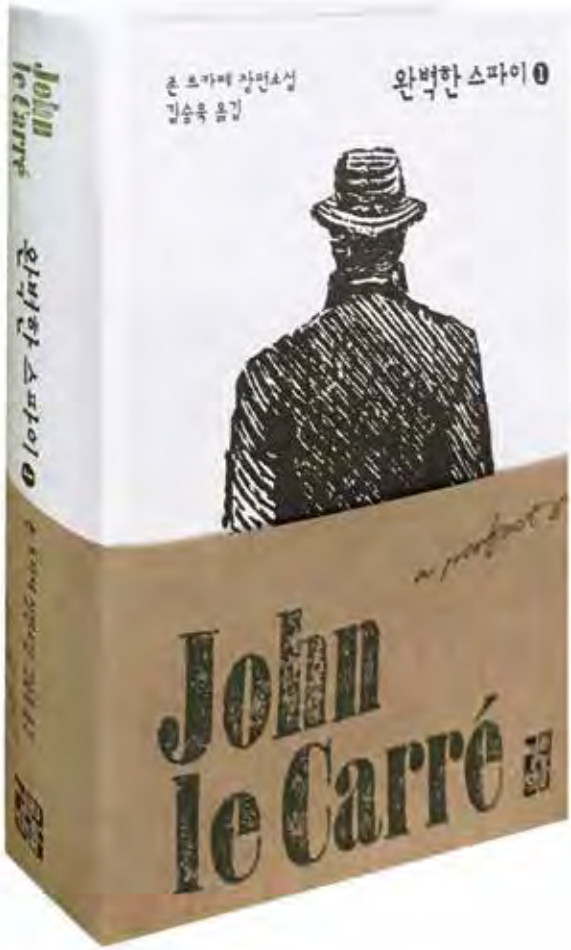
「아버지가 나를 보내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 자신이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열여덟 살이 지난 뒤, 아버지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며 자신이 어렸을 때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이 밝혀졌을 때 **로니**는 **그레이트 야머스**에서 자유당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콘웰**은 아버지가 상대 당의 쑥덕거림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중 회합에서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게 일을 꾸몄다고 확신한다. 당시 아들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한 아버지가 〈내 탓이오〉를 외치는 모습에 거의 넘어갈 뻔했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입으로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을 다시 들려주었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세상에서 길을 개척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사환으로 일하던 곳의 금고에서 스탬프 몇 장을 빌려서…….」

그가 〈오로지 **로니**의 매혹〉이라고 부르는 재주가 그때는 아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현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화려한 사무실, 교외의 호화로운 집, 대규모 부동산 거래, 소문이 자자한 파티 등으로는 번쩍이는 **벤틀리**를 타고 정육점이나 동네 주유소를 다녀오는 일이 매번 모험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감출 수 없었다. 더 이상 고기나 휘발유를 외상으로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었다.

콘웰은 **로니**가 채권자들에게 말할 때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나도 혼자 힘으로 인생을 개척한 적이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니


존 르카레 장편소설
김승욱 옮김
완벽한 스파이 ❶
John le Carré

여러분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난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어요. 돈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곧 여러분을 돌봐 주겠습니다. 그동안 와서 저녁이나 들고 가요.」

데이비드 콘웰은 자신의 목소리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러 와서 외상으로 산 고기를 먹고,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대량으로 주문한다면, 언제나 외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무슨 술이든 마시고 싶은 것을 실컷 마신 뒤에 배불리 떠났습니다. 돈은 안 냈죠.」

로니는 점잖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에 더 가까웠다. 좋은 연줄, 좋은 친구, 적절한 순간에 꺼낼 적절한 사람의 이름, 인근 은행장의 아내나 자식에게 보낸 적절한 선물이 자라서 신용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가끔 빚을 갚기도 했지만, 들어온 돈은 대부분 새로운 거래에 쓰여 새로운 채무 관계를 만들어 냈다. 그는 이런 거래로 모두를 보살펴 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빚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결코 절박해지지 않았다. 사실 그는 빚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빚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는 거품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화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어딘가에 땅이 한 조각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아들이 말했다. 「어쩌면 거래가 성공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체제를 무너지지 않게 끌고 가면서도 지급 능력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에서 1천 파운드짜리 수표에 자신 있게 서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 과연 몇 달이나 되었을지 의심스러워요.」

그는 의회 선거에 출마하면(그가 처음으로 출마한 것은 전쟁 중에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신뢰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들들을 적절한 학교에 보낸 것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였다(등록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은 그 목적과 상관없었다). 그가 흥청망청 파티를 연 목적도 같았다.

데이비드 콘웰은 배우 **트레버 하워드**를 집에서 본 기억이 있다. 또 한번은 **오스트레일리아** 크리켓 국가 대표 팀 전원이 집에 오는 바람에 잔디밭에 텐트를 세운 적도 있었다. **로니**는 이들의 방문을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선수들의 사인을 받을 크리켓 배트를 1백 개쯤 구입했다. 그는 특유의 후한 인심을 발휘해서 그 배트를 기존의 채권자나 장차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선물로 나눠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파티에서 대량으로 사인을 받아 내는 데에 실패했다.

로니는 이때도 아주 잠시만 당황했을 뿐이다. 「선수들은 **스트랜드 팰리스**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아버지는 주위에 무한히 많은 미인들 중 가장 예쁜 여자를 10명쯤 골라서 배트를 들려 저녁 6시경 호텔로 보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보냈다면서 호텔 바에 내려가 보라고 했죠. 선수들이 정말로 내려갔더니 엄청 예쁜 여자들이 크리켓 배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말해 주지는 않았다. **로니**가 자신의 건달 부하들과 가신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들이 우연히 들은 것이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보국에서 더러운 술수 쪽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도둑질을 자랑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있을 때는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대화는 모두 남들 앞에서 나눈 것입니다. 평생 그랬어요.」 **콘웰**이 말했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생겨난 으스스한 소외감과 정서적 결핍으로 **로니**의 아들들은 **데이비드**의 표현처럼 〈중립 지대〉를 찾게 되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친구들 옆에서도, 자신이 다니던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앤터니**가 생각해 낸 해결책은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데이비드**도 열여섯 살 때 **스위스 베른**으로 도망쳐 독일어에 푹 빠졌다. 독일어가 학교에서 그에게 〈내적인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았다.

로니의 은행 어음이 약속된 날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예 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소설 속의 **매그너스 핌**처럼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아남았다. 그중에는 긴 솔로 코끼리를 씻기는 일도 있었다. **『완벽한 스파이』**의 플롯에 따라 **핌**은 **베른**에서 **옥스퍼드**로 갔다가 **오스트리아**의 정보 부대에 들어가게 된다. **데이비드 콘웰**의 인생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정보 부대가 **옥스퍼드**보다 먼저였다. 나중에 아내가 된 앤도 그 이전에 만났다. 지금은 **짐바브웨** 주재 **영국** 외교관의 아내가 된 **앤**은 **데이비드**의 아버지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다. **로니**와 **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데이비드**의 애정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임을 알아차렸다. **로니**는 두 젊은이가 결혼하기 직전에 결국 화려하게 폭발했다. **데이비드 콘웰**은 그의 파산 사실을 보도한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기사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 〈**챌폰트 세인트 피터**의 왕관 없는 왕의 채무 115만.〉 **챌폰트 세인트 피터**는 **로니**가 컨트리클럽의 눈부신 빛처럼 행세하던 교외 마을의 지명이다. 당시 그의 추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1954년의 파운드화를 1986년의 달러화로 환산해 보자. **잉글랜드 은행**에 따르면, 그가 쌓은 빚은 오늘날의 가치로 3천만 달러 상당이었다.

로니의 두 번째 아내와 두 자녀(**샬럿 콘웰**은 **데이비드**의 소설 **『리틀 드러머 걸』**의 주인공 모델이 된 배우이고, **루퍼트 콘웰**은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의 **본** 주재 특파원이다)는 어느 친척 아주머니의 집에 표류하듯 들어갔다. 주머니에는 2파운드 12실링 6펜스, 즉 약 12달러뿐이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로니**는 자녀들 앞에 몰래 잠깐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루퍼트**는 가끔 연락을 받고 어느 이름 없는 철로 변 호텔에 가곤 했다고 기억한다. 아버지가 가명으로 묵고 있는 호텔이었다. 파산했어도 **로니**는 **데이비드**의 결혼식에 모습을 나타냈고, 여느 때처럼 화려한 몸짓으로 계산서에 서명하며 모든 손님을 위한 샴페인을 주문했다. 나중에는 아들이 **이튼**에서 주급 13달러를 받는 교사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로니**가 **포드** 신차를 보내기도 했다.

웨일스의 어느 어수룩한 자동차 판매상이 계약금도 받지 않고 보내 준 차였다. **포드**의 번호판에 RC4라고 새겨진 것을 보니, **로널드 콘웰**의 자동차 부대 중 한 대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은 차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독립 선언과 맞먹는 행동이었다. 「내가 차를 돌려준 일로 아버지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내가 믿어 주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나는 감정적인 이유로 돌려보낸 건데, 아버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돈에도 논리라는 것이 있다면, 파산한 사람이 보낸 최신형 자동차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 뒤로 20년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 아버지로 인해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화를 낸 것이 그 부분이었죠. 자기가 울 때 나는 울음을 그쳤다는 것.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우는 것이 우리 집에서는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이 으레 그렇듯이, 그도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었다. **로니**에게 자기 나름의 비밀 세계가 있었듯이,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들(그들의 삶과 성격은 나중에 **조지 스마일리** 같은 인물들 속에 변형되어 표현되었다)의 지도하에 또 다른 종류의 비밀 세계에 몸을 담그면서 자신이 **로니**의 특징을 일부 물려받았으며 그 덕분에 정부를 위해 유능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외교를 위한 흥정과 유혹, 상대가 하지 않으려는 말까지 끌어내는 일, 필요한 정보나 연줄이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평소 같으면 친구가 되지 않을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일을 하면서 나는 무서울 정도로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콘웰은 자신에게 매력이 있음을 알았지만, **로니**의 매력을 대단히 부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저항해야 한다고, 심지어 자신에게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매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매력의 효과를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인식은 **데이비드 콘웰**이 공직을 그만두는 데에도, 작가로서 그의 목소리를 형성해 준 첩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서 **존 르카레**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던 것 역시 이런 인식 때문이다. 「대중 앞에 나섰을 때의 내 모습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나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이런 인식은 『**완벽한 스파이**』에서 마침내 단순한 배경 이상의 존재가 된다. 이 소설의 구조, 주제, 테마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매그너스 핌**이 이중 첩자임을 폭로하려고 나선 **CIA** 요원은 이렇게 말한다. 「내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만약 **매그너스**의 글이 한 번이라도 그에게 이롭게 작용했다면 그는 괜찮았을 겁니다.」 여기에 작가의 개인사가 언급되어 있지만, 조심스레 풀어서 쓸 필요가 있었다. 이것을 **데이비드 콘웰**이 반역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존 르카레**의 말로 보면 안 된다. **콘웰**이 그럭저럭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에게서 보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라 복종이다. **핌**이 복종하는 주인들이 너무 많다.

르카레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소설 속의 완벽한 스파이는 결국 한심한 인물이나 위선자로 판명된다. **매그너스**의 위선을 아버지 **릭**의 위선보다 더 용서하기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위선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것은 **매그너스**가 일한 비밀 기관들의 위선이다. **『완벽한 스파이』**에서 **화이트홀**의 고위 관리들은 자칫 적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는 요원들의 목숨보다는 미국인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에 더 골몰한다. **로니**의 경우처럼 **매그너스**와 **릭**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도덕과 개인적인 현실은 서로를 반영한다. 소설은 최고의 사기꾼은 정부의 권력자들 가운데에 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릭**은 거래인들에게 외상을 남긴 반면, 정부 기관들은 요원들의 목숨을 방치한다는 점이다. **콘웰**은 처음 작가로 나섰을 때보다 훨씬 더 비밀이 적어진 비밀 정보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대중적 도덕이 스파이들의 도덕을 포함해서 개인의 도덕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반역과 변절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국제법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고용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자리에 적용되는 도덕을 고치려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하죠.」

흥미로운 주장이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깔끔했다. 첩보원 세계의 도덕이 30년 전에 비해 정말로 그렇게 나쁜가요? 나는 이렇게 물었다.

「나쁘다기보다 더 대중적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콘웰**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과 과거의 진정한 차이점은 서구 기관들, 특히 **미국 중앙 정보국**이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지독히 형편없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CIA**가 지난 11월에 **KGB** 망명자 **비탈리 유르첸코**를 **조지타운**의 식당에서 놓친 것 같은 일은 과거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첨단 기술 첩보전에 집착하는 바람에 공식적인 사기꾼이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솜씨가 쇠퇴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로니는 **런던**에서 화려하게 파산한 뒤 자신의 계획에 투자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먼 아시아나 미국까지 가야 했다. 어느 해에는 **싱가포르**에 나타나 내기 당구장 계획을 당국자들에게 선전하는가 하면, 그다음 해에는 **뉴욕**에 나타나 **바하마 군도**에 컨벤션 센터를 짓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선수들이 사인해 준 크리켓 배트처럼, **존 르카레**의 책도 **로니**가 거래하는 자산이 되었다. 그는 아들의 책을 수백 부나 주문해서 〈저자의 아버지로부터〉라고 화려하게 서명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과연 자신의 책을 읽었을지, 아니 무슨 책이든 읽은 적이 있기는 한지 의심하고 있다.

로니는 기존의 빚을 청산하지도 않은 채 **런던**에서 새로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저민 거리**에 새로 사무실도 내는 놀라운 재주를 보여 주었다. 그 사무실의 편지지에는 10여 개 회사들의 국제 본부라고 적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딸인 **샬럿**이 불쑥 나타나서 스물다섯 살이 되어야 비로소 그가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고문 변호사에게 물어서 답을 들을 수 있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야.」 **로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맹목적으로 사랑하던 **샬럿**은 배우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 시기에 무대에 서 있다가 갑자기 객석에서 아버지의 대머리를 발견하곤 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면, 자식은 무엇이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가끔은 **파리**로 오라는 말과 함께 비행기 1등석 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딸은 호사스러운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경마장에 가서, 마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로니**가 자기 것이라고 말한 말을 응원했다. 당시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던 아들 **루퍼트**는 아버지가 대개 자신을 **파리 리츠 호텔**의 바로 불러서 만나곤 했다고 말한다.

1975년에 크리켓 경기 텔레비전 중계를 보다가 세상을 떠날 당시, **로니**는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와 **저민 거리**의 사무실, **첼시**의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 **메이든헤드** 근처의 시골집, 경주마 두 필을 유령 회사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자산은 전혀 없었다.

「그 주에 아버지의 직원들 중 단 한 명에게라도 임금을 지불할 돈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돈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찾아내려고 미친 듯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마치 『그리스인 조르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무서운 과부들이 몰려오던 광경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데이비드 콘웰은 화장 비용과 추도식 비용을 치렀지만, 추도식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또 감옥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샬럿**은 이복 오빠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거의 2년 동안 그와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정직성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자신에 관한 책이라며 아빠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녀가 **『완벽한 스파이』**에 대해 한 말이다. 그녀는 자기 나름대로 **로니 콘웰**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보여 주었다. 「그 녀석이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전부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다시 자기 목소리로 돌아와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심 아빠는 몹시 기뻐하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콘웰이 **앤**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 두 번째 아내인 전직 출판 편집자 **제인 유스터스**에게서도 그는 아들 하나를 얻었다. **샬럿**과 **루퍼트**는 이복형제 **데이비드**가 비록 **로니**보다 키가 크고 더 날씬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를 닮아 간다고 말한다. 소설에서 **핌**은 자신을 〈이제 신용이 다 무너져 다리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휘청거리는 실패한 사기꾼〉으로 묘사한다. **데이비드**와 아버지의 닮은 점이 소설에서 논리적인 극단에 가닿은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현실에서는 닮은 점이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도 **로니**의 자식들은 모두 지금도 그의 존재감을 느낀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도 있다. 이니셜이 아버지와 같은 **루퍼트 콘웰**은 입국 심사 때 관리가 그의 여권을 보고 머뭇거릴 때마다 문제가 생길 것을 각오한다. 〈**로널드 콘웰**과 친척이십니까?〉라는 질문은 지금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빚과 미납 대금의 서막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콘웰이 가장 최근에 이 질문을 들은 것은 11월에 **빈**의 임페리얼 호텔에서 신용 카드를 건넸을 때다. 「**콘웰**, **콘웰**. 영국에서는 흔한 이름입니까?」 직원이 물었다.

「그런 철자를 쓰는 이름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존 르카레**의 아버지 이름도 **콘웰**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대충 여기서 대화를 끝내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태도를 누그러뜨려 자신이 바로 **존 르카레**임을 밝혔다.

「아버지를 아주 나쁘게 대하셨죠.」 직원이 말했다. 「정말 훌륭한 신사셨는데요. 아버지에게 돈을 좀 드리지 그러셨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콘웰**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의 말씨를 고스란히 흉내 낸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아들의 책을 그곳에 남겨 두었다. 하지만 완전히 뜻밖이었던 것은, **로니**가 과거 술친구이던 그 직원에게 전혀 돈을 빚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분은 잘 지내십니까?」 직원이 물었다.

「아,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데이비드 콘웰의 개인사라는 측면에서, 이 소설은 아버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라기보다 일종의 카타르시스 역할을 한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낯선 외국 같아요.」 하지만 그는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매그너스 핌**과 **릭 핌**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존재하는 것 같다는 감정.」

조지프 렐리벨드, 김승욱 옮김, 『뉴욕 타임스 매거진』 1986.3.16.
(렐리벨드는 『뉴욕 타임스』 편집국장이다.)

오너러블 스쿨보이

2

허진 옮김 | 2022년 | 전2권 | 각 528, 472면 | B6 견장정 | 각 17,800원 **eBook**

스마일리와 러시아의 스파이 마스터 카를라의 대결을 그린 시리즈 〈카를라〉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으로, 전작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직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야기는 영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소설 집필을 위해 전쟁 지역을 직접 취재한 르카레의 생생한 묘사는 이 소설을 르포르타주와 같이 읽히게도 만든다. 작가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집단의 부조리한 논리에 희생당하는 인물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낸다.

완벽한 스파이

4

김승욱 옮김 | 2021년 | 전2권 | 각 520, 560면 | B6 견장정 | 각15,800원 **eBook**

유능한 영국 외교관, 헌신적인 가족이자 충실한 친구, 그리고 신뢰받는 영국 정보국 요원 매그너스 핌.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핌이 사라졌다. 아무도 그의 행적을 모른다. 그의 실종에 모두가 긴장한다. 핌은 혼자 아버지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을까? 아니면 그만의 비밀스러운 일을 수행 중일까? 한 남자의 숨겨졌던 삶의 파괴적 묘사.

스파이의 유산

3

김승욱 옮김 | 2020년 | 456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르카레의 대표작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이며, 27년 만에 조지 스마일리가 다시 등장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스마일리의 부하 피터 길럼의 1인칭 소설이다. 나이 지긋한 전직 요원 피터 길럼은 프랑스의 시골 농장에서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집배원이 편지 하나를 들고 온다. 길럼은 그것이 영국 정보부, 즉 〈서커스〉에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회상과 문서 속에서 사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박찬욱 감독 추천사 수록.

영원한 친구

박현주 옮김 | 2010년 | 52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훌쩍한 키에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는 영국인 테디와 자그만 체구에 다리를 절지만 넘치는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독일인 사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독일에서 학생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며 처음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그러나 운명은 곧 두 사람을 갈라놓고, 10여 년 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테디에게 동독의 비밀경찰이 되어 나타난 사샤가 은밀한 제의를 해오는데……. 1960년대 학생 운동, 1980년대 동서 냉전하에서의 첩보 활동, 2000년대 미국 패권주의에 맞선 싸움 등 현대사의 격랑 속에 길을 찾는 두 사람의 이야기.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26

김석희 옮김 | 2005년 | 285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20세기 냉전이 낳은 최고의 스릴러. 오늘날 스파이 스릴러를 쓰면서도 본격 작가로 대우받는 유일한 작가, 존 르카레의 최고 걸작. 스릴러의 대가 그레이엄 그린으로부터 〈내가 지금껏 읽어 온 스파이 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

- 1963년 서머싯 몸상
- 1963년 영국 추리작가 협회상
- 1965년 미국 추리작가 협회상
- 2005년 『타임』 선정 〈100대 영문 소설〉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18

이종인 옮김 | 2005년 | 552면 | B6 견장정 | 16,800원 **eBook**

영국 정보부의 은퇴한 첩보 요원 조지 스마일리. 어느 날 정부 고위층의 요청으로, 리키 타르라는 젊은 요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그가 그녀에게서 들은 엄청난 기밀은 바로 소련 정보부의 우두머리인 카를라가 수십 년 전 자신의 스파이를 영국 정보부에 투입했고, 지금 그 스파이(두더지)가 정보부의 최고위직에 올라 있다는 이야기. 스마일리는 이제 누군가를 심문하거나 전화를 도청하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과 비상한 분석력, 기지에만 의지해 퍼즐을 풀어야 한다. 2011년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되어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색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죽은 자에게 걸려 온 전화

최용준 옮김 | 2007년 | 240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Harper Lee

하퍼 리

하퍼 리(1926~2016)는 앨라배마주 먼로빌에서 변호사이자 주 의회 의원인 아버지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단한 말괄량이였던 그녀는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거칠게 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해 영문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다가 먼트가머리에 있는 헌팅던 여자 대학과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했으며 교환 학생 자격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기도 했다. 학생 시절 짤막한 글을 발표하던 그녀는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글쓰기에 전념하게 되자 『파수꾼』 원고를 출판사로 보내고, 출판사에서는 그 작품을 고쳐 『앵무새 죽이기』로 출간할 것을 제안했다.

1960년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는 곧바로 미국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 이듬해 하퍼 리에게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겨 주었다. 1962년에는 영화화되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이룩했고,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로 분한 그레고리 펙은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2001년에는 시카고에서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도서로 선정되어 당시 그곳의 큰 문제였던 인종 차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그 이후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성서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등에 자리매김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스카웃과 항상 붙어 다니는 오빠 젬과 친구 딜, 변호사인 아빠 애티커스 핀치, 이웃에 사는 은둔자 부 래들리 등이 중심이 되어 펼쳐 보이는 이야기는 출간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40개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된 『앵무새 죽이기』의 예상치 못한 성공에 위압감을 느낀 하퍼 리는 작품을 더 발표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택했다. 그렇게 잊힌 『파수꾼』의 원고는 50여 년이 지나 작가의 안전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다.
『파수꾼』은 『앵무새 죽이기』의 전작이자 후속작, 하퍼 리의 첫 작품이자 최후의 작품이다. 20세기 중엽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의 불길이 번지던 시기, 시대의 비극을 둘러싼 부녀의 갈등을 통해 『파수꾼』은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한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말한다.
『파수꾼』 출간 7개월 뒤 하퍼 리는 89세의 나이로 고향인 앨라배마주 먼로빌에서 타계했다.

Interview

하퍼 리 인터뷰

토머스 핀천과 작고한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와 함께 하퍼 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은둔 작가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메일 온 선데이』가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인 리를 자율적 고립 생활로부터 잠깐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컨대, 미국 남부의 인종 차별주의를 다룬 퓰리처상 수상작(그리고 출간 50주년을 맞은 작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해야 했던 기자에게 하퍼 리(이제 84세인 그녀는 어린 시절 고향인 앨라배마주 먼로빌에 있는 노인 보호 시설에서 살고 있다)가 해준 얘기는 거의 없었다. 기자가 가져온 초콜릿 상자를 받으며 (깨끗하지만 낡고 빛바랜 티셔츠와 헐렁한 체크무늬 면바지를 입고 있던) 리는 〈대단히 친절하시네요〉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오늘은 그냥 같이 오리 먹이나 주러 가요.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전화를 주세요. 여긴 아주 역사적인 곳이라, 볼거리가 아주 많거든요〉라고 말했다.

백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흑인의 이야기를 다룬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 7월 11일에 처음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미국 도서관 사서들이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뽑았으며,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 팔렸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퍼 리는 다음 달에 있을 『앵무새 죽이기』 5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되었지만 그냥 자신의 아파트(보호 시설 안에 있음)에서 보낼 예정이다. 작가가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는 2006년 『앵무새 죽이기』를 주제로 한 고교생 수필 경연 대회 수상식에서 『뉴욕 타임스』와 했던 인터뷰였다.

〈아이들은 항상 소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하퍼 리는 학생들을 두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소설과 본인들의 현재 삶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06년 이전에 언론과 가장 길게 인터뷰를 했던 것은 1964년이었다. 그때 하퍼 리는 작가 로이 뉴키스트에게 〈『앵무새 죽이기』가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고,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맞고 기절한 기분이다〉라고도 했다. 〈처음부터 그 책이 팔릴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나는 차라리 비평가들 손에서 빨리 사장되는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책을 인정해 줄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일반 대중의 인정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공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제가 기대했던 《신속하고 다행스러운 사장》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죠.〉

하퍼 리는 인터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6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하퍼 리는, 어떤 친구가 그런 거절 편지를 일일이 쓰지 말고 차라리 거절 편지 양식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보내는 건 어떠냐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 양식을 만든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절대, 싫어요!〉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농담을 건넸다.

앨리슨 플러드, 김마림 옮김, 『메일 온 선데이』, 201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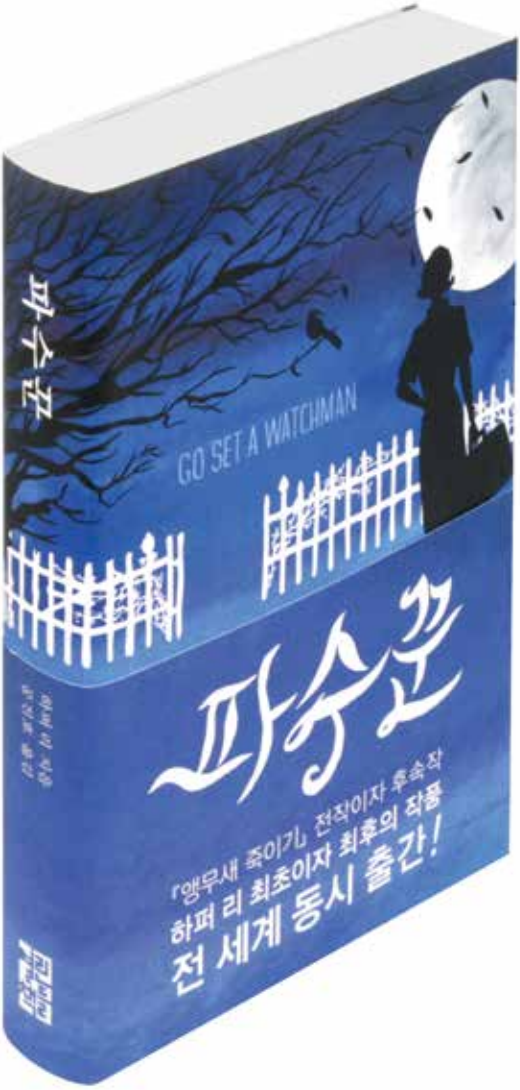
파수꾼 11

공진호 옮김 | 2015년 | 424면 | B6 연장정 | 15,800원 **eBook**

55년 만에 출간된 하퍼 리의 두 번째 작품 『파수꾼』은 그전까지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던 『앵무새 죽이기』의 전작이자 후속작,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이다. 『앵무새 죽이기』를 집필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하퍼 리의 첫 작품인 데다가,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이 20년이 지나 성장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960년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의 예상치 못한 성공에 위압감을 느낀 하퍼 리는 작품을 더 발표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택했다. 그렇게 잊힌 『파수꾼』의 원고는 50여 년이 지나 작가의 안전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다. 『파수꾼』은 『앵무새 죽이기』의 전작이자 후속작, 하퍼 리의 첫 작품이자 최후의 작품이다. 20세기 중엽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의 불길이 번지던 시기에 집필되었다. 주인공 진 루이즈에게 아버지 애티커스는 양심의 파수꾼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는 증오와 극복의 대상으로 바뀐다. 시대의 비극을 둘러싼 부녀의 갈등을 통해 『파수꾼』은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한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말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브라질, 덴마크, 네덜란드, 카탈루냐, 스웨덴, 한국까지 총 10개국이 2015년 7월 14일 동시 출간했다. 출간 전부터 초판 발행 부수 2백만 부 확정, 인터넷 서점 아마존 예약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출간 첫 주 미국 내 110만 부 판매
- 2015년 반즈&노블즈 소설 분야 일간 판매 부수 신기록
- 2015년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 베스트 픽션
- 아마존닷컴 선정 2015년 베스트셀러 6위
- 『퍼블리셔스 위클리』 2015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소설)

Harper Lee


파수꾼
GO SET A WATCHMAN
파수꾼
하퍼 리 지음
공진호 옮김
『앵무새 죽이기』 전작이자 후속작
하퍼 리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
전 세계 동시 출간!

앵무새 죽이기 37

김욱동 옮김 | 2015년 | 544면 | B6 연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성서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40개 언어로 번역되어 4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1960년 출간 직후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그 이듬해 하퍼 리에게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겨 주었다. 1962년에는 영화화되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이룩했고,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로 분한 그레고리 펙은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스카웃과 항상 붙어 다니는 오빠 젬과 친구 딜, 변호사인 아빠 애티커스 핀치, 이웃에 사는 은둔자 부 래들리 등이 중심이 되어 펼쳐 보이는 이야기는 출간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2001년에는 시카고에서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도서로 선정되어 당시 그곳의 큰 문제였던 인종 차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그 이후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등에 자리매김했다.

- 1961년 퓰리처상
- 1991년 미국 국회 도서관 선정 〈성서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위
- 1998년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 2006년 영국 도서관-박물관 아카이브 협의회 선정 〈영국 사서들이 꼽은 필독서〉 1위
- 2007년 미국 대통령 자유의 메달 수훈
- 2008년 영국 〈플레이닷컴〉 선정 〈영국인들이 꼽은 역사상 최고의 소설〉 1위
- 2008년 〈르네상스 러닝〉 조서 〈미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1위
- 2012년 NPR 선정 〈최고의 청소년 소설 100선〉
- 2014년 「비즈니스 인사이더」 선정 〈모두가 읽어야 하는 미국 고전 25선〉
- 〈굿리즈닷컴〉 선정 20세기 〈독자에게 가장 사랑받은 책〉 1위
- 영국 출판사 〈폴리오 소사이어티〉 조사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책〉 7위
- 『타임』, 『뉴스위크』, 『가디언』, 『옵서버』, BBC 「빅리드」,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소설 1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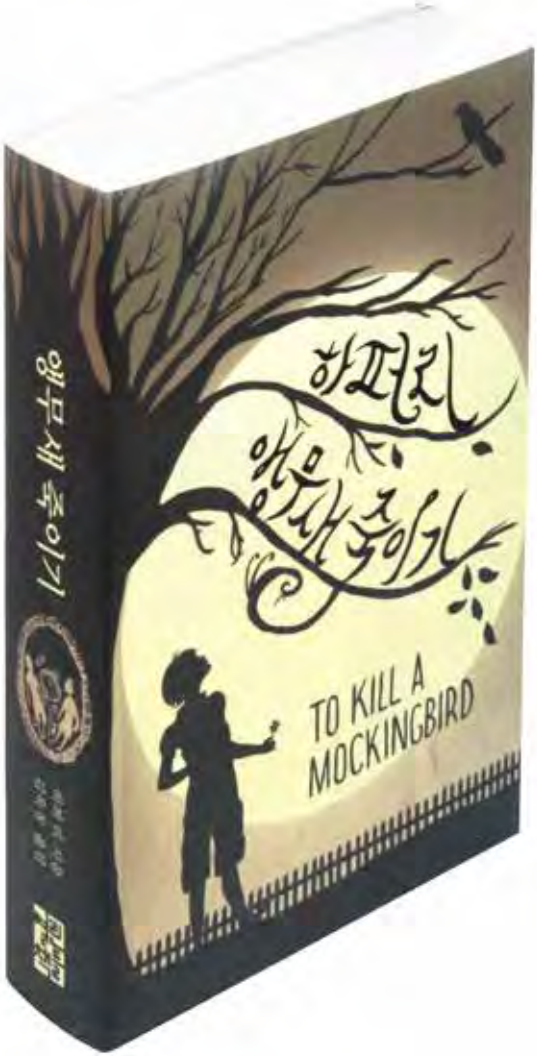
[버즈북] 하퍼 리 버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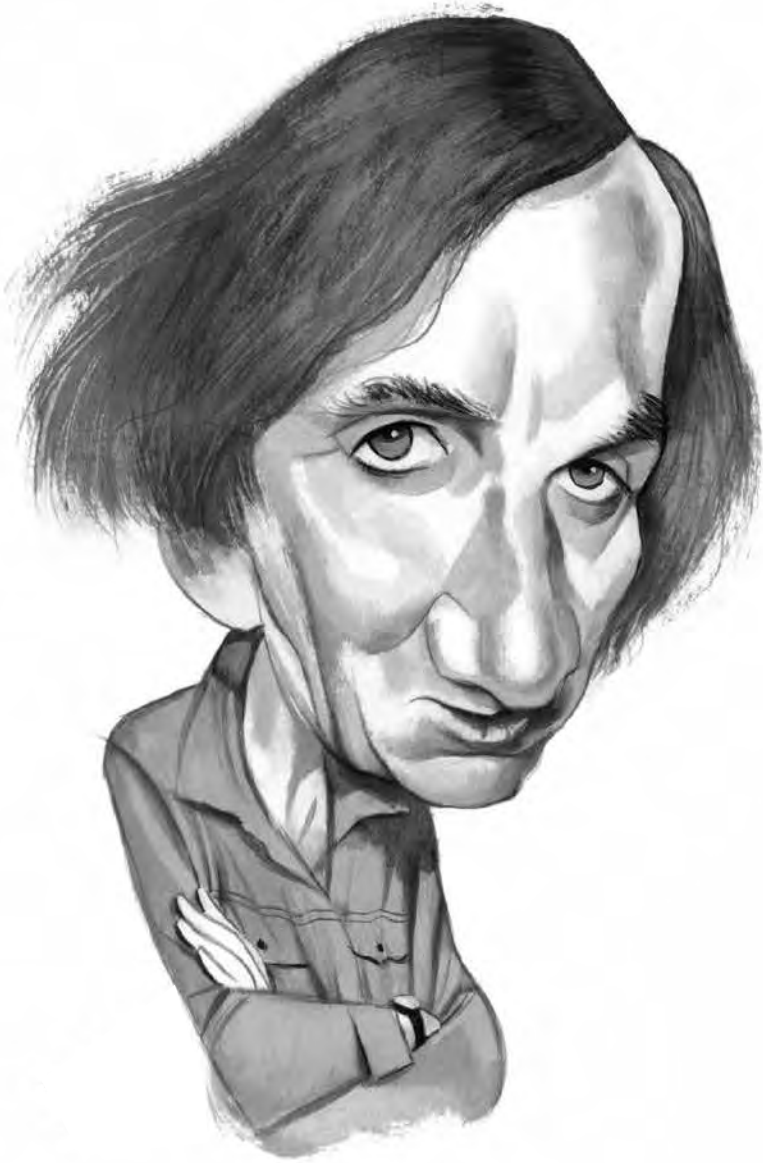
열린책들 | 2015년 | 240면 | B6 연장정 | 0원 eBook

영미권에서 매년 1백만 부씩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 판매된 『앵무새 죽이기』,
55년 만의 신작, 예약 판매 및 출간 직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파수꾼』.
전 세계 4천만 독자를 감동시킨 작가, 하퍼 리와 그의 작품을 알리는 버즈북.

2
Books

Harper Lee





Michel Houellebecq

미셸 우엘벡

2010년 공쿠르상 수상자이자 현대 프랑스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인 미셸 우엘벡은 1958년 프랑스 레위니옹에서 태어났다. 그랑제콜에서 농업 경제학과 정보학을 공부한 뒤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다 1985년 시인으로 데뷔했다. 1991년 미국의 고딕 작가 H. P. 러브크래프트의 전기 『세계에 맞서, 인생에 맞서』와 평론집 『계속 살아 있기』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첫 시집 『행복의 추구』를 펴냈다.

1994년에는 첫 번째 장편소설 『투쟁 영역의 확장』을 발표하며, 경제 영역뿐 아니라 성(性)의 영역에서도 자유 경쟁 상태에 내몰린 서구인의 지옥과 같은 삶을 묘사한 이 책으로 문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우엘벡의 이 데뷔작은 생존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투쟁 외에도 성적 매력을 둘러싼 투쟁에 온 힘을 바치고 좌절해야 하는 현대인의 절망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갈수록 영역이 무한히 넓어지기만 하는 이 투쟁에서 문득 발을 빼고 무관심해진 주인공은 마음의 평화가 아닌 철저한 무기력과 무의욕의 상태에 빠져 정신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4년 후인 1998년, 우엘벡은 그의 전 작품에 대해 문화부에서 수여하는 〈젊은 문학인 국가 대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평론집 『발언』과 두 번째 소설 『소립자』를 발표했다. 성 풍속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서구의 자멸〉을 면밀하게 해부한 『소립자』는 하나의 현상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은 세기말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서구를 답습하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한다. 그해 『리르』와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이 작품으로 우엘벡은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 공공 도서관의 추천을 받아 아일랜드 정부가 수여하는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엘벡의 다른 작품으로는 그가 자신의 시를 낭송한 음반 「인간의 현존」(2000)과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펴낸 수필집 『란사로테』(2000), 소설 『플랫폼』(2001), 『어느 섬의 가능성』(2005), 공쿠르상 수상작 『지도와 영토』(2010), 『복종』(2015) 등이 있다. 우엘벡은 2019년 1월 1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오스트리아 유럽 문학상을 수상했다.

투쟁 영역의 확장

2

용경식 옮김 | 2017년 | 232면 | B6 연장정 | 10,000원 **eBook**

성의 영역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어김없이 관철된다면 자유로운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제 작가 우엘벡의 데뷔작. 생존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투쟁 외에도 성적 매력을 둘러싼 투쟁에 온 힘을 바치고 좌절해야 하는 현대인의 절망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갈수록 영역이 무한히 넓어지기만 하는 이 투쟁에서 문득 발을 빼고 무관심해진 주인공은 마음의 평화가 아닌 철저한 무기력과 무의욕의 상태에 빠져 정신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소립자

25

★ 1998년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올해의 책〉

이세욱 옮김 | 2003년 | 488면 | B6 견장정 | 9,500원 **eBook**

현대 프랑스 문단의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인 미셸 우엘벡의 대표작. 금기를 알지 못하는 듯한 거침없는 의견 표명으로 서구 평단을 들끓게 한 논쟁적인 작품이다. 성 풍속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서구의 자멸〉을 면밀하게 해부하고 있는 이 작품은 세기말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서구를 답습하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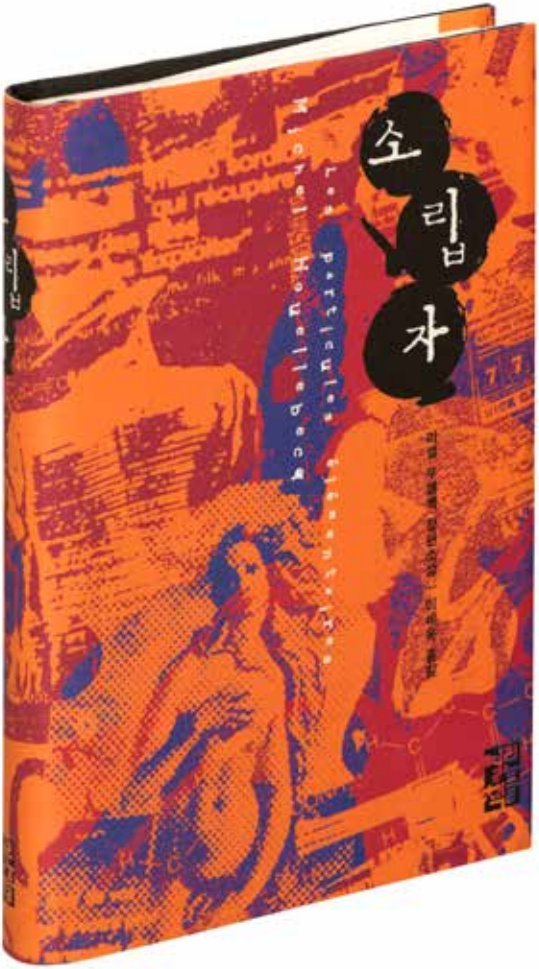
- 1998년 『리르』 선정 〈올해의 책〉
- 1998년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올해의 책〉
- 2002년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
- 『르 몽드』 선정 1980년~2009년 프랑스 문학계에 영향 준 30대 작품

어느 섬의 가능성

이상해 옮김 | 2007년 | 480면 | B6 견장정 | 절판

3
Books

Michel Houellebecq



Charles Bukowski

찰스 부코스키

〈나는 타고나기를 외톨이로 한 여자와 살고 먹고 자고 거리를 함께 걷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대화도 필요 없고 경마나 권투 경기가 아니라면 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텔레비전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극장에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감정을 공유하는 건 바보같이 돈을 쓰는 짓이라 생각했다. 파티는 구역질이 났다. 게임도 싫었고 지저분한 장난, 시시덕거림, 아마추어 술주정뱅이, 지루한 인간들이 싫었다.〉

한때 미국 주류 문단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단아, 전 세계 독자들의 열광적인 추종을 받는 작가 찰스 부코스키. 1920년 독일 안데르나흐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던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다. 대학을 중퇴하고 스물네 살 때 잡지에 첫 단편소설을, 2년 뒤 두 번째 단편을 발표했지만 꾸준히 창작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하급 노동자로 창고와 공장을 전전했다. 그러다 우연히 우체국에 취직해 우편물을 분류하는 사무직원으로 12년간 일했다. 잦은 지각과 결근으로 마침 해고 직전이었던 그가, 전업으로 글을 쓰면 평생 동안 매달 1백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일화는 유명하다. 이전까지 시를 써왔던 그는 우체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 데뷔작 『우체국』(1971)을 펴냈다.
부코스키의 소설은 그의 분신과도 같은 주인공 헨리 치나스키가 이끌어 간다. 헨리 치나스키는 미국 대중문화에서 안티 히어로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나스키의 일대기는 유년을 담은 『호밀빵 햄 샌드위치』(1982), 글쓰기를 포기하고 방랑하던 때의 『팩토텀』(1975), 『우체국』을 거쳐 전업 작가로 자리매김한 50대의 일상이 담긴 『여자들』(1978)로 이어진다. 『여자들』에서는 기승전결의 부재, 운문처럼 압축한 문체, 태연하게 드러내는 불건전한 사상 등 꾸준히 이어져 온 부코스키만의 스타일이 극대화된다. 치나스키는 이후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일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할리우드』(1989)까지 등장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책이라는 부코스키의 작품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키 루크가 주연을 맡은 영화 「술고래」(1987)를 비롯하여 맷 딜런 주연의 「삶의 가장자리」(2005) 등 그의 작품과 생을 다룬 1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부코스키는 평생 60권이 넘는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다. 마지막 장편소설 『펄프』(1994)를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4년 3월, 백혈병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장례식은 불교 승려가 진행했다. 묘비에는 〈Don't Try〉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호밀빵 햄 샌드위치

4

박현주 옮김 | 2016년 | 42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부코스키의 분신 〈헨리 치나스키〉의 유년과 청소년기를 생생하게 그려 낸 성장 소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에서 부조리한 현실과 성(性)에 눈뜨게 되는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방인처럼 겉돌며 혼자만의 세계를 탐닉하는 소년의 일상!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차례로 겪으며, 동시에 전(前) 세대의 정신을 지배한 공허와 불안정한 심리의 영향 아래 놓인 소년의 성장 과정을 밀도 있게 다룬다. 어린 치나스키의 내면과 당대를 뒤흔든 사건의 음영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한다.

할리우드

박현주 옮김 | 2019년 | 352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여자들

2

박현주 옮김 | 2012년 | 432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우체국

4

박현주 옮김 | 2012년 | 256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4
Books

Charles Bukowski

PAGE 221
찰스 부코스키

열린책들
세계문학

젊은 고전, W 열린책들 세계문학

열린책들의 역사는 곧 세계문학 편집의 역사다. 열린책들은 1986년 설립 이후 품격 높은 해외 문학을 엄선해 꾸준히 출판해 왔고, 그 세월이 쌓아 올린 문학적 자산의 결정체가 바로 열린책들 세계문학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상상력이 숨 쉬는 바다 열린책들 세계문학을 통해 불멸의 고전들은 다시 생명을 얻고, 신예의 걸작들은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1 낡고 먼지 쌓인 고전 읽기의 대안

불멸의 고전들이 젊고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난다. 목록 선정에서부터 경직성을 탈피한 열린책들 세계문학은 본격 문학 거장들의 대표 걸작은 물론, 추리 문학, 환상 문학, SF 등 장르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들 그리고 인류 공동의 문학 유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한국의 고전 문학까지를 망라한다.

2 더 넓은 스펙트럼, 충실하고 참신한 번역

소설 문학에 국한하지 않는 넓은 문학의 스펙트럼은 시, 기행, 기록문학 그리고 지성사의 분수령이 된 주요 인문학 저작까지 아우른다. 원전번역주의에 입각한 충실하고 참신한 번역으로 정전 텍스트를 정립하고, 상세한 작품 해설과 작가 연보를 더하여 작품과 작가에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3 품격과 편의, 작품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낸 디자인

제작도 엄정하게 정도를 걷는다. 열린책들 세계문학은 실로 꿰매어 낱장이 떨어지지 않는 정통 사철 방식,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재질을 선택한 견장정 제책으로 품격과 편의성 모두를 취했다. 작품들의 개성을 중시하여 저마다 고유한 얼굴을 갖도록 일일이 따로 디자인한 표지도 열린책들 세계문학만의 특색이다.

■ 다 읽은 책은 체크해 보세요.

001 002 죄와 벌

126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홍대화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08, 500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작가로서 명실공히 도스토옙스키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든 후기 5대 장편 가운데 첫 작품. 한 가난한 대학생의 범죄를 통해 무엇보다도 죄와 벌의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고 있으며, 이성과 감성, 선과 악, 신과 인간, 사회 환경과 개인적 도덕의 상관성, 혁명적 사상의 실제적 문제 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1999년 BBC 조사 〈지난 천 년간 최고의 작가〉 8위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권〉
- 2007년 노턴 출판사 조사 〈영미권 작가 125명이 뽑은 최고의 문학〉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2008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입생 추천 도서〉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03 최초의 인간

19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옮김 | 2009년 | 39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노벨상 수상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한 정점을 이룬 알베르 카뮈 최후의 육성.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 계획한 대작. 이 작품을 집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하여 작가 사후 30년 만에 발굴된 미발표 장편소설이다.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에 대한, 아마도 결코 완성할 수 없었던 듯한 육성 고백.

-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004 005 소설

28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280, 36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제임스 미치너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글쓰기와 출판에 관계하는 사람들 즉, 작가, 편집자, 비평가, 독자. 네 명의 화자를 통해 소설의 형성과 생산 과정을 그려 낸다. 하나의 주제를 각자의 입장에서 흥미롭고 긴장감 있게 변주해 나가는 독특한 작품.

- 1992년 제3회 교보문고 북 디자인상 장려상
- 1994년 여성 편집자 모임 권장 도서
-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006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27

안똔 체호프 | 오종우 옮김 | 2009년 | 36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현대 단편 문학의 초석을 놓은 작가 안똔 빠블로비치 체호프의 소설집. 그의 작품에는 항상 삶 자체의 진리 혹은 진실들이 관통하고 있다. 또 일상이라는

284
Books

껍질에 가려진 인간의 본질과 참모습을 웃음과 눈물, 연민과 비판 등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인간과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 준다.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8년 10월 〈거실을 서재로〉 선정 도서

007 우주 만화

11

이탈로 칼비노 | 김운찬 옮김 | 2009년 | 416면 | B6 견장정 | 11,800원

절정에 이른 칼비노의 환상적 상상력이 만들어 낸,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 관련이 있는 25편의 단편집.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모든 물질인 주인공 〈크프우프크〉를 통한 생명의 진화, 저 먼 우주 공간과 은하계와 지구와 행성들의 탄생과 성장, 또 다른 모든 존재들을 내려다보는 흥미진진한 체험.

008 댈러웨이 부인

21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 2009년 | 29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난해한 〈의식의 흐름〉 기법과 〈내적 독백〉을 채택했다는 실험적 의의를 넘어서 예술적 성취까지 이루어 낸 영국 모더니즘 소설의 고전. 자유 간접 화법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시간과 공간의 긴 터널들을 쉴 새 없이 넘나드는 작가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문체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살려 냄으로써 울프의 작가적 면모와 〈의식의 흐름〉 기법의 문학적 경지를 엿볼 수 있다.

- 1996년 「뉴욕 타임스」 선정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레이트 북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20세기 100선〉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09 어머니

69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 2009년 | 54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 막심 고리끼 문학의 최고봉. 러시아어 완역. 1907년 발간된 이래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에게 혁명의 교과서로 평가받아 온, 20세기 소비에뜨 문학의 정점이자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일깨우는 영원한 고전.

- 1912년 그리보예도프상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1993년 한겨레신문이 권하는 〈좋은 책 100권〉
- 1999년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포스코 교육 재단 선정 필독 도서
- 2006년 이고르 수히흐 교수 〈러시아 문학 20세기의 책 20권〉
- 2008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10 변신

19

프란츠 카프카 | 홍성광 옮김 | 2009년 | 46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 audioBook**

독일인이 뽑은 〈20세기 최고의 작가〉 카프카가 생전에 출판했던 작품 모음. 단편 산문집 『관찰』(1913) 수록작과, 그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단편들인 「선고」(1913), 「화부」(1913), 「변신」(1915), 「유형지에서」(1919)와 단편집 『시골 의사』(1919)의 수록작들을 묶었다. 의지할 데 없고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초현실적이고 난해한 문체로 예리하게 그려 내고 있다.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권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11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17

로저 젤라즈니 | 김상훈 옮김 | 2009년 | 43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SF에 대한 기존 관념을 재검토하게 한 아메리칸 포스트뉴웨이브의 거장 로저 젤라즈니의 환상적인 이야기들. 신화와 환상, SF를 융합한 지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며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뛰어난 작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젤라즈니의 소설집. 네뷸러상 수상작인 「그 얼굴의 문, 그 입의 등잔」을 비롯하여 거장의 화려한 문학적 재능이 집약된 주옥과도 같은 중·단편 수록.

012 대위의 딸

18

★ 1999년 러시아 정부가 주는 뿌쉬낀 메달 수상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 2009년 | 240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 audioBook**

러시아 문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 뿌쉬낀의 유일한 장편소설. 〈뿌가초프 반란〉이라는 격동기를 무대의 역사적 진실과 리얼리티가 문학적으로 여과된 작품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민중의 소박한 일상과 목가적인 자연, 주인공들의 순박한 사랑이 가볍고 유쾌한 어조로 서술되어 있다. 〈진실된 역사 읽기〉와 〈재미있는 소설 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산문 예술의 정점.

- 1999년 러시아 정부가 주는 뿌쉬낀 메달 수상
- 1999년 〈이달의 좋은 책〉,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 2000년 한국 백상 출판 문화상 번역상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013 바다의 침묵

2

베르코르 | 이상해 옮김 | 2009년 | 256면 | B6 견장정 | 11,800원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 당시, 전 프랑스인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베르코르의 소설선집. 일곱 편의 이야기 속에서 베르코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비극의 본질을 흐리는 거대 담론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순수한 개인들의 이야기에 시선을 던지고, 그들의 삶을 풀어 나감으로써 전쟁과 파시즘의 잔인함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고통을 아파한다. 온몸을 던져 나치즘에 저항한 한 지식인의 생생한 기억이 담긴, 레지스탕스 문학의 정수.

284
Books

014 원수들, 사랑 이야기

3

★ 1978년 노벨 문학상

아이작 싱어 | 김진준 옮김 | 2009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197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아이작 싱어의 대표 장편소설. 대필 작가로 생계를 이어 가는 헤르만 브로데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뜻하지 않게 세 명의 여인과 얽히게 되는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예감하면서도 거짓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남자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사랑의 기쁨.

- 197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015 016 백치

70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김근식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500, 528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 전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오랜 염원. 그 형상의 구현을 백치인 미쉬낀을 통해 전달한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17 1984년

17

★ 2002년 조선일보 선정 〈수능 및 면접 필독 독서〉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 2009년 | 39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20세기 영문학에서 〈정치적 글쓰기〉로 독특한 문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지 오웰의 대표작. 오웰이 나치즘과 파시즘, 스딸린주의에 깊은 회의를 느낀 뒤 쓴 디스토피아 소설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 브라더〉를 통해 전체주의 권력 앞에 무력해지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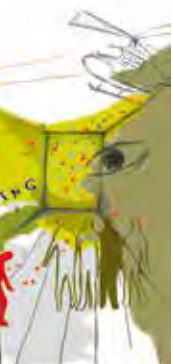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1999년 BBC 조사 〈지난 천 년간 최고의 작가〉 3위
- 2002년 조선일보 선정 〈수능 및 면접 필독 독서〉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2006년 이고르 수히흐 교수 〈러시아 문학 20세기의 책 20권〉
- 2007년 영국 독자들이 뽑은 〈가장 귀중한 책 100〉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2008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19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2

루이스 캐럴 | 머빈 피크 그림 | 최용준 옮김 | 2009년 | 33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1백 년이 넘도록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매료시켜 온 루이스 캐럴의 대표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그 속편으로 여겨지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함께 엮



었다.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학자들이 마약, 프로이트, 섹스, 아동 성애, 정치, 논리학, 수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앨리스 이야기는 이제 아동 문학의 장르를 뛰어넘게 되었다.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권〉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20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13

토마스 만 | 홍성광 옮김 | 2009년 | 432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독일 현대 문학의 거장 토마스 만의 중·단편 여덟 편. 「글라디우스 다이」, 「트리스탄」, 「굶주리는 사람들」, 「신동」, 「힘든 시간」, 「벨중족의 혈통」을 연대순으로 묶어 냄으로써 토마스 만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촘촘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예술가와 시민, 예술과 견실한 삶, 정신과 자연의 갈등과 조화라는 작가의 주제 의식의 발전 과정을 조망하는 작품.

- 192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84
Books

021 그리스인 조르바

175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 2009년 | 488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20세기 문학의 구도자〉, 〈현대의 오디세우스〉로 불리며 노벨 문학상 후보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세계적 작가 카잔차키스, 그가 그려 내는 자유인 조르바의 영혼의 투쟁. 카잔차키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해준, 작가 최고의 역작.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동아일보 선정 〈21세기 신고전 50선〉
- 2007년 5월 〈거실을 서재로〉 선정 도서
-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입생 추천 도서〉
- 2012년 교보문고 외국 소설 베스트 1위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공동 1위

022 벚꽃 동산

20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안똔 체호프 | 오종우 옮김 | 2009년 | 33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19세기와 20세기 현대 문학의 교량 역할을 했던 체호프의 희곡집. 극적인 사건의 부재, 말과 행동의 괴리, 인물들의 소통 부재, 내적 흐름 등 체호프가 추구하는 객관주의의 소산. 작품 속에는 심리주의, 리얼리즘과 사실주의를 표창하는 객관적인 문체 아래 일관된 주제가 흐른다. 웃음과 비애, 일상의 암울한 체념과 희망 등 양립되는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실제 삶과 호응한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07년 노턴 출판사 조사 〈영미권 작가 125명이 뽑은 최고의 문학〉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권

023 연애 소설 읽는 노인

45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 2009년 | 19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중남미 포스트붐 세대의 선두 주자이자 1990년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새로운 부흥을 이끈 기수, 루이스 세풀베다의 환경 소설. 세풀베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1990년대 최대의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 머나먼 곳의 이야기나 달콤한 사랑을 다룬 작은 소설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노인 앞에 백인 노다지꾼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보여 주는 수작.

- 1989년 티그레 후안상
- 1998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 8위

024 025 젊은 사자들

6

★ 1945년 오 헨리 문학상

어윈 쇼 | 정영문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16, 408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전쟁의 진정한 속성인 어리석음과 광기와 우스꽝스러움을 탁월하게 포착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전쟁 소설이자 심리 소설. 작가의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 특유의 다채로운 스타일과 다양한 기법을 자유로이 구사한 실험적 작품으로, 소설 작법의 진수를 보여 주는 걸작이라 평가받는다.

- 1945년 오 헨리 문학상
- 1970년 플레이보이상

026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3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김인순 옮김 | 2009년 | 24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번민하며 속된 세상사에 동화되지 못하는 영원한 방랑자 베르테르가 보내온 편지. 사랑의 열병을 앓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영혼을 울린 감성 문학의 고전이자 문청 시절의 영원한 벗과도 같은 작품. 인간 본연의 충만한 감정과 개성의 존중, 사랑과 감정의 예찬, 대자연에 열광하고 하나가 되려는 질풍노도 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27 시라노

14

에드몽 로스탕 | 이상해 옮김 | 2009년 | 256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17세기 프랑스의 실존 인물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다룬 5막 운문 희곡. 기형적으로 큰 코라는 외적 장애를 지닌 인물 시라노의 낭만적인 영웅담. 명랑하고 감상적인 영웅주의와 감미로운 연애 감정, 화려한 시구들이 돋보이는 명작이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028 전망 좋은 방

19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 2009년 | 352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포스터의 작품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로맨틱한 소설. 풍부하고 생생한 묘사와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포착해 내는 작가의 재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권말에는 후일담 격인 단편이 함께 실려 있어, 해피엔드로 마무리되었던 주인공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려 보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29~031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121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대우 옮김 | 2009년 | 전3권 | 각 496, 496, 460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장편소설. 40여 년에 걸친 창작의 결산으로서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사상적 깊이와 이에 걸맞은 예술적 구조를 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원래 2부작으로 구상되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완성한 지 약 석 달 만에 찾아온 작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군과 크고 작은 사건들, 무수한 에피소드를 담은 방대한 규모의 소설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 주며,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문학 작품의 총체〉를 구현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1954년 서머싯 몸이 추천한 세계 10대 소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공동 1위

032 033 프랑스 중위의 여자

31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44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전후 영국이 낳은 최고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20세기 영국 문단의 거장 존 파울즈가 이룬, 신화와 문학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의 결정체. 문학사를 형성해 온 갖가지 소설론과 기법들이 작가의 장인적 솜씨 안에서 재구성된다.

- 1969년 실버펜상
- 1970년 W. H. 스미스 문학상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034 소립자

25

미셸 우엘벡 | 이세욱 옮김 | 2009년 | 448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카뮈 이래 프랑스의 가장 큰 문학적 사건. 미셸과 브뤼노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성 풍속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서구의 자멸〉을 면밀하게 해부한 작

284
Books

품. 프랑스 내에 격심한 사상적 논쟁마저 불러일으킨 화제작으로 전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 1998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 1998년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올해의 책〉
- 2002년 국제 IMPAC 더블린 문학상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35 036 영혼의 자서전

51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352, 40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카잔차키스가 죽기 직전에 쓴 자전적 소설.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크레타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 대한 묘사, 정신적 충만함을 찾아 이탈리아, 예루살렘, 파리, 빈, 베를린, 러시아를 헤매다 다시 크레타로 돌아오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 준다.

037 우리들

19

예브게니 자먀찐 | 석영중 옮김 | 2009년 | 320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멋진 신세계』, 『1984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20세기 디스토피아 소설의 효시. 자유와 행복의 대립을 이야기한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풍자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심리와 무의식을 예리하게 관찰한 작품.

- 2006년 이고르 수히흐 교수 〈러시아 문학 20세기의 책 2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38 뉴욕 3부작

60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 2009년 | 48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미국 현대 문학계의 최대 역작 가운데 하나. 장르의 형식을 빌리되 그 관습을 완전히 뒤엎어 버림으로써 소설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낸, 가장 미국적인 포스트모던 소설의 완성.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39 040 닥터 지바고

41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 홍대화 옮김 | 2022 | 각 480, 592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대표작이자 유일한 장편소설. 1945년부터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집필하며 그의 모든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20세기 초 혁명과 내전으로 얼룩진 격동의 러시아 역사를 배경으로, 의사이자 시인인 유리 지바고의 삶을 통해 당대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운명과 고뇌를 묘사했다.

- 195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뉴욕 타임스』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영국 UKTV 드라마 선정 최고의 러브 스토리 10
-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 『동아일보』 선정 대학 신입생들에게 권할 책 10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041 고리오 영감

11

★ 1954년 서머싯 몸이 추천한 세계 10대 소설 □

오노레 드 발자크 | 임희근 옮김 | 2009년 | 45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대표작. 권력에의 의지, 사회, 돈, 출세 지상주의, 외곬의 열정 등과 같은 당시 사회를 특징짓는 주제들이 응축되어 있다. 파리 상류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는 주인공 라스티냐크의 〈성장 소설〉이자 고리오라는 인물의 몰락을 중심으로, 파리의 영화와 악덕, 황금만능의 사회상을 통렬히 파헤친 〈사회 소설〉이기도 하다.

- 1954년 서머싯 몸이 추천한 세계 10대 소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42 043 뿌리

13

★ 1977년 퓰리처상 □

알렉스 헤일리 | 안정효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00, 448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아프로아메리칸의 역사를 기록한 흑인 문학 최고의 고전. 10여 년간의 철저한 자료 조사로 재구성된 르포르타주 문학의 걸작.

- 1977년 퓰리처상
- 1977년 전미 도서상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헨리 포드사 선정 〈75년간 미국을 뒤바꾼 75가지〉
- 2016년 미국 의회 도서관 America Reads 전시회 선정

284
Books

044 백년보다 긴 하루

20

□

친기즈 아이뜨마또프 | 황보석 옮김 | 2009년 | 56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중앙아시아 끼르기즈의 국민 작가 친기즈 아이뜨마또프의 대표작. 꿈꾸는 듯한 현실과 현실 같은 상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 최후의 걸작이자 소비에뜨 문화권 최고의 스테디셀러.

- 1983년 소비에뜨 문학상
- 1994년 오스트리아 유럽 문학상

045 최후의 세계

4

□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 | 장희권 옮김 | 2009년 | 26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신화와 현대를 뒤섞은 20세기 최고의 지적 신화 소설. 란스마이어의 빛나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적 인물 및 모티프들을 현대적 관심사들과 결합해 나간, 독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보기 드문 작품.

- 1988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선정 〈올해의 책〉
- 1988년 안톤 빌트간스상
- 1992년 독일 바이에른 주 학술원 대문학상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46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26

★ 1963년 미국, 영국 추리작가 협회상

존 르카레 | 김석희 옮김 | 2009년 | 36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I audioBook

20세기 냉전이 낳은 최고의 스릴러. 오늘날 스파이 스릴러를 쓰면서도 본격 작가로 대우받는 유일한 작가, 존 르카레의 최고 걸작. 스릴러의 대가 그레이엄 그린으로부터 〈내가 지금껏 읽어 온 스파이 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

- 1963년 서머싯 몸상
- 1963년 영국 추리작가 협회상
- 1963년 미국 추리작가 협회상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047 산도칸 몸프라쳄의 호랑이

2

에밀리오 살가리 | 유향란 옮김 | 2009년 | 428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이탈리아의 쥘 베른〉이라고 불리며 SF 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에밀리오 살가리의 대표작. 말레이시아 해를 배경으로 해적 산도칸과 그의 친구 야네스의 활약상을 그린 모험 소설의 걸작.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48 기적의 시대

10

★ 1965년 유고슬라비아 문학상

보리슬라프 페키치 | 이윤기 옮김 | 2009년 | 41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유고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인 보리슬라프 페키치의 현대 성서 풍자극. 예수의 신성과 정통성을 확증하는 공관 복음서의 기록자들과는 시각을 달리하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가 행한 기적의 이면을 조명한 작품. 현대 성서 패러디 소설, 혹은 풍자 문학의 전형.

- 1965년 유고슬라비아 문학상

049 그리고 죽음

8

★ 1999년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

짐 크레이스 | 김석희 옮김 | 2009년 | 224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1999년 발간 당시 유례없는 찬사를 받으며 영미 평단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놀라운 소설. 죽음과 그 이후의 세심한 묘사를 통해 성장과 소멸,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이 자연과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 1999년 전미 비평가 협회상
- 1999년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
- 1999년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올해의 책〉

050 051 세설

21

다니자키 준이치로 | 송태욱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80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일본 근대 문학의 대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대표 풍속 소설. 오사카의 몰락한 상류 계층의 네 자매의 이야기 가운데 특히 셋째인 유키코의 혼담을 중심으로 당시의 풍속을 잔잔하게 그린 작품.

052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

8

스뜨루가츠끼 형제 | 석영중 옮김 | 2009년 | 22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20세기 러시아 환상 문학의 거장 스뜨루가츠끼 형제의 대표작. 도스토옙스키, 자먀찐 등 반유토피아 문학의 전통을 계승, 정치 풍자로 판금 조치를 당하기도 한 문제작. 학문에 대한 정치의 지배, 학계 자체 내의 부패, 성도덕의 추락, 알코올 의존증, 출세 지상주의 등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현대의 레닌그라드를 배경으로 신랄하고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053 동물 농장

28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 2009년 | 208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I audioBook

20세기 영문학사에서 〈정치적 글쓰기〉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지 오웰의 대표작. 러시아 혁명 이후 스딸린 통치의 역사를 동물 우화로 빗댄 정치적 알레고리 소설의 고전.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1999년 BBC 조사 〈지난 천 년간 최고의 작가〉 3위
- 2002년 조선일보 선정 〈수능 및 면접 필독서〉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2008년 영국 플레이닷컴 선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0〉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54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16

볼테르 | 이봉지 옮김 | 2009년 | 23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상징적 인물 볼테르의 대표작. 낙천적 세계관을 조소하고 사회적 부정과 불합리를 고발하는 철학적 콩트. 유럽에서는 대단한 문제작이자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세상을 낙천주의로 볼 것인가, 비관주의로 볼 것인가〉를 화두로, 끝까지 이 두 이데올로기의 반복이 기저에 깔린 채 진행되는 내용에 명쾌하고 신랄하며 템포 빠른 볼테르의 문체와 해학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55 도적 떼

3

프리드리히 폰 실러 | 2009년 | 김인순 옮김 | 25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독일의 대문호이자 독일의 가장 중요한 극작가로 평가받는 프리드리히 폰 실러의 데뷔작으로 18세기 후반 독일 문단을 휩쓴 〈질풍노도〉 운동의 대표

284
Books

작. 〈형제의 반목〉이라는 모티프를 이용하여 자유와 반항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 비극.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던 이 작품에는, 작가 실러가 평생 추구했던 〈자유〉의 이념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출되어 있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056 플로베르의 앵무새

13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9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신화와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거장 줄리언 반스의 대표작. 거장에 대한 창의적인 평전이자 예술과 비평의 관계,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용 미학과 그 자장 안에서 벌어지는 긴장에 대한 정신 분석적 탐구.

- 1985년 제프리 페이버 기념상
- 1986년 메디치상
- 1986년 E. M. 포스터상
- 1987년 구텐베르크상
- 2005년 동아일보 선정 〈21세기 신고전 5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57~059 악령

72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박혜경 옮김 | 2020년 | 전3권 | 각328, 408, 52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도스또예스끼의 5대 장편소설 중 하나로, 성서에 등장하는 돼지 떼에 들린 〈악령〉들처럼 러시아를 휩쓴 서구의 무신론과 허무주의가 초래한 비극을 러시아의 어느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보여 주고 있는 소설. 수수께끼에 싸인 젊은 귀족 니꼴라이 스따브로긴과 그를 둘러싼 비밀 혁명 조직의 일당들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서구와 러시아, 자유주의와 허무주의, 무신론과 인신(人神) 사상, 슬라브주의와 러시아 정교, 세대 간의 갈등, 구원과 속죄의 문제 등 당대 러시아의 주요 화두들과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에 걸쳐 천착했던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60 의심스러운 싸움

5

존 스타인벡 | 윤희기 옮김 | 2009년 | 34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의 거대한 산맥, 존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를 예고하는 미국 리얼리즘 문학의 걸작. 스타인벡의 첫 정치 소설이자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였던 문제작. 1930년대 대공황기 캘리포니아 농장 지대의 파업을 극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리고 있다.

- 1937년 캘리포니아 커먼웰스 클럽 금상
- 1962년 노벨 문학상

061 062 몽유병자들

6

헤르만 브로흐 | 김경연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568, 544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현대 문명의 병폐와 가치의 붕괴를 상징적, 비판적으로 해석한 20세기 최고의 3부작 소설이자 박물 소설. 〈박학한 시인〉이라 불리는 헤르만 브로흐가 〈무관심한 인정의 상아탑〉에서 내려와 세계를 좀 더 구상적인 사건으로 형상화한 첫 발표작이자 방대한 규모의 대작이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첫 번째 소설의 가능한 한 부담 없는 형식에서, 두 번째 소설의 일견 무계획적이고 우연적인 진행을 거쳐, 세 번째 소설에 이르러서 파격적인 형식 해체를 겪는다. 브로흐는 세계의 총체성, 각 인물들의 삶의 총체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모든 문학적 표현 수단의 총체 형식으로서의 소설을 시도했다.

063 몰타의 매

6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대실 해밋 | 고정아 옮김 | 2009년 | 30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의 창시자이자 최고봉이며, 당대에 이미 탐정 소설을 문학의 반열에 올린 대실 해밋의 최고 걸작. 사실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인물들, 생동감이 물씬 풍기는 대화, 탄탄하게 구성된 플롯, 정밀한 묘사 등 탐정 소설로서뿐만 아니라 고전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깊이 끌어안은 이 작품은 한 시대의 초상으로도 읽힐 만한 입체감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소설 100선〉
- 뉴욕 추리 전문 서점 블랙 오키드 선정 〈최고의 추리 소설 10〉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84
Books

064 마야꼬프스끼 선집

3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석영중 옮김 | 2009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20세기 러시아의 위대한 혁명 시인 마야꼬프스끼. 시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인 그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소시민성과 관료성을 비판하고 11월 혁명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예술 좌익 전선〉을 결성하였다. 뿌쉬낀, 네끄라소프, 예세닌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그의 대표적인 시와 산문 모음집.

065 066 드라큘라

37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40, 344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공포와 성(性)을 결합시킨 환상 문학의 고전.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 위해 은밀히 영국에 잠입한 드라큘라 백작과,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퇴치하려고 하는 반 헬싱 교수의 싸움. 통상적인 소설과는 달리 모두 일기나 편지, 전보, 신문 기사 등에 의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담한 기술로 서서히 공포를 북돋아 가는 고딕 호러의 전형이다.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67 서부 전선 이상 없다

27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 홍성광 옮김 | 2009년 | 33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독일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그려 낸 제1차 세계 대전. 근대전의 참혹함과 무의미함을 충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작품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뒤 나온 숱한 전쟁 소설들 모두 『서부 전선 이상 없다』가 제시한 길을 따랐다. 어떤 영웅주의나 애국주의도 배제한 채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을 통해 전쟁의 본질을 담담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한 전쟁 소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68 069 적과 흑

14

스탕달 | 임미경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76, 368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스탕달의 대표작. 귀족과 성직자와 부자만이 권세를 누리던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의 청년이 겪는 갈등을 통해 이지(理智)와 정열의 양면을 분석한 작품이다. 〈출세〉를 향한 젊은이의 성공과 좌절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 당시 사회 구조의 부조리. 왕정복고 시대의 프랑스 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함으로써, 스탕달은 프랑스 근대 소설 최초의 걸작을 이룩하였다.

- 1954년 서머싯 몸이 추천한 세계 10대 소설
- 1959년 클리프트 파디만 일생의 독서 계획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8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한국과학기술원 선정 신입생 교양 필독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70~072 지상에서 영원으로

9

제임스 존스 | 이종인 옮김 | 2009년 | 전3권 | 각 396, 380, 388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제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와이 주둔 미국 군대의 잔인하고 추악한 실상을 자연주의적인 기법으로 폭로해 낸 작품.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속된 언어 사용과 생생하게 묘사된 잔인한 사건 때문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군대 생활의 가혹한 현실은 물론, 두 쌍의 연인이 펼쳐 나가는 연애의 묘사를 통해 나른하고도 공허한 인간관계를 포착하였다.

- 1952년 전미 도서상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073 파우스트

27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김인순 옮김 | 2009년 | 56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18세기 독일의 〈문화적 정신성의 총체〉라 불리는 대문호 괴테가 60년에 걸쳐 완성한 대표작. 진리를 추구하는 비극적 인간 〈파우스트〉는 지극히 독일적인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정신 전체가 지향하는 불후의 표현이기도 하다. 진리를 찾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고전 중의 고전.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한국과학기술원 선정 신입생 교양 필독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74 쾌걸 조로

2

존스턴 매컬리 | 김훈 옮김 | 2009년 | 31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수많은 장르에서 영웅 캐릭터를 양산해 낸 조로 시리즈의 최초 작품. 토지 개혁을 둘러싼 농장 소유주와 사회 지도층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스페인 지배하의 캘리포니아.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사법 질서에 저항하는 영웅이 등장한다. 마스크 뒤에 정체를 감추고 폭압에 맞서 싸우는 쾌걸 조로의 가슴 시원한 활약.

075 076 거장과 마르가리따

6

미하일 불가꼬프 | 홍대화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64, 328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20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 미하일 불가꼬프의 마지막 작품이자 고골의 『죽은 혼』을 잇는 러시아 환상 문학의 걸작. 불가꼬프가 1928년에 구상에 들어가 1940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작품으로, 스딸린 치하의 소비에뜨 사회를 풍자하는 서늘한 공포와 유쾌한 웃음의 묘미를 보여 준다.

- 2006년 이고르 수히흐 교수 〈러시아 문학 20세기의 책 2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84
Books

077 순수의 시대

7

이디스 워튼 | 고정아 옮김 | 2009년 | 44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이디스 워튼의 대표작.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1870년대 뉴욕 상류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찾으려는 세 남녀의 이야기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려 낸 연애 소설의 고전.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78 검의 대가

8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김수진 옮김 | 2009년 | 37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스페인의 움베르토 에코, 현대 스페인 대중 문학계의 선두 작가로 군림하는 아르투로 레베르테의 세련된 추리 소설. 모험 소설이며 탐정 소설인 동시에 1868년의 마드리드를 무대로 한 정치 소설. 서스펜스와 놀라운 계략이 담긴 작가의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다. 스페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 출간된 레베르테의 대표작.

- 1993년 『리르』지 선정 〈10대 외국 소설가〉
- 1997년 코레오 그룹상
- 2000년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포켓북〉

079 예브게니 오네긴

12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 2009년 | 32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패러디의 소설이자 소설의 패러디〉라 평가받는 장편 운문 소설. 날카로운 지성을 지녔으면서도 다소 천박한 도시 출신의 오네긴과, 소박하면서 마음속에 강한 정열을 간직한 시골 출신의 타티아나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실적인 작품. 러시아 문학의 급속한 발전을 견인한 뿌쉬낀의 명저이자, 이후 수없이 변주되는 문학 속 인물들의 원형을 간직한 러시아의 대표적 고전.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80 081 장미의 이름

314

★ 1999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선정 〈20세기의 기억할 명저〉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40, 44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 audioBook**

20세기 최고의 석학, 움베르토 에코가 쓴 놀라운 지적 추리 소설. 전 세계 2천만 독자가 읽은 금세기 최고의 화제작.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에, 에코 자신의 해박한 인류학적 지식과 현대의 기호학 이론이 무르녹아 있는 지적 보고. 가히 1만 권의 책이 집약된 결정체로서 고전 문학의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다.

- 1981년 스트레가상

- 1982년 메디치상
- 1982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 1994년 서울대학교 고전 읽기 교양 강좌 선정 도서
- 1999년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 1999년 출판저널 선정 〈20세기의 명저〉
- 1999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선정 〈20세기의 기억할 명저〉
- 2001~2008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1위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전 세계 베스트셀러 5천만 부 판매

082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73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 2009년 | 38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전 세계 천만 독자들이 선택한 금세기 독일어권 문학 최고 성공작이자 〈지난 2백 년간의 독일 문학사를 관통하는〉 현대 독일 문학의 정수. 냄새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난,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체취도 없는 한 사내의 일대기로, 〈냄새〉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통해 공포스럽고도 흥미로운 전개를 만들어 가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탁월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7년 3~4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07년 영화 「향수」 한국 영화 관객 110만 돌파
- 2007년 KBS 「TV 책을 말하다」 추천 도서
- 2008년 서울대학교 대출 도서 순위 20
- 2014년 전 세계 2천만 부 판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84
Books

083 여자를 안다는 것

5

아모스 오즈 | 최창모 옮김 | 2009년 | 280면 | B6 견장정 | 12,800원

〈이스라엘을 알려면 아모스 오즈를 읽어라!〉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레지옹 도뇌르 훈장, 프랑크푸르트 평화상 등을 받은 평화 운동가이자 현대 히브리 문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아모스 오즈의 대표작. 조그만 균열에서 시작되는 사람 사이의 어긋남,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감정들의 시작과 끝을 찾는다.

084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24

나쓰메 소세키 | 김난주 옮김 | 2009년 | 54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일본 문학의 아버지 나쓰메 소세키의 데뷔작이자 일본 근대 소설의 걸작. 나쓰메 소세키는 스스로 자신을 희화화하고, 고양이의 눈을 통해 인간 사회와 스스로를 마음껏 조롱한다. 만담체의 문체에 일상생활을 도입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등, 형식을 파괴하는 글쓰기가 돋보이는 작품.

085 086 웃는 남자

32

빅토르 위고 | 이형식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72, 496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빅토르 위고의 작가적 역량이 정점에 달했던 영국 망명기에 쓴 장편소설. 늑대를 벗 삼아 방랑하는 철학자와 이전투구가 난무하는 귀족 사회, 아름답고 순결한 맹인 소녀와 당대 최고의 권세를 지닌 여공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위고 스스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소설로 『웃는 남자』를 꼽은 바 있다. 백과사전을 방불케 하는 17세기 영국 사회에 대한 치밀한 묘사와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어울려 감동을 자아낸다.

● 2007년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087 아웃 오브 아프리카

16

카렌 블릭센 | 민승남 옮김 | 2009년 | 48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I audioBook

여성 작가 카렌 블릭센이 17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모험과 우정과 깨달음을 서정적 필치로 그려 낸 작품. 아프리카가 유럽인에게는 착취와 교화의 대상이던 시절, 블릭센은 원주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며, 주장하기보다는 반성하려,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 했다. 단순한 이국적 추억담을 넘어 아프리카에 바치는 작가 카렌 블릭센의 우정과 깨달음의 기록.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이며 국내 초역이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88 089 무엇을 할 것인가

11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서정록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60, 404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러시아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인 체르니셰프스끼가 1862년 수용소에 투옥된 후 집필한 사회주의 이상 소설. 당시 젊은 지식인들에게 〈혁명의 교과서〉로 추앙받으며 인뗄리겐찌야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작품으로 사랑과 혁명, 진보와 인간성에 대한 작가의 굳은 신념이 담겨 있다.

090 091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

6

조르지 아마두 | 오숙은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28, 308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브라질 국민 문학의 대표 조르지 아마두의 대표 장편소설. 브라질 바이아 주의 아프로브라질 문화와 전통이 향토색 짙게 그려져 브라질인 특유의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품으로, 유머러스한 문체와 개성 있는 등장인물의 묘사가 돋보인다. 삶과 죽음의 경계,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죽음에 관한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분방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작가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작품.

092 미사고의 숲

9

로버트 홀드스톡 | 김상훈 옮김 | 2009년 | 416면 | B6 견장정 | 12,800원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전승 소설가이자 아름답고 〈리얼리스틱한〉 환상 문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홀드스톡의 〈미사고 사이클〉 중 한 편.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라이

호프 숲을 무대로 인간과 신화적 존재들을 에워싼 사랑, 증오, 모험을 그리고 있다. 신화의 원형과 〈숲〉으로 상징되는 집단 무의식의 본질을 유려한 문체로 형상화한 걸작으로, 환상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았다.

- 1984년 영국 SF 협회상
- 1985년 세계 환상 문학상 대상
- 2003년 프랑스 환상 문학상 특별상

093~095 신곡 지옥 · 연옥 · 천국

80

단테 알리기에리 | 김운찬 옮김 | 2009년 | 전3권 | 각 292, 296, 32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셰익스피어, 괴테와 함께 유럽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단테의 대표작이자, 7백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걸작. 중세를 마무리 짓는 르네상스와 함께 근대의 도래를 예고한 작품이자, 동시에 모든 인간의 생생한 현실과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비춰 주는 거울. 총 14,233행으로 기록된, 단테의 일주일 동안의 저승 여행 이야기.

- 1954년 서머싯 몸이 추천한 세계 10대 소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권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2009년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권장 도서 13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096 교수

3

샬럿 브론테 | 배미영 옮김 | 2009년 | 368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로맨스 소설의 고전 『제인 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의 첫 장편소설로 국내 초역이다. 악인과 선인이라는 양분된 인물이 아닌, 인물의 내면과 모순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 내고 있다. 19세기 영국 산업 사회의 가톨릭교회, 귀족주의, 프티 부르주아 등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감 표출, 남성의 모호한 성 정체성에 대한 표현 등의 이유로 작가 생전에는 출판이 거부되었던 작품이다.

097 노름꾼

17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재필 옮김 | 2010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1866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 작품은 1860년대 전반, 자신이 주도한 잡지 『시대』와 『연대기』의 실패, 형과 아내의 죽음, 그리고 유럽 도박판에서 진 빚

284
Books

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도스토옙스키가 향후 9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저작권을 내주어야 한다는 출판사의 위협 아래 27일 만에 급하게 쓴 소설이다. 작가를 흔들고 괴롭혔던 다양한 사건들이 작품 속에 박진감 있게 그려져 있다.

098 하워즈 엔드 6 □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 2010년 | 50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E. M. 포스터가 자신이 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은 소설. 저택 〈하워즈 엔드〉를 배경으로 계급과 민족성, 경제 상황 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린 작품. 포스터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낭만적인 열정과 인습의 대립〉의 주제가 더욱 원숙하게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 생생하고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 탁월한 심리 묘사, 일상의 세목들을 바라보는 통찰 등 포스터의 작가로서의 매력이 절정에 이른 소설.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099 100 최후의 유혹 28 □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40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던 인간 〈예수〉를 그린 소설. 자유와 구원, 두려움과 희망의 삶을 산 인간 예수의 삶과 죽음을 담은 33장의 기록. 바티칸이 금서로 지정하고 마틴 스코세이지가 영화로 만들어 또 한 번의 논쟁이 된 작품. 자신이 겪었던 갈등과 시대의 혼돈 앞에 민감한 사람들이 겪는 갈등을 인간 예수의 갈등으로 상징해 그려 나간 니코스 카잔차키스 또 하나의 역작.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01 키리냐가 4 □

마이크 레스닉 | 최용준 옮김 | 2010년 | 46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SF 작가 마이크 레스닉의 상상력으로 창조해 낸 유토피아에 관한 이야기. 휴고상을 비롯해 과학 소설 역사상 가장 많은 60여 개의 상을 받은 작품. 22세기 황폐한 지구 환경과 고갈된 인간미에 지친 아프리카 케냐 〈키쿠유〉 부족의 정신적 지도자 코리바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구 밖 소행성 〈키리냐가〉로 명명된 이상향을 건설한다. 그곳에서 원시와 자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키쿠유〉 부족에게 벌어지는 예기치 못한 갈등과 사건들을 다룬 소설이다.

- 1989년 휴고상

102 바스커빌가의 개 5 □

아서 코넌 도일 | 조영학 옮김 | 2010년 | 26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추리 소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탐정 〈셜록 홈스〉를 창조해 낸 코넌 도일의 걸작. 음울하고 황량한 황무지, 이끼로 덮인 바위산, 탈옥수와 의문의 사내 그리고 소름 끼치는 〈악마 개〉의 진실까지, 그 모든 것을 밝혀내는 명탐정 셜록 홈스의 기막힌 추리가 펼쳐진다.

- 『히치콕 매거진』 선정 〈세계 10대 추리 소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03 버마 시절

7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 2010년 | 40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인도 제국주의 경찰〉로서 오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영국 식민주의 정책을 비판한 소설. 제국주의의 허구와 억압을 목격하고 이를 증오하지만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채 절망적인 삶을 살아 나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비극적 리얼리즘.

104 10½장으로 쓴 세계 역사

13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10년 | 464면 | B6 견장정 | 16,800원 eBook

세계 역사에 대한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전복을 시도한 소설. 하나의 내러티브로 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암시적인 연관만을 갖는 열한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역사와 소설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모두 저버리는 독특한 작품이다.

284
Books

105 죽음의 집의 기록

11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덕형 옮김 | 2010년 | 52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실제 경험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반영된 작품.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한 일련의 예술적 장치를 부여하여 흥미롭게 기록한 다큐멘터리적 소설. 수용소 생활을 기록한 러시아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06 107 소유

6

앤토니어 수전 바이어트 | 윤희기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440, 480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조지 엘리엇 이후 가장 지적인 여성 작가로 꼽히는 바이어트 최고의 작품. 〈한 편의 로망스〉라는 부제에서 읽히듯, 바이어트의 복화술적인 상상력으로 창조된 편지, 일기, 시 등의 텍스트들이 복원되고 재구성되는 가운데 두 편의 사랑 이야기가 겹쳐진다. 추리 소설의 형식을 차용해 넘치는 기지와 거의 마술에 가까운 기교를 선보인 바이어트는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무한히 자극하는 세련된 역사 소설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90년 부커상
- 1990년 영국 최고 영예 지도자상인 커맨더(CBE) 훈장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2017년 제7회 박경리 문학상

108 109 미성년

24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상룡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512, 544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청년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성장 소설. 아버지 세대의 부재로 인해 온갖 불의와 도덕적 타락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식들에 대한 작가적 문제의식에서 쓰인 작품.

110 성 앙투안느의 유혹

3

귀스타브 플로베르 | 김용은 옮김 | 2010년 | 58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낭만주의적 구도자〉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스스로 밝힌 〈평생의 작품〉. 플랑드르 회화와 인형극 전통의 영향 속에서 한 은자의 방대한 지식과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독창적인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111 밤으로의 긴 여로

4

유진 오닐 | 강유나 옮김 | 2010년 | 24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미국 극 역사에서 〈가장 앞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작가〉로 꼽히는 유진 오닐의 대표작. 퓰리처상을 네 차례나 수상한 만큼 오닐의 삶 자체가 미국 현대극의 성립 과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밤으로의 긴 여로』는 미국에 〈가족극〉이라는 하위 장르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여름 어느 날 아침부터 깊은 밤으로 이어지는 긴 여로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 혹은 멈출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 치솟는 애증과 한없는 연민의 다른 이름, 〈가족〉을 통해 고백하는 오닐 자신의 어두운 과거.

- 1936년 노벨 문학상
- 1957년 퓰리처상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12 113 마법사

5

존 파울즈 | 정영문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512, 544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비범한 상상력과 혁신적인 기법으로 히피 세대의 필독서가 된 존 파울즈의 대표작. 일상적 삶의 장소인 런던을 떠나 그리스의 외딴 섬으로 간 청년이 신비한 노인 콘키스를 만나 겪는 기묘한 사건들을 통해 소외와 자기기만이라는 현대인의 존재론적 상처를 드러낸다.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14 스제빤치꼬보 마을 사람들

6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변현태 옮김 | 2010년 | 41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작가의 시베리아 유형 직후에 발표된 소설. 도스토옙스키가 애정을 쏟은 작품으로 작가의 창작 의도인 〈두 거대한 전형적 성격〉의 형상화를 보여 주며, 「아저씨의 꿈」에서도 나타난 유쾌한 희극적 기법이 돋보인다.

115 플랑드르 거장의 그림

13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정창 옮김 | 2010년 | 512면 | B6 견장정 | 12,800원

고미술 복원가인 주인공 훌리아와 15세기 플랑드르 그림 속의 등장인물, 그리고 체스 게임에 얽힌 비밀이 현실의 사건과 교묘하게 얽힌다. 5백 년을 넘나드는 음모와 배반 그리고 죽음……. 중세와 현대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내는 작가의 솜씨가, 체스 게임의 말의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과 철저하게 계산된 단어들을 통해 빛을 발한다.

- 1993년 프랑스 추리 소설 대상
- 1993년 『리르』지 선정 〈10대 외국인 소설가〉

284
Books

116 분신

8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석영중 옮김 | 2010년 | 288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하급 관리 골랴드낀 앞에 어느 날 그와 똑같이 생긴, 그러나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제2의 골랴드낀이 등장하며 펼쳐지는 이야기. 〈의식의 분열〉이라는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예고한 작품.

117 가난한 사람들

22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석영중 옮김 | 2010년 | 25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보잘것없는 중년의 하급 관리인 마까르 제부쉬낀과, 가난으로 인해 부유하고 욕심 많은 지주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는 가엾은 처녀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가 주고받은 편지들. 새로운 형식의 탐구와 진정한 완성에 대한 갈망으로 점철된 도스토옙스키의 예술적 엄격함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수차례에 걸친 개작과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118 인형의 집

8

헨리크 입센 | 김창화 옮김 | 2010년 | 272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사실주의 희곡의 창시자이자 근대극의 일인자로 추앙받는 입센의 대표작 수록. 노라(「인형의 집」)와 알빙 부인(「유령」)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여인상을 창조해 내면서 전 유럽의 이목을 모았다. 발표 후 10년간 공공 기관에서의 공연이 금지되었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근대 사상과 현대 사실주의 희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품.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뉴스위크』 선정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119 영원한 남편

12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정명자, 박현섭 옮김 | 2010년 | 44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심화된 예술 세계를 보여 주는 단편 모음집. 작가의 특징이랄 수 있는 인물의 성격 묘사, 날카로운 심리 묘사, 일종의 해학적 표현,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다.

120 알코올

5

기욤 아폴리네르 | 황현산 옮김 | 2010년 | 35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파격적인 시풍과 유려한 내재율을 자랑하는 아폴리네르의 첫 시집으로, 프랑수아 비용의 『유언시』,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더불어 시대의 큰 획을 그은 작품. 아폴리네르는 『알코올』에서 개별 시들의 배치를 액자화하거나 구두점을 쓰지 않음으로써 시의 개념을 바꾸었다.

121 지하로부터의 수기

21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계동준 옮김 | 2010년 | 25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가운데서도 가장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 이후의 대작들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 즉 인간 깊은 곳에 내재한 선악의 충돌, 환경 결정론과 인간적 윤리 간의 갈등, 인간의 번민과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대작가로의 성장을 예고한다.

122 어느 작가의 오후

7

페터 한트케 | 홍성광 옮김 | 2010년 | 160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I audio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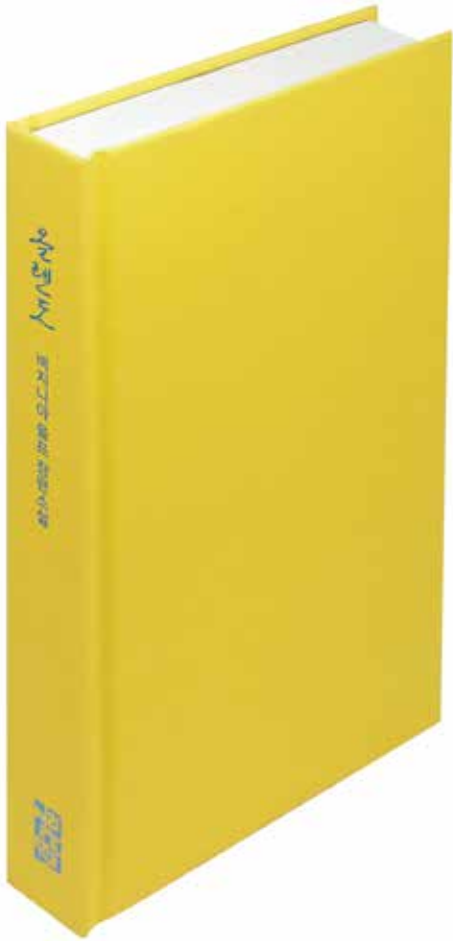
뷔히너상, 실러상, 카프카상에 빛나는 세계적 작가 페터 한트케가 소설의 형식으로 써 내려간 독특한 〈작가론〉. 12월의 오후, 그날의 작업을 마친 〈작가〉가 산책길에 만난 사물들, 풍경들, 사람들을 관찰한다. 감정이 이입된 묘사, 시적 사유의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한트케식 글쓰기의 표본을 보여 주는 수작.

123 아저씨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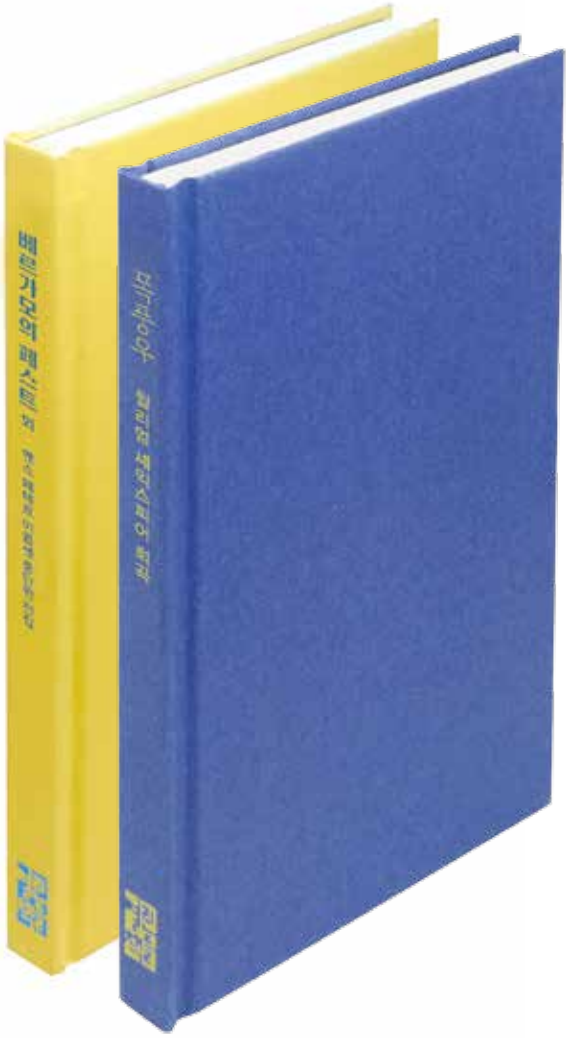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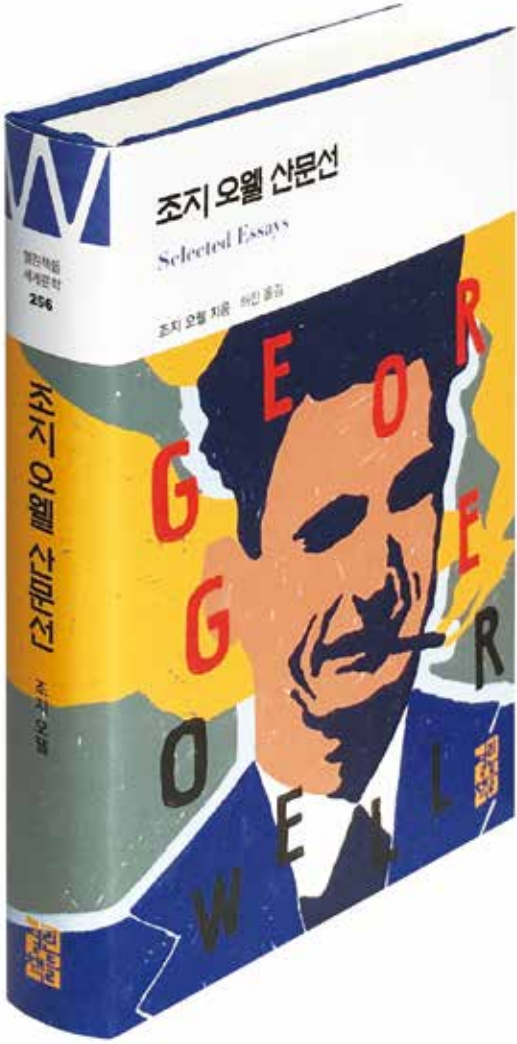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박종소 옮김 | 2010년 | 30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 창작 활동의 중기를 여는 작품이자 후기의 사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작품. 감상주의적 특징과 사실주의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과장의 기법과 희화적 색채를 드러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의 풍자 드라마 혹은 사회 비판적 소설로 평가받는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장편소설
열린책들

서사 이론 강의록
서사 이론 지음
문예출판


베른가드의 페스트
민간인
민간인


조지 오웰 산문선
Selected Essays
조지 오웰 지음 이진 옮김
256
조지 오웰 산문선
GEORGE ORWELL

124 네또츠까 네즈바노바

3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박재만 옮김 | 2010년 | 31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네또츠까 네즈바노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을 일대기를 다룬 도스토옙스키 최초의 장편이자 미완성작. 도스토옙스키가 〈뻬뜨라셰프스끼〉 서클 가담의 죄목으로 체포됨으로써 총 6부로 계획되었던 『네또츠까 네즈바노바』는, 「조국 수기」 5월호에 작가의 이름이 빠진 채 3부까지만 실리는 것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유형 후에도 도스토옙스키는 부분적인 수정을 가했을 뿐 소설을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125 곤두박질

4

마이클 프레인 | 최용준 옮김 | 2010년 | 52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영국 작가 마이클 프레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장편소설. 미술사가를 꿈꾸는 마틴 클레이가 안식년을 보내러 시골로 갔다가 16세기 네덜란드 풍경화 한 점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야기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거침없이 진행된다. 순간순간 치밀하게 돌아가는 심리 묘사와 화상과의 그림값 흥정 등이 보여 주는 긴박감 넘치는 사건의 전개는, 한밤의 시골길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추격전에서 최고조에 달하는데……. 해박한 미술사적 지식을 토대로 한 예술 소설인 동시에, 역사적 배경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 · 심리 코미디.

- 1999년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올해의 책〉 선정
- 1999년 휫브레드상
- 1999년 제임스 타이드 블랙 기념상

126 백야 외

21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석영중 외 옮김 | 2010년 | 408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난 단편 모음. 작가가 뻬뜨로빠블로프스끄 감옥에 수감된 기간 동안 느꼈던 삶의 환희와 열정이 엿보이는 작품.

127 살라미나의 병사들

2

하비에르 세르카스 | 김창민 옮김 | 2010년 | 29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1939년 프랑스 국경 지방의 숲 속에서 자행된 집단 총살로부터 살아남은 작가 산체스 마사스. 팔랑헤당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던 그를 추적하는, 탐정 소설 형식을 띤 이야기.

- 2001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
- 2001년 스페인 살람보상, 『레 케레르』지 독자상, 바르셀로나 시의 상
- 2003년 이탈리아 최고 외국 소설상
- 2007년 영국 「인디펜던트」 외국 소설상
- 2007년 콜롬비아 『세마나』지 선정 〈25년간 스페인어권에서 출간된 100대 소설〉 13위
- 2009년 스페인 「라 반과르디아」지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50권〉 5위
- 2013년 스페인 「ABC」지 선정 〈21세기 최고의 스페인 소설 10권〉 4위
- 2016년 『엘 파이스』 선정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스페인어 문학 7위

284
Books

128 뻬쩨르부르그 연대기 외

3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항재 옮김 | 2010년 | 29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새로운 테마와 서술 방법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고뇌의 흔적이 드러나는 작품. 당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자적 시각을 가지고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로 서술한다.

129 130 상처받은 사람들

16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윤우섭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296, 392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19세기 중엽 뻬쩨르부르그 상류 사회의 이중적 삶과 하층민의 고통, 그로 인한 비극적 갈등과 모순을 그린 작품. 러시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전쟁 패배, 농노제 폐지, 소설 문학의 전성기, 새로운 신문과 잡지의 발간 와중에 쓰인 장편소설로 당시의 시대를 담았다.

131 악어 외

3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박혜경 외 옮김 | 2010년 | 31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중기 단편들로 점차 완숙해져 가는 작가의 예술·사상적 세계관을 감상할 수 있다. 원리와 원칙, 선과 악 등에 관한 새로운 신념의 문제에 바탕한 주제들로, 이후 작품의 원류가 된 작품들을 함께 묶었다.

132 허클베리 핀의 모험

8

마크 트웨인 | 윤교찬 옮김 | 2010년 | 41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헤밍웨이가 〈미국의 모든 현대 문학은 이 작품에서 비롯되었다〉고 극찬한 소설. 19세기 말 남북 전쟁 전후의 미국 사회가 지닌 모순을 마크 트웨인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풀어내 최고의 미국 현대 소설로 인정받고 있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133 134 부활

12

레프 똘스또이 | 이대우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308, 416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작품의 구상에서 탈고까지 무려 10여 년, 검열과 파문에도 굴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완성해 나간 똘스또이의 마지막 역작. 뛰어난 문학 작품인 동시에 똘스또이의 세계관이 담긴 거대한 사상서이며,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부활하는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35 보물섬

6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최용준 옮김 | 머빈 피크 그림 | 2010년 | 36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 audioBook**

뛰어난 성격 묘사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구성으로 1백 년이 넘게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해양 모험 소설의 고전. 스티븐슨이 의붓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다가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36~141 천일야화

88

앙투안 갈랑 | 임호경 옮김 | 2010년 | 전6권 | 350면 내외 | B6 견장정 | 각 10,800원 **eBook**

놀라운 마법과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지는 가운데, 아랍의 문화와 관습은 물론 아랍인들의 세계관과 기질을 재미있게 전하는 앙투안 갈랑의 『천일야화』 국내 최초 완역판.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00권의 책〉

142 아버지와 아들

6

이반 뚜르게네프 | 이상원 옮김 | 2010년 | 328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등장인물의 성격과 대사가 상징하는 사회적 계급과 가치관을 통해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묘사함으로써 전 러시아의 이슈로 부상하며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반 뚜르게네프의 소설. 세대와 이념의 영원한 화해, 그리고 무한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143 오만과 편견

14

제인 오스틴 | 원유경 옮김 | 2010년 | 48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섬세한 인물 심리 묘사로 연애와 결혼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문학성과 예술성뿐 아니라 오락성과 대중성 또한 뛰어나게 엮어 낸 작품.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작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 1954년 서머싯 몸이 선정한 세계 10대 소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선〉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7년 영국 독자들이 뽑은 〈가장 귀중한 책 100권〉
- 2007년 영국 UKTV 드라마 선정 〈최고의 러브 스토리 10〉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284
Books

144 천로 역정

8

존 버니언 | 이동일 옮김 | 2010년 | 43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좁은 문을 지나 천국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정. 침례교 설교자 존 버니언의 대표작인 종교적 우화 소설. 비유와 상징과 암시가 가득한, 셰익스피어식 영어가 살아 있는 유일한 작품.

- 1945년 호레이스 십 선정 〈세계를 움직인 책 10권〉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45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2

윌라 캐더 | 윤명옥 옮김 | 2010년 | 35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퓰리처상 수상 작가 윌라 캐더의 거대한 서사시이자 아름다운 신화적 소설. 캐더가 미국 남서부인 뉴멕시코 지방을 여행하면서 구상한 이 작품은 웅대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뉴멕시코 선교사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146 권력과 영광

5

그레이엄 그린 | 김연수 옮김 | 2010년 | 384면 | B6 견장정 | 12,800원

독특한 상상 세계의 창조자이자 스릴러의 대가, 그러면서도 인간 실존과 신의 관계를 깊이 고찰한 신앙인이기도 한 그레이엄 그린의 대표작. 타락한 신부의 도피와 고뇌를 통해 정치와 신앙의 대결, 그리고 신앙의 초월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147 80일간의 세계 일주

17

쥘 베른 | 고정아 옮김 | 2010년 | 352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되는 작가로 남아 있으며 미셸 투르니에가 〈프랑스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지리학자〉라고 극찬한 쥘 베른. 과학적이며 이성적인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그려 낸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148~15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0

마거릿 미첼 | 안정효 옮김 | 2010년 | 전3권 | 각 616, 640, 640면 | B6 견장정 | 각 14,800원 eBook I audioBook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이야기꾼 마거릿 미첼의 유일한 장편소설. 남북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 놀랄 만큼 치밀한 역사의식 속에 묘사된 배경 설정과 끊임없이 회자되는 등장인물의 매력.

- 1937년 퓰리처상, 미국 도서 판매 협회상 수상

151 기탄잘리

11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 장경렬 옮김 | 2010년 | 224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191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인간과 신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묘사한 103편의 시편을 담은 시집으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라이너 마리아 릴케, 후안 라몬 히메네스 등 당대 최고의 시인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책 뒤에 타고르가 쓴 영시 전문을 수록했다.

- 191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152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23

오스카 와일드 | 윤희기 옮김 | 2010년 | 38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소설이자 그가 평생 추구했던 유미주의를 함축한 작품. 〈영원한 젊음과 미를 얻는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판다〉는 서구 문학의 오래된 주제에 대한 와일드의 해명.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53 레우코와의 대화

3

체사레 파베세 | 김운찬 옮김 | 2010년 | 28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인간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또 급진적인 신화 해석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신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파베세의 작품. 독특한 문체를 통해 운명, 죽음, 절벽, 미소, 만남, 기억, 언어 등 신화적인 분위기를 띤 여러 가지 주제를 변주하며 인간 근본의 감정과 그 의미에 접근한다.

- 1950년 스트레가상 수상

154 햄릿

15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 2010년 | 256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서라, 거기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 〈나는 덴마크인 햄릿이다〉를 거쳐 〈살아 있었다면, 훌륭한 국왕이 되었을 인물〉이라는 규명으로 맺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서구 문학사의 모나리자 혹은 스핑크스라 불릴 만큼 존재와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의문문 형식으로 제기한 걸작.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선〉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고전 100선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추천 도서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284
Books

155 맥베스

10

윌리엄 셰익스피어 | 권오숙 옮김 | 2010년 | 17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욕망에서 비롯된 왕위 찬탈의 피비린내, 그리고 그 피의 권좌에 앉은 뒤에도 양심과 영혼의 붕괴에 고통받는 맥베스의 모습. 이 모순은 결국 인간의 본질이며 인생을 이루는 흐름이다. 모순과 역설을 통해 인간사의 온갖 가치 충돌을 그려 낸,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마지막 작품.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선〉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고전 100선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추천 도서

156 157 아들과 연인

6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 | 최희섭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464, 432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eBook

영국 중부의 탄광촌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주인공 폴의 청춘과 성(性)의 고뇌.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 사랑, 유부녀와의 성적 사랑, 연인과의 정신적 사랑 등 이들 사이의 갈등을 사실적 필치로 묘사한 작품.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선〉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뉴욕 타임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158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

하인리히 뵐 | 홍성광 옮김 | 2011년 | 27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197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하인리히 뵐의 대표작. 1952년 어느 주말의 48시간, 먼지와 얼룩, 담배 연기로 가득한 전후의 풍경 속에서 가난한 부부의 시점이 교차되며 진행되는 독특한 작품. 쓰라린 사색과 따뜻한 대화가 조화를 이루는 뵐 특유의 글쓰기가 빛을 발한다.

- 197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159 미덕의 불운

6

싸드 | 이형식 옮김 | 2011년 | 24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일체의 윤리적 · 관습적 금기를 무시한 채 온갖 음행과 잔혹 행위를 거침없이 묘사한 문제작.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싸드. 그 고유의 내밀한 본능과 기질과 힘찬 억양이 집약된, 그의 방대한 문학 세계 속에서 일종의 〈원류〉라 할 만한 작품.

-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60 프랑켄슈타인

30

메리 W. 셸리 | 오숙은 옮김 | 2011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공포 소설, SF의 고전. 그리스의 비극 서사시에서 엿보이는 인간 본성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한편, 인간의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의 결합들을 이뤄 낸 작품. 과학의 발전과 과학적 실험이 불러올지도 모를 끔찍한 재앙에 대한 경고.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161 위대한 개츠비

11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 한애경 옮김 | 2011년 | 28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헨리 제임스 이후 미국 소설이 내디딘 첫걸음〉(T. S. 엘리엇)이자 〈현대의 오르페우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작. 개츠비, 닉, 톰이라는 세 캐릭터를 통해 시대적 불안을 뛰어나게 묘사한 고전.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62 아Q정전

13

루쉰 | 김태성 옮김 | 2011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절박한 조국의 현실, 그리고 인민의 적막한 심정을 헤아려 그들에게 씩씩하든 슬프든, 가증스럽든 우습든, 그러나 이왕이면 장수의 외침을 선사하고 싶었던 루쉰의 단편들. 현대 중국의 문학과 인문 정신의 출발을 상징하는 초석.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뉴욕 타임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63 로빈슨 크루소

12

대니얼 디포 | 류경희 옮김 | 2011년 | 45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사실주의적인 묘사, 무인도라는 황량한 환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 독실한 신앙심……. 여행기 문학의 출발이자 근대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대니얼 디포의 장편소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284
Books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64 타임머신

19

허버트 조지 웰스 | 김석희 옮김 | 2011년 | 30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문학사상 최초로 과학적 가설을 원용한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여행의 성격을 꿈과 마법에서 있을 법한 현실로 바꾸어 놓은 「타임머신」과 그 원류격인 작품 「크로닉 아르고호」를 비롯, 웰스의 기막힌 상상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정 알」과 「맹인들의 나라」 등 총 4편의 작품 수록. 인간성의 실종과 파시즘에 대해 우려하며 인류의 공존을 위해 새로운 가치관과 시각을 지닐 것을 호소하는 웰스의 중단편선.

-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65 166 제인 에어

13

샬럿 브론테 | 이미선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392, 384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I audioBook**

아름답고 순종적인, 틀에 박힌 여성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주관하는 제인 에어.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온 운명 같은 남자 로체스터. 연애 소설로서의 틀을 갖추면서도 고딕 소설, 사회 비판서로도 기능하며 주인공 제인 에어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을 다룬 성장 소설, 억압된 여성의 역할을 재고찰하는 페미니즘 소설이기도 한 고전 중의 고전.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7년 영국 UKTV 드라마 선정 〈최고의 러브 스토리 10〉
- 2007년 데보라 〈여성의 삶을 바꾼 책 50권〉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67 풀잎

12

월트 휘트먼 | 허현숙 옮김 | 2011년 | 280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19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거대한 산맥과 같았던 존재, 20세기 전반의 미국의 대표 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월트 휘트먼의 시집 『풀잎』 초판 완역본. 주류의 믿음이나 신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산문의 문장을 열거해 놓은 듯한 자유시의 형식을 선구적으로 보여 준 작품.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선〉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168 표류자들의 집

2

기예르모 로살레스 | 최유정 옮김 | 2011년 | 216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20세기 후반 쿠바 문학의 가장 빼어난 성과로 평가되는 기예르모 로살레스의 대표작. 쿠바 출신의 작가인 주인공 윌리엄 피게라스가 마이애미의 사설 보호소 〈보딩 홈〉에서 보낸 지리멸렬한 고통의 나날을 건조하고 간결한 필치로 그려 낸 자전적 소설. 걸작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으나, 2003년 스페인의 출판사가 재발굴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 1987년 황금 문학상 수상

169 배빗

4

싱클레어 루이스 | 이종인 옮김 | 2011년 | 520면 | B6 견장정 | 16,800원 **eBook**

사회적 명예만을 뒤쫓으며 살아오면서도 늘 자유로운 세상으로의 탈출을 기도하는 주인공 배빗. 그가 풍자하는 속물 덩어리에 이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동시에 순진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 미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싱클레어 루이스의 대표작. 이 소설로 인해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 〈배빗Babbitt〉은 교양 없고 속물적인 인간의 대명사이자 일반 명사가 되어 모든 영어 사전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 1930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84
Books

170 이토록 긴 편지

2

마리아마 바 | 백선희 옮김 | 2011년 | 192면 | B6 견장정 | 9,800원

피해 갈 수 없는 아프리카의 목소리. 단 두 편의 소설을 발표하고 30년간 아프리카 문학을 대표해 온 작가 마리아마 바의 첫 소설이자 대표작. 남편이 죽은 뒤 40일간의 복상 기간에 친구에게 쓰는 라마툴라이의 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아프리카 여성의 애환과 고통. 현대 아프리카 여성의 첫 세대이지만 여전히 이슬람 전통의 영향 아래 있는 50대 여성 라마툴라예가 친구 아이사투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일부다처제를 둘러싼 두 여인의 고통과 선택, 새로운 삶에서의 번민을 담아냈다.

- 1980년 노마상 수상
- 2002년 짐바브웨국제도서전 선정 〈20세기 아프리크 최고의 책 10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71 느릅나무 아래 욕망

6

유진 오닐 | 손동호 옮김 | 2011년 | 168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욕정과 물욕, 근친상간과 유아 살해,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사 갈등의 극단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직 꺾이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미국 현대 희곡의 효시이자 가족극의 아버지 유진 오닐의 문제작.

- 1936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172 이방인

21

알베르 카뮈 | 김예령 옮김 | 2011년 | 208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 audioBook

나와 당신, 인간과 세상의 부조리를 성찰한 작가, 최연소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알베르 카뮈의 데뷔작. 어머니의 장례식 날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 자유, 반항, 진실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의 세밀한 심리 변화를 통해 인간의 내밀한 고독과 욕망을 표현했다. 당시로서는 터부시되던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대 작품〉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73 미라마르

3

나기브 마푸즈 | 허진 옮김 | 2011년 | 288면 | B6 견장정 | 13,800원

〈미라마르〉라는 이름의 한 호텔, 함께 있어서는 안 될 네 남자와 그들이 사랑하는 한 여자가 모였다. 이상과 현실, 사랑과 증오를 네 개의 시선으로 살핀다. 아랍 문학계의 큰 별, 나기브 마푸즈가 파고든 두 차례의 혁명, 그 이후.

- 198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74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12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조영학 옮김 | 2011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극단적인 이중성의 두 이름, 존경받는 신사 지킬과 억압과 체면을 벗어던진 하이드의 싸움. 〈선과 악〉이라는 인간의 심연을 관찰한 스티븐슨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단편들이 한데 묶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과 타락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175 루진

3

이반 뚜르게네프 | 이항재 옮김 | 2011년 | 26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귀족 부인 다리야 미하일로브나의 집에 등이 구부정하고 허름한 모습의 루진이 찾아온다. 겉모습과 달리 청산유수 같은 그의 말솜씨는 곧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뛰어난 지적 능력을 현실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지식인 루진의 삶을 그림으로써,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과 혁명적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잉여 인간〉 논쟁과 함께 주목받은 작품.

176 피그말리온

17

조지 버나드 쇼 | 김소임 옮김 | 2011년 | 25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음성학자 히긴스 교수와 언어학자 피커링 대령은 빈민가의 꽃 파는 소녀를 공작 부인과 같은 기품을 갖춘 여인으로 만드는 내기를 벌인다. 히긴스의 가르침으로 그녀는 점점 상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 가고,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한다. 신분 제도의 허위와 영국 사회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

- 1925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177 178 목로주점

13

에밀 졸라 | 유기환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336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행복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던 제르베즈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몰락의 전조. 게으름과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술이라는 빈자들의 구원은 그녀와 가족의 파멸을 재촉하고, 환경이라는 굴레는 모든 도약의 시도를 끝내 무너뜨린다. 산업과 기계에 먹혀든 궁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고단하고 가파른 일상, 그 속에서 건져 올린 프랑스 민중 소설의 효시.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79 180 엠마

9

제인 오스틴 | 이미애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336, 360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I audioBook**

철없는 독신주의자 엠마 우드하우스에게 가장 흥미로운 일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 그러나 그녀의 시도는 연달아 실패로 돌아가고, 무절제한 상상력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는데……. 온갖 결함을 갖춘, 그러나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한 여자의 허위의식을 경쾌하게 폭로한다.

- 2003년 BBC 「빅리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7년 데보라 G. 펠터 〈여성의 삶을 바꾼 책 50권〉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181 비숍 살인 사건

5

S. S. 밴 다인 | 최인자 옮김 | 2011년 | 464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저명한 물리학자의 궁술장에서 한 남자가 가슴에 화살이 꽂힌 채 살해당했다. 이 저택의 주인과 수학자인 그의 양아들, 이웃집 과학자와 체스 선수는 모두 무언가를 숨기는 듯하고, 탐정 파일로 밴스는 잇달아 일어나는 살인이 구전 동요 「마더 구스의 노래」의 가사와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추리 소설의 황금기를 장식한 S. S. 밴 다인의 대표작.

284
Books

182 우신예찬

14

에라스무스 | 김남우 옮김 | 2011년 | 29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스스로를 〈어리석음 여신〉으로 내세워 세상의 부조리와 온갖 부류의 무리들을 웃음으로 조롱한 풍자문의 최고봉. 라틴어 원전 번역본으로 기존 판본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았으며, 에라스무스가 자신을 비판한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수록하여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183 하자르 사전

10

밀로라드 파비치 | 신현철 옮김 | 2011년 | 488면 | B6 견장정 | 16,800원

사라진 민족 〈하자르〉의 개종 사건에 관련된 세 가지 사건. 꿈 사냥꾼, 악마, 역사학자 등 매력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그들의 연대기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특한 형식은 물론 뛰어난 지성과 위트로 세계 각종 언론의 극찬을 받은 마법 같은 작품.

184 185 테스

6

토머스 하디 | 김문숙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392, 336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가난한 가족에게 떠밀려 부자 친척의 집을 방문한 테스는 알렉을 만난다. 테스가 그 만남의 의미를 알았다면 왜 하필 그의 눈에 띄어 탐욕의 대상이 될 운명을 지녔던 건지 반문할 수 있었을까? 미혼모 테스를 아름답게 묘사해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다준 작품. 『테스』의 부제 〈순결한 여인〉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희생당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흔적이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86 투명 인간

9

허버트 조지 웰스 | 김석희 옮김 | 2011년 | 288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조용한 시골 마을에 괴상한 차림의 사내가 나타났다. 불가시성이 가져다줄 힘과 자유를 상상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투명하게 만든 그리핀.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공포와 혐오는 커져만 가고, 순식간에 그는 하나의 거대한 악이 되어 간다. 사회적 존엄의 가면 밑에 숨은 인간 어둠의 심연,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를 사냥하는 우리 모두의 잔인성을 들여다본다.

- 2010년 영미권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SF〉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187 188 93년

7

빅또르 위고 | 이형식 옮김 | 2011년 | 전2권 | 각 288, 360면 | B6 견장정 | 각 9,800원 eBook

〈대혁명〉의 시대 프랑스, 묘하고도 어지러운 관계들 속에서 마주한 세 사람. 공화군과 반란군의 싸움이 끝난 그곳, 1793년의 방데에서 사상과 인간성의 전투가 다시 시작된다.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대문호 빅또르 위고가 10여 년간의 준비 끝에 탈고해 낸 마지막 장편소설. 혁명을 바라본 위고 스스로의 결론이라 할 만하다.

189 젊은 예술가의 초상

7

제임스 조이스 | 성은애 옮김 | 2011년 | 38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조이스의 경험을 투영한 자전적 소설.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가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을 거쳐 한 사람의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추적한 이 작품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가족, 사회, 종교, 조국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거부해야 했던 한 소년의 고독과 방황 그리고 용기를 섬세하고 그려 내고 있다.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5년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90 소네트집

7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 2011년 | 20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천 개의 마음을 가진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연의 힘에 견줄 만한 그 상상력의 가지들로 사랑과 욕망의 지도를 그리며 감각의 잔칫상을 차려 낸다. 영어로 쓰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궁정 인물들을 둘러싼 사랑과 갈등을 그린 생생한 인간 드라마.

-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191 메뚜기의 날

2

너새니얼 웨스트 | 김진준 옮김 | 2011년 | 28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영화 산업의 성지 할리우드. 하지만 그 이면 역시 꿈을 안고 몰려든 삼류 인생들의 또 다른 리얼 블랙 코미디 영화판이다. 배우 지망생 페이, 그녀를 쫓아다니는 토드, 페이의 폭력에 휘둘리는 호머, 인생 전체가 광대 짓의 연속인 해리 등이 보여 주는 이미지는 인간의 헛된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난 다음 찾아오는 허무함과 비애감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 200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192 나사의 회전

3

헨리 제임스 | 이승은 옮김 | 2011년 | 256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인적 드문 시골 영지로 온 젊은 가정 교사의 눈앞에, 어느 날 누군가의 환영이 나타난다. 공포 가득한 가정부의 표정과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는 아이들의 태도에 그녀는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여 가고, 마침내 심연에 있던 진실이 그들 앞으로 성큼 다가선다. 〈심리적 사실주의〉를 완성시킨 헨리 제임스가 제시하는 환상과 공포의 세계.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284
Books

193 오셀로

7

윌리엄 셰익스피어 | 권오숙 옮김 | 2011년 | 216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데스데모나와 결혼한 무어인 장군 오셀로. 그러나 그의 기수 이아고는 자신이 갈망하던 부관의 자리를 캐시오에게 준 오셀로에게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는데……. 음모와 살인과 후회, 그 모든 것은 질투에서 비롯되었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고전 100선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복 추천 도서

194 소송

8

프란츠 카프카 | 김재혁 옮김 | 2011년 | 37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어느 날 아침, 낯모르는 두 사내에게 체포된 K. 그러나 마치 탐정 소설과도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K는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뚱한 사건 전개를 보여 준다. 카프카는 그를 통해 법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결국 그 존재조차 의심받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시니컬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드러낸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문학 100선〉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195 나의 안토니아

5

윌라 캐더 | 전경자 옮김 | 2011년 | 36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안토니아. 황량한 초원에 심어 놓은 소년기를 끄집어내는 이름. 이제는 중년이 된 한 남자가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회상한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 그러나 거친 노동과 소외감 속에서, 그들 또한 희망을 보았고 숨을 쉬듯 사랑을 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 윌라 캐더의 대표작.

- 2007년 데보라 〈여성의 삶을 바꾼 책 50권〉
- 2016년 미국 의회 도서관 America Reads 전시회 선정

196 자성록

4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박민수 옮김 | 2011년 | 24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거대 제국의 황제로서 기구한 운명에 정면으로 맞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나라의 미래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세상사, 인간사 등의 참모습을 관조하고 이를 글로 남겼다. 이 책은 그가 전장에서 쓴 일기로, 철학을 믿었던 황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불순하다고 여기는 것은 철저히 멀리했던 고독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 준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197 오레스테이아

3

아이스킬로스 | 두행숙 옮김 | 2012년 | 33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트로이 원정을 떠나기 전 딸을 제물로 바친 아가멤논. 이에 원한을 품은 아내 클리타이네스트라는 전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먼 곳에 보내졌던 아들 오레스테스는 다시 어머니를 향해 복수의 칼을 겨누는데……. 인간이 지닌 가장 오래된 감정 복수. 얽히고설킨 그 복수의 사슬 속에 숨어 있는 단 하나의 질문.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 최고의 걸작.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복 추천 도서

198 노인과 바다

18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 2012년 | 32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I audioBook**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생애 최후이자 최고의 걸작. 홀로 바다에 나가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한 노인의 이야기로,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민과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의지를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담아 낸 중편소설이다. 〈킬리만자로의 눈〉, 〈프랜시스 매코머의 짧고 행복한 생애〉,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등 헤밍웨이가 자신의 대표작이라 밝힌 단편소설까지 총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1952년 퓰리처상
- 1953년 노벨 문학상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국립 중앙 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16년 미국 의회 도서관 America Reads 전시회 선정
- 가디언 〈세계의 작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책 100권〉
- 국립 중앙 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50선〉
- 뉴스위크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199 무기여 잘 있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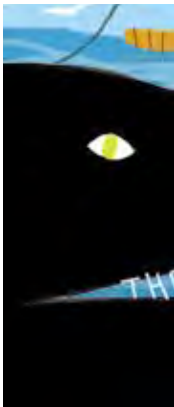
15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 2012년 | 46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제1차 세계 대전의 포화 속에서, 삶의 부조리에 스러지는 인간의 보편적 비극을 목격하는 젊은 미국인 장교 프레더릭 헨리. 전투와 부상과 도주를 겪으며 온통 환멸과 냉소로 가득했던 헨리의 마음에 들어온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 전쟁의 참상, 또한 그 속에서 피어나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세대〉의 반전 정신과 세계 대전 이후의 허무주의를 치밀하게 묘사한다.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284
Books



200 서푼짜리 오페라

5

베르톨트 브레히트 | 이은희 옮김 | 2012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현대 연극의 새로운 바탕을 마련해 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대표작.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의 비극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브레히트는 인간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전통적인 글쓰기와 극작법에 회의를 느낀다. 관객에게 냉철한 시각을 주기 위해 끝없이 이어 가던 브레히트의 고민. 결국 그 결정체로서 「서푼짜리 오페라」와 「억척어멈과 자식들」이 탄생한다.

- 2003년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 뉴욕 타임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201 리어 왕

6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 2012년 | 22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늙고 고집 센 왕 리어. 막내딸 코딜리어가 대변하는 그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채, 달콤한 혀에 속아 다른 두 딸 고너릴과 리건에게 왕국을 물려준다. 그러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배신으로 집을 떠나 춥고 어두운 광야에서 비와 천둥에 맞서게 된 그는, 자연의 원소들이 아닌 자기 마음속 폭풍과 대면하며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오이디푸스의 후예 리어, 눈 있으되 보지 못하는 자의 고통.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고전 100선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복 추천 도서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202 주홍 글자

5

너새니얼 호손 | 곽영미 옮김 | 2012년 | 36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청교도의 엄격한 윤리가 지배하던 시절, 간통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다. 헤스터 프린의 옷가슴에 달린 주홍빛 글자. 또한 그보다 더 크고 진하게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는 어린아이. 그러나 이 죄악의 상징이자 악덕의 부산물을 통해 헤스터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마침내 그녀에게 낙인찍힌 선명한 〈A〉는 고결함의 상징으로 변모한다. 17세기 미국의 어둡고 준엄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죄지은 자의 고독한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한 미국 고전 문학의 걸작.

- 2003년 국립 중앙 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복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203 모히칸족의 최후

5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 | 이나경 옮김 | 2012년 | 51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탄탄한 이야기 구조, 다양한 상징 그리고 그 안에서 변주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맛볼 수 있는, 미국 문학사의 중심에 선 작품. 모히칸족의 마지막 전사 웅카스의 최후 전투의 기록으로, 끈질기게 위협하는 사악한 인디언 마구아로부터 순수하고 고귀한 처녀들을 지켜내는 긴장감 넘치는 모험 이야기이다. 문명사회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작품.

- 2016년 미국 의회 도서관 America Reads 전시회 선정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204 곤충 극장

3

카렐 차페크 | 김선형 옮김 | 2012년 | 36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카프카, 쿤데라와 함께 체코의 국민 작가로 우뚝 선 카렐 차페크. 그 풍자적 시선이 녹아 있는 대표 희곡 「곤충 극장」, 「마크로폴로스의 비밀」, 「하얀 역병」 수록. 양차 대전 사이, 광기 어린 유럽을 살아간 휴머니스트 카렐 차페크의 치열한 고민, 그러나 위트 넘치는 기록들. 유한하고 덧없고 치졸하고 비루하며 의미를 찾기에는 지독히 어리석은,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드라마로 변신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에 바치는 찬가.

284
Books

205 206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0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 2012년 | 전2권 | 각 414, 400면 | B6 견장정 | 각12,800원 **eBook**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젊은 미국인 로버트 조던. 산속 게릴라 부대와 함께하는 사흘간의 작전. 허무주의를 넘어 평화를 위한 필사의 투쟁으로 향하는 로버트 조던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 속에서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희망의 종소리를 울린다.

- 1953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르 몽드』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207 타르튀프

7

몰리에르 | 신은영 옮김 | 2012년 | 41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종교라는 거룩한 가면을 쓴 협잡꾼, 도덕을 거부한 채 사랑의 자유를 찾아 방랑하는 리베르탱, 타락한 세상을 못 견뎌하지만 연인에게만큼은 맹목적인 헛똑똑이. 위선과 오만과 광기에 사로잡힌, 그러나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인물들. 조롱과 웃음기로 무장한 몰리에르 투쟁의 궤적.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208 유토피아

11

토머스 모어 | 전경자 옮김 | 2012년 | 288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과 종교적 관용, 평화주의, 성 평등을 주장한 근대 소설의 효시이자 토머스 모어의 인문 정신이 집약된 사회 사상적 명저. 〈유토피아〉 없는 세상 속에서 인류의 고전이 되다.

- 『뉴스위크』 선정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스탠퍼드 대학 선정 〈세계의 결정적 책 15권〉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209 인간과 초인

6

조지 버나드 쇼 | 이후지 옮김 | 2013년 | 32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버나드 쇼 사상의 깊이를 보여 주는 20세기의 희극적 『파우스트』, 관습의 편에 서서 편안히 살 것인가, 이성의 세계로 뛰어올라 투쟁할 것인가? 니체의 초인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버나드 쇼의 인생관과 예술론이 흥미로운 설정과 희극적인 요소와 함께 펼쳐진다.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 불리는 조지 버나드 쇼 최고 걸작.

- 1925년 노벨 문학상 수상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210 페드르와 이폴리트

3

장 라신 | 신정아 옮김 | 2013년 | 20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인간은 진정 자신을 옥죄는 정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인가.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를 바탕으로 정념이 지닌 파괴적 본성, 통제할 수 없는 정념에 빠진 한 인간이 보여 주는 감정의 격정을 파고든 라신 비극의 정수.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211 말테의 수기

6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안문영 옮김 | 2013년 | 32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절망과 고독을 숙명처럼 짊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바라본 릴케의 유일한 장편소설. 작가 지망생인 스물여덟 살의 덴마크 청년 말테는 화려한 문화의 중심지 파리에 오지만 오히려 곳곳에 가득한 죽음과 불안의 냄새를 맡는다. 지독한 가난과 소외, 죽음마저 규격화된 도시의 비정함. 그는 예민한 감성으로 대도시의 허상을 기록하는 한편,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깊이 침잠해 들어가, 실존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철저한 고독을 깨달아 간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8년 한국경제신문 조사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50선
- 『르 몽드』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12 등대로

6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 2013년 | 328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삶과 죽음, 세월을 바라보는 깊은 눈. 무수한 인상의 단면들을 아름답게 이어 간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 울프는 인물들의 머릿속에 무수히 각인되는 인상과 순간순간 떠오르는 철학적 깨달음을 〈등대를 향한 여정〉을 따라 유려한 문장들로 엮어 낸다. 자신이 〈평생 어느 때보다도 쉽고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으며, 〈내 영혼에 열린 어떤 열매에도 이제 손이 닿을 것 같다〉고 했을 만큼,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뉴욕 타임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13 개의 심장

4

미하일 불가꼬프 | 정연호 옮김 | 2013년 | 35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미하일 불가꼬프의 1920년대 중편 대표작 「개의 심장」과 「악마의 서사시」를 수록한 소설집이다. 시대에 순응하지 않았던 작가 불가꼬프가 획일적인 혁명 사회에, 더 나아가 모든 사회 전체에 던지는 조롱과 풍자는 유쾌한 웃음과 함께 서늘한 공포를 안기며 수많은 작가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214 215 모비 딕

24

허먼 멜빌 | 강수정 옮김 | 2013년 | 전2권 | 각 464, 48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모험담과 철학적 사유, 종교와 문학적 견해, 비유와 상징이 어우러져 무궁무진한 해석을 이끌어 내는 다층적인 텍스트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과 세계라는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열망을 지적인 탐구와 문학적 성취로 완성해 낸 걸작이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대 작품
- 2013~2015년 「가디언·옵서버」 선정 〈최고의 영미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216 더블린 사람들

6

제임스 조이스 | 이강훈 옮김 | 2013년 | 33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발표된 시기를 중심으로 배열된 일반적인 단편집들과는 달리, 단편들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단편은 삶의 각 단계들을 암시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배열된 단편집. 더블린이라는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현대 도시인의 삶의 전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하나의

284
Books

유기체처럼 독립적이면서 완결된 작품을 이룬다.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217~219 마의 산 18

토마스 만 | 윤순식 옮김 | 2014년 | 전3권 | 각 496, 488, 512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제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전환된 토마스 만의 정치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사회를 선회하는 시대 소설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작품. 한 청년이 베르크호프 산의 요양원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낸 이야기로, 전통적인 독일식 교양 소설이자 성장 소설로도 볼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 산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명상의 계기가 되어 준다.

- 192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20 비극의 탄생 10

프리드리히 니체 | 김남우 옮김 | 2014년 | 304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의 최고 경전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희랍 비극의 근원이라는 고전 문헌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버금가는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20세기 철학, 문학, 예술과 음악, 심지어 정치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명료한 번역에 고전 문헌학에 입각한 풍부한 주석이 덧붙여져 누구나 니체 사상의 발생 경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1 222 위대한 유산 15

찰스 디킨스 | 류경희 옮김 | 2014년 | 전2권 | 각 432, 44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I audioBook**

19세기 이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어린 소년 핍이 이름 모를 사람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유쾌한 인물 구성과 긴박감 넘치는 서사를 펼쳐 보이며, 혼동과 무질서에 빠진 빈민의 삶, 허영과 범죄로 물든 영국 사회 속에서 가족애와 우정,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는 소년의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냈다.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가디언」 조사 〈세계의 작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책 100선〉
- 영국 독자들이 뽑은 가장 귀중한 책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2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3

레프 똘스또이 | 윤새라 옮김 | 2014년 | 46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I audioBook**

20대의 청년 똘스또이가 전쟁터에서 느낀 생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습격」과 「세바스또뽈 이야기」, 영지 경영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힘쓴 모습

이 드러나는 「신을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와 「바보 이반」, 회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현자의 모습이 담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를 평생 동안 번뇌하게 만든 〈죽음〉의 면면이 녹아든 「세 죽음」까지 60년에 이르는 똘스또이 작품 세계의 궤적을 담아낸 소설선집.

284
Books

224 자살 클럽

3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임종기 옮김 | 2014년 | 28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 audioBook

인간 내면의 근원과 선악의 갈등을 탐구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소설선집.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공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은근한 공포를 자아내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들은 되레 신선하다. 표제작 「자살 클럽」을 비롯해 「말트루아 경의 대문」, 그 외 「시체 도둑」, 「병 속의 악마」까지, 총 네 편의 단편이 실렸다.

225 226 채털리 부인의 연인

4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 | 이미선 옮김 | 2014년 | 전2권 | 각 336, 32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20세기 문학계를 뒤흔든 D. H. 로런스의 문제작. 귀족 여성과 노동자 남성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파격적이고 적나라한 성애 장면 묘사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채털리 부인 코니와 그녀의 연인 사냥터지기 멜러스는 허례허식을 벗어던지고 〈남자〉와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서로를 진실하게 마주 보며 행복을 느낀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따뜻한 남녀 관계가 개인의 완전한 삶을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삭막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 희미해진 인간애까지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작가의 이상을 엿볼 수 있다.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영국 UKTV 드라마 선정 〈최고의 러브스토리 10〉
- 뉴스위크 선정 〈세상을 움직인 100권의 책〉
- 『르 몽드』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 워터스톤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27 데미안

12

헤르만 헤세 | 김인순 옮김 | 2014년 | 27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 audioBook

에밀 싱클레어가 친구인 막스 데미안을 만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이르는 힘겹고 고단한 여정을 떠난다는 상징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1919년 출간 당시 제1차 세계 대전을 겪고 커다란 상흔과 절망감을 안고 돌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를 모색하고 참된 의의를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 주었다.

- 1946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228 두이노의 비가

10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손재준 옮김 | 2014년 | 504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1899년부터 1922년까지 발표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 여덟 권(『기도 시집』, 『형상 시집』, 『신 시집』, 『후기 시집』, 『진혼가』, 『마리아의 생애』,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두이노의 비가』)에 수록된 시 중 170편에 이르는 작품을 선정한 시 선집이다. 생전 다작가였던 릴케가 세상에 남기고 간 시적 대업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여덟 권의 시집에는 끝없는 고독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서 나오는 비탄을 삶의 찬미로 승화시킨, 삶과 죽음에 대한 시성의 주옥같은 시들이 담겨 있다.

-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229 페스트

12

알베르 카뮈 | 최윤주 옮김 | 2014년 | 43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노벨상 수상 작가이자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알베르 카뮈의 다섯 번째 작품. 작가는 죽음의 질병 페스트의 가공할 위력을 조용한 해안 도시 오랑으로 불러들여, 그 앞에 당면한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 나간다. 죽음 앞에서 다양하게 대처하는 오랑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 반항하고 연대하는 인간의 분투를 정밀하게 그려 낸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걸작〉이라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고전 200선〉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하버드 서점이 꼽은 〈잘 팔리는 책 20선〉
- 피터 박스올 선정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30 231 여인의 초상

3

헨리 제임스 | 정상준 옮김 | 2014년 | 전2권 | 각 520, 544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19세기 영미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 헨리 제임스의 대표작으로, 시대의 인습을 거부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꿈꿨던 한 여인의 긴 생애 중 몇 년간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서술 방식, 인물들 간의 함축적인 대화를 통해 작중 인물들의 복잡다단한 내면세계를 유추하게 만드는 이 작품은 헨리 제임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초판 출간 후 27년이 지난 1908년 제임스가 직접 5천 군데 이상을 수정하고 서문까지 덧붙여 낸 판본을 완역한 것이다.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232 성

7

프란츠 카프카 | 이재황 옮김 | 2015년 | 56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카프카의 생 말년에 집필되었지만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 끝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이다. 카프카 자신의 친필 원고에 최대한 가깝도록 새롭게 편집한 [패슬리판]을 완역한 것이다. 토지 측량사로 고용되어 성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불청객 취급을 받는 주인공 K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삶의 의미와 자기 개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운명을 다룬다. 『소송』, 『실종자』와 함께 카프카의 3대 장편소설로 꼽힌다.

- 2002년 노벨 연구소 선정 〈세계문학 100선〉
- 「가디언」 선정 〈모두가 읽어야 할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3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0

프리드리히 니체 | 김인순 옮김 | 2015년 | 46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서양 철학의 전통을 뿌리째 뒤흔들고, 20세기 이후의 사상적 흐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혁명적인 사상가, 니체의 사상이 집약된 대표작이다. 〈초인〉, 〈영원 회귀〉, 〈힘에의 의지〉 등 그의 핵심 사상들이 이 작품에 집약되어 있다. 일반적 철학서와는 달리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 철학자이자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던 니체의 재능이 특히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00권의 책〉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234 노래의 책

2

하인리히 하이네 | 이재영 옮김 | 2016년 | 38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수많은 가곡으로 널리 불리며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은, 독일 서정 시인이자 혁명적 저널리스트 하이네의 대표 시집. 실패한 사랑의 아픔과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고아한 시성(詩聖)의 노래들. 개인적 체험의 낭만에 함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사회에 참여한 시인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다. 큰 연작 속에 작은 연작이 담긴, 철저하게 구성된 형식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며 사랑과 철학, 종교와 신화를 아우르는 걸작.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235 변신 이야기

2

오비디우스 | 이종인 옮김 | 2018년 | 632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로마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발표된 작품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양한 사건들을 〈변신〉이라는 주제로 엮어 낸 서사시. 흔히 서양 문화의 두 기둥을 성서와 그리스 로마 신화로 꼽는데, 『변신 이야기』

284
Books

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고전이기에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특히 중세의 3대 걸작이라고 칭송되는 단테의 『신곡』, 장 드 묑의 『장미 이야기』,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라신, 영국의 셰익스피어, 독일의 괴테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대 작품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236 237 안나 까레니나

11

레프 똘스또이 | 이명현 옮김 | 2018년 | 1536면 | B6 견장정 | 16,800원 **eBook I audioBook**

『전쟁과 평화』, 『부활』과 더불어 똘스또이의 3대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소설. 고위 공직자의 아내이지만 다른 남성와 사랑에 빠지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귀부인 안나의 이야기와, 연모하던 귀족 영애에게 청혼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는 농촌 귀족 지주 레빈의 이야기를 두 축으로 전개된다. 사랑과 결혼,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하여 당대 러시아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그 속의 개인들의 내적인 방황의 궤적들을 놀라울 만치 생생한 필치로 묘사하는 이 작품은, 똘스또이의 모든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고민들이 집약된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 『가디언』 선정 역대 최고의 소설 100선
-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238 이반 일리치의 죽음 · 광인의 수기

14

레프 똘스또이 | 석영중·정지원 옮김 | 2018년 | 23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I audioBook**

똘스또이의 중단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리고 그 예고편이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미완의 단편 「광인의 수기」를 함께 수록했다. 성공한 판사로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어느 날 찾아온 원인 모를 병으로 서서히 죽어 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주인공이 〈광인〉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기록한 「광인의 수기」를 통해, 죽음 앞에 선 인간 실존을 정교하게 해부하며 삶과 죽음을 치열하게 성찰하는 거장의 예리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중단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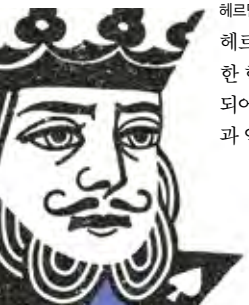
-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39 수레바퀴 아래서

4

헤르만 헤세 | 강명순 옮김 | 2019년 | 272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헤르만 헤세의 사춘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성장 소설. 총명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어른들의 비뚤어진 기대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 제도에 희생되어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자비한 수레바퀴처럼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짓누르는 기성 사회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이다. 어른들의 욕



심으로 유년 시절을 빼앗기고 위태롭게 성장하는 청춘의 자화상을 예민하고 섬세한 문체로 그려 내고 있다.

- 1946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240 피터 팬

2

제임스 매슈 배리 | 최용준 옮김 | 2019년 | 272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영원히 늙지 않는 장난꾸러기 피터와,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웬디가 펼치는 네버랜드에서의 대모험을 그린 제임스 매슈 베리의 대표작. 흘러넘치는 유머와 환상적인 사건들이 동심을 자극한다. 출간 이후 『피터 팬』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으로 변주되며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다.

- 『가디언』 선정 〈모두가 읽어야 할 소설 1000선〉

241 정글 북

러디어드 키플링 | 오숙은 옮김 | 2019년 | 27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역대 최연소 노벨 문학상 수상(1907년)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대표작. 늑대 젖을 먹고 자란 꼬마 모글리가 정글과 인간 세상에서 겪은 신비로운 사건들을 다룬다. 자연과 인간 문명의 충돌과 조화가 빚어낸 뭉클한 에피소드들이 담겼다.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아동 문학 중 하나로, 시대를 뛰어넘어 영화, 만화,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재생산된 불멸의 고전.

- 190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BBC 선정 아동 고전 소설

242 한여름 밤의 꿈

3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 2019년 | 160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엇갈린 연인들의 사랑과 갈등이 요정들의 개입으로 소동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가장 몽환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의 하나로서,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공연되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243 좁은 문

4

앙드레 지드 | 김화영 옮김 | 2019년 | 264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지상의 행복을 쫓기보다 천상의 성스러움에 가닿기를 원하는 인물 알리사와 그녀를 흠모하는 제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사촌 지간이자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의 정신적인 고투와 엇갈림의 과정을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순수함의 지향과 관능적 천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하는 인간 본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 194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2003년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44 모리스

9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 2019년 | 40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영국 중산층의 한 평범한 젊은이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당시에는 범죄시되었던 동성애를 다뤘기에 작가 사후인 1971년에야 출간되었다. 실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은 1914년으로, 출간은 57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모리스」로 영화화되었으며, 주연을 맡은 클라이브 역의 휴 그랜트와 모리스 역의 제임스 윌비는 그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245 브라운 신부의 순진

3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 이상원 옮김 | 2019년 | 33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 audioBook**

매력적인 탐정 캐릭터 브라운 신부가 등장하는 단편소설들을 모은 추리 단편집.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가톨릭 사제인 브라운 신부가 각종 범죄 사건의 비밀을 밝혀내는 놀라운 활약과 모험들을 담았다. 브라운 신부는 아서 코넌 도일의 셜록 홈스, 애거사 크리스티의 에르퀼 푸아로와 함께 흔히 〈세계 3대 명탐정〉으로 손꼽히곤 하며, 순진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냉철한 추리와 독특한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반전 매력으로 전 세계 추리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246 각성

2

케이트 쇼팽 | 한애경 옮김 | 2019년 | 27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결혼한 한 여성이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독립적인 자아를 찾아 나가는 이야기. 이 작품은 여성의 부도덕한 일탈을 그리며 당시 여성상에 어긋나는 가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출간 당시 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절판되었다가 쇼팽 사후 6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페미니즘 소설의 선구로 조명되며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 여러 대학에서 여성학과 문학 수업의 필수 도서로 읽히는 등 페미니즘 소설의 대표 고전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47 뷔히너 전집 당통의 죽음 외

게오르크 뷔히너 | 박종대 옮김 | 2020년 | 40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독일의 요절한 천재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모든 문학 작품을 한 권에 수록한 전집. 프랑스 혁명을 이끈 지도자였으나 혁명에 대한 환멸 속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혁명가 당통의 이야기를 다룬 희곡 「당통의 죽음」, 소외된 하층민을 최초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 희곡 「보이체크」 등 뷔히너의 전작을 이 책 한 권에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격문 「헤센 지방의 전령」, 자연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뇌신경에 관한 시범 강연」도 함께 실어 뷔히너의 다양한 모습을 독자들이 그려 볼 수 있도록 했다.

248 디미트리오스의 가면

4

에릭 앰블러 | 최용준 옮김 | 2020년 | 42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현대 스파이 소설의 아버지 에릭 앰블러의 대표작이자 〈스파이 소설의 최고 걸작〉이라 불리는 작품. 영국의 추리 소설가인 주인공 래티머가 어느 날 터키에서 시체로 발견된 악명 높은 국제적 범죄자이자 스파이 디미트리오스라는 인물에게 흥미를 갖게 되고, 유럽 곳곳을 오가며 그의 현란한 범죄 인생을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체를 숨긴 채 각국의 온갖 범죄에 관여해 온 수수께끼의 악당 디미트리오스의 발자취..

249 베르가모의 페스트 외

2

옌스 페테르 야콥센 | 박종대 옮김 | 2020년 | 20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19세기 덴마크의 대표 작가 중 하나인 옌스 페테르 야콥센의 중단편 전부를 모은 책. 야콥센은 덴마크 자연주의와 상징주의 문학의 선구자로서, 후대에 릴케와 토마스 만, D. H. 로런스 등 문학가뿐 아니라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 음악가 쇤베르크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이다. 표제작인 「베르가모의 페스트」는 17세기에 실제로 이탈리아 북부를 덮쳤던 페스트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인간의 절망과 신의 의미를 묻고 있다.

284
Books

250 폭풍우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 2020년 | 176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셰익스피어가 1611년 완성한 만년의 걸작으로, 동생의 음모로 군주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딴섬에 살게 된 공작 프러스퍼로의 복수 이야기를 다룬 희극이다. 섬에서 연마한 마법의 힘으로 옛 원수들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화해와 용서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법과 정령의 세계인 섬에서 펼쳐지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만년에 이른 셰익스피어의 원숙한 상상력을 보여 주는 작품.

●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251 어셴든, 영국 정보부 요원

2

서머싯 몸 | 이민아 옮김 | 2020년 | 41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달과 6펜스』, 『인간의 굴레』 등으로 순문학의 거장으로 인정받는 영국 작가 서머싯 몸이 전쟁 당시 실제 스파이 활동을 했던 뜻밖의 경험을 토대로 쓴 첩보 소설. 1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정부의 스파이로 활동하는 영국 작가 어셴든의 모험이 담긴 연작 단편들을 엮은 소설집으로, 현대 스파이 소설의 원조이자 고전이 된 걸작으로 평가된다.

252 기나긴 이별

8

레이먼드 챈들러 | 김진준 옮김 | 2020년 | 600면 | B6 견장정 | 17,800원 eBook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표 고전으로, 레이먼드 챈들러의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작. 챈들러가 창조한 매력적인 탐정 〈필립 말로〉 시리즈의 후기 걸작으로,

이제 40대 중년에 이른 탐정 말로의 원숙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억만장자의 딸인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용의자로 몰린 수수께끼의 인물 테리 레녹스, 그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말로와 레녹스의 짙은 우정, 레녹스의 혐의와 자살을 둘러싼 비밀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품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으며 최소 열두 번 이상은 읽었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1955년 에드거상 수상작

253 인도로 가는 길

6

□

E M 포스터 | 민승남 옮김 | 2020년 | 552면 | B6 견장정 | 17,800원 **eBook**

포스터의 마지막 장편소설이자 대표작. 아델라 퀘스티드는 약혼자의 어머니 무어 부인과 함께 인도 땅에 도착한다. 무어 부인은 젊은 이슬람교 의사 아지즈를 만나 민족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아지즈는 이들을 마라바르 동굴로의 소풍에 초대한다. 그러나 아델라가 동굴 속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드는데…….

- 『타임』 선정 〈현대 100대 영문 소설〉
-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영문 소설 100선〉
- 1984년 데이비드 린 감독에 의해 영화화

254 올랜도

2

□

버지니아 울프 | 이미애 옮김 | 2020년 | 37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버지니아 울프의 걸작 환상 소설로, 시인의 기질을 지닌 귀족 청년 올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후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온 신비로운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16세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총애를 받는 미소년이었던 올랜도가 20세기 초 아이를 낳고 시집을 출간한 한 여성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긴 여정이 펼쳐진다. 한 인물이 다른 성(性)을 모두 경험하고 여러 시대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개의 이야기를 통해, 성 정체성이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복잡다단하게 발현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BBC 선정 〈우리 세계를 형성한 100권의 소설〉

255 시지프 신화

8

□

알베르 카뮈 | 박언주 옮김 | 2020년 | 26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카뮈의 문학적 토대가 된 부조리 사상의 정수가 담긴 철학 에세이로, 부조리, 자살, 반항, 자유, 정열 등 카뮈의 핵심 화두와 사상을 예리하고 명징한 언어로 파고들며 정리한 작품이다. 이 책에서 카뮈는 오늘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부조리한 세계와 대면하는 인간의 삶의 자세를 논한다. 특히 신들로부터 형벌을 받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시지프를 부조리한 영웅의 전형으로 내세우며, 운명에 맞서는 반항적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이야기한다.

- 195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256 조지 오웰 산문선

5

조지 오웰 | 허진 옮김 | 2020년 | 424면 | B6 견장정 | 16,800원 **eBook | audioBook**

20세기 영문학의 독보적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조지 오웰의 가장 유명하고 높이 평가받는 20여 편의 산문들을 종류별로 골고루 엄선한 선집. 묵직한 정치 비판부터 생활 속의 소소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오웰 특유의 명징하고 정직한 사유의 정수를 보여 준다.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영국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로서, 그리고 문학의 역할을 고민하는 사색가로서 조지 오웰이 남긴 에세이들은 20세기 영문학이 낳은 가장 뛰어난 산문들로 평가된다.

257 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 | 도해자 옮김 | 2020년 | 200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오랜 시간 원수로 대립해 온 두 가문의 젊은 남녀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희곡.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이 작품은, 연극을 비롯하여 영화, 드라마,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어 왔다. 증오로 가득 차 있던 곳에 피어난 젊은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죽음마저 초월하는 사랑의 강렬함을 그려 낸 작품이다.

-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도서
- 영국 UKTV 드라마 선정 최고의 러브스토리 10

258~263 수용소군도

44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옮김 | 2020년 | 전6권 | 각 448면 내외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지난 100년의 러시아 역사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부분을 낱낱이 드러낸 책. 솔제니찐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동시에 200명이 넘는 죄수들의 이야기, 기억, 편지를 담은 놀라운 기록문학이다. 소련에서 자행된 체포와 고문, 왜곡된 재판, 부당한 처형을 고발한 이 작품은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결국 이 책으로 인해 소비에트 정권의 비도덕적 실상이 내·외부에 알려지고, 그것이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1999년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264 스웨덴 기사

2

레오 페루츠 | 강명순 옮김 | 2020년 | 33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레오 페루츠의 역사적 환상 소설. 국내 초역. 18세기 초 유럽을 배경으로 운명처럼 얽혀 신분이 뒤바뀐 도둑과 귀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귀족의 약혼녀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 버린 도둑은 영리한 계략을 통해 귀족과 자신의 운명을 바꿔 버리는데……. 운명에 맞서 발버둥치면서도 운명의 절묘한 힘에 이끌려 들어가는 두 남자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야기.

284
Books

265 유리 열쇠

2

대실 해밋 | 홍성영 옮김 | 2020년 | 328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하드보일드 장르의 창조자 대실 해밋이 자신의 최고 걸작으로 꼽은 작품. 합법과 불법의 세계를 오가는 정치인 폴 매드빅과 그를 보좌하는 인물 네드 보몬트를 중심으로 비정한 정치와 폭력의 세계를 그리는 이야기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상원 의원 아들 살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북유럽 최고의 탐정 소설에 주어지는 문학상인 〈유리 열쇠상〉의 유래가 된 작품으로, 코엔 형제의 영화 「밀러스 크로싱」(1990)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기도 하다.

266 로드 짐

조지프 콘래드 | 최용준 옮김 | 2021년 | 60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영국 문학의 거장 조지프 콘래드의 대표 장편소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두고 도망친 젊은 항해사 짐의 파멸과 방황, 모험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오랜 세월 실제 선원으로 일했던 콘래드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이 작품은, 짐이라는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과 고뇌를 통해 인간의 책임과 윤리, 문명 사이의 이해와 갈등을 첨예하게 펼쳐 보인다. 해양 문학의 대표 고전이자, 20세기 영국 문학의 기념비가 된 선구적인 걸작.

-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영문 소설 100선〉
- 르몽드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267~269 푸코의 진자

156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 2021년 | 전3권 | 각 392, 384, 416면 | B6 견장정 | 각 13,800원 eBook

〈성전 기사단 관련 원고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이야.〉 외인부대 대령이었다는 사람이 성전 기사단에 관한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왔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성전 기사단의 비밀을 마침내 자기가 풀어냈다고 자랑한다. 웃음을 참으며 듣고 있던 편집자들은 그에게 자비 출판을 권유한다. 그러나 다음 날 대령은 실종되고 마는데……. 에코의 가장 야심적이고 백과사전적인 소설.

- 1997 간행물윤리위 선정 〈대학신입생이 읽어야 할 좋은 책〉

270 공포로의 여행

에릭 앰블러 | 최용준 옮김 | 2021년 | 37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전쟁에 돌입한 국가들의 암투를 배경으로 한, 현대 스파이 소설의 아버지 에릭 앰블러의 걸작 장편소설. 국내 초역. 영국 엔지니어 그레이엄은 터키 정부와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길에 독일 정보부의 추격을 받는다. 터키 비밀경찰은 안전한 귀국을 위해 그를 작은 배에 승선시킨다. 그레이엄은 승객 중에 자기 생명을 위협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 헝가리 출신의 미녀 댄서, 독일 고고학자, 터키 담배 수출업자, 프랑스 사회주의자…….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그럭저럭 항해에 적응해 나갈 무렵, 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271 심판의 날의 거장

레오 페루츠 | 신동화 옮김 | 2021년 | 26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독일어권 문학의 거장 레오 페루츠의 전성기 대표작. 당시 대중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저택에서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목숨을 끊은 유명 배우의 죽음의 진상을 추적하며, 그와 관련된 연쇄 자살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스펜스, 추리, 공포, 환상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페루츠의 재능이 돋보이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272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

에드거 앨런 포 | 김석희 옮김 | 2021년 | 39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인간 내면의 음습한 지하실을 거침없이 파고들며 탐험하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환상과 공포, 미스터리 걸작 단편집. 배가 난파한 후 정체불명의 유령선에 타게 된 남자가 병 속에 남긴 마지막 기록을 담은 「병 속에서 발견된 수기」, 아끼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점차 파멸해 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검은 고양이」, 쌍둥이 여동생을 지하실에 매장한 후 설명할 수 없는 광기에 시달리는 남자의 이야기 「어셔가의 붕괴」, 세계 최초의 탐정 캐릭터 뒤팽이 등장하는 걸작 추리 단편 「모르그가의 살인」과 「도둑맞은 편지」 등 포의 대표 단편 12편을 엄선하여 수록했다.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273 수전노 외

몰리에르 | 신정아 옮김 | 2021년 | 42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프랑스 고전 희극의 출발점이자 완성자 몰리에르의 희곡을 엄선한 선집. 당시 희극은 중세부터 이어진 대중 소극(笑劇)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비극에 비해 저속한 것으로 취급받던 장르였다. 몰리에르는 웃음을 유발하는 소극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형식과 내용의 다양한 혁신을 통해 희극을 비극에 버금가는 위치로 끌어 올렸다. 이 책에 실린 「수전노」, 「남편들의 학교」, 「아내들의 학교」는 형식으로 연극사를 바꾸고 내용으로 사회 전체를 뒤흔든 그의 가장 강렬한 문제작들로서, 대중성과 도덕성이 조화롭게 버무려진 몰리에르식 고전 희극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 준다.

274 모파상 단편선

기 드 모파상 | 임미경 옮김 | 2021년 | 40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가이자 세계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단편 작가 중 하나인 모파상의 단편집. 전쟁 기간 중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위선을 보여 주는 걸작 「비곗덩어리」, 한 여자의 평생에 걸친 기이하고도 우직한 짝사랑 이야기 「의자 같이 하는 여자」, 전쟁 중 적군에게 붙들린 평범한 낚시꾼들의 이야기 「두 친구」, 비싼 목걸이를 빌렸다가 인생을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 「목걸이」 등 모파상의 가장 사랑받는 단편 20편을 엄선했다.

284
Books

275 평범한 인생

7

카렐 차페크 | 송순섭 옮김 | 2021년 | 28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프란츠 카프카, 밀란 쿤데라와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카렐 차페크. 『평범한 인생』은 차페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죽음 앞에서 자신의 〈평범한 인생〉을 돌아보며 새로운 〈자신들〉과 조우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사망한 한 철도 공무원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남긴 기록을 통해, 한 개인의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자아들을 조명하며 정체성의 진실을 탐구한다. 『호르두발』, 『별똥별』과 함께 차페크의 〈철학 3부작〉 소설 중 하나다.

276 마음

2

나쓰메 소세키 | 양윤옥 옮김 | 2022년 | 344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일본의 국민 작가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정수. 대학생인 〈나〉와 서른 무렵의 지식인인 〈선생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룬 소설이다. 〈나〉와 〈선생님〉의 만남과 우정, 세상과 단절된 채 정체 모를 고독 속에서 살아가던 〈선생님〉의 죽음과 자기 고백 등의 이야기를 세심히 그려 낸다. 메이지 말기의 급변하는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개인의 흔들리는 내면과 고독을 정교하게 묘사한 걸작으로 평가된다.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277 인간 실격 · 사양

2

다자이 오사무 | 김난주 옮김 | 2022 | 33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인간 실격』은 평생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너무도 순수하기에 위선적인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던 주인공 요조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작가 자신의 삶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사양』은 몰락해 가는 귀족 집안의 장녀 가즈코의 이야기로, 〈마지막 귀족〉이라 일컬어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비롯한 한 일가족의 애처로운 가족사를 그린다. 하지만 연이어 닥치는 불행 속에서도 〈사랑과 혁명〉을 꿈꾸며 생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가즈코의 모습은 기울어 가는 빛과 같은 몰락의 이야기에 희망의 여운을 남긴다.

278 279 작은 아씨들

2

루이자 메이 올컷 | 허진 옮김 | 2022년 | 전2권 | 각 408, 464면 | B6 견장정 | 각 14,800원 eBook

루이자 메이 올컷이 〈소녀들을 위한 소설〉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집필한 작품으로, 개성 넘치고 사랑스러운 마치 집안의 네 자매 메그, 조, 베스, 에이미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다룬 소설이다. 가난하지만 서로가 있어 풍요롭고 행복했던 유년기를 지나, 삶이 주는 풍파와 지혜를 깨닫는 어른이 되기까지, 그들이 겪는 고민과 시행착오, 깨달음과 희망을 공감 가는 필치로 생동감 있게 그려 낸다. 소녀들의 삶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가 희박하던 시대, 여성 성장 서사를 다룬 대표 문학으로서 기념비적인 한 획을 그은 이 작품은 이후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며 세계적인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BBC 선정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미국 전국 교육 협회 선정 〈교사를 위한 100대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데보라 G. 펠터 〈여성의 삶을 바꾼 책 50권

280 고함과 분노

윌리엄 포크너 | 윤교찬 옮김 | 2022년 | 520면 | B6 견장정 | 16,800원 **eBook**

현대 미국 문학의 거장 윌리엄 포크너의 대표작으로, 몰락해 가는 미국 남부의 명문가 콤슨 가문에 벌어진 일들을 그린 소설이다.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장녀 캐디, 캐디의 일탈과 그녀에 대한 뒤틀린 애정으로 괴로워하는 장남 퀜틴, 모든 것을 냉소하며 오직 돈에 대한 집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차남 제이슨,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막내 벤지. 돌이킬 수 없는 일들과 기억들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며 인물들은 시간 속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친다. 콤슨가 4남매의 비극을 통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남부 사회의 실상과 인간 실존의 비극성을 파고든 이 작품은, 강렬하고 파격적인 서술 기법으로 20세기 현대 문학사를 뒤흔든 걸작으로 손꼽힌다.

284
Books

- 194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하버드 대학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선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281 신화의 시대

2

토머스 불핀치 | 박중서 옮김 | 2022년 | 664면 | B6 견장정 | 21,800원 **eBook**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된 보고(寶庫)로서, 서구의 사상,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등 모든 문화 활동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불핀치는 독자들이 이런 신화에 대한 지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렵고 방대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고전 서사시들에 산재되어 있는 신화들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했다. 그렇게 완성된 『신화의 시대』는 오랜 세월 그리스 로마 신화집의 표준으로 불리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신화의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북유럽 신화, 게르만 신화, 인도 신화 등 세계의 주요 신화들이 실려 있다. 각 신화의 소개와 함께 그 신화가 인유된 다양한 영시 작품들 역시 곳곳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본문과 영시 인용문 모두를 빠짐없이 번역한 완전판으로, 기존 번역들과 원서들의 오류까지 바로잡았으며, 이해를 돕는 역주를 적극적으로 추가하여 충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했다.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282 셜록 홈스의 모험

2

아서 코넌 도일 | 오숙은 옮김 | 2022년 | 45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스 이야기의 정수를 담은 단편집. 빨강 머리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수께끼의 연맹 뒤에 도사린 범죄, 결혼식 당일 갑자기 종적을 감춰 버린 신랑의 정체, 죽음의 예고장처럼 배달되는 오렌지 씨앗의 비밀,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을 삼킨 거위의 사연, 홈스를 골탕 먹인 〈그 여자〉의 이야기 등 셜록 홈스가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받는 유명한 단편들이 담겨 있으며, 홈스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동료 왓슨 박사와 함께 범죄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기기묘묘한 사건들을 추적하는 홈스의 놀라운 활약상이 펼쳐진다.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추리 단편집〉으로 손꼽히는 아서 코넌 도일의 역작.

283 자기만의 방

3

버지니아 울프 | 공경희 옮김 | 2022년 | 216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 audioBook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독보적 작가이자 선구적 페미니스트인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과 문학의 문제를 논한 대표 에세이. 한 사람의 여성이자 작가로서, 그동안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압당해 온 여성들의 현실, 여성 문학의 가능성을 고민한 울프의 치열한 사유가 담겨 있다. 페미니즘 비평과 젠더 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오늘날 페미니즘의 가장 유명한 고전이자 강렬한 상징이 된 작품이다.

284 지상의 양식 · 새 양식

앙드레 지드 | 최애영 옮김 | 2022년 | 36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앙드레 지드의 대표작. 지상에서의 쾌락과 행복을 최대한 누리겠다는 결단과, 그 실천을 통해 몸소 경험한 환희를 기록한 비망록이자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탈주와 해방의 참고서〉이다. 이 책은 의도된 논리에 따라 쌓아 올린 매우 용의주도한 예술 작품으로, 문학이 지닌 해방의 힘을 드러내며 동시대 젊은이들, 숱한 작가들, 사르트르, 카뮈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생의 쾌락과 행복을 향한 열정과 열광 속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생의 설렘을 독자들도 기꺼이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지드의 간곡한 목소리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생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영미
문학

Sigrid Nunez 시그리드 누네즈
Sam J. Miller 샘 J. 밀러
Yaa Gyasi 야 지야시
Suzanne Redfearn 수잰 레드펀
Brit Bennett 브릿 베넷
Nicholas Searle 니컬러스 설
Cynthia D'Aprix Sweeney 신시아 다프리 스위니
Elizabeth Hand 엘리자베스 핸드
Max Barry 맥스 배리
James Baldwin 제임스 볼드윈
L. S. Hilton L. S. 힐턴
Graeme Macrae Burnet 그레임 맥레이 버넷
Helen DeWitt 헬렌 디윗
Sally Rooney 샐리 루니
Kevin Kwan 케빈 콴
Anthony Horowitz 앤서니 호로위츠
J. Ryan Stradal J. 라이언 스트라돌
Ian McGuire 이언 맥과이어
Paul Beatty 폴 비티
Jill Alexander Essbaum 질 알렉산더 에스바움
Hillary Rodham Clinton 힐러리 로댐 클린턴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Louise Penny 루이즈 페니
Jean Hanff Korelitz 진 한프 코렐리츠
Fred Uhlman 프레드 울만
Kevin Brooks 케빈 브룩스
E. Lockhart E. 록하트
Shelly King 셸리 킹
Simon Rich 사이먼 리치
Kingsley Amis 킹슬리 에이미스
Adam Haslett 애덤 해즐릿
Ali Smith 알리 스미스
Salman Rushdie 살만 루슈디
Colm Tóibín 콜럼 토빈
Sarah Waters 세라 워터스
Julian Barnes 줄리언 반스
David Brin 데이비드 브린
Isaac Asimov 아이작 아시모프
Tim Powers 팀 파워스
Charlaine Harris 샬레인 해리스
Roger Zelazny 로저 젤라즈니
C. J. Cherryh C. J. 체리

수확자 수확자 시리즈 1

닐 셔스터먼 | 이수현 옮김 | 2023년 | 512면 | B6 연장정 | 18,500원 | eBook

굶주림과 질병, 전쟁, 죽음까지도 모두 사라진 세상, 인구 조절을 위해 생명을 끝낼 의무를 가진 이들이 바로 〈수확자〉다. 유토피아 속에서 미지근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열여섯 소녀 시트라와 소년 로언은 어느 날 수확자 패러데이의 선택을 받아 수확자 수습생이 된다. 진짜 수확자가 될 수 있는 건 둘 중 한 명뿐, 그러나 시트라와 로언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한편 수확령 안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 간다.

- 2017 미국 도서관 협회 마이클 L. 프린츠상 아너 북
- 2021 『타임』 역대 최고의 YA 도서 100 선정

선더헤드 수확자 시리즈 2

닐 셔스터먼 | 이수현 옮김 | 2023년 | 576면 | B6 연장정 | 18,500원 | eBook

수확자 아나스타샤가 된 시트라는 수확자들의 조직인 〈수확령〉에 들어가 이 세계가 마냥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모든 수확자가 자신의 임무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사하는 건 아니다. 어떤 무리는 단순히 쾌락을 위해, 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생명을 수확하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수확자 루시퍼〉라 자칭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 부패한 수확자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107
Books

종소리 수확자 시리즈 3

닐 셔스터먼 | 이수현 옮김 | 2023년 | 736면 | B6 연장정 | 18,500원 | eBook

보수파와 신질서파의 보이지 않은 싸움 끝에, 결국 쾌락과 권력만 좇는 고더드가 미드메리카 고위 수확자 자리에 오른다. 전 세계 수확자들이 하나둘 충성을 바치는 가운데, 그에 저항하고 수확령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들이 아나스타샤를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다. 한편 선더헤드의 침묵으로 혼란에 빠진 세상에 〈종소리〉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만은 선더헤드의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드라큘라 일러스트판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 2022년 | 656면 | A5신 견장정 | 33,000원 eBook

환상 문학의 고전 『드라큘라』에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페르난도 비센테의 삽화들을 더했다. 이 일러스트판은 1992년 이세욱 번역가가 번역한 한국 최초의 완역판을 꼼꼼히 다듬어 새로 펴낸 개역판이기도 하다. 호러 소설의 대명사이자 수많은 뱀파이어 창작물의 원천이기도 한 『드라큘라』는 발간 당시에도 파격적인 서사로 인기를 누렸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풍부한 해석이 더해지면서 그 가치가 끊임없이 재발견되는 작품이다. 다양한 해석을 불러오는 이야기의 다면성과 오래도록 퇴색하지 않는 인물들의 매력 덕분에 영화와 뮤지컬로 거듭 만들어지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기도 하다.

집 안의 천사 죽이기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 1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 2022년 | 264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20세기 영문학의 기념비적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빼어난 에세이들을 테마별로 엄선한 선집의 1권. 버지니아 울프는 『등대로』와 『댈러웨이 부인』 등 모더니즘 문학의 걸작들을 남긴 소설가일 뿐 아니라, 정력적인 에세이스트이기도 했다.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전 4권)은 울프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에세이들 중 특히 핵심적이고 빼어난 60편의 산문을 엄선한 것으로, 테마별로 4권의 선집으로 엮어 울프의 세계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권 『집 안의 천사 죽이기』에서는 여성의 여건을 논하는 논쟁적인 글들부터 역사 속 흥미로운 여성 작가들의 삶을 스케치한 글들까지, 〈여성〉과 관련한 테마의 글들을 실었다.

문학은 공유지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 2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 2022년 | 280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제2권에서는 소설, 시, 에세이, 서평, 전기 등 다방면의 문학에 대한 울프의 예리한 통찰을 보여 주는 글들을 실었다. 울프는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문학이라는 드넓은 공유지에 길을 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지향했을까? 울프는 단순히 작가가 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학을 열어 가고자 했다. 그 밑바탕에 깔린 울프의 문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는 글들을 모았다.

어느 보통 독자의 책 읽기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 3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 2022년 | 256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울프는 작가인 동시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독자였고 진지한 평론가였다. 몽테뉴, 소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하디, 프루스트, 헤밍웨이 등등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울프는 어떤 시선으로 읽어 냈을까? 한 사람의 〈보통 독자〉이기를 자처했던 울프의 흥미진진한 독서 기록을 보여 주는 글들.

존재의 순간들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 4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 2022년 | 248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내밀한 가족사, 어린 시절의 빛나는 기억들, 블룸즈버리 그룹의 탄생 배경, 순간순간의 사소한 체험에서 날아드는 단상 등 울프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입을 여는 개인적인 기록들. 울프의 삶을 구성해 온 〈존재의 순간들〉을 담은 자전적인 글들과 신변 수필들.

스테이트 오브 테러 2

힐러리 로댐 클린턴, 루이즈 페니 | 김승욱 옮김 | 2022년 | 568면 | A5변형 연장정 | 17,800원 **eBook | audioBook**

미국 제67대 국무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힐러리 로댐 클린턴과 고전 미스터리의 전통을 계승한 캐나다 작가 루이즈 페니가 공동 집필한 블록버스터 스릴러. 저명한 정치인과 소설가의 조합이라는 점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현지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클린턴의 경험과 페니의 필력이 만나 탄생한

이 보기 드문 스릴러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치를 무대로 테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고군분투와 연대를 그린다.

친구

시그리드 누네즈 | 공경희 옮김 | 2021년 | 256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상실을 겪은 인물과 반려견의 연대라는 골자 안에 문학과 예술,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 화자의 관점이 감각적이고 우아하게 깃들어 있는 소설. 작은 아파트에 사는 화자인 〈나〉는 오갈 데 없어진 대형견 아폴로를 떠맡게 된다. 그저 〈당신의 개랑 있으니 당신의 일부가 여기 있는 느낌〉에 그치던 아폴로와의 관계는 서로를 보듬으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 2018년 전미도서상

슈퍼히어로의 단식법

샘 J. 밀러 | 이윤진 옮김 | 2021년 | 456면 | A5변형 연장정 | 15,800원 **eBook**

청소년의 동성애와 거식증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진지함과 유쾌함의 균형을 잃지 않는 소설. 주인공 맷은 외모에 대한 강박,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가난, 외로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고민들을 끌어안고 있는 소년이다. 평소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만화나 영화를 좋아하고 「해리 포터」나 「스타워즈」를 자주 인용하는 맷. 얼핏 보면 이 소설도 무시당하던 주인공이 각성하여 영웅이 된다는 전형적인 스토리를 따라가는 듯하다. 그러나 맷이 뻔한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맷의 초능력은 특이하게도 굶주려야만 발현이 된다. 과연 이 초능력은 진짜일까?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환각에라도 빠진 걸까?

- 2017년 NPR 선정 〈올해의 책〉
- 2018년 안드레 노턴상
- 2018년 로드스타상 최종 후보

밤불의 딸들

야 지야시 | 민승남 옮김 | 2021년 | 456면 | B6 연장정 | 15,800원 **eBook**

18세기 가나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다른 자매인 에피아와 에시의 인생 역경을 아프리카와 가나, 영국을 배경으로 300여 년의 역사를 8세대에 걸쳐 풀어낸 서사적 플롯으로, 지금의 〈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역사를 담아 내었다는 극찬을 얻고 있다.

- 2017 영국 딜런토머스 문학상
- 2018 국제 더블린 문학상 후보

티핑 더 벨벳 개역판

2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 2020년 | 632면 | B6 견장정 | 17,800원 **eBook**

세라 워터스의 대담한 데뷔작이자 빅토리아 시대 3부작의 출발점. 바닷가 마을의 굴 식당집 딸 낸시는 평범한 열여덟 살 소녀다. 마을에는 극장이 없어 기차로 15분 걸리는 캔터베리까지 가야 하지만, 낸시는 극장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런 이 소녀의 삶은 어느 날 남장 여가수 키티의 공연을 본 후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다. 키티를 향한 사랑을 주체하지 못한 낸시는 결국 고향과 가족을 뒤로한 채 키티를 따라 런던으로 향하는데…….

- 1999년 베티 트래스크상
- 1999년 람다 문학상

끌림 개역판

2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 2020년 | 544면 | B6 견장정 | 17,800원 **eBook**

빅토리아 시대 영국, 상류층 숙녀 마거릿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방문하는 자선 활동을 하기로 한다. 런던에 있는 밀뱅크 감옥을 방문한 마거릿은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달리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영매 셀리나를 만난다. 처음에는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는 셀리나의 말을 믿지 않던 마거릿은 서서히 셀리나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점점 더 자주 감옥을 찾게 되는데…….

- 2000년 서머싯 몸상

핑거스미스

34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 2006년 | 728면 | B6 견장정 | 18,800원 **eBook**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 소설로 영미권에서 선풍적인 인기와 높은 평가를 동시에 얻고 있는 영국 작가 세라 워터스의 대표작. 소매치기들의 품에서 자라난 아이와 뒤바뀐 출생, 유산 상속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모습을 통해 도덕적으로 보였던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사회상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 2002년 영국 부커상 후보
- 2002년 영국 추리작가 협회 역사소설 부문상
- 2002년 영국 도서상 〈올해의 작가〉 부문상
- 2002년 영국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올해의 책〉
- 2003년 영국 『그란타』 선정 영국 최고의 젊은 작가 20인
- 2004년 일본 『코노미스』 선정 올해의 해외 미스터리 1위
- 박찬욱 감독 영화 「아가씨」 원작

한순간에

5

수잰 레드펀 | 김마림 옮김 | 2020년 | 496면 | B6 연장정 | 17,800원 **eBook**

한겨울, 스키 여행 중 갑작스러운 자동차 추락 사고로 막내딸 핀이 즉사한다.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혹한의 상황에 두 가족이 무방비로 놓여 있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한 켤레의 어그 부츠와 한 쌍의 장갑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하게 된다. 참혹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감동적이면서 밀도 있게 펼쳐 낸다.

나디아 이야기

브릿 베넷 | 정연희 옮김 | 2020년 | 44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나디아 터너는 고등학교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예정대로 가을에 집을 떠나면 그녀는 가족 중 최초로 대학에 진학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떠나는 날을 앞두고

그녀는 그 지역 목사 아들과 사귀게 된다. 루크 셰퍼드는 스물한 살의 잘생긴 청년이다. 한때 인기 있는 풋볼 스타였으나 부상을 입은 뒤 삶의 방향성을 잃고 지금은 테이블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둘만 아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그 연애는 결국 청년기를 훨씬 넘겨서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6년 가을을 빛낼 대작〉

굿 라이어

3

니컬러스 설 | 이윤진 옮김 | 2019년 | 544면 | B6 연장정 | 16,800원 eBook

헬렌 미렌, 이언 매켈런 주연 영화 「굿 라이어」 원작 소설. 영국 정보부 등에서 25년 동안 일했던 니컬러스 설이 은퇴 후 처음으로 낸 데뷔작이다. 주인공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나이 지긋한 남녀, 로이와 베티다. 알고 보니 로이는 베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하지만 베티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점차 과거의 비밀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렉시콘

맥스 배리 | 최용준 옮김 | 2020년 | 592면 | B6 연장정 | 17,800원 eBook

언어로 사람을 조종하는 특수 능력자 〈시인〉들이 주인공인 디스토피아 스릴러. 미국에 있는 한 비밀스러운 아카데미에서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아 언어의 숨겨진 힘과 타인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친다. 졸업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시인으로 불리며 버지니아 울프, T. S. 엘리엇 등 고인이 된 유명 작가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얻는다. 시인들이 노리는 것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날단어〉와 날단어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치외자〉. 단어 하나를 둘러싸고 생사를 오가는 음모와 추격전이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

제임스 볼드윈 | 고정아 옮김 | 2020년 | 30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할렘의 한 거리, 어릴 때부터 이웃이었던 티시와 포니는 함께 미래를 꿈꾸는 연인으로 발전한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 집을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쳐 이유 없이 포니를 체포했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강간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간다. 마침 티시는 아기를 가지고, 포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 티시와 그녀의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포니를 용의자로 지목했던 로저스 부인이 사라지고, 포니의 무죄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1970년대 미국, 인종 차별로 인한 고통과 분노가 깔려 있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폭력적이고 차별적이고 부당한 처벌을 받는 한 연인의 이야기가 담긴 장편소설.

단지 흑인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다

제임스 볼드윈 | 박다솜 옮김 | 2020년 | 16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1960년대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력하고 도발적인 선언문.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사의 위대한 축이자 민권 운동가인 제임스 볼드윈의 예언적이고, 맹렬하고, 영적이고, 야만적이고, 명료한 두 편의 에세이. 이 에세이로 제임스 볼드윈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첫 번째 에세이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조카에게 보내는 〈나의 감옥이 흔들렸다: 노예 해방 1백 주년을 맞아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두 번째 글인 〈십자가 아래에서: 내 마음속 구역에서 보낸 편지〉는 모든 미국인에게 보내는 글이다. 〈뉴요커〉는 1960년대 인종 관계에 관한 영향력 있는 책으로 이 책을 꼽았다.

조반니의 방

제임스 볼드윈 | 김지현 옮김 | 2019년 | 35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제임스 볼드윈의 대표 장편. 성 소수자 문제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시킨 소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는 미국인 데이비드는 어느 날 바에서 이탈리아인 바텐더 조반니를 보게 된다. 약혼녀가 있음에도, 조반니에게 한눈에 사로잡힌 데이비드는 곧 그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중산층 백인으로 하는 일 없이 떠돌며 빈둥거리는 데이비드와 좁고 더러운 하녀 방에서 지내며 생계에 전전긍긍하는 조반니의 처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 피터 박스올 선정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 1957년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작

107
Books

마에스트라

L. S. 힐턴 | 이경아 옮김 | 2019년 | 520면 | B6 연장정 | 15,800원 **eBook**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멋진 여성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주디스. 모조품을 진품으로 착각한 상사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정신이 없다. 하지만 상사는 오히려 그녀를 해고한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녀는 어느 날 모조품을 진품으로 팔아넘겨 거액을 챙기려는 상사의 사기 행각에 관련된 한 인물을 만난다. 주디스는 그 사기 행각의 과정에서 교묘하게 거액을 가로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미행하는 남자를 발견한다. 근사한 퇴폐미, 매혹적이고 영리하고 흥분되는 미술 서스펜스.

블러디 프로젝트

3

그레임 맥레이 버넷 | 조영학 옮김 | 2019년 | 400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1869년 스코틀랜드 북부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아홉 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 컬두이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인 열일곱 살 소년 로더릭 맥레이가 세 사람을 삽과 호미로 잔인하게 죽인 것이다. 로더릭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로와 범행 동기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 2016년 맨부커상 최종 후보작
- 2016년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 최고의 미스터리 10〉
- 2016년 샐타이어 소사이어티 〈올해의 소설〉

- 2017년 선데이 헤럴드 문화상(SHCA) 〈올해의 작가〉 선정
- 2017년 브레이 네덜란드 〈올해 최고의 스릴러〉

피뢰침

헬렌 디윗 | 김지현 옮김 | 2018년 | 44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실패한 세일즈맨 조는 직장 내 성추행 예방을 위한,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 아이템을 들고 세상에 나선다. 이 남다른 천재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일렉트로룩스 청소기와 달리 자신이 〈피뢰침 시스템〉이라 이름 붙인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끝내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벽에 구멍을 뚫고, 여직원들을 고용해 그가 벌인 일은 보는 이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한다. 끝내주게 웃기는 주인공 조를 통해 헬렌 디윗은 성차별, 인종 차별, 종교, 정치, 자본주의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끄집어 올린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거침없이 종횡무진하는 유머를 뒤섞어 현대 소설의 한 장을 새로이 펼쳐 보인다.

- 2013년 『플래버와이어』 〈문학 부문 지난 5년을 대표하는 50권의 책〉
- 2013년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선정 〈최고의 책 10권〉
- 『화이트 리뷰』 선정 〈편집자의 선택〉

친구들과의 대화

3

샐리 루니 | 허진 옮김 | 2018년 | 440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데뷔와 동시에 〈스냅챗 세대의 샐린저〉, 〈프레카리아트의 제인 오스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새천년을 대표하는 위대한 젊은 작가로 지목된 샐리 루니의 데뷔작. 트리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스물한 살의 여대생 프랜시스와 보비. 유명 사진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멀리사와 그의 남편 닉과 복잡한 만남을 이어 나가는데……. 인간 심리를 해부하는 보석 같은 정교함과 날카로운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 선데이 타임스』 선정 〈올해의 젊은 작가〉
- 『옵서버』 선정 〈올해의 떠오르는 스타〉
- 2018년 맨부커상 후보 작가
- 2019년 영국 도서상 수상 작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2

케빈 콴 | 이윤진 옮김 | 2018년 | 전2권 | 41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흥행 수익 2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원작 소설. 뉴요커 레이철과 그녀의 남자친구 닉의 사랑을 중심으로, 엄청난 아시아 갑부들의 실상을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럭셔리한 패션 브랜드가 난무하고, 세계 각지로 배경이 휙휙 바뀌며, 독특한 음식들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맥파이 살인 사건

7

앤서니 호로위츠 | 이은선 옮김 | 2018년 | 624면 | B6 연장정(커버) | 15,800원 **eBook**

아서 코넌 도일 재단에서 처음 출간하는 공식 셜록 홈스의 작가 앤서니 호로위츠의 추리 소설. 고전 탐정 소설의 황금시대를 재현한 액자 소설이다. 잇따른 의문의

죽음, 현학적인 탐정, 어수룩한 조수와 오지랖 넓은 참견꾼, 특이한 목사 등 애거사 크리스티에 대한 오마주를 엿볼 수 있다. 클로버리프 북스의 편집자인 수전 라일랜드는 인기 추리 소설가인 앨런 콘웨이의 담당 편집자로 콘웨이의 신작 〈맥파이 살인 사건〉 초고를 전달받는데… 원고 속 등장인물들의 미심쩍은 행동과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이 현실과 결합해 밀도 있게 다뤄진다.

- 『뉴욕 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 『워싱턴 포스트』, 『에스콰이어』, NPR 선정 〈올해 최고의 책〉
- 『데일리 메일』 〈올해 최고의 범죄 소설〉
- 2019년 일본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해외부문 1위
- 2019년 일본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 해외부문 1위
- 2018년 『주간문춘』 선정 〈미스터리 베스트 10〉

다운빌로 스테이션

2

C. J. 체리 | 최용준 옮김 | 2018년 | 전2권 | 45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SF 역사상 최고 걸작 중 하나이자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대표작. 국내 초역. 체리는 당시 SF계에 희귀했던 여성작가로서, 이 책으로 휴고상을 수상했다. 『다운빌로 스테이션』은 27권의 장편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유니언-동맹 소설〉의 첫 권이자 체리의 대표작이다. 우주가 개발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구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구 세력과 신세계(우주) 세력 간의 갈등이 기나긴 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과, 그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지어진 스테이션들.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민간 기업 〈지구 컴퍼니〉이다. 스테이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물자를 교환하는 상선들도 생겼다. 스테이션과 상선들은 아직 지구에 의존적이었다.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지구에서 조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룡 기업인 컴퍼니는 스테이션들이 몇 광년 떨어져 있건 상관없이 권력을 휘둘렀다. 이때 작물 재배가 가능한 〈펠〉이라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 1982년 휴고상
- 로커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SF 50선〉

위대한 중서부의 부엌들

2

J. 라이언 스트라돌 | 이경아 옮김 | 2018년 | 49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한 놀라운 미각을 가진 여성인 천재 셰프 에바 토르발의 이야기. 친부모를 잃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외롭게 성장한 소녀 에바는, 그녀의 고향인 미국 중서부 지역의 음식들 속에서 스스로를 위한 구원과 위안을 얻는다. 음식과 관련된 여러 등장인물들의 우습고도 슬픈 사연들을 통해 재미, 감동, 각종 요리 레시피에 대한 풍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 미국 독립 서점 연합 선정 〈독립 서점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문학상〉
- 미국 중서부 독립 서점 연합 선정 〈중서부 서점들이 뽑은 최고의 문학상〉
- 2015년 아마존 문학 분야 〈올해 최고의 책 100권〉
- 2015년 『라이브러리 리즈』 선정 〈올해의 책〉, 〈최고의 책 중의 최고의 책〉
- 2015년 시카고 공공 도서관 선정 〈올해 최고의 책〉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얼어붙은 바다 3

이언 맥과이어 | 정병선 옮김 | 2017년 | 42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포경선 선원들의 항해를 그린 『얼어붙은 바다』는 추위, 잔혹함, 더러움, 폭력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마치 독자들이 볼런티어호에 탑승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극한의 상황 속에 내던져진 등장인물들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 2016년 가디언 〈올해 최고의 책〉 선정
- 2016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 내가 읽은 최고의 책〉
- 2017년 영국 왕립 문학 학회 앙코르 어워드 수상
- 2017년 영국 역사 작가 협회상 소설 부문 수상
- 2017년 프랑스 장 드 메르상
- 2017년 프랑스 앙크르 마린상

배반 5

폴 비티 | 이나경 옮김 | 2017년 | 40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외 가상의 마을을 무대로, 현대 미국에 노예 제도와 인종 분리 정책이 복구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흑인 미Me가 미국 대법원 법정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해 그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짚어 나가는 방식으로 흘러가며,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미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다.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맨부커상을 수상했다.

- 2016년 맨부커상
- 2015년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
-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올해의 책〉
- 커커스 리뷰 〈올해의 책〉
- 보스턴 글로브 〈올해의 책〉
-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

하우스프라우 2

질 알렉산더 에스바움 | 박현주 옮김 | 2017년 | 41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대담한 성(性) 묘사와 섬세한 심리 묘사가 교차하는 소설! 제목 〈하우스프라우 Hausfrau〉는 독일어로 가정주부, 기혼 여성을 뜻한다. 주인공은 스위스인과 결혼해 그곳에서 사는 미국인 안나로, 우울과 외로움 속에서 안나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다. 파국으로 빠져드는 한 여성의 삶과 내면을 탁월하게 묘사했다. 주인공의 이름과 소재의 유사성으로 〈현대판 안나 카레니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15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 2018년 제12회 유영번역상 수상
- 2017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진작 알았어야 할 일 3

진 한프 코렐리츠 | 김선형 옮김 | 2017년 | 648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코렐리츠의 네 번째 장편소설.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중년의 여성인 심리 치료사가 어느 날 맞닥뜨린 충격적인 진실을 중심으

로 사건이 펼쳐지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유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맨해튼 상류층의 생활과 심리적 풍광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하는 한편, 그 이면에 도사린 진실을 거침없이 해부하며 놀라운 흡입력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작품이다.

● 워싱턴 포스트 선정 〈올해의 최고 스릴러 소설 5권〉

동급생 30

프레드 울만 | 황보석 옮김 | 2017년 | 16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두 소년의 아름답고 슬픈 우정 이야기를 담은 짧지만 완벽한 걸작, 불후의 우정 소설!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시대를 다룬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나치가 독일을 장악해 가는 1930년대 독일을 배경으로 유대인 소년과 독일 귀족 소년의 우정을 그렸다. 독일 서남부 슈투트가르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두 소년의 우정 이야기는 히틀러와 나치즘이 대두하는 시대적 배경과 절묘하게 병치되어, 독자들을 제2차 세계 대전의 잔학상에 나뒹굴게 하지 않고도 인간의 추악함과 숭고함을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 2017 출판진흥원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스타타이드 라이징 4

데이비드 브린 | 최용준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400, 384면 | B6 견장정 | 각 12,800원 **eBook**

미국 SF 문학의 거장이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브린의 대표작이다. 우주 공간에서 전설 속의 고대 유령선단을 발견한 지구 우주선 스트리커호가 그들을 추적하는 은하 종족들에 맞서 역경을 헤쳐 나가는 모험을 다뤘다. 웅장하고 치밀한 세계관과 설정들, 흥미로운 전개, 탁월한 상상력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우주를 무대로 전개되는 공상 과학 장르인 〈스페이스 오페라〉의 모범이 되는 소설이자 1980년대 스페이스 오페라의 부흥기를 이끈 걸작으로 평가된다. SF 최고 문학상인 휴고상과 네뷸러상, 로커스상을 수상했다.

● 1983년 네뷸러상
● 1984년 휴고상
● 1984년 로커스상
● 로커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SF 50선〉

아자젤 6

아이작 아시모프 | 최용준 옮김 | 2015년 | 360면 | B6 견장정 | 12,800원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빚어낸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 이끌어 가는 18편의 단편 모음집. 풍자에 풍자가 꼬리를 물고, 독설을 독설로 맞받아치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독특한 인간 풍자 소설. 성서에 등장하는 타락 천사 아자젤을 소설 속으로 끌고 들어와, 소원을 들어주는 2센티미터짜리 악마로 재창조했다. 아자젤을 우리 세계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조지 비터넛은 1인칭 화자로 등장하는 아이작 아시모프 자신, 즉 [나]에게 아자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럭키 짐

킹슬리 에이미스 | 김선형 옮김 | 2015년 | 384면 | B6 견장정 | 12,800원

블랙 유머의 정수라 일컬어지며 1954년 출간 후 현재까지도 〈가장 웃긴 영미 문학〉으로 끊임없이 회자되는, 킹슬리 에이미스의 대표작. 계약직 대학 강사 짐 딕슨이 역사과 교수인 웰치의 가족과 얽히면서 겪게 되는 파란만장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상사에게 치이고 처자에게 휘둘리는, 되는 일 하나 없는 짐 딕슨의 삶에 마치 사고처럼 뛰어든 인물들이 파란만장한 코미디를 펼쳐 보인다.

- 1955년 서머싯 몸상
- 『에스콰이어』 선정 〈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75권〉

오스카 와일드, 아홉 가지 이야기

7

오스카 와일드 | 최애리 옮김 | 2015년 | 28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I audioBook**

오스카 와일드가 세상에 남긴 두 권의 동화집 『행복한 왕자와 그 밖의 이야기들 *The Happy Prince and Other Tales*』(1888), 『석류의 집*A House of Pomegranates*』(1891)에 실린 총 아홉 편의 동화를 묶은 책이다. 1888년 발표되어 와일드에게 첫 명성을 안겨 준 작품인 『행복한 왕자와 그 밖의 이야기들』은 출간 후 큰 호평을 받았으며 와일드가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전환점 역할을 했다. 이 책에 대해 『유니버설 리뷰』는 〈오스카 와일드의 천재성을 유감 없이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제비와 조각상의 따뜻한 우정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 「행복한 왕자」부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부와 그의 영혼」까지 오스카 와일드가 19세기 영국 문단의 가장 찬란한 주목을 받던 시기에 쓴 작품들이다.

- 2015년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107
Books

호텔 월드

알리 스미스 | 이예원 옮김 | 2011년 | 304면 | B6 견장정 | 10,800원

시적이고 감각적인 언어, 실험적인 기법들을 활용해 이야기를 능란하게 설계해 내는 작가 알리 스미스의 대표작. 소도시의 한 호텔, 열아홉 살의 룸메이드가 장난삼아 올라탄 식기 승강기에서 추락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삶이 드나드는 호텔을 배경으로 죽음과 상실이라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독창적인 상상력과 날카로운 위트로 유쾌하고도 부드럽게 다루고 있으며, 낯선 이들의 삶이 얽혀 만들어 낸 우연한 교감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냈다.

- 2001 스코틀랜드 예술 협회 도서상
- 2001 부커상, 오렌지상 후보
- 2002 앙코르상
- 2013년 Scottish Book Trust 선정 〈지난 50년 최고의 스코틀랜드 책 50선〉

디클레어

2

팀 파워스 | 김민혜 옮김 | 2012년 | 전2권 | 각 416, 424면 | B6 견장정 | 절판

사생아로 태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국 비밀 정보기관의 일원으로 훈련을 받아 온 앤드루 헤일.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외삼촌〉이라는 명목으로 자신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을 찾아온 시어도라의 지시를 받아 소련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며 정보를 빼내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련이 수호천사로 삼기 위해 이슬람교의 정령 진을 불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일은 〈디클레어〉라는 비밀 작전을 통해 진의 소환을 저지하려 하는데……. 케임브리지 출신 엘리트로 영국과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활약하며 20세기를 뒤흔든 킴 필비 사건을 모티브로 한 판타지 스릴러. 세계 곳곳을 배경으로 성서와 코란의 계시 및 아랍 설화 속 정령과 스파이들의 첨예한 두뇌 싸움이 절묘하게 맞물린 파워스 최고의 걸작!

- 2001년 국제 호러 협회상
- 2001년 세계 환상 문학상

둥지

신시아 다프리 스위니 | 조동섭 옮김 | 2019년 | 552면 | B6 견장정 | 절판

와일딩 홀

엘리자베스 핸드 | 이경아 옮김 | 2019년 | 312면 | B6 견장정 | 절판

- 2015 셜리 잭슨 수상작

107
Books

벙커 다이어리

케빈 브룩스 | 오숙은 옮김 | 2017년 | 368면 | B6 견장정 | 절판

- 2014년 카네기 메달 수상작

3

우리는 거짓말쟁이

E. 록하트 | 하윤숙 옮김 | 2017년 | 312면 | B6 견장정 | 절판

- 2014년 『혼 북』 선정 올해의 소설
- 2014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올해의 소설
- 〈굿리즈 초이스 어워즈〉 영 어덜트 부문 베스트 소설
- 미국 도서관 협회 선정 우수 소설

4

모든 일이 드래건플라이 헌책방에서 시작되었다

셸리 킹 | 이경아 옮김 | 2016년 | 360면 | B6 견장정 | 절판

지상의 마지막 여친

사이먼 리치 | 이윤진 옮김 | 2016년 | 272면 | B6 견장정 | 절판

5

천국 주식회사

사이먼 리치 | 이윤진 옮김 | 2014년 | 320면 | B6 견장정 | 절판

4

노예 12년

솔로몬 노섭 | 오숙은 옮김 | 2014년 | 336면 | B6 연장정 | 10,800원 **eBook**

런던 필즈

마틴 에이미스 | 허진 옮김 | 2012년 | 전2권 | 각 432, 408면 | B6 견장정 | 절판

비즈니스

이언 뱅크스 | 박현주 옮김 | 2012년 | 448면 | B6 견장정 | 절판

히페리온의 몰락 2

댄 시먼스 | 최용준 옮김 | 2011년 | 744면 | B6 견장정 | 절판

수치

살만 루슈디 | 김선형 옮김 | 2011년 | 432면 | B6 견장정 | 절판

- 1983 부커상 후보
- 1984 프랑스 최우수 외국 문학상

007 데블 메이 케어

시배스천 폭스 | 김진준 옮김 | 2011년 | 344면 | B6 견장정 | 절판

유니언 애틀랜틱

애덤 해즐릿 | 박산호 옮김 | 2011년 | 368면 | B6 견장정 | 10,800원

공범

이언 뱅크스 | 이예원 옮김 | 2011년 | 392면 | B6 견장정 | 절판

게임의 명수

이언 뱅크스 | 김민혜 옮김 | 2011년 | 496면 | B6 견장정 | 절판

브루클린 4

콜럼 토빈 | 오숙은 옮김 | 2011년 | 352면 | B6 견장정 | 절판

- 2009년 코스타상 최우수 소설상
- 2009년 맨부커상 후보
- 아마존닷컴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선데이 타임스」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가디언」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가디언」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책 20권〉
- 「텔레그래프」 선정 〈2009년 최고의 소설〉
- 『그란타』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스펙테이터」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아이리시 타임스」 선정 〈2009년 최고의 책〉
- 『뉴요커』 선정 〈독자들이 뽑은 2009년의 책〉

대수학자

이언 뱅크스 | 김민혜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368, 472면 | B6 견장정 | 절판

- 2006년 아마존닷컴 에디터 선정 SF/판타지 소설 1위

나의 마지막 장편소설

존 파울즈 | 이종인 옮김 | 2010년 | 전2권 | 각 508, 664면 | B6 견장정 | 절판

히페리온 2

댄 시먼스 | 최용준 옮김 | 2009년 | 616면 | B6 견장정 | 절판

라미아가 보고 있다

팀 파워스 | 김민혜 옮김 | 2009년 | 640면 | B6 견장정 | 절판

다리
이언 뱅크스 | 이예원 옮김 | 2009년 | 432면 | B6 견장정 | 절판

● 2013년 Scottish Book Trust 선정 〈지난 50년 최고의 스코틀랜드 책 50선〉

사랑, 그리고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9년 | 316면 | B6 견장정 | 절판

레몬 테이블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8년 | 312면 | B6 견장정 | 절판

유리 속의 소녀
제프리 포드 | 이수현 옮김 | 2008년 | 384면 | B6 견장정 | 절판

메트로랜드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7년 | 280면 | B6 견장정 | 절판

● 1981년 서머싯 몸상

플레바스를 생각하라
이언 뱅크스 | 김민혜 옮김 | 2007년 | 612면 | B6 견장정 | 절판

리옹 도르의 여인
시배스천 폭스 | 이예원 옮김 | 2007년 | 332면 | B6 견장정 | 절판

바보의 알파벳
시배스천 폭스 | 오숙은 옮김 | 2006년 | 384면 | B6 견장정 | 절판

● 2007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에보니 타워
존 파울즈 | 정영문 옮김 | 2006년 | 424면 | B6 견장정 | 절판

사십 일
짐 크레이스 | 김석희 옮김 | 2006년 | 344면 | B6 견장정 | 절판

매혹
크리스토퍼 프리스트 | 김상훈 옮김 | 2006년 | 432면 | B6 견장정 | 절판

나를 만나기 전 그녀는
2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6년 | 272면 | B6 견장정 | 절판

10½장으로 쓴 세계 역사
12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6년 | 448면 | B6 견장정 | 절판

치티치티 뱅뱅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언 플레밍 | 존 버닝햄 그림 | 김경미 옮김 | 2006년 | 144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초밥
메리언 키스 | 민승남 옮김 | 2006년 | 전2권 | 각 360, 296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107
Books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고슴도치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5년 | 232면 | B6 견장정 | 절판

새의 노래
3
시배스천 폭스 | 황보석 옮김 | 2005년 | 688면 | B6 견장정 | 절판

초록 돌고래의 거리
시배스천 폭스 | 이예원 옮김 | 2005년 | 500면 | B6 견장정 | 절판

내 말 좀 들어 봐
3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5년 | 352면 | B6 견장정 | 절판
- 1992년 프랑스 페미나상

태양을 바라보며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5년 | 312면 | B6 견장정 | 절판

플로베르의 앵무새
12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5년 | 312면 | B6 견장정 | 절판
- 1985년 영국 제프리 페이버 기념상
- 1986년 프랑스 메디치상
- 1986년 미국 문예 아카데미 E. M. 포스터상
- 1987년 독일 구텐베르크상
- 2005년 동아일보 선정 〈20세기 신고전 50선〉

둠즈데이 북
4
코니 윌리스 | 최용준 옮김 | 2005년 | 824면 | B6 견장정 | 절판

말벌 공장
3
이언 뱅크스 | 김상훈 옮김 | 2005년 | 304면 | B6 견장정 | 절판
- 1997년 워터스톤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소설 1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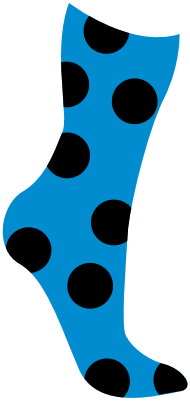
초콜릿
7
조앤 해리스 | 김경식 옮김 | 2004년 | 320면 | B6 연장정 | 절판

하이 크라임스
조지프 파인더 | 이창식 옮김 | 2004년 | 400면 | B6 연장정 | 절판

만티사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 2004년 | 296면 | B6 견장정 | 절판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17
로저 젤라즈니 | 김상훈 옮김 | 2002년 | 504면 | B6 견장정 | 절판

그 겨울의 끝
이디스 워튼 | 김욱동 옮김 | 2002년 | 208면 | B6 견장정 | 절판



미사고의 숲 9

★ 세계 환상 문학상 대상

로버트 홀드스톡 | 김상훈 옮김 | 2001년 | 416면 | B6 견장정 | 절판

- 1984년 영국 SF 협회상
- 1985년 세계 환상 문학상 대상
- 2003년 프랑스 환상 문학상 특별상

개는 말할 것도 없고 9

코니 윌리스 | 최용준 옮김 | 2001년 | 752면 | B6 견장정 | 절판

키리냐가 유토피아의 우화 4

마이크 레스닉 | 최용준 옮김 | 전2권 | 2000년 | 각 288, 260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내 안의 프로방스 4

피터 메일 | 황보석 옮김 | 1995년 | 528면 | B6 견장정 | 절판

남회귀선

헨리 밀러 | 정성환 옮김 | 1991년 | 392면 | A5 | 절판

107
Books

수키 스택하우스 시리즈

죽음의 계산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2년 | 432면 | B6 견장정 | 절판

댈러스의 살아 있는 시체들 6
샬레인 해리스 | 최용준 옮김 | 2009년 | 336면 | B6 견장정 | 절판

어두워지면 일어나라 9
샬레인 해리스 | 최용준 옮김 | 2006년 | 396면 | B6 견장정 | 절판

죽음의 손길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2년 | 256면 | B6 견장정 | 절판

죽여도 가족 2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1년 | 408면 | B6 견장정 | 절판

죽고 사라지다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1년 | 352면 | B6 견장정 | 절판

죽는 게 나아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1년 | 416면 | B6 견장정 | 절판

우리는 시체들 2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1년 | 424면 | B6 견장정 | 절판

돌아올 수 없는 죽음 2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0년 | 440면 | B6 견장정 | 절판

완전히 죽다 3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0년 | 400면 | B6 견장정 | 절판

죽어 버린 기억 4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10년 | 416면 | B6 견장정 | 절판

죽은 자 클럽 4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 2009년 | 344면 | B6 견장정 | 절판

Interview

세라 워터스 인터뷰

『핑거스미스』를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반이 걸렸어요. 등장인물과 플롯을 만들어 가며 탄탄한 조사를 했던 3개월을 포함해서요. 그 뒤로 글을 써나가면서 자료 조사를 더 했죠.

『핑거스미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나요?

전 빅토리아 소설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센세이션 소설〉이라 알려진 19세기 장르를 사랑하게 되었죠. 통속극적이며 고딕풍이고 또한 예기치 못한 급변과 반전으로 가득한 소설들이요. 정말로 열중했어요. 그 소설들에는 강인하고 흥미로운 여성들이 등장했고요. 저는 〈센세이션 소설〉의 전통을 살리면서 동시에 현대의 편견도 언급할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점잖은 소설에서는 언급할 수 없었던 레즈비언의 욕망이나 포르노그래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떤 책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나요?

제가 읽은 모든 책이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향을 받은 책들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 앤절라 카터의 『서커스의 밤』과 『피로 물든 방』이에요.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가 『핑거스미스』에 영향을 주었군요?

다소는요. 『올리버 트위스트』가 첫 쪽에 나오죠. 수가 어렸을 때 『올리버 트위스트』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랜트 스트리트의 부엌은 디킨스의 도둑들 소굴과 비슷하게 묘사하려고 했어요. 석스비 부인은 일종의 여자 페이긴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위대한 유산』 매그위치의 여성 버전이기도 하죠.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소설을 세 권 쓴 뒤 1940년대로 옮겨 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세 권을 쓸 때는 빅토리아 시대 배경을 사용하는 게 좋았지만, 이러다가는 19세기에만 집착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9세기에 오래 있을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죠. 또 중요한 점은, 다른 시대로 옮겨 갔을 때 제 글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더 쓸 계획은 없나요?

19세기로 당장 돌아갈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여전히 그 시대와 그 시대에 나온 소설들에 빠져 있으니까요.

소설 속 인물은 순전히 상상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오는 건가요?

한두 명쯤은 아는 사람한테 빌려 왔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알죠. 〈이 등장인물은 어떤 성격이죠?〉라는 질문을 받으면 결국 〈이 사람은 누구랑 닮았더라?〉 하고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황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세밀한 부분들은 실제 삶에서 훔쳐 와요. 친구나 그냥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한테서요. 그렇게 훔쳐 온 부분을 내가 잘 섞고 위장해서 당사자들은 제가 그 부분을 가져와 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군요!

수나 모드가 당신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나요?

제가 만든 등장인물 모두에 조금씩은 제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수는 저와 정말로 달라요. 수가 훨씬 더 대담하고 기지가 뛰어나죠. 하지만 모험을 하고 싶은 제 충동을 수를 통해 달랠 수 있던 건 재미있었어요. 모드는 좀 더 나와 비슷해요. 우리 둘 다 아주 신경과민이며 아주 비밀주의이거든요.

작품에서 가장 맘에 드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대답하기 어렵군요. 저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을 다른 방식으로 좋아해요. 『티핑 더 벨벳』의 낸시는 아주 소중하죠. 제 첫 번째 여주인공이니까요. 『핑거스미스』의 젠틀먼도 좋아해요. 지독한 악당이잖아요! 『나이트 워치』의 주인공 케이도 아주 좋아합니다. 케이는 정말로 선하고 사랑스럽죠.

작품 가운데는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죠?

역시 대답하기 어렵군요. 『끌림』을 많이 좋아해요.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다른 작품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되어 방영된 덕분에 많이 알려져 그런 거죠. 하지만 저는 『끌림』에 나오는 고딕풍 분위기와 유령이 나올 듯 무척이나 으스스한 게 맘에 들어요.

그렇다면 어느 책을 쓸 때 가장 즐거웠나요?

『티핑 더 벨벳』은 시작부터 끝을 낼 때까지 무척 즐거웠어요. 쾌활하고 로맨틱하고…… 글을 쓰는 도중에 소리 내어 웃곤 했죠. 섹스 장면을

쓰는 것도 즐겼어요. 『핑거스미스』도 즐거웠어요. 독자들을 어떻게 속여 먹을지 상상하는 걸 즐겼죠.

글을 쓰고 싶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1990년대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소설을 써보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레즈비언/게이 역사 소설에 주목하고 있었고 점차 레즈비언 역사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게 『티핑 더 벨벳』이 되었죠. 바로 소설을 쓰려 했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그래서 논문을 마치자마자 소설을 썼어요. 전부 18개월이 걸렸죠. 논문을 쓰며 준비했던 자료를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설을 써나가면서 다른 자료들도 찾아야 했죠.

학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전혀요. 저는 글쓰기와 연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죠.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보너스까지 덧붙여 말이에요! 학문 쪽 글쓰기에는 주석, 정당성, 검증, 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쪽과 비교했을 때 소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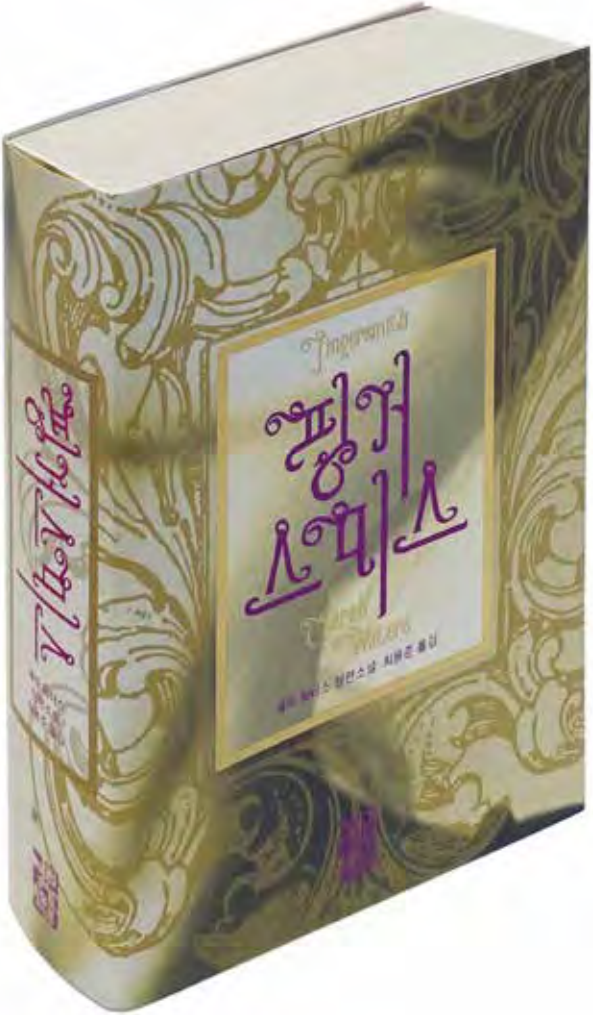
작가가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저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권마다 쓰는 게 즐거웠고요. 제 성공은 무척 점진적이었고, 저는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지가 있군요. 첫째, 미친 듯 읽어라. 모든 작가는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독자여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느꼈던 멋진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어 해야죠. 둘째, 되도록 날마다 일정한 분량의 글을 써라. (저는 평일에는 1천 단어씩 써요. 주말에는 글을 안 쓰고요.) 영감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면, 영감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쓴 글이 쓰레기라 할지라도 나중에 더 낫게 고칠 수 있죠.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다시〉 써라! 잘라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노력하라.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 처음 소설은 열 곳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자신에게 맞는 출판사를 찾아내야 하고, 그 과정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최용준, 2006. 『핑거스미스』에 수록.


Impromptu
위대한 스승
Great Teacher
세계 베스트셀러 장편소설 최병곤 옮김
위대한 스승

영화 속의 열린책들

영화는 책을 죽이지 않았다. 20세기에 나타난 영화는, 독자를 책으로부터 빼앗아 갔다기보다는 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중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의 시점에서 세계 명작 소설 목록들은 그를 바탕으로 한 걸작 영화들의 목록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로지 영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번역될 수 있었던 책도 흔하다.
영화화된 열린책들의 소설들을, 고전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망라해 보았다.

Open Books in Film

Gone with the Wind
The Maltese Falcon
To Kill a Mockingbird
Zorba the Greek
My Fair Lady
Doctor Zhivago
The Spy Who Came in from the Cold
Tess
The French Lieutenant's Woman
A Passage to India
Out of Africa
A Room with a View
The Name of the Rose
Maurice
Howards End
The Age of Innocence

Open Books in Film

영화 속의 열린책들

(괄호 안은 출간된 책 제목)

48
Books

1926

어머니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걸작 소설을 몽타주 이론의 선구자인 푸돕킨이 연출.

● 프세볼로트 푸돕킨 감독, 베라 바라놉스카야, 니콜리아 바탈로프 출연.

1930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레마르크의 반전 소설을 출간 다음해에 영화로 만들었다. 미국 100대 영화 중 하나.

● 루이스 마일스톤 감독, 루 에이어스, 루이스 월하임 출연.

1931

드라큘라

그 뒤 수많은 아류작들이 있었지만 1931년의 첫 번째 할리우드 영화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버전은 아직 없다.

● 토드 브라우닝 감독, 벨라 루고시, 에드워드 밴 슬로언 출연

193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작 소설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고, 영화 또한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 시드니 하워드 감독, 비비언 리 · 클라크 게이블 · 레슬리 하워드 ·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출연. 아카데미 작품상 등 9관왕.

1941

몰타의 매

하드보일드 누아르의 시초. 미국 영화 연구소 선정 100대 영화.

● 존 휴스턴 감독, 험프리 보가트 · 메리 애스터 출연.

1951

백치

도스또예프스끼의 4대 장편 중 하나. 무대는 일본이지만 극장용 영화로는 가장 원작에 충실하다고 알려짐.

●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하라 세쓰코, 미후네 도시로, 모리 마사유키 출연.

1956

모비 딕

멜빌의 고전 해양 소설을 존 휴스턴이 컬러 영화로 만들었다.

● 존 휴스턴 감독, 그레고리 펙, 리처드 베이스하트, 오슨 웰스 출연.

1962

앵무새 죽이기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책. 그레고리 펙이 열연한 영화는 국내에서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개봉했다.

● 로버트 멀리건 감독, 그레고리 펙 출연.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등 3관왕.

1964

그리스인 조르바

카잔차키스에게 세계적 명성을 얻게 한 작품. 영화 마지막 조르바가 춤추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힌다.

● 미카엘 카코야니스 감독, 앤서니 퀸 출연. 아카데미 촬영상 등 3관왕.

48
Books

마이 페어 레이디 (피그말리온)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 중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들어졌다가 영화화되었다.

● 게이브리얼 파스칼 감독, 오드리 헵번 · 렉스 해리슨 출연. 아카데미 작품상 등 8관왕.

1965

닥터 지바고

전쟁과 혁명, 격동의 러시아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대서사시.

● 데이비드 린 감독, 오마 샤리프 · 줄리 크리스티 출연. 아카데미 음악상 등 5관왕.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냉전이 낳은 최고의 스릴러. 화려한 액션이나 최첨단 무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스파이 영화.

● 마틴 리트 감독, 리처드 버턴 출연.

1972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인류의 보물과 같은 이 소설을 흥겨운 뮤지컬로 만들었다.

● 아서 힐러 감독, 피터 오툴, 소피아 로렌 출연.

1979

테스

편협한 가치관과 낡은 인습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여인의 삶.

● 로만 폴란스키 감독, 나스타샤 킨스키 · 피터 퍼스 · 리 로슨 출연. 아카데미 촬영상 등 3관왕.

1981

프랑스 중위의 여자

한 학자가 바닷가의 외로워 보이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존 파울즈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

● 카렐 라이즈 감독, 메릴 스트립 · 제러미 아이언스 출연.

1984

인도로 가는 길

E. M. 포스터의 마지막 장편소설. 영국령 인도의 한 도시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다.

● 데이비드 린 감독, 주디 데이비스 · 페기 애시크로프트 · 빅터 배너지 출연.

1985

아웃 오브 아프리카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올랐던 덴마크 작가 카렌 블릭센의 자서전.

● 시드니 폴락 감독, 메릴 스트립 · 로버트 레드퍼드 출연. 아카데미 작품상 등 7관왕.

전망 좋은 방

첫 키스는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기도 한다. E. M. 포스터의 작품 중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

●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헬레나 보넘 카터 · 줄리언 샌즈 · 매기 스미스 · 덴홈 엘리엇 출연. 아카데미 의상상 등 3관왕.

1986

장미의 이름

에코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이미 20세기의 고전 반열에 든 작품. 중세 유럽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 장자크 아노 감독, 숀 코너리 · 크리스천 슬레이터 출연.

48
Books

1987

모리스

동성애를 다루어 작가 사후에야 출간될 수 있었던 문제작.

●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제임스 윌비 · 휴 그랜트 · 루퍼트 그레이브스 출연. 국내 개봉은 30년이 더 지난 2019년.

1988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최후의 유혹)

예수 최후의 나날을 다룬 카잔차키스의 문제적 소설을 그 못지않게 문제적인 영화로 만들었다.

● 마틴 스코시지 감독, 윌렘 데포, 하비 카이틀, 데이비드 보위 출연.

1992

하워즈 엔드

그 어떤 등장인물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집 〈하워즈 엔드〉를 중심으로 두 집안이 얽힌다.

●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앤서니 홉킨스 · 버네사 레드그레이브 · 헬레나 보넘 카터 · 엠마 톰슨 출연.

1993

순수의 시대

제1차 세계 대전 후 쾌락과 위선, 허위로 가득 찬 뉴욕 사회를 그린 명작.

●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대니얼 데이루이스 · 미셸 파이퍼 · 위노나 라이더 출연. 아카데미 의상상 수상.

제임스 스페이더의 찬스 (우연의 음악)

이 영화는 폴 오스터의 팬은 고사하고 제임스 스페이더의 팬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출연진과 분위기는 흥미롭다.

● 필립 하스 감독, 제임스 스페이더, 맨디 패틴킨 출연.

1995

스모크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뉴욕의 담배가게 주인 오기는 매일 똑같은 곳을 사진으로 찍는다. 국내에 폴 오스터의 존재를 알린 따뜻한 이야기.

● 웨인 왕 감독, 하비 카이틀, 윌리엄 허트, 포리스트 휘태커 출연.

1998

마스크 오브 조로 (쾌걸 조로)

가면 쓴 히어로들의 대선배. 마틴 캠벨의 영화는 1대보다는 2대 조로의 활약을 다뤘다.

● 마틴 캠벨 감독, 안토니아 반데라스 · 앤서니 홉킨스 · 캐서린 제타 존스 출연.

위대한 유산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한 디킨스의 작품을 20세기 뉴욕으로 가져왔다.

● 알폰소 쿠아론 감독, 에단 호크 · 기네스 팰트로 출연.

1999

오네긴 (예브게니 오네긴)

권태에 사로잡힌 귀족과 아름다운 여인의 엇갈린 사랑.

● 마사 파인스 감독, 레이프 파인스 · 리브 타일러 출연.

2002

포제션 (소유)

두 젊은 학자가 문학 속의 사랑을 발견하고 재구성한다.

● 닐 라뷰트 감독, 기네스 팰트로 출연.

2003

두려움과 떨림

아멜리 노통브의 자전적 이야기. 한 벨기에 여성이 일본 회사에 취직한다.

● 알랭 코르노 감독, 실비 테스튀 출연.

2005

오만과 편견

수많은 각색과 2차 창작을 낳은 오스틴의 대표작. 조 라이트의 영화에는 영국판과 미국판 두 가지 엔딩이 존재한다.

● 조 라이트 감독, 키라 나이틀리 · 매튜 맥퍼딘 출연.

48
Books

2006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지상 최고의 향수를 만들려는 악마적 천재의 이야기. 정말로 냄새가 풍겨올 듯한 생생한 묘사가 돋보인다.

● 톰 튀크버 감독, 벤 위쇼 출연.

2011

제인 에어

로맨스 소설인 동시에 고딕 소설이자 사회 비판 소설, 성장 소설. 캐리 후쿠나가의 영화는 원작의 분위기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캐리 후쿠나가 감독, 미아 바시코프스카 · 마이클 패스벤더 출연.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영국 정보부 최상층에 자리잡은 소련 스파이를 찾아라.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와 쌍벽을 이루는 르카레의 대표작.

●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 게리 올드먼 · 콜린 퍼스 · 톰 하디 · 마크 스트롱 ·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영국 대표 배우 다수 출연.

2013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파란색은 따뜻하다)

혼란과 강렬한 감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열다섯 살 소녀의 이야기.

● 압둘라티프 케시시 감독, 레아 세두 · 아델 에그자르코풀로스 출연.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노예 12년

워싱턴 DC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린 솔로몬 노섭의 회고록.

● 스티브 매퀸 감독, 추이텔 에지오포 · 마이클 패스벤더 · 베네딕트 컴버배치 · 루피타 뇽오 · 브래드 피트 출연. 아카데미 작품상 등 3관왕.

더블: 달콤한 악몽 (분신)

사이먼 제임스와 제임스 사이먼의 이야기.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 리처드 아이오아디 감독, 제시 아이젠버그 · 미아 바시코프스카 출연.

미결처리반 Q: 믿음의 음모 (유리병 편지)

바닷가에서 발견된 유리병 편지가 경찰서에 도착하고 사악한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다.

● 한스 페테르 몰란 감독, 니콜라이 리 코스 · 파레스 파레스 출연.

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 생전부터 수차례 영상화되었으며 특히 배즈 루어먼의 영화는 화려한 영상미가 눈에 띈다.

● 배즈 루어먼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 토비 맥과이어 · 캐리 멀리건 출연. 아카데미 미술상 등 2관왕.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세기의 모든 사건 옆에 우연히 있었던 백 살 노인의 삶. 전 세계를 강타한 유쾌한 화제작.

● 펠릭스 헤른그렌 감독, 로베르트 구스타프손 출연.

2016

아가씨 (핑거스미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원작 소설을 일제 강점기 조선으로 옮겼다.

● 박찬욱 감독, 김민희 · 하정우 · 김태리 · 조진웅 출연.

하우 투 비 싱글 (싱글로 산다)

뉴욕을 무대로 짝을 찾는 남녀들의 힘겨운 나날을 보여 주는 코미디.

● 크리스티안 디터 감독, 다코타 존슨 · 리벨 윌슨 · 앨리슨 브리 · 레슬리 맨 출연.

48
Books

2017

맨 오브 마스크 (오르부아르)

공쿠르상 수상작인 르메트르의 걸작 소설을 영화화. 프랑스 국민 배우들이 모두 참여.

● 알베르 뒤퐁텔이 감독, 각본, 주연을 맡았다.

2018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상식을 뛰어넘는 아시아 갑부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 뉴요커 이야기.

● 존 추 감독, 콘스턴스 우 · 헨리 골딩 · 양자경 출연. 전세계 흥행 수익 2억 달러 돌파.

2019

작은 아씨들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사랑스러운 네 자매의 꿈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 그레타 거윅 감독, 에마 왓슨 · 티모테 샬라메 · 메릴 스트립 출연, 시카코 비평가 협회상 4관왕, 전미 비평가 협회상 2관왕, 크리틱스 초이스 각색상, 영국 아카데미 의상상, 미국 아카데미 의상상.

굿 라이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노년의 짝을 만난 두 남녀. 하지만 한 사람은 사기꾼이고, 한 사람은 너무 쉽게 속고 있다.

● 빌 컨던 감독, 연기 경력 도합 100년이 넘는 헬렌 미렌 · 이언 매켈런 출연.

저스트 머시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백인 여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된 흑인 월터 맥밀리언의 충격적인 실화.

● 데스틴 대니얼 크레턴 감독, 마이클 B. 조던 · 제이미 폭스 · 브리 라슨 출연.

2020

언두잉(진작 알았어야 할 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뉴욕의 상류층 부부가 평화로운 일상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살인 사건에 연루된다.

● 수산네 비에르 감독, 니콜 키드먼 · 휴 그랜트 출연.

엠마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맺어 주려 애쓰는 부잣집 아가씨가 어느새 사랑을 깨닫는다.

● 어텀 드 와일드 감독, 애니아 테일러조이 출연.

2022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서부 전선에 합류한 17살 파울. 초기의 들뜬 기분은 곧 참호에서의 삶이라는 암울한 현실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 버린다.

● 에드워드 베르거 감독, 알브레히트 슈흐 · 에딘 하사노비크 출연, 아카데미 국제 영화상 등 4관왕.

48
Books

Open Books in Film

프랑스
문학

Jean-Baptiste Andrea 장바티스트 앙드레아
Olivier Guez 올리비에 게즈
Éric Vuillard 에리크 뷔야르
Edouard Louis 에두아르 루이
Joseph Incardona 조제프 인카르도나
Maylis de Kerangal 마일리스 드 케랑갈
Ève de Castro 에브 드 카스트로
Marie Darrieussecq 마리 다리외세크
Antoine Laurain 앙투안 로랭
Pierre Lemaitre 피에르 르메트르
Antoine de Saint-Exupéry 생텍쥐페리
Camille Anseaume 카미유 앙솜
Delphine Coulin 델핀 쿨랭
David Foenkinos 다비드 포앙키노스
Annie Ernaux 아니 에르노

French Literature

Erik Orsenna 에리크 오르세나
Romain Sardou 로맹 사르두
Caroline Bongrand 카롤린 봉그랑
Jean-Marie Blas de Roblès 장마리 블라 드 로블레스
Dany Laferrière 다니 라페리에르
Gwenaëlle Aubry 그웨나엘 오브리
Georges Perec 조르주 페렉
Jean Echenoz 장 에슈노즈
Guillaume Musso 기욤 뮈소
Catherine Millet 카트린 밀레
Henri-Frédéric Blanc 앙리프레데리크 블랑
René Belletto 르네 벨레토
Jonathan Werber 조나탕 베르베르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

2

조나탕 베르베르 | 정혜용 옮김 | 2023년 | 624면 | B6 연장정 | 17,800원 **eBook | audioBook**

앞으로 쭉 눈여겨봐야 할 신인이라는 평을 들으며 대중의 찬사 속에 화려하게 데뷔한 젊은 작가 조나탕 베르베르의 첫 장편소설. 1888년 뉴욕, 스물여섯 살의 가난한 마술사 제니 마턴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토끼, 비둘기와 함께 근근이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탐정 회사인 〈핑커턴〉의 수장 로버트 핑커턴이 제니를 찾아와 미제 사건을 맡아 달라며 거액의 보수를 제시한다. 그가 맡긴 임무는 심령술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폭스 자매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 과연 제니는 수십 년간 이어진 수수께끼를 타고난 기지만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저명한 사설탐정이 무명의 마술사에게 이렇게 큰 사건을 의뢰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제니의 위험천만한 대모험!

7월 14일

에리크 뷔야르 | 이재룡 옮김 | 2022년 | 21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로 엮어 온 공쿠르상 수상 작가 에리크 뷔야르가 바스티유 점령의 현장을 짧고도 강렬하게 담아낸 소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사에 희미하게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고 잊힌 민중을 내세워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점령의 현장을 생생히 그려 낸다. 뷔야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혁명을 이끈 주인공은 글을 모르는 사람, 땀과 먼지를 뒤집어쓰며 푼돈을 버는 노동자, 백수건달, 시골 사람, 죽은 형제의 얼굴을 확인하는 동생이다. 〈사태를 직면하려면 이름 없는 군중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63
Books

나의 여왕

장바티스트 앙드레아 | 양영란 옮김 | 2021년 | 240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영화감독 출신 장바티스트 안드레아의 데뷔 소설. 화자인 사춘기 소년 〈나〉가 비비안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인생 최초로 가장 강렬한 감정적 변화를 겪는 1965년 한여름 바캉스 동안의 짧은 이야기이다. 전쟁에 나가 훈장을 받아 어른임을 입증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은 잊은 채 비비안과의 시간에 푹 빠져 지내던 〈나〉는 어느 날 비비안이 나타나지 않는 시점부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 2017년 프랑스 데뷔소설상
- 2017년 고등학생이 뽑은 페미나상
- 2018년 자클린 드 로밀리 재단상
- 2018년 알랭푸르니에 문학상

나치 의사 멩겔레의 실종

올리비에 게즈 | 윤정임 옮김 | 2020년 | 34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가장 악명 높은 나치 전범 중 하나인 요제프 멩겔레 최후의 나날을 다룬 소설. 3년이 넘는 치밀한 자료 조사,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르노도상과 문학상의 상을 받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15개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프랑스에서만 38만 부가 판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수용소에서 잔인한 인체 실험을 벌였던 〈죽음의 천사〉 요제프 멩겔레. 그는 각국 사법부, 정보부, 기자와 현상금 사

냥꾼 들의 타깃이 되었지만 끝까지 숨어 살며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게즈의 추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 2017년 르노도상
- 2017년 문학상의 상

대지의 슬픔

에리크 뷔야르 | 이재룡 옮김 | 2020년 | 17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공쿠르상 수상 작가 에리크 뷔야르의 또 다른 걸작. 1890년대 미국을 무대로 한 『대지의 슬픔』은 12개의 짤막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실존했던 유명 총잡이이자 쇼맨 버펄로 빌. 버펄로 빌이 흥행사 존 버크와 함께 만들었던 공연 〈와일드 웨스트 쇼〉는 진짜 인디언을 출연시켜 당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하루에 수만 명의 관객을 모으고,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진출했던 와일드 웨스트 쇼를 통해 뷔야르는 서부 개척 시대 인디언들의 수난사와 초창기 쇼 비즈니스의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해 낸다.

그날의 비밀

3

에리크 뷔야르 | 이재룡 옮김 | 2019년 | 17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193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16개의 짤막한 이야기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얼핏 사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건들을 다룬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해서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외교적 협상이나 드라마틱한 전투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는 강렬하고 가차 없다. 『그날의 비밀』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 공쿠르상을 받았으며, 30여 개국에서 번역 계약이 이뤄지고 프랑스에서만 42만 부가 판매되었다.

- 2017년 공쿠르상

에디의 끝

에두아르 루이 | 정혜용 옮김 | 2019년 | 29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동성애자인 소년 에디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이 되기 위해, 더 이상 〈호모 새끼〉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즉 진짜 사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상적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남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여성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에디는 다른 사회로의 탈출을 꿈꾼다. 온전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을을 그리고 가족을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결국 에디는 〈지금까지의 에디〉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그 끝을 향해 차분히 나아간다. 빈곤과 교육의 부재, 일상이 되어 버린 폭력과 무지에서 나오는 차별에 둘러싸여 온갖 수치심과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자랐던 한 소년의 초상.

열기

조제프 인카르도나 | 장소미 옮김 | 2019년 | 23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핀란드의 한 소도시 헤이놀라에서는 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시점부터 다양한 이색 세계 대회가 개최된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대회는 세계 사우나 대회. 엉뚱하고 바보 같은 이 열기 가득한 축제 속에서 핀란드 포르노 배우이자 세계 사우나 대회 선수권 보유자인 니코와 러시아의 전직 해군 핵잠수함 사령관이자 세계 사우나 대회 준우승자 이고리가 원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도전도, 우승도 아닌, 오직 상대를 넘어서는 것뿐이다. 니코는 끝까지 섹스를 멈추지 않고, 이고리는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치밀하고 밀도 높은 준비를 시작한다. 중장년의 육체와 삶, 섹스와 죽음, 경쟁과 우정은 사우나의 열기 속에서 그리고 상대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다시 해체되고 재조정된다.

화재의 색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 2019년 | 624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금융계의 거물 마르셀 페리쿠르의 장례식. 공화국 대통령도 예를 갖추기 위해 참석한 이 성대한 장례식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고인의 손자가 운집한 조문객들 앞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소년은 죽지는 않지만 영원히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데……. 공쿠르상 수상작이었던 『오르부아르』의 후속작으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연상케 한다〉는 격찬을 받으며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했다.

63
Books

사흘 그리고 한 인생

5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 2018년 | 320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시골에서 사는 열두 살 소년 앙투안. 그는 우연한 사고로 동네 꼬마를 죽이고 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앙투안은 숲에 꼬마의 시체를 숨긴다. 시체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 12년이 지나도록. 이제 앙투안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그날의 기억에서 슬슬 떠나도 좋은 것일까? 이때 갑자기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향에 내려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오르부아르

8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 2015년 | 680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전쟁에 상처 입은 두 젊은이가 부조리하고 비열한 사회와 부패한 기성세대를 상대로 벌이는 기상천외한 대사기극을 그린 장편소설로 아이러니와 풍자, 액션과 서스펜스가 어우러진 걸작이다. 프랑스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최근 10년 사이 가장 인기 있는 공쿠르상 수상작으로 꼽히며 『르 푸앵』지, 『렉스프레스』지, 『리브르 엡도』지 등에서 2013년 〈최고의 프랑스 소설〉로 선정됐다. 전 세계 26개국으로 판권이 수출되고 그래픽 노블로도 제작되었다. 유명 배우이자 세자르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알베르 뒤퐁텔이 각색한 영화가 「맨 오브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개봉되기도 했다.

- 2013년 공쿠르상
- 2013년 『르 푸앵』지-낭시 시(市) 서적상상

- 2013년 브리뇰 시(市) 문학상
- 2016년 CWA 인터내셔널 대거상

식탁의 길

마일리스 드 케랑갈 | 정혜용 옮김 | 2018년 | 160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뒤늦게 요리의 길로 들어선 20대 청년인 주인공 모로가 현실과 부딪히며 실력 있는 셰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한 청년 모로는, 파리와 세계 곳곳의 레스트랑들을 누비며 경험을 쌓아 간다. 고독하지만 치열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독학 요리사 모로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탐구해 나가는 진지한 여정을 케랑갈 특유의 섬세한 문장으로 그려 낸 작품.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12

마일리스 드 케랑갈 | 정혜용 옮김 | 2017년 | 352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한 인간의 심장, 한 인간의 생(生), 그것이 다른 생명으로 이식되는 과정을 담은 24시간의 치열한 기록! 어느 날 급작스러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된 열아홉 살 청년 시몽 랭브르의 심장 이식 과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24시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장기 기증이라는 강렬하고도 복잡 미묘한 소재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 죽음에 대한 윤리와 애도, 생명의 의미 등 접근하기 어려운 진지한 주제들을 성찰한다.

- 2014년 RTL-『리르』 문학 대상
- 2014년 여행자의 릴레이상
- 2014년 피에르 에스필상
- 2014년 파리 디드로 에스프리 리브르상
- 2014년 오랑주 뒤 리브르상
- 2014년 샤를 브리세 문학상
- 2014년『리르』 선정 최고의 프랑스 소설상
- 2014년『렉스프레스』-BFM TV 독자상
- 2014년 아그리파 도비네상
- 2014년 프랑스 대학생이 뽑은 올해 최고의 소설상
- 2017년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 2017년 웰컴 북 문학상

난쟁이 백작 주주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2

에브 드 카스트로 | 정장진 옮김 | 2017년 | 480면 | B6 연장정 | 13,800원 eBook

유제프 보루브와스키는 다 자란 키가 99센티미터인 난쟁이로, 키는 작지만 몸의 각 비율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다. 폴란드의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의 몰락으로 어린 시절 다른 귀족 집에 팔려 간 후, 〈장난감〉이라는 뜻을 가진 〈주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귀족들의 광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98년을 사는 동안, 왕정 시대와 프랑스 혁명기, 산업 혁명 초기를 활보하며, 혼란스러운 당대 유럽사의 숨겨진 곳곳마다 파란만장한 발걸음을 옮기는데…….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

마리 다리외세크 | 임미경 옮김 | 2016년 | 34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할리우드 여배우 솔랑주는 조지 클루니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카리스마 넘치는 한 남자 배우에게 반한다. 조지프 콘래드의 소설 『어둠의 심연』을 영화로 찍고 싶어 하는 남자, 카메룬 출신의 흑인 남자 배우다. 남자는 콩고에 가서 영화를 찍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하고, 솔랑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의 원대한 계획을 돕고자 한다. 그와 함께 서아프리카로 떠난 솔랑주는 물고기에 쏘이고, 벌레에 물리면서도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킨다. 영화에서도, 남자에게서도 중요한 존재가 되길 바라며……. 그러나 제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도, 영화 제작도.

- 2013년 메디치상
- 2013년 문학상의 상

가시내

2

마리 다리외세크 | 최정수 옮김 | 2014년 | 34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소녀에서 여성을 향해 가는 10대의 성(性)을 파격적으로 담아낸 생생한 보고서. 1부 〈시작하다〉에서는 주인공 소녀가 초경을 경험하는 시절을, 2부 〈사랑하다〉에서는 여러 남자들과의 어설픈 만남 그리고 첫 경험(항문 성교), 3부 〈다시 시작하다〉에서는 좀 더 성장한 소녀의 복잡해진 내면과 성인 남자 비오츠 씨와의 관계 등을 다룬다. 2011년 프랑스 출간 당시, 〈너무 외설적이라 메시지를 알 수가 없다〉, 〈감히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다리외세크가 떠맡아 제대로 해냈다〉 등 분분한 논쟁이 벌어지며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63
Books

유령들의 탄생

마리 다리외세크 | 권명희 옮김 | 2002년 | 176면 | B6 견장정 | 7,500원

『암퇘지』의 작가 다리외세크의 두 번째 소설. 저녁에 빵을 사러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실종되지만 아내는 처음엔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과 애정의 정도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간주한 그녀는 곧 집을 나와 사는 곳 일대를 둘러보면서 남편을 찾아다니고, 점차 사건은 실마리가 뚜렷하지 않은 실종 사건으로 접어든다.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환영에 사로잡히고, 차츰 상실을 깨달아 가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의식과 육체의 화학적인 변화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헤친 독특한 작품.

암퇘지

8

마리 다리외세크 | 정장진 옮김 | 1999년 | 184면 | B6 견장정 | 10,000원 **eBook**

극도의 구직난을 뚫고 한 젊은 여자가 향수 가게에 취직한다. 그곳은 판매 외에도 남성 고객들을 위해 별도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 그녀는 글자 그대로 일에 빠져들고, 차츰 자신에게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점점 찌는 살, 붉고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살갗, 풀과 도토리, 진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입이 있던 자리에 돼

지의 주둥이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다.

● 「르 몽드」 선정 1980~2009년 프랑스 문학계에 영향을 준 30대 작품

프랑스 대통령의 모자

2

앙투안 로랭 | 양영란 옮김 | 2016년 | 272면 | B6 견장정 | 10,000원 **eBook**

198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유쾌한 사회적 코미디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1981~1995 재임)이 파리의 어느 식당에서 모자를 잃어버리며 시작한다.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회계사가 그 모자를 주워 간다. 대통령의 모자를 쓰고 다니던 남자는 자신감이 상승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치고, 결국 승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차에다 모자를 두고 내리게 된다. 『프랑스 대통령의 모자』는 이 모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 2012년 랑데르노상
● 2012년 여행자의 릴레이상

빨간 수첩의 여자

앙투안 로랭 | 양영란 옮김 | 2016년 | 25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길에서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긴 여자와, 길에서 우연히 핸드백을 주운 남자가 겪게 되는 일을 그리고 있다. 핸드백의 주인을 찾아 주려다 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한 로랑. 휴대폰도 신분증도 사라진 핸드백 안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온갖 잡동사니 틈에 낀 빨간 수첩이다. 수첩을 펼친 그는 곧 눈을 뗄 수 없는 〈우발적이고 가슴 짠하고 우스꽝스럽고 관능적인〉 메모들에 매료된다. 파트리크 모디아노의 사인이 적힌 책 한 권과 세탁소 전표를 단서로, 파리 전역을 돌며 여자의 흔적을 좇는 로랑의 여정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 2017년 아체르비 문학상

어린 왕자

38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 2015년 | 136면 | A5신 견장정 | 11,800원 **eBook | audioBook**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이야기로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과 관계에 대한 성숙한 성찰을 아름다운 은유로 녹여 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독자들이 독서 경험의 입문처럼 읽고 있는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어 원문에 대한 섬세한 이해,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문장력, 예리한 문학적 통찰을 고루 갖춘 번역으로 문학 번역에서 큰 입지를 굳혀 온 황현산 선생이 이 작품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생텍쥐페리의 진솔한 문체를 고스란히 살려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카미유 앙솜 | 양영란 옮김 | 2015년 | 296면 | B6 견장정 | 11,800원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자발적 미혼모의 길을 선택한 한 여성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 냈다. 원치 않는 임신에서 시작된 개인사는 〈임신과 모성〉이라는 일반적인 주제 아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으로 발전했다. 블로그에 연재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고, 프랑스 여성 전

문 인터넷 포털 오페미닝닷컴aufeminin.com이 주최한 〈2012 문학상〉을 수상하여 출간으로 이어졌다.

웰컴, 삼바

델핀 쿨랭 | 이상해 옮김 | 2015년 | 352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세상을 향한 진지한 시선과 담백한 필체로 주목받는 프랑스 작가 델핀 쿨랭의 장편소설. 〈삼바〉라는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계 프랑스 이주민 청년의 삶을 통해 국제적 이슈인 난민 · 해외 이주자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 가난과 학살, 탄압을 피해 〈관용의 나라〉 프랑스로 온 수많은 이민자의 사연을 대변한다.

● 2011년 프랑스 랑데르노 문학상

레논

다비드 포앙키노스 | 이상해 옮김 | 2013년 | 256면 | B6 연장정 | 10,800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천재 음악가 레논.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수많은 상처로 괴로워하며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살아간 한 인간이었다. 불우했던 유년기, 비틀스 결성과 함부르크에서의 무명 시절, 기적 같은 성공과 곧이어 찾아온 정신적 공황, 오노 요코와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1980년 12월 8일 뉴욕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짧은 만큼 격정적이었던 레논의 인생을 솔직한 목소리로 듣는다.

63
Books

한 여자

9

아니 에르노 | 정혜용 옮김 | 2012년 | 112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의 대표작. 『한 여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10여 개월에 걸쳐 쓴, 자신의 어머니이자 한 시대를 살다 간 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다. 작가는 내밀한 이야기를 냉담하고 예리한 언어로 옮기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단순한 회고를 넘어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간 〈한 여자〉를 역사로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서 〈여자가 된 지금의 나와 아이였던 과거의 나를 이어 줬던〉 어머니, 〈내가 태어난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 고리〉였던 어머니의 상실을 차근차근 복기한다. 이처럼 가장 감정적인 체험을 가장 담담한 문장으로 써 내려감으로써 이 작품은 더없이 정확한 거울로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들여다보도록, 함께 삶을 사유하고 느끼도록 해준다.

오래오래

8

에리크 오르세나 | 이세욱 옮김 | 2012년 | 616면 | B6 연장정 | 15,800원 **eBook**

공쿠르상 수상 작가 에리크 오르세나가 펼쳐 보이는 진기한 사랑 이야기. 원예가 가브리엘과 〈섬 같은 여자〉 엘리자베트가 세월이라는 강력한 적과 현실의 숱한 장애를 이겨 내며 자칫 범상함에 빠져 버릴 수도 있는 사랑을 하나의 전설로 만들어 간다. 세계의 유명한 정원들과 파리, 세비야, 헨트 등 매혹적인 도시들을 오가며 이국적인 정경 속에 서구 해학 문학의 전통을 오롯이 되살리고 있는, 오르세나 문학의 정점을 이루는 작품.

최후의 알리바이

로맹 사르두 | 전미연 옮김 | 2008년 | 440면 | B6 견장정 | 10,800원

〈프랑스의 움베르토 에코〉라는 평을 들으며 화려하게 등단한 프랑스 신세대 문학의 기수 로맹 사르두의 네 번째 소설. 작가의 장기인 중세를 벗어나 현대를 배경으로 한 본격 스릴러물로, 베테랑 경관과 영문학 교수, 연쇄 살인범이 펼치는 퍼즐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밑줄 긋는 남자

39

카롤린 봉그랑 | 이세욱 옮김 | 1994년 | 192면 | B6 견장정 | 10,000원 eBook

스물다섯 살의 처녀 콩스탕스가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 속에서 우연히 낙서 하나를 발견하면서 빠져드는 수수께끼. 마치 그녀를 겨냥해서 써놓은 듯한 낙서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적혀 있는 다음번에 읽을 책들. 〈밑줄 긋는 남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도스또예프스끼, 가리, 키르케고르로 계속 이어지는 추적 끝에 그녀가 발견한 것은? 프랑스의 신예 작가 카롤린 봉그랑의 두 번째 소설로 〈신선함과 순진함과 발랄함으로 가득 찬 놀라운 소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 1994년 「도서신문」 추천 도서

달리기

2

장 에슈노즈 | 이재룡 옮김 | 2017년 | 160면 | B6 연장정 | 10,000원 eBook

메디치상과 공쿠르상을 수상하며 프랑스 문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 온 작가 장 에슈노즈. 『달리기』는 실제 인물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전설적인 달리기 선수 에밀 자토페크(1922~2000)의 이야기다. 에밀은 1952년 올림픽 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거머쥔 육상 선수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 치하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다. 전기 형식을 차용해, 주인공이 달리기를 시작하기 직전부터 달리기를 그만두는 시점까지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두 해 여름

2

에리크 오르세나 | 이세욱 옮김 | 2017년 | 240면 | B6 연장정 | 10,000원 eBook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가 나보코프의 번역을 맡은 남자,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번역은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데……. 천부적인 유머와 재치, 프랑스의 역사와 말에 대한 애정 어린 글로 전 프랑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에리크 오르세나의 대표작. 한 번역가가 외딴 섬에서 나보코프가 만년에 쓴 소설 『에이다 또는 아더*Ada or Ardor*』를 번역하면서 겪은 모험담을 그린 이야기로, 우아하고 쾌활한 어조로 번역가와 섬사람들 사이의 애정과 우정을 살갑게 그려 냈다.

저물녘 맹수들의 싸움

2

앙리프레데리크 블랑 | 임희근 옮김 | 2017년 | 192면 | B6 연장정 | 10,000원 eBook

젊고 야심만만한 광고 기획자 샤를 퀴블리에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아파트를 세 놓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 건물을 찾아갔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층과 층 사이에 멈추는 바람에 그 안에 갇혀 버린다. 수수께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구조를

거부하는 집주인 여자. 샤를은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궁리를 하지만 번번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결과를 빚는다. 전형적인 문명사회를 사는 한 사람이 고립된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서서히, 불가피하게 거짓되고 세련된 태도의 무용성을 깨닫는 과정을 간결하고 익살맞게 그리고 있다.

호랑이들이 제 세상인 나라 2
장마리 블라 드 로블레스 | 김병욱 옮김 | 2012년 | 전2권 | 각 528, 512면 | B6 견장정 | 절판

- 2008년 메디치상
- 2008년 프낙 소설상
- 2008년 장 지오노 심사위원상

남쪽으로
다니 라페리에르 | 박명숙 옮김 | 2012년 | 312면 | B6 견장정 | 절판

남자의 자리
아니 에르노 | 임호경 옮김 | 2012년 | 136면 | B6 견장정 | 절판

페르소나
그웨나엘 오브리 | 임미경 옮김 | 2012년 | 232면 | B6 견장정 | 절판

임금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접근하는 기술과 방법
조르주 페렉 | 이충훈 옮김 | 2010년 | 120면 | B6 견장정 | 절판

도끼와 바이올린
알랭 플레셰르 | 임호경 옮김 | 2007년 | 488면 | B6 견장정 | 절판

스키다마링크 16
기욤 뮈소 | 이승재 옮김 | 2007년 | 400면 | B6 견장정 | 절판

완전한 죽음 14
기욤 뮈소 | 이승재 옮김 | 2005년 | 440면 | B6 견장정 | 절판

13번째 마을 3
로맹 사르두 | 이승재 옮김 | 2006년 | 512면 | B6 견장정 | 절판

아름다운 의사 삭스 2
마르탱 뱅클레르 | 윤정임 옮김 | 2003년 | 640면 | B6 견장정 | 절판

카트린 M의 전설 2
자크 앙리크 | 김병욱 옮김 | 2003년 | 288면 | B6 견장정 | 절판

카트린 M의 성생활 8
카트린 밀레 | 이세욱 옮김 | 2001년 | 336면 | B6 견장정 | 절판

잠의 제국 2
앙리 프레데릭 블랑 | 임희근 옮김 | 2001년 | 296면 | B6 견장정 | 절판

63
Books

French Literature

예술의 역사
폴 콕스 | 전미연 옮김 | 2001년 | 176면 | A5 견장정 | 절판

세상의 근원
크리스틴 오르방 | 함유선 옮김 | 2001년 | 184면 | B6 견장정 | 절판

소토의 안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다
필립 지앙 | 김철 옮김 | 2000년 | 47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37.2도 아침
필립 지앙 | 우종길 옮김 | 1996년 | 45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수단 항구
올리비에 롤랭 | 우종길 옮김 | 1999년 | 15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제로 전투기
파스칼 로즈 | 김주열 옮김 | 1999년 | 16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이집트 판관 8
크리스티앙 자크 | 유정희 옮김 | 1998년 | 전3권 | 각 496, 512, 46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또 하나의 삶 2
이렌 프랭 | 우종길 옮김 | 1998년 | 전2권 | 각 352, 36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외계인 백과사전
기욤 페이에 | 김주열 옮김 | 2000년 | 20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마법의 백과사전 9
까트린 끄노 | 이재형 옮김 | 1997년 | 28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저승의 백과사전
마르크 볼린느 | 유정희 옮김 | 1997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2
르네 벨레토 | 우종길 옮김 | 1995년 | 전2권 | 각 264, 22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기계 2
르네 벨레토 | 우종길 옮김 | 1995년 | 전2권 | 각 288, 27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아이들의 입에서
카롤린 봉그랑 | 우종길 옮김 | 1995년 | 16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기타
문학

Leo Perutz 레오 페루츠

Dolores Redondo 돌로레스 레돈도

Jussi Adler-Olsen 유시 아들레르올센

Catharina Ingelman-Sundberg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Patrik Ouředník 파트리크 오우르제드니크

Hans Rath 한스 라트

Willem Elsschot 빌렘 엘스호트

Gonçalo M. Tavares 공살루 M. 타바리스

Miloš Urban 밀로시 우르반

World Literature

Yaşar Kemal 야샤르 케말

Tomas Espedal 토마스 에스페달

Chico Buarque 시쿠 부아르키

Sandro Veronesi 산드로 베로네시

Dimitri Verhulst 디미트리 베르휠스트

Khaled Al Khamissi 할레드 알하미시

Amos Oz 아모스 오즈

Karel Čapek 카렐 차페크

Rosa Mogliasso 로사 몰리아소

신곡 일러스트판

6

단테 알리기에리 | 김운찬 옮김 | 2022년 | 1,088면 | A5 변형 견장정 | 36,000원 eBook

김운찬 교수의 이탈리아어 완역본 『신곡』 개정판. 2007년 초판 출간 이후 전반적인 개역 작업으로 번역과 주석에 더욱 완성도를 높였으며, 특별히 『신곡』 삽화 중 가장 유명한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를 함께 수록하여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더했다. 지옥 75점, 연옥 42점, 천국 18점으로 이루어진 135점의 삽화를 모두 실었으며, 도레가 그린 단테의 초상화 1점까지 총 136점을 수록했다.

아이네이스 2

4

베르길리우스 | 김남우 옮김 | 2021년 | 272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생의 마지막까지 매달린 대서사시 『아이네이스』의 제5~8권. 〈아이네이스〉란 〈아이네아스의 노래〉라는 뜻으로, 희랍군에 패하여 멸망한 트로이아의 영웅 아이네아스가 신의 뜻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방랑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라티움 땅에 로마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마 건국의 역사와 신화를 다룬 서사시로서, 오늘날까지 라티움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뒷세이아』와 더불어 서양 정신의 원류를 형성한 대표 고전으로 사랑받는다. 라티움어 원전을 번역했으며, 원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 운문 번역본.

-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 가디언 선정 〈최고의 소설 TOP 10〉
-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48
Books

9시에서 9시 사이

레오 페루츠 | 신동화 옮김 | 2019년 | 352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오스트리아 작가이자 독일어권 문학의 거장 레오 페루츠의 대표 장편소설. 국내 초역. 주인공 슈타니슬라우스 뎀바는 가난한 대학생이다. 돌발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은 겉보기에 광인에 가깝다. 뎀바는 절대로 외투를 벗지 않는다. 스스로 모자를 벗지 않는다. 물건을 건네거나 건네받는 일조차 없다. 양팔을 낡은 망토 속에 숨긴 채, 사고로 팔을 잃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부상을 입은 탓이라고 하기도 한다. 리볼버, 칼, 지팡이…… 그가 품에 감춘 〈무언가〉를 향한 의심은 점차 증폭되고, 이는 곧 뎀바에게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마는데…….

테베의 태양

4

돌로레스 레돈도 | 엄지영 옮김 | 2019년 | 720면 | A5변형 연장정 | 18,800원 eBook

동성 배우자 알바로의 죽음을 전해 듣는 소설가 마누엘. 바르셀로나에 마케팅 회의차 출장을 간 줄로만 알았는데, 그곳에서 200킬로나 떨어진 스페인 서북부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마누엘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알바로의 가족들을 대면하고, 재산 관리인을 통해 그가 그 지역 전통 있는 가문의 후작이며, 그 가문 소유의 대형 와이너리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2016 플라네타 문학상 수상작

Leo Perutz
9시에서 9시 사이
레오 페루츠 장편소설 신상웅 옮김
9시에서 9시 사이
Zwischen neun und neun

유리병 편지

유시 아들레르올센 | 정장진 옮김 | 2019년 | 전2권 | 각 424면 | B6 연장정 | 각 13,800원 eBook

어느 날, 스코틀랜드 경찰이 바닷가에서 발견하여 덴마크 경찰에 보낸 유리병 편지가 Q 수사반에 도착한다. 덴마크어로 〈살려 주세요〉라고 쓰여 있는 편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며 내용이 알아보기 어렵게 변했다. 카를은 이게 어린아이들의 장난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왠지 모를 꺼림칙함을 느끼며 아사드, 로세와 함께 편지를 해독해 나간다. 그들은 1996년 어느 날 포울이라는 소년이 동생과 함께 납치되었음을 파악하고, 그 범인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으며 범행을 계속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폐쇄적으로 모여 사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마을만 골라 아이들을 납치하는 범인. 과연 Q 수사반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 2010년 유리열쇠상
- 영화 「미결 처리반 Q: 믿음의 음모」 원작

48
Books

아름답고 죽은 그녀

로사 몰리아소 | 양영란 옮김 | 2018년 | 184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 강가에서 아마도 살해당한 듯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된다. 시체를 발견한 다섯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꺼림칙한 의문이 그들을 괴롭힌다. 죽은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가보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과 함께 그들의 일상이 꼬여 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신은 내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2

한스 라트 | 박종대 옮김 | 2018년 | 32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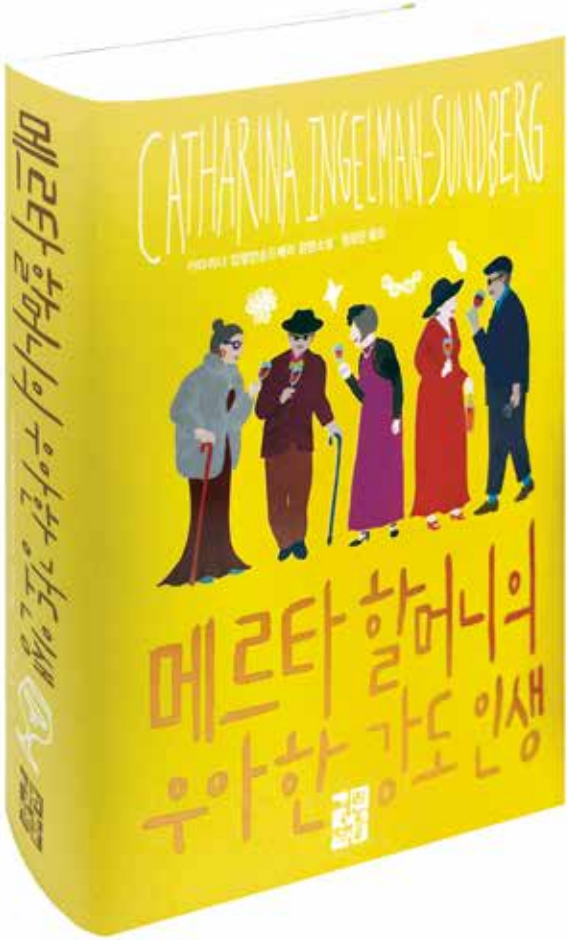
〈그리고 신(神)〉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심리 치료사 야콥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내 아벨 바우만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담은 연작 장편이다. 이번 책에서는 4년 전 세상을 떠났던 〈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야콥을 찾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벨은 야콥에게 자신이 임명한 새로운 〈메시아〉가 되어 병들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꺼낸다.

악마도 때론 인간일 뿐이다

3

한스 라트 | 박종대 옮김 | 2015년 | 328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 한스 라트의 새로운 장편소설. 주인공인 심리 치료사 야콥에게 〈신〉을 자처하는 수상한 사내가 나타나는 전작에 이어, 이 작품에는 자칭 〈악마〉라는 인물이 찾아와 영혼 거래를 제안하며 벌어지는 독특한 소동이 담겼다.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 영혼을 팔게 하려는 〈악마〉와 그런 그를 상담으로 치료해 보려는 야콥이 주고받는 팽팽한 입담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CATHARINA INGELMAN-SUNDBERG
메르타 할머니의
우아한 강도 인생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10

한스 라트 | 박종대 옮김 | 2015년 | 320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천지 창조를 마친 다음 날, 신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골칫거리를 만들어 냈음을 깨닫고 혹시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혼, 파산, 자기 문제만으로도 벅찬 심리 치료사 야콥 앞에 어느 날 자칭 〈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심리 상담을 신청한다. 〈신〉의 고민은 무엇이고, 야콥은 과연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신은 존재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못 심각해 보이는 궁극의 질문들을 유머와 놀라운 이야기 속에 녹여 낸 작품이다.

메르타 할머니의 우아한 강도 인생

5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정장진 옮김 | 2018년 | 632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털기도 하며 이제 은행 강도 정도는 쉬운 일로 여기게 된 메르타 할머니와 친구들. 메르타의 최종 목표는 노인들이 편하게,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강도단은 지중해의 휴양 도시 생트로페로 가서 초호화 요트를 훔치기로 한다. 메르타는 생트로페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탈세와 사기로 돈을 모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한편 약혼 중인 메르타와 천재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천재는 자꾸만 결혼식을 미루고 돈에만 집착하는 메르타가 서운하기만 하고, 두 사람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는데…….

메르타 할머니, 라스베이거스로 가다

4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정장진 옮김 | 2017년 | 544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좌충우돌 노인 강도단의 유쾌한 한탕! 전 세계 160만 독자가 환호한 메르타 할머니 시리즈의 두 번째 권. 지명 수배된 다섯 명의 노인 강도단은 스웨덴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신없는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향한다. 하지만 힘들게 손에 넣은 돈은 기부하는 도중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다이아몬드마저 깜빡 실수로 잃어버리고 만다. 과연 노인들은 사라진 돈과 다이아몬드를 되찾을 수 있을까?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16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정장진 옮김 | 2016년 | 592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I audioBook**

79세 할머니 메르타 안데르손은 다이아몬드 노인 요양소에 산다. 요양소의 원칙은 8시 취침, 간식 금지, 산책은 어쩌다 한 번만.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니 감옥에서는 하루 한 번씩 꼬박꼬박 산책을 시켜 준다는데……. 이렇게 사느니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며 분개한 메르타 할머니는 요양소 합창단 친구들을 꼬드겨 〈강도단〉을 결성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위한 범죄를 계획한다. 본의 아니게 완전 범죄를 저지른 노인들, 사라진 돈과 그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감옥에 들어가 꿈꾸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좌충우돌 강도단의 이야기!

● 2015년 이탈리아 프레미오 로마 픽션상

48
Books

유로피아나 짧게 쓴 20세기 이야기

파트리크 오우르제드니크 | 정보라 옮김 | 2015년 | 176면 | B6 견장정 | 10,800원

의도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독특한 문체로 20세기 유럽의 역사를 종횡무진으로 가로지르며 과거의 역사적 기억들을 파고드는 작품이다. 한 세기의 역사를 책 한 권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역사 서술에서 볼 수 있는 연대기(年代記)적인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으며, 역사적 사실의 단편들을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낸, 한 편의 새로운 문학 작품이다. 화장실 휴지의 발명부터 인종 학살의 끔찍한 참상까지, 20세기 역사의 크고 작은 희비극이 자유자재로 절묘하게 병치되며, 일견 무덤덤하게 이어지는 문장들 속에 작가 특유의 정교한 풍자와 유머, 날카로운 통찰이 섬세하게 녹아 있다.

9990개의 치즈

빌렘 엘스호트 | 박종대 옮김 | 2015년 | 184면 | B6 견장정 | 10,800원

네덜란드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인용되는 작가로 손꼽히는 빌렘 엘스호트의 대표작. 한 평범한 직장인이 우연히 치즈 사업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은 소설이다.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의 어설픈 도전을 통해 물질이 질서를 만드는 현대 사회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소시민의 내면을 풍자했다. 플랑드르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영화로도 각색, 제작된 네덜란드 문학의 명작이다.

작가들이 사는 동네

공살루 M. 타바리스 | 엄지영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328면 | A5 변형 견장정 | 각 13,800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타바리스가 완성해 온 연작물 열 편을 두 권으로 모은 작품이다. 폴 발레리, 이탈로 칼비노, 로베르트 발저, 칼 크라우스, 앙드레 브르통, 베르톨트 브레히트, 로베르토 후아로스, 앙리 미쇼,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T. S. 엘리엇 등 문학의 역사를 화려하게 수놓은 작가 열 명의 스타일과 작품 세계를 고스란히 살리는 동시에 각 작가가 해당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기획의 완성물이다.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그중 「크라우스 씨와 정치」편은 단독으로 2011년 프랑스 〈유럽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 테오의 13일

7

로렌차 젠틸레 | 천지은 옮김 | 2015년 | 224면 | B6 변형 견장정 | 13,800원 eBook I audioBook

이탈리아의 젊은 신인 작가 로렌차 젠틸레의 장편소설. 여덟 살 소년 테오가 죽음을 각오하고 〈승리의 비결〉을 찾아가면서 겪는 일상의 사건들을 일기 형식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가볍게 읽히지만 통찰력 있는 시선이 담겼다. 작가 로렌차 젠틸레는 이 작품으로 이탈리아 레지옴 줄리 신인 작가상을 수상했다.

돈키호테

65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 안영옥 옮김 | 2014년 | 전2권 | 각 784, 936면 |

A5 신 변형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1605년 출간된 전편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는 1권으로, 1615년 출간된 후편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는 2권으로 출간하여, 원작이 갖고 있는 물성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책 두 권 모두에는 현재까지 그려진 『돈키호테』의 삽화 중 가장 세밀하고도 유명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구스타브 도레의 삽화 1백 점을 수록했다. 세르반테스의 문체와 정신을 고스란히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고려대학교 스페인어문학과 안영옥 교수는 5년의 고증과 스페인에서의 답사를 거쳐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국어판 『돈키호테』를 탄생시켰다.

- 국립 중앙 도서관 선정 〈고전 100선〉, 〈청소년 권장 도서〉
-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한국 경제 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권장 도서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노벨 연구소 선정 〈세계 문학 100대 작품〉
- 피터 박스올 선정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48
Books

일곱 성당 이야기

3

밀로시 우르반 | 정보라 옮김 | 2014년 | 49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중세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유럽의 도시, 프라하의 성당들을 배경으로 한 고딕 스릴러 작품. 이 작품은 당시 복잡한 사회적, 역사적 격변을 겪었던 체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를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뛰어난 배경 묘사와 빠른 스토리 전개 능력으로 독자로 하여금 프라하의 아름답고 신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에 빠지게 한다. 국내 출간 직후 밀로시 우르반은 주한 체코 문화원 초청으로 방한하여 출판 기념회, 팬 사인회 등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의적 메메드

2

야샤르 케말 | 오은경 옮김 | 2014년 | 전2권 | 각 304, 312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이 작품은 〈터키 리얼리즘 문학의 거장〉 야샤르 케말의 대표작으로, 1955년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터키 국민의 애독서로 남아 있다. 20세기 초반 터키 남부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지주의 압제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농민들과 유일하게 지주에 저항하는 인물 메메드를 보여 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말의 변화를 위해 희망을 갖고 싸우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을 거슬러

토마스 에스페달 | 손화수 옮김 | 2014년 | 236면 | B6 연장정 | 11,800원

유려한 문장과 독특한 형식으로 노르웨이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토마스 에스페달의 자전적 소설이다. 제목의 〈자연〉은 관습 등 〈자연스러움〉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다. 더불어 인간이 속절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 즉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시간의 흐름 등을 의미한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자

연스러움 속에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느낀다. 사랑이 이별로, 탄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법칙에 끊임없이 저항하고자 하는 투쟁을 통해 한 남자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영근다.

엎지른 모유

시쿠 부아르키 | 남진희 옮김 | 2013년 | 224면 | B6 견장정 | 10,800원

브라질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출간하는 소설마다 평단의 찬사를 받는 소설가 시쿠 부아르키의 작품. 이 소설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백 살의 노인이 들려주는 삶의 기억으로 꾸려져 있다. 부아르키는 그의 기억을 빌려 브라질의 현대사, 그리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독자의 마음을 울린다.

- 2010년 자부치상
- 2010년 포르투갈 텔레콤 문학상
- 2019년 카몽이스상 수상 작가

아이네이스 1

4

베르길리우스 | 김남우 옮김 | 2013년 | 256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생의 마지막까지 매달린 대서사시 『아이네이스』의 제1~4권. 희랍군에 패하여 멸망한 트로이아의 영웅 아이네아스는 신의 뜻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방랑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라티움 땅에 로마의 기초를 세우게 된다. 라티움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라티움어 원전 운문 번역본.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클리프턴 패디먼 〈일생의 독서 계획〉
- 가디언 선정 〈최고의 소설 TOP10〉
-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조용한 혼돈

산드로 베로네시 | 천지은 옮김 | 2011년 | 496면 | B6 견장정 | 12,800원

2005년에 출간되어 이탈리아 내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로, 이듬해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트레가상을 받았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부터 온종일 딸아이의 학교 앞을 지키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 『조용한 혼돈』은 순식간에 몰입되는 강렬한 도입부에서 시작해 익살스럽고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소설이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특이한 방식, 거침없이 이어지는 유려한 문체는 결코 짧지 않은 소설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게 한다.

- 2006년 스트레가상
- 2008년 페미나상 외국어 문학상
- 2008년 메디테라네상 외국어 문학상

사물의 안타까움성

디미트리 베르휄스트 | 배수아 옮김 | 2011년 | 320면 | B6 견장정 | 10,800원

벨기에의 문제적 작가 디미트리 베르휄스트의 대표작. 독특하고 지독한 풍자로 이루어진 블랙 코미디이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가족들과 함께 사는 열세 살 소년 디미트리가 쓰디쓴 인생을 알아 가는 과정을 경쾌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처절

한 현실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 본연의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다.

- 2007년 황금 부엉이상
- 2007년 잉크 원숭이상
- 2008년 휘모 독자상

택시

할레드 알하미시 | 허진 옮김 | 2011년 | 224면 | B6 견장정 | 9,800원 **eBook**

이집트에서 4년 연속 베스트셀러, 10여 개 국어로 번역된 화제의 소설. 도로 어디에 구멍이 패어 있는지 웬만한 택시 기사보다 더 잘 알 정도로 택시광인 작가는 택시에서 만난 기사들의 사연을 58편의 짧은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삶과 죽음의 시

아모스 오즈 | 김한영 옮김 | 2010년 | 176면 | B6 견장정 | 9,800원

유명 소설가 〈저자〉의 신작 낭독회가 있던 날의 여덟 시간을 쫓는다. 삶과 죽음, 독자와 저자, 현실과 허구, 무엇보다도 글쓰기 자체에 대한 끝없는 사색들로 점철된 작품. 이스라엘이 낳은 세계적 거장 오즈가 현실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소설 속 인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생생히 엿볼 수 있다.

48
Books

여자를 안다는 것

5

아모스 오즈 | 최창모 옮김 | 2001년 | 352면 | B6 견장정 | 12,800원

〈이스라엘을 알려면 아모스 오즈를 읽어라!〉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레지옹 도뇌르 훈장, 프랑크푸르트 평화상 등을 받은 평화 운동가이자 현대 히브리 문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아모스 오즈의 대표작. 조그만 균열에서 시작되는 사람 사이의 어긋남,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감정들의 시작과 끝을 찾는다.

도롱뇽과의 전쟁

7

카렐 차페크 | 김선형 옮김 | 2010년 | 44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세계적인 극작가 아서 밀러가 대학 시절 탐독한 작가, 밀란 쿤데라와 토마스 만이 인정한 최고의 이야기꾼 카렐 차페크가 남긴 대표작. 1930년대 말,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독특한 정치 우화 소설을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난다.

나치와 이발사

에트가 힐젠라트 | 배수아 옮김 | 2012년 | 584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북극 허풍담

1권 차가운 처녀
2권 북극의 사파리
3권 피오르두르의 은밀한 열정
요른 릴 | 백선희 옮김 | 2012년 | 전3권 | 각 216, 216, 248면 | B6 연장정 | 절판

예루살렘
공살루 M. 타바리스 | 엄지영 옮김 | 2011년 | 280면 | B6 견장정 | 절판

아홀로틀 로드킬
헬레네 헤게만 | 배수아 옮김 | 2010년 | 336면 | B6 연장정 | 절판

샹그리라
이케가미 에이이치 | 권남희 옮김 | 2007년 | 720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물결을 스치며 바람을 스치며
아모스 오즈 | 정영문 옮김 | 2007년 | 284면 | B6 견장정 | 절판

블랙박스
아모스 오즈 | 곽영미 옮김 | 2004년 | 368면 | B6 견장정 | 절판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나왈 알싸으다위 외 | 문애희 옮김 | 2004년 | 440면 | B6 견장정 | 절판

복수한 다음에 인생을 즐기자
에바 헬러 | 김인순 옮김 | 2000년 | 424면 | B6 견장정 | 절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에바 헬러 | 김인순 옮김 | 1991년 | 488면 | B6 견장정 | 절판

사랑의 기교
오비디우스 | 김영락 옮김 | 1996년 | 196면 | A5 연장정 | 절판

우리 참새들
요르단 디미트로프 라디치코프 | 최권진 옮김 | 1995년 | 184면 | A5 연장정 | 절판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성숙해지는 여름
도도 시즈꼬 | 박철우 옮김 | 1989년 | 192면 | A5 연장정 | 절판

우리 동네 아이들
나기브 마푸즈 | 문애희 옮김 | 1988년 | 468면 | A5 연장정 | 절판

러시아 문학

Mikhail Lermontov 미하일 레르몬또프
Anna Akhmatova 안나 아흐마또바
Aleksandr Vlok 알렉산드르 블로끄
Osip Mandelstam 오시쁘 만젤쉬땀
Mikhail Bulgakov 미하일 불가꼬프
Iurii Vondarev 유리 본다레프
Vladimir Dudintsev 블라지미르 두진체프
Nikolai Nekrasov 니꼴라이 네끄라소프
Aleksandr Afanasef 알렉산드르 아파나셰프
Andrei Siniavskii 안드레이 시냐프스끼

Russian Literature

Maksim Gor'kii 막심 고리끼
Aleksandr Gertsen 알렉산드르 게르첸
Anatolii Rybakov 아나똘리 리바꼬프
Nikolai Ostrovskii 니꼴라이 오스뜨로프스끼
Iosif Kalinikov 이오시프 깔리니꼬프
Andrei Voznesenskii 안드레이 보즈네센스끼
Evgenii Evtushenko 예브게니 예프뚜센꼬
Iosif Brodskii 요시프 브로드스끼
Aleksandr Solzhenitsyn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수용소군도

44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옮김 | 2020년 | 전6권 | 각 448, 456, 480, 480, 512, 384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20세기 최고의 고발 문학이자 세계적인 기록 문학이며 휴먼 다큐멘터리로, 작가 자신을 포함하여 200명이 넘는 죄수들의 이야기, 기억, 편지를 담았다. 1~2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과정을, 3~7부에서는 고문, 탈주, 폭동과 전쟁 포로의 말로 등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한다. 출판 당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와해되고 신철학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1970년 노벨 문학상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마호가니

보리스 삐냐끄 외 | 석영중 옮김 | 2005년 | 224면 | B6 연장정 | 절판

러시아 현대 희곡

알렉산드르 밤벨로프·류드밀라 뻬뜨루셰프스까야 외 | 이주영, 홍대화 옮김 | 2003년 | 전3권 | 각 232, 216, 20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매일 다샤 언덕을 지나며

게오르기 쯔베또프 편 | 박현섭 외 | 1999년 | 41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러시아 희곡

제니스 폰비진 외 | 조주관 외 옮김 | 1998년 | 전2권 | 각 512, 40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러시아 현대 소설 선집

게오르기 쯔베또프 편 | 최선 외 옮김 | 1997년 | 45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미하일 레르몬또프 시선집 | 임채희 옮김 | 1997년 | 20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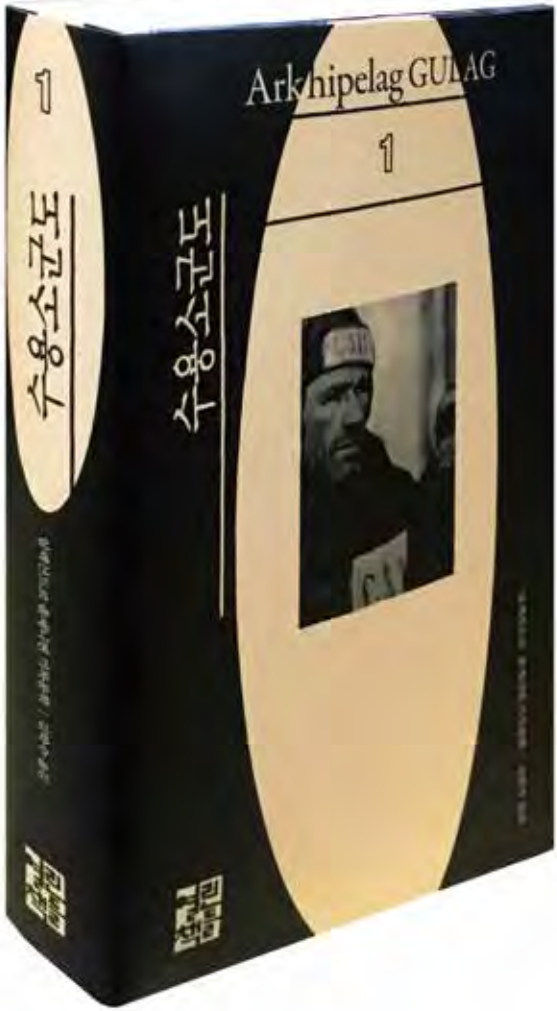
자살하고픈 슬픔

안나 아흐마또바 시선집 | 조주관 옮김 | 1996년 | 15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오늘은 불쾌한 날이다

오시쁘 만젤쉬땀 시선집 | 조주관 옮김 | 1996년 | 14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48
Books


Arkhipelag GULAG
1
수용소군도
1
수용소군도

백위군

미하일 불가꼬프 | 유승만 옮김 | 1996년 | 40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강변 2

유리 본다레프 | 전성희 옮김 | 1995년 | 전2권 | 각 360, 33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하얀 옷 2

블라지미르 두진체프 | 백용식 옮김 | 1995년 | 전2권 | 각 512, 36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 1995년 『도서신문』 추천도서

거리에서

니꼴라이 네끄라소프 시선집 | 임채희 옮김 | 1993년 | 16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러시아 해학별곡

알렉산드르 아파나셰프 | 서정범 편역 | 1993년 | 33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48
Books

굿나잇

안드레이 시냐프스끼 | 황보석 옮김 | 1991년 | 46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이탈리아 이야기

막심 고리끼 | 신윤곤 옮김 | 1991년 | 38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고백 11

막심 고리끼 | 신윤곤 옮김 | 1991년 | 30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백년보다 긴 하루 20

친기즈 아이뜨마또프 | 황보석 옮김 | 1990년 | 43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 1983년 소비에뜨 문학상
- 1994년 오스트리아 유럽 문학상

끌림 쌈긴의 생애 5

막심 고리끼 | 황보석 옮김 | 1989년 | 전2권 | 각 356, 36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어머니 69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 1989년 | 46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 1999년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누구의 죄인가

알렉산드르 게르첸 | 박현섭 옮김 | 1991년 | 33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그 후의 세월

아나똘리 리바꼬프 | 이대우 옮김 | 1991년 | 44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아르바뜨의 아이들

27

아나똘리 리바꼬프 | 홍지웅·이갑수 옮김 | 1988년 | 전2권 | 각 440, 41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6

니꼴라이 오스뜨로프스끼 | 김규종 옮김 | 1990년 | 656면 | B6 견장정 | 절판

이 세상에 옛애인은 없어요

안드레이 보즈네센스끼 | 조주관 옮김 | 1989년 | 18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나는 위조지폐라도 찍어 낼 테다

예브게니 예프뚜셴꼬 | 윤희기 옮김 1989년 | 18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오,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

2

알렉산드르 블로끄 시선집 | 임채희 옮김 | 1989년 | 144면 | A5신 연장정

모나히

이오시프 깔리니꼬프 | 이갑수 옮김 | 1989년 | 414면 | A5 연장정 | 절판

붉은 수레바퀴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외 옮김 | 1986년 | 전7권 | 각 320면 내외 | A5신 연장정 | 절판

소리없는 노래

요시프 브로드스끼 | 박형규 옮김 | 1987년 | 14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한국 문학

Korean Literature

I Yungi 이윤기
I Munyeol 이문열
Park Wanseo 박완서
O Takbeon 오탁번
Kim Eunja 김은자
Jeong Dongju 정동주
Choe Uggyeong 최욱경
Jeong Soseong 정소성
Park Saenggang 박생강
Han Seungjae 한승재
Baek Minseok 백민석
Ahn Ihuiok 안이희옥
Sohn Suhyun 손수현
Shin Seungeun 신승은
Eun Modeun 은모든

선물이 있어

2

은모든 | 2022년 | B6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안락』, 『애주가의 결심』 등으로 독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온 은모든 작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짧은 소설집.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경쾌한 속도감과 산뜻한 유머 감각, 대담한 상상력으로 빚어낸 17편의 이야기가 멈출 수 없는 몰입의 시간을 선사한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문, 소설 속 열린 결말을 저지하는 조직,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크리스마스이브의 바 등 매력적인 키워드로 일상과 환상을 연결한다.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어

손수현, 신승은 | 2022년 | 256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독자적인 필모그래피를 구축하고 있는 배우 손수현과 개성 강한 표현력을 인정받고 있는 뮤지션 신승은. 두 여성 창작자가 번갈아 쓴 비거니즘 에세이. 맛깔난 일상 레시피가 펼쳐지는 가운데 비건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찰은 여성이자 인간 동물, 프리랜서 창작자로 살아가는 일로 넓어지고 깊어진다. 비건을 지향하기까지 6년에 걸친 두 사람의 삶과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나 본다.

15
Books

안젤라

2

안이희옥 | 2021년 | 320면 | B6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1세대 페미니스트〉 안이희옥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의미화한 7편의 연작소설. 작중 화자인 안젤라는 일상과 역사를 넘나들며 사람의 뼈와 살처럼 구분할 수 없는 여성 공동체의 체험을 기록해 낸다. 사회 참여의 기억을 씨줄로, 가난한 노년의 삶을 날줄로 삼아 새로운 여성 서사이자 노년 서사를 획득하는 작품이다.

러시아의 시민들

백민석 | 2020년 | 304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소설가 백민석이 홀로 러시아의 도시들을 가로지르면서 보낸 3개월의 시간을 80여 편의 짧은 단상과 120여 장의 사진으로 기록한 여행 산문집. 작가는 다양한 풍경과 분위기, 도시와 사람들 틈에서 KGB, 혁명, 레닌 등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던 〈과거의 남루한 편견들〉이 많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영영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나라〉라고 작가는 말한다.

엄청멍충한

한승재 | 2015년 | 296면 | B6 견장정 | 12,800원 **eBook**

멍충한 세상을 살아가는 멍충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의 아이러니를 아이러니한 문체로 그려 낸 소설집으로, 흥미로운 착상, 흡인력 있는 전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신선한 문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독특한 관찰, 은근한 유머와 풍자 등이 어우러진 개성적인 작품이다.

나는 빼빼로가 두려워

박생강 | 2014년 | 256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빼빼로를 두려워하는 사내〉를 주인공으로 글을 쓰는 화자가 만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 전복적 상상력의 작가 박생강(박진규)의 신작 장편소설. 흥미로운 괴담, 유쾌한 난센스, 풍자적 유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색적인 작품이다.

하늘의 문

5

이윤기 | 1994년 | 1,088면 | A5 견장정 | 28,000원

번역가이자 신화 연구가이자 소설가로 활동하던 고(故) 이윤기의 첫 번째 장편소설. 삶과 죽음, 종교의 본질을 파고든 묵직한 소설인 동시에, 이윤기의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내면의 고백이다. 한국 전쟁 시기의 어린 시절과 베트남전 참전, 연좌제에 희생된 개인의 고통 등 뒤틀린 민족사와 맞물린 전개 속에서, 그는 종교와 신화에 대한 오랜 공부의 산물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풍부하고 살아 있는 언어로 자아와 구원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굴곡진 이승의 삶에 평생 안주하지 못했던 영혼의 응어리를 게워 낸 이윤기 자신의 이력이자 사색이며 잠언집.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외길보기 두길보기

이윤기 | 1991년 | 21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안개 내리는 강

2

정소성 | 1990년 | 전2권 | 각 440, 40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낯설은 얼굴들처럼

최욱경 유고 시집 | 1989년 | 14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백정

정동주 | 1988년 | 31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나의 별과 램프

3

오탁번, 김은자 엮음 | 1987년 | 20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목마른 계절

10

박완서 | 1987년 | 31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이문열 중단편집

36

이문열 | 1987년 | 전2권 | 각 408, 3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큰글자판

독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시자 및 노년층을 위한 큰글자판. 본문 글자 크기는 2포인트가량 키운 12포인트이지만 판형은 전형적인 열린책들의 단행본 크기와 동일하다. 대개 약시자를 위한 큰글자판이라고 하면 글자뿐 아니라 책 크기도 커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열린책들은 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노년층이 책을 집어 들 때 무게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하고 책의 휴대가 거추장스럽지 않아야 함을 고려하였다.

Large Print

Fedor Dostoevskii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Patrick Süskind 파트리크 쥐스킨트
Umberto Eco 움베르토 에코
Nikos Kazantzakis 니코스 카잔차키스
Jonas Jonasson 요나스 요나손

[큰글자판] 죄와 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 2017년 | 전2권 | 각 624, 768면 | B6 연장정 | 각 14,800원

작가로서 명실공히 도스또예프스끼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든 후기 5대 장편 가운데 첫 작품. 한 가난한 대학생의 범죄를 통해 무엇보다도 죄와 벌의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고 있으며, 이성과 감성, 선과 악, 신과 인간, 사회 환경과 개인적 도덕의 상관성, 혁명적 사상의 실제적 문제 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1999년 BBC 조사 〈지난 천 년간 최고의 작가〉 8위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권〉
- 2007년 노턴 출판사 조사 〈영미권 작가 125명이 뽑은 최고의 문학〉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2008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외 명문대생이 즐겨 읽는 고전〉
-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입생 추천 도서〉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큰글자판]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 2017년 | 480면 | B6 연장정 | 14,800원

전 세계 천만 독자들이 선택한 금세기 독일어권 문학 최고 성공작이자 〈지난 2백년간의 독일 문학사를 관통하는〉 현대 독일 문학의 정수. 냄새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난,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체취도 없는 한 사내의 일대기로, 〈냄새〉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통해 공포스럽고도 흥미로운 전개를 만들어 가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탁월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8년 서울대학교 대출 도서 순위 20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큰글자판]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 2017년 | 688면 | B6 연장정 | 17,800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 〈현대의 오디세우스〉로 불리며 노벨 문학상 후보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세계적 작가 카잔차키스, 그가 그려 내는 자유인 조르바의 영혼의 투쟁. 카잔차키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해준, 작가 최고의 역작.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동아일보 선정 〈21세기 신고전 50선〉
- 2007년 5월 〈거실을 서재로〉 선정 도서
-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입생 추천 도서〉
- 2012년 교보문고 외국 소설 베스트 1위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공동 1위

[큰글자판]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2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 2017년 | 704면 | B6 연장정 | 14,800원

비천한 태생이지만 두뇌만은 비범했던 한 여인이 〈바보들〉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종횡무진하는 여정이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필체로 그려진다. 요나손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하고도 불합리한 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은근하고도 통렬한 풍자를 보여 주는 한편,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십분 발휘해 독자들을 배꼽 잡게 만든다.

- 2014년 7~8월 종합 베스트셀러
- 2014년 NPR 선정 〈올해의 책〉
- 2015년 교보문고 책벌레 회원 추천 〈올해의 책〉

[큰글자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7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 2016년 | 672면 | B6 연장정 | 17,800원

1905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살아온 백 년의 세월을 코믹하고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급변하는 현대사의 주요 장면마다 본의 아니게 끼어들어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백 세 노인 알란의 활약은 독자로 하여금 역사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웃음 속에서도 어느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지,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하게 되는, 가볍게 읽히지만 여운은 묵직한 작품이다.

- 2010년 스웨덴 베스트셀러상
- 2011년 독일 M-피오니어상
- 2012년 독일 『부흐마크트』 선정 최고의 작가 1위
- 2012년 프랑스 에스카파드상
- 2014년 7~8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7주 연속)
- 2014년 인터파크 독자 선정 〈골든 북 어워드〉
- 2015년 교보문고 지식인 선정 〈올해의 책〉
- 2015년 11월, YES24 집계, 2014년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천만 부 이상 판매

[큰글자판]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 2021년 | 672면 | B6 연장정 | 15,800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돌아왔다! 백 살 생일날 양로원 창문을 넘어 도망쳤던 알란이 이번에는 백한 살 생일날 열기구를 탔다가 조난당하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리커버 특별판

오래된 도서의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제한된 부수만
제작하여 한정판으로
선보였으며,
일반적인 판본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장정과 특별한
디자인으로
기존 독자는 물론 새로운
독자들에게까지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Re-Cover Book

Frankenstein
Dracula
To Kill a Mockingbird
Vois Ke Politia tu Aleksi Zorba
Marcellin Caillou
Demain les chats
Depuis l'au-delà
Les mille et une nuits
Le Petit Prince
Il nome della rosa
Il pendolo di Foucault
Educated
Reunion
Don Quixote
Das Parfum
Raoul Taburin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 **yes24**
리커버 특별판 2018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최후를 맞는 괴물. 거대한 박사의 이름과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 새까만 어둠에 잠식되는 괴물을 표지에 표현하려 했다.

알라딘 ▶
리커버 특별판2018

시원하게 커진 판형과 단단한 양장으로 변신했다. 자연스러운 캘리그라피와 선명한 색으로 생동감을 주었다.

교보
알라딘 ▶
리커버 특별판2018

흑백의 붓터치, 픽셀 게임화면, 따뜻한 일러스트, 팝한 이미지 등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4가지 콘셉트를 고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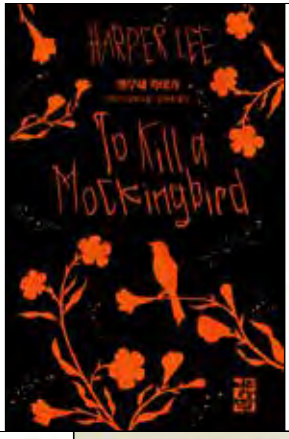
◀ **인터파크**
yes24
리커버 특별판 2018

yes24 ▶
리커버 특별판2019

하퍼 리 작가의 타계 3주기를 맞아 제작한 특별판. 듀보스 할머니가 젬에게 남긴 눈꽃동백, 그리고 새의 실루엣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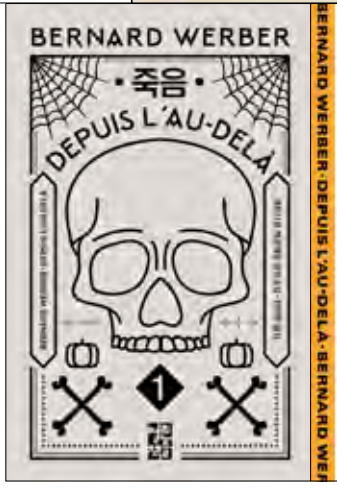
yes24 ▶▶
리커버 특별판2019

앙리 마티스가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 오리기(Paper Cut-outs) 기법으로 조르바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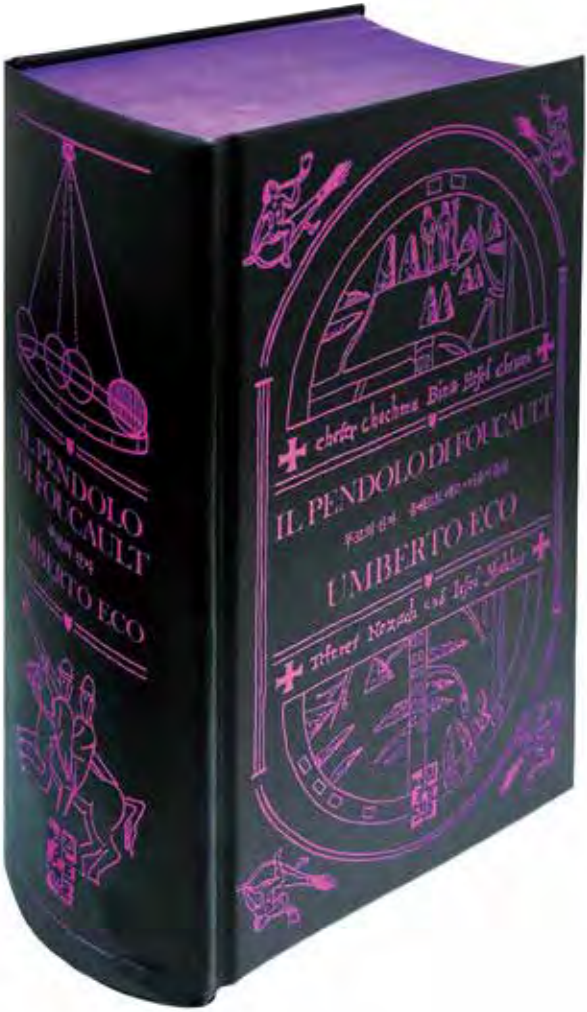
◀ 교보 알라딘
리커버 특별판 2019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목소리는 할로윈의 유쾌한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인터파크 ▶
yes24
리커버 특별판 2019

IL NOME DELLA ROSA
UMBERTO 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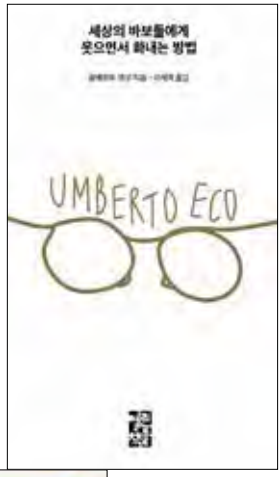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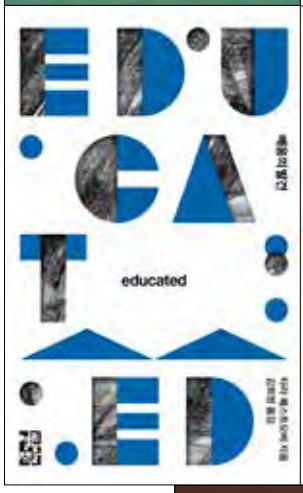
리커버 특별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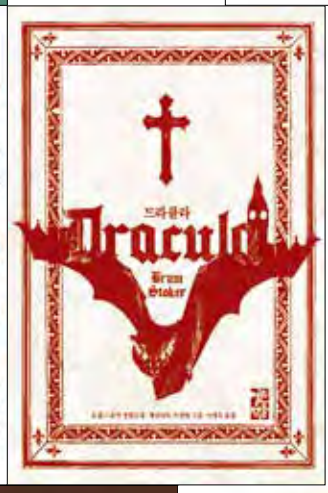
작품 안팎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미지들을 표지 곳곳에 숨겨 두어 독자가 소설을 읽기 전과 읽는 중, 읽은 후에 그 의미를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길 바랐다. 검은 가죽 질감의 견장정과 함께, 책머리와 책입, 책발의 세 면에도 색을 사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 **알라딘**
리커버 특별판 2019
논문 작법서의 무게감과 트렌디한 느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배색과 재질을 고민했다.



알라딘 ▶
리커버 특별판2019
에코의 안경을 잠시 빌려 써보듯 가벼운 마음으로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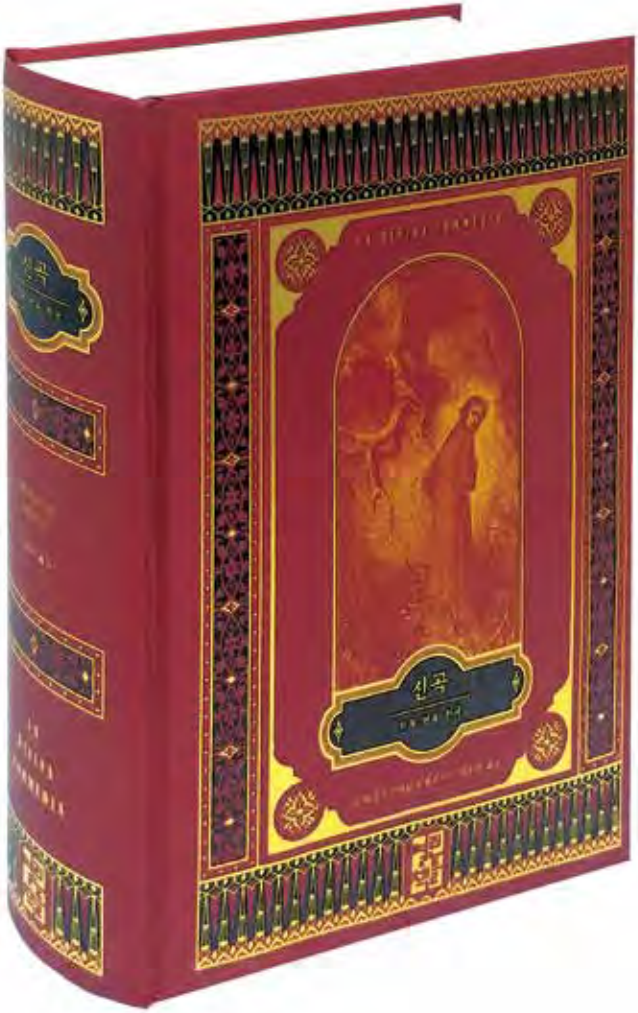


◀◀ **교보**
리커버 특별판 2019
일반적인 책에 쓰이는 것과는 다른 투명한 재질의 커버를 택하여, 원제인 〈Educated〉를 투명한 창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제작했다.

◀ **알라딘**
리커버 특별판 2019
날아오르는 박쥐를 생동감 있게 배치하고, 가죽 질감의 종이를 사용해 소설에 촉감을 부여했다.

알라딘 ▶
리커버 특별판 2019
〈고전도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콘셉으로 캐릭터는 고전적이되 일러스트는 현대적으로 풀이하려 했다.

알라딘 ▶▶
리커버 특별판 2019
어린 왕자의 〈장미〉 삽화를 표지 전면에 사용했고, 아치 형태의 후가공(톰슨)을 통해 유리 덮개를 표현했다. 본문에는 장미가 피고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플립북 형태로 표현했다.



▲ **알라딘**

리커버 특별판 2021

고전들의 고전, 그러나 사장되지 않고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신곡』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붉은 패브릭 패턴 종이와 반무광 금색 박의 조합을 사용했다. 책의 얼굴을 클래식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오래된 문양들을 참고한 금박 패턴을 표지 전면에 입혔고, 중앙에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를 삽입하여 서정적인 느낌을 가미했다.

◀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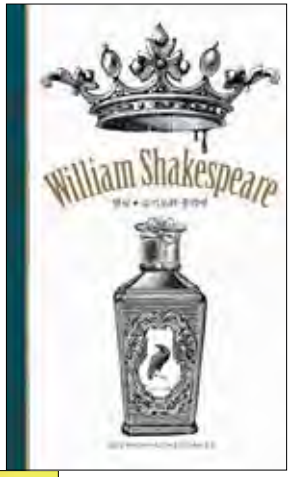
리커버 특별판 2020

기사 소설의 표지만큼 화려하지만 성채 한가운데의 얼굴은 초라하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처절하고 간절한 모습의 돈키호테를 상상하게 한다.

yes24 ▶

리커버 특별판 2021

피 맺힌 왕관과 독약 병 삽화를 중심으로 무광 골드 후가공, 책등을 감싸는 녹색의 마블 패턴, 고급스러운 장정에 셰익스피어의 품격을 담았다.



◀◀ **책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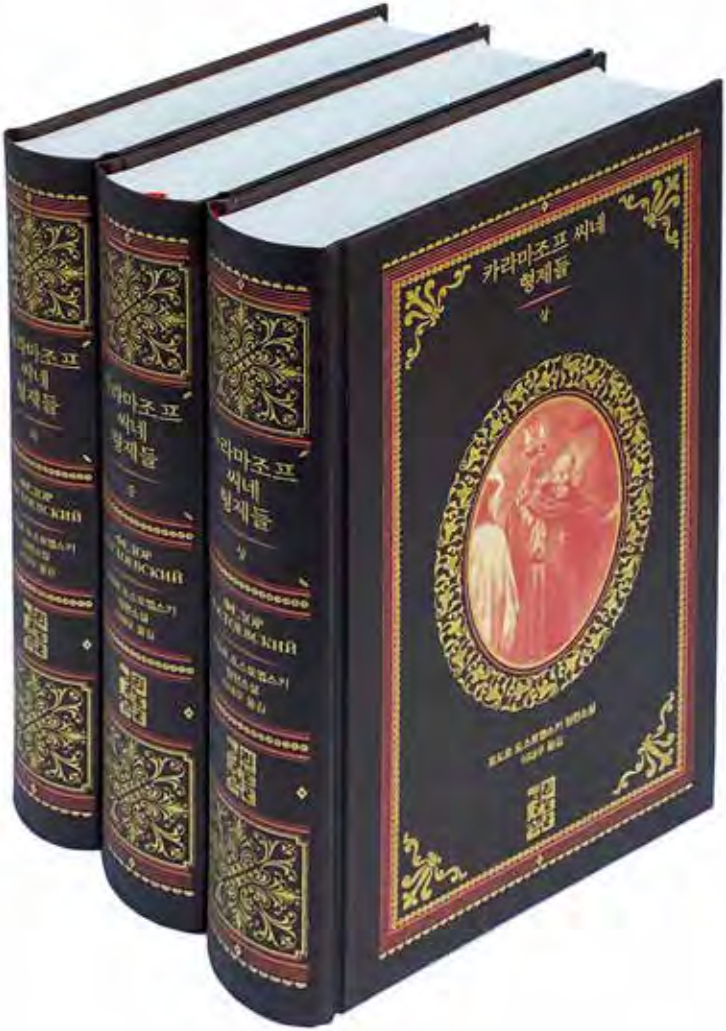
리커버 특별판 2021

두 소년의 시선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제에 작품의 배경인 1930년대의 서체를 적용해 시대적인 느낌을 반영했다.

◀ **교보**

리커버 특별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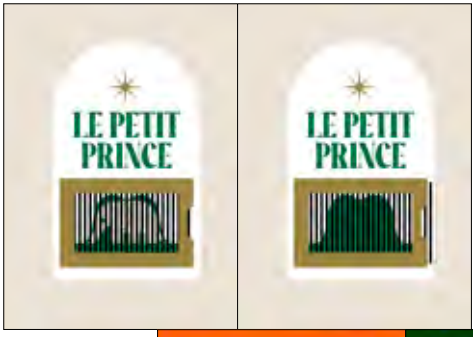
아름다운 꽃 사이에서 얼굴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첫눈에 보기에는 예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괴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했다.



▲ **알라딘**

리커버 특별판 2021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한정판. 검은 바탕의 표지에 소설과 더불어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삽화를 담고, 클래식하고 디테일한 장식을 더해 〈불멸의 고전〉 그 자체로 완성하였다. 강렬한 어둠과 대비되어 더욱 빛나는 반짝임을 담고자 했다.



◀ **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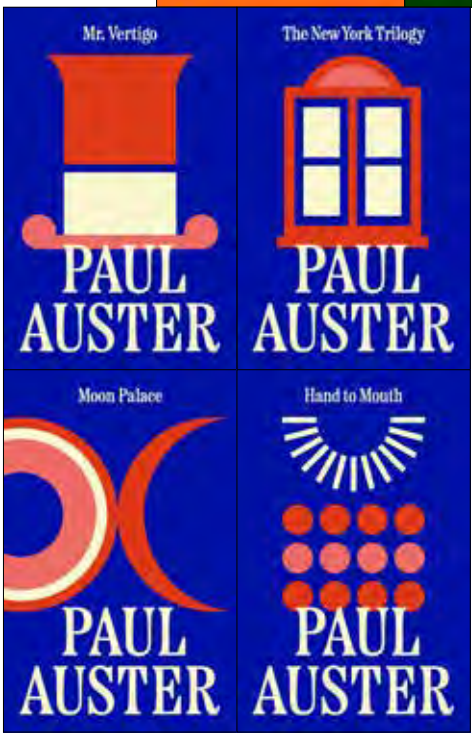
리커버 특별판 2022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가 하는 변화하는 이미지로 담아 특별함을 더했다.

yes24 ▶

리커버 특별판 2022

표지 전면을 장자크 상페의 섬세한 그림으로 가득 채웠다. 독자에게 보다 선명한 이미지로 보이길 바라며 질감 있는 원색의 색지에 박 후가공했다.



◀ **알라딘**

리커버 특별판 2022

명료한 컬러의 조합과 심플한 이미지를 통해 그의 글만큼이나 강렬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 **교보**

리커버 특별판 2022

디 에센셜 시리즈의 첫 번째 도서로, 화려한 고급 장정에 『「요한의 묵시록」의 주석서』 속 삽화를 담았다. 반달 색인으로 가독성과 함께 소장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리커버 특별판 2023

디 에센셜 시리즈의 두 번째 도서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에게 읽어 주던 성서 속 장면인 〈라자로의 부활〉을 반짝이는 후가공으로 입혔다. 『장미의 이름』과 함께 세트로 소장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통일감을 살려 만들었다.

창립 35주년 기념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

2021년 열린책들 창립 35주년을 맞아 출간한 세계문학 중단편 한정판 세트. 그동안 출간해 온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를 바탕으로 세계문학의 중단편 명작들을 엄선한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 봐야 할 고전,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중단편 고전 20권을 엄선했으며, 10권씩 두 세트로 구성하였다. 〈정오〉를 뜻하는 NOON 세트에는 주로 밝고 경쾌하고 서정적인 작품들을, 〈자정〉을 뜻하는 MIDNIGHT 세트에는 주로 어둡고 무겁고 강렬한 작품들을 모았다.

35th Anniversary

Antoine de Saint-Exupéry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George Orwell 조지 오웰
Ernest Hemingway 어니스트 헤밍웨이
Virginia Woolf 버지니아 울프
Oscar Wilde 오스카 와일드
Thomas Mann 토마스 만
Aleksandr Pushkin 알렉산드르 뿌쉬낀
Fedor Dostoevskii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Arthur Conan Doyle 아서 코넌 도일
Gilbert Keith Chesterton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Franz Kafka 프란츠 카프카
Albert Camus 알베르 카뮈
Dazai Osamu 다자이 오사무
Edgar Allan Poe 에드거 앨런 포
Lev Tolstoi 레프 똘스또이
Guy de Maupassant 기 드 모파상
Robert Louis Stevenson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James Joyce 제임스 조이스
Anton Chekhov 안똔 체호프
Herbert George Wells 허버트 조지 웰스

NOON

어린 왕자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 136면

동물 농장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 160면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 136면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 공경희 옮김 | 168면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 최애리 옮김 | 144면

토니오 크뢰거
토마스 만 | 홍성광 옮김 | 136면

벨낀 이야기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 144면

백야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 128면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아서 코넌 도일 | 오숙은 옮김 | 136면

푸른 십자가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 이상원 옮김 | 136면

총 10권 | 2021년 | B6 연장정 | 35,000원

20
Books

35th Anniversary

MIDNIGHT

변신
프란츠 카프카 | 홍성광 옮김 | 128면

이방인
알베르 카뮈 | 김예령 옮김 | 176면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 김난주 옮김 | 152면

도둑맞은 편지
에드거 앨런 포 | 김석희 옮김 | 120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톨스또이 | 석영중, 정지원 옮김 | 136면

비곗덩어리
기 드 모파상 | 임미경 옮김 | 136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조영학 옮김 | 120면

죽은 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 이강훈 옮김 | 128면

6호 병동
안똔 체호프 | 오종우 옮김 | 168면

타임 머신
허버트 조지 웰스 | 김석희 옮김 | 192면

총 10권 | 2021년 | B6 연장정 | 35,000원

20
Books

Franz
Kafka

太宰
治

Edgar Allan
Poe

Лев
Толстой

Guy de
Maupassant

Robert Louis
Stevenson

James
Joyce

Антон
Чехов

Herbert
George Wells

전집

Complete Works

Nikos Kazantzakis 니코스 카잔차키스
Fedor Dostoevskii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Korean Poetry 한국 대표 시인 초간본 총서
E. M. Forster E.M. 포스터
Sigmund Freud 지크문트 프로이트
Vladimir Maiakovskii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Aleksandr Pushkin 알렉산드르 뿌쉬낀

Nikos Kazantzakis

니코스 카잔차키스

- 니코스 카잔차키스 사망 50주년 기념 출간
- 전 세계 최초의 전집
- 시, 소설, 희곡, 편지, 여행기 등을 망라한 문학 전집
- 주목받는 서양화가 이혜승의 표지화
- 전 22종 30권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로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크레타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다. 터키의 지배하에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 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동서양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의 역사적·사상적 특이성을 체감하고 이를 자유를 찾으려는 투쟁과 연결시켰다. 1908년 파리로 건너가 베르그송과 니체를 접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투쟁적 인간상〉을 부르짖게 되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외에도 카잔차키스의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여행이었는데, 1907년부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녔고, 이때 쓴 글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했다가 후에 여행기로 출간했다. 1917년 펠로폰네소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기오르고스 조르바와 함께 탄광 사업을 했고, 1919년 베니젤로스 총리를 도와 공공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1922년 베를린에서 조국 그리스가 터키와의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민족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적인 행동주의와 불교적인 체념을 조화시키려 시도했다. 이는 이듬해부터 집필을 시작한 『붓다』와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로 구체화됐다. 이후에도 특파원 자격으로 이탈리아, 이집트, 시나이, 캅카스 등지를 여행하며 다수의 소설과 희곡, 여행기, 논문, 번역 작품 들을 남겼다. 대표작의 하나인 『미할리스 대장』과 『최후의 유혹』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맹렬히 비난받고 1954년 금서가 되기도 했다.

카잔차키스는 앙티브에 정착했다가 1957년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다녀온 뒤 얼마 안 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아홉 차례나 노벨 문학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똘스또이, 도스또예프스끼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고 있다.

Book Review

카잔차키스 서평

살아 있는 카잔차키스, 살아 있는 조르바

1999년 2월 6일 토요일 아테네발 크레타행 항공기에 올랐다. 나에게 크레타는 온통 카잔차키스, 그리고 조르바였다. 쪽빛 바다 위에 웅크린 섬 크레타는 거대한 거북의 등짝 같았다. 나는 왕을 알현하는 변방의 병사가 된 느낌으로 크레타로 들어갔다. 이라클리온 공항이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항〉이 되어 있었다. 나는 향토 출신 작가의 이름을 수도의 공항 이름으로 삼은 크레타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의 무덤은 베네치아인들이 쌓은 메갈로카스트로[大城郭]의 한 모서리, 피라미드 꼴 기단 위에 있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의 무덤에만 쓰인다는, 수수하기 짝이 없는 나무 십자가가 인상적이었다. 문학 평론가 이남호 교수는 나무 십자가에서 작가의 〈꼬장꼬장함〉을 읽는다고 했다. 그의 일성이 지금도 내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하하, 이것이 바로 그 고집쟁이 영감의 무덤이구나.」

연극 연출가 김석만 교수가 서울에서 가져간 진로 소주, 바나나, 그리고 국산 담배 한 대로 제상을 진설하고는 나에게 절을 하라고 했다. 근 두 주일 동안이나 악우들의 성화에 시달리면서도 카잔차키스 참배를 위해 소주를 〈꼬불쳐〉 둔 김 교수의 정성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일행은 묵념으로 경의를 표했지만 나는 묵념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구두 벗고 절을 했다. 우리를 안내한 크레타인 여성 소니아 벨라도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소니아는, 먼 동양에서 온,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이 사랑하는 작가에게 지극한 경의를 표하는 사태에 치밀어 오르는 격정의 눈물을 참을 수 없노라고 했다. 그녀는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조르바의 딸도 불과 한 달 전에 그 무덤을 참배하고 갔노라고 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데가 있어서 조르바의 딸이 몇 살이나 되었느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소니아가 대답했다.

「예순다섯이라지요, 아마?」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조르바가 세르비아에서 부쳤다는 엽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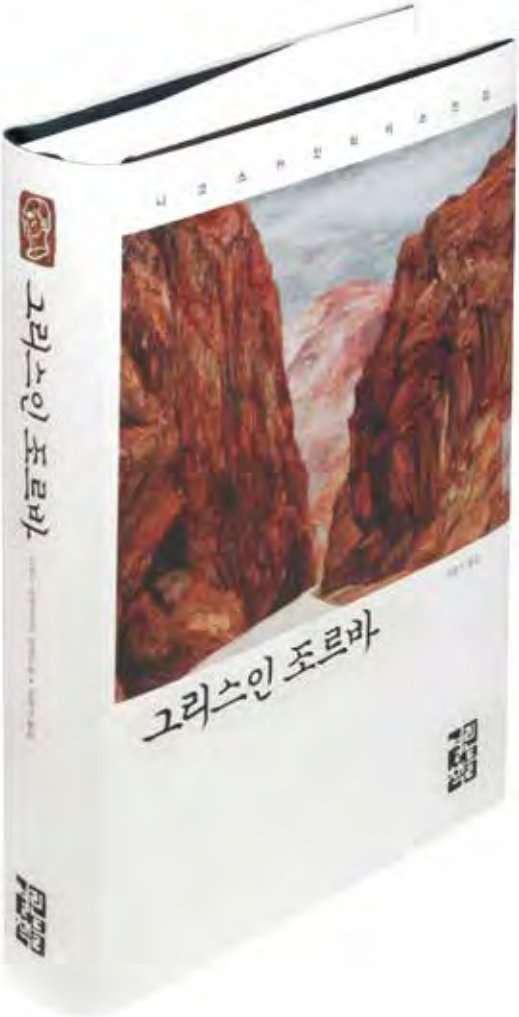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라지게 추워 할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진이 있으니 얼굴 한번 보세요. 여자 하나 제대로 건졌어요. 허리가 조금

뚱뚱한 건 지금 날 위해서 꼬마 조르바를 하나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순다섯이 되었다는 조르바의 따님은 그때 만든 〈꼬마 조르바〉일까, 싶었다.
생가는 박물관이 되어 있지만 겨울철에는 찾는 사람이 너무 적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점심 자리에서는 일행을 위해 내가 레치나(송진 냄새가 나는 포도주)를 샀다. 날씨가 스산하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카잔차키스의 흉상이 서 있는 크레타의 엘레프테리아스 광장에서 조르바가 세르비아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8월 27일 아내와 함께 다시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항에 내렸다.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니코스 카잔차키스 기념관이 있는 〈미르티아〉 마을까지 가는 버스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택시로 가야 한다면서 5천 드라크마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택시 정류장으로 나갔다. 경찰관과 군인이 합동으로 승강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경찰관에게 미르티아까지 어느 정도의 택시 요금이 합리적인지 물어보았다. 그리스의 택시 운전사들은 요금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관은 3천 드라크마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경찰관 보는 데서 택시 운전사에게 미르티아까지 얼마면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택시 기사도 3천 드라크마가 좋겠다고 했다. 예상보다 2천 드라크마(약 6달러)나 낮은 요금이었다. 약 30분쯤 달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 조르바』에다 그리고 있는 마을과 아주 똑같은 마을 미르티아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는 세 시간 뒤에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는 돌아갔다. 20호가 채 못 되는 아주 조그만 산꼭대기 마을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노인들이 〈우제리아(술집)〉 앞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마을 곳곳, 골목길 곳곳에는 〈데모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가로로 쓰인 화분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질화분이 아니라, 양철로 만들어진 올리브기름통을 흰 페인트로 칠한 재활용 화분이었다. 기념관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다. 흔히 카잔차키스의 생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한동안 산 적이 있을 뿐 생가가 아니라 부친 미할리스의 생가라고 했다. 생전의 유품, 세계 각국의 번역서, 자필 원고, 작품의 공연 포스터 등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은 자그마할망정 초라하지 않았고, 고졸한 아취가 있을망정 호화스럽지 않았다. 실존 인물 조르바가 작가에게 보낸 편지도 전시되어 있었다.
벼르고 벼르던 기념관이었지만 지금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그곳에서 느낀 감흥이 아니다. 카잔차키스의 유품은 별 의미를 안기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살아 있는 카잔차키스, 살아 있는 조르바였다. 다행히도 나는 거인의 마을 미르티아에서 소인배인 나 자신을 통하여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택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뒤에 안 일이지만, 내가 얕은

생각을 짜내어 경찰관 앞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약속하고 운전사가 동의한 요금은 너무 싼 금액이었다. 그것은 택시 운전사가 머나먼 미르티아까지 들어오지 않고도 시내에서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 택시는 끝내 오지 않았다. 크레타의 폭염 아래서 거인들을 생각했다. 나는 2천 드라크마를 아낀 덕분에 두 시간이나 미르티아 마을에 갇혀 있다가, 어느 친절한 크레타인의 피아트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택시 운전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진땀을 흘리며 택시를 기다리던 곳이 카잔차키스의 기념관이 아니었다면 나는 〈소탐대실〉, 이 한마디를 내 가슴에 따 담을 수 없었을 터이니…….
『그리스인 조르바』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0년에 내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당시에는 번역이 썩 잘된 것 같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들 말했는데 지금 와서 개역하는 심정으로 교열하려니 낯 뜨거운 대목이 적지 않다. 손을 보아 펴내는 감회가 남다르다.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를 살다 간 두 거인 카잔차키스와 조르바는 21세기를 맞은 나에게 여전히 현실이다. 내 연하의 친구들에게도 그러리라고 확신한다.

이윤기, 「개역판에 부치는 말」, 『그리스인 조르바』, 2000. 4.


니 코 스 카 잔 차 키 스 지 음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향연 외

이종인 옮김 | 2008년 | 360면 | B6 견장정 | 10,800원

카잔차키스의 데뷔작 「뱀과 백합」, 플라톤 작품의 야심적인 현대화인 「심포지엄」, 아름다운 잠언록 「신을 구하는 자」 수록. 청년 카잔차키스의 숨김없는 자화상이자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작품들.

스페인 기행

13

송병선 옮김 | 2008년 | 320면 | B6 견장정 | 13,800원

내전 이전과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스페인 기행. 유럽 문명으로부터 독립된 스페인 문명에 대한 찬양, 내전에 휩싸인 사회 풍경, 우나무노와의 대담과 스페인의 시(詩)로 수놓아진 긴박감 넘치는 기행문.

지중해 기행

8

송은경 옮김 | 2008년 | 248면 | B6 견장정 | 12,800원

1926년과 1927년에 걸친 이탈리아, 이집트, 시나이, 예루살렘, 키프로스 여행의 산물. 그는 여기서 무솔리니를 만나서 파시즘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뒷날 그의 작품의 배경이 된 곳들에 대한 인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행기. 사후에 출간되었다.

러시아 기행

4

오숙은 옮김 | 2008년 | 384면 | B6 견장정 | 10,800원

카잔차키스는 혁명 후의 러시아를 세 번 방문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는 열광이나 환멸보다는 이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충실히 알고자 했다. 1920년대 말까지의 격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었던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

토다 라바

오숙은 옮김 | 2008년 | 312면 | B6 견장정 | 10,800원

러시아 여행 직후 쓰인 장편소설. 가능성과 혼돈으로 가득 찬 혁명 직후의 러시아에 모여든 사람들. 충성스러운 여성 공산주의자, 혁명에 찬동하나 가담하지는 못하는 크레타 사람, 일본 작가, 인도의 수도사,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미래의 대표자〉 토다 라바.

돌의 정원

이종인 옮김 | 2008년 | 352면 | B6 견장정 | 10,800원

전쟁 상태로 돌입하기 직전의 일본과 중국을 무대로 쓴 장편소설. 백인을 대신하여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일본인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중국인. 이들과의 위태로운 만남을 통해, 정신적 소생을 꿈꿔 보려 한 유럽인의 고투 기록.

30
Books

Nikos Kazantzakis

모레아 기행

2

이종인 옮김 | 2008년 | 232면 | B6 견장정 | 10,800원

옛 스파르타 지역의 통칭인 모레아를 여행하면서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문학과 현대 그리스의 문화의 뿌리를 탐구하려 한다. 고대 그리스 영화와 식민 지배로 가난하고 초라해진 현대 조국의 현실을 대비해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여행가였던 작가의 귀환을 장식하는 마지막 여행기.

일본·중국 기행

6

이종인 옮김 | 2008년 | 468면 | B6 견장정 | 12,800원

1930년대 가난과 굴욕에 빠진 중국, 그를 위협하는 일본. 누구보다도 동방적이었던 작가 카잔차키스는 두 나라의 색채, 음악, 건축, 연극, 문학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1957년 부인과 함께한 두 번째 일본 방문에 대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오디세이아

7

안정효 옮김 | 2008년 | 전3권 | 각 532, 528, 492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eBook

이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현대에 맞게 각색한 것이 아니라,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하는, 진정한 현대적 속편이다. 그리스 알파벳의 수를 뜻하는 24장과 총 33,333행으로 이루어진 웅대한 대서사시이자 카잔차키스의 가장 거대한 문학적 업적.

30
Books

영국 기행

7

이종인 옮김 | 2008년 | 376면 | B6 견장정 | 12,800원

제2차 세계 대전 시작 무렵에 쓰인 이 책은 카잔차키스의 가장 감동적인 여행기로 평가된다. 그가 여행에서 진정 낯선 것과 부딪친 것은 잉글랜드가 처음이었다. 〈자발성의 결여와 감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

알렉산드로스 대왕

2

민승남 옮김 | 2008년 | 384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세계의 정복자로 낭만화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미지를 걷어 버리고 열다섯 살 때부터 서른두 살의 때 이른 죽음까지의 삶을 밀도 있게 그려 내고 있는 역작. 청소년 독자를 위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 중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크노소스 궁전

박경서 옮김 | 2008년 | 356면 | B6 견장정 | 10,800원

3천 년 전,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이 아테네에 의해 정복되기 직전을 배경으로 미노스 왕과 테세우스, 아리아드네, 미노타우로스, 다이달로스, 이카로스 등이 벌이는 드라마.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 쓴 소설이면서, 동시에 문명의 몰락과 교체라는 심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Nikos Kazantzakis

붓다

2

신재실 옮김 | 2008년 | 320면 | B6 견장정 | 10,800원

임종 직전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말했다. 〈『붓다』는 나의 백조의 노래다. 거기서 모든 말을 했다.〉 구원의 길을 묻는 이 시극(詩劇)에서 그는 어느 작품에서보다도 솔직한 어조로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털어놓는다.

그리스인 조르바

175

이윤기 옮김 | 2000년 | 488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카잔차키스로 하여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한 작품으로, 호쾌하고 농탕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 내고 있다.

-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5년 동아일보 선정 〈21세기 신고전 50선〉
- 2007년 5월 〈거실을 서재로〉 선정 도서
-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입생 추천 도서〉
- 2012년 교보문고 외국 소설 베스트 1위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공동 1위

수난

9

이창식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320, 324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터키가 지배하는 그리스의 작은 마을. 농부들은 그리스도의 일생을 담은 수난극을 공연하기로 한다. 점차 자기 배역에 몰입한 그들은 배역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때 일단의 망명자들이 보호를 요청하면서 종교적 수난극은 현실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 외

송무 옮김 | 2008년 | 464면 | B6 견장정 | 10,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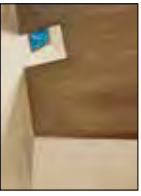
카잔차키스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희곡 세 편을 모았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가를 그린 「크리스토퍼 콜롬버스」, 그리스 신화를 차용한 「멜리사」와 「쿠로스」 수록.

미할리스 대장

5

이윤기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336, 324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eBook**

카잔차키스의 현대판 『일리아스』. 19세기 후반 크레타를 배경으로 그리스와 터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서사시적 투쟁을 그려 낸 장편소설.



최후의 유혹 28

안정효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408, 400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카잔차키스가 파악한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 바티칸이 금서로 지정하고, 스코시지가 영화로 만들어 또 한 번 논쟁이 되었던 소설. 예수뿐 아니라 라자로와 마리아 막달레나, 마르타와 마리아 등 예수의 주변 인물들에게 진정한 삶을 부여하고 있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성자 프란체스코 5

김영신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308, 304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헌정한 소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걸인의 삶을 산, 모든 성자들 중 가장 사랑스러운 이 프란체스코의 삶이 카잔차키스의 펜 끝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전쟁과 신부

안정효 옮김 | 2008년 | 412면 | B6 견장정 | 10,800원

1940년대 내전에 휩싸인 그리스의 한 마을. 야나로스 신부의 아들 드라코스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 공산주의 반란군에 가담한다. 살인과 파괴로 얼룩진 나날이 계속되자 야나로스 신부는 이 세계의 죄에 대해 고뇌한다.

30
Books

영혼의 자서전 51

안정효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360, 38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카잔차키스가 죽기 직전에 쓴 자서전적 소설.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크레타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 대한 묘사, 정신적 충만함을 찾아 이탈리아, 예루살렘, 파리, 빈, 베를린, 러시아를 헤매다 다시 크레타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카잔차키스의 편지 2

엘레니 카잔차키 엮음 | 안정효 옮김 | 2008년 | 전2권 | 각 520, 496면 | B6 견장정 | 각 10,800원

카잔차키스가 남긴 방대한 편지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삶이자 그가 경험한 20세기의 파란만장한 역사. 창작의 고뇌와 끝없는 여행,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 등 위대한 작가의 삶을 생생하게 재구성한다.

그리스인 조르바
돌의 정원
러시아 기질
오레아 기질
피할리스 대장.
크레타
성자 프란체스코.
소돔과 고모라 의
수난.
스페인 기질
일렉산드로스 대왕
영웅 기질
영혼의 자서전.
오디세이아.
영혼-음악 기질
자유의 기질
희곡의 유혹.
카잔차키스의 반지.
크노소스 궁전
전설과 신화
로디 라마
황연의

PAGE 397
니코스 카잔차키스

Fedor Dostoevskii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도스또예프스끼(1821～1881)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언젠가는 읽어야 할 작가, 평론가들에게는 가장 문제적인 작가, 문인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작가 제1순위로 꼽히는, 그 영향력에 있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작가이다. 그를 스승이라고 부른 니체로부터 그를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추앙한 프랑스의 실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사상과 문학은 모두 그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일생 동안 그를 괴롭힌 간질병, 사형 집행 직전의 특사, 기나긴 시베리아 유형 생활, 광적인 도박벽 그리고 끝없는 궁핍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을 반영하듯 그의 작품들은 격정적이고 논쟁적이다.

1821년 10월 30일 모스끄바의 마린스끼 자선 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도스또예프스끼는 어린 시절부터 월터 스콧의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전기와 역사 소설을 탐독했다. 이후 그는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데』에 영향을 받아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농노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급변하는 과도기 러시아 사회 속에서의 고뇌를 작품으로 형상화했으며, 이러한 그의 사고관은 이후 러시아 메시아주의로 성장했다. 정신분석가와 같이 인간의 심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고도 예리하게 해부한 도스또예프스끼의 독자적인 소설 기법은 근대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작품들에 나타난 다면적인 인간상은 이후 작가들에게 전범이 되었다.
선과 악, 성(聖)과 속(俗), 과학과 형이상학의 양극단 사이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상가로서 도스또예프스끼는 당대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회적·철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숙고한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도 변치 않는 삶의 영원한 가치를 전해 준다. 현대라는 상황을 그만큼 잘 관찰하고 인간 심리를 잘 포착한 작가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글은 아직도 시의성이 있고, 현대적이며, 역동적이다.

Essay

도스또예프스끼론

꼬마 귀족 표도르가 빈민 병원에서 본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궁극의 건물이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 단 한 명의 미약한 생명, 이를테면 아까 말한 조그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던 불쌍한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치자. 무고한 아이의 보상받을 수 없는 눈물을 토대로 그 건물을 세워야 한다면, 너는 그런 조건하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니? 자 어디 솔직히 대답해 봐! 네가 건설한 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희생자의 보상 없는 피 위에 세워진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결국 받아들여서 영원히 행복해진다 하더라도, 너라면 과연 그따위 이념을 용납할 수 있겠니?〉

도스또예프스끼 최후의 대작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에서 주인공이 던지는 질문이다. 많은 작가와 사상가 들을 도스또예프스끼와 연결시켜 주는 유명한 대목이기도 하다. 다수의 행복과 한 아이의 고통이 대립하는 이 질문에서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한 반론을 읽어 냈다. 그래서 도스또예프스끼의 문학은 윌리엄 제임스의 『도덕 철학과 도덕적 삶』, 어슐러 르귄의 SF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 나가면서 공리주의 도덕론과 행복론과 정의론을 논박한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스또예프스끼에게 고통은 어떤 특정 이념이나 이론의 옳고 그름을 재는 척도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다.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의 대립이 언제나 중요한 것도 아니다. 빈곤·질병·죽음을 골자로 하는 고통은 인간 보편의 조건이며 인간에 관한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일생 동안 대문호를 휘감은 가장 끈질기고 가장 집요한 관념이자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테마다.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두 가지 형태로 실현되기 마련이다. 하나는 나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배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고통을 분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의 고통까지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통의 테마 역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가능성, 요컨대 〈고통의 상대성〉을 따라간다. 양심도 도덕적 성찰도 책임도 모두 이 문제를 비켜 갈 수 없다. 도스또예프스끼 사유 목록의 이른바 〈시그니처 메뉴〉라 할 수 있는 선과 악, 신과 인간, 자유, 사랑, 구원의 문제는 모두 실존적 고통이라는 이름의 단일한 씨앗에서 싹 틔어 자라나 온 것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를 밝히려면 우선 그의 출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의 출생에는 운명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내 풍족한 삶이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은 아닐까

그는 1821년 10월 30일(이하 모든 날짜는 구력) 모스끄바 마린스끼 빈민 병원에서 그 병원 소속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미하일 도스또예프스끼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1821년 초에 빈민 병원 담당의로 발령을 받아 본관 남쪽 윙의 사택에 둥지를 틀었다. 근면하고 성실한 근무 덕분에 닥터 도스또예프스끼는 1828년 성 안나 훈장을 받고 8등관으로 승진했다. 19세기 러시아 관등 체계에 따르면, 8등관부터 법적으로 세습 귀족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닥터는 득달같이 귀족 명부에 자신과 두 아들의 이름을 올렸다.

도스또예프스끼는 1837년 5월 공병학교 입학을 위해 상뜨뻬쩨르부르끄에 갈 때까지 약 16년 동안 모스끄바에서 살았다. 그 많은 장소 중 하필이면 빈민 병원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과 사춘기를 보냈다는 것은 결코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빈민 병원은 서류상으로나마 귀족인 중산층 가장이 성장기 자식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일 것이다. 도스또예프스끼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은 병원에 실려 온 극빈층 환자들이었다. 아이들이 환자 가까이 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어린 표도르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서 혹은 보리수 우거진 병원 마당에서 뛰어 놀면서, 현관과 층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에 찌든 사람들을 흘끔흘끔 훔쳐보았다. 가끔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시신을 보기도 했다.

거리 풍경 또한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실제 날씨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는 언제나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근처에 말을 갈아매는 역참이 있어서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죄수를 가득 실은 썰매가 수시로 병원 앞을 오갔다. 인근 부띠르까 감옥으로부터 중병에 걸린 죄수를 이송하는 무개 마차 역시

병원 앞을 지나갔다. 길가에서 혹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도스또예프스끼는 이 슬픈 인간 군상을 질리도록 보았다. 유모가 소스라쳐 놀라 아이의 눈을 가리곤 했지만 소용없었다.

도스또예프스끼 가족이 살았던 병원 사택은 현재 〈도스또예프스끼 생가 기념관〉으로 보존돼 있다. 본관 앞 도로는 〈도스또예프스끼 거리〉로 불리며, 도로 끄트머리에는 전철역 〈도스또예프스까야〉가 있다.

그러나 그가 살 당시 이 지역의 이름은 〈신의 집〉이라는 뜻의 〈보제돔까Bozhedomka〉였다. 그것은 반어적으로 버림받은 영혼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 즉 극빈자 묘지를 지칭했다. 18세기 말까지 그 일대에는 행려병자와 무연고자와 자살자를 위한 빈민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민 병원 건물을 번듯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것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속내를 반영한다는 게 역사가들의 얘기지만, 실제로 가보면 오히려 생뚱맞게 위풍당당한 그 건물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스산하게 느껴진다.

따뜻하고 안전한 방 안에서 날마다 빈곤과 질병과 죽음을 내다보면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불쌍하다는 생각은 나중에 들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싫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타인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 타인의 고통을 못 본 척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순간엔가는 자신의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그의 마음속에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게 들어앉은 저 비참한 무리의 모습이 훗날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에서 고통받는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응축되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도스또예프스끼가 첫 소설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고통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에서 한때 공상적 사회주의에 이끌렸던 것도, 인생의 중반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도, 〈학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소설에 등장시킨 것도, 모두 출생에서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작가에게 〈연민〉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

도스또예프스끼에게 고통은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라 앞으로 조금씩 풀어갈 예정이다. 다만 그가 고통에 대한 대안으로 찾은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원칙도 아닌 연민이었다는 점만은 미리 말해 두어도 좋을 것 같다. 연민은 그의 윤리적 어젠다 맨 앞줄을 차지한다. 〈연민은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인간 실존의 법칙이다〉 혹은 〈연민 —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부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값싼 동정이나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니다. 러시아어로 연민 sostradanie은 〈함께 so〉와 〈고통 stradanie〉을 합성한 단어다. 영어의 컴패션 compassion도 같은 원리다. 요컨대 타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곧 연민이다. 도스또예프스끼는 물질의 분배가 아닌 고통의 분담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연민이 없다면, 그 어떤 윤리도 철학도 그리고 결국 문학도 허망한 미사여구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연민이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할 때 밀려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무력감까지도 사실은 인간적인 것이다. 연민이 지상 낙원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만일 연민마저 없다면 지상 지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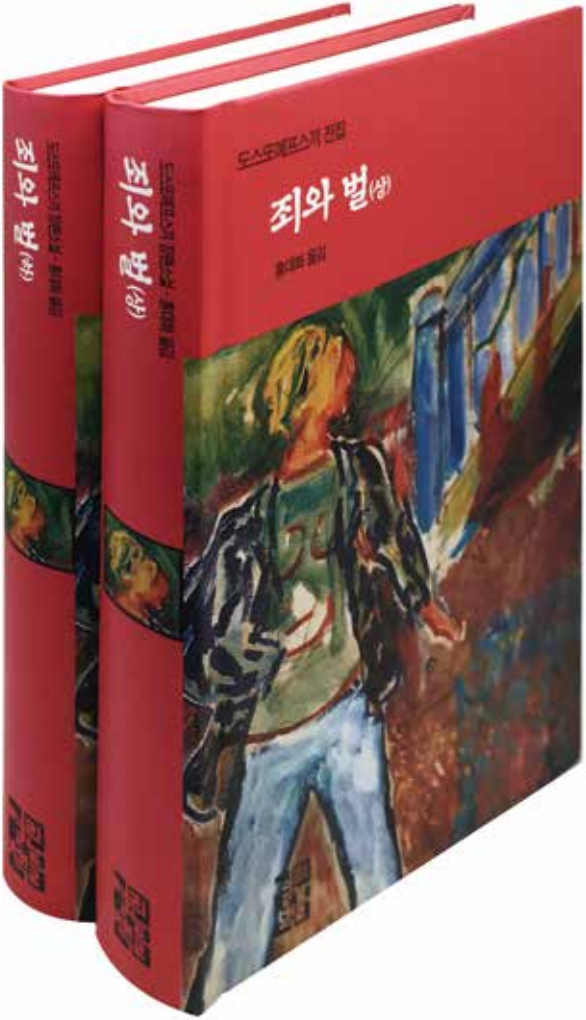
러시아에는 총 6개의 도스또예프스끼 기념관이 있다. 그중 모스끄바 기념관은 관리가 허술한 편이다. 담당자는 불친절하고, 얼마 전부터는 흔해 빠진 팸플릿이나 우편엽서도 팔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러시아에 갈 때마다 거기 들른다. 새삼스럽게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챙기려는 의도는 없다. 그냥 어린 시절 도스또예프스끼의 오감으로 그 슬픈 지역을 다시 한번 느껴 보고 싶어서다. 〈신의 집〉은 지도에서 사라진 지 오래건만 여전히 그곳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넋이 떠도는 것만 같다. 왠지 바람도 더 차고 대지는 더 음울하게 느껴진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념관 정원에 세워진 동상 때문이다. 나는 러시아 안팎에 있는 수많은 도스또예프스끼 동상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좋다. 소비에뜨 시대를 풍미했던 조각가 세르게이 메르꾸로프가 혁명 전인 1914년에 완성한 것으로, 조각가의 철학적 공력이 아낌없이 묻어난다. 대문호가 입고 있는 가운은 왼쪽 어깨에 떨어질 듯 걸쳐 있고 시선은 비스듬하게 저 아래 어딘가를 향해 있고 두 손은 마주 잡은 모습이다. 구도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도 기묘한 힘을 발산한다. 고통을 직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일까, 시선은 정면에서 비껴 있다. 그러나 마주 잡은 두 손에는

일종의 결연함이 들어가 있다. 인간에게 손이 두 개라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오른손과 왼손의 굳건한 결합 덕분에 옷자락이 그나마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지 않는 것 같다.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꼭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붙잡을 데라고는 결국 인간밖에 없을 테니.

석영중(고려대 노문과 교수), 『중앙선데이』 2018.1.14.
『매핑 도스토옙스키 — 대문호의 공간을 다시 여행하다』 34~40면에 수록

Fedor Dostoevskii



도스또예프스끼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1 죄와 벌

명문대 재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다!

2 분신, 가난한 사람들

인간은 베푸는
동물이다.

3 백야

꿈꾸는 자,
사랑을 얻지
못하리라.

4 지하로부터의 수기외

외톨이족의 최후, 몰컴족의 말로!

5 악령

이념 때문에 친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다.

6 노름꾼외

모 재벌 미망인,
카지노에서 전 재산 탕진!

스쩨빤치꼬보 마을 사람들

이중 인간, 정체가 드러나다.

7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치정 싸움 끝에 친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 법정에 서다.

8 아저씨의 꿈외

돈 많은 늙은 귀족에게
딸을 시집보내려다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

19세기와 21세기의 크로스오버, 도스또예프스끼 _ 석영중(고려대 교수)

내가 구닥다리 19세기 소설, 그것도 장장 1천5백 쪽에 이르는 도스또예프스끼의 장편소설을 허구한 날 읽으면서도 매번 눈물까지 질질 흘려 가며 감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논문을 쓰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고 싶어서 도스또예프스끼를 읽는다. 한 두어 달 전에도 메모와 낙서와 밑줄과 손자국으로 떡칠이 된 『죄와 벌』을 읽었다. 또 읽었더니 또 재미가 있었다. 그렇다, 도스또예프스끼는 일단 무지무지 재미있다. 그는 현학적이지 않다. 고상한 척도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고 쓸데없이 철학적이지도 않다. 〈명문대 재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다!〉, 〈모 재벌 미망인, 카지노에서 전 재산 탕진!〉 나의 저급한 흥미를 자극하는 이런 소재들을 통해 도스또예프스끼는 놀랄 만큼 정확하게 인간을 읽어 냈다.

10

백치 도덕성이 타락한 시대, 백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11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시대의 자화상!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12

영원한 남편 외
현대판 좀비들의 향연, 보보끄!

9

미성년
거부가 되고자 한 청년 쪽박 차다!

13

★1번부터 13번까지, 장편 /단편/ 장편 리듬을 타자!

★도스또예프스끼 읽기 사전 – 크로스오버를 내 삶에서 완성시키는 설계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도스또예프스끼의 문학 작품

21세기가 된 지금 우리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정보들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도 도스또예프스끼가 작품 속에서 형상화한 인도주의, 실존의 문제, 선악의 의미 등은 변함없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열린책들이 도스또예프스끼 전집을 주목하는 까닭이다.

국내 최초 러시아어 완역판

도스또예프스끼 전집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죄와 벌』,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백치』, 『악령』, 『지하로부터의 수기』 등을 비롯한 그의 전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러시아어 완역판 전집이다. 영어판과 일본어판을 중역한 지금까지의 도스또예프스끼 작품들을 벗어나서 러시아어판 원전 번역을 통해 일반 독자들도 러시아 문학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도스또예프스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고의 과정을 거친 열정의 산물

〈열린책들판〉 도스또예프스끼 전집은 열린책들이 러시아 문학 전문 출판사로서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학을 발굴, 소개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번역하고 만들어 낸 열정의 산물이다. 이 전집은 1994년 첫 번역 계약을 맺은 이래, 1995년부터 번역 원고가 탈고되기 시작했으며, 원서 대조 과정과 국내 판본과의 대조 과정, 7회 이상의 교열 과정을 거쳤다. 번역 대본도 권위 있는 러시아 『나우까』판 전집과 『쁘라브다』판 전집을 대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러시아 문학의 흐름 속에서 도스또예프스끼 문학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의 러시아 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꼼꼼히 번역되었다. 또한 시대순으로 그의 작품을 배열함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의 변화 과정을 독자들이 좇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2000년 견장정 블루판(전24권)
- 2002년 레드판(전18권)
- 2007년 연장정 보급판(전18권)
- 2010년 W세계문학판 발행(전26권)

19
Books

분신, 가난한 사람들 37

석영중 옮김 | 2000년 | 440면 | B6 연장정 eBook

『가난한 사람들』은 도스또예프스끼의 데뷔작으로 서간체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이 작품은 새로운 형식의 탐구와 진정한 완성에 대한 갈망으로 점철된 그의 예술적 엄격함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수차례에 걸친 개작과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또한 『분신』은 〈뻬쩨르부르그 서사시〉라고도 불리는데, 벨린스끼 사상의 흔적이 엿보인다.

백야 외 23

쁘로하르친 씨 |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 | 뻬쩨르부르그 연대기 | 여주인 | 남의 아내와 침대 밑 남편 | 약한 마음 | 뽈준꼬프 | 정직한 도둑 | 크리스마스 트리와 결혼식 | 꼬마 영웅

석영중 외 옮김 | 2000년 | 576면 | B6 연장정 eBook

『가난한 사람들』의 성공 직후에 당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자적 시각을 가지고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를 사용하며 쓴 작품들. 어슴푸레함만이 계속되는 뻬쩨르부르그의 여름밤을 무대로 한 순수한 청년이 겪는 꿈과 현실을 분간할 수 없는 기묘한 사랑을 묘사한 소설 『백야』 등 수록.

아저씨의 꿈 외 10

네또츠까 네즈바노바 | 아저씨의 꿈

박종소 외 옮김 | 2000년 | 528면 | B6 연장정 eBook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중기를 대표하는 중편소설. 사회풍자적이며 희극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밖에 청년 도스또예프스끼가 최초로 시도한 장편소설 『네또츠까 네즈바노바』 수록.

스쩨빤치꼬보 마을 사람들 6

변현태 | 2000년 | 416면 | B6 연장정 eBook

『아저씨의 꿈』과 함께 시베리아 유형 직후에 발표된 작품이다. 도스또예프스끼가 애정을 쏟은 작품으로 작가의 창작 의도인 〈두 거대한 전형적 성격〉의 형상화를 보여 준다. 또한 『아저씨의 꿈』에서 보여 준 유쾌한 희극적 기법을 유지하고 있다.

상처받은 사람들 16

윤우섭 옮김 | 2000년 | 592면 | B6 연장정 eBook

뻬쩨르부르그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로, 러시아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사회적 문학적 사건들, 즉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 농노제 폐지, 소설 문학의 전성기, 새로운 신문과 잡지의 발간의 와중에서 쓰였다. 19세기 중엽의 러시아 수도 내의 실제 구역과 접목되는 공간을 상세히 묘사해 뻬쩨르부르그 상류 사회의 이중적 삶과 하층민의 고통, 그로 인한 비극적 갈등과 모순을 그리고 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 외 32

죽음의 집의 기록 |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덕형, 계동준 옮김 | 2000년 | 696면 | B6 연장정 eBook

도스또예프스끼의 창작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작가 창작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 이 작품에는 이후의 대작들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이 크고 작은 정도에서 대부분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러시아 최초의 수용소 소설이자 인간의 죄악과 본성의 문제를 작가의 체험을 통해 밀도 깊게 묘사한 「죽음의 집의 기록」 수록.

노름꾼 외 19

악몽 같은 이야기 |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 | 악어 | 노름꾼

박혜경 외 옮김 | 2000년 | 536면 | B6 연장정 eBook

1866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노름꾼』은 1860년대 전반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그가 향후 9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저작권을 내주어야 한다는 출판사의 위협 아래 27일 만에 급하게 쓴 소설이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를 흔들고 괴롭혔던 다양한 사건들이 박진감 있게 그려져 있다.

19
Books

죄와 벌 129

홍대화 옮김 | 2000년 | 전2권 | 각 408, 504면 | B6 연장정 eBook

작가로서 명실공히 도스또예프스끼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든 후기 5대 장편 가운데 첫 작품. 한 가난한 대학생의 범죄를 통해 무엇보다도 죄와 벌의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며 있으며, 이성과 감성, 선과 악, 신과 인간, 사회 환경과 개인적 도덕의 상관성, 혁명적 사상의 실제적 문제 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2002년 노벨 연구소 선정 〈세계문학 100선〉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7위

백치 70

김근식 옮김 | 2000년 | 전2권 | 각 504, 520면 | B6 연장정 eBook

이 작품은 도스또예프스끼의 5대 장편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라는 평을 받아 왔다. 그는 전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에 대해 염원해 왔고, 그 형상의 구현을 백치인 미쉬낀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악령 72

김연경 옮김 | 2000년 | 전2권 | 각 600면 | B6 연장정 eBook

네차예프 사건에 강한 인상을 받은 도스또예프스끼는 자신이 젊은 시절 몸담았던 뻬뜨라셰프스끼 모임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네차예프 사건을 새 소설의 소재로 쓰기로 마음먹는다. 초기 구상 단계의 정치 팸플릿적 특징에다 점차적으로 심리적, 형이상학적 색채를 가미하여 위대한 비극 소설을 탄생시켰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Fedor Dostoevskii

영원한 남편 외 12

영원한 남편 | 보보끄 | 예수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대된 아이 | 농부 마레이
백 살의 노파 | 온순한 여자 | 우스운 사람의 꿈

정명자 외 옮김 | 2000년 | 440면 | B6 연장정 **eBook**

도스또예프스끼적 특징이랄 수 있는 인물의 성격 묘사, 날카로운 심리 묘사, 해학적 표현,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온순한 여자」는 〈내적 독백〉 혹은 〈의식의 흐름〉이라 불리는 서술 형식을 사용한 작품이며, 「우스운 인간의 꿈」은 환상적 리얼리즘을 실현한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미성년 24

이상룡 옮김 | 2000년 | 전2권 | 각 512, 544면 | B6 연장정 **eBook**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청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방황을 그린 성장 소설. 도입부에서 주인공이자 1인칭 화자인 아르까지 돌고루끼가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품은 작가의 자서전적 소설로 평가된다.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121

이대우 옮김 | 2000년 | 전2권 | 각 704, 736면 | B6 연장정 **eBook**

도스또예프스끼의 마지막 장편소설. 40여 년간에 걸친 작가 창작의 결산으로서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사상적 깊이와 이에 걸맞은 예술적 구조를 구현한 작품이다. 원래 2부작으로 구상되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완성한 지 약 석 달 만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많은 인물군과 무수한 에피소드를 담은 방대한 규모의 소설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 주며,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문학 작품의 총체성〉을 구현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1954년 서머싯 몸이 추천한 세계 10대 소설
- 1955년 시카고 대학 〈그레이트 북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1993년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2008년 하버드 서점이 뽑은 〈잘 팔리는 책 20〉
-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50선
-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조선일보 조사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 공동 1위

도스또예프스끼 읽기 사전 (별권) 2

조유선 편저 | 2002년 | 768면 | B6 견장정 | 절판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에서 최후의 대작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도스또예프스끼의 모든 작품에 대한 해설과 작품 속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문학적, 역사적, 전기적, 신화적 인물 등), 역사적 사건들, 문학 작품 및 작품사, 철학서들, 러시아의 지명 및 행정 구역, 관등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의해 언급된 속담, 격언, 역사적 명언, 『성서』의 인용 등에 대한 해제와 주석을 싣고 있다.

★ 『도스또예프스끼 평전』, 『도스또예프스끼가 말하지 않은 것들』, 『도스또예프스끼와 여성』을 통해 도스또예프스키의 삶과 문학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 도서목록 366, 448면 참조).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Dostoevskii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2021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4대 장편 세트가 새로운 장정으로 출간되었다. 주목받는 신예 화가 김윤섭 작가가 표지 작업에 참여했으며, 고급스러운 천 장정을 사용하여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의 품격을 더욱 살리고자 했다.

8
Books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홍대화 옮김 | 2021년 | 전2권 | 각 520, 632면 | A5 견장정

백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김근식 옮김 | 2021년 | 전2권 | 각 632, 656면 | A5 견장정

악령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박혜경 옮김 | 2021년 | 전2권 | 각 688, 712면 | A5 견장정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대우 옮김 | 2021년 | 전2권 | 각 872, 928면 | A5 견장정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Dostoevskii

Korean Poetry

한국 대표 시인 초간본 총서

- 한국 현대시 100년을 초간본 그대로 재현
- 문학 평론가 이남호 교수(고려대) 책임 편집
- 한국 현대 화가 20인이 표지화 작업
- 전20종 20권

20
Books

20세기 초 한국의 젊은 천재 시인들이 남긴 최초의 시집들이 다시 태어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까지, 한국 대표 시인의 초간본 시집 20권. 한국 현대 지성사와 예술사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우리 정서의 밑바탕을 만들어 준, 한국 현대시의 고향과 같은 시집들이다.

열린책들의 〈한국 대표 시인 초간본 총서〉는, 그간 이런저런 선집에 분산 수록되어 본래의 온전한 모습을 만나기 어려웠던 시집들을 초간 당시의 배열로 복원하여 편집함으로써 시인들이 담고자 했던 애초의 진의, 그 시의 정신까지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원시집을 그대로 영인하는 단순 복원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늘날의 독자가 그 시들에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문학적 복원 작업〉을 거쳤다. 상세한 주석을 달고, 엄밀한 교정을 거쳤으며, 각 시집에 그 시집의 문학적 의의에 대한 해설을 더했다. 한자를 한글로, 현대와 큰 차이가 있는 표기는 현대 표기법을 따르는 수준의 엄격히 제한적인 수정을 통해 원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본래의 시정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 〈쇼와(昭和) 16년〉, 〈정가 1원 80전〉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시인의 주소까지 적혀 있는 초간본의 간기 사항을 그대로 수록해, 시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정황을 엿볼 수 있게 했다.

20인의 한국 현대 화가들이 참여해 각각의 시집을 위한 회화 작품을 탄생시켰고, 이 작품들을 표지화로 채택하여 디자인을 완성했다.

Korean Poetry

해파리의 노래
김억 | 표지화 최석운 | 2004년 | 192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진달래꽃
김소월 | 표지화 이경애 | 2004년 | 248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님의 침묵
한용운 | 표지화 정원철 | 2004년 | 184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카프 시인집
김창술 외 | 표지화 권여현 | 2004년 | 120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정지용 시집
정지용 | 표지화 백진 | 2004년 | 200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영랑 시집
김영랑 | 표지화 김선수 | 2004년 | 96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사슴
백석 | 표지화 한혜선 | 2004년 | 88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현해탄
임화 | 표지화 박광열 | 2004년 | 248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낡은 집
이용악 | 표지화 최선길 | 2004년 | 88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망향
김상용 | 표지화 이희중 | 2004년 | 64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헌사
오장환 | 표지화 배석빈 | 2004년 | 64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와사등
김광균 | 표지화 정충일 | 2004년 | 80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태양의 풍속
김기림 | 표지화 공성훈 | 2004년 | 208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청마시초
유치환 | 표지화 구본주 | 2004년 | 120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초롱불
박남수 | 표지화 장문걸 | 2004년 | 64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백록담
정지용 | 표지화 백진 | 2004년 | 152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청록집
박목월·조지훈·박두진 | 표지화 김영훈 | 2004년 | 104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육사 시집
이육사 | 표지화 장동호 | 2004년 | 72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오랑캐꽃
이용악 | 표지화 이홍덕 | 2004년 | 96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 표지화 선종훈 | 2004년 | 112면 | B6 변형 견장정 | 6,500원

Korean Poetry 100th Anniversary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한국 최초의 현대 창작시집 『해파리의 노래』 출간 100주년을 맞아 한국 시 100년을 되새기는 기념판. 20세기 초, 우리 시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 준 20종의 시집을 엄선해 그 초간본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했다. 각 열 권 두 세트, 총 스무 권으로 구성된 100주년 기념판에는 과거에 대한 회고를 넘어 새롭게 읽음으로써 그 생명이 다시금 오늘의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2004년 발간된 〈한국 대표 시인 초간본 총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집하고, 각 시집이 지닌 정서와 주제 의식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표지를 입혔다.

20
Books

하늘 세트

해파리의 노래
김억 | 2022년 | 176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진달래꽃
김소월 | 2022년 | 224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님의 침묵
한용운 | 2022년 | 160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정지용 시집
정지용 | 2022년 | 168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영랑 시집
김영랑 | 2022년 | 80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사슴
백석 | 2022년 | 72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망향
김상용 | 2022년 | 56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청마시초
유치환 | 2022년 | 96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백록담
정지용 | 2022년 | 120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청록집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 2022년 | 88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바람 세트

카프 시인집
김창술, 권환, 임화, 박세영, 안막 | 2022년 | 104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현해탄
임화 | 2022년 | 200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낡은 집
이용악 | 2022년 | 72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헌사
오장환 | 2022년 | 56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와사등
김광균 | 2022년 | 64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태양의 풍속
김기림 | 2022년 | 184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초롱불
박남수 | 2022년 | 48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육사 시집
이육사 | 2022년 | 56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오랑캐꽃
이용악 | 2022년 | 80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 2022년 | 88면 | B6변형 연장정 | 3,800원 **eBook**

E. M. Forster

E. M. 포스터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는 187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톤브리지 스쿨을 거쳐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를 졸업한 그는 그곳에서 휴 메러디스를 비롯한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03년 케임브리지의 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월간지 『인디펜던트 리뷰』에 에세이 「마콜니아 상점들」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하였으며 다음 해, 같은 잡지에 단편소설 「목신을 만난 이야기」를 게재하여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07년 첫 장편소설 『천사들도 발 딛기 두려워하는 곳』을 발표한 이후, 『기나긴 여행』(1907), 『전망 좋은 방』(1909), 『하워즈 엔드』(1910)를 연이어 내놓아 평단과 대중 모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후 포스터는 로저 프라이, 버지니아 울프 등과 함께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20세기 초 영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1927년 대표작 『인도로 가는 길』을 발표하여 역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포스터는 소설가로서보다는 지식인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71년에 출간된 『모리스』는 1914년에 완성되었으나 작가 사후에 출간된 작품이다. 1949년 기사 작위를 서훈받았으나 거절하였고 1970년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91세로 사망했다.
F. R. 리비스가 확정한 헨리 제임스 — 조지프 콘래드 — D. H. 로런스로 이어지는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Great Tradition〉의 계보에서 E. M. 포스터는 D. H. 로런스의 출현을 가능케 한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 영국인처럼 여겨진다〉는 로런스의 말처럼 정통 영국 소설의 계보를 현대에까지 계승시킨 드문 작가이기도 하다. 생생하고 유머 가득한 필치와 특유의 문학적 아이러니, 그리고 영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으로, 포스터의 작품들은 발표 당시부터 폭넓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E. M. 포스터 원작 소설들의 영화화는 그를 가장 사랑받는 20세기 작가의 하나로 다시 떠오르게 했다.

기나긴 여행

고정아 옮김 | 2006년 | 464면 | B6 견장정 | 9,500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사랑에 목말라 있는 리키 앨리엇은 작가를 꿈꾸는 케임브리지 대학생이다. 사랑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과 정반대인 제럴드 도스와 약혼녀 애그니스 펨브로크를 동경한다. 불의의 사고로 도스가 사망하고 난 후 리키는 자신의 이상을 좇아 애그니스와 결혼한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히려 그를 세속적인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내리는데…….

하워즈 엔드

6

고정아 옮김 | 2006년 | 50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슐레겔가의 마거릿은 동생 헬렌과 윌콕스 집안 막내아들의 약혼 해프닝 이후 알게 모르게 윌콕스 집안이 가진 힘에 끌리기 시작한다. 문화적인 교양을 연마하며 공리공론만을 늘어놓는 그녀 주위의 사람들에 비해 윌콕스가의 남자들은 그들의 대담함과 결단성, 진취적인 자세로 문명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에 헬렌은 베토벤 콘서트에서 만난 금전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낭만주의자 은행 사무원 레너드와 가까워진다.
〈어느 계급이 영국을 상속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E. M. 포스터의 최고 걸작.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인도로 가는 길

6

민승남 옮김 | 2006년 | 456면 | B6 견장정 | 17,800원 **eBook**

아델라 퀘스티드는 약혼자의 어머니 무어 부인과 함께 인도 땅에 도착한다. 두 여인은 그곳에서 진실한 인도와 대면하기를 원하지만 약혼자 로니를 비롯한 그곳의 영국인들은 그러한 관심을 초심자의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만다. 그러던 중 무어 부인은 젊은 이슬람교 의사 아지즈를 만나 민족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아지즈는 이들을 마라바르 동굴로의 소풍에 초대한다. 그러나 아델라가 동굴 속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1924년 발표된 마지막 장편소설, 『인도로 가는 길』은 출간 즉시 영국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포스터의 대표작이 된 소설이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양국의 관계와 식민통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포스터는 영국령의 인도의 한 도시라는 응축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영국인들과 인도인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첨예한 대립과 이를 초월하여 화합으로 나아가려 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치밀하게 그려 내고 있다.

7
Books

전망 좋은 방 19

고정아 옮김 | 2005년 | 344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이탈리아 여행에 나선 주인공과 그녀의 완고한 사촌은 도착한 숙소의 방이 예약과 달라 당황한다. 이때 한 영국인 부자가 전망 좋은 자신들의 방을 양보하겠다며 나서고 이를 계기로 주인공의 사랑이 시작된다. 포스터의 작품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로맨틱한 소설.

『전망 좋은 방』은 포스터 초기 걸작 중 하나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들이 그곳에서 인습과 대치되는 정열을 느끼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풍부하고 생생한 묘사와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포착해 내는 포스터의 작가적 재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권말에는 후일담 격인 단편이 함께 실려 있어 해피엔드로 마무리되었던 주인공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려 보게 하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 1998년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최고의 영문 소설 100〉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모리스 9

고정아 옮김 | 2005년 | 360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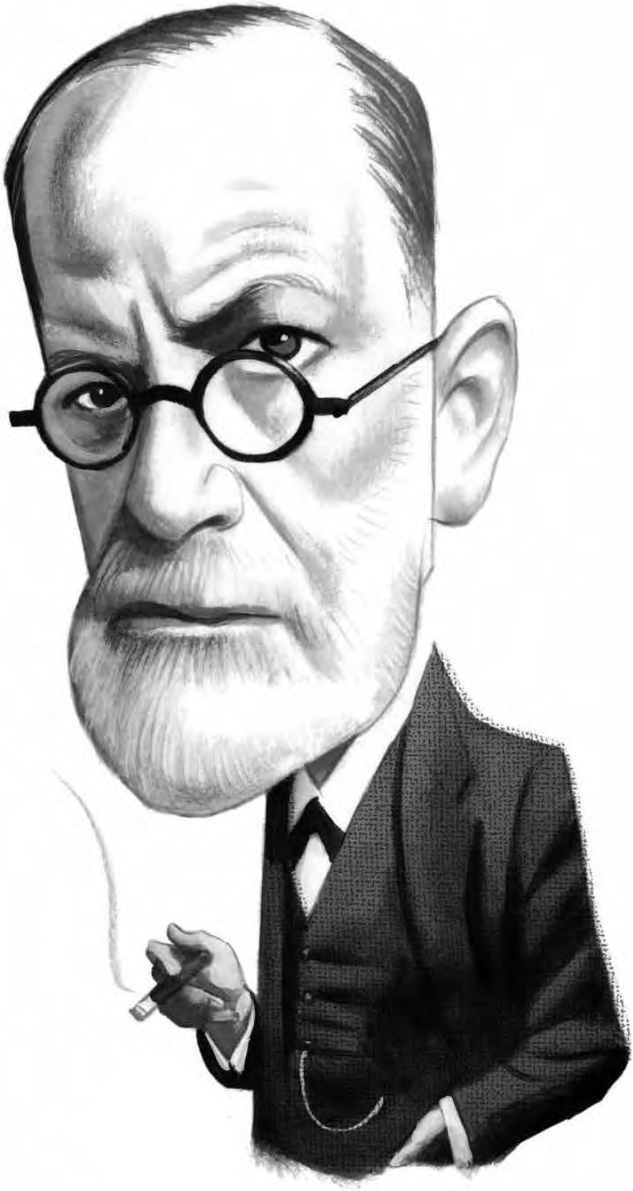
영국 중산층의 한 평범한 젊은이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당시에는 범죄시되었던 동성애를 다뤘기에 작가 사후인 1971년에야 출간되었다. 실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은 1914년으로, 출간은 57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모리스」로 영화화되었으며, 주연을 맡은 클라이브 역의 휴 그랜트와 모리스 역의 제임스 윌비는 그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천사들도 발 딛기 두려워하는 곳

고정아 옮김 | 2006년 | 248면 | B6 견장정 | 절판

콜로노스의 숲

이종인 옮김 | 2006년 | 368면 | B6 견장정 | 절판



Sigmund Freud

지크문트 프로이트

1896년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서 정신분석학의 단초를 마련하고, 1996년 정신분석학 정립 10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인간 정신의 탐구자. 현대 사상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가. 마르크스와 더불어 20세기 사상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무의식 세계의 개척자.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모라비아의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프로이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의 수수께끼들을 해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생물학에, 다음에는 브뤼케의 지도 아래 생리학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이후 신경 해부학, 신경 생리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 또한 샤르코 밑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최면술과 히스테리에 대한 지식에 접하게 되었다. 1886년 신경 질환 상담자로서 의료 활동을 시작한 프로이트는 요제프 브로이어 박사와 함께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과학을 출발시켰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신경증 환자들의 정신을 탐구하고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이 시작되었지만 곧 이 학문은 건강하건 병들었건 간에 정신 전반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매개 학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주로 꿈의 해석에 근거를 두어 인간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힘들을 발견해 냈다.
프로이트. 그는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이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지만, 실제로는 편안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문학가이기도 하며 그의 글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프로이트의 저술로는 널리 알려진 『정신분석 강의』, 『히스테리 연구』, 『꿈의 해석』 외에도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등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분석은 물론 문학 작품을 분석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 1997년 12월 견장정 옐로판 (전20권)
- 2003년 9월 견장정 모노크롬화판 (전15권)
- 2020년 10월 견장정 개정3판 (전15권)

프로이트 전집을 제대로 읽는 방법

Q1 정신분석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독자는 ▶▶▶

Q2 자기가 신경이 날카롭다거나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독자는 ▶▶▶

Q3 정신분석학을 심도 있게 연구한 독자는 ▶▶▶

Q4 깊이 있는 정신분석 이론을 접하기 전에 정신분석의 흥미진진한 부분에 대해 먼저 알고 싶은 독자는 ▶▶▶

Q5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기저기서 들어 본 것도 있는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독자는 ▶▶▶

Q6 어린 자녀의 심리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

Q7 프로이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고 싶은 독자는 ▶

Q8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맹신에 빠질 위험이 있는 독자는 ▶▶▶

Q9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정신분석을 이용한 문화 비평에 관심이 있는 독자

1 정신분석의 주변적인 이야기인 **꿈의 해석**을 두 번째 장부터 읽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장은 관련 학술서를 소개하느라 좀 지루하기 때문이다. 2 정신분석학의 맛을 약간 보았으면, 기본적인 프로이트의 이론이 실려 있는 **정신분석 강의**를 읽는다.

1 **히스테리 연구**에 실린 사례 연구를 읽는다. 다른 장들은 이론적인 부분이므로 지적인 성숙을 원할 때나 읽는 것이 좋다. 2 어떻게 히스테리가 발생하고 치료하는지 알고 싶으면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에 실린 **〈히스테리 발작에 관하여〉**를 읽는다.

1 이미 프로이트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어쩌면 약간의 지겨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쉬며 읽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을 먼저 읽는다. 2 좀 머리를 식혔으면, 다음에는 프로이트 이론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를 읽는다.

1 **늑대 인간**에 실린 **〈쥐 인간〉**, **〈늑대 인간〉** 등의 사례를 먼저 읽는다. 편집증이나 신경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2 인간은 농담하는 동물이다. 다음으로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던 농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것이다.

1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에서 **〈무의식에 관하여〉**를 읽는다. 2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을 알고 싶으면 죽음 본능, 생명 본능, 쾌락 원칙, 현실 원칙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를 읽는다.

1 이유 없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결국엔 말 공포증에 걸린 다섯 살 소년의 분석이 실린, **꼬마 한스와 도라**를 읽는다. 2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아이의 성욕에 대해 알고 싶을 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 실린 논문들을 살펴본다.

▶▶▶

1 자전적 기록인 **정신분석학 개요**에서 **〈나의 이력서〉**를 읽는다. 대략적인 생애와 학술적 발전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 2 프로이트 이론의 흐름과 어떤 식으로 정신분석이 활용되어 왔는지 알고 싶으면 **〈정신분석 운동의 역사〉**를 읽는다.

1 기독교계의 비판을 받아 온 **종교의 기원**에 실린 논문들을 읽으며 냉정을 찾는다. 2 **문명 속의 불만**에 실린 **〈환상의 미래〉**를 통해 프로이트의 종교관을 알아보며 자기의 신앙에 대해 곱씹어 본다.

자는 ▶▶▶

1 주로 문학 속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성격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본 **예술,문학,정신분석**에서 **〈작가와 몽상〉**을 읽는다. 셰익스피어와 괴테와 도스또예프스끼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 프로이트가 미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미켈란젤로의 모세 상〉**을 읽는다.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동성애적 성향과 어머니에 대한 갈망을 알게 될 것이다.

정신분석 강의 46

임홍빈, 홍혜경 옮김 | 2020년 | 712면 | A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1915년 10월에서 1916년 3월, 1916년 10월에서 191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빈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정신분석 강의』는 프로이트 이론의 입문서로, 비교적 수월하게 프로이트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프로이트는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정신분석 이론을 깨치도록 배려하고 있다.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20

임홍빈, 홍혜경 옮김 | 2020년 | 320면 | A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는 프로이트가 1932년 정신분석학 출판계의 재정난 타개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쓴 글이다. 이 책은 앞서 출간된 『정신분석 강의』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인격의 구조나 불안, 죽음에 관한 충동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집약시켜 놓았다.

히스테리 연구 17

김미리혜 옮김 | 2020년 | 472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프로이트와 브로이어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카타르시스 요법을 발전시켜 나갔고 환자를 최면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자유 연상법을 개발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이러한 치료 요법을 통해 히스테리 연구의 기반을 닦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꿈의 해석 58

김인순 옮김 | 2020년 | 840면 | A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꿈의 해석』의 일곱 개 장은 정신분석의 기초를 이루며 신경증 치료의 근원이 되는 프로이트 이론의 활용에 대하여 꿈의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프로이트가 접했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꿈의 해몽 방법과 현재의 꿈-해석 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 17

이한우 옮김 | 2020년 | 432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열두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수 행위와 망각과 착오와 무의식의 관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풍부한 사례들과 특히 프로이트 자신의 저술 속에 나타난 잘못들을 예로 들면서 어떤 상황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빚어 내는지 설명한다.

18
Books

Sigmund Freud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20

박종대 옮김 | 2020년 | 336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다른 논문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예화들과 프로이트 당시의 농담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농담〉이라는 영역에 대하여 그 심리적 활동과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지 시원스럽게 밝혀 주고 있다. 프로이트는 농담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을 과감하게 반박하면서 농담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독특하고 매혹적인가, 농담의 기능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통찰을 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31

임홍빈, 홍혜경 옮김 | 2020년 | 320면 | A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이 책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를 포함한 성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는 『꿈의 해석』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독창적인 작품의 하나로 꼽히며, 19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수정 보완되면서 판을 거듭한 유명한 작품이다. 성적 충동이 인간의 심리 현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며, 유아에게조차 성욕이 존재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당대의 사회에 충격을 몰고 왔다.

꼬마 한스와 도라 19

김재혁 옮김 | 2020년 | 384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어린 한스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지, 그가 말 공포증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다섯 살배기 꼬마 한스의 공포증 분석」은 유아기 성적 발달의 전형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보고이다.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은 뒷날 여성성의 문제의 해명에도 결정적인 논문이다.

늑대 인간 19

김명희 옮김 | 2020년 | 448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프로이트가 치료한 환자들의 증상을 예로 들어 여자 동성애, 강박증, 유아기 노이로제, 편집증 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피력한 논문들을 묶어 놓은 것이다. 유아기 늑대 공포증 환자 〈늑대 인간〉, 쥐 강박증에 시달린 〈쥐 인간〉, 편집증의 원인이 동성애의 억압에 있음을 해명한 〈슈레버〉 등의 증례 수록.

불안과 억압 13

황보석 옮김 | 2020년 | 368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이 책은 프로이트의 자유 연상을 이용한 정신분석을 통해 무의식의 성질을 밝혀 내며 억압된 정신세계를 의식으로 끌어 올려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약동적인 정신 의학의 기초이다. 구판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의 개정판.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31

윤희기, 박찬부 옮김 | 2020년 | 560면 | A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이 책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와 더불어 프로이트 이론의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개념들을 총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는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책을 통하여 정신분석을 개괄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프로이트 사상 전개의 중심이 되는 논문으로 평가되며, 그의 초기의 논의를 요약한 글로서도 가치가 높다.

문명 속의 불만 25

김석희 옮김 | 2020년 | 424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프로이트가 자신의 인생과 연구 업적을 정리하면서 주시하게 된 분야는 바로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었다. 이 책은 문명적 제약과 본능적 요구의 대립적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인류의 강박 신경증〉인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교의 기원 21

이윤기 옮김 | 2020년 | 496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프로이트는 구약 성서와 유대 전설을 논거로, 모세가 이집트인이고 모세가 히브리인에게 전한 유일신교는 이집트의 종교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며, 성서의 분석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태곳적의 진실이 종교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해명하고 있다. 또한 신경증을 개인적인 종교성(宗教性)에 대한 강박적 집착, 종교를 보편적인 신경증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파악하며, 토템과 그에 대한 터부[禁制]의 심리학, 그리고 이 토템과 터부에 대한 원시인들의 양가적(兩價的)인 감정 습관을 분석한다.

예술, 문학, 정신분석 28

정장진 옮김 | 2020년 | 656면 | A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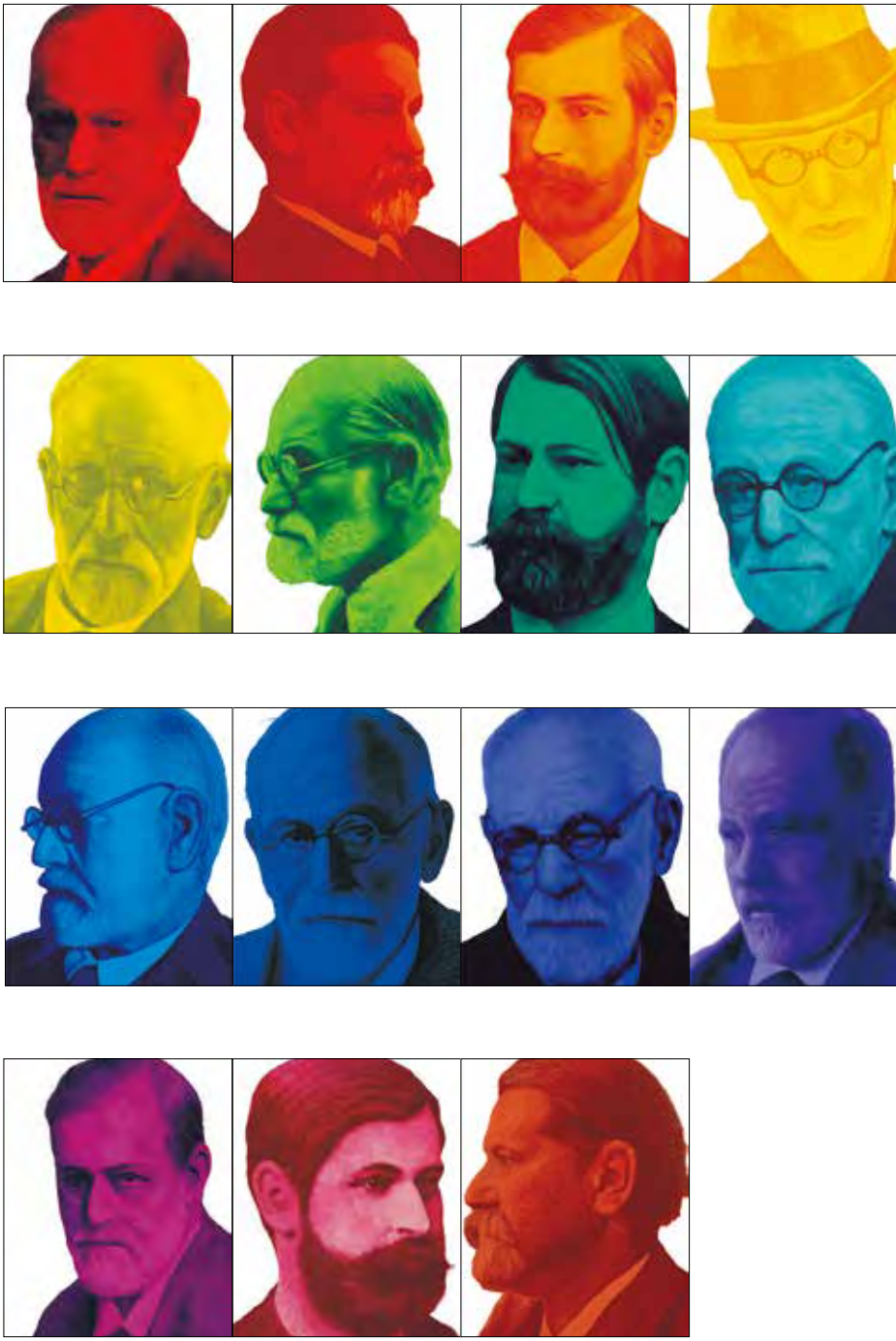
이 책은 예술과 문학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을 알아볼 수 있는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예술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감상해야 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예술을 사랑하는 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과 정신분석학 16

박성수, 한승완 옮김 | 2020년 | 584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주창한 뒤 나타난 찬성과 반대의 거센 반응들을 역사적으로 개괄하여 보여 주며, 또한 자신과 함께 시작했다가 다른 흐름으로 갈려 나갔던 아들러나 융의 견해에 대한 반론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
Books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 (별권)

6

임진수 옮김 | 2005년 | 344면 | B6 견장정 | 18,000원

정신분석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프로이트의 논문 여덟 편을 모았다. 여기에 실린 자기 분석을 다룬 초기 논문 여섯 편과 정신분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후기 논문 두 편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 소개되지 않은 귀중한 문헌들이다.

정신분석의 탄생 (별권)

5

임진수 옮김 | 2005년 | 384면 | B6 견장정 | 18,000원

정신분석이라는 신생 학문이 태어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이 책은 프로이트가 동료 의사 빌헬름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와 논문들을 모은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1887~1902)와 본시 이 원고에 속해 있던 「과학적 심리학 초고」(1905)를 한데 묶어 사후에 출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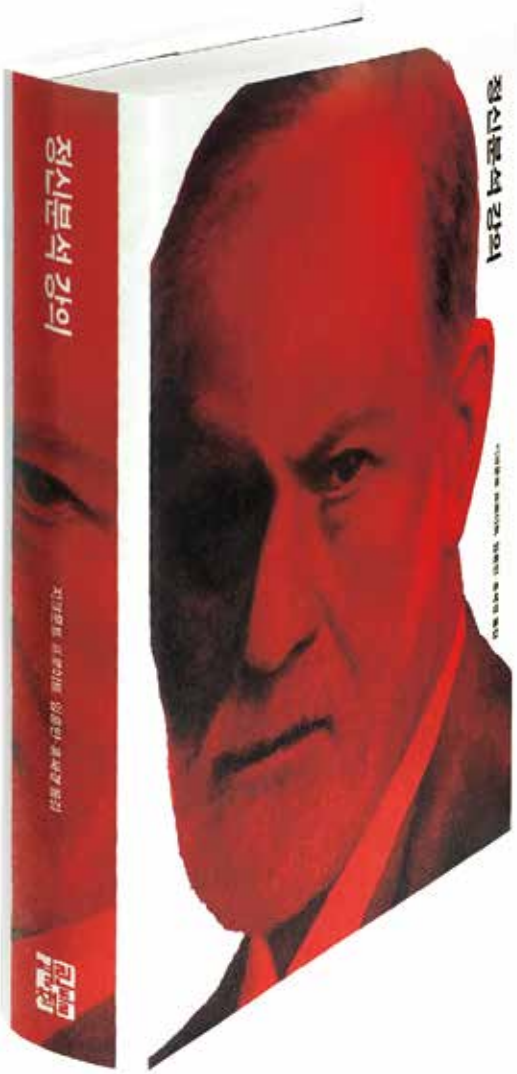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3

임홍빈, 박종대 외 옮김 | 2019년 | 784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의 대표 에세이를 모은 선집. 수록된 프로이트의 작품은 모두 19편으로, 분석 사례와 한두 편의 에세이를 제외하면 축약 없이 전문을 싣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유일한 열린책들의 프로이트 전집에서 중요한 글들을 뽑아 한 권에 담은 것이다.

Sigmund Freud



Vladimir Maiakovskii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20세기 러시아의 위대한 혁명 시인 마야꼬프스끼는 1893년 7월 19일 그루지야 꾸따이스 근처의 바그다지에서 태어났다. 학생 시절부터 그는 독서를 좋아하고 미술에도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과 함께 모스끄바로 이주한 마야꼬프스끼는 상업 미술 학교 예비반에 입학하고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볼셰비끼 파에 가담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이던 마야꼬프스끼는 〈세 번의 체포와 독방 구금〉을 당하고, 훗날 이 사건은 소비에뜨 작가들의 열렬한 찬양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감옥에서 마야꼬프스끼가 정치 활동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예술과 문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데 있다.

3
Books

회심한 마야꼬프스끼는 모스끄바 회화 조각 건축 전문학교 시절에 만난 다비드 부를류끄와의 친교를 통해 시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고 화가로서 시인으로서 당시 한창 뿌리내리던 러시아 미래주의의 주역으로 부상한다. 미래주의와 볼셰비끼는 목적은 달랐으나 슬로건의 표면적 유사성 때문에 1910년대의 러시아 미래주의는 혁명의 예술로 인정받고, 미래주의의 중심인물이던 마야꼬프스끼는 당연히 혁명의 시인이 된다. 이 시기에 마야꼬프스끼는 잡지 『예술 좌익 전선LEF』을 창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수십 개의 신문, 잡지에 정치성 짙은 시와 평론들을 기고한다.
레닌 사망 후 소비에뜨 사회가 새로운 체제에 안주해 가면서 마야꼬프스끼의 삶은 고난과 모순으로 점철되기 시작하고, 문단의 대세가 형식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시에서 산문 쪽으로 기울면서 『레프』는 좌우익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1925년에 폐간되고 만다. 마야꼬프스끼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비에뜨 사회에 적응해 보고자 노력했으나 이미 지나간 그의 시대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깊어 가는 소외감과 불안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고뇌, 자신의 창작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1930년 4월 14일 마야꼬프스끼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동안 마야꼬프스끼는 소련의 계관 시인으로, 공산주의 혁명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공식적인 추앙을 받아 왔다. 그는 뿌쉬낀, 네끄라소프, 예세닌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이며 그의 작품은 러시아 내 여러 공화국의 언어는 물론 무수한 외국어로 번역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시 「전쟁과 세계」, 「인간」, 「나는 사랑한다」, 「좋아!」 등, 시집으로 『나』, 『바지를 입은 구름』, 『등골의 플루트』 등, 희곡으로 「미스쩨리야 부프」, 「빈대」, 「목욕탕」 등이 있다.

나는 사랑한다

석영중 옮김 | 1993년 | 40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시인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연작시 「나 자신」을 권두로, 일생 동안 사랑한 여인인 릴리 브릭에게 바친 연시 「바지를 입은 구름」을 비롯하여 불타는 사랑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노래한 장시 「등골의 플루트」, 「인간」 등을 담고 있으며 다소 상징주의적인 화법으로 쓴 초기 단시들로 묶여 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 실린 그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는 혁명 시인이 뜻밖에 섬약한 면도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좋아!

석영중 옮김 | 1993년 | 40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사회주의적 이상 국가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세 편의 장시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월 혁명 기념시 「좋아!」에서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러시아 민중들이 혁명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춘의 땅〉을 건설해 나가는 모습을 역동적인 필치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 산문 「어떻게 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글에서 그는 세르게이 예세닌의 죽음에 관한 자신의 시작(詩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미스쩨리야 부프

김규종 옮김 | 1993년 | 44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시인 자신의 삶을 비극화한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비극」 외 다섯 편의 짧은 선동극과 「미스쩨리야 부프」, 「빈대」, 「목욕탕」 등 대표적인 네 편의 장막 희곡. 이 중 성서의 대홍수 사건을 패러디한 서사시 「미스쩨리야 부프」는 혁명의 대홍수 속에서 불순한 사람들로 지칭되는 노동자와 농민이 선량한 사람들로 지칭되는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긴 여정 끝에 결국 사회주의적 이상 국가에 도달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Aleksandr Pushkin

알렉산드르 뿌쉬낀

러시아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뿌쉬낀. 다른 문학사의 거인들에게는 양립 불가능한 것들이 뿌쉬낀에게는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뿌쉬낀은 한 나라의 근대 문학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뿌쉬낀은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에도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다. 뿌쉬낀은 가장 러시아적인 시인이지만, 그의 작품의 면면은 극히 서구적이다. 뿌쉬낀의 글은 러시아 구전 문학의 소박함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쉽게 쓰였지만, 그의 작품은 동시대 세계문학의 모든 사조를 꿰뚫어본 자가 시도하는 미묘한 게임이기도 하다. 그는 가장 고전적이지만, 21세기 기준으로 가장 현대적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뿌쉬낀이 〈재평가〉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라는 지위를 살아 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의 〈새로움〉에 대한 발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6
Books

7년여에 걸쳐 완성된 『예브게니 오네긴』은 뿌쉬낀의 문학적 역량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는 시와 소설의 장르적 한계를 탈피하여, 반복적인 시의 리듬과 순차적인 소설의 전개가 공존하는 〈운문소설〉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선보였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진지함과 아이러니의 어우러짐, 기존 문예 사조들의 수용과 파괴, 주석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사용된 문학적 인용과 장르의 혼합 등의 요소들로, 이 작품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뿌쉬낀은 30대에 접어들면서 시보다는 점점 산문에 정열을 쏟기 시작했는데, 죽기 1년 전인 1836년에 완성된 장편소설 『대위의 딸』은 그의 산문 예술의 완성이라 하겠다. 뿌가초프 반란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역사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편을 흐르는 가볍고 희극적인 어조다. 『대위의 딸』이라는 제목 자체가 뿌쉬낀의 태도를 잘 보여 주는데 여기서 그는 역사의 대사건을 가정 소설과 연애 소설로 바꾸어 조망하고 있다. 주인공과 약혼녀(대위의 딸) 집안의 평범한 삶, 주인공과 뿌가초프의 우연한 만남과 작은 선의의 교환이 소설의 중심축을 이루며, 피비린내 나는 반란과 그 진압은 외부적인 에피소드로서 오히려 사소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 준다. 하나는 뿌쉬낀이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 전제 군주에게 반란자보다 우월한 역사적 지위를 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뿌쉬낀의 냉정한 시각이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스페이드의 여왕」, 「청동 기마상」, 「까프까즈의 포로」, 「강도 형제」 등이 있다.

석영중 교수(고려대·노문학) 완역

- 1999년 러시아 정부가 수여하는 뿌쉬낀 메달 수상
- 2000년 한국 백상출판문화상 번역상

잠 안 오는 밤에 쓴 시

2

시선집 | 석영중 옮김 | 1999년 | 416면 | B6 견장정 | 9,500원

천재 시인이 들려주는 사람, 사랑, 삶에 대한 경구와도 같은 시 140여 편.

청동 기마상

2

서사시집 | 석영중 옮김 | 1999년 | 448면 | B6 견장정 | 절판

역사를 씨줄로, 사랑을 날줄로 엮은 여덟 편의 시적인 드라마. 「루슬란과 류드밀라」, 「까프까즈의 포로」, 「강도 형제」 등.

예브게니 오네긴

12

운문 소설 | 석영중 옮김 | 1999년 | 328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뿌쉬낀의 최고 걸작. 냉정한 남자에 대해 사랑에 빠진 한 순수한 러시아 처녀가 겪는 고통을 세계문학사상 유례가 드문 운문소설로 그려 냈다.

- 1966년 동아일보 선정 〈한국 명사들의 추천 도서〉
- 고려대학교 선정 〈교양 명저 60선〉
- 연세대학교 권장 도서 200권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보리스 고두노프

2

희곡집 | 석영중 옮김 | 1999년 | 256면 | B6 견장정 | 절판

역사의 허상을 고발하는 「보리스 고두노프」와 피터 섀퍼의 「아마데우스」의 모델이 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등.

벨낀 이야기

3

소설집 | 석영중 옮김 | 1999년 | 288면 | B6 견장정 | 절판

젊은 작가 뿌쉬낀이 독자와 게임하듯 펼쳐 보이는 기발한 생각들.

대위의 딸

18

장편 소설 | 석영중 옮김 | 1999년 | 256면 | B6 견장정 | 8,800원 **eBook**

뿌가초프의 반란이라는 격동기를 무대로 역사적 진실과 리얼리티가 문학적으로 여과된 장편 소설.

- 1999년 〈이달의 좋은 책〉,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전기·자서전

Biographies · Autobiographies

Tara Westover 타라 웨스트오버
Umberto Eco 움베르토 에코
Man Ray 만 레이
Frank Lloyd Wright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Gaston Gallimard 가스통 갈리마르
Giorgio Vasari 조르조 바사리
Carl Jung 카를 융
Fedor Dostoevskii 도스또예프스끼
Che Guevara 체 게바라
Ma Yun 마윈

배움의 발견

19

타라 웨스트오버 | 김희정 옮김 | 2020년 | 520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오른 타라 웨스트오버의 회고록이다. 열여섯 살까지 학교에 가본 적 없던 저자가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얻기까지 남다른 배움의 여정을 다룬다. 2018년 2월 출간되자마자 미국 출판계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54개국에 판권이 팔렸고, 영미권에서만 3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의 찬사 속에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혔다.

-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 2020 교보 문고 올해의 책
- 2020 매일경제 올해의 책
- 2018 빌 게이츠 올해의 책
- 2018 버락 오바마 올해의 책

마윈

4

류스잉, 펑정 | 양성희 옮김 | 2015년 | 616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마윈의 유년부터 최근 근황까지 반평생을 담아낸 전기. 주경야독으로 보낸 대입 실패 후 2년, 리더로서의 재능을 꽃피운 대학 시절, 첫 창업인 번역 회사에서의 고생담, 시애틀에서 처음 본 인터넷 등 알리바바 창업 이전 마윈의 행적을 더듬는 한편, 항저우 자택에서 시작한 창업 선포부터, 글로벌 기업 이베이와의 한판 승부, 유수의 기업들과의 인수 합병 등 십여 년간의 알리바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마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완성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다.

체 게바라

4

존 리 앤더슨 | 허진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792, 800면 | B6 견장정 | 각 18,000원

국제 분쟁 취재 전문 기자인 존 리 앤더슨이 5년에 걸쳐 쓴 책으로, 이 책 이후로는 체 게바라에 관해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체 게바라에 관한 최종적인 전기〉라는 격찬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쿠바 혁명의 전장까지, 다시 카스트로 정부 권력 핵심부의 요직을 박차고 나와 볼리비아의 정글에서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순간까지 체의 삶은 너무나 극적이었다. 저자는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열정적인 이상주의자이자 비정한 혁명가로 변모해 갔는지를 균형 잡힌 시각과 당대 역사에 대한 의식, 감탄할 만한 세부 묘사를 통해 완벽하게 복원해 내고 있다.

도스또예프스끼 평전

3

E. H. 카 | 김병익, 권영빈 옮김 | 2011년 | 416면 | B6변형 견장정 | 15,000원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세계적 역사학자의 반열에 오른 E. H. 카가 쓴 최고의 도스또예프스끼 평전. 카가 쓴 최초의 저서이기도 한 이 책은 이후 도스또예프스끼 평전에 가장 중요한 전거가 된다. 도스또예프스끼의 전기와 문학,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19세기 러시아의 역사, 사조,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그의 문학을 내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구 문학과 러시아 정신사의 문맥 아래 종교, 윤리,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치밀하게 조명했다.

조르조 바사리

롤랑 르 몰레 | 임호경 옮김 | 2006년 | 688면 | A5변형 견장정 | 28,000원 | **미메시스**

16세기 이탈리아 미술의 개화기를 이끌어 간 조르조 바사리의 일생을 다룬 책. 세계 최초의 본격 미술사 『미술가 열전』의 저자이며, 다수의 걸작을 남긴 재능 있는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어느 위대한 르네상스인의 삶을 살펴본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서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이종인 옮김 | 2005년 | 632면 | 규격외 견장정 | 28,000원 | **미메시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서전. 저자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적어 나가고 있다. 책에는 그의 건축과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 자료를 함께 담았으며, 작품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별책을 첨부했다.

가스통 갈리마르 프랑스 출판 반세기

피에르 아술린 | 강주헌 옮김 | 2005년 | 520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융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디어드리 베어 | 정영목 옮김 | 2008년 | 116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나는 Dada다

만 레이 | 김우룡 옮김 | 2005년 | 512면 | 규격외 견장정 | **미메시스** | 절판

움베르토 에코 평전

다니엘 살바토레 시페르 | 임호경 옮김 | 2004년 | 328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Interview

타라 웨스트오버와 오프라 윈프리의 대담

사랑에 관하여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회고록인 『배움의 발견』에서 웨스트오버는 아이다호주 시골 작은 마을 클리프튼(인구 259명)에서 자란 경험을 이야기한다.

오프라 이 책 『배움의 발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웨스트오버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커다란 용기와 힘을 발휘한 동시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기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산속에서 그림자에 눌려 사는 부분,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부분,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그림자와 과거의 어둠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부분 말이에요.

오프라는 『배움의 발견』 발췌문을 낭독한 다음 저자의 아동기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가족 말고는 거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홀로코스트, 노예 제도, 인권 운동 등에 관한 역사적 문맥이나 지식이 전혀 없이 자란 것을 감안할 때 웨스트오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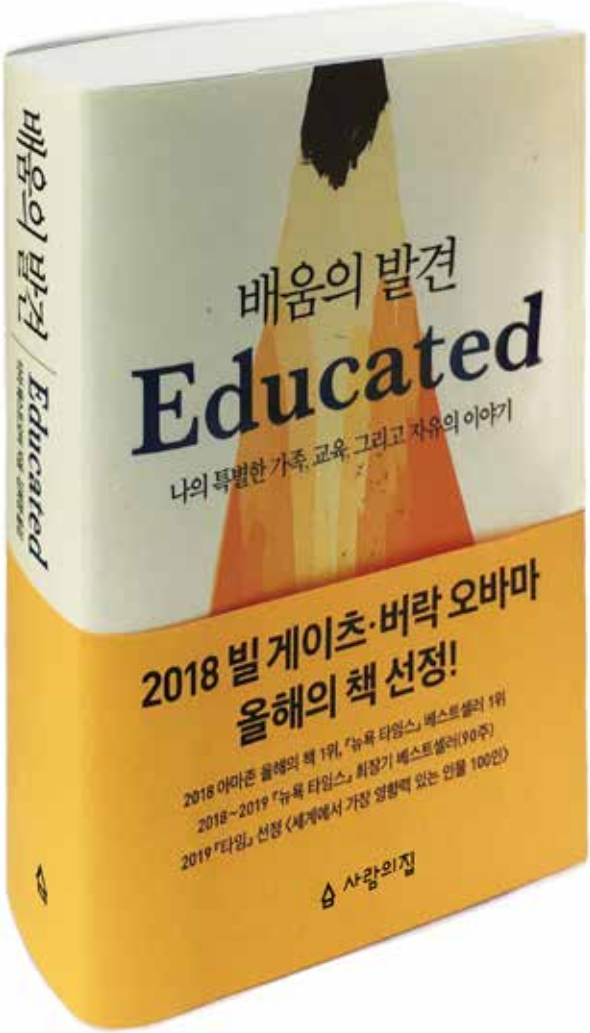
웨스트오버 아름다운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약초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이를 받는 산파로 일했어요. 어린 제게 그건 신비로운 마술과도 같았지요. 어머니가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것은 제 눈에 거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이 입장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 모두 나이를 먹지요. 어른이 된 다음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사랑하며 자라 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간 인터뷰 도중 웨스트오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배움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과 다른 삶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오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오프라는 웨스트오버가 어린 시절 오빠로부터 받았던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육체적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오프라는 자신이 당한 일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웨스트오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오빠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웨스트오버는 말했다. 「굉장히 친절하고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많은 경우 그것이 폭력이나 모욕적인 언사, 감정적인 학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모든 학대 행위는 정신에 대한 공격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가학적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학대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현실에 침범을 해서 그것을 왜곡시켜야만 합니다.」 웨스트오버는 그렇게 말했다. 「학대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는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빠는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폭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프라가 웨스트오버에게 어떻게 오빠와 근본주의자 부모에게 맞설 힘을 마침내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부분에서 이 인터뷰는 치유의 힘을 갖게 되었다.
「간혹가다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매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관계를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한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들과 이별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결론을 내린 웨스트오버는 자신의 길을 닦기 시작했고 그 길은 배움의 길이 되어 아이다호 클리프튼의 산중에서 떠날 힘, 무엇보다도 가정 폭력으로 얼룩진 집을 떠나는 힘을 기르는 길이 되었다.
「누군가를 날마다 그리워하면서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쁠 수도 있어요.」 웨스트오버는 그렇게 덧붙인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랑을 상대방에 대한 제어나 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지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지요.」
오프라는 웨스트오버가 배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묻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일대일 인터뷰를 끝낼 수 없었다.
「배움은 발견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놓을 것은 놓아 보내고, 품을 것은 더 힘껏 품을 줄 알게 되는 과정 모두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감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 자신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요.」

김희정 옮김, 2019. 5. 4.


배움의 발견
Educated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
2018 빌 게이츠·버락 오바마
올해의 책 선정!
2018 아마존 올해의 책 1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2018~2019 『뉴욕 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90주)
2019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사람의집
배움의 발견 | Educated

빌 게이츠 추천 도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하루에 한 시간 잠들기 전에 책을 읽고, 일주일에 2~3권은 읽는다고 밝힌다. 〈여름휴가를 위한 추천 도서 목록〉에서 시작한 그의 프로젝트는 이젠 〈겨울휴가 추천 도서 목록〉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픽션과 논픽션 가리지 않고 매년 10권 안팎의 도서가 독서광의 뛰어난 안목을 거쳐 대중들에게 소개된다.

Open Books
Bill Gates Picks

How Not to Be Wrong
On Immunity
Why We Sleep
Educated
Range
The Heart

틀리지 않는 법 22

조던 엘렌버그 | 김명남 옮김 | 2016년 | 616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 2016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올해의 과학도서
- 2016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수학이 하는 모든 방법에 관한 매혹적인 여행

대학에서 수학 수업을 많이 들었다. 그중에서 스턴버그 교수의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그는 첫 시간에 우리에게 〈너희는 내 수업에서 0, 1, 2 이외의 다른 수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다. 이 책은 재미있고, 잘 읽히고, 쉽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수학에 관한 책과는 다르다. 엘렌버그의 글은 결국 수학을 향한 러브레터와 같다.
『틀리지 않는 법』의 저자 조던 엘렌버그는 스턴버그 교수의 제자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런 연관이 없어도 나는 그의 책을 좋아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책은 수학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이 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적 삶에 수학이 얼마나 많이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 게이츠 노트 중에서

면역에 관하여 17

율라 비스 | 김명남 옮김 | 2016년 | 312면 | B6변형 견장정 | 17,000원 **eBook I audioBook**

- 2015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 2015 마크 저커버그 책의 해 추천 도서

백신의 세계에 대한 초보 엄마의 글쓰기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편에 서 있든 주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스는 그 일을 해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백신이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거의 기적적인 도구라고 결론지었다.
이 책을 아주 훌륭하고 특이하게 만드는 것은 비스가 여러 주제를 쉽게 넘나드는 방법이다. 비스의 아버지는 종양 학자이고 어머니는 시인으로, 그녀가 과학과 문학의 세계를 쉽게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 역사, 철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이다.

— 게이츠 노트 중에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22

매슈 워커 | 이한음 옮김 | 2019년 | 512면 | A5변형 견장정 | 23,000원 **eBook**

- 2019 빌 게이츠 겨울휴가 추천 도서
- 2019 과기부 선정 올해의 과학책

이 책은 나를 잠들게 해준다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읽고 나니, 하루에 8시간까지 자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 밤을 새곤 하던 습관이 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을 다 읽는 데에는 평소보다 좀 더 오래 걸렸다. 역설적이게도, 평소에 읽을 때보다 좀 더 일찍 책을 내려놓으라는 워커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푹 잘 수 있었다. 워커 덕분에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기본 활동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 게이츠 노트 중에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수면과 꿈의 과학
매슈 워커 지음 · 이한음 옮김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영국,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 세계
35개국 출간
사람의집

배움의 발견 19

타라 웨스트오버 | 김희정 옮김 | 2020년 | 520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 2018 빌 게이츠 올해의 책
- 2018 버락 오바마 올해의 책
- 2020 교보문고 올해의 책
- 2020 매일경제 올해의 책
-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배움의 발견』, 듣던 것보다 더 좋다

학교에서 철학과 역사를 배우면서 타라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선에 확신을 갖게 된 부분이 내게는 매우 흥미로웠다.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녀는 완전히 아버지의 영향에만 의존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음모설을 믿으니 그녀도 음모설을 믿었다. 그녀의 사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장하면서 그들도 나름의 한계를 지닌 성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각의 전환을 경험한다. 타라의 경우는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식구들과 사이가 벌어지게 됐고, 나는 그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녀가 택한 길과 스스로 쌓은 인생은 깊은 감동을 준다.

— 게이츠 노트 중에서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 11

데이비드 엡스타인 | 이한음 옮김 | 2020년 | 464면 | A5신 견장정 | 20,000원 **eBook**

- 2020 빌 게이츠 겨울휴가 추천 도서

우리에게는 로저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내 자신의 삶도 제너럴리스트 모델에 꽤 잘 들어맞는다. 나는 어릴 때 밤이면 지하에 있는 내 방을 몰래 빠져나가 워싱턴 대학교로 가서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짜곤 했지만, 컴퓨터 말고도 늘 다른 많은 것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당시의 다른 스타트업들보다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뛰어난 코더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들에까지 걸쳐서 진정으로 폭넓게 사고하는 사람들도 뽑았다. 나는 그런 직원들이 가장 호기심이 많고 가장 심오한 사고 모형을 지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 게이츠 노트 중에서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12

마일리스 드 케랑갈 | 정혜용 옮김 | 2017년 | 352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 2017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그저 놀라운 책

내가 책을 추천하면서 〈시적〉이라는 말을 써보는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놀라운 책…… 이번 여름의 필독서이다.

— 게이츠 노트 중에서

6
Books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
전문화된 세상에서 늦깎이 계획러스트가 성공하는 이유
타이거 우즈 vs. 로저 페더러
말컴 글래드웰, 대니얼 H. 핑크 강력 추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Gates Notes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빌 게이츠 서평

6
Books

이 책은 나를 잠들게 해준다
수면 전문가가 들려주는 꿀잠의 혜택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넘겨야 할 날이 다가오면 으레 모두가 밤을 새곤 했다. 나도 한두 번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샌 적이 있다. 주로 카페인이나 아드레날린의 힘으로 작업을 할 때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려 있었고,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고 느꼈다.
그런데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읽고 나니, 하루에 8시간까지 자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 밤을 새곤 하던 습관이 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은 딸 젠과 투자자 존 도어John Doerr가 추천했다. UC 버클리의 인간 수면 과학 센터 소장인 워커는 수면 부족이 어떤 식으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학습, 기억, 심장 건강, 뇌 건강, 정신 건강, 정서적 행복, 면역계, 심지어 수명까지도 깎아먹는지를 잘 설명한다. 워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선진국 전역에서 수면 단축이 재앙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수면 부족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그가 하는 말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잠을 너무 적게 잘 때의 위험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우고자, 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고 해도, 이 책은 중요하면서 매우 흥미롭다.
이 서평의 지면이 짧으므로,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것이라고 여길 만한 몇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하고자 한다.

정말로 누구나 하룻밤에 7시간이나 8시간을 꼭 자야 할까?

거의 확실히 그렇다. 자신은 덜 자도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야 한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포드 병원의 의사 토머스 로스Thomas Roth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잠을 5시간 이내로 자고도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인구 비율로 나타내면, 올림을 해도 0이다.〉

우리는 왜 잠을 잘까?

아무튼 자고 있을 때—모든 동물은 잠을 잔다—우리는 사냥도, 채집도, 먹지도, 번식하지도, 방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워커는 수면의 이런 단점보다 진화적인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결론 내린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면은 복잡한 신경화학적 목욕물에 뇌를 푹 담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뇌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잠은 우리 면역계의 병기고를 다시 채움으로써, 악성 종양에 맞서 싸우고, 감염을 막고, 온갖 질병 요인들을 물리치는 일을 돕는다〉. 다시 말해, 잠은 우리의 진화적 적응도를 크게 강화한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내 수면 위생을 개선할 수 있을까?

- 침실에 있는 LED 전구를 다른 전구로 바꾸자. LED 전구는 잠을 가장 방해하는 청색광을 뿜기 때문이다.
- 온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집에 산다면, 잠자리에 들고자 할 때 침실 온도를 18도로 낮추자. 워커는 이렇게 썼다. 〈잠을 청하는 데 성공하려면, 심부 체온이 섭씨 1도쯤 떨어져야 한다.〉
- 술을 줄이자. 널리 믿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술은 수면 보조제가 아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알코올은 우리가 아는 한 렘 수면의 가장 강력한 억제제 중 하나이다〉.
-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고, 일부 지중해와 남아메리카 문화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듯이 한낮에 짧게 낮잠을 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창의성과 심장 동맥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을 다 읽는 데에는 평소보다 좀 더 오래 걸렸다. 역설적이게도, 평소에 읽을 때보다 좀 더 일찍 책을 내려놓으라는 워커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푹 잘 수 있었다. 워커 덕분에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기본 활동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한음 옮김, 2019.12.10.

한국 작가 추천 도서

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요즘 한국 작가들은 자신이 읽고 좋았던 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북클럽에 이달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기 모임을 갖기도 하고, 언론 연재를 통해, 양서지만 감히 두꺼워서 일반 독자들이 읽을 용기를 내기 힘든 벽돌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믿을 수 있는 작가들이 직접 읽고 고른 만큼 독자들의 신뢰도 크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추천한 책 가운데 열린책들에서 만든 도서들을 정리해 보았다.

Open Books Korean Writers' Picks

細雪
The Novel
The French Lieutenant's Woman
Das Parfum
Il Nome della Rosa
L'Adversaire
Moon Palace
Flaubert's Parrot
Reunion
D'Autres Vies Que La Mienne
Far From The Tree
This Changes Everything
The Friend
Le Royaume
Trois jours et une vie
The New York Trilogy
Angela
The Art of Starving
El gaucho insufrible

김영하

세설 21

다니자키 준이치로 | 송태욱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80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이 소설은 1930년대 간사이 지방 상류층 여성들의 삶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분량은 상당하지만 워낙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어서 아마 완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명절이 있는 2월, 오랜만에 만나는 진짜 가족들에 지친 마음을 아무 상관없는 90년 전 남의 나라, 남의 집 가정사로 덮어쓰기 해보는 것도 좋겠다.

— 2022년 2월 〈김영하 북클럽〉 선정 도서

소설 28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280, 368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eBook**

- 1992년 제3회 교보문고 북 디자인상 장려상
- 1994년 여성 편집자 모임 권장 도서
-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책에 묘사된 미국 출판계와 우리 출판계는 다른 면도 많지만, 한 편의 소설이 쓰여지고, 편집자에 의해 책으로 만들어지고, 독자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넓게 보자면 책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무렵에 읽었던 책인데 아직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소설에 대한 소설이 재밌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통념도 가볍게 배반하는, 잘 읽히는 소설이다.

— 2021년 5월 〈김영하 북클럽〉 선정 도서

프랑스 중위의 여자 31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344면 | B6 견장정 | 각 11,800원

- 1969년 실버펜상
- 1970년 W. H. 스미스 문학상
- 2005년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19세기 영국 시대의 위선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자 자유에 대한 열정이 고갈된 20세기 상황에 대한 우화. 옷깃의 주름에서부터 어투의 어색함까지 고전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세세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 2019년 7월 『공감』, 〈김영하 작가 여행 책꽂이에서 뽑은 13권〉 중에서

향수 173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 2009년 | 38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 2003년 BBC 「빅리드」 조사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편〉
- 2007년 3~4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07년 영화 「향수」 한국 영화 관객 110만 돌파
- 2007년 KBS 「TV 책을 말하다」 추천 도서

19
Books

Open Books Korean Writers's Picks

- 2008년 서울대학교 대출 도서 순위 20
- 2014년 전 세계 2천만 부 판매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18세기 남프랑스의 향수 산지로 우리를 데려가는 책. 지상 최고의 향수를 위해 25차례의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악마적이지만 한편으론 천진하기도 한 주인공 그르누이의 일대기를 그렸다. 냄새와 관련해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이 향기로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을 그린 기상천외한 소설.

— 2019년 7월 『공감』, 〈김영하 작가 여행 책꽂이에서 뽑은 13권〉 중에서

장미의 이름

314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 2009년 | 전2권 | 각 440, 448면 | B6 견장정 | 각 15,800원 **eBook | audioBook**

- 1981년 스트레가상
- 1982년 메디치상
- 1982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 1994년 서울대학교 고전 읽기 교양 강좌 선정 도서
- 1999년 경향신문 선정 〈20세기의 문학〉
- 1999년 출판저널 선정 〈20세기의 명저〉
- 1999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선정 〈20세기의 기억할 명저〉
- 2001~2008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1위
- 2004년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전 세계 베스트셀러 5천만 부 판매

20세기 최고의 석학, 움베르토 에코가 쓴 놀라운 지적 추리소설.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 속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 그리고 에코의 기호학 이론 등이 녹아 있는 지적 보고.

— 2019년 7월 『공감』, 〈김영하 작가 여행 책꽂이에서 뽑은 13권〉 중에서

적

6

에마뉘엘 카레르 | 윤정임 옮김 | 2005년 | 224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2010년 『GQ』(프랑스)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소설 50선〉

대통령은 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리더라면 악이 무엇인가, 인간의 악함, 나쁜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하느냐도 중요해요. 문재인 정부가 출발을 참 잘했잖아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고요.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만큼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지도자라면 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누가 악한 마음을 먹어도 함부로 사람을 해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 2017년 2월 〈채널예스〉 인터뷰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

19
Books

김연수

달의 궁전

55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 1997년 | 456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 1990년 『리르』지 선정 〈올해의 책〉

〈 삶의 극단에서 인생을 배우는 세 탐구자의 초상을 매혹적으로 그린 폴 오스터의 소설. 황량한 변경에서 혼잡한 도시를 공간적으로 오고가면서 3대의 삶을 그려낸다. 영원한 재생을 상징하는 달처럼 그들의 삶도 쇠락과 재생을 통해 성장을 꿈꾼다. 〉

— 2007년 11월 『금정신문』, 〈김연수의 아름다운 서재〉

플로베르의 앵무새

13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 2009년 | 320면 | B6 견장정 | 11,800원 **eBook**

- 1985년 제프리 페이버 기념상
- 1986년 메디치상
- 1986년 E. M. 포스터상
- 1987년 구텐베르크상
- 2005년 동아일보 선정 〈21세기 신고전 50선〉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 박제 앵무새를 모티프로 근대 소설의 최고봉인 『보바리 부인』을 남긴 괴팍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플로베르의 삶을 그려냈다. 근대 소설 구조를 완성한 플로베르의 이야기를 탈근대적 소설 구조로 그려내는 묘한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

— 2007년 11월 『금정신문』, 〈김연수의 아름다운 서재〉

동급생

30

프레드 울만 | 황보석 옮김 | 2017년 | 16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 2017 출판진흥원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 한 번의 인생이란 살아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은 뒤에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미 살아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프레드 울만의 『동급생』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

— 2017년 7월 〈김연수의 문음친교 시즌2〉 중에서

나 아닌 다른 삶

에마뉘엘 카레르 | 전미연 옮김 | 2011년 | 376면 | B6 연장정 | 절판 **eBook**

- 2009년 크레쉬스상
- 2009년 『렉스프레스』 독자상
- 2009년 『마리클레르』 소설상
- 2009년 『르 푸앵』 선정 올해의 책 20권

- 2010년 프랑스 한림원 앙리 갈 문학대상
- 2010년 크리스탈 지구상

〈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통해 서로를 가르는 심연을 건너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웃음과 아름다움 안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건강하다는 것. 여기까지 읽고 나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어느 틈엔가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마치 마술과도 같아서. 〉

— 2017년 6월 〈김연수의 문음친교 시즌2〉 중에서

금정연

참을 수 없는 가우초

2

로베르트 볼라뇨 | 이경민 옮김 | 2013년 | 192면 | B6 견장정 | 10,800원 **eBook**

〈 『참을 수 없는 가우초』에는 모두 다섯 편의 단편과 두 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다. 국내에 출간된 그의 모든 작품을 따라 읽은 자신만만한 독자라도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들이 여기에 있다. 사실 길이로 작품을 판단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삶의 길이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처럼. 〉

— 2013년 11월 『시사IN』, 〈그의 책을 기다린다, 간절히〉 중에서

19
Books

정지돈

친구

시그리드 누네즈 | 공경희 옮김 | 2021년 | 256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 2018년 전미도서상

〈 『친구』는 친구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편집자 출신으로 마흔 살이 넘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한 시그리드 누네즈는 이 과정을 담담하고 고요하지만 흘러내릴 만큼 풍성한 통찰을 담아 그린다. 그의 통찰은 모든 페이지에서 균형을 잡으며 독자들을 상실과 기억, 변화에 대한 명상으로 이끈다. 얇은 책이지만 읽고 나면 한 계절을 살아낸 듯한 기분이 든다. 겨울이 끝나 갈 무렵의 고요한 서울에서, 홀로 읽기에 더없이 좋은 책이다. 〉

— 2022년 1월 『조선일보』 〈명절에 홀로 고요히 읽기 좋은 책〉 중에서

왕국

7

에마뉘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 2018년 | 704면 | B6 연장정 | 18,800원 **eBook**

- 2014년 『르 몽드』 문학상
- 2014년 『리르』, 『렉스프레스』 선정 〈최고의 책〉
- 2014년 『르 푸앵』 선정 〈최고의 책〉
- 2014년 『텔레라마』 〈올 가을의 책〉

THE FRIEND
친구
시그리드 누네즈 장편소설 강영희 옮김
친구
THE FRIEND

현존하는 최고의 논픽션 작가는 에마뉘엘 카레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의 책은 논픽션이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고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카레르 본인이 말하거니와 그의 글은 명백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삶과 세계에 저널리스트적이거나 학자적인 태도가 아닌 소설가로서 접근한 새로운 논픽션이다. 『왕국』은 독실한 신자였다가 불가지론자가 된 카레르 본인의 관점으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다룬 논픽션이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경을 한 글자도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책이니까.

— 2021년 1월 『조선일보』, 〈소설가 정지돈의 소설보다 소설 같은 논픽션 5〉 중에서

장강명

부모와 다른 아이들

17

앤드루 솔로몬 | 고기탁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872, 760면 | A5신 견장정 | 각 28,000원 **eBook**

- 2012년 전미비평가협회상
- 2012년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타임』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지난해(2021년) 완독한 책이 120권인데, 그중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두 권을 아주 자신 있게 꼽을 수 있다.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열린책들) 1, 2권이다. 지적인 충격도 받았고, 덕분에 세상과 인간을 보는 시각도 조금 바뀌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일화가 쉬지 않고 이어져, 무척 쉽게 잘 쓴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붙지는 않는다. 종종 눈을 감거나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어야 한다. 그런 고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깊이 파헤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장점이다.

— 2022년 1월 『조선일보』, 〈장강명의 벽돌책〉 중에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7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 2016년 | 800면 | A5신 견장정 | 33,000원 **eBook**

- 2014년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2016년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 2016년 환경정의 선정 올해의 환경책

이 책은 789쪽에 걸쳐 그 근거와 현장을 제시하는 책이다. 독자에게 핵심 의문은 〈왜 기후변화 대응이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지?〉일 거다. 관련 질문도 꼬리를 물고 떠오를 것이다. 과격하고 급진적이며,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제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면충돌하는 해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격적 제안에 대해 책장을 덮을 때까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마음은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 2021년 1월 『조선일보』, 〈장강명의 벽돌책〉 중에서

19
Books

최진영

선물이 있어

2

은모든 | 2022년 | 216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audioBook**

은모든의 소설은 속 깊고, 다정하고, 위트 넘치는 친구 같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는 다양한 보물을 찾아 우리에게 건네준다. 그에 더해 이 소설집에는 겨울이기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 손모아장갑처럼 두 손을 모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 본서 추천사 중에서

박현주

사흘 그리고 한 인생

5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 2018년 | 320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프랑스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추리소설가 중 하나일 피에르 르메트르는 이 짧은 소설 속에서도 거장이란 어떤 작가인지를 보여 준다. 죄와 두려움, 사랑과 침묵, 회피와 회개의 씨실과 날실이 만드는 거대한 운명의 옷감을 마주하는 소설이 바로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이다.

— 2018년 5월 『한겨레』, 〈박현주의 장르문학 읽기〉 중에서

윤고은

뉴욕 3부작

60

황보석 옮김 | 2003년 | 488면 | B6 견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뉴욕 3부작〉에 담긴 세 편의 소설은 모두 일상의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수록작 〈유리의 도시〉는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오류를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다. 그는 잘못 걸려온 전화를 제대로 걸려온 척, 능청스럽게 받으면서 기어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 2016년 『월간중앙』 작가들의 여름휴가 추천도서

박서련

안젤라

2

★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안이희옥 | 2022년 | 320면 | B6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삶의 옹이마다 고단한 사연으로 자리한 역사는 그의 생애 하나의 순정이던 문학으로 되살아났고, 풍파에 시달렸으되 꺾이지 않은 이야기는 더욱 알 굵고 생생한 열매가 되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늘 넉넉하게 베푸는 안젤라가 가만히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를 구경하다 보면, 후대로서 알게 모르게 그의 덕을 보아 온 우리 세대가 그에게 들려주어야 할 응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 본서 추천사 중에서

박상영

슈퍼히어로의 단식법

샘 J. 밀러 | 이윤진 옮김 | 2021년 | 456면 | A5변형 연장정 | 15,800원 **eBook**

- 2017년 NPR 선정 〈올해의 책〉
- 2018년 안드레 노턴상
- 2018년 로드스타상 최종 후보

자신을 멸시한 세상을 향해 유쾌한 한 방을 날리는 맷. 누구보다도 빌런이 되고 싶었던 슈퍼히어로 맷의 영웅담은 유쾌하지만 눈물겹다. 이토록 애잔한 영웅담을 본 적이 있었나? 소설을 읽는 내내 나는 맷에게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본서 추천사 중에서

19
Books

Open Books Korean Writers's Picks

인문·교양

Douglas Murray 더글러스 머리
David Epstein 데이비드 엡스타인
Noam Chomsky 놈 촘스키
Peter Ginna 피터 지나
Lindsey Fitzharris 린지 피츠해리스
Chrystia Freeland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Dave Grossman 데이브 그로스먼
Samuel Enoch Stumpf 새뮤얼 이녹 스텀프
Ahn Jintae 안진태
Tony Judt 토니 주트
Joseph Stiglitz 조지프 스티글리츠
Judith Herman 주디스 허먼
Julian Assange 줄리언 어산지
Atif Mian & Amir Sufi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Andrew Solomon 앤드루 솔로몬
Anna Freud 안나 프로이트
Dick Swaab 디크 스왑
Park Woonghyun 박웅현
Wolf Schneider 볼프 슈나이더
Evan Osnos 에반 오스노스
Matt Taibbi 맷 타이비
Lee Seungwook 이승욱
Naomi Klein 나오미 클라인
Jordan Ellenberg 조던 엘렌버그

Humanities

Jaron Lanier 재런 러니어
Frank Dikötter 프랑크 디쾨터
Kim Shiduck 김시덕
Ta-Nehisi Coates 타네하시 코츠
Eula Biss 율라 비스
Park Seungoh & Hong Seungwan 박승오 & 홍승완
Markus Gabriel 마르쿠스 가브리엘
Timothy Snyder 티머시 스나이더
Pierre Hadot 피에르 아도
Mary Roach 메리 로치
Ilan Pappé 일란 파페
Cass R. Sunstein 캐스 R. 선스타인
William H. McRaven 윌리엄 H. 맥레이븐
Jeon Byung Geun 전병근
Ma Huateng 마화텅
Ahn Youngok 안영옥
Kim Mokin 김목인
Richard David Precht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Pankaj Mishra 판카지 미슈라
Yim Chulsoon 임철순
Brunhilde Pomsel 브룬힐데 폼젤
Ahn Junho 안준호
Eugenia Cheng 유지니아 쳉

Economics · Business

경제·경영

30
Books

우리는 독점 기업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비드 데이엔 | 유강은 옮김 | 2021년 | 536면 | A5변형 연장정 | 25,000원 eBook

〈독점은 실제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탐사보도 전문 기자이자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편집장 데이비드 데이엔이 미국 독점 기업의 실태를 추적한 흥미로운 취재기이다. 풍부한 일화와 유쾌한 서술로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기업 독점〉 문제를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시킨다. 저자는 항공, 미디어, 통신 등의 산업 분야부터 아마존과 사모펀드 같은 개별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독점의 폐해를 거시 지표로 보여 주는 대신, 그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삶이 망가진 보통 사람들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본다.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2

조지프 스티글리츠 | 박세연 옮김 | 2021년 | 464면 | A5변형 견장정 | 23,000원 eBook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이들이 다른 이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부를 쌓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신간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미국식 시장 경제가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금융화, 세계화, 기업의 독점화 — 스티글리츠의 3가지 핵심 연구 주제 — 가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금융 산업과 몇몇 기업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불공정한 규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국가의 진정한 부(富)를 늘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헤어숍 성공의 법칙

박정아 | 2021년 | 296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단지 미용 기술이 좋다고 해서 헤어숍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미용실의 첫인상부터 헤어 디자이너와의 상담, 특별한 날 이벤트를 알리는 서비스까지, 고객이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고객 맞춤 서비스와 효율적인 홍보 방법 등 헤어숍이 억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성공의 법칙을 공개한다.

인디 워커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3

박승오, 홍승완 | 2021년 | 296면 | A5변형 연장정 | 15,000원 eBook | audioBook

코로나19 이후 커리어를 고민하는 직장인을 위한 책. 기존의 20대 후반에 입사해서 40대 후반 퇴직하는 〈20년 커리어〉 전략을 버리고,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50년 커리어〉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한다. 회사 안에서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력을 쌓고(슬로 커리어), 회사일과 병립해서 차별적 전문성을 기르거나 퇴직 후 독자적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 2021년 세종도서(하반기) 우수 교양 도서
- 2022년 대만 판권 수출

중국과 협상하기

헨리 폴슨 | 고기탁 옮김 | 2020년 | 616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세계적인 투자 은행 골드만 삭스의 최고 경영자이자 미국의 74대 재무 장관을 지낸 헨리 M. 폴슨 주니어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과 상대했던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다. 폴슨은 현대 중국의 도약기를 함께한 참여자이자 목격자로서 중국식 자본주의의 탄생과 진화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로운 경제적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올바른 이해와 접근법을 제시한다.

- 2015 마크 저커버그 〈책의 해〉 추천 도서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

11

데이비드 엡스타인 | 이한음 옮김 | 2020년 | 464면 | A5신 견장정 | 20,000원 eBook

두 살에 골프를 시작해 최고에 오른 타이거 우즈(조기 전문화), 다양한 운동을 폭넓게 접하고 뒤늦게 테니스로 진로 정한 로저 페더러(늦깎이 전문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길은 어느 쪽일까? 저자는 방대한 문헌과 대면 인터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운동선수, 예술가, 발명가, 미래 예측가, 과학자를 조사했고, 각 분야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유추하고, 종합하는 데 탁월한 늦깎이 제너럴리스트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 2020년 겨울 빌 게이츠 추천 도서

거대한 불평등

3

조지프 스티글리츠 | 이순희 옮김 | 2017년 | 576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지난 10년간 여러 매체에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한 칼럼들을 모아 재구성한 책이다.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이른바 1퍼센트를 위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인지, 나아가 이런 짝퉁 자본주의를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통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불평등의 대가 21

조지프 스티글리츠 | 이순희 옮김 | 2013년 | 624면 | A5변형 견장정 | 30,000원 **eBook**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역작. 오늘날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며,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 2013년 『조선일보』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중앙일보』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매일경제』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한겨레신문』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8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이달의 읽을 만한 책〉

30
Books

공유 경제 3

마화텅, 장샤오롱, 쑨이, 차이슝산 | 양성희 옮김 | 2018년 | 448면 | A5신 견장정 | 22,000원 **eBook**

공유 경제는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연합,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경제 현상이다. 마화텅과 텐센트 연구원은 이 책에서 기원과 정의, 세계 주요 국가들의 현황, 각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관련 기업의 발전 과정과 미래 가능성 등 공유 경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오랜 경제 불황과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공유 경제에 대한 첨단 인터넷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및 반영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차가운 계산기 3

필립 로스코 | 홍기빈 옮김 | 2017년 | 384면 | A5변형 연장정 | 17,000원

경제학의 본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대중서. 이 책에 따르면, 경제적 논리는 정교한 쇼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특수한 장치에 기대어 생겨난다. 저자는 그 현장으로서 집 사기, 교육 받기, 주식 거래하기, 사랑에 빠지기, 병에 걸리기, 죽음과 주검을 거두는 과정 등 일상적인 환경을 탐사한다.

대번영의 조건 2

에드먼드 펠프스 | 이창근, 홍대운 옮김 | 2016년 | 576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컬럼비아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의 대표작이다. 자본주의가 망가진 지금, 진정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사회는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책에서 펠프스는 지난 150년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쇠

인디 워커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박승오, 홍승완 지음
INDIE WORKER
인디 워커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박승오
홍승완
지음

락을 되돌아보면서 경제 성장, 나아가 혁신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분석한다. 다시 번영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대담한 책이다.

빚으로 지은 집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 박기영 옮김 | 2014년 | 320면 | A5변형 연장정 | 15,000원 **eBook**

가계 부채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과 시카고 대학의 금융 담당 교수 아미르 수피는 이 책에서 과다한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2014년 『인디펜던트』 선정 〈올해의 책〉

플루토크라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 박세연 옮김 | 2013년 | 488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플루토크라트,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 나머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 세계 상위 0.1퍼센트 갑부들의 삶과 생각을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이념을 초월한 신선한 시각으로 세계 경제의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고 그 정점에 오른 글로벌 슈퍼리치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오늘날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을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013년 『매일경제』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2013년 『시사인』 선정 〈올해의 책〉

스탠드 아웃

도리 클라크 | 박세연 옮김 | 2017년 | 328면 | B6 견장정 | 15,000원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이자 브랜딩 전문가 도리 클라크가 내놓은 아이디어 경영법. 사업가, 벤처 투자 전문가, IT업계 종사자, 교수, 베스트셀러 저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공한 대가들과 나눈 인터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 유통, 실행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건넨다.

카인드 스토리

대니얼 루베츠키 | 박세연 옮김 | 2016년 | 376면 | A5신 연장정 | 16,000원

미국의 가장 전도유망한 사회적 기업가 대니얼 루베츠키의 10가지 비즈니스 원칙을 담은 경영서. 창업 10여 년 만에 연매출 6천억 원대를 달성한 카인드의 창업과 성공, 그리고 실수의 사례로 채워진 이 책에서 그는 미래의 기업가와 창업자들에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공시키는 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WELCOME TO
OUR BANK
빚으로
지은 집
House of Debt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TOTAL
Thank you for
Getting a Loan
House of Debt
빚으로 지은 집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조지프 스티글리츠 | 김홍식 옮김 | 2018년 | 368면 | B6 견장정 | 절판

● 2018년 세종도서(하반기) 우수 교양 도서 선정

상어와 헤엄치기
요리스 라위언데이크 | 김홍식 옮김 | 2017년 | 416면 | B6변형 견장정 | 절판

유로
조지프 스티글리츠 | 박형준 옮김 | 2017년 | 552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컬처 맵
에린 메이어 | 박세연 옮김 | 2016년 | 352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성장을 넘어서
허먼 데일리 | 박형준 옮김 | 2016년 | 472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전문가의 독재
윌리엄 이스털리 | 김홍식 옮김 | 2016년 | 592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7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맷 타이비 | 이순희 옮김 | 2015년 | 544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매일경제』· 교보문고 선정, 2016년을 여는 책 50

문화 유전자 전쟁
칼레 라슨, 애드버스터스 | 노승영 옮김 | 2014년 | 432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
프랑크 비베 | 박종대 옮김 | 2014년 | 304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포트폴리오 선택과 금융 시장
윌리엄 F. 샤프 | 김중근 옮김 | 2011년 | 36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프랙털 이론과 금융 시장
브누아 만델브로트, 리처드 허드슨 | 이진원 옮김 | 2010년 | 424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1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오픈 비즈니스 모델
헨리 체스브로 | 서진영, 김병조 옮김 | 2009년 | 41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존 러스킨 | 김석희 옮김 | 2009년 | 224면 | B6 견장정 | 절판

30
Books

9

금융제국 J. P. 모건

론 처노 | 강남규 옮김 | 2007년 | 전2권 | 각 824, 45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07년 문화 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2

광고 캠페인 전략

도널드 패런티 외 | 조병량, 한상필 옮김 | 2003년 | 472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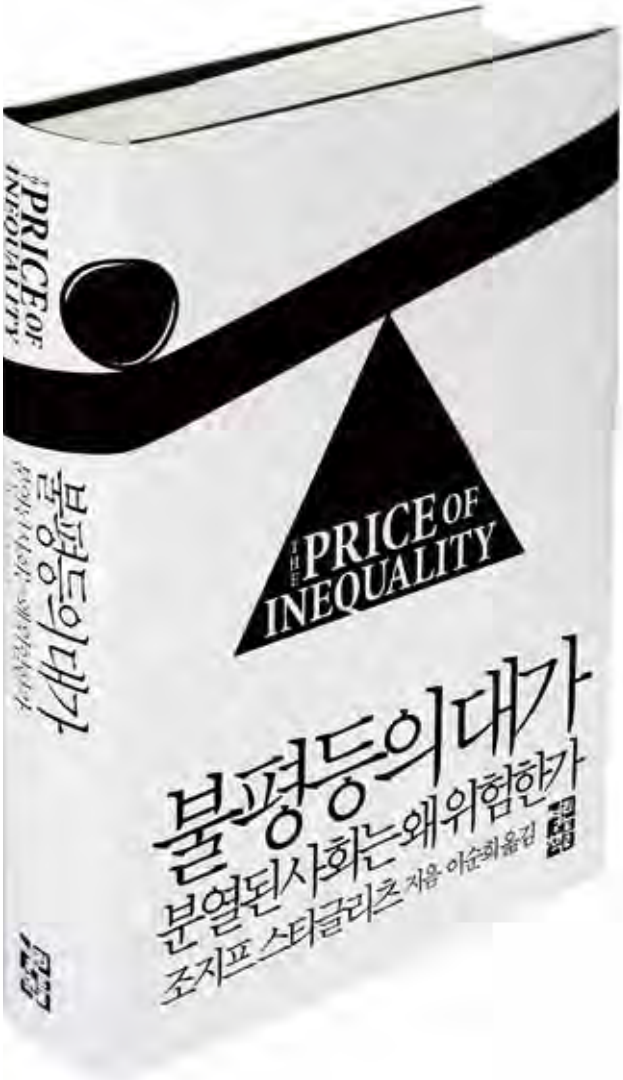
조지프 스티글리츠 인터뷰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의 경제학자로, 정보 경제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2001년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불과 27세에 예일 대학교 정교수가 되었고, 36세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젊은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듀크, 스탠퍼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 자문 회의 위원장으로 정부 개혁을 주도한 스티글리츠는 세계 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간극이 우리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의 현실적인 작동 방식, 더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어떤 이유에서 하위 99퍼센트보다 상위 1퍼센트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는 신간 『불평등의 대가』에서 이것을 주요 논점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명쾌한 논증의 본보기다. 이 문제를 파헤쳐 가는 방식 또한 독특하다. 그는 〈심각한 불평등은 자유 시장 시스템이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 가지 않는다. 그는 훨씬 더 흥미로운 관점, 인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 간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현실은 유익한 것일까? 이런 현실은 시장의 순조로운 작동이 빚어낸 결과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시장의 힘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까? 한마디로, 사회는 예전보다 더 나아진 걸까 더 못해진 걸까?〉 나는 스티글리츠에게 최근 출간한 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 이순희 옮김

이 책에서 당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경제와 우리 제도, 그리고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정교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부터 짚어 보자. 성장과 불평등은 상충 관계에 있다, 즉 우리는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불평등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순조롭게 성장하지 못하며, 안정성 면에서 부진하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의 불평등 수준은 대공황 직전에 정점에 달했고, 대침체 직전에도 다시 정점에 달했다.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한다.

불평등이 기회 또한 저해한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미국은 선진 공업 국가 가운데 기회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난한 부모 혹은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 즉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불평등이 국가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그렇다. 이 책에서 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일인 일표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약화되고 만인을 위한 정의라는 원칙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 왜곡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회적 논쟁과 중요한 정치적 논쟁들을 검토해 보면, 이런 논쟁들 속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게 확인된다.

정치적 영향에 대해 좀 더 말해 달라. 불평등이 어떤 경로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보는가.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힘의 불균형을 낳는다. 경제적 상위층이 경제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 과정 속에서 산출된 수많은 성과들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성과들이 대다수 미국인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투기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해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은행들이 약탈적 대출이나 신용카드 관행에 관여하거나, 제약 회사들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채광 회사들이 경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천연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심각한 불평등은 소득 상위층이 파이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파이에서 차지하는 몫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비롯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지대 추구〉라 부른다. 소득 상위층이 하는 일은 하층부에 있는 돈을 상층부로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부를 빼돌리기만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빠질 뿐이다.

이 모든 게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 2010년 선거 때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했다. 젊은이들이 정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모든 결과는 부유한 상위층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 뻔한데 굳이 공들여 투표를 하러 가겠는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환멸감은 돈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불공정한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 책에서 밝혔듯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무슨 상품이든 팔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담배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는 관념을 유포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암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관념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다.

기업들은 담배 같은 유해한 상품을 팔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이라도 유포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부유한 상위층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와 자원, 그리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부인하고, 우리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온 사례들은 굉장히 많다.

그 사례를 하나만 들면?

혹자들은 이런 불평등이 형성된 원인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유한 상위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완전한 탈바꿈시킨 주역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트랜지스터와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들, DNA를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해 온 은행업자들, 기업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실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기업 지배 구조의 약점을 이용해 기업 수익에서 갈수록 더 많은 몫을 챙겨 넣은 CEO들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 전원이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주요 정강에 포함시켰다는 건 나로선 충격적인 일이었다.

경제 위기를 탄생시켰던 2007년의 환경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나로선 기가 막힐 일이다. 나는 도드-프랭크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들이 이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취지는 이런 비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거품 경제, 약탈적인 대출 관행과 폭력적인 신용 카드 관행이 허용되는 상황을 되살리는 것이다. 과거 그런 일들을 겪어 놓고도 어떻게 그런 환경이 경제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든다고, 그것이야말로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나로선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이건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이다. 경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에 내가 했던 연구에 따르면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한, 즉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한, 또한 불완전한 리스크 시장이 존재하는 한, 시장은 대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실시하고 기초적인 연구나 인터넷의 지원 등과 같은 공익을 제공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저들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잠시 짚어 보자. 현재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경제 정책이 중세식 의술과 다름없어 보인다. 즉, 환자의 몸에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병세가 나빠질수록 거머리를 더 많이 붙여 환자의 피를 뽑아내는 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긴축〉이다.

나는 더 강력한 표현을 쓰겠다. 대규모 경제가 긴축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이 통할 리 없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의 결론은 낙관적이다. 이처럼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로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꼽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위 1퍼센트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껏 부유한 상층부에 많은 돈을 투입해 왔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경제 형편까지 크게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 전체가 순조롭게 굴러가게 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범주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싶은가.

교육, 과학 기술 ·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점 방지, 기업 지배 구조, 금융 규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는 허점들이 숱하게 지니고 있는 세법 등 우리 법률의 근간을 검토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상층부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심각한 수준의 균열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가 합심하여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 개의 상황 중 하나가, 혹은 동시에 두 개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상위 1퍼센트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결코 아님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99퍼센트가 이제껏 자신들이 상위 1퍼센트의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불평등에 이르렀으며, 모든 계층이 불평등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싶었다. 우리 앞에는 정치적 의지만 세운다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놓여 있다.

재러드 번스타인, 이순희 옮김, 『롤링 스톤』, 2012.6.

Politics·Sociology·Education

정치·사회·교육

54
Books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2

레슬리 컨 | 황가한 옮김 | 2022년 | 304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청결하지 못한 공중화장실은 여자들을 백화점 화장실로 향하게 한다. 스타벅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사야 할 때도 있다. 축구장, 농구장은 소년들을 상정한 공간이다. 중산층 여성들을 위한 도시 환경은 편리하지만, 오히려 임금 격차에 따른, 여성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이 책은 여성의 일상적인 도시 경험 속에 숨은 은밀한 성 편향성을 선명하게 보여 주며, 모든 도시 계획이 성평등이라는 목표에서 출발해야 함을 주장한다.

독일은 왜 잘하는가

4

존 캠프너 | 박세연 옮김 | 2022년 | 456면 | A5변형 연장정 | 23,000원 **ebook**

뼈아픈 과거에서 배운 교훈, 품위 있는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 문화를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려는 리더십……. 현대 독일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보여 주는 이 책은 한 〈성숙한 국가〉에 대한 탐구이다. 20대부터 동서독을 오가며 특파원으로 활동한 베테랑 언론인인 존 캠프너는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권위주의 국가의 득세 속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경쟁력과 회복력을 보여 주는 독일 사회의 비밀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 2020년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
- 2020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 2020년 『뉴스테이츠먼』 선정 올해의 책
- 2021년 『더 타임스』 선정 최고의 논픽션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5

나오미 클라인, 리베카 스테포프 | 이순희 옮김 | 2022년 | 336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기후 변화에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앞으로 가장 큰 충격에 시달리게 될〉 젊은 세대에게 기후 위기의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전달하는 한편, 기후 행동에 뛰어든 십대 활동가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문 용어를 뺀 명쾌한 서술과 시각 자료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기온 상승과 기상 이변, 온실 효과의 메커니즘, 탄소 포획·저장법)과 핵심 논쟁(기후 공학, 기후 불평등 등)을 정리하며, 청소년과 입문 독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반反종차별주의

에므리크 카롱 | 류은소라 옮김 | 2022년 | 456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프랑스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은 동물권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을 공개 토론에 불러 모으며 반종차별주의(모든 살아 있는 존재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했다. 카롱은 이 책에서 반종차별주의를 인간이 누리는 권리를 다른 생물 종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으로 제시하며, 인간 종을 넘어서 종 평등을 위한 사회적 투쟁으로서 반종차별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2022년 환경정의 선정 올해의 환경책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캐스 R. 선스타인 | 박세연 옮김 | 2021년 | 472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넛지』의 공저자로, 행동과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저자는, 넛지 이론을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 정치에서 실천해 왔다. 이번 책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변화가 촉발되는 현상(1부)부터 넛지의 활용과 한계(2부), 올바른 사회적 판단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과 대안(3부)까지 거대한 사회 변화의 시작과 완성을 통찰한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 2021년 | 424면 | A5신 연장정 | 22,000원 eBook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이 지난 기후 위기의 10년과 〈그린 뉴딜〉이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다. 기후 운동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후 그가 5년 만에 기후 변화를 주제로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두 번의 10년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허비한 10년(기후 위기가 잠재적 위협에서 절박한 비상사태로 변하기까지)과 우리에게 남은 10년(기후 붕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임계점까지). 그리고 그린 뉴딜이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 2016년 | 800면 | A5신 견장정 | 33,000원 eBook

저명한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이 기후 변화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역학을 치밀하게 파고든 책이다. 2014년 UN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맞춰 조직된 시민기후행진 일주일 전에 발간되도록 기획되었으며, 출간 직후엔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서라는 찬사를 받았다. 5년간 진행한 자료 조사와 현장 답사, 과학자와 경제인, 환경 운동가들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결실을 맺은 이 책은, 오늘날 기후 위기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 2014년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2016년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 2016년 환경정의 선정 올해의 환경책

노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 2018년 | 384면 | A5신 연장정 | 17,000원 eBook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나오미 클라인이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을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통찰했다. 이 책은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보다 그가 상징하는 시대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의 출현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위험한 조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유럽의 죽음

2

더글러스 머리 | 유강은 옮김 | 2020년 | 512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영국의 젊은 언론인 더글러스 머리의 2017년 화제작. 총 19장에 걸쳐 유럽이 이민자들의 용광로가 된 이유를 추적하고, 유럽 문화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민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급증하는 이민자,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테러 공격의 상황, 사회 갈등을 대하는 유럽 정치와 언론의 방식 그리고 유럽 시민들과의 괴리감을 충실히 보여 준다.

54
Books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셀린 알바레즈 | 이세진 옮김 | 2020년 | 400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프랑스 빈민 지대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시행했던 〈자율 교육〉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 기초 교육 실패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던 시점에 출간되며 〈자율 대규율〉이라는 양육 방식을 둘러싸고 큰 논쟁을 불러왔다. 특히 양육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라는 그녀의 제안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6년 출간 즉시 프랑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문명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견뎌 낼 수 있을까

놈 촘스키 | 강주헌 옮김 | 2019년 | 296면 | B6 견장정 | 15,000원 eBook

이 책에서 놈 촘스키는 냉전 이데올로기부터 테러와의 전쟁까지 국가 권력의 본질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모두가 간과하고 넘겼던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철저히 논리적으로 촘스키는 새로운 제국, 미국의 주장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억누르고 소수의 특혜와 권력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을 산산조각 낸다.

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 노승영 옮김 | 2018년 | 536면 | A5신 견장정 | 22,000원 eBook

가상 현실의 아버지, 실리콘 밸리의 구루로 평가받는 재런 러니어의 자전적 회고록. 이 책은 러니어의 독특하고 풍부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가상 현실을 마주한 인간 삶의 의미를 고찰한다. 과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도 또한 제시된다. 러니어가 처음으로 고안하고 상용화한 가상 현실이라는 개념과 그 태동기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러니어가 바라는 궁극적인 미래상은 인간이 기술에 소유되지 않고 인간이 기술을 소유하는 세상이다.

Politics·Sociology·Education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부른다

빅토리아 페프, 레이철 홈스, 에이미 애넷, 마사 모스, 앨리스 스트라이드 | 박다솜 옮김 | 2018년 | B6변형 견장정 | 15,000원 **eBook**

페미니즘은 더러운 단어인가? 2015년에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재미있고, 용감한 젊은 25명의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사회적 배경을 가진 평범한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페미니스트를 표방하게 되었을까? 다음 세대의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페미니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된 현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몽타주를 제시한다.

폭정 3

티머시 스나이더 | 조행복 옮김 | 2017년 | 168면 | B5변형 견장정 | 12,000원 **eBook**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민주주의의 유산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폭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이라 단언한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지난 일이고, 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착시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폭정에는 힘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역사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정에 속거나 당한 경험, 폭정을 쫓아내거나 이긴 경험을 돌아보며 스무 가지 태도를 찾아 전하는데, 폭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매뉴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54
Books

위대한 멈춤 9

박승오, 홍승완 | 2016년 | 552면 | A5신 견장정 | 22,000원 **eBook I audioBook**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 예술`학문`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18명의 평범했던 인물들의 전환기를 탐구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들의 성취 뒤에 숨겨진 비밀을 살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동을 끄고 집중적으로 삶을 성찰하고 실험하는 시기를 〈전환기〉라고 부른다. 전환자들은 각자의 전환기에 9가지 도구(독서, 글쓰기, 여행, 취미, 공간, 상징, 종교, 스승, 공동체) 가운데 한두 개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삶의 위기에 직면한 독자, 인생을 도약을 이루고 싶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통찰을 줄 것이다.

- 2017년 3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2

브라이언 스티븐슨 | 고기탁 옮김 | 2016년 | 504면 | A5변형 연장정 | 17,000원 **eBook**

미국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는 인물이자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애티커스 핀치에 비견되는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의 회고록. 1년이 넘도록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이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 온 그는 이 책에서 약자를 차별하는 미국의 사법 권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 2014년 『뉴욕 타임스』, 『타임』 등 올해의 책
- 2014년 베터 라이프 어워드

● 2015년 앤드루 카네기 메달
● 2015년 데이턴 평화 문학상
● 2015년 NAACP 이미지 어워드

세상과 나 사이

5

타네하시 코츠 | 오숙은 옮김 | 2016년 | 248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2015~2016년 미국 출판계 최고의 화제작. 이 책은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인 살해를 몇몇 인종주의자의 돌발 행동이나 KKK단과 같은 광기 어린 집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제를 통해 부를 일군 미국의 〈유산과 전통〉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자랑해 온 민주주의의 신화를 깨뜨리는 동시에, 〈인종〉이라는 허상 속에서 권력을 추구해 온 모든 문명을 고발하는 강력한 비평서이다. 백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차별의 철창 안에서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흑인 남성의 불안과 공포를 강렬한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미국 흑인 문학의 계보를 잇는 문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15년 전미도서상 수상작
● 2015년 아마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올해의 책〉 최다 수상작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4

존 소렐 외 | 오수원 옮김 | 2015년 | 160면 | B6 견장정 | 12,000원

창의 강국 영국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창의교육과 창의 산업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런던 예술대학교 총장 존 소렐과 공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영국 내 문화예술교육의 시스템과 정책적 개선점을 진단한다. 특히 저자는 취학 전 아동들이 인종과 장애,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가정에서부터 질 높은 창의교육을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 활동의 근원이라고 역설한다.

이데올로기

2

김광현 | 2014년 | 480면 | A5신 연장정 | 22,000원

이 책 『이데올로기』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 〈해방〉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아니다. 이 책은 혁명과 변혁을 주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미와 성, 종교, 학교, 소비, 여성성, 대중음악, TV 등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구성 요소들이다. 심지어 언어조차도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이데올로기는 감옥이자 정체성이며, 차별이자 위선인 동시에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014년 문화 체육 관광부 세종도서 학술 부문 선정

이노베이터의 탄생

토니 와그너 | 고기탁 옮김 | 2013년 | 472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이 책의 저자 토니 와그너는 세상을 바꿀 인재, 즉 이노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례 중심적으로 소개한다. 평생을 교육 현장에 몸담았고 현재도 활발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자가 내놓은 이 결과물은 우리가 학교와 일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줄 것이며, 내일의 변화 주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본문 곳곳에 스마트 기기로 시청할 수 있는 60개의 온라인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독서 방식에 21세기의 새로운 기술이 녹아든 이 책은 그 자체로도 혁신적이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7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 백경미 옮김 | 2013년 | 240면 | A5변형 연장정 | 15,000원

〈좋은 과목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공부는 아니다〉, 〈몇몇 재능을 가진 아이들만을 위한 과목이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로도 벅차다〉.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배제하려는 변명과 논리는 무수히 많다. 성과와 경제성이 좋은 교육의 기준이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 교육은 학교 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학교에서는 예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예술 교육을 학교에서 배제하려는 온갖 논리들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며 예술이 교육의 전면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시 쓴다.

핵무기와 국제정치 개정증보판

2

안준호 | 2018년 | 360면 | A5변형 견장정 | 18,000원 eBook

30년간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서 선임 핵 사찰관, 기술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한 안준호 박사가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원자의 발견에서부터 핵무기가 개발되기까지의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치 무대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 핵무기를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새로 펴낸 개정증보판은 2011년 초판 출간 이후 변화된 국제 환경과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보완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야망〉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다.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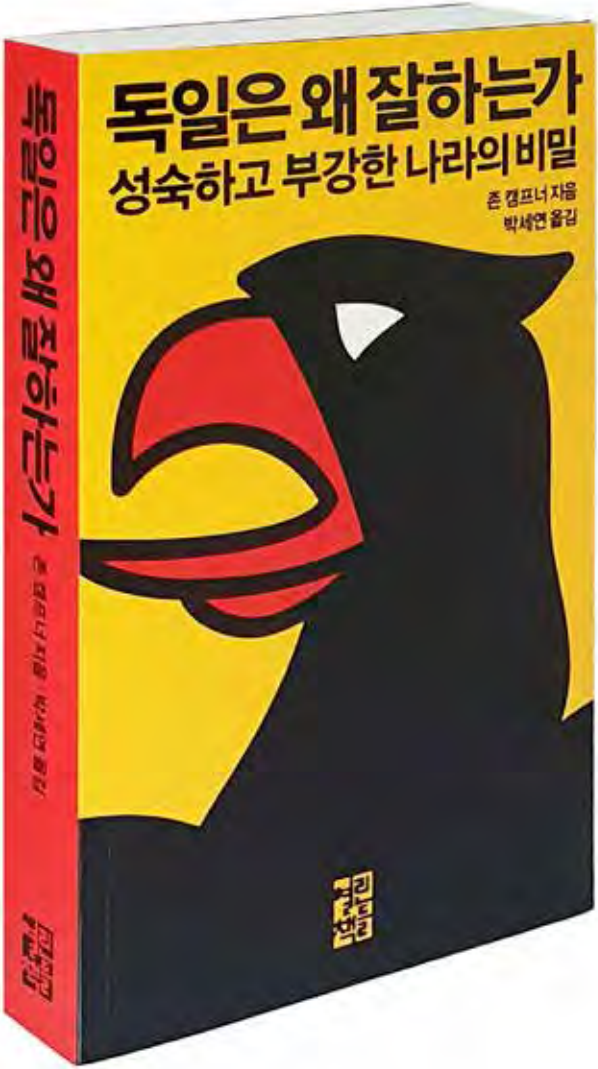
2

토머스 프랭크 | 고기탁 옮김 | 2018년 | 400면 | A5변형 연장정 | 17,000원 eBook

저자는 오늘날 민주당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 지지 계층을 둘러싼 전략적 오판임을 증명한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한때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이었던 평등주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당, 그러면서 선거철마다 〈공화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유권자들을 깃발 아래로 결집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당이라고 비판한다. 이 책은 비록 미국 민주당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경고는 미국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집권 정당이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준엄한 진실 역시 알려 준다.

● 2019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54
Books



Politics·Sociology·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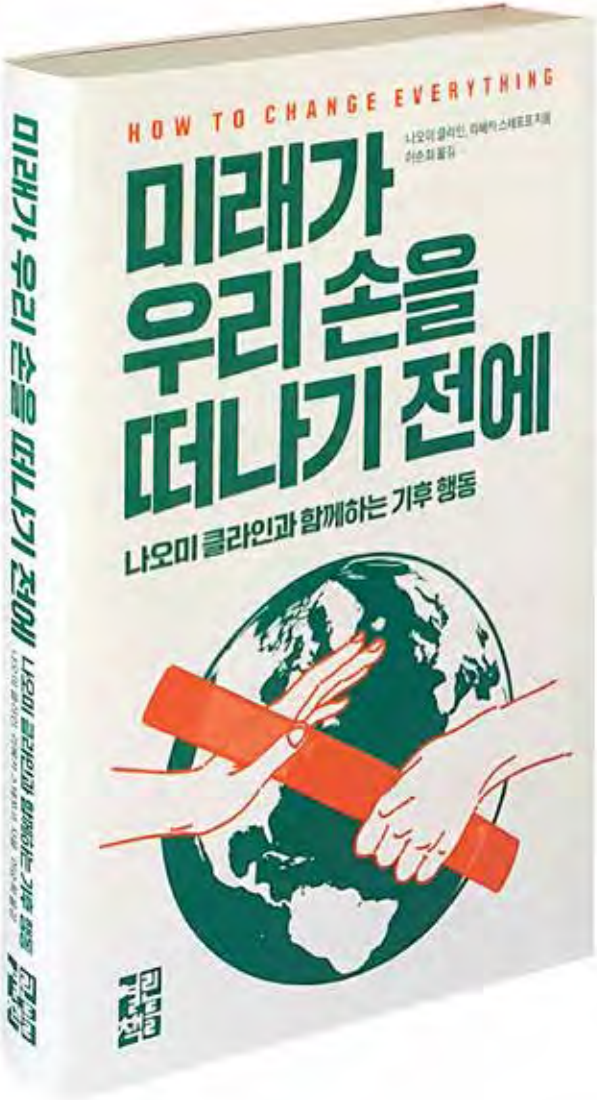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

3

박웅현 | 2015년 | 224면 | B6변형 연장정 | 12,800원 **eBook**

이 책은 탄생에서부터 진행 과정 전체가 창의력 배양 실험을 방불케 하는 〈망치 프로젝트〉 이야기를 통해 창의력 개발의 노하우를 전하는 책이다. 실제 사례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창의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 안의 창의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는 책이다. 박웅현을 비롯한 TBWA의 창의적 광고인들이 대학생들의 창의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멘토링을 했는지, 대학생들은 자신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해 내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갔는지, 그들은 왜 대학생들에게 대중 강연을 시키기로 했는지 과정과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

54
Books



Politics·Sociology·Education

Interview

타네하시 코츠 인터뷰

1975년 미국 메릴랜드 출신의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아버지 윌리엄 폴 코츠는 전 블랙팬서 당원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제를 다룬 출판물을 펴내던 출판업자였다. 〈랩 가사와 시를 끼적거리던〉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몸을 억누르는 차별에 혼란스러워하던 코츠에게 맬컴 엑스는 하나의 길잡이였고, 1993년 하워드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무어 랜드 연구소의 열람실과 나이 든 시인들이 훌륭한 선생이 되어 주었다. 코츠가 기자로서 첫발을 디딘 곳은 『워싱턴 시티 페이퍼』였고, 『애틀랜틱』에서 쓴 기사 「이것이 우리가 백인에게 잃는 방식이다」로 주목받았다. 2015년 미국 출판계는 단연 『세상과 나 사이』의 해였다. 전 영미권 매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올해의 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밀리언셀러에 올라섰다. 평단의 극찬도 이어졌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토니 모리슨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코츠를 20세기 미국 흑인 문학의 대표 주자 제임스 볼드윈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지목했으며, 이 작품은 2015 전미도서상과 2015 NAACP 이미지 어워드를 수상했고, 2016 퓰리처상과 2015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에서 각각 논픽션 부문 최종심에 올랐다.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타네하시 코츠의 2008년 작이자 볼티모어의 거친 동네에서 보낸 성장기를 다룬 『아름다운 투쟁』과 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는 『세상과 나 사이』를 읽으면서, 두 책의 더욱 깊은 연관성을 절로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앞의 회상록은 볼티모어에서 자라던 어린 그에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다루고 있고, 『세상과 나 사이』는 코츠가 아들에게 미국 내 흑인들이 겪는 경험과 관련해 그 맥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이전의 역사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연결 짓고 있다. 두 책 모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일단 『세상과 나 사이』를 펼치고 나면 쉽게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지극히 사적인 성격 때문이다.

『세상과 나 사이』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자는 생각은 나중에 떠오른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원고를 써서 편집자와 주고받았죠. 일단 그럭저럭 괜찮은 원고가 나오기는 했는데, 크리스(코츠의 편집자)는 계속해서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제가 편지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다시 말해 처음에는 직설적인 에세이를 쓸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아들에게 쓰는 편지로 바꾸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원고 몇 편을 보면 그 편지가 어떤 글이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과 나 사이』가 지금의 꼴을 갖추게 된 건 편지글을 구상하면서 〈그래, 모든 걸 내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험이 있었죠. 진부한 편지를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진부할 수 있는 그런 글은 피하고 싶었죠. 크리스가 해준 충고가 있었어요. 볼드윈의 맥을 이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의 『다음번엔 불*The Fire Next Time*』이 굉장히 중요한 에세이인 만큼 다들 그런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거였죠. 저도 그걸 아주 똑똑하게 의식하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너무 감상적일 수도 있고요. 상투적 형식의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상쾌하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했고, 그런 동시에 내가 집에서 실제로 쓰는 말투가 들어가야 했어요.

제임스 볼드윈과 같은 과거의 작가와 비교되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제2의 볼드윈〉이니 이 시대의 볼드윈이니 하는 말들을 들으면 놀랍게 여겨지세요?

솔직히 그런 소리는 전에도 들은 적 있어요. 저의 다른 작품에 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상과 나 사이』를 발표하기 전에도 제 글에는 볼드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볼드윈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내 말은 좋은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식이죠. 〈이게 내가 본 것이다.〉 볼드윈은 우리가 흑인이나 미국 얘기를 할 때 늘 곁들이는 온갖 넋두리며 헛소리들을 완전히 발가벗겨 낸 것 같아요. 그는 무슨 척하지도 않았는데 작가로서 그런 태도는 자신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죠.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 태도는 그의 글에서 그대로 드러나지요. 당신이 1965년 볼드윈과 윌리엄 F. 버클리와의 논쟁 같은 것을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버클리의 글은 다 헛소리예요. 그냥 열변을 토하고 있을 뿐이죠.

그거야말로 글쓰기의 적,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것의 적, 무언가를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적이에요.

당신이 추천을 받으려고 유일하게 접근했던 사람이 토니 모리슨이라던데. 그녀의 추천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저는 다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네요. E. L. 닥터로였는데, 몸이 아파서 불가능했죠. 닥터로를 생각한 건 역사와 상호 작용하는 그의 방식 때문이었지만, 토니 모리슨은 현재 흑인 문학의 여신이니까요. 『세상과 나 사이』의 바탕에는 제가 정말 불러오고 싶은 전통이 있어요. 단지 볼드윈만이 아니라 리처드 라이트의 전통, 소니아 산체스의 전통, (아미리) 바라카의 전통이죠. 그 모든 게 이 책 속에 있고, 설사 볼드윈이 가장 두드러져 보일지언정 그 모든 전통이 텍스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대변하는 가장 위대한 현존 인물이 토니 모리슨이고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나는 혼자서 공부를 해오는 동안, 세상과 나 사이의 골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해줄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많은 부분을 바쳤다.〉 글쓰기를 통해 그 골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나요?

네. 그게 제가 글을 쓰는 첫 번째 이유죠. 글을 쓰다 보면 그 골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건축학은 아실 거예요. 그건 서서히 드러나는 하늘과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별들이 보이고 그 별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이고, 화성과 금성이 보입니다. 네, 바로 그게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제이슨 다이아몬드, 오숙은 옮김, 2015.11.

세상과 나 사이
흑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이 너의 나라다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다
이것이 너의 몸이다
너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살아 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세상과 나 사이

Interview

나오미 클라인 인터뷰

1970년 캐나다 퀘벡 출신의 저널리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시민운동가이다. 『하퍼스』, 『롤링스톤』, 『네이션』, 『가디언』, 『뉴욕 타임스』 등에 활발하게 글을 기고하고 있다. 세계적인 슈퍼 브랜드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의 이면을 해부한 데뷔작 『노 로고*No Logo*』(1999), 재난을 기회로 공공 영역을 민영화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2007)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참여 지식인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프로스펙트』, 『맥린』 등의 매체와 기관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명단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랐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2014)는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서라는 찬사를 받으며 『뉴욕 타임스』를 포함한 유수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이후 기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 운동 단체 350.org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 낸 주역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다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막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운도 나빴고 타이밍도 나빴고 불운한 우연의 일치가 숱하게 발생했다.

하필이면 엉뚱한 순간에 엉뚱한 재앙이 닥쳤다는 뜻인가.

최악의 순간이라고 해야 맞다.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이 인류에게 있어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각된 것은 1988년부터였다. 바로 그때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 즉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던 때다. 캐나다와 미국이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

지속 가능성 확보와 절제를 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그런 순간에 소비와 에너지 이용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인가.

맞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사회적 책임과 집단적인 행동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지던 때였다.

우리는 철도와 에너지 공급 체계를 민영화했고, 세계 무역 기구와 국제 통화 기금은 탈규제 자본주의에 꽂혀 있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추세는 탄소 배출량 급증으로 이어졌다.

당신은 적극적인 행동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해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려 왔다. 이번에도 역시 기후 변화를 자본주의 탓이라고 보는가?

억지스럽다고 볼 이유가 없다. 숫자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1990년대에 탄소 배출량은 해마다 1퍼센트씩 늘어났다. 2000년부터는 평균 3.4퍼센트씩 늘어났다. 아메리칸 드림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소비재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비자의 위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삶의 한 방법으로서의 쇼핑이 지구 구석구석으로까지 확산되어 있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에너지, 그것도 대량의 에너지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진행을 막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방기해 왔다. 일체의 규제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정부는 석유 회사들과 다른 기업들을 규제하는 엄격한 원칙을 마련하는 일에서 손을 뗐다. 기후 변화 위기는 하필이면 최악의 순간에 재앙이 닥치듯 우리를 덮쳤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제 우리는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와 버렸다. 합심하여 대처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가 위태롭다. 탄소 배출의 급격한 감축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엉뚱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다. 우리가 구축한 경제 시스템이 지구 온난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억지로 꿰어 맞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은 망가졌다.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졌고,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신 아들 토마는 곧 세 돌이 되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30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보는가.

지금이 분기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딴판인 세계가 열릴 거라고 본다. 물론 그 변화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더없이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든, 미래의 세계는 지금보다 못한 곳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자연재해가 훨씬 더 잦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겐 파멸적인 온난화를 막을 시간이

남아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처할 때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비인도적인 경로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시간적 여유도 있다.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얼 할 수 있는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당장 이와 관련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온 상승이 섭씨 2도에 그치는 것과 섭씨 4~5도를 넘어서는 것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는 인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열려 있다.

1988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결성되었고, 그 후로 26년이 지났다. 적어도 그 뒤로는 석탄과 석유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시행된 바가 없다. 우리의 시도는 이미 실패한 게 아닌지.

나는 다른 시각에서 현 상황을 파악한다.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할 가능성, 아니 하다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몇 년 전에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정했다. 아직도 이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는가.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6퍼센트씩 감축해야 한다. 부국들은 훨씬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즉 미국과 유럽은 해마다 약 8~10퍼센트씩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정책과 이데올로기 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해야 할 바와 우리의 정치 현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로선 물리적인 현실을 바꿀 도리가 없으니, 정치 현실을 바꾸는 수밖에.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사회가 기후 변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럴 수 없다. 무분별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 모델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증대시킨다.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하는 것은 그린 테크놀로지와 대중교통, 돌봄 서비스업, 예술, 교육 등 저탄소 경제 부문이다. 현재 국내총생산의 핵심은 소비와 수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나오미 클라인
THIS CHANGES
EVERYTHING

수출인데, 우리는 이 방면의 삭감을 진행해야만 한다. 다른 경로를 걷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국제 통화 기금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후 보호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들은 내가 주목하는 숫자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요즘의 기후 변화 회의들에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자발적인 규제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석유 기업들에게 결국엔 포기를 해야만 할 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석유 기업들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기후를 구하기 위해 자유 시장을 없애는 것인가.

시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전략과 방향 설정, 계획 수립,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는 시스템은 성장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모든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성장이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 입장은 신자유주의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독일에서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소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분명히 그랬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 필수적인가를 결정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바마 정부가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오바마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최근 8년 동안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 버렸다. 당시는 적절한 요인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탄생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집중점이었다. 기후 인식, 기후 문제의 긴급성, 오바마의 높은 지지율, 위기에 몰린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붕괴한 탈규제 금융권 문제와 기후 변화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까지. 하지만 오바마는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오바마가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쥐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기회로 보는 대신 부담으로 보았던 이유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오바마는 시스템에 갇힌 포로였다. 그는 그걸 바꿀 마음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2014년에 드디어 기후 협약을 체결했다.

물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협약 가운데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바마 퇴임 전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대중 운동이 중요한데, 이제 대중 운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을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 가도록 몰아붙이기 위해선, 대중 운동이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

대중 운동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나.

최근 20년 사이에, 극우주의, 석유 기업들의 완전한 자유, 사회의 상위 1퍼센트를 차지하는 최고 부유층의 자유가 정치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적 표준을 우익 편향에서 진정한 중앙으로 이동시켜야만 한다.

사회 질서 전체를 뒤집어엎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가 풀릴 리 없다. 그건 유토피아적 환상이다.

사회 질서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어떤가. 시각을 달리해 보면, 지금 우리에는 숱하게 많은 작은 해법들을 벌여 놓고 있다. 그린 테크놀로지에, 지역 단위의 법률에, 양자 간 협약에, 탄소세까지. 이 모든 해법들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작은 해법들, 그린 테크놀로지, 탄소세, 그리고 개개인이 하는 친환경 활동들이 죄다 무의미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은, 대중 운동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작은 해법들은 작은 해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경제적 · 정치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더 강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일자리, 규제 강화, 그리고 성장 우선주의 탈피를 근간으로 삼는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가 우리 눈앞에 열려 있다.

이순희 옮김, 『슈피겔』, 2015.2.

Interview

캐스 선스타인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출간 인터뷰

당신은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보입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한 가지 변화로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추행에 대한 대중의 생각과 대응 방식에서 대단히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변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요?

미투 운동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조리와 억압,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혹은 앞으로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허가서, 혹은 그린 라이트가 필요했습니다. 건국으로 이어진 미국 독립혁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독립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외칠 때 떠올랐던 그린 라이트였습니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의 경우, 로자 파크스는 어떤 측면에서 영웅이면서 동시에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좇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녀의 정신은 특별했지만, 공직자도 종교인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이들이 차별을 거부하도록 격려하는 허가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마틴 루서 킹 역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나쁜 일, 혹은 끔찍한 일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한 조직적 사상가이자 웅변가였습니다.

미투 운동은 나쁜 경험과 끔찍한 경험 사이 어딘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용기에 힘입어 스스로 〈미투〉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는 행동 금융을 주제로 책을 썼죠. 이와 관련해서 그는 트윗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사서 읽고 있다. 그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말로 똑똑한 행동입니다. 훌륭하지만 그리 유명하지는 않은 자신의 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시작한다면,

그 운동의 대단히 인기 있다는,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종종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비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금연 운동이나 안전벨트 착용 운동을 생각해봅시다. 비록 급진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죠. 안전벨트 운동과 금연 운동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꺼주시겠어요? 그건 제 감정과 건강을 해치는 행동입니다〉라고, 혹은 흡연을 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건강을 잃기 전에 금연하세요〉라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안전벨트를 매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금기시되었던 것이 어느 날 더 이상 금기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전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촉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들인 규범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싫어하지만 규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규범은 무슨 옷을 입을지, 누구와 데이트를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규범이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용감한 누군가가 어떤 규범이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말을 하는 이는 미친 사람이나 반역자, 혹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두 명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범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일단 환경오염에 맞서는 싸움을 지지하는 규범이 힘을 얻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도록 만드는 규범이 힘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규범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그 규범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말을 해야 한다.〉

어맨다 마코트, 박세연 옮김, 『살롱』, 2019.4.27.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

이순천 | 2010년 | 268면 | A5신 연장정 | 12,000원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글로벌 외교의 현안, 과제, 성과 등에 관해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이 언론 등에 기고한 칼럼, 기고문, 논문 등을 엮었다.

오바마의 신화는 눈물이었다

김성수 | 2009년 | 272면 | A5신 연장정 | 12,000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김성수 기자의 오바마 리포트.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재런 러니어 | 노승영 옮김 | 2016년 | 56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와이 넛지? 똑똑한 정부는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

캐스 선스타인 | 박세연 옮김 | 2016년 | 232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

카트린 레퀴예 | 김유경 옮김 | 2016년 | 192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마이클 캐롤런 | 배현 옮김 | 2016년 | 45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

리처드 거버 | 안진희 옮김 | 2013년 | 272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희망의 불꽃

조너선 코졸 | 이순희 옮김 | 2014년 | 39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사이퍼펑크

줄리언 어산지 외 | 박세연 옮김 | 2014년 | 240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협력형 통치

이문영 | 2006년 | 696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 2002년 | 392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기호인가 기만인가

김광현 | 2000년 | 33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대안은 열린 애국주의다

최병권 | 1999년 | 44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54
Books

쉬또젤라찌 총서(러시아학)
Chto delat' Library

도스또예프스끼 소설 연구
러시아시학연구회 편 | 1998년 | 360면 | A5신 연장정 | 9,500원 | 절판

옐찐과 21세기 러시아
정철훈 | 1997년 | 416면 | A5신 연장정 | 12,000원 | 절판

문화와 아방가르드
조지 기비안·윌리엄 찰스마 편 | 문석우 옮김 | 1997년 | 344면 | A5신 연장정 | 9,500원 | 절판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유리 로뜨만 외 | 러시아시학연구회 편역 | 1996년 | 384면 | A5신 연장정 | 9,500원 | 절판

19세기 러시아 소설의 이해
한국 슬라브학회 편 | 1995년 | 328면 | A5신 연장정 | 8,000원 | 절판

시의 이해와 분석
로뜨만·무까르조프스끼 외 | 조주관 편역 | 1994년 | 434면 | A5신 연장정 | 9,500원 | 절판

러시아, 새 질서의 모색
한국 슬라브학회 편 | 1994년 | 452면 | A5신 연장정 | 9,500원 | 절판

다시 쓰는 소련 현대사
V. P. 드미트렌코 외 | 이인호 외 옮김 | 1993년 | 324면 | A5신 연장정 | 7,500원 | 절판

러시아 경제의 구조와 전망
그레고리·스튜어트 | 한종만 외 옮김 | 1992년 | 624면 | A5신 연장정 | 12,000원 | 절판

소련의 시장 경제로의 이행
야블린스키·샤탈린 외 | 한종만 옮김 | 1991년 | 448면 | A5신 연장정 | 7,500원 | 절판

소련의 이해
하까마다 시게끼 | 정성환 옮김 | 1990년 | 184면 | A5신 연장정 | 2,800원 | 절판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신윤곤 옮김 | 1990년 | 160면 | A5신 연장정 | 2,800원 | 절판

러시아 리얼리즘론
게오르기 프리들렌제르 | 이항재 옮김 | 1989년 | 332면 | A5신 연장정 | 4,500원 | 절판

소련 현대 문학사 소련의 작가와 사회
마르크 슬로님 | 임정석·백용식 옮김 | 1989년 | 456면 | A5신 연장정 | 6,500원 | 절판

소비에뜨 문학 이론
게르만 예르몰라예프 | 김민인 옮김 | 1989년 | 312면 | A5신 연장정 | 4,500원 | 절판

바흐찐의 소설 미학
미하일 바흐찐 | 이득재 옮김 | 1988년 | 312면 | A5신 연장정 | 3,800원 | 절판

도스또예프스끼 연구
르네 웰렉 외 | 고대 노어노문학회 옮김 | 1987년 | 312면 | A5신 연장정 | 3,800원 | 절판

The Unification Close at Hand

손안의 통일 1~15

15
Books

1.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2019년 | 256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풀기 위한 실천적 입문서.

2.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인디고 서원 | 2019년 | 176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인디고 서원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통일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3. 북한에서 사업하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임을출 | 2019년 | 208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향후 남북 교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대북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4. 혐오 시대 헤쳐가기

김태형 | 2019년 | 200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심리학자 김태형이 우리 사회의 혐오 현상과 북한 혐오의 본질을 분석한 책.

5.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

정은찬 | 2019년 | 184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탈북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그 아이들의 지도하는 현직 교사, 학부모들의 경험담을 엮었다. 탈북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그들의 생생한 고민과 감정을 통해 보여 준다.

6. 북한 뉴스 바로 보기

구본권 | 2020년 | 184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잦은 오보는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7. 아빠와 딸, DMZ를 걷다

최동군 | 2020년 | 208면 | B6변형 연장정 | 12,000원 eBook

대학생 딸과 아빠의 대화 형식을 빌려 평소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근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

The Unification Close at Hand

8.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석, 이태호, 임헌조, 정한울 | 2020년 | 184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평화-통일 인식의 변화를 정리했다.

9.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함규진 | 2020년 | 152면 | B6변형 연장정 | 10,000원 eBook

100년 전 우리 역사의 현장에 있던 인물들을 등장시켜 가상 역사 토론을 진행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토크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100년 전 조선의 실패이다.

10.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박계리 | 2020년 | 248면 | B6변형 연장정 | 12,000원 eBook

전통 시대의 화가들이 남긴 금강산 그림을 통해 와유를 시도한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걸었던 금강산 루트를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둘러본다.

11. 생태의 시대와 DMZ

최재천 | 2021년 | 184면 | B6 연장정 | 10,000원 eBook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오늘날 인류 문명이 마주한 환경 위기(기후 변화, 팬데믹, 생물 다양성 고갈)를 개괄하고, 생태적 관점에서 DMZ의 활용을 고민한다.

12.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

고재열 | 2021년 | 224면 | B6 연장정 | 12,000원 eBook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 고재열이 평화 시대를 상상하며 쓴 북한 여행 기획서. 평양 맛집부터 마식령 스키 체험까지, MZ 세대에게 〈힙한〉 여행법을 제안한다.

13.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강성률 | 2021년 | 216면 | B6 연장정 | 12,000원 eBook

영화 비평가 강성률 교수가 시대의 감성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의 분단 영화를 여섯 개의 주제로 이야기한다.

14. DMZ를 보고합니다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외 | 2021년 | 224면 | B6 연장정 | 12,000원 eBook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고성까지, 생태 활동가들이 기록한 DMZ의 현장 기록을 담은 책이다.

15.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

정진헌 | 2021년 | 232면 | B6 연장정 | 12,000원 eBook

저자는 (탈)분단 도시 베를린이 전시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짚어 가며,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이 한인 이주민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한다.

15
Books

The Unification Close at Hand

Philosophy-Psychology-Religion

철학·심리·종교

41
Books

에코의 위대한 강연

움베르토 에코 | 이세진 옮김 | 2022년 | 496면 | A5변형 견장정 | 28,000원 **ebook**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여기는 행위들이, 옛것과 각을 세우고 고전을 되살리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임을 보여 준다. 아들을 바치라는 신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 히틀러가 그린 정물화의 추함, 거짓말에 관한 칸트의 어리석은 말, 보잘것없는 음악에 대한 프루스트의 예찬 등 에코는 특유의 익살과 통찰력으로 고전을 읽어 낸다. 고대와 중세를 넘어 근대와 현대까지,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가, 그들의 작품을 유쾌한 에코와 함께 만난다.

한국적인 것은 없다

탁석산 | 2021년 | 208면 | A5변형 연장정 | 15,000원 **eBook**

한국의 정체성에 관해 오랫동안 천착해 온 철학자 탁석산이 신간 『한국적인 것은 없다』에서 도발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우리 문화에 대한 국수주의적 뿌리 논쟁을 그치고 이 시대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무기로서의 문화를 적극 수입-발굴해야 한다는 것. 그는 시대를 초월해 고정불변하게 이어져 온 〈한국적인 것〉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미의식 등은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거나, 시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찾으려는 강박이 우리 문화를 정체시키고, 썩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피에르 아도 | 이세진 옮김 | 2017년 | 552면 | B6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고대 철학 연구의 권위자 피에르 아도(1922~2010)의 대표작.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한 철학서지만, 학계로부터 〈학식과 통찰력이 담긴 걸작〉, 〈철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는 훌륭한 책〉이라는 상찬을 받은 저작이다. 고대의 철학이란 자유와 평정, 행복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삶의 형태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되던 고대의 철학적 삶은 그리스도교가 부상하면서부터 정교한 이론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젖은 모래 위의 두 발

2

안도핀 쥘리앙 | 이세진 옮김 | 2015년 | 256면 | A5변형 연장정 | 11,800원

2011년 출간 이후 프랑스 50만 독자를 울린 감동 실화 에세이. 파리의 평범한 가정에 뜻밖의 비극이 찾아온다. 맞벌이 부부인 쥘리앙과 로이크는 의사로부터 딸 타이스가 희귀 유전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다. 아이는 겨우 두 살, 남은 삶은 겨우 1년 남짓이었다. 이 책은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절망의 돌을 밀어 올리는 한 엄마의 아름다운 싸움이자, 상실의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 2011년 파롤 드 파시앙상 수상
- 2013년 르 펠르랭상 수상

자아와 방어 기제

8

안나 프로이트 | 김건종 옮김 | 2015년 | 240면 | B6 견장정 | 18,000원 eBook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딸이자 아동 정신 분석학자인 안나 프로이트의 대표 저서다. 독일에서 정신 분석학에의 주요한 공헌으로 인정받은 이 책은 출간 직후의 영어 번역본을 시작으로 8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양한 번역본과 수많은 개정판을 생산하고 있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

17

앤드루 솔로몬 | 고기탁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872, 760면 | A5신 견장정 | 각 28,000원 eBook

집필에 10년이 걸린 이 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미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으며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고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혁명적〉인 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에릭 캔들은 이 책을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삶 또한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21세기의 심리학적 권리장전〉으로 상찬한 바 있다. 300가구가 넘는 가족들을 상대로 4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솔로몬은 극단적인 도전에 직면한 보통 사람들에게서 감동적인 힘을 발견한다. 그는 예외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녀 — 게이, 청각 장애인, 소인, 다운증후군, 자폐증, 정신분열증, 신동, 강간으로 잉태된 아이, 범죄자가 된 아이, 트랜스젠더 등 — 를 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 2012년 전미비평가협회상
- 2012년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타임』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보스턴 글로브』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클리브랜드 플레인 딜러』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선정 〈올해의 책〉
- 2012년 『애드버킷』 선정 〈올해의 책〉

경험 수집가의 여행

5

앤드루 솔로몬 | 김명남 옮김 | 2019년 | 760면 | A5변형 연장정 | 25,000원 eBook

저명한 심리학자 앤드루 솔로몬이 25년간 지구촌 7대륙의 현장을 기록한 매혹적인 여행기. 정치, 예술, 음식, 심리학, 인류학을 넘나들며 왕성한 호기심으로 그 사

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시대정신을 포착한다. 남아공, 브라질, 남극, 리비아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수집한 가슴 벅찬 경험들은 여행이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과 세상을 바꾸는 원천이 되는지를 실감나게 보여 준다.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 2

윌리 오스발트 | 김희상 옮김 | 2014년 | 176면 | B6 견장정 | 11,800원

스위스 사회에 죽음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을 촉발시킨 책. 이 책에서 저자 윌리 오스발트는 아버지의 자유죽음에 직면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린다. 늙고 병들어 품위를 모두 잃더라도 끝내 죽지 않고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살아 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까? 인간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 같은 것은 없을까? 윌리 오스발트는 그 어떤 금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아버지가 자유죽음을 생각한 순간부터 이를 결정하고 마침내 실행으로 옮기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감동적으로 기록한다.

전투의 심리학 10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W. 크리스텐슨 | 박수민 옮김 | 2013년 | 624면 | A5변형 연장정 | 25,000원 **eBook**

전투의 현장, 범죄의 현장, 테러의 현장, 화재와 붕괴로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도망칠 때 그곳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전사라고 부른다.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전사들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혹은 회피하고 부인하는가의 차이가 전사의 생존을 가른다. 군사 심리학의 고전 『살인의 심리학』의 저자 데이브 그로스먼이 선보이는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전사 과학의 정수.

● 2020년 진중문고 선정

살인의 심리학 9

데이브 그로스먼 | 이동훈 옮김 | 2011년 | 512면 | A5신 연장정 | 22,000원 **eBook**

전장에 나간다면 누구나 주저 없이 적군을 죽일 수 있을까? 그로스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전장에 선 군인들의 내면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드와 자아, 초자아가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다. 이드는 타나토스를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자아에게 죽이라고 소리치지만, 무언가가 군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주저하게 만든다. 무엇이 살인을 주저하게 만들까? 살해학kill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 범주를 만들어 낸 군사 심리학의 고전.

인간과 상징 개정판 24

카를 구스타프 융 외 | 이윤기 옮김 | 2009년 | 520면 | B5 견장정 | 50,000원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기초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의 마지막 글이 실린 심리학서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심리학을 쉽게 접했으면 하는 융의 소망이 실현된 역작이다. 인간의 영혼에는 개인적 경험과는 상관없는 조상 또는 종족 전체의 경험 및 사고의 바탕이 되는 원시적 감성, 공포, 성향 등을 포함하는 무의식인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융은 이 책에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검증한다.

● 1996년 『한국일보』 한국 출판 문화상 출판상

41
Books

Philosophy·Psychology·Religion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25

새뮤얼 이녹 스텀프 | 이광래 옮김 | 2004년 | 792면 | A5신 견장정 | 35,000원 **eBook**

미국의 대표적인 서양 철학사 개론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출발에서부터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거쳐 로티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영미권의 개론서와는 달리 아랍 철학, 현상학과 실존주의, 무엇보다 그리고 여성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이달의 읽을 만한 책〉
- 2005년 문화 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호모 주리디쿠스 (석탑 교양 총서 1)

2

손병석 | 2016년 | 256면 | A5 변형 견장정 | 15,000원 **eBook**

인문 교양 시리즈 〈석탑 교양 총서〉의 첫 책. 침몰하는 보트에서 승객을 던지라고 명령받은 승무원 홈즈, 인질들의 석방 조건으로 살인을 강요받는 식물학자 짐 등, 이 책은 실제 또는 가설적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 원리가 가능한지 모색한 철학 교양서이다. 단순히 딜레마 상황에서 주는 지적 게임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은 왜 정의로워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물음으로까지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 2016년 세종도서 우수 교양 부문 선정

41
Books

살인 세대

데이브 그로스먼 | 오수원 옮김 | 2019년 | 328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불안에 대하여

앤드리아 피터슨 | 박다솜 옮김 | 2018년 | 440면 | B6 연장정 | 절판

소년

이승욱 | 2016년 | 224면 | B6 견장정 | 절판

살아야 할 이유

제니퍼 마이클 헥트 | 허진 옮김 | 2014년 | 328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철학 한입 더 – 철학자 편

데이비드 에드먼즈, 나이젤 워버턴 | 노승영 옮김 | 2014년 | 360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철학 한입

2

데이비드 에드먼즈, 나이젤 워버턴 | 석기용 옮김 | 2012년 | 352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과학의 미래

버트런드 러셀 | 석기용 옮김 | 2011년 | 368면 | B6 연장정 | 절판

위대한 질문

3

레셰크 코와코프스키 | 석기용 옮김 | 2010년 | 304면 | A5 연장정 | 절판

자비의 힘 (신판)
달라이 라마 | 김석희 옮김 | 2008년 | 252면 | B6 견장정 | 절판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 강의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 2008년 | 52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 신판 3
가토 다이조 | 송현아 옮김 | 2008년 | 22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트라우마 15
주디스 허먼 | 최현정 옮김 | 2007년 | 45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전통과 중국인
류짜이푸, 린강 | 오윤숙 옮김 | 2007년 | 62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해체주의와 그 이후 2
이광래 | 2007년 | 384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중세사상사
클라우스 리젠후버 | 이용주 옮김 | 2007년 | 36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철학적 이해
존 힉 | 김장생 옮김 | 2007년 | 40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정신분석 사전 4
장 라플랑슈, 퐁탈리스 | 임진수 옮김 | 2005년 | 600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희망의 원리 10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 2004년 | 전5권 | 각 600면 내외 | B6 견장정 | 절판

권력 4
버트런드 러셀 | 안정효 옮김 | 2003년 | 288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사 2
이광래 | 2003년 | 440면 | A5신 견장정 | 품절
- 2004년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 2010년 일본에서 번역 출간

프로이트와 현대 철학
알프레트 쉐프 | 김광명, 김정현, 홍기수 공역 | 2001년 | 27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신화학 강의 4
안진태 | 2001년 | 64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5세 이전 아이의 성본능이 평생을 좌우한다
안나 프로이트 | 정인석 옮김 | 1999년 | 14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오강남 | 1996년 | 26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
오강남 | 1996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48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 1992년 | 304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안녕하세요 성령님 81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 1991년 | 320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 2011년 | 544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 2009년 | 53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41
Books

Soviet Union
Russia
경험 수집가의 여행
앤드루 솔로몬, 7대륙 25년의 기록
Cambodia
Zambia
Australia

Richard David Precht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철학자. 1964년 독일에서 태어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유년을 보냈다. 산업 디자이너였던 부친은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으로 상당한 규모의 개인 도서관을 운영했으며, 모친은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프레히트를 포함한 다섯 형제 중 두 명은 각각 1969년과 1972년에 베트남에서 입양되었는데, 이는 그의 부모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열이 높고 이상주의적이며 진보적인 환경에서 자란 프레히트는 졸링겐 지역의 유서 깊은 김나지움인 슈베르트슈트라세에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통과한 후 교구 직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이후 쾰른 대학교에서 철학, 독일 문화, 예술사를 공부했다. 1994년 독일 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인지 과학 연구 프로젝트 조교로 일했다. 프레히트는 현재 뤼네부르크 대학교,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 대학에서 철학 및 미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어권의 가장 개성 넘치는 지성인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 발표한 『나는 누구인가』가 1백 만 부 판매, 32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 잡았다. 〈철학하는 철학사〉 시리즈는 35만 부, 『사냥꾼, 목동, 비평가』 역시 23만 부를 돌파하여 프레히트의 책은 현재까지 총 28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는 2012년부터 독일 공영 방송 ZDF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철학 방송 「프레히트」를 진행하면서 철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한 대중서 집필에 열중하고 있다.

4
Books

인공 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박종대 옮김 | 2022년 | 288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인공 지능은 얼마만큼 진보적인 미래를 선사할까? 인간은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해야 할까? 독일 철학의 아이콘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는 그것이 과도한 착각이며, 인공 지능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자본주의적 계산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좇는 존재이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최적화가 아닌 만족감이다. 이는 기계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책은 인공 지능 시대에 인생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숙고한다.

● 독일 『슈피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의무란 무엇인가

박종대 옮김 | 2021년 | 176면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화두인 〈의무〉와 〈탈의무〉 현상에 주목한 책.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조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시민적 의무란 무엇일까?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이 더 필요할까?
저자는 19세기 시민 계급 등장 이후 〈돌봄 및 대비 국가〉로 변신해 온 국가의 역할을 되짚으며, 이제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여기는 우리 세태를 향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사냥꾼, 목동, 비평가

박종대 옮김 | 2020년 | 344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eBook**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철학자이자 개성 넘치는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의 디지털 사회 비평. 제목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구상한 유토피아에서 유래했다. 두 사람이 꿈꾼 유토피아는 각자가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 다시 말해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낮에는 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가축을 몰고, 밤에는 사색과 비평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였다. 디지털화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일견 우리는 유토피아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생업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방향 설정과 토론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가이드북.

너 자신을 알라 2

박종대 옮김 | 2018년 | 720면 | A5변형 연장정 | 25,000원 **eBook**

〈철학하는 철학사〉 2권. 지구 중심주의 세계관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왜 자신들의 국가 모델을 정당화하려고 저마다 자기만의 〈자연 상태〉를 구상하는 데 그렇게 열심이었을까? 〈시민 사회〉는 어떤 식으로 탄생했을까?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번창하는 상업 도시들과 초기 산업화의 길을 걷는 영국, 혁명의 전운이 감도는 프랑스, 19세기 전환기에 세계정신을 발견해 낸 독일의

Richard David Precht

소도시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제 이 책을 집어 든 독자들은 철학과 사회사, 경제사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역사적인 개선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세상을 알라

4

박종대 옮김 | 2018년 | 680면 | A5변형 연장정 | 25,000원 **eBook**

〈철학하는 철학사〉 1권. 철학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철학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서양 철학의 태동기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철학의 암흑기, 신학의 시녀로 불린 중세 시대 철학에 이르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 준다. 기존의 철학서들과 다른 점이라면 틀에 박힌 시대 구분과 철학사조의 분류 대신 이야기를 통해 철학의 흐름을 살핀다는 점이다.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수많은 레퍼런스와 논리적 톱니바퀴가 완전히 새로운 철학사를 만들어 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근간

세상을 만들어라 근간

동물은 생각한다 근간

4
Books

Richard David Precht

Interview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인터뷰

철학자로서 인공 지능 문제에 천착하고, 그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인류의 깊고 거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자의 임무입니다. 인공 지능은 우리의 삶을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자의식까지도.

다들 인공 지능에 대해 말하지만 모두에게 명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인공 지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 지능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어떤 패턴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를 토대로 독자적 결정을 내릴 때 인공 지능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거대한 진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도 자동화를 추진했지만, 자동화를 스스로 알아서 자동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계들은 새로운 권력을 얻었습니다. 인류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 지능은 지금까지의 여러 과학 기술 발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과학 기술은 지금껏 인간 문명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발견, 농경의 시작, 혹은 바퀴의 발명 같은 것들이죠. 인공 지능에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혁신들은 인간 사회를 진보로 이끌었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도 그럴까요?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인공 지능이 인간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데이트 분석을 토대로 인간에게 새롭고 명확한 인식을 선사하는 것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인공 지능이 인간 운명을 결정하려 들거나, 우리의 결정권을 빼앗아 간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면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줄어들고, 인간은 전반적으로

자유를 잃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타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볼 수 있죠?

새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죄수들의 재범 가능성을 컴퓨터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죄수의 신변 문제를 결정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그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무한한 변수들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급 확률이 62퍼센트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자고 다짐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차피 유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고 생각할까요? 그런 계산은 아이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학습 의욕을 상실한 채 정말 컴퓨터 예상처럼 되겠죠. 우리는 숫자를 권위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걸 측정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의 측정 가능한 측면만을 오직 세계로 간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은 대부분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깊은 감성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노아 하라리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 역시 슈퍼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처럼 움직인다고 믿으니까요. 하라리는 훌륭한 책들을 썼지만 철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2, 30년 후엔 사고의 알고리즘이 해독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그건 인간 이해에 맞지 않고, 과학적 의미에서도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철학 속에 강력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하든지.

기계가 인간을 닮아갈수록 둘 사이의 차이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인공 지능이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인공 지능을 보면서 지금껏 우리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과대평가한 지점이 어디인지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인지적 지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영역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매력은 자신을 〈나〉라고 부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도 뇌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분명히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그에 대한 단초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인간과 동일한 형태는 분명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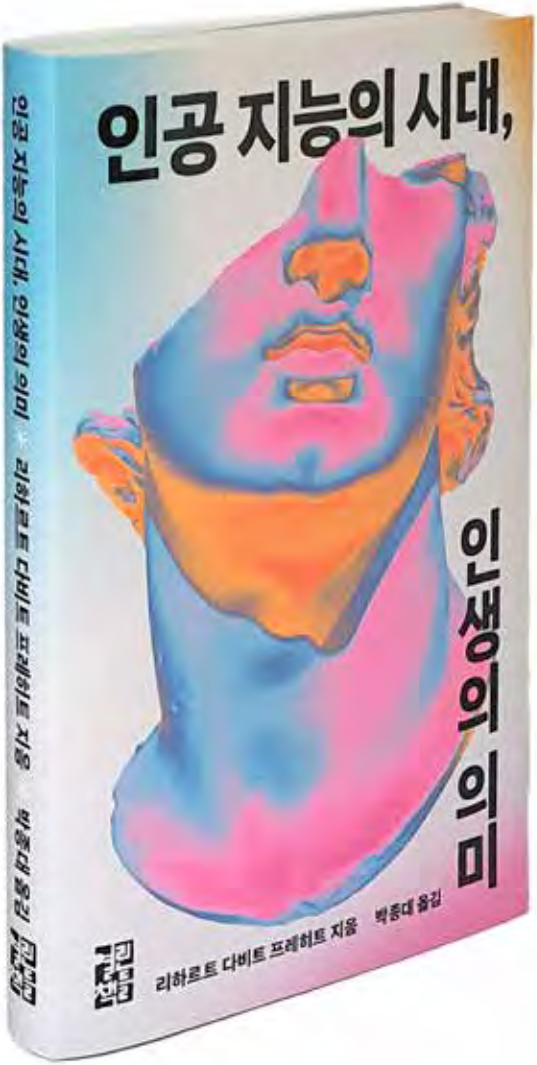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의식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겨나고, 인공 지능도 언젠가 의식을 갖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생물학에 관한 그의 관념은 좀 이상합니다. 진화를 돌이켜보면 지능에서 의식이 생겨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식은 인간을 비롯해 몇몇 감정적 존재들에게서만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자의식도요. 인간은 이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했습니다. 거꾸로 지능에서 의식이 생겨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곧 인공 지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더라도 인간보다 결코 더 낫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공 지능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니까요.

문제는 〈더 낫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공 지능은 계산이나 패턴 인식 능력, 또 그를 통한 빠른 결정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미래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뛰어나겠죠. 게다가 감정을 인지하거나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요. 인공 지능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거기서 의미를 찾지도 못할 겁니다.

인공 지능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보다 예술을 잘할 수 있나요?

그리 될 겁니다. 예술을 하는 데엔 딱히 감정이 필요 없어요. 인공 지능은 벌써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거장이 직접 그린 것처럼 똑같이요. 아마 미래에는 자신의 스타일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미술 시장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회화도 가치를 잃게 되겠죠. 화가의 작업도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할 겁니다. 만일 인공 지능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보다 낫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두하려면 창의력이 무척 뛰어나야 할 겁니다.

박종대 옮김, 『타크블라트』, 2020.9.12.


인공 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지음
박종대 옮김

Markus Gabriel

마르쿠스 가브리엘

21세기 현대 철학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철학자. 1980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소도시 진치히Sinzig에서 태어났다. 열다섯 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발목을 다쳐서 요양하는 동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쇼펜하우어, 헤겔, 니체, 키르케고르를 읽으며 철학자로 살겠다는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 때 이미 본 대학의 철학 세미나에 참석했던 가브리엘은, 본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거치며 철학, 고전문헌학, 현대 독일 문학을 공부했다. 2005년 스물네 살에 〈후기 셸링Schelling 철학〉에 대한 연구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 논문으로 루프레히트카를스Ruprecht-Karls 상을 수상했다. 2009년 본 대학에 석좌 교수로 부임하면서 19세기 셸링 이후 독일 최연소 철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가브리엘은 철학자로서는 드물게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모국어인 독일어를 비롯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등 10개 언어에 능통하다. 현재 본 대학에서 인식론과 근현대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동 대학의 국제 철학 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교, 덴마크의 오르후스 대학교,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뉴욕의 사회연구 뉴스쿨NSSR 내 철학 및 새로운 인문학 연구소IPNH 설립에 기여했으며, 2021년부터는 함부르크의 뉴인스티튜트The New Institute에서 실용적인 철학에 관한 연구를 이끌고 있다.

가브리엘의 저술은 21세기 현대 철학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생각이란 무엇인가』(2021), 『나는 뇌가 아니다』(2018),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2013), 『고대의 회의주의와 관념론』(2009), 『초월적 존재론』(2011) 등이 있으며, 슬라보이 지제크와 함께 『신화, 광기, 웃음』(2009)을 쓰기도 했다.

3
Books

Markus Gabriel

생각이란 무엇인가 3

전대호 옮김 | 2021년 | 568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생각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야심찬 시도를 담은 철학 책.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이 책에서 인간의 생각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감각임을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감각은 진화의 산물이며 우리의 개념은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기술로 대체될 수 없다. 가브리엘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를 의지(意志)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기술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감각을 일깨워 준다.

나는 뇌가 아니다 6

전대호 옮김 | 2018년 | 456면 | B6 견장정 | 18,000원 eBook

〈나는 대체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오랫동안 정신 철학의 전통 속에서 다뤄져 온 문제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자기인식의 물음은 자연과학의 분과 학문인 신경과학에게 점차 자리를 넘겨주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 뇌다〉라는 언술이 직접적으로든 암시로든 우리 시대를 물들이고 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새롭게 쓰고 있는 〈21세기를 위한 정신 철학〉은 우리 시대에 만연한 신경중심주의(곧 우리를 뇌 또는 중추신경계와 동일시하는 주장)에 맞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규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2018년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 2019년 세종도서 우수 교양 도서 선정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7

김희상 옮김 | 2017년 | 344면 | B6 견장정 | 18,000원 eBook

독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내놓은 독창적인 철학 대중서. 인식론, 존재론, 유물론의 주요한 철학 개념을 다양한 생각 실험과 비유, 위트를 버무려 명료하게 정리했다. 2013년 독일에서 출간 즉시 16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철학서로는 드물게 5만 부 넘게 팔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세계〉와 〈존재〉를 열쇠말 삼아 과학과 종교와 예술은 물론이고, 미드와 같은 대중문화의 영역으로까지 철학적 고찰 대상을 넓히고 있다.

가짜의 철학 근간

어두운 시대에도 도덕은 진보한다 근간

Interview

마르쿠스 가브리엘 인터뷰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좋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나요?

팬데믹 초기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쓴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도덕적으로 절대 의무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도덕적 진보라 할 수 있어요.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뉴 노멀〉을 외치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생겨난 도덕적 진보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걱정되지 않나요?

나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성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고 그것이 바로 〈뉴 노멀〉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은 곧바로 재구축되어야 해요. 어릴 때부터 철학을 공부했다면, 상대주의자도 허무주의자도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도덕을 생각할 때 자신도 모르게 문화나 종교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도덕관을 몸에 익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나 종교의 차이로 도덕관이 변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것과 가치를 두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설령 인간의 행동에 대해 다른 도덕적 인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가치의 차이가 될 수 없어요.
〈홍콩인을 박해하는 것〉은 중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문화 여하에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악입니다. 성차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에서 여성을 멸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성폭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서양인은 개인주의적이고 아시아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듣지만 이것도 완전히 난센스입니다. 아시아 사람은 독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교의(敎義)인지 알 수 있어요. 문화는 닫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종교가 도덕에 미치는 영향과 똑같네요.

맞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많은 도덕적 사실을 오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원리주의가 그렇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 역시 〈악〉입니다. 여기에 설명은 필요 없겠죠. 어느 특정 집단을 도덕적 사고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종교는 모두 사탄의 산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태도 혹은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계몽주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다른 시스템, 특히 비즈니스와 정치, 행정, 교육, 과학, 종교, 예술과 시민 사회는 인간성의 도덕적 해방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 도덕적 시점을 떼어 낸 순간, 인간성은 파괴로 향합니다. 기후 위기와 핵폭탄, 생물 무기, 에너지 문제가 좋은 예입니다. 물리학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물리에 관해서일 뿐이며, 그들에게 도덕에 대해 물어도 유용한 대답을 얻을 수 없어요. 과학이 철학의 대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과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도덕은 별개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않기 위한 행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크게 비난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면 할수록, 규칙 위반을 단속하는 경향도 강해지고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무관용을 조장하는 폐쇄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펜데믹으로 큰 전환점에 서 있으며 변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도덕을 빙자하여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체포하고 교도소에 가두면 그걸로 오케이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도덕적 비판은 〈존중〉을 바탕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야말로, 도덕적 진보를 재촉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야 나고 정리, 오연경 옮김, 『보그 재팬』, 2020.10.7.

Interview

앤드루 솔로몬과의 인터뷰

1963년 미국 뉴욕 출신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뉴욕 타임스 매거진』, 『뉴요커』, 『뉴스위크』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을 해오고 있는 그는 현재 웨일코넬 의학 대학원의 정신 의학 강사이고, 예일 대학교 정신 연구소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정신 건강 문제 특별 자문이며, 미시간 주립 대학교 우울증 센터와 컬럼비아 대학 정신 연구소,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관리자이고,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스쿨과 우울증과 조울증 지원 연맹의 이사회 위원이다. 2008년 정신 건강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물학적 정신의학 협회의 〈휴머니테리언 어워드〉를 수상했고, 2010년에는 두뇌와 행동 연구 재단에서 수여하는 〈프로덕티브 라이브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또한 예일 대학교 버클리 칼리지의 선임 연구원이며, 뉴욕 휴머니티 연구소와 외교 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한낮의 우울』(2002)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했고, 예외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인터뷰한 『부모와 다른 아이들』(2012)로 전미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현재는 컬럼비아 대학 임상 심리학 교수로 있다.

나는 세 개 주에 흩어져 사는 네 명의 아이들의 다섯 부모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새 책, 『부모와 다른 아이들』을 보고 제일 먼저 놀란 점은, 엄청나게 두껍다는 것이었습니다(976쪽). 육중해요! 정말로 이 책을 쓰는 데 십 년이 걸렸나요? 다 썼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정말로 쓰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끝마쳤을 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엄청나게 초조하더군요. 결코 끝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끝냈다는 사실이 아직도 기적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면에서든 좀 다른 아이, 그러니까 자폐이든, 정신분열증이든, 대단한 재능을 지녔든, 강간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이든, 그런 아이를 둔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총 300가족을 인터뷰했지요. 150가족쯤 만난 뒤에 〈아, 이만하면 됐어〉라는 생각이 들진 않던가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책에 긴장을 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묘사하고도 싶었어요. 가령, 귀가 먼 아이를 둔 가족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딱 네 가족만 인터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족의 이야기만 들려주게 될 것 같았어요. 반면에 15가족쯤 만나 보고 그밖에도 다른 조사를 풍성하게 한다면, 이 이야기가 귀가 먼 아이를 둔 가족들의 경험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책의 첫 문장에서 당신은 재생산(번식)이라는 단어가 〈예비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완곡어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 명제가 아주 급작스럽게 파열되는 셈인데요, 당신은 다른 부모들도 결국에는 이 현실을 대면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맞아요. 내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내연성 잠옷을 시험할 때 활활 타는 불 속에 잠옷을 던져 넣어 보는 것처럼, 이 사례들은 양육의 극단적인 형태들을 보여 줌으로써 결국 보편적인 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모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너 대체 어디서 왔니?」 이 책의 가족들이 겪는 좀 더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품은 이미지에 따라 아이를 바꾸려고 들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깊디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 슬픔을 치료했다고 말했지요. 어째서인가요?

이 책의 큰 틀은 내 이야기입니다. 이성애자 부모 밑에서 자란 게이로서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내 자신이 부모가 된 기분은 어떤지 하는 거죠. 나는 게이임을 밝히고서 이제는 그럭저럭 평온을 찾았지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부모님이 드러냈던 반대하는 태도랄까, 그 여파를 아직도 느껴요. 어른이 된 뒤에도 내내 마음에 남았죠. 그런데 어딘가 좀 다른 아이를 둔 가족들이 다들 그런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좀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가족이 아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가족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과 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끊임없이 승강이를 벌여야 해요. 거의 누구나 어떤 수준에서든 그런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던 건, 내게 멋진 경험이었죠.

그 경험이 스스로 아이를 갖는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묻더군요. 〈온갖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스스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다니, 참 이상하시네요〉 하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책은 온갖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요. 이 책은 온갖 방식으로 일이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사태를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책이라고요. 그런 곤란에 직면해서도 부모들이 크나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책이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맙소사, 이렇게 끔찍한 사례에서조차, 이 부모들에게 양육은 너무나도 보람이 큰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도 그걸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일종의 〈합성〉 가족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되어 사랑이라는 거친 해안선을 처음 발견한 기분인데, 가끔은 그 해안에 편안한 호텔이 미리 지어진 뒤에 발견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든다고요.

지금 내 남편은 미네아폴리스에 사는 레즈비언 친구들이 낳은 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내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벌써 그중 한 명은 낳은 뒤였죠. 또 나는 대학 시절 친구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 두 사람은 텍사스에 살아요. 그리고 남편과 나는 우리 둘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을 뛰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조지를 갖게 된 거예요. 조지는 4월에 네 살이 돼요. 다섯 부모와 네 아이가 세 주에 흩어져 사는 거죠.

그렇다면 왔다갔다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겠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는 어려운 점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어 그 속에 포함되는 것, 서로 모두 연결된 사람들의 그물망에서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에요. 나는 자랄 때 내가 게이가 아니었으면 하고 줄곧 바랐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나는 길고 고통스런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나만의 가족을 꾸리게 된 것은 어른이 되어 맛본 놀랍고 근사한 사건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인터뷰는 콜럼바인 학살 사건의 십대 살인자 딜런 클레볼드의 부모를 만난 것이었는데요. 당신은 인터뷰했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그 가족의 내부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그 가족을 정말로 잘 알게 되면, 왜 일이 그렇게 끔찍하게 어그러졌는지, 어쩌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두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어리둥절하기만 하더군요. 그 부모는 그냥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상냥하고, 지적이고, 너그럽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바뀌었죠. 범죄성은 마치 다른 질병들처럼 어쩌다 걸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그것을 일으켰다는 뜻은 아니에요. 클레볼드 가족 덕분에 나는 어떤 면에서든 망가지고 통제 불능으로 파괴적인 아이를 갖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지내고 있죠. 영국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대학원 공부를 영국에서 했고, 이후 잠깐동안 아예 영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도 많고, 대자 대녀도 일곱 명이나 있어요. 그들은 내 인생의 큰 부분이죠. 적어도 영국의 일부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적이라는 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날씨 때문에 영국에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캐럴 캐드월러더, 김명남 옮김, 『옵서버』, 2013.2.

Le sens figuré

철학 스케치 시리즈

저자와 삽화가가 함께 만든 새로운 개념의 철학 시리즈.
〈철학 스케치〉는 저자와 삽화가가 기획과 저술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참여해 위대한 철학자들의 핵심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개성 있게 포착해 낸 새로운 개념의 철학 시리즈다. 난해한 철학 용어나 개념을 앞세우기보다는 재치와 해학이 넘치면서도 깊이가 있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삼는 한편, 그에 걸맞은 개성 넘치는 삽화를 페이지마다 곁들여 〈즐기는 철학〉, 〈보는 철학〉의 맛을 살리고자 했다. 무엇보다 삽화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기존의 책과 달리 이 시리즈는 철학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삽화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바,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각을 크로키로 빠르게 스케치하거나, 니체의 머릿속에서 번져 나가는 사상을 수묵화로 그려 내거나, 스피노자의 치밀한 논리를 정밀화로 담아 내거나, 푸코의 삐딱한 시선을 풍자성 짙은 카툰으로 압축하는 등 그야말로 철학의 대가, 그 머릿속을 핵심적으로 묘사한다.

6
Books

Le sens figuré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오뒷세이아

클로디 아멜 | 프레데릭 코셰 그림 | 이세진 옮김 | 2014년 | 176면 | A5신변형 연장정 | 13,500원

문명화된 인류는 왜 다시 새로운 야만의 상태로 전락했는가? 테오도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근본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몸부림치는 이성이 어떻게 다시 신화로 되돌아가게 되는지를 철학적 사유의 힘으로 드러냈다.

헤겔의 눈물

2

올리비아 비앙키 | 에두아르 바리보 그림 | 김동훈 옮김 | 2014년 | 192면 | A5신변형 연장정 | 13,500원

독일 관념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헤겔의 철학적 업적은 언제나 매력적인 지적 도전의 대상이다. 저자 올리비아 비앙키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영웅들, 젊은 베르테르, 돈키호테, 게임 팩맨 등의 대중적 비유를 통해 독자들을 헤겔 속으로 끌어들이고, 헤겔의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한 속도 1권

제롬 로장발롱 | 브누아 프레트세이 그림 | 성기현 옮김 | 2012년 | 168면 | A5신변형 연장정 | 13,500원

〈가타리가 내려치는 번개들을 모으고 변환하는 피뢰침.〉 들뢰즈+가타리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수행한 역할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발 더 나아가, 들뢰즈+가타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뢰즈+가타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붓다, 니체

2

야니스 콩스탕티니데스 | 다미앙 막도날드 그림 | 강희경 옮김 | 2012년 | 200면 | A5신변형 연장정 | 13,500원

니체와 불교, 특히 선종과의 〈기묘한 유사성〉을 고찰하는 이 책은 무한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니체 철학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변주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광기와 열광의 이미지가 어른거리는 니체 철학이 어떻게 무욕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하는 불교 교리와 접점을 이룰 수 있을까?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디디에 오타비아니 | 이자벨 브와노 그림 | 심세광 옮김 | 2010년 | 168면 | A5신변형 연장정 | 12,000원

인간의 죽음을 선언한 사상가 미셸 푸코, 그가 과연 휴머니즘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 책은 〈자기 배려〉를 통해 〈진정한 휴머니즘〉에 도달하고자 한 푸코의 사유와 실천의 여정을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지와 풍자성 짙은 삽화들을 따라 추적해 간다.

스피노자의 동물 우화

2

아리엘 수아미 | 알리아 다발 그림 | 강희경 옮김 | 2010년 | 168면 | A5신변형 연장정 | 12,000원

이 책이 구축해 놓은 신기한 테마파크 안을 구경하다 보면 인간의 권리와 정신, 정서라는 주제를 동물들을 통해 자유자재로 조련하는 스피노자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학이 넘치면서도 깊이 있는 글쓰기, 그리고 섬세한 삽화가 오묘한 동물 철학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History
역사

32
Books

스탈린의 전쟁 2

제프리 로버츠 | 김남섭 옮김 | 2022년 | 744면 | B5변형 연장정 | 45,000원 **ebook**

스탈린은 흔히 대량 학살을 저지른 사악한 독재자 이미지로 그려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책은 스탈린의 잔혹성을 솔직하게 탐구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과 복잡한 20세기 국제 관계에서 스탈린이 위대한 군사 지도자이자 노련한 외교관,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증거도 발견해 낸다.〈매우 유능한 독재자〉라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스탈린과 소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약 중독과 전쟁의 시대

노르만 올러 | 박종대 옮김 | 2022년 | 400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19세기 모르핀, 코카인 등 마약성 약물의 개발, 1920년대 독일에 불어닥친 독극물 광풍과 제약 산업의 성장……. 광기와 비극은 예견되어 있었다. 승리에 눈이 먼 나치 군대의 수뇌부는 사병들에게 마약을 배급했고, 히틀러는 주치의 테오도르 모렐이 놓는 약물에 의존하며 망상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언론인 출신 작가 노르만 올러는 추악한 전쟁의 이면에 〈마약〉이 만연해 있었음을 폭로하며 역사학자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사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 독일 『슈피겔』 베스트셀러
- 미국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 파라마운트 영화화 계약

생태의 시대

요아힘 라트카우 | 김희상 옮김 | 2022년 | 1,040면 | B5변형 견장정 | 23,000원 **ebook**

환경은 언제부터 보호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동안 환경 운동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을까? 세계적인 환경 역사학자 요아힘 라트카우는 역사 속에서 세계 환경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조명한다.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출간, 그린피스의 미디어 전략,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92년 리우 환경 회담에서 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구호의 딜레마, 탄소 배출권 문제 등 다양한 정치 · 사회 · 경제적 사건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라시드 할리디 | 유강은 옮김 | 2021년 | 448면 | A5신 연장정 | 25,000원 **eBook**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기원과 성격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로 규정한다. 유럽인이 아메리카 인디언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

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정착민으로서 밀고 들어왔다는 것. 오늘날 두 나라의 빈번한 충돌 역시 100년간 이어져 온 식민지 전쟁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2020년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팔레스타인 민중의 관점에서 분쟁 전반을 기술한 보기 드문 수작〉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근대 조선과 세계

최덕수 | 2021년 | 296면 | A5신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열강의 한국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대한제국의 사건들을 재조명한 역사교양서. 평양 대동강에 이양선이 출현한 1866년부터 일본에 의해 병합조약이 맺어진 1910년까지 45년의 기간을 다룬다. 척화비, 임오군란, 동학농민전쟁, 헤이그 특사 등 열강이 이끌어 나가던 세계 질서와 만난 조선이 어떻게 외부의 힘에 맞섰고,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9가지 주요 사건과 핵심 질문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당시의 해외 외교 문서와 언론 보도 등 1차 사료를 적극 제시하면서, 그 시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History

일본은 어디로 향하는가

사토 마사루, 가타야마 모리히데 | 송태욱 옮김 | 2021년 | 528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헤이세이(平成) 시기인 1989년부터 2019년을 통째로 되돌아보는 책이다. 동시대를 대표하는 두 논객, 사토 마사루와 가타야마 모리히데는 이 책에서 헤이세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구석구석 파헤치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굵직굵직한 30년사와 함께 그동안 잘 몰랐던 일본인의 속내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내세운다.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악화되는 한일 외교 그리고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인 북한과 일본의 상황 등 일본인의 시선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대담을 펼친다.

독재자가 되는 법

3

프랑크 디쾨터 | 고기탁 옮김 | 2021년 | 480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20세기 들어 오싹할 정도로 효과적인 개인숭배를 시행한 8인을 돌아본다. 세심하게 연출된 행진부터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신중하게 구축한 신비주의 장막에 이르기까지 이들 독재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전 국민이 자신을 찬미하도록 부추겼다.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세계 지도자 중 누군가는 그들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문화 대혁명 (인민 3부작 3)

7

프랑크 디쾨터 | 고기탁 옮김 | 2017년 | 600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노쇠한 마오쩌둥은 잃어버린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시장 정책이 공산주의 이념의 순수성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함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 마오쩌둥을 숭배한 홍위병들이 득세했고, 라이벌 당파와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순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

는 반자동 무기를 든 군인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인민의 50분의 1을 짓밟은 피의 숙청이 이어졌다. 디쾨터는 이 책을 통해 마오쩌둥의 마지막 시기와 격동의 중국을 교차함으로써, 문화 대혁명의 전모를 밝혀낸다.

마오의 대기근 (인민 3부작 2)

7

프랑크 디쾨터 | 최파일 옮김 | 2017년 | 600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통해 당시 패권국이던 영국을 15년 안에 따라잡는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정책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500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강제 노역, 굶주림,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이 책은 최근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기록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의 현대사를 재구성한 디쾨터의 대표작이다.

● 2011년 새뮤얼 존슨상 수상

해방의 비극 (인민 3부작 1)

9

프랑크 디쾨터 | 고기탁 옮김 | 2016년 | 544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1949년 마오쩌둥이 자금성 위로 붉은 깃발을 들어 올리며 피로 얼룩졌던 국공 내전이 종식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해방이라 일컬었지만, 중국인들이 맞이한 현실은 오히려 폭정이었다. 인간성은 짓밟혔고, 전통문화는 파괴되었으며, 500만의 민간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 책은 마오쩌둥 정권 아래 살았던 중국 인민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수백 건의 비밀문서와, 비밀경찰 보고서, 수정되지 않은 지도자 담화, 살아남은 자들의 목격자 증언 들이 디쾨터의 명징한 역사적 묘사와 함께 어우러진다. 그러므로 이 책은 충격적인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증언이고, 그 과정에서 죽어 간 수백만 망자들에 대한 기록이며, 21세기 가장 강력한 정권들 중 하나인 중화 인민 공화국의 토대에 대한 철저한 재조명이다.

● 2017년 세종도서 우수 교양 도서 선정

태평양 전쟁

3

유진 B. 슬레지 | 이경식 옮김 | 2019년 | 560면 | A5변형 연장정 | 25,000원 **eBook**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 펠렐리우섬과 오키나와섬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를 기록한 미 해병대원의 참전기. 〈역대 최고의 전쟁물〉이라는 명성과 함께 30년 넘게 전 세계 독자들이 애독했다. 산호 바위, 진흙 참호, 습지대에서 펼쳐진 지상전부터 전함·함재기와 해병·육군이 총동원된 상륙 작전까지 태평양 전선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2010년 이 책을 원작으로 HBO 미니 시리즈 「퍼시픽」이 제작되어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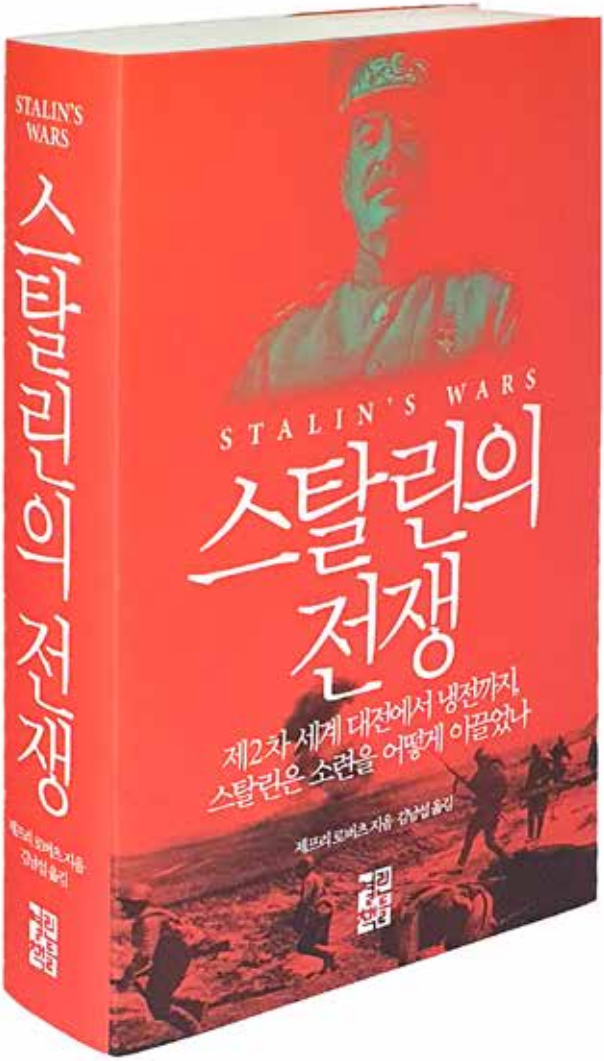
1918

다니엘 쉰플루크 | 유영미 옮김 | 2019년 | 344면 | A5변형 견장정 | 18,000원 **eBook**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을 무대로 역사의 중심부 또는 주변부에 놓여 있던 25명의 삶을 좇는 독특한 역사서이다. 영화적인 장면 구성과 디테일한 사실 묘사 등 새로운 감각의 역사 서술로 출간 당시 독일 출판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 대전의 여파와 어지러운 시대상,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진 질서를 딛고 자신의 운

32
Books

History


STALIN'S WARS
스탈린의 전쟁
STALIN'S WARS
스탈린의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냉전까지
스탈린은 소련을 어떻게 이끌었나

명을 열어 나가려고 분투했던 인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어느 독일인의 삶

12

브룬힐데 폼젤 토레 D. 한젠 | 박종대 옮김 | 2018년 | 328면 | B6 견장정 | 18,000원 **eBook**

독일 나치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를 위해 일했던 브룬힐데 폼젤의 증언을 정치학자 토레 D. 한젠이 정리한 책이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괴벨스의 비서로 일했던 폼젤은 이 책에서 자신은 그 당시 나치의 만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괴벨스의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그녀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치적 소용돌이 속 한 개인의 책임과 비극적 삶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살핀다.

블랙 어스

2

티머시 스나이더 | 조행복 옮김 | 2018년 | 616면 | A5변형 견장정 | 28,000원 **eBook**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는 처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 있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없애는 것은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을 복원하고 독일인들을 다시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보았다. 독일인을 배불리 먹일 땅.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유대인을 보내 버릴 땅. 그리고 마침내 모든 유대인의 무덤이 된 땅. 그것이 바로 〈블랙 어스〉다.

32
Books

팔레스타인 비극사

5

일란 파페 | 유강은 옮김 | 2017년 | 568면 | B6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가장 용감하고 강직하고 날카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일란 파페의 대표작. 이스라엘 핵심 인사들의 일기, 군사 기록, 구술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학살, 파괴, 겁탈 등 이스라엘 건국 세력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지 폭로하고, 이를 종족 청소라는 전쟁 범죄로 정의한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향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그것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2018년 세종도서(상반기) 우수 교양 도서 선정

레스토랑에서

크리스토프 리바트 | 이수영 옮김 | 2017년 | 352면 | B6변형 견장정 | 15,000원 **eBook**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미식의 문화가 싹 트고 꽃을 피운 과정을 조목조목 보여 준다. 레스토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미식가와 부자들, 한끼 배를 채우려는 서민들, 다양한 출신 계급의 노동자들, 작가와 지식인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의 관찰자인 학자와 기자들까지.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맛보고, 관찰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분노하고, 항의한다. 이 성격으로 인해 레스토랑은 소비와 연출, 노동, 불평 들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생산적인 실험실이 되어 왔다. 이 책은 오늘날 다채롭고 역동적인 미식 문화가 정착하기까지 레스토랑의 무대 앞과 뒤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경쾌하게 서술한다.

야망의 시대

7

에반 오스노스 | 고기탁 옮김 | 2015년 | 568면 | A5신 연장정 | 19,800원 eBook

21세기 중국, 혹은 중국의 도금 시대에 대한 초상. 지난 8년간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격변을 목격해 온 저자는 중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개인의 부상과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공산당 사이의 충돌. 국가가 극적으로 변화한 만큼 개인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현대 중국의 급격한 변화만큼이나 급격히 변한 중국인들의 삶을 다채롭게 추적하고 있다.

- 2014년 전미도서상 수상
- 2014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소셜 미디어 2,000년

톰 스탠디지 | 노승영 옮김 | 2015년 | 408면 | A5신 견장정 | 19,800원 eBook

현대 사회의 주요 테마인 소셜 미디어의 오래된 역사를 탐구하는 책. 저자 톰 스탠디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소셜 미디어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키케로와 로마 원로들 사이를 오갔던 서신들, 혁명의 현장에서 퍼져나갔던 프로파간다 등 역사 속 수많은 소통의 매개체가 본질적으로 현대의 소셜 미디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간다.

근대 조선과 일본

4

조경달 | 최덕수 옮김 | 2015년 | 320면 | A5신 연장정 | 18,000원 eBook

갑오농민전쟁 등 조선 민중사 연구로 유명한 재일 사학자 조경달 교수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집약해 서술한 통한의 한국 근대 통사. 19세기 중반 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날까지 반세기에 걸친 역사를 정치 문화를 중심으로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비교사적 차원에서 근대 한일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군인

6

볼프 슈나이더 | 박종대 옮김 | 2015년 | 584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군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군인은 어떤 무기로,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 맞서 전장으로 나아가게 한 힘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가? 『위대한 패배자』, 『만들어진 승리자들』의 저자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독일의 언론인 슈나이더는 이 책에서 시대와 대륙, 문화를 뛰어넘어 지난 3천 년을 아우르는 군인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군인이라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영국 전투

2

마이클 코다 | 이동훈 옮김 | 2014년 | 352면 | A5신 견장정 | 20,000원

영국 전투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초기인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영국과 독일이 약 5,0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하여 혈투를 벌였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었다. 마이클 코다는 이 책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치열해져

가는 영국 전투의 전개 과정을 영국 공군 대장 휴 다우딩의 헌신을 중심으로 박진감 있게 서술한다.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쓰키아시 다쓰히코 | 최덕수 옮김 | 2014년 | 496면 | A5신 견장정 | 28,000원

조선의 민중은 언제부터 국민이 되었는가? 1919년 3`1 운동은 근대 조선의 대표적인 민중 운동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국기는 서구적 근대의 산물이 아닌가? 근대적 조선 형성의 근원을 개화 운동가들로부터 찾는 저자는 세계 열강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계 정세 속에서 19세기 말 조선의 백성이 어떻게 국민으로 변신해 가는지를 추적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오가와라 히로유키 | 최덕수, 박한민 옮김 | 2012년 | 480면 | A5신 견장정 | 28,000원

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에 이르렀는가? 일본의 대표적 진보 사학자 오가와라 히로유키는 이 책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병합 구상을 중심에 놓고, 국제 정세와 조선 사회와의 길항 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거쳐 실제 병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2
Books

독소 전쟁사 1941~1945

14

데이비드 M. 글랜츠, 조너선 M. 하우스 | 권도승, 남창우, 윤시원 옮김 | 2007년 | 512면 | A5신 견장정 | 29,500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과 독일의 전쟁에 대해 러시아 관점에서 전역을 설명한 책으로, 소련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다. 소련군과 독일군의 전력 및 전술을 자세히 비교하고 있고, 한 편의 대서사시 같은 전쟁 이야기를 보는 듯 묘사가 생생하다. 게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어 전쟁의 본모습과 전쟁사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분노의 시대

판카지 미슈라 | 강주헌 옮김 | 2018년 | 464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샤리바리

윤선자 | 2014년 | 472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4년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13일

로버트 케네디 | 박수민 옮김 | 2012년 | 224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조약의 국가승계

이순천 | 2012년 | 36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일본, 한국 병합을 말하다

미야지마 히로시, 조경달 외 | 최덕수 외 옮김 | 2011년 | 584면 | A5신 견장정 | 절판

History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최덕수 외 | 2010년 | 1,00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1년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크리스탈나흐트

마틴 길버트 | 김세준 옮김 | 2009년 | 32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고종 시대의 리더십

오인환 | 2008년 | 45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오인환 | 2003년 | 552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재외 한국인의 국적 문제

하병욱 | 홍구희 옮김 | 2002년 | 254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고려인이 사는 나라 까자흐스딴

권영훈 | 2001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Kim Shiduck

김시덕

©문화뉴스

문헌학자이자 서울 답사가. 1975년생으로 잠실과 반포에서 10대와 20대를 보낸 서울 토박이다.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부와 석사를 거쳐, 일본의 국립 문헌학 연구소인 국문학 연구 자료관(총합 연구 대학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일본 연구 센터 HK연구 교수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K교수를 역임했다.

일본에서 출간한 저서 『이국 정벌 전기의 세계(異国征伐戦記の世界)』(笠間書院, 2010)로 30년 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일본 고전 문학 학술상〉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수상해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은 『일본의 대외 전쟁』(열린책들, 2016)으로 번역 출간되었고 2017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전쟁 담론 형성의 도구로서 문헌의 역할을 조명한 후속 연구서 『전쟁의 문헌학』(열린책들, 2017) 또한 2017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되었다. 특히, 2018년에 출간된 첫 대중서 『서울 선언』(열린책들, 2018)은 기존 조선 왕조·사대부 중심의 답사에서 탈피해 현대 서민 문화를 중심에 둔 답사기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2018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되었다. 이후 〈서울 선언〉 시리즈로 『갈등 도시』(2019)와 『대서울의 길』이 연달아 출간되었고, 이런 저술 활동을 높이 인정받아 2021년 제70회 서울시문화상(학술 부문)을 수상했다. 답사와 연구,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칼럼, 강연, 방송 출연, SNS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자리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저서로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근세편』(도서출판 문, 2010), 『그들이 본 임진왜란』(학고재, 2012), 『교감 해설 징비록』(아카넷, 2013),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메디치미디어, 2015), 『일본인 이야기』1·2(메디치미디어, 2019·2020),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메디치미디어, 2022),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포레스트북스, 2022) 등이 있다.

5
Books

Kim Shiduck

대서울의 길

5

김시덕 | 2021년 | 512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eBook

도시 문헌학이라는 고유한 방법론으로 도시 답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서울 선언〉 시리즈가 시즌 3로 돌아왔다.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김시덕 교수의 신간 『대서울의 길』은 제목 그대로 〈길〉이 주인공이다. 교외선, 수려선, 48번 국도 등 서울 내외곽에서 번성했던 철길과 도로를 따라 걸으며 시민의 잊힌 역사와 대서울의 구조를 읽어 낸다. 특히 이번 책은 전작들의 답사 범위를 훌쩍 넘어 강원도(춘천·원주)와 충청남도(천안·아산), 한마디로 대서울의 경계 끝까지 나아간다.

갈등 도시

6

2019년 | 512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eBook

사대문 안 〈조선 양반 문화〉 중심의 답사를 거부하고, 〈근현대 서민 문화〉를 중심에 둔 답사기로 큰 주목을 받은 『서울 선언』(2018)의 시즌 2. 이제 스케일을 키워 경기도까지 답사 범위를 넓힌다. 저자는 현대 서울의 역사를 배제와 추방의 역사로 이해한다. 〈서울이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서울 시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간주되는 수많은 시설과 사람들을 경기도로 밀어낸 역사〉라는 것. 저자는 이 〈기억과 계급의 전쟁〉에 뛰어들어 〈시민들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또 죽어 간 이야기들〉을 수집한다.

●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서울 선언

9

2018년 | 416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고문헌학자가 왜 서울 답사에 나섰을까? 그가 걷고 본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 문헌학자가 서울 답사기를 썼다고 하면 아마도 〈문화유산 답사〉를 떠올릴 것이다. 궁궐과 박물관, 역사 유적을 돌아보겠거니 생각할 만하다. 그러나 이 책에 그런 장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찬란한 문화유산이나, 아픈 근대의 흔적 같은 이야기는 없다. 저자는 주로 〈여기도 서울인가?〉 싶은 장소들을 걷는다. 그 장소들은 그가 40여 년간 살고 생활했던 곳들이다. 특별할 것 없고 역사가 없어 보이는 곳들을 걸으며 조금은 다른 서울의 역사를 읽어 낸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쩌면 진짜 서울의 역사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 2018년 세종도서(하반기) 우수 교양 도서 선정

전쟁의 문헌학

2

2017년 | 560면 | A5신 견장정 | 28,000원 **eBook**

전작에서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주목했던 저자는 신간 『전쟁의 문헌학』에서 전쟁이 문헌의 형성과 유통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 책은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제 전쟁이 활발한 문헌 형성과 유통을 촉발시켰고, 이렇게 형성된 문헌(지식)이 또 다른 전쟁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되었음을 밝히고 그 메커니즘을 추적한다.

- 2017년 세종도서 우수 학술 도서 선정

일본의 대외 전쟁

3

2016년 | 560면 | A5신 견장정 | 28,000원

일본 근세 문헌 연구자인 김시덕 교수의 첫 연구서로,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출간했던 〈이국 정벌 전기의 세계(異国征伐戦記の世界)〉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역사학자 구와타 다다치카와 일본 근세 문학 연구의 태두 나카무라 유키히코의 연구를 기초로, 〈전쟁의 문헌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일본 근세 문학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16~19세기 문헌들을 망라하여 고찰함으로써, 근세기 일본이 벌인 여러 침략 전쟁들이 일본 내에서 〈정당한 전쟁〉으로 재생산되어 기억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 2011년 제4회 일본 고전 문학 학술상 외국인 최초 수상
- 2015년 제5회 석헌 학술상 수상
- 2017년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5
Books

Kim Shiduck

대서울의 꿈
서울 신인
새 현재 이야기
김시덕 지음
김시덕 선집
확장하는
도시의 현재사
대서울의 꿈:
확장하는 도시의 현재사

Interview

김시덕 인터뷰

문헌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의 물질적인 성격부터 사회적인 맥락까지 다 보는 기초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6세기부터 19세기 동아시아 고서들의 물리적인 성격을 탐구합니다. 책을 크게 만들었다면 〈왜 크게 만들었나?〉, 〈글자 간격은 왜 이런가?〉 등 책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글자에 적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헌학입니다.
보르헤스가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읽힐 수 있는 문헌학적 요소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읽히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 방법론을 적용해 도시문헌학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대서울〉을 탐구하는 『서울선언』(2018), 『갈등도시』(2019), 『대서울의 길』(2021) 등을 집필하셨는데, 〈대서울〉 시리즈의 집필 동기가 궁금합니다.

4년 한국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답사를 좋아해 정리하자는 의미로 집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라서 〈내가 바라보는 서울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대문 밖에 살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면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삶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춘천,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원주 혁신도시 출퇴근이 수월합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노원구에서 구로는 너무 멀죠.
남쪽으로 보면, 오송까지 출퇴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대문을 포함한 서울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기도 지역을 다룬 것입니다.

지리적 또는 시간적으로 〈대서울〉 시리즈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두 방향인데, 하나는 서울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는 측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한 책인데, 이후로는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우리나라의 변화가 많이 있었기에 한국의 발견과 같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견』은 80년대 쓰여 농촌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저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도시문헌학이라는 고유모델로 기록하고, 지역답사를 통한 역사·문화를 기록하셨습니다.

생활사에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의 전통이 강한 러시아,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문학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정치사가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역사 문서만 보면 빠지는 게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중층, 하층의 사람들은 정치, 역사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기사, 단편 수기, 재개발 반대 팜플렛 등도 봐야 합니다. 비주류 역사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지역의 자료를 찾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조사가 없는 걸 보면, 〈왜 자기 동네에 애착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번 답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은 2년마다 떠나야 합니다. 2년마다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역에 애착이 없습니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등 거대 담론만 남는 것입니다. 전세제도가 만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마을을 답사하는데, 주민이 와서 〈우리 마을에 뭐 볼 게 있다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20년 기록이 없는 이유입니다. 막상 우리 동네에 누가 살았고,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문헌학자로서 남기고 싶은 점은?

책의 시리즈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아시아 문제를 연재하고 있는 〈일본인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선언〉 시리즈 4번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는 유물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유물이 도굴되고 파괴됐습니다. 영동 개발로 백제 무덤 300개 중 10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역삼동 고분군, 방배동 유물 다 없습니다. 위치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박탈감, 저항감이 있습니다.
서울 600년은 조선 중심주의 사관입니다. 조선 중심주의에 대한 안티체제로서 하나는 근현대, 다른 하나는 백제, 고려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 기자, 『문화뉴스』(발췌), 2021.11.15.

Tony Judt

토니 주트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토니 주트. 영국인이자 유대인, 프랑스인인 동시에 미국인이었던 토니 주트는 여러 국민성이 공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곳에 안온히 정주하길 거부했으며 타고난 논객, 두려움 없는 비판자로서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 독보적인 비판 능력을 발휘했다. 역사가로서나 지식인으로서 그의 삶은 에릭 홉스봄이 평했듯이 〈대단한 성취〉 그리고 〈탁월한 행동〉이었다.

토니 주트는 1948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 킹스 칼리지와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버클리 대학, 뉴욕 대학에서 가르쳤다. 또한 뉴욕 대학에 유럽을 연구하는 레마르크 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으로 재임했다. 『뉴욕 타임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 『뉴 리퍼블릭』 등 유럽과 미국의 언론에 빈번히 글을 기고해 왔고,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특별회원, 왕립역사학회 특별회원, 빈의 인간과학연구소 종신회원이기도 했다. 〈전후 유럽에 관한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전후 유럽 1945~2005』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토니 주트는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본래적인 의미의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 명성이 정점에 달해 있던 2008년,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그의 몸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고, 이내 의료 장비의 도움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주트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의 육신은 〈한 주가 지날 때마다 6인치씩 면적이 줄어드는 감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집필과 강연을 멈추지 않았고, 이 활동이 그의 마지막 저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로 출간된 바 있다. 2010년 8월 루게릭병으로 타계했다.
주저 『전후 유럽 1945~2005』는 2006년 퓰리처 상 후보에 올랐으며, 2005년 뉴욕 타임스 올해의 책 10권에 선정되었다. 그 밖의 저서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재평가: 잃어버린 20세기에 대한 성찰』, 『기억의 집』, 『미완의 과거: 프랑스 지성 1944~1956』, 『마르크스주의와 프랑스 좌파』 등이 있다. 2007년에 해나 아렌트 상을, 2009년에 조지 오웰 상을 수상했다.

6
Books

Tony Judt

전후 유럽 1945~2005

9

조행복 옮김 | 2019년 | 전2권 | 각 856, 736면 | A5변형 연장정 | 각 35,000원 **eBook**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부터 냉전의 기원, 유럽 제국주의의 종언과 식민지 해방, 유럽경제공동체의 탄생과 발전, 서유럽의 경제적 번영과 불만, 소련의 동구권 지배와 소비에트 블록의 몰락, 발칸 전쟁, 난민과 불법 이민 노동자, 스포츠, 음악, 영화 등 유럽인들의 일상적 삶까지 전후 유럽의 모든 것을 해부한다. 현대 유럽을 만든 흐름과 사건들, 인물들에 대해 서술하면서 연구 대상자들의 행위와 핑계, 공적, 실패에 판결을 내린다. 무엇보다 이 유럽 이야기의 주제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주제들이기도 하다. 과거 청산과 통일, 지역감정, 이데올로기와 지식인의 쇠퇴, 반미주의와 반공주의, 출산율 감소와 국민연금 고갈, 공기업 민영화, 이주 노동자 문제 등 각각의 첨예한 사회적 쟁점들이 있다.

- 2005 『뉴욕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2005 『타임』 선정 올해의 책
- 2005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
- 2005 『옵서버』 선정 올해의 책
- 2005 『선데이 헤럴드』 선정 올해의 책
- 2005 『선데이 타임스』 선정 올해의 역사책
- 2006 아서 로스 북어워드 수상
- 2008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선정

20세기를 생각한다

2

조행복 옮김 | 2015년 | 52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5년 문화 체육 관광부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기억의 집

배현 옮김 | 2015년 | 24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5년 3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재평가

조행복 옮김 | 2014년 | 61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7

김일년 옮김 | 2011년 | 24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Book Review

토니 주트 서평

냉전이 끝난 후
에릭 홉스봄, 토니 주트를 추억하다

내가 토니 주트와 관계를 맺게 된 날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서로 엇나갔다. 우리는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친구였으며 둘 다 정치에 관여한 역사가였고 똑같이 군복보다는 역사가라는 비공식적 복장을 착용하기를 더 좋아했지만, 서로 다른 고수의 장단에 맞춰 행진했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지적 관심사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둘 다 20세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헤쳐 나왔고 그 기본적인 열정을, 다시 말해 정치는 우리의 신화뿐만 아니라 진실도 알려줄 열쇠라는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역사가가 된 사람들뿐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차이는 있었지만, 토니의 『마르크스주의와 프랑스 좌파』와 최근에 내가 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동일한 주체적 사상가 즉 작고한 조지 리히트하임에 헌정되었다. 우리는 사사롭게는 사이좋게 지냈다. 그럴 때 토니는 쉽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고 관대했다. 토니는 나의 저작을 좋게 평가했으며 자신의 마지막 책에서도 그렇게 말했다. 동시에 토니는 나를 매우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 공격 문구는 널리, 특히 미국의 극우파 언론이 많이 인용한다. 이러했다. 가슴을 치며 당신의 신이 실패했음을 대중 앞에서 실토하라. 그러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와 수용소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경청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반공산주의 논쟁에서 절실한 수사적 표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실천과 이론은 달랐다.

신화를 조장하는 것은 역사가의 일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토니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것은 그가 죽음에 대면한 방식에 우리가 느낀 무한한 감탄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토니의 행태에는 로마 시대의 위엄이 있으며 고전적인 추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동료와 장기를 두기로 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결코 패하지 않은 큰 스승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도발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는 감동적인 이미지이지만, 우리는 이를 버려야 한다. 신화를 조장하는 것은 역사가의 일이 아니다. 토니는 또 하나의 조지 오웰로 제시되었지만 이는 틀렸다. 모두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였고 논쟁을 몹시 좋아했지만 둘은 매우 달랐다. 오웰에게서는 여러 가지 편견, 미래 지향적인 동시에 퇴행적인 구약의 예언, 상상력이 풍부한 비판이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토니에게 그런 것은 없다. 토니라면 결코 『1984년』이나 『동물농장』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웰은 작가로서는 더 강력했지만 토니의 놀랍도록 광범위한 지식과 기지, 지적 속도와 능란함도 갖추지 못했다. 오웰은 결코 학자의 역할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혁명들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오웰과 토니를 비교하는 것은 다른 점에서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두 작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지나간 정치적 시대, 즉 냉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웰은 지적 차원의 반소련 미사일 기지라는 평판을 얻었고, 오웰의 나머지 부분이 거듭 드러나는 오늘날에도 그 평판은 여전히 1950년대에 고정되어 있다. 토니는 당연히 누구 못지않게 반스탈린주의자였고, 공산당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을, 그들이 명백히 스탈린주의자가 아니며 나처럼 1917년 10월 최초의 세계적 희망을 느리지만 분명히 다듬고 있었을 때조차,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 바그너의 작품이 연주되는 것에 반대한 자들처럼, 토니 주트도 정치적 혐오가 미학적 즐거움을 방해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브레히트의 코민테른 간부들에 관한 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는〉 「후손들에게」를 문학적 이유가 아니라 악한 대의를 믿는 신자들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20세기를 생각한다』를 보면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 토니의 주된 관심은 소련이 〈자유세계〉에 가한 위협이 아니라 좌파 내부의 논쟁이었음이 분명하다. 스탈린과 수용소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그의 주제였다. 1968년 이후 토니는 동유럽 문제에서 한층 더 전투적인 반대파 자유주의자가 되었고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의 종말에 관하여 많은 논평을 낸 잡다하지만 대체로 우파적 성격이 강한 학자들을 칭찬했다. 이는 옳은 얘기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야만 했던 다른 이들은 1989년과 그 이후의 벨벳혁명과 〈색깔 혁명들〉이라는 동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한 혁명들은 전혀 없었다. 단지 소련의 결정에 대한 상이한 대응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 시절의 진정한 영웅은 소련을 무너뜨린 고르바초프,

그리고 프랑코가 지배한 에스파냐의 수아레스와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같은 구체제 내부의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평화로운 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했지만 양쪽에서 공히 지독한 저주를 받았다. 1980년대, 토니의 본질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적이었던 자유주의는 프랑수아 퓌레가 지녔던 하이에크 식 경제 자유주의에 잠시 오염되었다. 나는 이 지난 냉전의 잔광이 토니의 성장에서 중심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토니의 매우 인상적인 저작 『전후 유럽』이 더 알찬 내용과 깊이를 갖는 데 일조했다. 20세기 후반 토니가 밟은 여정은 독특하다. 1980년대에 뉴욕에 자리를 잡고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할 때까지 토니는 영어권 프랑스사 전공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탁월한 역사가는 아니었다. 아마도 프랑스 좌파에 관한 끝없는 논쟁이라는 위험한 늪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이전이라면 사회사의 변두리에서 토니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1871년에서 1914년 사이의 프로방스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는 최고였다. 토니가 프랑스에 관계하던 시절의 특징은 인상적인 박식함과 역사적으로 하찮은(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결과들의 결합이었다. 그것은 점차 〈라리브고슈〉의 무기력한 변두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학문적 토너먼트가 되었다. 찻집 〈레되마고〉와 〈카페드플로르〉에서 일어난 일은 문화적으로는 유명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생제르맹 가(街)의 반대편 정치인들이 모이는 식당 〈브라세리리프〉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되었다. 사르트르에게 정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드골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어쨌거나 좌파는 좀처럼 권력을 잡지 못했고, 아마도 총리가 된 지식인으로는 1936년의 레옹 블룸과 미테랑이 전부였을 것이다(미테랑은 적어도 자신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흉내는 잘 냈다). 좌파 지식인들은 정신적인 곡예로써, 즉 토니도 어려움 없이 증명한 어리석은 짓으로써, 노동자의 지식인 혐오를 뜻하는 〈노동자주의〉라는 용어를 발명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국가적 상황을 감수하려 했다.

19세기의 수도, 프랑스

19세기와 20세기에 프랑스 역사를 형성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미완의 대혁명에서 탄생한 공화국, 중앙 집권화한 나폴레옹 국가, 중대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고 지리멸렬했던 노동 계급이 그러한 역할을 떠맡은 것, 문화와 언어의 우월함을 확신했던 중국만큼이나 강한 확신에 차 있던 유럽의 중앙 왕국이라는 1789년 이전의 위치에서

오랜 쇠락의 길을 걸은 것. 프랑스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19세기의 수도〉였지만, 워털루 전투 이후 그 길은 군사적 위용과 국제적인 힘, 문화적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비록 불연속적이기는 했지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레닌을 부정하고 나폴레옹을 빼앗긴 프랑스는 파괴할 수 없는(그러기를 바라야 한다) 마지막 요새인 아스테릭스의 세계로 틀어박혔다. 전후에 파리 사상가들을 호평하는 것은 일종의 유행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집단적으로 내향성으로, 프랑스의 지성, 데카르트 이론, 신소리의 궁극적인 성채로 은거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이제 고등 교육과 학문, 경제 발전, 나아가(마르크스 사상의 뒤늦은 침투가 의미하듯이) 대혁명의 이데올로기에서도 다른 모델들이 있었다. 좌파 지식인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혁명적인 프랑스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우파 지식인들의 문제는(이들 중 다수가 이전에 공산주의자였다) 공화국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자 공화국을 형성한 전통인 프랑스 대혁명을 어떻게 묻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는 미국사에서 미국 헌법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제였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퓌레처럼 매우 영리하고 강력한 인물조차도 할 수 없었다. 토니가, 살아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이상이었던 사회 민주주의를 재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전후 유럽』

그때까지 토니는 학계의 싸움꾼으로 이름을 알렸다. 토니의 기본적인 위치는 법정에 있었다. 판사의 자리가 아니었다. 진실이나 진실성이 아니라 재판을 이기는 것이 목표인 변호사의 자리였다. 넓은 공간, 오랜 시간, 복잡한 과정을 연구하는 역사가라면 반드시 자신의 견해가 지닐 수 있는 약점을 캐야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 토니가 지적 차원의 검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려 깊고 박식한 성숙한 역사가로 바뀌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1945년 이후의 유럽사를 다룬,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티고 선 『전후 유럽』이 토니의 주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군데군데 균형이 맞지 않기도 하지만 『전후 유럽』은 야심적인 저작이었고 지금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다. 초판이 나온 지 7년이 지난 지금 『전후 유럽』을 처음 읽는 독자에게 그 책이 적절하게 보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2차 사료 읽기와 당대 역사의 관찰을 토대로 쓴 역사적 종합의 대작은 장년에 이르러야만 쓸 수 있다는 점은 나 자신이 경험했기에 장담할 수 있다. 그렇게 폭넓은 주제와 씨름하여 결론을 끌어 낼 능력을 지닌 역사가는

거의 없다. 『전후 유럽』은 매우 인상적인 업적이다. 현재를 소재로 삼는 저작은 진부함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전후 유럽』은 열정과 기지, 유려한 문제로 쓰였기에 비판적인 내러티브 역사책으로서 오랫동안 언급될 것이다. 『전후 유럽』으로 인해 토니는 처음으로 중요한 역사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토니는 한 명의 역사가로서 일하기를 그만두고 있었다. 21세기에 토니가 취한 자세는 역사가라기보다는 한 명의 〈공적 지식인〉이었다. 타고난 논객의 성마른 성격을 지닌 자로서 헛된 이론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자기기만의 탁월한 적이었으며, 세계적인 사건들에 관해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비판한 평론가였다. 토니는 냉전 시대에, 특히 1980년대에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킨 매우 전통적인 옹호자였기에 한층 더 독창적이고 과격하게 보였다. 공산주의의 몰락을 승리이자 세계 지배로 곡해한 정부들과 이데올로그들에 맞선 토니는 자신에게 매우 솔직한 사람이어서 과거의 진실들과 구호들은 1989년 이후 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로지 학계의 지식인들만을 대상으로 적당히 배포되는 잡지에 기고한 몇 편의 글로써 그토록 빠르게 그러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늘 신경과민 상태인 미국뿐일 것이다. 주류 언론의 지면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레몽 아롱(토니에게 감화를 준 사람이 분명하다)과 독일의 하버마스에게 열려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무시되었다. 토니는 미국의 세계 정복을 위한 연합 세력, 즉 네오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위험을 무릅써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토니는 비스마르크가 말한 이른바 〈시민의 용기〉를 많이 지녔다. 이는 토니 자신이 지적했던 대로(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아이자이어 벌린에게는 없던 자질이었다. 오든이 시인들을 가리켜 했던 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던 좌안의 한때 마르크스주의자 주석 학자와 정보 관료들과는 달리, 토니는 이 새로운 세력과 싸우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토니는 분명히 즐거워하며 또 열심히 이들에 맞서 온몸을 내던졌다.

토니는 냉전이 끝난 후 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파리 제5구의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나 뉴저지의 저명한 교수가 아니라 법정의 기술을 넓혀 부시와 네타냐후가 좋아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인물이었다. 이는 대단한 성취, 탁월한 행동이었다. 독자들이 토니에 환호한 것은 단지 그가 말한 것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들이었다면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을 토니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토니가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토니는 영국인이자 유대인, 프랑스인이었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인이었다. 세계인이 아니라 내부에 여러 국민성이 공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토니는 자신이 하는 일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스스로 지적했듯이,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 기고가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언론 매체의 보도 기자와 사진 기자이다.

역사가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2000년대 초, 토니는 적어도 영어권 세계에서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 유명세가 워홀이 말한 15분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토니의 마지막 투병 시기 덕분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토니의 업적은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토니가 처음으로 더는 스스로를 법정의 검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진실로 아는 것을, 느끼고 생각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20세기를 생각한다』는 대단한 책이 아니다. 대단한 저술의 미완성 작품도 아니다(책이 쓰인 방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대단한 저술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20세기를 생각한다』는 현대의 역사가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또한 이 세상의 학계에 세련된 강연의 모범이 된다. 이 책은 역사가가 자신들의 가정을 조사할 수 있고 자신들의 확신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형성하고 또 바꾸어 놓았는지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책은 훌륭한 인간에게, 그가 용케 살아냈던 삶에 바친 값진 기록이다.

에릭 홉스봄, 조행복 옮김, 『런던 리뷰 오브 북스』, 2012.4.

Interview

프랑크 디쾨터 인터뷰

1961년 네덜란드 림뷔르흐 출신의 역사학자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를 역사학과 러시아어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다. 이후 2년간의 중국 체류 기간을 거쳐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 런던 대학교 SOAS(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학술원 박사 후 선임 연구원이자 웰컴 연구원 자격으로 SOAS에 머무르다 2002년에 중국 현대사 교수로서 학과장에 올랐다. 2006년부터 홍콩 대학교 인문학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현대사 3부작 중 하나인 『마오의 대기근』(2011)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논픽션 어워드인 새뮤얼 존슨상을 받았다.

프랑크 디쾨터에게 대기근과 마오쩌둥에 대해 듣다

앞서 나는 중국이 최근 경험한 놀랄 만한 빈곤이 중국인의 정치적 사고에 여전히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했다. 프랑크 디쾨터는 『마오의 대기근』에서 세상 사람들이 20세기를 떠올릴 때 자주 빠뜨리고는 하는 재앙을 탐구한다. 중국의 대기근은 엄청난 규모와 공포라는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관련한 세부 사항들도 이제 막 이야기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얼마 전 중국 본토에서는 〈묘비〉라는 중국어 제목으로 발표된 전직 기자 양지성의 방대한 탐사 보도가 금지되었다. 이번 주 리뷰할 중국을 주제로 한 작품들 가운데 디쾨터의 『마오의 대기근』이 포함된 까닭에, 그에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은 인종이나 마약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 기근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관심을 가져 왔다. 이를테면 마약과의 전쟁에서처럼 말이다. 1958년 대약진 운동만큼이나 이상적인 계획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례가 또 있을까? 공산주의 낙원에 대한 환상은 모든 자유 — 거래의 자유,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 를 조직적으로 박탈하고

종국에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인 대학살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내가 마오의 대기근에 관한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당 기록 보관소가 조용히 문을 열어 그때까지 볼 수 없던 기록물을 공개하며 선심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

기근 이후에 정치 구조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또 바뀌지 않았는가?

이른바 〈베이징 모델〉은 그 모든 〈개방〉이나 〈국가 주도 자본주의〉 같은 그럴듯한 말에도 불구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다. 요컨대 정치적 표현이나 발언, 종교, 집회 등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통제한다. 물론 국민들이 더 이상 수백만 명씩 굶어 죽거나 맞아 죽지는 않지만 여전히 시민 사회 건설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장애물이 변함없이 가동 중이며 이전과 유사한 문제들 — 조직적인 비리, 실용성이 의심스러운 보여 주기식 사업에 따른 막대한 낭비, 환경 재앙, 무엇보다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당까지 — 을 발생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60년 전 대기근 당시에 등장한 생존 전략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지 의아해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당 간부들과 공장 관리자들은 제도를 악용하고 절차를 생략하는 법을 배웠다. 일반인에게 미칠 결과는 무시한 채 불법으로 복제되거나 부패했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부과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몇 년 전 허난 성의 벽돌 가마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어린 아이들이 경찰과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납치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배를 곯거나 때로는 생매장되기도 한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근이 아직까지 중국에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광범위하게 드리우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권력과 고립이 고위층의 과오를 설명한다면 중국을 사로잡은 집단적 광기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당내 고위층 인사들을 겨냥하여 무자비한 숙청이 단행되었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농촌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관료들이 의욕적이고 비양심적인 인사들로 대체되었으며 새로 대체된 인사들은 베이징에서 불어오는 급진적인 바람에 편승하고자 했다. 그들 대다수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주석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의 사형 집행인이 되고자 했다.

반면에 거대 인민공사에 소속된 농부들은 일해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예컨대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었고 기껏 생산한 양곡은 일반적으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수매되었다. 그들의 가축이나 농기구, 가정용품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 살던 집이 징발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지역 관료들은 계획을 달성하는 것으로 모자라 초과 달성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서 노동자를 무자비한 정치 운동에 연달아 투입해야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과 관리들이 하나같이 너무 잔인해져서 강제의 범위와 수준이 계속 확대되었고 결국에는 폭력에 탐닉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포박되었고, 폭행당했고, 발가벗겨졌고, 늪에 빠져 익사했고, 배설물을 뒤집어썼고, 지글지글 끓는 기구로 낙인이 찍혔고, 팔다리가 잘렸고, 생매장을 당했다.
이런 공포의 무기고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무기는 먹을 것이었다. 식량을 무기로 이용한 것이다. 너무 늙거나 쇠약하거나 아파서 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은 계획적으로 식당 이용이 금지되었고 굶어 죽었다. 레닌의 말대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식이었다.

중국인들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같은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벗어났다고 생각하는가?

마오쩌둥이 초래한 대참사로 희생된 수천만 명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도, 기념관도, 기념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를 은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현재의 지도자들도 마오쩌둥이 설립한 정권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떤가?
우리는 희생자의 대부분이 농민이었음에도 대약진 운동 당시에 굶주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호구 제도의 영향으로 오늘날까지도 농민들이 이류 시민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오늘날까지도 농민들은 발언권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대학살과 대기근의 트라우마를 기억하도록 응원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
그럼에도 기근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나의 동료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들은 일단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기억력을 가진 통렬한 달변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무덤까지 가져간다. 나로서는 기억과 트라우마의 본질에 대해 〈사형 집행인은 언제나 두 번 죽인다. 두 번째는 침묵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한 엘리 위젤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에반 오스노스, 고기탁 옮김, 『뉴요커』, 2010.12.

인민 3부작 • 1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
1945~1957
THE TRAGEDY OF LIBERATION
A History of the Chinese Revolution 1945-1957

Culture·Art·Literary Theory·Essay

문화·예술·문학 이론·에세이

61
Books

도스토옙스키의 철도, 칼, 그림

석영중 | 2023년 | 416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eBook**

수십 년간 도스토옙스키를 파고들었으며 러시아 문학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온 석영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백치』를 해설한다.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소설로도 꼽히는 『백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쓰였고, 작가가 특별히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후기 대작 중 가장 서정적이고도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이 책은 『백치』를 어려우면서도 감동적으로 만드는 요소이자 도스토옙스키 전 작품의 핵심 인자인 〈이미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백치』의 중심 이미지로는 철도, 칼, 그림을 제시하며 소설의 구조와 당대 러시아의 사회상, 작가의 전기적 궤적을 총체적으로 풀어내는데, 곳곳에서 연구자의 방대한 지식과 끝없는 애정이 맞물려 지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

최정화 | 2022년 | A5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에코 페미니스트 소설가 최정화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기. 자신의 도시 생활을 돌아보며 〈버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실천기를 담았다. 다양한 독서에서 갈무리한 문장들을 아포리즘 삼아 읽는 재미를 더하고 일상적 눈높이의 실천 방식을 제시한다. 저자는 무수한 강박과 실패, 도전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간다. 쓰레기를 자연으로 되돌리려다가 무단 투기꾼이 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시도하다가 들끓는 구더기와 마주하기도 한다.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고 선언했다가 심각한 금단 증상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비건이 어렵다면 채식주의 리얼리티〉, 〈제로에 앞서 영쩜일 웨이스트〉라는 지속 가능한 원칙을 세워 나간다.

바로크 최고의 시인 루이스 데 공고라

안영옥 | 2022년 | 248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바로크 문학의 대표 시인 루이스 데 공고라를 단독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서. 세르반테스와 보르헤스를 비롯해 수많은 문인에게 영감을 줬으며, 예리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그를 『돈키호테』의 완역자 안영옥

교수가 소개한다. 시인의 일생과 시작법, 그를 둘러싼 세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대표작의 전문 번역과 상세한 해설을 한데 모은 이 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공고라의 매력을 선명히 전달한다.

트라우마 클리너

세라 크래스너스타인 | 김희정 옮김 | 2022년 | 464면 | A5변형 연장정 | 23,000원 **eBook**

살인, 자살, 화재, 홍수, 약물 중독, 학대……. 재앙이 휩쓸고 간 자리를 치우는 특수 청소 일은 뭔가 음울하고 괴짜 취향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직업만큼이나 전문성을 요한다. 이 책은 특수 청소 회사를 운영하는 샌드라 팽커스트의 삶과 내면을 다룬 에세이다. 작가는 4년 동안 샌드라를 따라 2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고 취재했다. 이 책은 감추고 싶은 내면의 취약성,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 진정한 유대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 2018년 빅토리아 문학상 수상
-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출판산업상 〈올해의 일반 논픽션 상〉 수상
- 2018년 도비 문학상 수상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4

석영중 | 2021년 | 400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eBook**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면서 현대 과학 발전의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를 토대로 사회를 진단하고 예견했던 도스토옙스키. 〈종교〉와 〈과학〉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핵심 코드였다. 문학과 신학, 문학과 과학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저자의 연구는 다학제적 연구의 지평을 풍성하게 확장하며 도스토옙스키 문학 세계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낸다.

도스토옙스키의 명장면 200

2

석영중 | 2021년 | 304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eBook**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걸작들에서 200개의 장면들을 추려 내어 각 장면마다 저자의 해설을 덧붙인 책.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등 4대 장편을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들』, 『죽음의 집의 기록』, 『지하로부터의 수기』 등 도스토옙스키의 대표 작품들을 망라하여 총 200개의 명장면과 명대사들을 엄선하여 추려냈다.

명작을 읽는 기술

2

박경서 | 2021년 | 432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 audioBook**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카뮈의 『이방인』….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만한 문학 작품들,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토록 유명한 걸까? 이 책은 문학의 의미와 명작의 재미를 모두 담은 간편하고 탄탄한 문학 읽기 안내서다. 〈독자는 고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저자는 〈명작〉이라 일컫는 문학 작품들 속에 녹아 있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짚어 내며 〈명작〉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해 낸다.

이 한 줄의 가사

4

이주엽 | 2020년 | 272면 | B6변형 견장정 | 14,000원 **eBook**

작사가 이주엽의 첫 책이자, 한국에서 거의 처음 시도되는 가사 비평이다. 정미조, 최백호, 말로의 작사가이자, 20년 가까이 음반 기획자로서 일해 온 저자의 안목이 문장마다 빛을 발한다. 「행진」(들국화), 「가시나무」(시인과 촌장), 「선운사」(송창식) 등 우리 대중음악사를 빛낸 41개의 명곡을 골라, 해당 노랫말의 가요사적 의미와 감성의 계보, 시대적 배경까지 섬세하게 읽어 냈다.

하퍼 리의 삶과 문학

2

김욱동 | 2020년 | 360면 | B6 연장정 | 14,800원 **eBook**

한 작품으로 대성공을 거둔 소설가 하퍼 리. 그의 소설가적 면모와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 삶 속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 떠나는 문학 여행. 하퍼 리의 인생과 그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여정이 담겨 있다.

매핑 도스토옙스키

6

석영중 | 2019년 | 440면 | A5신 연장정 | 16,800원 **eBook**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세계 곳곳에 남긴 흔적들을 두 발로 직접 탐방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삶과 작품 세계을 친근하게 해설하여 집필한 교양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 유럽 곳곳의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대문호가 실제로 머물렀던 지역과 장소들을 직접 보고 거닐면서 그의 정신적인 궤적을 따라가는 이 책은, 전문 연구자의 생생한 〈도스토옙스키 기행〉의 기록이자 그의 문학 세계로 흥미롭게 독자들을 초대하는 충실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으로서의 음악가

7

김목인 | 2018년 | 264면 | B6 견장정 | 15,000원 **eBook | audioBook**

김목인은 10년 넘게 〈김목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활동해 온 한 싱어송라이터다. 〈음악가에게 웬 간판?〉 하며 의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스스로를 〈작은 가게〉에 비유한다. 아는 손님들이 주로 찾아오는 가게, 편하게 물건을 둘러보고 사주면 고맙지만 그냥 가도 아쉽지는 않다. 그에게 음악은 큰돈이 되진 않지만, 자신의 꿈과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한 밑바탕이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거나 직업 음악가의 삶이 궁금한 독자들은, 현실 음악가의 일상을 엿보는 특별한 재미를 맛보게 될 것이다.

● 2019 책따세 겨울방학 추천 도서

스타워즈로 본 세상

2

캐스 R. 선스타인 | 장호연 옮김 | 2017년 | 320쪽 | B6 견장정 | 15,000원 **eBook**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자 저명한 헌법학자인 캐스 R. 선스타인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가 만났다. 선스타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스타워즈를 바라본다. 하나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위대한 영화로서 스타워즈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스타워즈다. 스타워즈가 인생에 대해 뭔가

61
Books

교훈을 줄까? 선스타인은 그렇다고 본다. 더없이 소중한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가족이나 연인의 애착에 대해서도. 우정에 대해서도. 반란과 혁명, 인권과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심지어 공화국과 헌법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뛰어난 학자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 그는 마침내 스타워즈의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낸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2

전병근 | 2018년 | 600면| B6 연장정 | 18,000원 **eBook**

〈우리도 이제 뭘 먹을 건지만 묻고 답할 게 아니라 마음속 허기와 정신의 취향에 대해서도 편히 이야기해 봅시다.〉 톡톡 튀는 콘텐츠로 독서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북클럽 오리진의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를 책으로 묶었다. 소설가 김연수부터 음악가 이기용까지 총 39인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소설가 장강명, 배우 안성기 같은 친숙한 이름도 있지만, 우리 사회 한켠에서 나름의 커리어와 일상을 가꾸어 가는 무명 창작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사람들 사이사이에, 일과 삶의 영역 곳곳에 책이 숨구멍처럼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

에릭 부스 | 오수원 옮김 | 2017년 | 520면 | A5 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클래식 음악 교육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 줄리아드 음대, 링컨센터 등에서 30여 년 동안 음악 전공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 활동을 펼쳐 온 에릭 부스는 이 책에서 음악 교육이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한다. 그가 제시하는 음악 교육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참여 능력을 길러 주는 작업이다. 특정 작품에 대한 지식 전달이나 연주 기법 연마보다는 사람들을 음악 창작과 연주 과정에 참여시켜서,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개인적 의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내적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목표다.

돈키호테를 읽다 (석탑 교양 총서 2)

3

안영옥 | 2016년 | 360면 | A5 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완역본 『돈키호테』의 번역가이자 연구자가 쓴 가장 종합적인 해설서이다. 2014년에 출간된 완역본 『돈키호테』(전2권)는 현지답사와 충실한 번역 참신한 문장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은 『돈키호테』 완역 이후 2년 만에 내놓은 저술로, 번역하면서 달은 840개의 각주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돈키호테』의 숨은 메시지를 모두 담았다. 세르반테스의 삶과 시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패러디와 암시 속에 가려진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미학까지 깊숙이 파고든다.

글래머의 힘

2

버지니아 포스트렐 | 이순희 옮김 | 2015년 | 480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사회과학 전반과 패션을 활동 무대로 하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강연자인 버지니아 포스트렐은 글래머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포스트렐에 따르면 글래머란 시각으로 설득하는 수사학, 즉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글래머는 관객에게 말을 건다. 그로 하여금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상상하고 열망하도록 나아가 실제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마법과도 같은 장치이자 기술이다.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2

파블로 엘게라 | 고기탁 옮김 | 2013년 | 144면 | B6 견장정 | 11,000원

사회 참여 예술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필독서. 지역 사회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것과 사회적 예술 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저자 파블로 엘게라의 실증적이고 광범위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사회 참여 예술의 복잡성과 난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과 이 부정형적인 예술 행위의 핵심을 포착해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충실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안정효의 오역 사전

10

안정효 | 2013년 | 832면 | A5 변형 견장정 | 33,000원

번역의 대가 안정효가 선보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오역 사전. 10년의 작업 기간, 3,000여 편의 영화 자료 수집, 2,000여 개의 오역 사례 수록이라는 수치가 보여 주듯, 이 한 권의 책에는 번역 대가의 40년 가까운 경험이 집약되어 있다. 저자 안정효는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이자, 수많은 해외 명작들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이며, 〈헐리우드 키드〉로 유명한 영화광이다. 이런 그가 오랜 시간 갈고닦아 온 문장론, 번역 노하우, 그리고 영화 지식이 이 한 권의 책에 집대성되었다.

61
Books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박우수 | 2012년 | 402면 | A5 견장정 | 24,000원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대문호,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공연되고 연구되는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을 국내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로 꼽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우수 교수가 해부한다. 희·비극 위주로 서술되었던 기존 셰익스피어 연구서와는 달리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에서는 오직 셰익스피어가 쓴 열 편의 역사극을 통해 잉글랜드 4백 년의 연대기와 그 시대의 인물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현상들을 들여다보며 독자를 다양성과 아이러니의 세계로 이끈다.

● 2013년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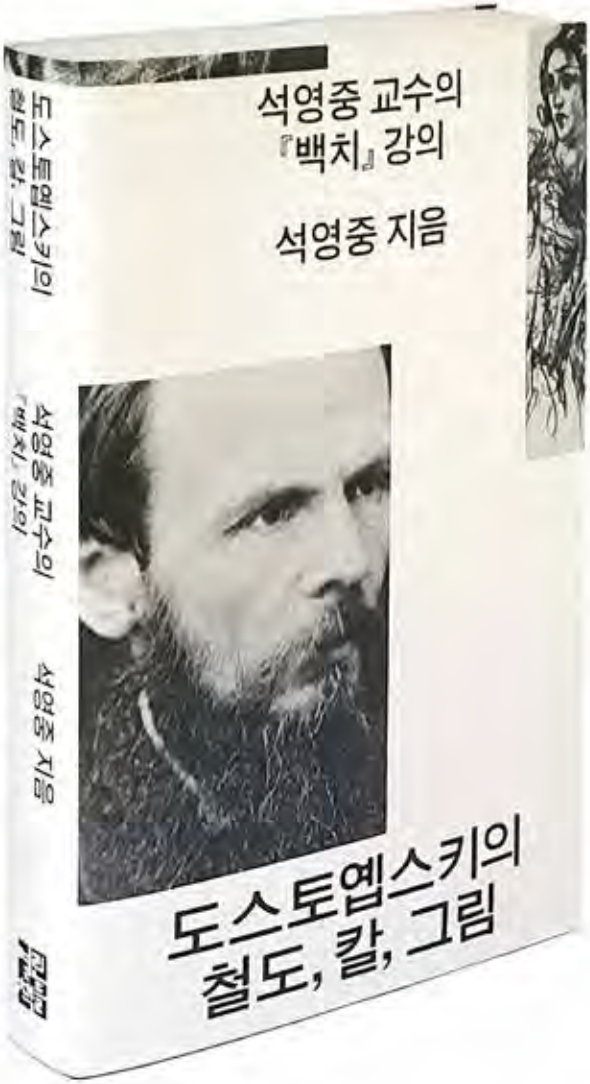
예술의 사회 경제사

3

이미혜 | 2012년 | 53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32,000원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예술을 독립적, 자율적 실체인 양 다루어 왔다면 이 책은 예술 현상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사회 경제적 접근은 예술을 단지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요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 2012년 세종도서 우수 학술 도서



Culture·Art·Literary Theory·Essay

르네상스 예술에서 괴테를 읽다

김선형 | 2009년 | 288면 | 규격외 연장정 | 13,000원

국내 괴테 학회와 헤세 학회를 통해 괴테의 문학 작품과 고대 · 르네상스 예술과의 관련성을 꾸준히 연구, 발표해 온 저자의 결과물을 집대성했다.

● 2009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문학적 기억의 탄생

4

변학수 | 2008년 | 264면 | A5신 견장정 | 15,000원

슬픔, 기쁨, 분노, 환희, 열정 등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정서의 근본을 이룬다. 기억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어떤 기억들은 마치 공터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방치된다. 작가들의 일은 이런 기억들을 세상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복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문학적 기억의 탄생〉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오늘날 현대 문화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기억〉을 논의의 핵으로 놓고, 기억이 문학적 글쓰기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 2008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61
Books

한국의 맹자, 언론가 이율곡

임철순 | 2020년 | 280면 | A5변형 견장정 | 20,000원 **eBook | audioBook**

짧았지만 치열했던 이율곡의 삶을 그가 남긴 상소와 대면 직언, 저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등을 통해 살핀다. 그의 어록과 사후 문인들의 다양한 평가, 주요 저술에 대한 소개 등도 싣고 있어, 독자들은 율곡이라는 인물의 특징과 학문적 업적 등도 두루 살필 수 있다. 특히, 임금을 바른길로 이끌어 〈무너져 가는 집〉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던 율곡의 치열한 삶은 정론과 직언이 희미해지는 우리 정치와 사회 현실에도 적지 않은 울림을 줄 것이다.

손들지 않는 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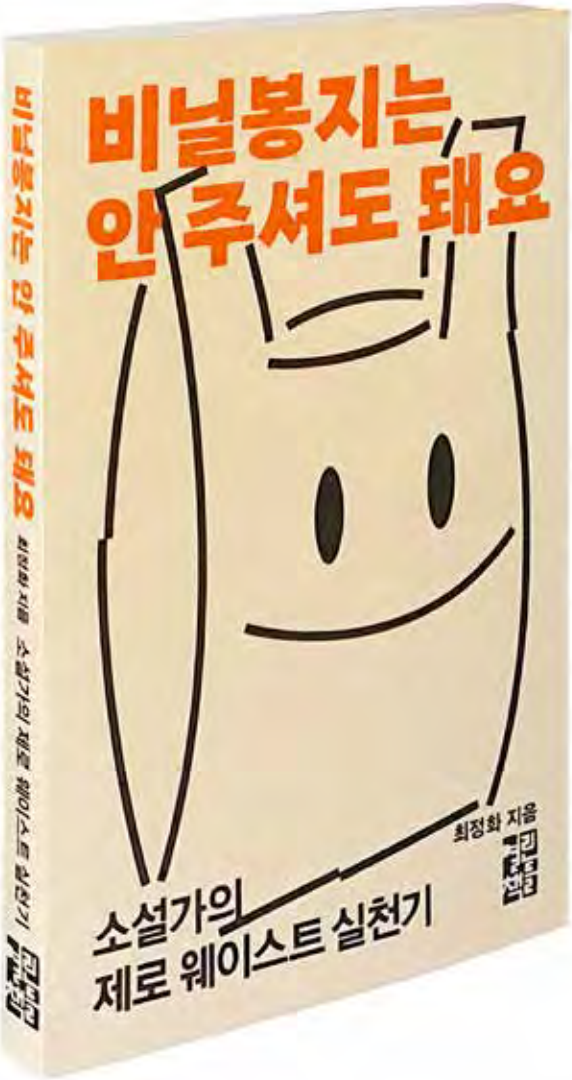
임철순 | 2019년 | 376면 | A5변형 연장정 | 15,000원 **eBook**

일상을 비트는 뜨끔한 유머, 솔직하다 못해 직설적인 글쓰기로 정평이 난 언론인 임철순의 세 번째 에세이집. 우리말, 우리 언론, 소시민적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크고 작은 단상들을 맛깔나게 담았다. 초등학생 연애부터 지하철 독서인,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 부고 기사에 난 어머니들 이름까지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체험들이 글감이 되고, 글맛을 더한다. 견습 기자 시절을 함께했던 김훈 작가가 추천의 글을 썼다.

효자손으로도 때리지 말라

임철순 | 2014년 | 352면 | B6 연장정 | 12,800원

40년 기자 생활로 다져진 내공, 한국일보 논설고문 임철순이 평범한 일상에서 〈위트 있는 단상들〉만 골라 엮은 유머 에세이집. 가볍게 던진 100편의 유머 에세이 속에 1년여의 일상과 가볍지 않은 세태 풍자가 담겼다. 멋쩍은 실수담에서부터 세대 간 소통의 문제까지, 주체 못할 호기심으로 건져 올린 이야기들은 다양하고



Culture·Art·Literary Theory·Essay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생각보다 더 유쾌하고, 조금은 더 만만해 보이는 세상. 넘어져서 더 〈인간다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노래도 늙는구나 3

임철순 | 2011년 | 472면 | B6 견장정 | 14,000원

1974년 한국일보사에 입사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실장, 편집국장 등을 두루 거친 베테랑 신문 기자 임철순. 37년여간의 기자 생활이 그의 눈과 손을 매섭게 갈고 닦아 놓았을 법하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유쾌하고, 낭만적이며, 심지어 엉뚱하기까지 하다. 임철순 기자는 평범한 일상을 감성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 잔잔한 여운과 넉넉한 여유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십분 공감 가는 이야기를 전해 준다.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6

피에르 그리말 | 최애리 외 옮김 | 2003년 | 864면 | A5 변형 견장정

이 책은 기존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가운데 〈가장 엄밀하고 방대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역작이다. 총 1,800여 개의 항목과 200자 원고지 7,000매가 넘는 분량부터 독자를 압도한다. 1951년 첫 출간된 이 책은 1996년에 13판까지 나왔고, 한국어판은 13판을 저본으로 번역되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계보도도 40개나 실려 있다.

61
Books

불멸의 파우스트

안진태 | 2020년 | 1000면 | A5신 견장정 | 45,000원

노르웨이의 나무

라르스 뮈팅 | 노승영 옮김 | 2017년 | 280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괴테 문학 강의

안진태 | 2015년 | 592면 | A5신 견장정 | 28,000원

엄마 말대로 하면 돼

알렉스 컨스 | 강무성 옮김 | 2014년 | 192면 | 크라운판 연장정 | 절판

돌을 취하여 보배를 짓다

최규명 | 2014년 | 300면 | 규격외 견장정 | 45,000원

언어와 정신 3

허발 | 2013년 | 568면 | A5신 견장정 | 27,000원

실패가 우리를 가르친다 2

박설호 | 2013년 | 352면 | A5 견장정 | 절판

● 2014년 세종도서 우수 학술 도서

Culture·Art·Literary Theory·Essay

100.art.kr
아르코 미술관 | 2012년 | 624면 | A4 연장정

문화 타임라인
김종호 | 2012년 | 312면 | A5신 연장정 | 13,000원

세 개의 키워드로 본 일본인
스와 하루오 | 이명옥 옮김 | 2012년 | 216면 | B6 연장정 | 10,800원

악평
2

빌 헨더슨, 앙드레 버나드 편집 | 최재봉 옮김 | 2011년 | 264면 | B6 연장정 | 절판

도스또예프스끼가 말하지 않은 것들
시미즈 마사시 | 이은주 옮김 | 2011년 | 344면 | B6 변형 견장정 | 절판

도스또예프스끼와 여성
3

마르크 슬로님 | 이종진 옮김 | 2011년 | 344면 | B6 변형 견장정 | 절판

● 2011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빠빠라기
2

투이아비 | 에리히 쇼이어만 엮음 | 강무성 옮김 | 2009년 | 208면 | B6 연장정 | 8,800원

만리장성과 책들
2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 정경원 옮김 | 2008년 | 372면 | B6 견장정 | 절판

● 1956년 아르헨티나 국민문학상 수상

일본 문학과 몸
요로 다케시 | 신유미 옮김 | 2005년 | 200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김운찬 | 2005년 | 240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카프카의 프라하
클라우스 바겐바흐 | 김인순 옮김 | 2004년 | 152면 | A5 변형 견장정

카사노바의 베네치아
로타르 뮐러 | 이용숙 옮김 | 2004년 | 168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독일 문학은 없다
하인츠 슐라퍼 | 변학수 옮김 | 2004년 | 224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폴 오스터 인터뷰와 작품 세계
이노 도모유키, 아키모토 다카후미 엮음 | 김경원 옮김 | 2004년 | 304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문화로 읽는 한국 사회 3
김종호 | 2003년 | 312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에코 기호학 비판
박상진 | 2003년 | 272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머리 사냥과 문화 인류학
김용환 | 2002년 | 296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안네 슈네펜의 한국 일기
안네 슈네펜 | 권혁준 옮김 | 2002년 | 304면 | A5 변형 연장정 | 절판

메트로폴리스 2
김원갑 | 2002년 | 632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축제 만들기
김승현 | 2000년 | 19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현대 아랍 문학 강의
문애희 | 1998년 | 43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러시아 고대 문학 선집 4
조주관 편역 | 1995년 | 전2권 | 각 320, 27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러시아 시 강의
조주관 편저 | 1993년 | 68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독일 문학과 사상
안진태 | 2010년 | 72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토마스 만 문학론
안진태 | 2009년 | 640면 | A5신 견장정 |절판

● 2009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카프카 문학론
안진태 | 2007년 | 65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독일 담시론 2
안진태 | 2003년 | 376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 2004년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 도서

61
Books

파우스트의 여성적 본질 3
안진태 | 1999년 | 60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베르테르의 영혼과 자연 2
안진태 | 1996년 | 24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소설의 발생
이언 와트 | 전철민 옮김 | 1988년 | 40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비평과 이데올로기
테리 이글튼 | 윤희기 옮김 | 1987년 | 28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Interview

김목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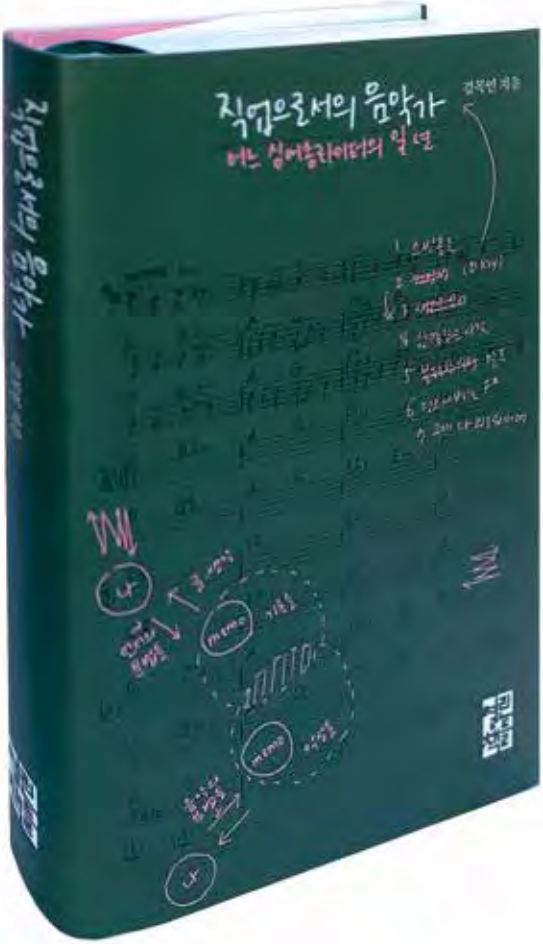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제목을 보고 하루키가 떠올랐어요. 『직업으로서의 음악가』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 제목은 출판계약서를 쓸 때 작성한 가제였어요. 이후 책 작업이 마무리된 뒤, 〈작은 가게로서의 음악가〉가 제목 후보로 올랐는데 편집자가 〈직업〉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읽었거든요.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편집자의 짐작을 믿고 판단을 맡겼죠.(웃음)

싱어송라이터에게 이렇게 잡무가 많은지 몰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PPT를 만드는 모습은 아직도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웃음), 꼭 처리해야만 하는 수많은 일들 중 가장 어렵거나 적성에 안 맞는 작업이 뭔가요?

공연 세트리스트를 정하는 거요. 어떤 음악가들에게는 즐거운 일일 텐데 제게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공연의 긴장을 미리 느끼고, 아직 가보지 않은 현장을 상상해야 하는 게 편하지 않게 느껴지나 봐요. 공연에서 부를 노래를 7곡 정도 뽑으면 되는 일이라 사실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잘 골라야 한다는 부담이 커요.
또 음악가들은 외향적일 거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일의 구조 자체가 외부인과 많이 만나고, 공연장에 서야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향적인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런 편이라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 어떤 부탁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들이 힘든 일 중 하나였어요. 특히 회사와 함께 일하지 않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음악가
어느 실버클리어리의 일 년
김목인 지음

출퇴근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예술 계통의 직업에 대한 흔한 편견이 대중에게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한가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연이 없을 땐 뭘 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통은 작업한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작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선배가 전화해서 뭐 하냐고 묻기에 〈작업실에서 녹음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후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는데 그때도 작업 중이었거든요. 〈작업하고 있다〉고 했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일 작업만 할 수 있냐면서.(웃음) 작업과 연관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건 이 직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작은 가게로서의 음악가〉 파트를 인상 깊게 읽었어요.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을 구체적인 가게에 빗대어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창작자는 자신의 자아를 재료삼아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일이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순수하게 창작만 하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비즈니스를 해야 하니까 양쪽이 조화롭지 못해 생기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아를 굳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날에도, 공연이 있으면 무대에 서야 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나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가게〉라고 생각하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서 자꾸 서운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회사는 내 가게와 거래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필요한 일들을 주고받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직업으로서의 음악가』를 읽은 동료들의 평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직접 만날 일이 많진 않았지만, SNS에 평을 올려준 분들이 있어요. 장기하 씨나 윤덕원 씨는 음악가의 삶을 잘 정리해줬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매니저와 프로듀서들도 자신이 일하며 느꼈던 것들을 잘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싱어송라이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말을 많이 해줘서 고마웠어요. 협업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쓸 때, 제가 그들의 직업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쓴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게 읽어 준 게 특히 보람 있었어요. 한 친구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자기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SNS 제목이 〈음악의 회복을 찾아가는 기록〉이에요. 음악의 회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좀 진지했던 시절에 쓴 문구예요.(웃음) 예전에 속해 있었던 캐비넷 싱얼롱즈 멤버들과 음악 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때 나온 말인데, 보통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려는 뮤지션들이 〈음악의 죽음〉에 대해 선언을 하잖아요. 기존의 것은 다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회복〉을 생각했어요. 관성적으로 일하며 잊어버리는 것을 일깨운다는 의미죠.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을 일로 하느라고 처음에 가졌던 즐거움을 잊고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음악가들끼리 모이면 음악 얘기 안 하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했어?〉 이런 거 묻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웃음) 그땐 그 모습이 안 좋아보여서 〈음악의 회복을 찾아가는 기록〉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저도 그렇게 됐어요. 물론 마음 한쪽에는 음악은 어떤 것이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죠. 제가 이 책에 쓰지 않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노래를 만드는 일이 제게 어떤 변화와 기쁨을 주었는지에 대해서요.

성소영, 『채널예스』, 2018.12.13.

Cinema
영화

채널을 돌리다가
곽재식 | 2022 | A5변형 연장정 | 16,000원 **eBook**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SF가 각광받고 있다. SF가 장르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렌즈로 작동하는 시대에 이 책은 SF를 소개하는 충실한 가이드이자 창작 입문서로도 읽힌다. SF 영화에 나온 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역사상 가장 큰 괴물을 찾아본다든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SF 영화 속에서 글쓰기의 원리를 되짚어 본다. SF와 판타지를 다루는 미국의 TV 시리즈 〈환상 특급〉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반전 만드는 법을 알려 주기도 한다.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
12

제프리 노웰-스미스 책임편집 | 김경식, 이순호, 전찬일 옮김 | 2005년 | 미메시스
1,000면 | B5 견장정 | 59,000원 | 보급판 29,500원

집행자
2

김영옥 | 2009년 | 304면 | B6 연장정 | 절판

이중간첩
2

구본한, 심혜원 | 2003년 | 456면 | B6 견장정 | 절판

나는 어떻게 할리우드에서 백 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 푼도 잃지 않았는가
로저 코먼 | 김경식 옮김 | 2000년 | 328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영화의 형식과 기호
2

유리 로뜨만 외 | 오종우 편역 | 1995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한국 영화 씻김
삼성 영상사업단 편 | 이효인, 이정하 엮음 | 1995년 | 29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한국의 영화 감독 13인
이효인 편저 | 1994년 | 42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영화학, 어떻게 할 것인가
오몽, 베르가라, 마리, 베르네 공저 | 강한섭 옮김 | 1992년 | 39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이미지의 모험
전양준 편역 | 1990년 | 40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9
Books
Cinema

Comics
만화

도박 중독자의 가족
3
이하진 | 2022년 | 488면 | A5변형 연장정 | 18,800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시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중독의 시간을 살아온 여성의 분투기. 대투자의 시대, 그간 간과되어 온 주식 중독의 사례를 생생한 경험담으로 그려 내며 뜨거운 공감대를 형성한 웹툰이다. 이 책은 주식, 코인, 알코올, 마약, 게임, SNS 중독으로 휩쓸리는 시대에 대한 가장 시의적절한 단서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자아를 상실하는 과정을 그린 씁쓸한 일화이기도 하다.

6
Books
Comics

호텔 캘리포니아
김진태 | 2004년 | 152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거대한 알
가브리엘 뱅상 | 2003년 | 48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장난감 코끼리 몽크
이우일 | 2001년 | 72면 | B5 변형 견장정(CD포함) | 절판

만화 개미
16
베르나르 베르베르 | 파트리스 셰르 그림 | 이세욱 옮김 | 2007년 | 104면 | B6 연장정 | 절판

나의 지중해식 인사
2
이강훈 | 2007년 | 282면 | B6 연장정 | 절판

행복한 페인의 하루
베르너 엔케 | 이영희 옮김 | 2004년 | 296면 | B6 연장정 | 절판

Publishing·Editing·Translation Studies

출판·편집·번역학

15
Books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22

27

편집부 편 | 2022년 | 464면 | A5변형 연장정 | 8,800원

2008년 첫 출간 이후 편집이 필요한 모든 현장의 필수 매뉴얼로 자리 잡은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의 열네 번째 증보판. 도서 편집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실은 매뉴얼로, 2022년판에는 차별적 표기 순화 용례와 공유 저작물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담았다.

편집가가 하는 일

2

피터 지나 | 박중서 옮김 | 2020년 | 552면 | A5변형 연장정 | 22,800원 **eBook**

미국 출판계 유수의 편집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터득한 자신만의 통찰력과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를 풀어놓은 26개의 기고문. 출판 전반에 걸쳐 관통되는 이야기부터 각 장르별, 역할별로 편집가가 하는 일과 방법, 마음가짐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문적이고도 친근하게 담겨 있다.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2

홍지웅 | 2017년 | 576면 | A5신변형 연장정 | 12,500원 | 미메시스

다양한 매체에 홍지웅 대표가 직접 쓴 기고문을 비롯해 시인과 소설가 등 여러 저자가 열린책들을 지켜보고 글로 풀어낸 칼럼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간 기자들과 솔직하게 나눈 인터뷰 등을 엮었다.

● 2018년 한국출판평론상 대상 수상

통의동에서 책을 짓다

2

홍지웅 | 2009년 | 848면 | B5변형 연장정 | 19,500원

열린책들 홍지웅 대표의 2004년 일기. 책의 기획, 디자인, 편집, 마케팅 등의 실무 노하우 및 열린책들에서 했던 새로운 시도들, 출판, 건축, 예술에 대한 생각들,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와 소소한 일상 등 그가 만나고 만들고 짓고 다니고 쓰고 찍은 2004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왜 책을 만드는가?

맥스위니스 편집부 | 박중서, 곽재은 옮김 | 2014년 | 40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6,800원 | 미메시스

이 책은 『맥스위니스』 제1호부터 제31호까지 당시 각 호의 간행물과 단행본을 만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맛보았는지에 대해 직접 들려준다.

Publishing·Editing·Translation Studies

저술 출판 독서의 사회사

존 맥스웰 해밀턴 | 승영조 옮김 | 2012년 | 576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책의 역사에서부터 책과 관련된 모든 일화들을 담은 백과사전. 문화 전달의 매개로서의 출판, 즉 책의 집필, 출판, 판매, 수집, 보관, 독서에 대한 진실을 아주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다.

번역 논쟁

정혜용 | 2012년 | 344면 | B6 연장정 | 절판

좌충우돌 펭귄의 북 디자인 이야기

폴 버클리 엮음 | 박중서 옮김 | 2012년 | 376면 | B5변형 연장정 | 절판

사라진 도서관

루치아노 칸포라 | 김효정 옮김 | 2007년 | 20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번역의 윤리

로렌스 베누티 | 임호경 옮김 | 2006년 | 36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출판 프로젝트 X

나가오카 요시유키 | 김성민 옮김 | 2006년 | 264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그대로 두기

다이애나 애실 | 이은선 옮김 | 2006년 | 224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움베르토 에코를 둘러싼 번역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 외 | 송태욱 옮김 | 2005년 | 224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번역과 번역가들

쓰지 유미 | 송태욱 옮김 | 2005년 | 248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키스 스미스의 북아트

키스 스미스 | 김나래 옮김 | 2004년 | 416면 | B5변형 견장정 | 절판

15
Books

Publishing · Editing · Translation Studies

Mathematics·Natural Sciences

수학·자연 과학

19
Books

생명의 물리학

찰스 S. 코켈 | 노승영 옮김 | 2021년 | 488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생명은 오직 〈우연〉에 의해 진화하지 않았다. 생물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 법칙의 지배 아래 탄생하고 번성한다. 이 책은 물리 법칙이 생명 현상에 속속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우주 보편적인 맥락에서 생명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 우주생물학자인 저자는 물리 법칙과 진화를 연결함으로써 〈생명이란 우주에서 증식하고 진화하는 물질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보여 준다.

벌꿀 공장

위르겐 타우츠, 디드리히 슈텐 | 유영미 옮김 | 2021년 | 320면 | A5변형 연장정 | 16,000원

세계적인 꿀벌 생물학자 위르겐 타우츠와 25년 째 벌을 치고 있는 양봉가 디드리히 슈텐이 들려주는 꿀벌 생태 관찰기다.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달콤한 영양 식품, 꿀. 꿀벌은 어떻게 꿀을 생산해 내는 걸까? 두 저자는 그 과정을 〈꿀벌 공장〉에 비유했다. 균일한 육각형 벌집을 짓는 건축 능력부터 난방벌, 월동벌, 유모벌, 수집벌, 경비벌, 정찰벌 등 역할 분담, 그리고 추운 겨울 서로 간에 식량을 무조건 내주는 걸 기본으로 하는 공동생활까지, 꿀벌이 꿀을 생산하는 과정은 마치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체계적이다.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고 놀라운 꿀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 보자.

세계를 창조하는 뇌 뇌를 창조하는 세계

디크 스왑 | 전대호 옮김 | 2021년 | 744면 | 크라운변형 견장정 | 45,000원 eBook

창조성이 우리 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뇌와 환경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예술가들의 창조력과 정신의학적 질병과의 관계, 미술과 음악의 치유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는 물론, 동성애와 뇌의 관계, 자유의지, 안락사의 허용 범위 등 논쟁적인 철학적, 사회적 이슈까지 각종 분야를 망라하며 〈뇌의 창조성〉이라는 키워드로 인간과 사회를 통찰한다. 우리 뇌는 어떤 세계를 창조해 왔으며, 우리는 어떤 세계를 창조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든 〈창조적인 뇌〉에 관한 이야기가 172개의 도판, 153개의 명언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논리의 기술

2

유지니아 쳉 | 김성훈 옮김 | 2020년 | 464면 | A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왜 체중이 자꾸 느는지, 시험 결과가 나쁘면 왜 모두 학생의 탓을 하는지, 두 사람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집안의 설거지 논쟁은 왜 끝이 나지 않는지, 왜 미국 경찰이 흑인을 대상으로 잔인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지, 성차별을 두고 왜 서로 싸우는지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수학적 사고 방식을 펼친다. 유지니아 쳉은 수학은 오직 수학책에서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책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사고의 방식 하나하나에 수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쾌하게 보여 준다.

무한을 넘어서

4

유지니아 쳉 | 김성훈 옮김 | 2018년 | 384면 | A5신 견장정 | 18,000원 eBook

〈무한〉이라는 신비한 개념을 추적하며, 수학의 추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풍경들을 담아낸 매력적인 대중서다. 〈무한〉은 일반인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개념이다. 무언가 영원히 커지고, 영원히 작아지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직관을 비껴간다. 도대체 〈영원〉이란 개념을 어떻게 수학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무한〉을 과연 수(數)로 간주할 수 있는가? 〈무한〉이 수라면 과연 어떤 수인가? 많은 수학자들이 〈무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속절없이 그 매력에 빠져든 이유다.

침팬지와의 대화

로저 파우츠, 스티븐 투켈 밀스 | 허진 옮김 | 2017년 | 506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동물 권익 운동가인 로저 파우츠 박사의 과학 에세이다.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어 현재까지도 침팬지 언어 연구의 고전으로 남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인간은 여전히 고유한 존재지만 그것은 다른 종 요컨대 침팬지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침팬지들은 인간과 동물 간의 간극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지구를 함께 쓰고 있는 모든 놀라운 동물들을 새삼 존중하게 만든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4

메리 로치 | 이한음 옮김 | 2017년 | 352면 | A5신 연장정 | 16,000원 eBook

〈미국에서 가장 유쾌한 과학 저술가〉로 평가받는 메리 로치의 최신작이다. 이번에 그녀가 파헤칠 주제는 〈전쟁의 과학〉이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피와 신음이 가득한 아수라장이 그 무대다. 전쟁의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핵폭탄이나 스텔스 전투기같은 최첨단 무기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즉, 사람을 죽이는 데 골몰하는 비정한 과학을 생각한다. 그러나 로치의 관심은 정반대다. 이 책에는 사실상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드는 전쟁과 무기는 차라리 로치가 혐오하는 것이다. 그녀는 죽이기보다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총알과 폭탄으로부터, 그 밖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전쟁터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들이다.

틀리지 않는 법

22

조던 엘렌버그 | 김명남 옮김 | 2016년 | 616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위스콘신 주립대 수학과 교수 조던 엘렌버그의 첫 수학 대중서이다. 특유의 유머, 대중적 글쓰기 감각, 촉망받는 수학자로서 전문성이 결합된 이 책은 2014년 출간 이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미국 수학회AMS가 매년 1권 선정하는 오일러 북 프라이즈 2016년 수상작으로서 〈수학자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수학 저술〉로도 자리매김했다. 루이스 캐럴과 마틴 가드너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학책〉의 영예로운 계보를 잇는다는 스티븐 핑커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미〉와 〈전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보기 드문 수작이다.

- 2014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 2016년 오일러 북 프라이즈
-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우수과학도서
- 2016년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우리는 우리 뇌다

4

디크 스왑 | 신순림 옮김 | 2015년 | 568면 | A5신 견장정 | 25,000원 eBook

이 책은 우리가 자궁 안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성인기를 거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뇌가 삶의 매 단계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뇌가 우리의 성격적 특성과 능력과 한계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뇌 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과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논쟁적이고 도발적으로 설명한다. 인구 1700만의 네덜란드에서 40만 부가 팔린 독창적 과학 에세이. 우리는 누구인가? 세계적인 뇌 과학자 디크 스왑의 답은 이렇다. 우리는 우리 뇌다. 뇌는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이다.

- 2015년 미래 창조 과학부 선정 우수 과학 도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3

캐서린 헤일스 | 허진 옮김 | 2013년 | 568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저자 캐서린 헤일스는 기술사와 문화사를 넘나들며 세 가지 주제, 즉 정보는 어떻게 신체를 잃었는가, 사이보그가 어떻게 문화적,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 담론에서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는 어떻게 해체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Mathematics · Natural Sciences

스포츠 유전자 2
데이비드 엡스타인 | 이한음 옮김 | 2015년 | 49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개성의 힘 2
마르쿠스 헹스트슐레거 | 권세훈 옮김 | 2012년 | 21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3분 아인슈타인
폴 파슨스 | 존 그리빈 서문 | 김명남 옮김 | 2012년 | 160면 | B5변형 견장정 | 절판

미의 기원 2
요제프 H. 라이히홀프 | 박종대 옮김 | 2012년 | 376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작은 우주, 아톰 2
아이작 아시모프 | 안준호 옮김 | 2011년 | 360면 | A5신 견장정 | 절판
● 2011년 교육 과학 기술부 인증 우수 과학 도서

수의 문화사 2
카를 메닝거 | 김량국 옮김 | 2005년 | 640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수와 신비주의 5
존 킹 | 김량국 옮김 | 2001년 | 392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사고 혁명 2
루디 러커 | 김량국 옮김 | 2001년 | 448면 | A5변형 견장정 | 절판

Interview

조던 엘렌버그 인터뷰

1971년 미국 메릴랜드 출신의 수학자다. 어릴 때부터 수학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고, 9세에 대학 과정을 시작했으며, 12세에 SAT 수학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세 차례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수상한 바 있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4년부터 위스콘신 주립 대학 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학자로서는 특이하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소설 작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메뚜기 왕The Grasshopper King』이라는 소설을 출간해 뉴욕 공립 도서관이 수여하는 2004 Young Lions Fiction Award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와이어드』, 『빌리버』, 『보스턴 글로브』 등에 기고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슬레이트』지에 〈수학을 해봐Do the Math〉라는 제목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들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칼럼을 싣고 있다. 첫 책 『틀리지 않는 법』으로 미국 수학회가 선정하는 오일러상을 받았다.

수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책, 조던 엘렌버그의 『틀리지 않는 법』

『틀리지 않는 법』에서 조던 엘렌버그는 언제 복권을 사면 좋을까, 왜 키 큰 부모에게서 키 작은 자식이 태어나는가, 자기 공명 영상MRI 기계에 들어간 물고기, 초과 성과를 내는 뮤추얼 펀드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그런데 그는 위스콘신 대학의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는 손으로 그린 그래프나 공식이 곁들여져 있다. 하지만 그는 문화적인 설명을 들려주고, 문학에서 자료를 인용한다. 엘렌버그는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의 객원 기자이기도 하다. 『틀리지 않는 법』은 지난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데뷔했다. 현재 책 홍보 투어에 나선 그와 이메일 인터뷰를 나눴다.

당신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연구하는 수학[비(非)아벨 이와사와 이론! 갈루아 표현!]은 『틀리지 않는 법』의 수학, 즉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개념들과는 전혀 딴판처럼 보입니다. 비유를 찾자면, 오페라 가수가 동요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할까요? 이른바 수포자들에게 수학을 설명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만일 비아벨 이와사와 이론에 대한 상업적 시장이란 게 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랐겠죠! 아무튼 동요를 가르치는 것과 썩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작곡가가 기본적인 음계와 화음을 가르치려 하는 것과 더 비슷하겠네요. 책에 소개한 개념들은(선형성, 기댓값, 상관관계, 형식주의) 결코 〈유치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애써서 겨우 만들어낸 심오한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일단 개발되고 표현된 뒤에는 꽤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개념들이기도 합니다.

책을 쓸 때 염두에 둔 이상적 독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초고를 읽어 준 독자가?

나는 글쓰기를 시작도 안 했던 시점부터 그걸 펭귄 출판사에 물어봤답니다. 이런 책을 누가 읽습니까? 내 맞은편에 놓일 독자는 어떤 사람이죠? 출판사는 정말로 기쁜 답을 주었는데, 뭐냐면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쓰려는 걸 쓰면 될 뿐, 그걸 누가 살까 궁리하는 건 자기들 일이라고요.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나는 이 책이 다양한 독자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수학에 진지한 흥미가 있는 열네 살 아이(내가 그런 아이였죠. 꼬마 때 『괴델, 에셔, 바흐』를 읽고 또 읽었으니까요), 대학생, 읽고 생각할 시간이 있는 은퇴자, 비행기 여행자, 출세를 꿈꾸는 사업가. 심지어 수학을 썩 잘 아는 사람들도요! 책에는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찾아내고 풀어내는 것 덕분에, 내게도 책을 쓰는 게 아주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책의 통계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가끔은 상당한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 최신 연구나 보고에 실은 잘못 해석된 통계가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연구자의 탓인가요, 기자의 탓인가요, 아니면 둘의 조합 탓인가요?

시스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든, 연구자든, 연구자를 고용한 회사나 대학이든, 최신 연구를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할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기 『뉴욕 타임스』, 내 최신 논문을 소개한 당신네 기사의 제목은 내 연구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했는데요〉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과학 보도에 대해서 늘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말뜻은 아닙니다(과학자들이

그럴 수 있어야 하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논쟁적 문제고요).

수학과 통계를 좀 더 잘 알게 된 독자가 그런 뉴스를 꿰뚫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논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계는 여전히 썩 강력한 규준을 따르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발표된 논문을 보면 연구의 실제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생물학이나 경제학 논문의 전문적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건 지나친 요구지만 나도 대개는 읽어도 모릅니다. 논문의 방법론과 결론만 읽어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익히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수학을 좀 알아야겠죠.

책에서 복잡한 수학을 현실의 상황과 연결 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령 뮤추얼 펀드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공항에 언제 도착해야 좋을지. 직관을 거스르는 그런 사례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례는 뭔가요?

아브라함 발드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발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기밀 수학 연구진으로 일했는데, 장군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독일에서 귀환하는 전투기들은 온통 총알을 맞았는데, 총알구멍이 동체에는 많지만 엔진에는 적습니다. 그러니 총알구멍이 많은 동체에 장갑을 얼마나 더 둘러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발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총알구멍이 안 난 곳에 장갑을 더 둘러야 합니다.」 왜일까요? 독일군이 적기의 엔진을 맞히지 않는 게 아니고, 엔진을 맞은 전투기는 독일에서 무사 귀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소개된 수학을 일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만일 당신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수식들을 제대로 못 쫓아가겠구나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독자가 수학은 능력에 버거워서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논증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대답해도 상처 받지 않으니 걱정 말고요.)

자,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 널리 품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몇몇 대목에서 수식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추가의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무안해 했지만, 수학은 원래 설명입니다! 실제 수학 논문을 보면, 내용의 대부분은 수식이 아니라 글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설명한 뒤,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달랑 수식만 나열한 걸 사람들이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가리켜 수학을 잘못 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책에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독자가 실제로 수학을 좀 할 수 있는(원한다면 말입니다)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책 속에서 실제로 수학이 펼쳐지도록 만들고 싶었지, 독자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만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런 작업을 해보길 원하지 않는 독자라면, 그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얼른 쉬운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중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학 실력과 직관을 계속 예리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은 특수한 형태의 〈신중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늘 〈전제를 의심〉하거나, 〈주장을 좀 더 압박하여 새는 틈이 없는지〉 살펴보거나, 〈누군가 무언가를 단언했을 때 그 말을 정당화하는 증거를 요구〉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수학을 효과적으로 습득/재습득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수학자들이 토라나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분석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말도 잔뜩 인용합니다. 수학과 인문학의 구별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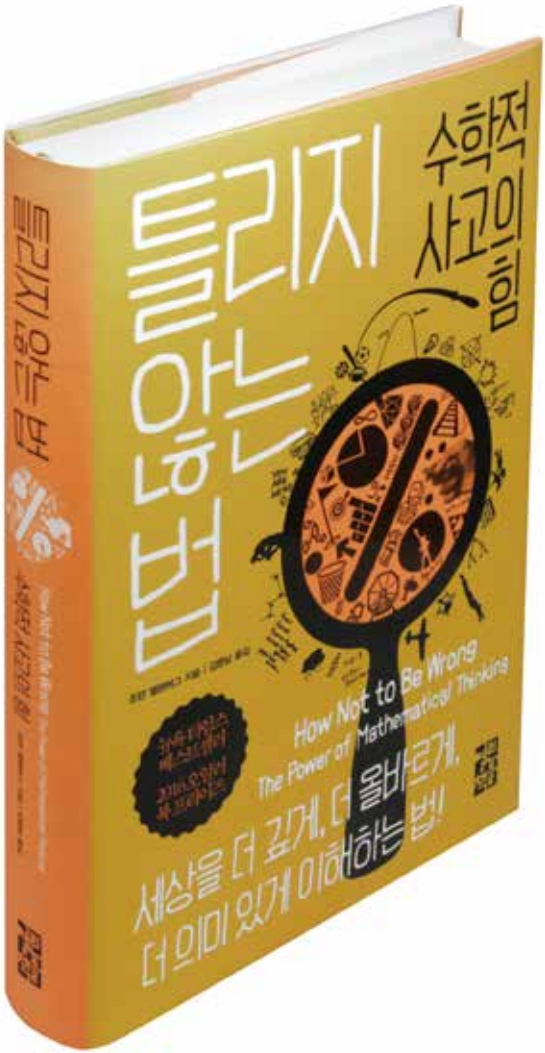
둘은 다른 것입니다. 수학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은 철학이나 문예 비평이나 문예 창작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의 통상적인 상황보다는 양쪽이 더 많이 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옛 사상가들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옛 철학자들과 작가들은 자신이 수학적 논증을 펼치는 걸 전혀 겸연쩍어 하지 않았으며 옛 수학자들은 자신이 정치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 걸 전혀 겸연쩍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는 시인 친구를 많이 압니다. 시인과 수학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깥 세상은 우리가 표준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소통한다고 여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주 희한하고 추상적인 일을 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인과 수학자는 제 일을 대단히 구체적인 작업으로 여깁니다. 세상을 철두철미 살펴봄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내려는 작업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내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인용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인이 〈관념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로〉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수학에 관한 말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게 수학에 관한 말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서특필되는 연구, 통계, 분석을 보면서 〈와, 완전 틀렸잖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블로그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아내에게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보통 내 블로그에 불평하죠. 아니면, 세상이 신경 쓸 만한 주제라고 여길

경우에는, 『슬레이트』나 다른 잡지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슬레이트』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유난히 잘하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도 그런 바람직한 추세가 있다고 봅니다. 「속보: 실시간 인기 뉴스」 이런 글을 가져다가 「실시간 인기 뉴스가 이건데, 이게 왜 인기인지 이유를 알아내고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지도 살펴볼 수 있을까?」 하는 글로 심화하는 거죠. 최근 『슬레이트』의 존 웨이즈먼이 캘리포니아에서 〈통탄할 만큼 나쁜〉 교사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그런 사례로 딱 알맞은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캐럴린 켈로그, 김명남 옮김, 『LA 타임스』, 2014.6.


틀리지 않는 법
수학적 사고의 힘
How Not to Be Wrong
The Power of Mathematical Thinking
세상을 더 깊게, 더 올바르게,
더 의미 있게 이해하는 법!

Medicine·Health·Self-management·Misc.

의학·건강·자기 관리·기타

36
Books

항행력

캐스 R. 선스타인 | 박세연 옮김 | 2022년 | 136면 | B6 견장정 | 14,000원 **ebook**

항행력은 선택자에게 올바른 경로를 찾아 주는 힘을 말한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직 상황이나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항행력이 잘 갖춰진 사회는 넛지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행위자를 이끈다. 올바른 의사와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고, 올바른 일자리와 양육 조언가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 준다.

히어로 코드

윌리엄 H. 맥레이븐 | 이경식 옮김 | 2022년 | 184면 | A5변형 견장정 | 14,000원 **ebook**

네이비실의 전설 맥레이븐 장군은 나이가 들고 온갖 세상을 여행하면서 〈진정한 영웅들〉은 만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책은 어떤 수수께끼나 은밀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익숙한 가치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가치들이야말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성의 토대이자, 명예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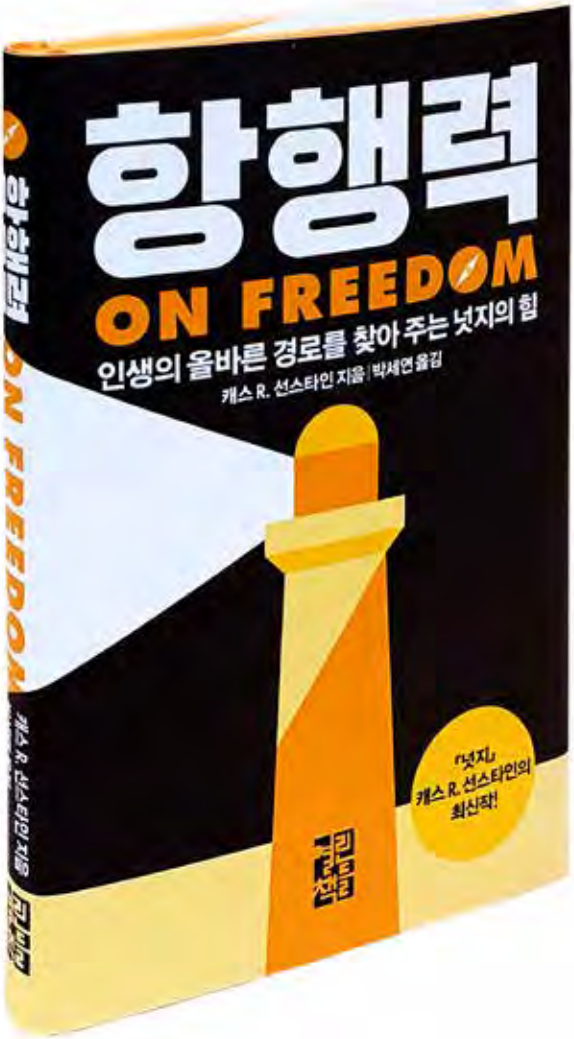
침대부터 정리하라 신판

9

윌리엄 H. 맥레이븐 | 고기탁 옮김 | 2022년 | 144면 | A5변형 연장정 | 14,000원 **ebook**

동영상 조회 수 1억, 댓글 15만 개의 감동적인 졸업식 연설을 글로 만난다. 해군 대장 윌리엄 H. 맥레이븐 제독이 제시하는 첫 번째 교훈은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것이다. 침대 정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 맞이하는 자신의 첫 번째 임무였다. 또한 아주 간단한 이 임무를 마무리하는 것은 자부심과 용기를 주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시작해 다른 수많은 임무가 수행되는 것이었다.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큰일을 제대로 해낼 수는 없는 것이었다.

-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뉴욕 타임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17년 출간 이후 150만 부 판매



Medicine·Health·Self-management·Misc.

탁석산의 공부 수업

탁석산 | 2022년 | 320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아무리 공부해도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의 공부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매일 공부하는 철학자 탁석산이 〈공부의 기술〉을 정리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부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 책에 따르면 공부는 머리(지능)로 하는 것도, 엉덩이(인내)로 하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뇌 과학의 원리를 습관으로 만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강주은이 소통하는 법

강주은 | 2021년 | 336면 | A5신 연장정 | 15,800원 **eBook | audioBook**

명배우 최민수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엄마로 강한 인상을 남긴 강주은이 가족들과의 소통을 다룬 첫 번째 책에 이어, 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소통법을 들고 왔다. 이 책에서는 강주은이 첫 직장에서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방송 일 외의 다양한 일터에서 소통에 직접 관련해 온 활동과 거기서 얻은 소통가로서의 직업적인 면모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소통하고 일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36
Books

수술의 탄생

린지 피츠해리스 | 이한음 옮김 | 2020년 | 344면 | A5변형 견장정 | 20,000원 **eBook**

도살장이나 다름없었던 수술실을 위생적인 의료 공간으로 바꾸고 소독법을 정착시킨 의사 조지프 리스터를 중심으로 흥미진진한 19세기 의학의 역사를 살펴본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수술은 죽음으로 가는 관문과 마찬가지였고 결과는 거의 운에 달려 있었다. 수술 후 감염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며 진통제와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조지프 리스터는 유럽의 최신 이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직접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며 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피가 뚝뚝 흐르고 톱으로 뼈를 자르는 당시의 공포스러운 수술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풍부한 에피소드 덕분에 의학서나 역사서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페이지가 빨리 넘어간다.

아이를 위한 정신의학

다키카와 가즈히로 | 김경원 옮김 | 2020년 | 680면 | A5변형 연장정 | 30,000원

정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줄 도서. 발달 장애부터 아동 학대, 트라우마, 등교 거부나 집단 괴롭힘의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룸으로써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가는 정신 장애의 양상을 차근히 짚어 본다. 부모는 물론 교사, 보육사, 간호사, 심리 상담사 등 일상에서 아이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아이의 정신 장애의 근원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도서.

● 2018년 세종도서(하반기) 우수 교양 도서

Medicine·Health·Self-management·Misc.

의학 박사 미할젠의 자연으로 치료하기

안드레아스 미할젠 | 박종대 옮김 | 2020년 | 440면 | A5신 견장정 | 22,000원 **eBook**

만성 질환의 증가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유럽 최대의 대학 병원인 샤리테 베를린 대학 병원 자연 요법과 교수이자 수석 내과 의사인 안드레아스 미할젠의 자연 의학 실용 가이드로, 대표적인 8가지 만성 질환인 고혈압, 관절증, 동맥 경화, 우울 증후군, 요통과 목 통증, 당뇨, 류머티즘, 위장 질환을 소개하고, 자연 요법으로 치료하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만성 질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안내서가 되고자 한다.

코로나19

타일러 J. 모리슨 | 홍유진 옮김 | 2020년 | 296면 | B6변형 연장정 | 12,000원 **eBook**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을 포함하여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정리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한국어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3년 동안 감염병 역학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제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36
Books

질의 응답

6

니나 브로크만, 엘렌 스퇴켄 달 | 김명남 옮김 | 2019년 | 448면 | A5변형 연장정 | 14,800원 **eBook | audioBook**

첫 번째 장은 책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식기를 다룬다. 외음부, 내부 생식기, 질, 음핵, 그리고 성별에 과한 오해와 진실을 말한다. 두 번째 장은 여성이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생리와 분비물을 다룬다. 세 번째 장은 섹스이다. 이 장을 통해 자신의 성생활을 나름대로 진단할 수 있으며, 온갖 걱정과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장은 피임이다. 가장 중요한 만큼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앞의 장들을 잘 이해했다면 어렵게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디테일한 정보들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장은 생식기에 생기는 문제로 관한 크고 작은 질병을 다룬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22

매슈 워커 | 이한음 옮김 | 2019년 | 512면 | A5변형 견장정 | 23,000원 **eBook**

세계적인 신경 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가 들려 주는 수면과 꿈의 과학. 워커는 1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발표하며 정력적인 연구 활동을 벌이는 수면 의학 분야의 석학이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활발하게 교감하는 자타 공인 〈수면 외교관〉이다. 저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잠의 이모저모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잠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 2019 빌 게이츠 겨울휴가 추천 도서
- 2019 과기부 선정 올해의 과학책

면역에 관하여

17

율라 비스 | 김명남 옮김 | 2016년 | 312면 | B6변형 견장정 | 17,000원 **eBook | audioBook**

미국의 촉망받는 논픽션 작가 율라 비스의 세 번째 책으로, 면역학이라는 난해한 과학을, 시적 은유를 동원해 아름답게, 동시에 냉철하게 서술한다. 비스는 아이를 출산하고 맞닥뜨린 두려움(백신이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맞서면서, 백신과 예방 접종이 실제로 아이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규명한다. 또 신화와 역사, 문학을 두루 살핌으로써 우리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고, 강력한 은유를 통해 우리가 질병과 면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킨다.

- 2014년 전미 비평가 협회상 파이널리스트
- 2015년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돈키호테의 말

6

안영옥 | 2018년 | 304쪽 | B6 견장정 | 13,800원 **eBook**

완역본 『돈키호테』의 번역가 안영옥 교수가 돈키호테가 남긴 지혜의 글귀를 뽑아,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얹어 전한다. 이 책은 순간순간의 〈삶의 기술〉보다 중요한 게 〈인생의 태도〉라며, 일상과 관계 속에서 겪는 고민들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공법을 제시한다. 타인과의 비교에 휘둘리지 말고 나다운 삶,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찾아 당당하게 밀고 나가라고 독자들을 격려한다.

- 2018년 세종도서(하반기) 우수 교양 도서

한방으로 고치는 갑상선 질환 신판

6

윤영석 | 2010년 | 336면 | 규격외 연장정 | 15,000원

7대째 가업을 계승해 〈춘원당〉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영석 원장이 갑상선 질환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는 내분비 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한방 치료는 내분비 작용의 조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병을 다스리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환자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3

김경철, 김해영 | 2020년 | 38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0초 사고

아카바 유지 | 이영미 옮김 | 2015년 | 224면 | A5변형 견장정 | 11,800원 **eBook**

B형 간염의 치료 증보판

8

현철수 | 2013년 | 224면 | A5변형 연장정 | 절판

암, 그렇고말고

2

박태열 | 2010년 | 320면 | B6 견장정 | 절판 **eBook**

한국인의 위장 · 간 질환 신판

2

현철수 | 2010년 | 288면 | 규격외 연장정 | 13,000원

통증 이렇게 다스린다
강석만 | 2008년 | 240면 | 규격외 연장정 | 13,000원

● 2010년 대만에서 번역 출간

당뇨병 이렇게 다스린다 (신판)
강석만 | 2008년 | 320면 | 규격외 연장정 | 절판

한국의 보약 (신판)
최태섭 | 안덕균 해설 | 2007년 | 64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침구학 강의 (신판)
북한 의학 출판사 편 | 안덕균 해설 | 2007년 | 608면 | A5신 견장정 | 절판

탈출! 만성 피로
윤상희 | 2003년 | 256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태열 · 아토피 고칠 수 있대요
윤영석 | 1996년 | 25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기, 흐르는 신체
이시다 히데미 | 이동철 옮김 | 1996년 | 30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증상으로 아는 돋보기 건강학
이기수 편저 | 1995년 | 44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한방 성의학
최현 | 1994년 | 56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엄마손 약손
최현 | 1992년 | 27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오줌싸개의 한방 치료
이진용 | 1994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한방 외용약
신광호 | 1994년 | 44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축농증 · 비염이 골치라고요?
윤영석 | 1993년 | 320면| A5신 연장정 | 절판

발바닥 박사의 발바닥 이야기
조슈 고쿠시인 | 한상덕 옮김 | 1992년 | 18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면역과 한방
낙화생 | 안덕균 편역 | 1992년 | 312면 | A5신 연장정 | 절판

도교와 불로 장수 의학
요시모토 쇼오지 | 도광순 옮김 | 1992년 | 46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체질과 한방약
후지히라 겐 외 | 윤영석 옮김 | 1991년 | 288면 | A5신 연장정 | 절판

36
Books

스트레스 병과 화병의 한방 치료
조홍건 | 1991년 | 53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손발 지압 백과 6
스테파니 릭 | 이일남 옮김 | 1991년 | 240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신 동의보감 8
안덕균 | 1993년 | 46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건강하게 삽시다 7
안덕균 | 1990년 | 34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신비의 두충 요법 12
안덕균 편저 | 1990년 | 104면 | A5신 연장정 | 절판

Medicine·Health·Self-management·Misc.

Interview

율라 비스 인터뷰

1977년생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다. 『빌리버』, 『하퍼스』, 『뉴욕 타임스 북 리뷰』 등에 칼럼을 기고해 왔으며,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 상주 예술가이자 『에세이 프레스』의 창간인 겸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집필했고, 두 번째 책 『황무지에서 온 편지 *Note from No Man's Land: American Essays*』로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다. 가장 최근 저서인 『면역에 관하여』는 전미 비평가 협회상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 『뉴욕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의 언론으로부터 2014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가 추천 도서로 선정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레이 울프상, 칼 샌드버그 문학상, 로나 자프 파운데이션 작가상, 푸시카트상 등을 수상했고, 구겐하임 재단, 하워드 재단, 미국 국립 예술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일리노이 주 에번스턴에서 살고 있다.

율라 비스와 『면역에 관하여』를 이야기하다

최신작 『면역에 관하여』에서 율라 비스는 아킬레우스 신화, 뱀파이어의 타자성, 소의 우두 농포에서 짠 고름을 사용했던 초기 백신 기법을 살펴본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보호해 주는지를,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서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첫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된 비스는 주변 세상에서 새롭게 갖가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생아 아들을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아내려 애쓴다. 그 결과 그가 알아낸 건 과학, 정치, 그리고 공중 보건이라는 거대한 사업 사이의 경계는 놀랍도록 침습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받은 『황무지에서 온 편지』(2009년)의 특징이었던 기민한 지성과 정확성을 간직한 채, 비스는 『면역에 관하여』에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한다. 그에게 이메일로 여섯 개의 질문을 던졌다.

『면역에 관하여』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에 어떻게 기여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면역에 관하여』를 쓰는 건 왜 내가 백신을 둘러싼 어떤 두려움에 취약한지, 그리고 왜 내가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 중 일부에 끌리는지를 살펴볼 기회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기술을 이토록 쉽게 의심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통찰을 얻었으면 하는 겁니다. 나는 또 이 책이 상당히 독설적일 때가 많은 백신 관련 토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대화는 가끔 야비한 트롤들에게 점령된 것처럼 보입니다. 트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이 논의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는 그 밖의 측면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대중 출판물에 실린 백신 관련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심란하게 느꼈던 점은, 거기에 희미한 (때로는 희미하다고도 할 수 없는) 여성 혐오의 낌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엄마들이 그렇게 과학에 무식하고 멍청하지만 않다면 아이에게 왜 백신을 맞혀야 하는지를 단번에 이해할 텐데〉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나는 『면역에 관하여』를 쓸 때 모든 어머니에게는 지성과 분별이 있다는 가정을 깔고서 그 어머니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썼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런 모욕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은 당신이 아들에게 예방 접종을 맞힐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펼쳐지는데, 당신은 그 문제를 부모됨에 따르기 마련인 더 큰 두려움과 연관 지어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탄생은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오로지 아이의 건강에만 관련된 결정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갓난아이의 건강이 내 건강에 아주 많이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내 건강 또한 아기의 건강에 아주 많이 의존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 사태를 좀 다르게 보게 되더군요. 그건 내가 아이의 영아기에서 얻은 가장 훌륭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생후 몇 개월이 되었을 무렵에는 어떻게 아기의 건강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아기의 건강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당시 B형 간염에 관한 자료를 읽고 있었는데, 신생아들의 백신 접종이 인구 전체의 B형 간염 발병률을 낮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초기의 B형 간염 공중 보건 정책처럼 이른바 고위험군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신생아들에게 집단적으로 백신을 접종시켰을 때처럼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내 신생아 아들이 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참여하는 건 이 사회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아이의 의무가 아닐까? 나는 점차 의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당신은 책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백신 반대 정서에는 제 이익만을 챙기는 자본주의의 영향 탓이 조금이나마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향은 달리 또 어느 영역에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렇듯이 의료에서도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게 자신에게 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술이나 공동체 건설이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료는 최소한의 대가로 최대한을 얻어 내려고 하는 소비자주의적 접근법이 도리어 비생산적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나는 선생이니까, 소비자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소비자로서 교육에 접근하는 학생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과정이 아니라 완제품을 원하고, 배움이 오락처럼 느껴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릇 배움이란 오락보다는 힘든 법인데, 그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망을 맛본 소비자주의적 학습자는 그 실망을 제품의 결함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이중적입니다. 학습자는 우선 학습의 기회를 잃고, 나아가 그 손실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조차 잃습니다. 이건 교육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그 비용을 치르고도 부실한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의료의 경제 구조와 그 부패의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육의 경제 구조와 그 부패의 문제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투성이 체계 내에서도 각자 개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썩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전작 『황무지에서 온 편지』에는 비관습적인 형식을 취한 글이 더러 실려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글은 아포리즘적 진술들을 병치한 형식이었죠. 그에 비해 『면역에 관하여』는 좀 더 전통적인 형식으로 논증을 펼칩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글쓰기 스타일이 진화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주제가 그런 형식을 요구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까?

내 글쓰기 스타일은 내 사고의 스타일을 반영할 때가 많은데, 그 사고의 스타일은 글마다 바뀝니다. 『면역에 관하여』를 쓰면서 설정했던 과제 중 하나는 어쩌다 보니 내가 습관을 들인 사고의 방식을 그걸 느슨한 연상의 방식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공적 담론에서 느슨한 연상이 숱하게 펼쳐지는 걸 보았을 때, 나는 그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고의 방식이 내 예술적 생산성을 높여 주었지만, 『면역에 관하여』를 쓸 때는 내가 그 방식의 위험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나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그다음에는 내 생각의 방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건 퍽 불편하고 심란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자연히 기존의 내 글과는 스타일이 사뭇 다른 글이 씌어졌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는 중에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평소 습관에 느긋이 빠져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면역에 관하여』는 내게 중요한 성장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무엇이 되었든 다음번에 쓸 글에서는 원래의 내 못된 습관을 맘껏 탐닉할 겁니다!

당신은 책 전체에서 수전 손택을 자주 언급합니다. 특히 『에이즈와 그 은유』(1989년)를 자주 언급합니다. 손택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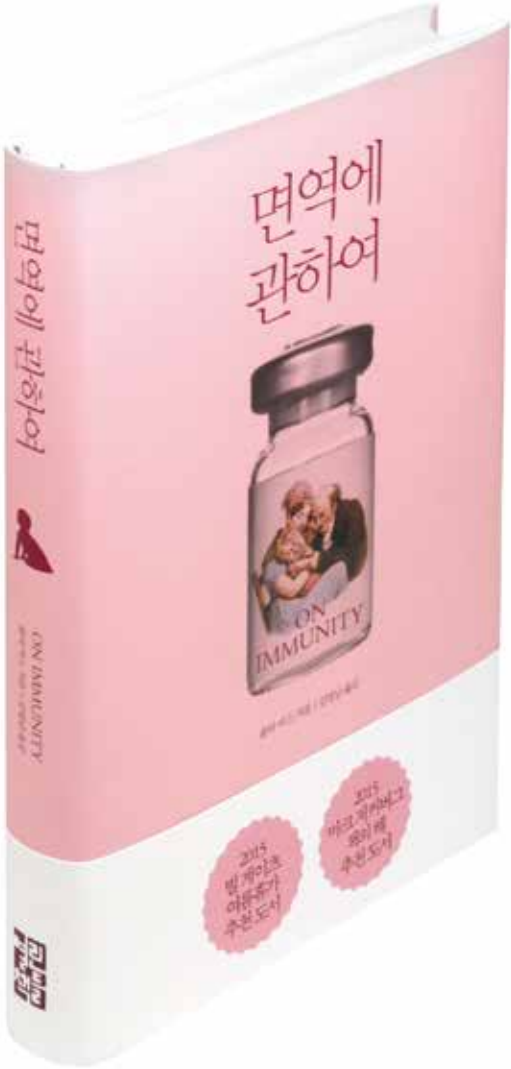
손택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마음껏 생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책에서 인물이나 장면이나 스토리의 보호를 받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생각만 한다는 건 때로 겁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늘 걱정하기를, 스스로에게 그냥 생각만 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린다면 내가 지루한 작가가 되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손택의 글에서 좋아하는 점은 그 속에서 생각이 드라마가 된다는 점입니다. 손택은 겸연쩍은 기색이라곤 없이 생각합니다. 더구나 더없이 강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든 말든, 그의 생각은 늘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면역에 관하여』를 쓸 때 끊임없이 이런저런 발상에 이끌렸는데, 그런 이끌림은 한편으로는 신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겁났습니다. 내가 손택을 안내자로 삼은 건, 그가 자신의 발상에 대해서 늘 느긋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택이 다룬 주제 중 일부가 내 주제와 관련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은유로서의 질병〉을 나는 대학 때 처음 읽었습니다. 나로선 작가가 은유를 통해서 혹은 은유를 동원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유에 관해서 생각하는 걸 본 게 손택이 처음이었죠. 강렬했던 그 체험을 이후에도 줄곧 잊지 않았으니, 그 점에서도 나는 손택에게 빚졌습니다.

『면역에 관하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위험은 집 밖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미국적 통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가 인간의 삶에 가하는 위험은 어마어마한 수준인 데 비해 상어가 내는 희생자는 매년 고작 한 손가락에 꼽힐 뿐인데도 우리는 모기보다 상어가 더 낯설기 때문에 상어를 더 두려워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의 위험과 사적인 위험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겁니다. 남들에게 위험한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에게도 위험한 존재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통계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살해될 때는 함께 사는 남자가 범인인 경우가 많고 아이가 납치될 때는 제 부모가 범인인 경우가 많고 그런 식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면, 오늘날 맹목적 숭배의 대상이 된 가정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평범한 위험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는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자신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건 『황무지에서 온 편지』 중 백인됨에 관한 글을 쓸 때였습니다. 그때 인종과 사회적 권력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위험한 존재로 여길 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자세를 갖춘 뒤 공중 보건이라는 주제를 접했더니 흔히들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는 태도들 중 놀랍도록 많은 걸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프리 글리브스, 김명남 옮김, 『하퍼스』, 2014.10.


면역에 관하여
ON IMMUNITY
2015 빌 게이츠 여름독서 추천도서
2015 아고 저자에게 묻다 올해 추천도서

Interview

윌리엄 H. 맥레이븐 인터뷰

1977년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학군단ROTC 출신으로 미 해군 장교로 임관한 이래 2014년까지 37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했다. 실 3팀을 시작으로 해군 제1특수전단 사령관, 특수전 사령부 유럽 사령관, 합동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등 미 해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에는 오사바 빈 라덴을 사살한 〈냅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일약 전 미국인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그해 『타임』지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다. 2014년 8월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미 해군에서 은퇴하고, 2015년 1월 텍사스 대학 총장이 되었다.

『침대를 정리하라』는 맥레이븐 제독이 2014년 5월 17일 모교인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했던 감동적인 졸업식 축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네이비실 기초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 열 가지를 제시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의 실천이 인생은 물론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교훈에서 시작해 포기는 절대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열 번째 교훈으로 끝난 그의 연설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동영상으로 1천만 번 넘게 조회되었다. 그리고 책이 출간된 2017년,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며 지인과 자녀들에게 선물했다고 고백하면서 동영상 조회 수는 단 6개월 만에 1억을 넘어섰다.

빈 라덴 작전을 지휘한 남자가 침대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다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 보람찬 하루의 출발점과 동전 테스트, 숙면하는 법 등에 대해서 들려준다.

지난주 토요일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 졸업 연설을 했다. 맥레이븐은 미국 특수 작전 사령부(SOCOM)의 제9대 사령관으로 정확히 3년 전 5월에 오사마 빈 라덴 작전을 이끈 인물이었다. 읽거나 들어 볼 가치가 충분한 이 졸업 연설에서 맥레이븐은 8천여 명의 졸업생에게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큰일은 더더욱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작은 일 가운데 단연 최고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침대를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날 하루에 이루고

싶은 다른 모든 일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전몰장병 추모일을 앞둔 목요일 오늘 아침 8시 15분에 맥레이븐 제독에게 전화했다.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막 아침 보고를 받고 난 뒤였다.

안녕하세요, 제독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어제 경축 행사가 있었는데 조금 늦게까지 이어져서 오늘은 대략 여섯 시에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실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때는 꽤 이른 시간에 실 훈련장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대체로 매일 다섯 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보통 그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예, 항상 여섯 시쯤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하십니까?

다행히도 제게는 함께 노를 저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에 침대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퀸 사이즈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실 기초 군사 훈련 때 사용했던 시렁 즉 작은 싱글 침대는 아닙니다. 아무튼 맞아요, 아내와 저는 아침마다 함께 침대를 정리합니다.

시렁이라는 표현이 멋집니다. 시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군용 기본 침대죠? 시간이 괜찮으시면 매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표준 군용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싱글 매트리스와 철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침대입니다. 이제는 그 철제 프레임에 스프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군요. 제가 생각하기로 예전 군용 침대는 철제 프레임에 매트리스만 달랑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표준 베개와 시트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당시에는 회색이던 해군 담요도 있었습니다.

침대마다 적어도 하나씩 딸려 나오는 예비 담요도 있었는데 이 담요는 침대 발치에 항상 단정하게 개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시트는 모서리를 깔끔하게 접어서 매트리스 밑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매트리스의 각 모서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접힌 각이 만들어집니다. 이 각이 정확히 45도 각도를 유지해야 하죠. 당연하지만 교관들은 일상적으로 침대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시트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는지, 담요는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 놓았는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침대에 동전을 떨어트려서 반발력을 확인하는 오래된 동전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동전이 반발력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침대를 단단하고 꼼꼼하게 정리했는지 판단하는 거죠.

교관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터무니없는 도시 전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시 전설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화에서 한두 번 그런 장면을 본 교관이 종종 검열하러 들어가서 자신도 동전 테스트를 하기로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매트리스의 탄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시트를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 놓아도 당연히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전이 충분히 튀어 오르지 않는 거죠. 검열은 하루 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졌죠. 다시 말해서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매일 검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검열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관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날 기분이 좋으면 보통은 침대를 헤집어 놓고 다시 정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훈련생은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파도로 뛰어들기〉라고 부르는 것을 합니다. 물론 완전한 복장을 갖춘 채였죠. 오늘날처럼 위장복도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1977년이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국방색 전투복이었습니다. 풀을 먹여야 하는 국방색 전투복 말입니다. 그리고 교관은 그 복장 그대로 파도에 뛰어들라고 지시하는 거죠.
벌칙에 순위를 매긴다면 교관이 침대를 마구 헤집어 놓는 것이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훈련생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벌칙이죠. 두 번째는 파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도에 뛰어들었다가 밖으로 나와서 설탕 쿠키가 되는 것입니다. 설탕 쿠키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에서 나오면 당연히 흠뻑 젖은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모래밭을 뒹굽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서 교관 앞에 섭니다. 훈련생은 항상 교관에게 돌아가야 하죠. 이후 교관에게 경례하고 지시한 것을 실제로 완수했다고 보고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제독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십니다. 제독님은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침대를 무의식적으로 검열하시는 건 아닌가요?

[웃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묵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의 침대는 검열하지 않습니다. 제 것만 합니다.

자녀분들도 매일 침대를 정리하나요?

그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렇게 하라고 조언은 합니다. 이제는 다들 나이도 있고 자립해서 살고 있어요. 저의 조언을 따르도록 강제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독님이 제안하는 잠을 잘 자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잠을 설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이 몸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아마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독님이 이용해 보신 것 가운데 최고의 침대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 군용 침대입니다. 이라크에서 쓴 침대도 좋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쓴 침대도 좋았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쓰던 것은 침대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군용 프레임에 매트리스만 있었죠. 그래도 아기처럼 잘만 잤습니다. 온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외로 싱글 매트리스가 제게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미메시스

미메시스는 2005년 열린책들이 설립한 예술서 브랜드로 미술, 디자인, 건축, 그래픽노블, 사진, 문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책격에 맞는 아름다운 장정과 디자인을 지향하며 〈예술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앤디 워홀, 카림 라시드, 아이웨이웨이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예술가의 글과 안도 다다오, 프랭크 게리, 스티븐 홀 등 대건축가의 생각과 건축 세계가 담긴 책, 크레이그 톰슨, 바스티앙 비베스, 브레흐트 에번스 등 작품성 뛰어난 해외의 그래픽노블 작가와 작품들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소설, 에세이, 건강서 등 예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발을 넓혀 독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 노력한다.

Mimesis

Andy Warhol 앤디 워홀
Karim Rashid 카림 라시드
Tadao Ando 안도 다다오
Philippe Starck 필립 스탁
Frank Lloyd Wright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O. Gehry 프랭크 게리
Jean-Jacques Sempé 장자크 상페
Louis Khan 루이스 칸
Manuele Fior 마누엘레 피오르
David Mazzucchelli 데이비드 마추켈리
Bastien Vivès 바스티앙 비베스
Jeff Lemire 제프 르미어
Ai Weiwei 아이웨이웨이
Brecht Evens 브레흐트 에번스
Craig Thompson 크레이그 톰슨
Chester Brown 체스터 브라운

Architecture

미메시스 건축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 2

국제 청소년 글쓰기 센터 연맹 | 김마림 옮김 | 2023년 | 48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35,000원

826 내셔널은 대담한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테마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비영리 단체이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창의적이고 멋진 환경에서 자신만의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유쾌한 글쓰기 센터를 설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에 소개된 에너지 넘치고 사려 깊은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껏 떠올리지 못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뮤지엄 건축 기행 2

최우용 | 2022년 | 30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4,000원 **eBook**

건축 설계 일을 하며 그와 관련된 글을 쓰는 최우용은 이 땅 위의 뮤지엄을 찾아다니는 일이 스스로 배워 알게 되는 〈자기 교육〉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는 〈알고 싶어서〉 뮤지엄/박물관에 간다. 무엇보다 뮤지엄이 품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 그것이 공간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혹은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힌다.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9

윤형택 | 2019년 | 280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WGNB가 기획하고 그곳에서 공간 스토리텔링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맡고 있는 윤형택이 그동안의 작업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렸다. WGNB는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다〉라는 모토로 브랜드와 사람을 담는 좋은 공기가 머무는 공간을 지향하고 만들어 온 곳이다.

개념에서 건축으로 김준성의 건축 강의 2

김준성 | 2018년 | 432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6,000원

건축가 김준성이 말하는 건축의 아이디어 단계, 건축주와의 관계, 설계 과정 및 구조와 외피에 대한 실무 이야기를 담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 건축의 철학적 고민들이 어떻게 발전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는지 그 실제를 만나 볼 수 있다.

21
Books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
국제 청소년 글쓰기 센터 연맹 지음
김아림 옮김
도서문화재단 씨앗 감수
Unnecessarily Beautiful Spaces for Young Minds on Fire
미메시스

한국 건축의 정체성

3

이상헌 | 2017년 | 512면 | A5신변형 연장정 | 22,000원

언어화되지 않았던 한국 전통 건축의 원리를 현대에 소통 가능한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 건축을 지배하는 서양 건축의 언어와 개념을 통해 비교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통해 한국 건축의 전통을 이론화하여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건축의 색

2

이선민 | 2017년 | 25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9,800원

현대 건축에서의 색채 사용 방식과 그 변화들을 소개하며, 건축가의 의도와 함께 색채의 다양한 사용 방식과 관점들을 제시한다. 세계 유수의 건축물 120여 곳을 중심으로, 각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의도뿐 아니라 색채 활용 방식,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성까지 살펴본다.

건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비톨드 립친스키 | 서경욱 옮김 | 2016년 | 41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8,000원

건축 평론가 비톨트 립친스키가 건축 개념 10개를 정리하고, 각 개념을 설명하며 그에 해당하는 주요 건축물들을 직접 경험한 것들에 한하여 언급하고 소개한다. 건축가마다 건축 개념을 어떻게 소화하여 차별성을 두었는지를 살펴보며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전한다.

토레 다비드

알프레도 브릴렘버그,후베르트 클룸프너, 어반 싱크 탱크 | 이반 반 사진 | 김마림 옮김 |
2015년 | 48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8,000원

베네수엘라의 고층 빌딩 빈민가인 〈토레 다비드〉를 다룬 책으로 도시 개발의 미래와 그 여정이 담긴 한 편의 르포 다큐멘터리이다. 버려진 공간의 재활용, 지속 가능한 건축, 건축가 집단과 거주민 협동조합의 실험 등 여러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4

서경욱 외 | 2014년 | 512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8,000원

건축 대학원인 바틀렛 출신의 국내 건축가 25인의 새로운 건축을 소개한다. 이들의 건축은 고전적인 건축의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 및 기타 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된 진보적 개념을 갖는다.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

5

홍지웅 | 2013년 | 64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8,000원

알바루 시자가 지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건축 과정을 보여 준다. 건축가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을 거쳐 완공되기까지의 모든 건축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1
Books

Architecture

홀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3

스티븐 홀 | 이원경 옮김 | 2012년 | 41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5,000원

홀이 직접 소개하는 24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에 관한 지론 및 건축 진행 과정은 물론 작업 방식, 영감을 얻는 원천, 그리고 의뢰인들과의 관계 조율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가 말하는 집의 의미와 설계

5

안도 다다오 | 송태욱 옮김 | 2011년 | 40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5,000원

프리츠커상, 칼스베르크 건축상, 교토상, 프래미엄 임페리알레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을 중심에 놓고 절정기의 작업들을 정리한 책이다.

칸 침묵과 빛의 건축가 루이스 칸

2

데이비드 B. 브라운리, 데이비드 G. 드 롱 | 김희진 옮김 | 2010년 | 28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8,000원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건축가 루이스 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의 대표작부터 사소한 작품들까지, 그의 건축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모든 것을 망라하여 소개한다.

라이트 미국 건축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브루스 브룩스 파이퍼 | 이종인 옮김 | 2010년 | 25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8,000원

20세기 3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세계를 한 눈에 조망한다. 그의 방대한 건축물 중 특히 건축사에 길이 남을 건축 프로젝트 25개를 엄선하여 소개한다.

게리 프랭크 게리가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 세계

5

밀드레드 프리드먼 엮음 | 이종인 옮김 | 2010년 | 24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5,000원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되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계자이자 세계적 건축가인 프랭크 O. 게리가 흥미진진하게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 이야기.

-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이달의 읽을 만한 책〉
- 청년 의사 선정 〈책 읽는 의사, 의사들의 책〉 22기 도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생기론

장용순 | 2013년 | 25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5,000원

건축은 왜 중요한가

폴 골드버거 | 윤길순 옮김 | 2011년 | 30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8,0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3: 용해와 내재성

2

장용순 | 2011년 | 26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5,0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2: 은유와 생성

장용순 | 2010년 | 28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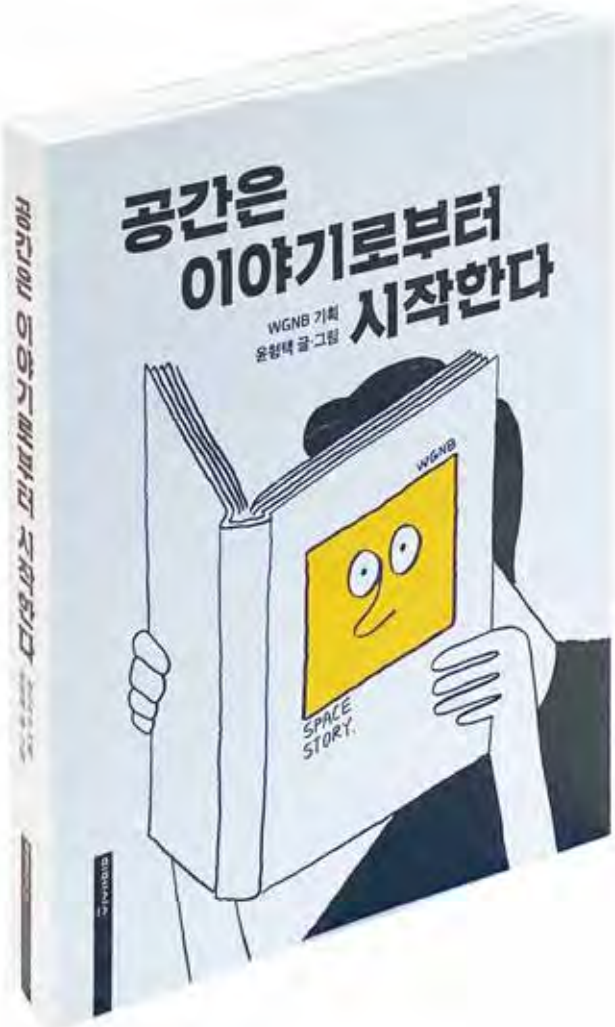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1: 위상학

장용순 | 2010년 | 28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5,000원

건축을 말한다

에이드리언 포티 | 이종인 옮김 | 2009년 | 552면 | 규격외 견장정 | 30,000원

21
Books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WGNB 기획
윤형택 글·그림
WGNB
SPACE STORY.

Graphic Novels

미메시스 그래픽노블

116
Books

신성한, 이혼

강태경 | 2023년 | 전5권 | 각312면 | A5변형 연장정 | 각 권15,800원

현실적인 소재와 몰입감 넘치는 전개로 호평을 얻은 카카오웹툰 「신성한, 이혼」이 마침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2023년 JTBC 드라마로 제작되며 연일 주목받고 있는 화제작이다. 『신성한, 이혼』은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이 헤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혼 법정만큼 처절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히며, 특유의 치밀하고도 거침없는 스타일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재생력

조성환 | 2022년 | 264면 | B5변형 견장정 | 24,000원 **eBook**

영화감독 봉준호의 추천사처럼, 이 작품은 〈예측 불허의 유머와 처절한 폭력〉이 함께 공존한다. 주인공은 어른의 몸이지만 어딘지 모자라 보이는 〈머리〉. 머리는 위기에 처한 검은 고양이의 목숨을 구해 주다가 다리를 잃고 만다. 머리의 보호자이자, 과거 생명 공학계에 큰 업적을 이뤘던 오명준 박사는 독특한 의료 기술로 머리의 망가진 몸을 재생시킨다. 그러나 머리와 동물의 언어로 짧은 교감을 나눈 직후 죽음을 맞는 검은 고양이. 머리는 이 죽음을 목격한 시점부터 조금씩 인간적인 모습을 얻게 된다.

나 혼자

데이비드 스몰 | 김승일 옮김 | 2021년 | 416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엄마가 지역 풋볼 스타와 집을 나가 버리고, 열세 살 러셀에게는 안절부절못하는 아빠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혼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아빠는 러셀을 데리고 쓸 만한 직업을 얻어 보고자 오하이오를 떠나 햇볕 쨍쨍한 캘리포니아를 향한다. 우리는 러셀을 통해 미국 소도시의 팍팍한 삶을 따라가면서, 이미지와 꿈의 시퀀스가 최면적으로 펼쳐지는 카프카적 성장담을 목격하게 된다.

7월 14일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21년 | 256면 | B5변형 견장정 | 20,000원 **eBook**

바스티앙 비베스의 첫 스릴러 그래픽노블. 프랑스의 가장 큰 국경일이자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축제이자 애도의 날이기도 하다.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기념일을 경축하러 모인 시민들에게 대형 트럭이 돌진하고 총격까지 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행했던 충격적 사건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7월 14일』은 바로 이 국가 기념일에 벌어지는 한 사건의 전후와 그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

● 2021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우수 만화 도서〉

나의 미녀 인생

프랑수아 베고도, 세실 기야르 | 김희진 옮김 | 2020년 | 200면 | B5변형 견장정 | 18,000원 **eBook**

길렌의 특별한 점은 못생기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현실에 맞춰 갈 방법을 찾기 위해 그녀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한다. 세월이 흐르자 시련도 줄어든다. 이 과감한 페미니스트적 이야기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라는 격려다.

우주 만두 바이올렛의 신나는 우주 모험담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20년 | 32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2,000원

톰슨의 지금까지 책과 달리 총천연색으로 꾸민 그래픽노블. 아빠를 구하기 위해 우주를 탐험하는 용감한 열두 살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사랑스러운 서사시〉.

은돌아, 산책 갈까?

문수지 | 2019년 | 224면 | A5신 견장정 | 14,800원 **eBook**

반려동물과의 오랜 사랑을 담은 그래픽노블. 17년을 함께한 〈은돌이〉라는 작은 몰티즈의 죽음 이후를 판타지로 풀어낸 중편 「사라지는 세계」와 은돌이가 처음 집으로 왔을 때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를 현실적으로 그린 「너와 함께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큘라 치과 내 치아를 지켜 줘!

조성민 | 2019년 | 400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닥터 드라〉로 활동하는 치과 의사이자 구강외과 전문의인 저자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치아 관리법을 알려 준다.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 대한 내용은 총 15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마다 고민거리가 가득한 치아 주인들이 등장하여 닥터 드라에게 상담을 받는다.

반 고흐와 나

바바라 스톡 | 유동익 옮김 | 2019년 | 160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그래픽노블로는 이례적으로 1만 부를 돌파한 『반 고흐』의 뒷이야기와 이 책을 만든 바바라 스톡의 일상이 교차하며 그려진 작품이다. 빈센트 반 고흐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큰 만족감을 얻었던 작가가 무기력해지는 이야기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한적한 동네에서 남자 친구와 자잘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솔직하고 다정하게 기록되어 있다.

호텔 하데스 어서 오세요, 죽은 자들의 세계

카타리나 그레베 | 박종대 옮김 | 2019년 | 136면 | A5변형 견장정 | 13,800원

독일의 만화가 카타리나 그레베의 중편 작품으로 사후 세계를 유머러스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룬다. 주인공인 소설가 마르타와 그의 젊은 반려자 플로리안 그리고 요리사 페터는 어느 스낵바 앞에서 난데없이 총에 맞고 사망한다. 세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죽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후 세계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데스로 향한다.

파더 판다

훗한나 | 2019년 | 200면 | A4변형 견장정 | 14,800원

배경은 알 수 없는 먼 훗날. 주인공 〈여자〉는 〈판다는 좋은 아빠〉라는 회사에 간다. 이곳은 출산할 나이를 훨씬 지난 여성이 의무적으로 판다의 정자를 제공받아 판다를 임신하는 곳.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판다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 단, 아이의 아빠인 판다까지 양육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도스토옙스키 대문호의 삶과 작품

비탈리 콘스탄티노프 | 박종대 옮김 | 2019년 | 72면 | B5변형 견장정 | 12,800원 **eBook**

『죄와 벌』, 『백치』, 『도박꾼』,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써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사랑과 슬픔, 창작욕, 절망은 그의 삶의 동반자였다. 도스토옙스키의 삶과 복잡다단한 작품들이 아주 독특한 시적 그림을 통해 흥미롭게 펼쳐진다.

살갗 지독한 연애의 흔적

그자비에 뮈사 | 윤진 옮김 | 2019년 | 256면 | B5변형 견장정 | 25,000원

작가가 데뷔작 『성가족』에서 자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풀어냈다면, 이번에는 더 나아가 가족과 떨어져 나온 이후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서 지독한 연애를 하고 끝을 본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여 준다. 뮈사는 미술 학교를 다니기 위해 예술과 만화의 도시 앙굴렘에 처음 와서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곳에 남아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돈벌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인간관계 역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그는 지금 상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려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나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8년 | 216면 | B5변형 견장정 | 19,800원

열여섯 살 소녀와 열세 살 소년의 두근거리는 한여름을 그린 비베스의 새로운 장편 그래픽노블. 여름휴가를 위해 바닷가 별장을 찾은 앙투안 가족에게 엄마 친구인 실비 아줌마와 그녀의 딸 엘렌이 방문한다. 그리고 앙투안의 여름은 온통 엘렌으로 가득하게 된다.

- 2018년 캐나다 퀘벡 서적상 〈해외 만화상〉
- 2017년 『보도이』 선정 〈올해의 만화〉
- 2017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ACBD 선정 〈올여름 놓치면 안 되는 만화〉

오늘 내 기분은요 2

황정하 | 2018년 | 520면 | B6 연장정 | 12,800원 **eBook**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 알려진 황정하는 무려 520쪽에 걸쳐 고단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삶을 짠하게 그려 냈다. 작가가 2015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연초부터 2018년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총 4년간을 담았으며 고된 감정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수상한 레스토랑 세컨즈

브라이언 리 오말리 | 박중서 옮김 | 2017년 | 328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열정 넘치는 여성 셰프의 기묘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다룬 그래픽노블. 타임 리프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가 여러 차례 바뀌는 설정임에도 이야기 구성이 집약적이고 디테일하게 연출하였다.

코메 프리마: 예전처럼

알프레드 | 이상해 옮김 | 2017년 | 232면 | B5변형 견장정 | 19,800원

1950~1960년대 이탈리아 흑백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저자는 이야기의 모든 단계이자 만남, 새로운 전개들이 각 장과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영화처럼 시놉시스를 구축하고 편집하였다.

- 2014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

여기서 3

리처드 맥과이어 | 홍유진 옮김 | 2017년 | 298면 | B5변형 견장정 | 16,800원

아직 생명이 존재하지 않은 기원전 30억 50만 년부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22175년까지 같은 각도에서 본 똑같은 공간 〈여기〉를 두 면에 펼쳐서 자유롭게 시대를 오가며 보여 준다.

- 2016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

조각가

스콧 맥클라우드 | 김마림 옮김 | 2017년 | 496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돈과 의욕은커녕 작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털터리 조각가 데이비드 스미스 앞에 갑자기 등장한 죽음의 신은 〈예술을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거래를 제안한다.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

스노우캣(권윤주) | 2017년 | 256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혼자 놀기의 달인 스노우캣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형식으로 기록한 초보 운전 일기이다. 오랜만에 장롱 면허를 꺼내고 작은 자동차 〈귀염둥이〉를 사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비롯해 총 25화를 엮었다.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2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7년 | 592면 | B6변형 연장정 | 18,000원

틈틈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작업을 주제별로 추려 모은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의 후속편. 전편 그대로 캐릭터 간의 대화에 중점을 둔 68편의 스트립을 자유롭게 풀어냈다.

116
Books

비우

이대미 | 2016년 | 220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4,800원

책은 악몽에서 시작한다. 악몽 속에서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울부짖거나 어딘가를 향해 똑같이 발걸음을 뗀다. 섬뜩할 정도로 시퍼런 공간, 주인공 〈비우〉는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 누군가를 발견한다.

여장 남자와 살인자

클로에 크뤼쇼데 | 김희진 옮김 | 2015년 | 168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8,000원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자해를 하고 성 정체성까지 바꾸며 살아야 했던 한 남자와 전쟁 트라우마로 변해 가는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 2015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해외 만화상〉
- 2014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4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독자상〉
- 2013년 랑데르노 만화상

리얼리스트

아사프 하누카 | 이예원 옮김 | 2015년 | 128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3,800원

이스라엘 작가 아사프 하누카는 예술가로서, 배우자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일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엉뚱하고 때때로 초현실적인 그림 속에 담아 보인다. 그리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홀로코스트부터 페이스북과 아이폰까지

한데 아우르는 당대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 2015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작가상〉
- 2016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외국 만화〉

유료 서비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 2015년 | 304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9,800원

캐나다의 만화가 체스터 브라운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 5년간 돈을 내고 섹스한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그와 섹스한 23명의 매춘 여성들과의 관계도 세밀하게 그려낸 성매매 회고록이다.

거대한 수염을 가진 남자

2

스티븐 콜린스 | 이경아 옮김 | 2015년 | 240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6,800원

영국의 신예 그래픽노블 작가이자 다수의 만화상을 수상한 스티븐 콜린스는 주인공 데이브를 통해 현대사회가 가진 모든 모순점을 드러낸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고 서정적인 연필 선으로 표현한다.

- 2015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품상〉 후보작
- 2014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대상

자꾸 생각나

4

송아람 | 2015년 | 620면 | A5변형 연장정 | 15,800원

공동 작업실에서 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미래는 만화가 데뷔가 꿈이나 아직은 습작으로 그칠 뿐이다. 어느 날 만화가 도일과 그의 후배 만화가 승태와 술자리를 가지며 사건이 벌어진다.

대면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 2015년 | 176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4,800원

어느 날 외계 존재가 보낸 텔레파시를 함께 공유하게 된 중년의 심리학자 라니에로와 신비한 존재감을 지닌 도라. 시대와 나이, 공간을 모두 뛰어넘은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다.

- 2013년 퀘벡 만화상 베델리스 〈올해의 해외 만화상〉
- 2013년 프랑스 만화 잡지 『보도이』 선정 〈최고의 만화〉

라스트맨

발락, 상라빌,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216면 | A5변형 연장정 | 각 권 9,800원

격투 대회의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격투가들에 관한 이야기. 여덟 살 어린 소년부터 무술 학교 학생들, 연인 팀, 쌍둥이 형제 등 격투 챔피언이 되기 위해 제각각 기량을 뽐낸다.

- 2015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고의 시리즈상〉

인티사르의 자동차

페드로 리에라 | 나초 카사노바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5년 | 208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6,800원

저자가 실제 예멘에서 겪은 일과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의 세세한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예멘의 속살을 주관적인 개입 없이 고스란히 보여 주는 진정한 다큐멘터리 그래픽노블이다.

- 2013년 프랑스 앵포 〈시사 및 르포 만화 부문〉 최우수상
- 2013년 산타 콜로마 최우수 만화상

수중 용접공

제프 르미어 | 박중서 옮김 | 2015년 | 224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5,800원 **eBook**

육체노동자의 성격 탐구와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라는 두 소재를 결합시킨 작품. 아버지와 아들, 탄생과 죽음, 기억과 현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수면 아래 깊은 곳에 묻어 둔 보물에 관해 말한다.

- 2013년 조 슈스터상 〈최고의 캐나다 만화가〉
- 2012년 IGN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12년 아마존 캐나다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위〉

116

Books

가을

존 맥노트 | 홍유진 옮김 | 2014년 | 64면 | A4변형 견장정 | 12,800원

가을이 보여 주는 활기찬 자연의 움직임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과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작은 것들이 갖는 소중한 의미와 그것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포르투갈 2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 2014년 | 264면 | A4변형 견장정 | 22,800원

일과 연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던 만화가 시몽은 리스본에서 열린 한 만화 행사를 통해 자신의 포르투갈 쪽 뿌리를 찾아 나선다.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가족애도 함께 발견한다.

- 2012년 앙굴렝 국제 만화 페스티벌 〈독자상〉
- 2011년 『르 푸앵』 만화상

타인들의 드라마 #04: 삶이 좀 엉켰어

토마 카덴 | 뱅자맹 바슐리에 외 20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4년 | 224면 | B5변형 연장정 | 16,800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간에 대한 감정들 즉 시기와 질투, 미움, 사랑, 증오와 동경 등이 이 드라마의 사건들 곳곳에 숨어 있으며, 때로는 풍자로, 때로는 유머로 온갖 군상을 조명한다.

타인들의 드라마 #03: 들통 날 거짓말

토마 카덴 | 뱅상 소렐 외 20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3년 | 208면 | B5변형 연장정 | 16,800원

로또 맞은 여대생으로부터 뻗어 나가는 행복하고 불행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주인공의 이야기로부터 그녀의 가족, 친구, 학교, 연애, 이웃 등 수많은 타인의 생활 면면으로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확장한다.

타인들의 드라마 #02: 수상한 친구들

토마 카덴 | 마누엘레 피오르 외 17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3년 | 224면 | B5변형 연장정 | 16,800원

여대생 마틸드와 그 주변 인물들로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커다란 이야기의 도움닫기 단계를 그렸다. 18명의 만화가의 붓이 각 캐릭터의 이야기 속으로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서로 유쾌하게 이어 간다.

타인들의 드라마 #01: 로또 맞은 여대생

토마 카덴 | 바스티앙 비베스 외 15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3년 | 224면 | B5변형 연장정 | 16,800원

프랑스 젊은이들을 매일매일 클릭하게 만든 연재만화로 〈만화 보여 주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토마 카덴과 100여 명 만화가들의 야심작. 로또에 당첨된 마틸드와 주변 인물들을 코믹하게 그렸다.

방사성

로렌 레드니스 | 이경아 옮김 | 2014년 | 208면 | B4 견장정 | 17,800원

마리 퀴리는 방사능 분야의 개척자이자 여성으로서 첫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이자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두 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이 위대한 과학자를 새로운 방법으로 조명하였다.

버스

폴 커시너 | 이예원 옮김 | 2014년 | 96면 | A4변형 견장정 | 10,800원

1970~1980년대 미국을 휩쓸던 슈퍼 히어로 코믹물보다는 판타지나 초현실적 테마를 주로 다룬 폴 커시너의 대표작. 실제 세계라 일컬어지는 세계와 이와 구별되는 다른 세계를 개성 있게 표현했다.

다운타운

노엘 랑 | 로드리고 가르시아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4년 | 136면 | AB판 견장정 | 12,800원

다운 증후군인 삼촌을 보고 영감을 받은 노엘 랑은 일러스트레이터 로드리고 가르시아와 함께 애정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다운 증후군 어린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었다.

예쁜 여자 3

권용득 | 2014년 | 192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2,800원

소설 같은 밀도와 집중력을 보여 주는 일상 만화의 고수인 권용득의 단편 모음집. 결핍에서 오는 인간의 고뇌와 그 쓸쓸한 뒷모습을 예리하게 포착해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 수작이다.

안녕, 청키 라이스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4년 | 12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9,800원

크레이그 톰슨의 첫 그래픽노블. 우정, 자아 성찰, 그리움, 외로움, 고독, 상실 등의 진지한 주제를 가볍고 귀여운 그림체로 그려 냈다는 측면에서 〈어린 왕자〉의 대안 만화라고 불릴 만하다.

브라보, 나의 삶

보두앵, 트룹스 | 정혜용 옮김 | 2014년 | 13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2,800원

세대 차이를 극복한 두 만화가의 시우다드후아레스 여행기이다. 범죄 도시로 알려진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가 품고 있는 삶의 온기를 두 만화가의 넓은 시선으로 맛볼 수 있는 작품이다.

116
Books

늑대 인간

리차드 아피냐네시 | 스와바 하라시모비치 그림 | 이예원 옮김 | 2014년 | 17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5,000원

한 남자의 일생을 따라다닌 집착과 신경증 그리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다. 프로이트의 대표적 치료법인 연상법과 탐정 소설 같은 서사 구조가 그래픽노블의 기반이 되어 우리를 꿈속으로 데려간다.

봄꽃도 한때 2

심흥아, 서윤아, 박문영, 이지나, 노영미 | 2014년 | 24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9,800원

손창섭의 「비오는 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동인의 「배따라기」, 박태원의 「피로」, 윤동주의 「병원」, 현대 문학의 기점이 된 이 작품들을 다섯 명의 만화가가 현재 시점에 맞춰 그렸다.

늑대의 꼬리

마리노 네리 | 천지은 옮김 | 2014년 | 144면 | A5변형 연장정 | 9,800원

1900년대 초반 이야기로 두려움과 어려움의 성장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소녀를 그렸다. 〈흑백 만화는 단순하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대비를 통해 소녀의 심리적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예술 애호가들 2

브레흐트 에번스 | 박중서 옮김 | 2014년 | 224면 | A4변형 견장정 | 22,000원

강렬한 색채, 말풍선과 선을 배제한 수채화 기법, 자유분방한 구성, 과감한 붓 터치 등 브레흐트 에번스만의 독창적 스타일이 눈에 띈다. 작가는 모든 만화 문법을 뒤집는 유희를 화려하게 펼쳐 보인다.

센티멘털 포르노그래피 2

지미 볼리외 | 이상해 옮김 | 2013년 | 292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보편적인 윤리관이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남녀 주인공들. 발칙한 상상력으로 통통 튀는 이들은 가벼움과 진중함의 사이를 오가며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젊음과 성숙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파란색은 따뜻하다 6

쥘리 마로 | 정혜용 옮김 | 2013년 | 160면 | A5 견장정 | 14,800원

열다섯 살 클레망틴이 처음으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혼란을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원작으로도 유명하다.

- 2013년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칸 영화제 황금장려상
- 2012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독자상〉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5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3년 | 592면 | B5변형 연장정 | 18,000원

비베스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만화를 모았다. 캐릭터들 간의 대화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 작가가 휴식 시간에 그저 재미로 올린 에피소드와 공개되지 않은 에피소드를 덧붙여 출간하였다.

내 눈 안의 너 6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옮김 | 2013년 | 136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새로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의 설렘과 청춘의 풋풋한 단면이 잘 드러나 있는 이 작품은 바스티앙 비베스의 2009년 작품으로 젊은 작가 특유의 대범함과 에너지 그리고 실험 정신이 잘 드러난다.

하비비 6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3년 | 672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24,800원

무지한 아버지 때문에 중년의 필경사에게 팔려간 12세 소녀 도돌라와 그녀가 노예 시장에서 만난 세 살배기 남자아이 잠이 겪는 15년 동안의 이야기. 제목은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뜻이다.

- 2012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가〉
- 2012년 프랑스 버진 메가스토어 만화상
- 2011년 『파노라마』 선정 〈최고의 만화책 10권〉

워털루와 트라팔가르

올리비에 탈레크 | 2013년 | 64면 | B5변형 견장정 | 13,000원

프랑스와 유럽 국가의 유명한 전투의 이름을 딴 두 캐릭터 간의 이야기. 하지만 전투는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두 병사가 아무 말 없이 행동과 소리, 표정으로 지루한 전쟁의 이면을 보여 줄 뿐이다.

한 사람

레이 폭스 | 이원경 옮김 | 2013년 | 280면 | A4변형 견장정 | 15,000원

시대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 18명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동시에 보여 주는 그래픽노블. 책에는 여러 개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 여러 이야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순간에 독자는 당황하게 된다.

만화가의 여행 5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3년 | 228면 | A5신변형 연장정 | 12,800원

크레이그 톰슨의 3개월에 걸친 여행 기록.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이 기록에는 정신없이 벌어지는 모험뿐 아니라 사색과 여유의 시간도 담겨 있다. 여행을 통해 작가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한다.

116
Books

담요 12

크레이그 톰슨 | 박여영 옮김 | 2012년 | 592면 | B5변형 견장정 | 24,800원

크레이그 톰슨의 자전적인 작품. 한때 외로웠고,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춘 이야기이다.

- 2005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최고의 만화책〉
- 2004년 하비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가〉, 〈최고의 만화가〉
- 2004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스토리〉
- 2004년 이그나츠상 〈뛰어난 작가〉, 〈뛰어난 그래픽노블〉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똑똑, 리틀 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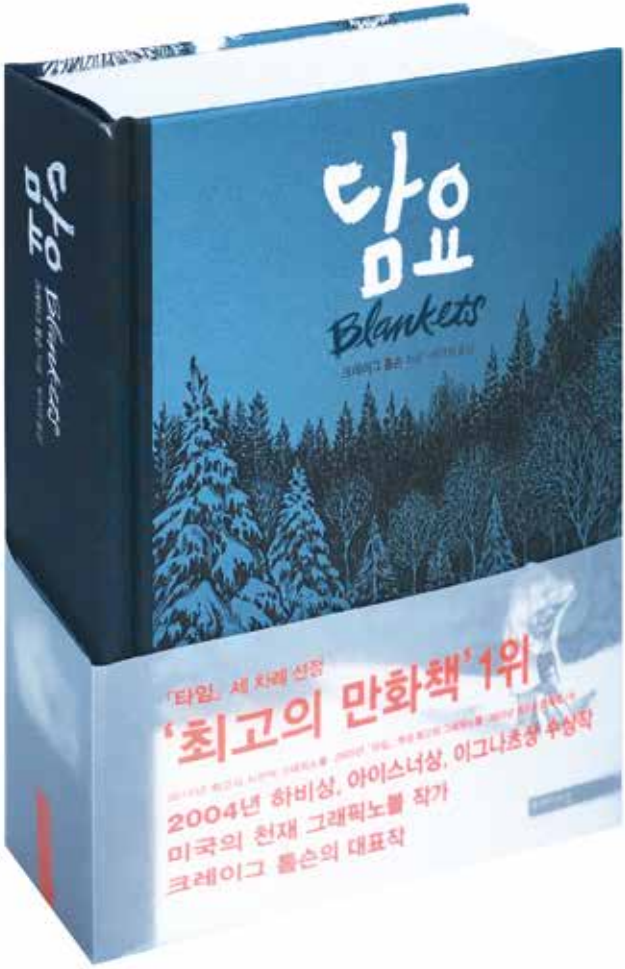
체스터 브라운 | 김희진 옮김 | 2012년 | 192면 | A5신 견장정 | 13,000원

캐나다 언더그라운드 만화계를 대표하는 작가 체스터 브라운의 단편들을 모은 만화집.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여러 만화 잡지에 발표한 단편들 중 작가 자신이 엄선한 만화들을 모아 엮었다.

3그램 7

수신지 | 2012년 | 184면 | B6변형 견장정 | 14,800원

작가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3그램〉은 난소 한 개의 평균 무게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무게를 엄청난 삶의 무게로 감당해야 했던 작가의 통찰이 돋보인다.


담요
Blankets
'타임' 세 차례 선정
'최고의 만화책' 1위
2004년 하비상, 아이스너상, 이그나츠상 수상작
미국의 천재 그래픽노블 작가
크레이그 톰슨의 대표작

세 개의 그림자 4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 2012년 | 280면 | B5변형 견장정 | 15,000원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시릴 페드로사의 대표작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고통과 두려움이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모험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유려한 그림으로 빚어낸다.

- 2008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에상시엘상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디스코 하렘 2

브레흐트 에번스 | 최현아 옮김 | 2012년 | 192면 | A4변형 견장정 | 19,800원

유럽을 사로잡은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감성! 브레흐트 에번스는 벨기에의 천재라는 호평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인기를 타고난 한 남자와 뭘 해도 초라한 한 남자의 인생이 디스코 클럽에서 펼쳐진다.

- 2011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대담한 만화상〉
- 2010년 벨기에 윌리 반더르스테인상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116

Books

바늘땀 8

데이비드 스몰 | 이예원 옮김 | 2012년 | 328면 | B5변형 견장정 | 16,800원 **eBook**

부모의 관심을 갈구하다가 세상과 담을 쌓아 버린 소년의 외로운 시간이 한 권의 흑백 만화 속에 켜켜이 쌓여 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상처와 환부를 과감히 드러낸 작가의 회고록이다.

- 2012년 『타임』 선정 〈최고의 자전적 그래픽노블 10권〉
- 2010년 미국 서점 연합 성인 비소설 부문 수상
- 2009년 웹사이트 팝매터스 선정 〈최고의 책〉
- 2009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최고의 책 10권〉
- 2009년 NPR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09년 『캘리포니아 리터러리 리뷰』 선정 〈최고의 책 10권〉
- 2009년 아마존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위〉
- 2009년 아마존 선정 〈최고의 책 9위〉
- 2009년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폴리나 13

바스티앙 비베스 | 임순정 옮김 | 2011년 | 208면 | A4변형 견장정 | 18,000원 **eBook**

여섯 살 소녀 폴리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발레를 배우는, 아직 〈꿈〉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는 앳된 꼬마다. 발레 아카데미 입단 테스트에서 보진스키 선생에게 픽업된 그녀는 혹독한 연습을 시작한다.

- 2012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2년 『dBD』 선정 〈최고의 그림상〉
- 2011년 프랑스 만화 전문 서점상
- 2011년 『르 푸앵』 선정 〈최고의 책 20권〉

사랑은 혈투 9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혜정 옮김 | 2011년 | 96면 | A5변형 연장정 | 9,800원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애틋한 순간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을 스케치로 표현한 작품. 한 커플의 기쁨과 좌절을 절묘하게 묘사하며 사랑에 울고 웃는 남녀의 생채기와 속살을 완벽히 재현한다.

초속 5000킬로미터 6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 2011년 | 148면 | B5변형 연장정 | 12,500원

이탈리아, 노르웨이, 이집트를 무대로 피에로와 루치아의 아스라한 사랑의 궤적을 섬세한 프레스코화로 재현한 만화다. 또한 새로운 사회 풍경이 어떻게 사랑과 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 2011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11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10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대상

곰 3

뱅상 소렐 | 김희진 옮김 | 2011년 | 128면 | B5변형 연장정 | 9,800원

만화가 뱅상 소렐의 국내 첫 출간작. 평범한 듯하면서도 비범한 만화로 산에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을 무심코 습격한 곰이 나무꾼의 옷과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마을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메즈 예게른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1915 ~1916 3

파올로 코시 | 이현경 옮김 | 2011년 | 144면 | B5변형 연장정 | 9,800원

터키에서 철저히 금기시되는 주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 관한 실상을 그린 만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단순한 흑백 그림과 담담한 문체로 비극의 참상을 절절하게 전달한다.

- 2009년 콩도르세 아롱상 출판 부문상

에식스 카운티 3

제프 르미어 | 박중서 옮김 | 2011년 | 512면 | B5변형 견장정 | 26,800원 **eBook**

캐나다 시골 마을인 에식스 카운티 사람들의 고독한 일상과 내면을 흑백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제프 르미어는 이 작품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만화가로 우뚝 섰다.

- 2010년 캐나다 리즈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소설 5권〉
- 2008년 미국 도서관 협회 앨릭스상
- 2008년 조 슈스터상 〈최고의 캐나다 만화가〉
- 2008년 더그 라이트상 〈최고의 신인〉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아스테리오스 폴립 11

데이비드 마추켈리 | 박중서 옮김 | 2010년 | 344면 | A4 견장정 | 26,800원

주인공 아스테리오스 폴립은 지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이것이 지나쳐 거만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그러던 어느 날,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의 집은 잿더미로 변한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의 생일이다.

- 2011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특별심사위원상
- 2011년 『dBD』 선정 〈최고의 외국만화상〉
- 2011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11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0년 「LA 타임스」 문학상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10년 『앵로쿼티블』 선정 〈최고의 만화〉
- 2010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가〉, 〈최고의 레터링〉
- 2010년 하비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레터링〉
- 2010년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09년 아마존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09년 반스앤노블 선정 〈최고의 소설 10권〉, 〈최고의 그래픽노블 5권〉
- 2009년 NPR 선정 〈최고의 책 5권〉, 〈최고의 그래픽노블 15권〉
- 2009년 AV 클럽 선정 〈2000년대 최고의 그래픽노블 25권〉
- 2009년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09년 「글로브 메일」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3권〉
- 2009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최고의 책 10권〉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116
Books

염소의 맛 17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혜정 옮김 | 2010년 | 144면 | B5 견장정 | 14,800원 **eBook**

바스티앙 비베스의 대표작으로 수영장에서 만난 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소녀에게 수영을 배우면서 점점 〈소녀와 수영〉 둘 다에 빠져드는 소년의 감정을 아름다우면서도 고독하게 표현했다.

- 2009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올해의 발견 작가상〉
- 2008년 제네바 만화상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스노우캣의 지우개 신판 5

스노우캣(권윤주) | 2009년 | 164면 | A5 견장정 | 13,800원

스노우캣의 개인적 관심사를 짤막하게 스케치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에 관한 깊은 사색과 심화된 자아 고찰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괴로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렸다.

뉴욕의 스노우캣 신판 8

스노우캣(권윤주) | 2007년 | 204면 | A5 견장정 | 13,800원 **eBook**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찾아낼 수 있는 뉴욕에서 스노우캣 역시 조금씩 변화한다. 스노우캣은 집 밖으로 나와 뉴욕, 특히 맨해튼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거리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파리의 스노우캣 신판

2

스노우캣(권윤주) | 2004년 | 176면 | A5 견장정 | 13,800원 **eBook**

혼자 놀기의 대가이자 카페 감식가인 스노우캣이 느낀 파리의 모습은 어떨까. 카페, 박물관, 서점, 공원, 거리, 프로방스 여행 등 저자가 4개월간 파리에서 체류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풀어낸 작품이다.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신판

19

스노우캣(권윤주) | 2001년 | 112면 | A5 견장정 | 12,800원

스노우캣은 무료한 일상생활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즐기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느낀 점들을 덤덤히 보여 준다.

아티스트 시리즈

쿠사마 야요이 강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엘리사 마첼라리 | 김희진 옮김 | 2021년 | 136면 | A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쿠사마 야요이는 1958년 뉴욕으로 건너갔고, 당시 뉴욕은 히피들이 가득한 도시, 미국의 정치적 선택과 베트남 전쟁에 대해 평화주의가 답으로 제시된 곳이었다. 쿠사마는 이러한 대안주의 운동의 여왕이 되었고, 일본인이자 여성으로서 예술적 지형도에서 중요한 지위를 획득했다. 자신을 두고 그녀는 말한다. 〈끝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 내가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앤디 워홀

타이펙스 | 김마림 옮김 | 2021년 | 564면 | B5변형 견장정 | 35,000원 **eBook**

앤디 워홀의 삶과 예술 세계를 10개의 챕터로 나눠서 소개하는 그래픽노블. 다양한 면을 가진 복잡한 인물이자 1980년대 슈퍼스타인 앤디 워홀의 삶이 화려하게 컬러별로 등장한다. 1930년대 피츠버그의 가난한 이민자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던 시절부터 1980년대 뉴욕의 유명인사가 되어 인기와 부를 향유하던 시절까지, 앤디의 삶을 그 시절의 환경과 분위기에 맞춰 그림 톤을 달리한 책은 마치 워홀의 내면만큼이나 다채롭고 화려하다.

116
Books

바스키아

파올로 파리시 | 김마림 옮김 | 2020년 | 136면 | A5변형 견장정 | 17,800원 **eBook**

뉴욕의 여기저기 벽에 낙서를 하던 거리 예술가에서 앤디 워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스타가 되기까지, 바스키아의 삶은 그가 만들어 낸 예술 작품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 1980년대 뉴욕을 철저히 조사하여 생생한 색상으로 재현한 이 그래픽노블은 우리를 바스키아의 숨 가쁜 인생의 여정으로 데려다준다.

프리다 칼로 전설이 된 예술가의 인생과 사랑

3

반나 빈치 | 이현경 옮김 | 2019년 | 160면 | B5변형 견장정 | 15,800원 **eBook**

멕시코 최고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엮은 책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의 예술혼과 무의식을 더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다. 프리다와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죽음〉이 함께 대화를 나누듯 구성하여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리다 칼로의 진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

●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우수 만화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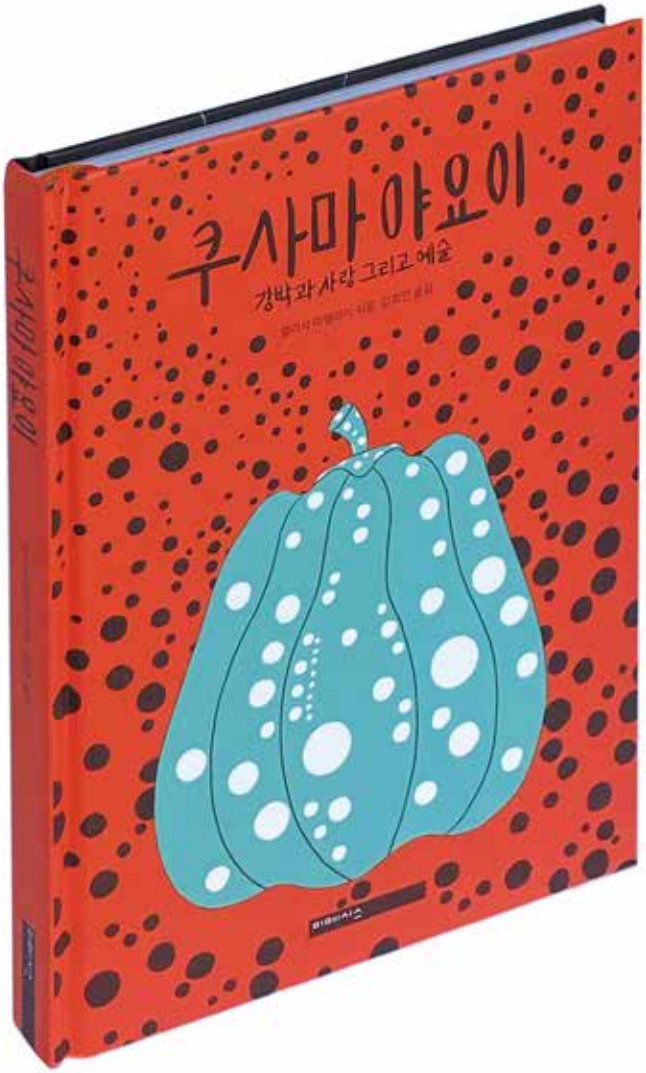
피카소

3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 임명주 옮김 | 2016년 | 364면 | B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처음 파리에 도착한 청년 시절부터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한 절정의 시기까지 피카소가 보낸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다. 유머러스한 인물 묘사뿐 아니라 뛰어난 이야기 구성이 돋보인다.

● 2017년 부천 국제 만화 축제 〈해외 작품상〉


쿠사마 야요이
강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미메시스

달리

보두앵 | 윤진 옮김 | 2014년 | 168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6,800원

일찍부터 그림 실력을 인정받은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예술의 도시〉 파리를 자신의 발아래에 두겠다는 청년 달리를 뒤쫓아, 결국에는 초현실주의의 대가로 살게 된 달리의 일대기를 그렸다.

반 고흐 13

바바라 스톡 | 이예원 옮김 | 2014년 | 144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3,800원 **eBook**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화가 반 고흐의 생애를 다룬 그래픽 전기이다. 작가는 반 고흐가 프랑스 남부에서 머물던 짧지만 강렬했던 〈아를〉 시기와 말년을 보낸 〈오베르〉로 우리를 데려간다.

뭉크 2

스테펜 크베넬란 | 권세훈 옮김 | 2014년 | 288면 | B4 견장정 | 22,000원 **eBook**

예술가 뭉크의 생애를 담은 그래픽노블. 만화 특유의 기법을 가미하여 뭉크의 어둡고 우울한 환경을 가볍고 비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만들었다. 뭉크의 실제 인생과 많이 닮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16
Books

소설 원작 시리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포그 | 나이스 캥 그림 | 김희진 옮김 | 2022년 | 144면 | B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프랑스와 한국에서 각각 30만 부 이상을 판매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고양이』를 그래픽노블로 옮긴 작품으로 주인공인 고양이의 시각에서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이야기다. 집사인 나탈리와 함께 파리에 사는 암고양이 바스테트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천재 샴고양이 피타고라스를 만난다. 한때 실험동물이었던 피타고라스에게서 인류와 고양이의 역사를 배우며 두 고양이가 점차 가까워지는 사이, 파리 시내는 테러가 빈발하는 불안한 상황이 되고 결국 내전이 일어난다.

버지니아 울프

리우바 가브리엘레 | 천지은 옮김 | 2022년 | 128면 | A5변형 견장정 | 16,800원 **eBook**

이탈리아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리우바 가브리엘레가 그래픽노블로 펼쳐 낸 버지니아 울프의 평전. 20세기 최고의 모더니즘 작가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80년이 넘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눈에 비친 버지니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닌 존재다. 페미니스트 아이콘에서부터 미친 여자,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문학 작가라는 타이틀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는 비타 색빌웨스트와 격정적인 관계를 즐기던 과감한 버지니아도 그려 내고 있다.

죄와 벌

바스티앙 루키아 지음 | 김희진 옮김 | 2021년 | 176면 | A4변형 견장정 | 18,800원 **eBook**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을 그래픽노블로 처음 각색한 작품. 바스티앙 루키아는 1866년 출간된 도스토옙스키의 걸작에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화자로 삼아 『죄와 벌』을 탁월하게 각색했다. 강렬한 색채와 생생한 선으로 이뤄진 장면들은 우리를 도스토옙스키적인 어둠의 심장부, 인간 영혼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돈키호테

롭 데이비스 | 김마림 옮김 | 2021년 | 296면 | B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4백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 의미와 재미, 진정한 〈고전〉 『돈키호테』를 그래픽노블로 읽다!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에 탐닉하다가 정신을 잃어 기사가 되겠다고 나선 한 엄숙한 미치광이와 순박하고 단순한 그의 종자가 만들어 낸 인간 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앵무새 죽이기

5

하퍼 리, 프레드 포드햄 | 이상원 옮김 | 2020년 | 288면 | B5변형 견장정 | 22,000원 **eBook**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그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스카우트와 항상 붙어 다니는 오빠 젬과 친구 딜, 변호사인 아빠 애티커스 핀치, 이웃에 사는 은둔자 부 래들리 등이 중심이 되

어 펼쳐지는 이야기는 출간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오르부아르

피에르 르메트르 | 크리스티앙 드 메테르 그림 | 임호경 옮김 | 2018년 | 176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6,800원

소설 『오르부아르』의 그래픽노블. 작가 피에르 르메트르는 6백여 페이지에 가까운 소설을 직접 압축하고 각색했고, 스무 권이 넘는 그래픽노블을 펴낸 만화가 크리스티앙 드 메테르가 그림으로 옮겼다.

이비쿠스

파스칼 라바테 | 이상해 옮김 | 2017년 | 536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25,000원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한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그래픽노블이다. 죽음과 증오가 일상적으로 퍼져 있던 한 시대의 혼란을 배경으로 기회주의자 시메온 네프조로프의 삶을 그렸다.

- 1999년 제네바 만화상
- 2000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116

Books

콩고 조지프 콘래드의 암흑 같은 이야기

크리스티앙 페리생 | 톰 티라보스코 그림 | 양영란 옮김 | 2016년 | 184면 | B5변형 견장정 | 16,800원 **eBook**

조지프 콘래드의 『어둠의 심연』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의 그래픽노블로 암흑의 핵심을 파헤치는 주인공 〈말로〉, 즉 조지프 콘래드의 눈으로 콩고를 바라본다. 역사적 인물을 주로 다루는 만화 시나리오 작가인 크리스티앙 페리생이 글을 쓰고, 만화가인 톰 티라보스코가 목탄을 이용해 아프리카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콩고』는 거대하며 길고 긴 매혹적인 뱀 같은 콩고로 떠나는 콘래드의 뒷모습부터 시작해 그가 마음과 몸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자살 특공대 피자 가게

에트가르 케레트 | 아사프 하누카 그림 | 이원경 옮김 | 2015년 | 104면 | AB판변형 견장정 | 13,800원

이스라엘의 인기 작가 에트가르 케레트의 소설을 그래픽노블로 재탄생시킨 『자살 특공대 피자 가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독특한 소재를 현실감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모르디〉가 자살한 날부터 시작한다. 땅에 묻힌 다음 날, 그는 자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후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는다. 이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이승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자살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엘제 양 2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 2011년 | 88면 | B5변형 연장정 | 12,500원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어 슈니츨러의 단편을 유려하고 섬세한 수채화로 재현한 작품. 엘제는 휴가를 즐기러 이모 엠마, 사촌 파울과 함께 호텔에 머물고 있다. 이때 엘제에게 예상 밖의 전갈이 날아온다.

- 2009년 제네바 만화상

BERNARD WERBER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재윤의 삶

3

정재윤 | 2019년 | 144면 | A5신 견장정 | 13,800원 **eBook**

●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우수 만화 도서〉

스트리트 페인터

2

수신지 | 2016년 | 536면 | B6변형 연장정 | 14,800원

내 친구 다머

더프 백더프 | 강수정 옮김 | 2015년 | 224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6,800원

● 2014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올해의 발견 작가상〉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유디트 바니스텐달 | 이원경 옮김 | 2013년 | 280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16,800원

● 2012년 『보도이』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 2012년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올해 최고의 그래픽노블〉

그해 여름

다비데 레비아티 | 임순정 옮김 | 2012년 | 352면 | B5변형 견장정 | 19,800원

● 2012년 프랑스 만화 잡지 『dBD』 선정 〈최고의 해외 만화상〉

● 2011년 벨기에 디아고날 선정 〈최고의 해외 만화상〉

● 2010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최고의 만화〉 대상

● 2009년 로마 로믹스 페스티벌 〈최고의 이탈리아 만화상〉

116

Books

너 좋아한 적 없어

2

체스터 브라운 | 김영준 옮김 | 2012년 | 196면 | A5신 견장정 | 13,000원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만화책〉

이탈리아 일기 1

다비드 베 | 임미경 옮김 | 2011년 | 160면 | B5변형 견장정 | 13,000원

강의 왕

마리노 네리 | 이현경 옮김 | 2010년 | 80면 | B5 연장정 | 6,800원

● 2007년 코미카첸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레제르

레제르 | 최영선, 이재형 옮김 | 2007년 | 전2권 | 각 248면, 308면 | 규격외 견장정 | 각 18,000원, 22,000원

최악의 동반자 1 1783~1953

장피에르 필리유 | 다비드 베 그림 | 임순정 옮김 | 2013년 | 128면 | B5변형 연장정 | 14,800원

유리의 도시

3

폴 오스터 원작 | 폴 카라식 글 | 데이비드 마추켈리 그림 | 황보석 옮김 | 2011년 | 152면 | B5변형 견장정 | 10,800원

미치광이 사촌들

에드워드 고리 | 박수진 옮김 | 2007년 | 32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독이 든 사탕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7년 | 56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비밀 다락방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7년 | 124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오래전의 방문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7년 | 64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윌로데일 핸드카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6년 | 64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이상한 소파
에드워드 고리 | 윤희기 옮김 | 2006년 | 64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불운한 아이
에드워드 고리 | 이형식 옮김 | 2006년 | 64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쓸모 있는 조언
에드워드 고리 | 이형식 옮김 | 2006년 | 64면 | A5변형 견장정 | 6,500원

Art

미메시스 예술서

57
Books

Reality, No Reality

리아킴 | 2020년 | 460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audioBook**

세계적 안무가 리아 킴의 첫 포토북. 유튜브 조회 수 35억 건, 구독자 2천 만 명을 거느린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그곳을 대표하는 리아 킴은 안무가로서 뿐만 아니라 비주얼 디렉터로서의 감각을 〈Reality〉와 〈No Reality〉로 나눠 유감없이 드러낸다.

문래 금속가공 공장들의 문장 디자인

강수경 | 2020년 | 408면 | B6변형 연장정 | 16,800원

서울 영등포 문래동의 기계금속가공 공장들이 수십 년간 다져 온 자신들의 흔적과 삶의 방식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또한 문래동으로 들어가 새 둥지를 틀게 된 시각 예술가들이 디자인으로 해석한 기계와 금속가공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

2

박은영, 이상필 | 2019년 | 432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2,000원

전국의 예술적 영감을 일으키는 공간 15곳의 예술 교육 및 전시 공간을 직접 방문한 인터뷰집. 서울, 춘천, 영주, 청주,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문화예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하고 그곳에서 만난 기획자, 실무자, 이용자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각각의 공간이 가지는 교육적, 공간적 차원에서 고유의 특색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큐레이팅을 말하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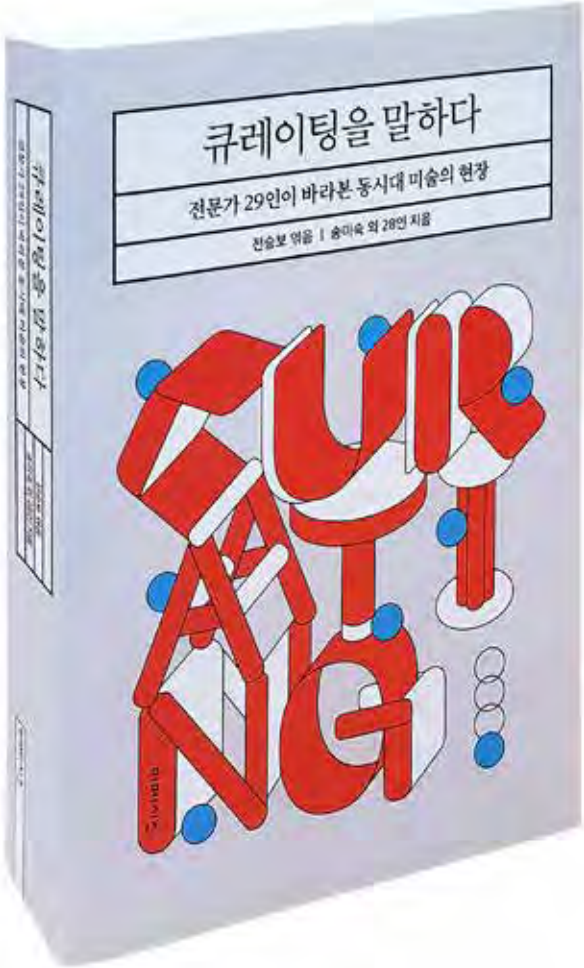
반이정, 전승보 외 | 2019년 | 448면 | B6변형 연장정 | 22,000원

미술 전문가 29인이 한자리에 모여 큐레이팅과 동시대 미술 현장을 다루는 책이다. 국내 큐레이터 제1세대 선배부터 최근 활약이 돋보이는 신진 독립 큐레이터뿐 아니라 미술 비평가,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학과 교수 등 〈큐레이팅〉에 대해 애정과 비판을 저마다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큐레이터가 알아야 할 업무 전반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박찬용: 조각가로 산다는 것

박찬용 | 2018년 | 20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0,000원

〈투견〉과 〈박제〉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는 조각가 박찬용의 예술 세계,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작품 비평까지 한곳에 모은 예술서이다. 박찬용이 작업을 시작한


큐레이팅을 말하다
전문가 29인이 바라본 동시대 미술의 현장
진솔보 엮음 | 송미숙 외 28인 지음
CURATING
미메시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작품을 수록하였으며 권력, 욕망, 폭력, 지배 등의 개념을 통해 인간을 바라본 박찬용의 시각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물 그리고 사람 3

손정민 | 2018년 | 176면 | A5변형 견장정 | 15,800원

일러스트레이터 손정민이 평소 아끼는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던 궁금한 사람들을 그리고 글로 묶은 책이다. 그리고 그들과 닮았거나 혹은 연상이 되는 식물들을 같이 그린 인터뷰 책이자 식물 화집이기도 하다.

미술을 알아야 산다 4차 산업 혁명의 전제 2

정장진 | 2018년 | 432면 | B6변형 연장정 | 22,000원

문화 산업이라는 무서운 세계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 특히 미술을 알아야 사는 시대가 왔다.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 논리와 문화와 미술의 접점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한국 동시대 미술 1998–2009 3

반이정 | 2018년 | 560면 | B6변형 연장정 | 25,000원

현장에서 밀접하게 한국 미술의 현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미술 평론가 반이정이 2000년 전후의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 중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12년에 집중한 미술사를 펴냈다.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

이광래 | 2017년 | 624면 | A5신변형 연장정 | 29,800원

예술 역사 속 파타피지컬리스트를 찾아가는 상호 통섭주의 실험서이다. 미술과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수많은 작가의 통섭적 영향력이 현시대에까지 이어지고 회자되는 이유를 연구하고 밝힌다.

한국의 촬영 감독들: 21인과의 인터뷰 4

(사)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 2016년 | 49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8,000원

한국을 대표하는 21인의 촬영 감독과 28편의 영화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한국 영화 촬영 감독 조합에서 2014~2015년 개봉작 중 촬영이 우수한 영화를 선별해 그 촬영 감독을 만나 주고받은 문답이다.

디자인의 예술 2

도미니크 포레스트 외 6인 | 문경자, 이원경, 임명주 옮김 | 2016년 | 928면 | 크라운판변형 견장정 | 58,000원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산업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을 역사와 같은 자리에 배치하고 이야기를 펼친다. 이 방대한 작업은 650여 장의 사진 자료로 더욱 풍부해졌다.

57
Books

L'ART DU
DESIGN
〈디자인의 예술〉
L'ART DU
DESIGN
〈디자인의 예술〉

제여란: 그리기에 관하여

제여란 | 2017년 | 21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0,000원

30여 년간 붓이 아닌 스퀴지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그리기를 완성해 온 화가 제여란의 작품집. 추상 회화와 구상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태가 없는 형태를 자아내는 제여란의 회화들을 엮었으며 큐레이터와의 대화뿐 아니라 미술 평론가들의 비평도 함께 수록하였다.

피카소의 파리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네빌 로울리 | 임명주 옮김 | 2016년 | 144면 | B5변형 견장정 | 14,800원 **eBook**

피카소가 파리에서 화가 생활을 시작했던 1900년 전후의 거리와 장소, 인물들을 따라가며 그 배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래픽노블 『피카소』의 에피소드들과 함께 배치해 재미를 더한다.

광고로 읽는 미술사 6

정장진 | 2016년 | 34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6,800원

정통 미술사와 달리 현대 광고를 내세워 그 속에 함축된 미술과 역사를 풀어낸 책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 오늘날의 제프 쿤스로 마무리되는 각 장마다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미술사를 다룬다.

예술 판독기 2

반이정 | 2016년 | 360면 | B6변형 연장정 | 22,000원

미술 평론가 반이정이 영화 잡지에 5년간 연재한 글을 엮은 책. 〈예술의 조건〉,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하는 기준〉 등을 다루며 문화계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문화의 범주로 끌어들여 예술을 비평한다.

미술 철학사

이광래 | 2016년 | 전3권 | 각 992, 832, 832면 | A5신변형 연장정 | 각 28,000원

르네상스 이후부터 미술의 종말이 언급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술사를 욕망의 계보학으로 정리하고, 시대마다 미술가들이 시도한 욕망의 가로지르기가 성공한 까닭에 대하여 통섭적으로 탐색한다.

데일리 픽션 2

노상호 | 2015년 | 248면 | B6변형 견장정 | 17,000원

작가 노상호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일상의 모습을 촬영해 보관해 둔다. 시간이 지나 현실의 사건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미지를 허구의 이야기와 엮는 작업을 한다.

57
Books

Art

프린트 & 패턴 키즈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 2015년 | 30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9,800원

프린트와 패턴을 사랑하는 전 세계 마니아들을 위해 특별히 예쁘고 귀여운 아동용만 따로 묶어 소개하는 디자인 책.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디자인을 만든 1백여 명의 디자이너와 작품을 선정하여 보여 준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링북

9

오연경 | 2015년 | 112면 | B6 연장정 | 7,500원

오연경의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속 그림들을 난이도별로 묶은 컬러링북이다. 부담 없는 가격에 휴대성을 높인 콤팩트한 크기, 3단계의 컬러링 난이도 등 독자들을 배려한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일본의 제품 디자인

4

나오미 폴록 | 곽재은 옮김 | 2014년 | 30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8,000원

일본의 생활 속 디자인 중 뛰어난 제품 100개를 선별하여 디자이너와 함께 그 제품을 소개한다. 미국 태생의 건축가인 저자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본 건축과 디자인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5

오연경 | 2014년 | 496면 | A5변형 연장정 | 20,000원

7백여 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일러스트 에세이로 수집광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오연경의 컬렉션을 그녀 특유의 섬세함으로 엮었다. 그림으로 표현한 물건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풀어낸다.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아이웨이웨이 | 리 앵브로지 엮음 | 오숙은 옮김 | 2014년 | 520면 | B6변형 연장정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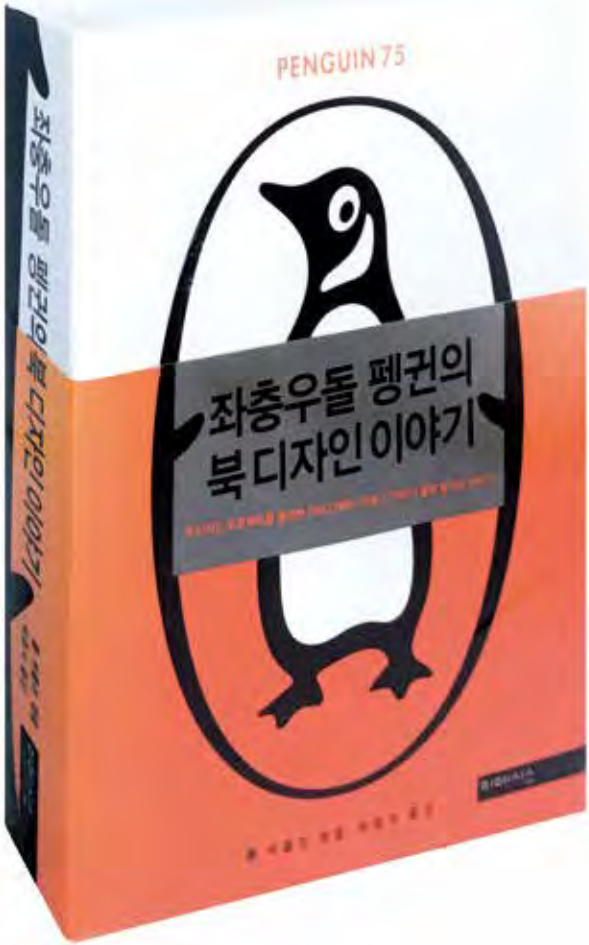
중국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통쾌한 언어의 집합 즉 〈아이웨이웨이의 블로그〉는 그가 말한 것처럼 중국에 꼭 필요한 선물이자 거대한 변화를 위한 시발점이다.

왜 책을 만드는가? 맥스위니스 사람들의 출판 이야기

맥스위니스 편집부 | 박중서, 곽재은 옮김 | 2014년 | 40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6,800원

이 책은 『맥스위니스』 제1호부터 제31호까지 당시 각 호의 간행물과 단행본을 만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맛보았는지에 대해 직접 들려준다.

57
Books


PENGUIN 75
좌충우돌 펭귄의
북 디자인 이야기
좌충우돌 펭귄의 북디자인이야기

에펠 스타일

마르틴 뱅상, 브리지트 뒤리외 | 배영란 옮김 | 2014년 | 280면 | B5변형 연장정 | 26,000원

철골 레이스, 철골 구조, 유리의 사용, 조립식 설계, 격자무늬, 나선형 계단 등 에펠탑 요소들이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낸 과정과 건축, 미술, 사진, 패션 등 예술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다룬 책이다.

그래픽 모비 딕

맷 키시 | 강수정 옮김 | 2013년 | 608면 | 크라운판 연장정 | 32,000원

예술가 맷 키시는 허먼 멜빌의 552페이지의 페이퍼백에서 한 페이지당 한 구절을 발췌해 18개월 동안 하루에 한 이미지씩 그려 나가 책으로 완성했다. 그는 볼펜, 마커, 페인트, 크레용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했다.

프린트 & 패턴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 2013년 | 62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35,000원

다양한 색깔의 깜찍하고 현대적인 직물, 카드, 포장용품, 문구, 벽지, 식기 등 거의 모든 물건의 디자인을 포괄하는 이 책은 프린트 패턴과 모티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57
Books

좌충우돌 펭귄의 북 디자인 이야기

3

폴 버클리 엮음 | 박중서 옮김 | 2012년 | 376면 | B5변형 연장정 | 24,000원

펭귄 북스의 아트 디렉터 폴 버클리와 그의 팀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리얼한 〈북 디자인〉 이야기. 최근 작업했던 디자인 중 75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그 속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담았다.

엮임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 대학원 | 2012년 | 548면 | B5변형 연장정 | 9,800원

이화여대 시각디자인과 대학원 과정 중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VERSUS〉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한 한 한기 수업의 결과물 모음집이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재미있는 개념 대결이 흥미롭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거장들

데이비드 다운턴 | 안진이 옮김 | 2012년 | 224면 | A4변형 견장정 | 28,000원

사진이 널리 보급되기 전인 20세기 초는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일러스트레이션이 장식하던 시절이었다. 이 책은 그 시절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아름답게 추억한다.

초현실주의 선언 5

앙드레 브르통 | 황현산 옮김 | 2012년 | 29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8,000원

장자크 포베르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은 공식 한국어판. 황현산 교수의 정교한 번역과 방대한 주석으로 20세기 세계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도구를 갖춘 책이다.

위대한 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폴라 마린콜라 엮음 | 조주현 옮김 | 2011년 | 25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6,000원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기획자들은 항상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기관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더 많은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는 전시를 선사하고자 고심한다.

아이웨이웨이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 윤길순 옮김 | 2011년 | 288면 | B6 연장정 | 9,800원

저자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 문화인으로 꼽히는 아이웨이웨이와 몇 년에 걸쳐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미술가로서의 삶과 작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파스타의 기하학 7

제이콥 케네디 | 카즈 힐드브란드 디자인 | 차유진 옮김 | 2011년 | 288면 | B5변형 견장정 | 18,000원

셰프 제이콥 케네디가 엄선한 1백 가지 이상의 레시피와 디자이너 카즈 힐드브란드의 멋진 흑백 디자인이 어우러져 이탈리아 전역의 파스타 모양에 숨겨진 과학과 역사, 철학을 보여 주는 책.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 4

다니엘 지라르댕, 크리스티앙 피르케르 | 정진국 옮김 | 2011년 | 320면 | A3 견장정 | 39,000원

저작권과 초상권, 아동 나체, 포르노, 작가의 윤리,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란 등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진 73점 이야기를 다룬다. 그 이면에 놓인 논쟁은 뜨겁고 충격적이다.

● 2008년 아르퀴리알 현대 예술서상

앤디 워홀 일기 4

앤디 워홀 | 팻 해켓 엮음 | 홍예빈 옮김 | 2009년 | 980면 | 규격외 연장정 | 45,000원

팝 아트 운동의 선구자로 예술과 문화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했던 앤디 워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는 책.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개인적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상세하게 전한다.

● 2009년 『한국일보』 선정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 편집상

나를 디자인하라 11

카림 라시드 | 이종인 옮김 | 2008년 | 312면 | B5변형 연장정 | 16,800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과 삶의 철학을 담은 책. 그의 지침은 독창적이고 섬세하며, 무엇보다 매우 단순하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은 없애고, 그 시간에 생각, 창조, 사랑, 꿈의 실현에 힘 쏟도록 하는 것이 〈잘 디자인된 인생〉이다.

앤디 워홀의 철학 신판 12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 2007년 | 288면 | 규격외 연장정 | 15,000원

앤디 워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1970년대 중반 발표된 자전 에세이. 이 책에서 워홀은 예술계의 거장이라기보다는 자기 삶과 일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끊임없이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인물로 그려진다.

뮤지컬 기획, 제작, 공연의 모든 것 7

스티븐 시트론 | 정재왈·정명주 옮김 | 2007년 | 416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8,000원

일반적으로 뮤지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유명한 뮤지컬 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 작사가, 연출가, 제작자, 배우, 관객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생생한 지식들이 가득하다.

세계 영화 대사전 12

제프리 노웰 스미스 외 | 이순호 외 옮김 | 2005년 | 1000면 | B5변형 연장정 | 32,000원

이 책은 세계 영화의 역사를 백과사전 형식으로 기록한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의 신판으로, 1895년 무성영화 시절부터 1995년 현대 영화까지 100년의 방대한 영화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아트마켓 크리틱

정연심 외 8인 | 2016년 | 240면 | A5신변형 연장정 | 18,000원

누드 사진 예술과 기법

파스칼 바텐스 | 김문호 옮김 | 2010년 | 256면 | A4 견장정 | 15,200원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영범 | 2009년 | 376면 | 규격외 연장정 | 18,000원

한국의 예술 지원사

류주희 외 | 2009년 | 392면 | B5변형 견장정 | 15,000원

57
Books

Art

공공성 2

현진권 외 | 2008년 | 300면 | A5신 견장정 | 12,000원

지역 예술 운동

잰 코언-크루즈 | 권영진 옮김 | 2008년 | 328면 | A5신 견장정 | 12,000원

예술가의 몸

아멜리아 존스 | 심철웅 옮김 | 2007년 | 304면 | 규격외 견장정 | 20,400원

미술과 페미니즘

헬레나 레킷 | 페기 펠런 | 오숙은 옮김 | 2007년 | 304면 | 규격외 견장정 | 20,400원

예술사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구트 | 정장진 옮김 | 2007년 | 28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2,000원

● 2007년 문화 관광부 교양 도서

말의 색채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말하는 나의 영화들

마르그리트 뒤라스 | 유지나 옮김 | 2006년 | 264면 | B5변형 연장정 | 15,000원Z

섹슈얼리 이노선트

김중만 | 2006년 | 112면 | B4변형 견장정 | 15,000원

성서의 역사

크리스토퍼 드 하멜 | 이종인 옮김 | 2006년 | 352면 | A5변형 견장정 | 13,500원

제로

마쓰다 유키마사 | 고현진 옮김 | 2006년 | 288면 | A5변형 견장정 | 18,000원

스탁 3

콘웨이 로이드 모건 | 오숙은 옮김 | 2005년 | 240면 | 규격외 연장정 | 25,000원

가구의 책

우치다 시게루 | 고현진 옮김 | 2005년 | 280면 | 규격외 연장정 | 18,000원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카림 라시드 | 김승욱 옮김 | 2005년 | 252면 | A4 견장정 | 35,000원

Literature

미메시스 문학

40
Books

3분의 행복

강석호 | 2023년 | 264면 | A5변형 견장정 | 28,000원

〈다른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오래 쳐다보는 습관을 통해 포착한 이미지〉를 그렸던 회화 작가 강석호의 글과 그림을 함께 모은 에세이집이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강석호는 회화 작품만큼이나 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에 모은 글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으며, 일기도 있다. 특히 그의 글에는 〈내어쓰기〉나 〈들여쓰기〉가 거의 없다. 글을 계속 따라서 읽다 보면 마치 그의 어깨 너머에서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듯 시선과 감정이 함께 움직인다.

유령 이야기

기 드 모파상, 오스카 와일드 외 | 세레넬라 콰렐로 엮음 | 마우리치오 콰렐로 그림 | 2022년 | 136면 | B6변형 견장정 | 12,800원 **eBook**

「캔터빌의 유령」 같이 잘 알려진 작품부터 「신비한 상자」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까지 총 여덟 편의 단편을 각색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책이다. 유령과 귀신, 기괴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괴담이라는 것 외에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적 주제는 없지만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 진실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전형적인 호러물 사이에 코믹한 느낌의 독특한 단편들이 섞여 있어 공포 이야기의 다양한 면면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렌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 김수현 옮김 | 2021년 | 256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전대미문의 대여 서비스를 다룬 책. 이 책은 SNS에 올린 짧은 글로 시작해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다큐멘터리로, 책으로, 만화로, TV 드라마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빌려주는 신종 대여 이야기다.

상페의 음악

3

양영란 옮김 | 2020년 | 232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의 라디오를 통해서 몰래 폴 미스라키를 듣고 난 후부터, 장 자크 상페가 드뷔시의 「달빛」 때문에 〈돌연 미쳐 버린〉 후부터, 그가 듀크 엘링턴과 〈정신없이 사랑에 빠진〉 후부터, 그가 보르도에서 매주 드나들었던 청소년 선도 회관의 피아노 앞에 앉아 거슈윈의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성공적으로 연주하고 난 후부터, 소년 상페는 자신의 인생을 꿈꾼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김수현 옮김
DIDIMIAS

하찮은 취향

김기열 | 2020년 | 200면 | B6변형 견장정 | 16,800원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GQ』의 전 아트 디렉터인 김기열이 들려주는 하찮지만 소중한 취향과 그 물건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단순한 물건 디자인뿐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제작한 참신한 폰트와 제품 디자인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디자인 전공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오늘의 퀴즈 아들, 너랑 노니까 너무 좋다. 진짜!

3

유세윤, 유민하 | 2019년 | 320면 | B6 연장정 | 12,000원 eBook

개그맨이자 한 아이의 아빠인 유세윤이 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만들었다. 『오늘의 퀴즈』는 아빠가 질문을 하고 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유세윤 부자만의 즐거운 〈사적〉 놀이를 엮은 책이다. 첫 시작은 일기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들에게 〈색다른 일기이자 재미난 놀이를 같이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였다.

꿈라밸 지금을 고민하는 나에게

2

유정민 | 2019년 | 30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Book

대한민국의 30대이자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갈고 닦아 나가고 있는 여성의 6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액세서리 브랜드 더 고보 대표 고보람, 베이커리 미림당 대표 윤선혜, 브랜드 마케터 이홍안, 디자인그룹 이나피스퀘어 대표 박인아, 양말 브랜드 삭스어필 대표 유정민, 베이커리 글래머러스펭귄 대표 유민주, 자신만의 행복과 꿈을 만들어 가는 이 30대 여성 여섯의 커리어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일러스트와 함께 엿본다.

지금, 여기, 프랑스

김선미 | | 2019년 | 368면 | B5변형 연장정 | 14,800원

수년간의 프랑스 취재 경험뿐 아니라 실제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겪은 현재의 프랑스 분위기를 날카롭게 지켜보며 글을 풀어낸다. 만 아홉 살과 세 살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유학길이기에 엄마로서 느끼는 프랑스의 교육과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도 쏠쏠하다.

아무도 없는 숲 테이크아웃 20

김이환, 박혜미 | | 2018년 | 96면 | A6변형 연장정 | 8,800원 eBook

사고로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에 죽음을 찾아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여자가 주인공인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 맞닥뜨리는 예기치 않은 복잡한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결심한 인간의 양면성을 사실적인 시공간 안에서 조명했다.

부케를 발견했다 테이크아웃 19

최정화, 이빈소연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생물학자 동료의 별장에 머무르며 〈부케이〉라는 벌레에 흠뻑 빠져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자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남

40
Books

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지만 금방이라도 한순간에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드러난다.

이코 테이크아웃 18

정용준, 무나씨 | 2018년 | 96면 | A6변형 연장정 | 8,800원 **eBook | audioBook**

인간의 몸과 병 그리고 한계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 정용준은 틱 장애를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신뢰하지 못한 채 숨어 말의 문을 닫아 버린 청년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있다.

목격 테이크아웃 17

김엄지, 람한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작가는 모두의 앞에서 사라져 버린 Y를 만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Y를 만나러 가는 길부터 헤어진 뒤 방에 도착하는 동안의 나의 시간과 시선, 그리고 Y의 알 수 없는 독백을 되새김하는 감각이 담겨 있다.

꿈은, 미니멀리즘 테이크아웃 16

은모든, 아방 | 2018년 | 88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 audioBook**

현대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리듬감 있는 인물 표현과 재치 있는 묘사로 독자에게 기대감을 선사하는 은모든은 이번엔 미니멀리즘을 꿈꾸며 자신의 집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회사원 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목견 테이크아웃 15

임현, 김혜리 | 2018년 | 72면 | A6변형 연장정 | 6,800원 **eBook | audioBook**

인간의 관성, 습관, 상식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 임현은 이번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를 둔 한 남자의 목소리를 창조해 고정 관념을 지닌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보여 준다.

끓인 콩의 도시에서 테이크아웃 14

한유주, 오혜진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소설가인 〈나〉가 벵갈루루 공항에 도착 후 그 공항을 떠날 때까지 며칠간의 풍경을 담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바깥 소설 속 풍경이 안쪽 소설로 스며들고 그 반대로 안쪽 소설의 단어 하나가 바깥 소설의 일부가 된다.

팬텀 이미지 테이크아웃 13

정지돈, 최지수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서울의 주재원이었던 실제 인물인 다나카의 배경에서 출발된 이 소설은 그 인물과 이어진 또 다른 인물에게서 끊임없이 파생되고 중첩되고 솟아나는 이야기로 가득 찬다. 20세기 경주의 한 호텔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 현재 경주로 이어진다.

문학의 새로운 세대 테이크아웃 12

손아람, 성립 | 2018년 | 88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 audioBook**

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고민하고 글로 써내는 작가 손아람이 이번에는 한 신문사의 신춘문예 수상작을 고르는 과정 속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담았다. 사람들의 어긋난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미묘한 갈등과 욕망이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몫 테이크아웃 11

6

최은영, 손은경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 audioBook**

학교 신문 편집부에서 만난 희영과 나 그리고 정윤. 글 쓰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녀들의 성장 과정이 각자 지어가는 삶의 단편적인 모습과 함께 배치된다. 쓰인 것보다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더 소중한 그녀들의 이야기가 초록으로 형상화된다.

비상문 테이크아웃 10

6

최진영, 변영근 | 2018년 | 88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작가 최진영은 동생을 잃은 형을 화자로 내세웠다. 자살해 버린 동생이 살아야 했던 이유를 찾아보지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형의 섧고 애석한 한숨은 변영근의 풍경화 속에서 퍼져 나간다.

40
Books

사랑하는 토끼 머리에게 테이크아웃 09

오한기, 이소냐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완전한 토끼가 되기 위해 온갖 견제를 물리치고 토끼 몸을 찾아다니는 주인공 〈토끼 머리〉는 잔혹함과 귀여움이 마블링처럼 공존하는 소냐리의 그림과 어우러져 이상야릇한 세계로 독자를 부른다.

부산 이후부터 테이크아웃 08

황현진, 신모래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 audioBook**

장남인 태식의 시선을 따라 구태식네 애달픈 가족사가 이어진다. 어떤 것이 결핍인지도 모른 채 각자 성실히 살아온 가족들 각각의 이야기는 부산 수영구청 근처 고갯마루의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서 하나로 모인다.

뷰티-풀 테이크아웃 07

박민정, 유지현 | 2018년 | 76면 | A6변형 연장정 | 6,800원 **eBook**

〈나〉는 20년 전의 첫사랑의 기억을 술집 〈뷰티-풀〉에서 얼떨결에 마주하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선명하게 떠오르며 이어지는 기억의 조각조각을 천천히 주워섬기게 된다. 그리고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듯 이야기는 겹겹이 쌓인다.

정선 테이크아웃 06

최은미, 최지욱 | 2018년 | 72면 | A6변형 연장정 | 6,800원 **eBook**

〈정선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본 〈나〉는 운명처럼 이끌리듯 엄마의 이름과 같은 고향 도시 정선으로 간다. 비극 속으로 처연하게 걸어들어 가는 〈나〉의 모습은 태연한 주변의 상황과 대비를 이루며 더욱 날카롭고 선명해진다.

우리는 사랑했다 테이크아웃 05

강화길, 키미앤일이 | 2018년 | 88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길었던 죽음의 과정 이후 우리의 영혼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꿈같은 이야기 속 슬픔을 간직한 차가운 영혼인 〈나〉는 키미앤일이의 무심한 듯 자상한 이미지들과 함께 형광 그린의 컬러로 표현되었다.

밤이 아홉이라도 테이크아웃 04

전석순, 훗한나 | 2018년 | 148면 | A6변형 연장정 | 9,800원 **eBook**

표준 감정에서 벗어나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근근이 삶은 이어 가는 보호 관찰 대상자인 〈나〉는 불안함 감정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삶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나는 방이 빼곡한 빌라를 철거하는 일을 맡게 된다.

우리집 강아지 테이크아웃 03

김학찬, 권신홍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 audioBook**

동생 괴롭히는 맛에 사는 형 그리고 형과 절대 엮이고 싶지 소심한 동생인 〈나〉. 집 나간 지 꽤 되어 영 안 볼 줄 알았던 형이 어느 날 내 침대에 누워서 나를 부른다. 「야, 형 안 반가워?」 이 형제의 억울한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춤추는 사신 테이크아웃 02

배명훈, 노상호 | 2018년 | 80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소설가 배명훈은 우주 속 어느 멸망하는 작은 나라의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에 사신(使臣)을 등장시킨다. 알 수 없는 차원의 인물로 나타난 사신이 구사하는 언어는 말도, 문자도 아닌 침묵 속의 기묘한 몸짓이었다.

섬의 애슐리 테이크아웃 01

5

정세랑, 한예롤 | 2018년 | 96면 | A6변형 연장정 | 7,800원 **eBook | audioBook**

가슴에 조악한 코코넛 껍질을 단 채 관광을 온 본토 사람들 앞에서 전통 춤을 추며 생계를 유지하던 단조로운 애슐리의 삶이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오리엔탈리즘을 대변하고 비극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버린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 3

임수민 | 2018년 | 424면 | B6변형 연장정 | 14,800원 **eBook**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임수민이 5개월 동안 작은 요트로 태평양을 건너며 선상 생활과 순간순간 떠오른 생각을 글, 그림, 사진으로 기록한 책이다. 무작정 파나마에서 출발하여 10여 개의 섬을 거쳐 부산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일기 형식으로 담겨 있다.

나를 발견한 순간

제프 베스파, 로빈 브론크 | 김마림 옮김 | 2017년 | 224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1백 명의 인물 사진과 그들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담은 포토 에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우로서,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삶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기억하고 서술한다.

내가 말해 줄게요 10

강주은 | 2017년 | 416면 | A5신판 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 audioBook**

방송인 강주은의 인생과 결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인터뷰집이다. 그녀의 남다른 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이 인터뷰는 남편, 부모, 아이들과 나눴던 소통의 순간들을 공유한다.

40
Books

온라인 걸, 투어를 떠나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 2017년 | 480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의 후속 작품이지만 별도의 연애 소설로 읽기에 충분하다. 주인공 페니가 떠오르는 록스타이자 남자 친구인 노아의 콘서트 투어에 따라나서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렸다.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 2017년 | 492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유튜브 스타 조엘라의 소설 데뷔작.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하고 빠른 전개, 10~20대 독자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소재, 독특한 문체와 탄탄한 구조, 명확한 주제 의식을 갖춘 소설로 인정받았다.

모터사이클로 유라시아 2

손현 | 2016년 | 496면 | B6변형 연장정 | 15,800원 **eBook**

30세를 갓 넘긴 한 청년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간 모터사이클 여행을 시작한다. 동해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러시아 대륙의 끝없는 지평선과 길 위의 사람들을 기록하였다.

Literature

시호와 러스티 3

백수현 | 2016년 | 240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세 살 여자아이 시호와 반려견 러스티가 만들어 가는 행복한 일상을 담은 사진 에세이. 한 여성이 반려견 러스티와 함께 갓 태어난 아기 시호를 키우는 2년여 동안의 일기를 일상 사진들과 함께 엮었다.

싱글로 산다

리즈 투칠로 | 김마림 옮김 | 2016년 | 632면 | B6변형 연장정 | 14,800원

「섹스 앤 더 시티」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의 작가 리즈 투칠로의 첫 장편소설. 8개국을 다니며 직접 인터뷰한 싱글 남녀의 심리를 솔직하고 유머러스하며 섬세하게 담아낸 칙릿 여행 소설이다.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 2

알베르 카뮈 | 호세 무뇨스 그림 | 김화영 옮김 | 2014년 | 400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14,800원

카뮈의 『최초의 인간』 출간 2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기획한 특별판. 작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묻혔던 소설을 흑백 일러스트의 거장 호세 무뇨스의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상페의 어린 시절 6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 2014년 | 288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따뜻한 화풍과 재치 있는 유머로 인간의 삶을 경쾌하게 그려 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삽화가 장자크 상페. 이 책은 그가 회상하는 유년기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는 인터뷰집이다.

짝 이룬 남녀는 서로 사랑한다

프레데릭 파작 | 레아 룬트 그림 | 정혜용 옮김 | 2013년 | 388면 | A5변형 연장정 | 13,800원

프랑스의 작가이자 화가인 프레데릭 파작과 스위스의 아티스트이자 파작의 부인인 레아 룬트의 드로잉 에세이집. 이 30년차 부부는 사진과 영화, 출판 등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같이 작업해 왔다.

뉴욕의 상페 8

장자크 상페 | 허지은 옮김 | 2012년 | 334면 | 크라운판변형 연장정 | 24,000원 **eBook**

그림 작가들에게는 명예의 전당이나 다름없는 『뉴요커』의 표지를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이상 장식해 온 상페의 그림 150여 점이 수록됐다. 내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일화를 담은 인터뷰도 실렸다.

Humanities · How-to

미메시스 인문·실용

15
Books

아는 척에 딱 좋은 단위, 원소, 수식

나이스크 | 위정훈 옮김 | 2019년 | 360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eBook

우리에게 두고두고 평생 지식이 될 단위, 원소, 수식을 한자리에 모은 기초 수학책이자 교양 과학책.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한 페이지에 하나씩 그림과 함께 구성했다. 일찌감치 수학과 과학을 포기한 사람도 단지 읽는 것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단위와 원소, 수식을 다루기 때문에 친근하고 재미있다.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뇌 사용법

2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18년 | 344면 | B6변형 견장정 | 17,000원 eBook

뇌에 관한 대중서로 뇌 건강에 이로운 식품들의 구체적 효능부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습관과 사고법, 대화법, 관리법에 관한 팁은 일상에 적용하기도 쉽지만 읽기에도 재밌다. 나이나 병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미셸 시메스의 조언들은 뇌에 관한 기본 상식을 쌓기에도 좋다.

블랙박스

이토 시오리 | 김수현 옮김 | 2018년 | 252면 | A5변형 연장정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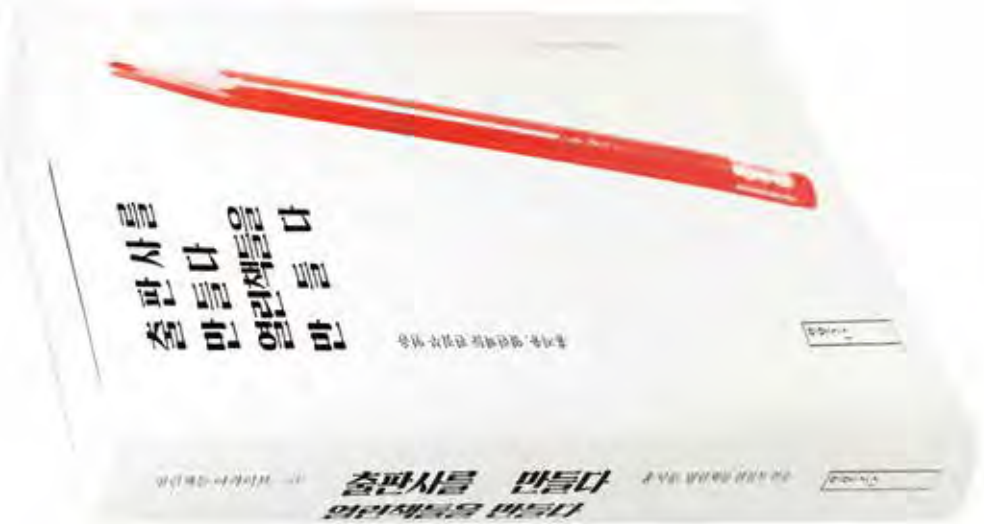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시오리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일본 사회의 반응을 가감 없이 기록한 논픽션이다. 이토 시오리는 2017년 5월, 일본의 〈사법 기자 클럽〉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2

박은영 | 2018년 | 384면 | B6변형 연장정 | 16,800원

현재를 살아가는 〈남다른〉 청춘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만들게 된 이 책은 모두 15팀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록한 인터뷰를 담았다. 〈삶의 기준이 명확해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또래들〉을 만난다.



Humanities/How-to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2

홍지웅 | 2017년 | 576면 | A5신변형 연장정 | 12,500원

다양한 매체에 열린책들 홍지웅 대표가 직접 쓴 기고문을 비롯해 시인과 소설가 등 여러 저자가 열린책들을 지켜보고 글로 풀어낸 칼럼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간 기자들과 솔직하게 나눈 인터뷰 등을 엮었다.

● 2018년 한국출판평론상 대상 수상

우리의 미니멀 생활 일기

5

SE 편집부 | 오연경 옮김 | 2017년 | 280면 | B6변형 연장정 | 13,800원 **eBook**

좋아하는 물건만 지니는 나름의 방식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인기인스타그래머와 블로거 24인의 기록을 담았다. 미니멀 라이프를 자신답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소개한다.

일상 속의 성차별

2

로라 베이츠 | 안진이 옮김 | 2017년 | 424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성 불평등에 관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일상 속 성차별 Everyday Sexism〉에 쏟아진 여성들의 수많은 숨겨 왔던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여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게 된다.

부자들의 폭력

미셸 팽송, 모니크 팽송-샤를로 | 이상해 옮김 | 2015년 | 280면 | A5변형 연장정 | 19,800원 **eBook**

불평등이 극도로 커진 지난 20~30년간,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부부는 불평등에서 부를 취하는 부자들의 행태, 그리고 서민들에게 자행하는 부자들의 폭력을 철저하게 파내어 꾸준히 폭로하고 있다.

일러스트 공산당 선언·공산주의 원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 페르난도 비센테 그림 | 박종대 옮김 | 2015년 | 184면 | B6변형 연장정 | 11,800원

노동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두 사상가의 집념을 느낄 수 있는, 문답 형태의 문서이다. 거기에 페르난도 비센테가 공산당 선언에 영감을 받아 그린 풍자적인 일러스트가 추가되었다.

하우스와이프 2.0

2

에밀리 맷차 | 허원 옮김 | 2015년 | 432면 | A5변형 연장정 | 16,800원

〈새로운 가정의 시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자연적이고, 본능에 충실하며 전통적 방법의 가사일을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2세대 가정주부, 즉 〈하우스와이프 2.0〉을 양산해 냈다.

요령 있게 삽시다

댄 마셜 | 안진이 옮김 | 2015년 | 304면 | B6변형 견장정 | 12,000원

130여 가지의 요령을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알려주는 요령 가이드북이다. 직장 생활, 건강, 요리, 집안 관리, 청소, 스마트폰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갖가지 요령을 소개하는 만물 안내서와 같다.

스칸디맘

2

헬레나 슈츠 | 홍유진 옮김 | 2015년 | 400면 | B6변형 연장정 | 16,800원

스웨덴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인 헬레나 슈츠의 블로그를 토대로 미메시스에서 직접 기획하여 구성한 책이다. 기존의 스칸디나비안 라이프스타일의 책들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시각으로 만들고 엮었다.

유혹하는 자전거

미하엘 엠바허 | 남명성 옮김 | 2012년 | 224면 | A4변형 견장정 | 11,200원

미하엘 엠바허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자전거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추려 소개한 책이다. 자전거 디자인의 트렌드와 역사를 풍부한 사진을 통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5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18년 | 296면 | B6변형 견장정 | 15,000원 **eBook**

코코넛 오일의 기적

7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 2014년 | 433면 | B6 연장정 | 절판

사람의집

사람의집은 열린책들이 2021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이다. 시대의
가치는 변해도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테마로 하나의 삶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평전과 자서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의학 분야를 다룬다.
사람의집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의 가치를 담고 있다.

Our Home

Emmanuel Carrère 에마뉘엘 카레르
Andreas Michalsen 안드레아스 미할젠
Suzann Kirschner-Brouns 주잔 키르슈너 브로운스
Song Hae 송해
Kim Kyungchul 김경철
Kim Haeyoung 김해영
Bruce Fife 브루스 파이프
Ursula Weidenfeld 우르줄라 바이덴펠트
Riichi Miyake 미야케 리이치

안도 다다오, 건축을 살다

미야케 리이치 | 위정훈 옮김 | 2023년 | 528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로 손꼽히는 안도 다다오의 인생과 작품을 총망라한 새로운 평전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에 관한 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안도 다다오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도 여럿 소개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이 책은 일본의 건축가와 작품들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비평해 온 건축사가 미야케 리이치가 〈안도 다다오〉라는 한 사람의 건축가로 목표를 압축하고, 그의 성장에서 현재에 이르는 건축 경력을 토지나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을 축으로 삼아 논한다는 점이 다르다.

짱 교수의 바로 아는 수맥 이야기

장병식 | 2023년 | 240면 | A5변형 견장정 | 30,000원

수십 년간 한국의 수맥과 팔체질을 학문으로 정립하고 다듬어 온 전문가 장병식이 수맥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저자 장병식은 〈한국수맥연구협회〉와 〈팔체질건강연구회〉를 설립하여 수맥과 팔체질에 관한 연구와 강연을 하던 중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수맥과 팔체질」 과정 강의를 시작하여 18년(34기)째 계속 이어 오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마치 학생에게 말하듯 수맥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시작하고, 왜 수맥이 우리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며 수맥 이야기를 들려준다.

17
Books

앙겔라 메르켈 독일을 바꾼 16년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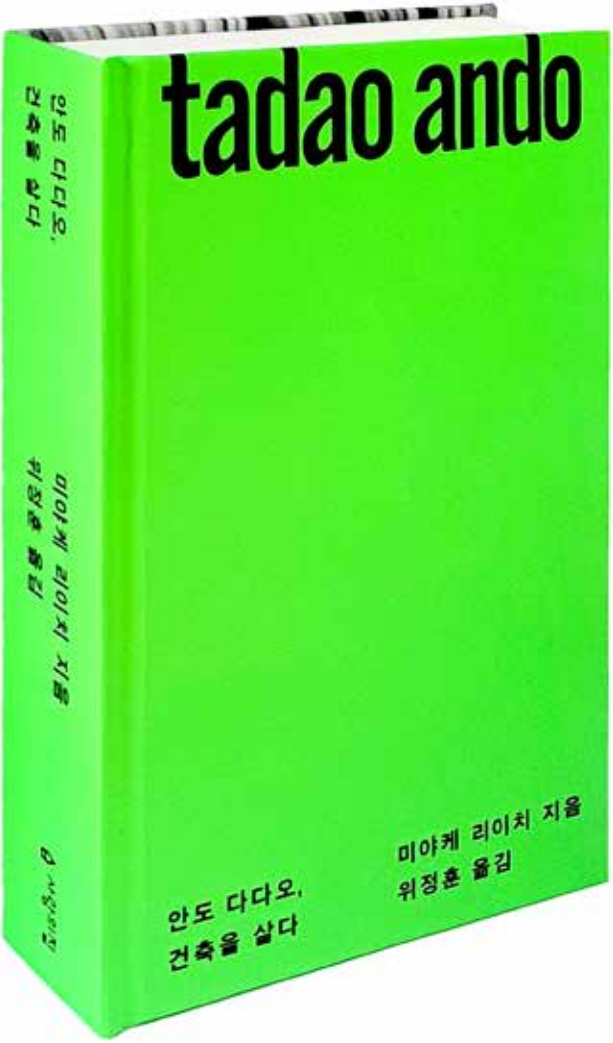
우르줄라 바이덴펠트 | 박종대 옮김 | 2022년 | 376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독일 정계에서 가장 막강한 자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유일한 정치인 앙겔라 메르켈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독일 사회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저널리스트 우르줄라 바이덴펠트는 메르켈의 어린 시절부터 정치 초년병을 거쳐 네 번의 총리 재임 기간까지를 아우르며, 한 정치인의 초상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이는 메르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메르켈리즘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 신판 3

카트린 레퀴예 | 김유경 옮김 | 2022년 | 192면 | A5변형 연장정 | 15,800원 eBook

모든 부모는 자식이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져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너무나 많은 아이가 세상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든 일을 지루해한다. 당연히 배움에 대한 욕구 또한 없다. 왜 그런가? 그 답을 알 수만 있다면, 부모들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저자 카트린 레퀴예는 이 책에서 부모들의 이 절망감으로 가득 찬 질문에 답한다.


tadao ando
안도 다다오,
건축을 살다
미야케 리이치 지음
위정훈 옮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신판

49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 2022년 | 288면 | A5변형 견장정 | 18,000원 eBook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지를 알려 주는 책.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분의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후편인 이 책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원리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 준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신판

81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 2022년 | 304면 | A5변형 견장정 | 18,000원 eBook

세계적인 복음주의 부흥사인 베니 힌 목사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여러 해 동안 베니 힌 목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통찰을 보여 준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연락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지 알려 주고 있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야파에서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이민 온 베니 힌 목사의 엄청난 개인적 체험이 담겨 있다.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억만장자 운동선수의 탄생

2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 | 대니얼 김 옮김 | 2022년 | 264면 | A5변형 견장정 | 20,000원 eBook

8번 연속 NBA 파이널 진출, 4번의 NBA 우승……. 하지만 이 시대의 아이콘 르브론 제임스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놀라운 것은 지난 20년간 그가 NBA에서 뛰며 받은 연봉은 그의 자산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의 자산 대부분이 그가 일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쌓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는 지구 최고의 재능이 모여 있는 NBA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을까? 르브론의 비즈니스 제국은 어떠한 과정을 걸쳐 어떻게 진화했을까?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신판

3

주디스 루이스 허먼 | 최현정 옮김 | 2022년 | 544면 | A5변형 연장정 | 24,000원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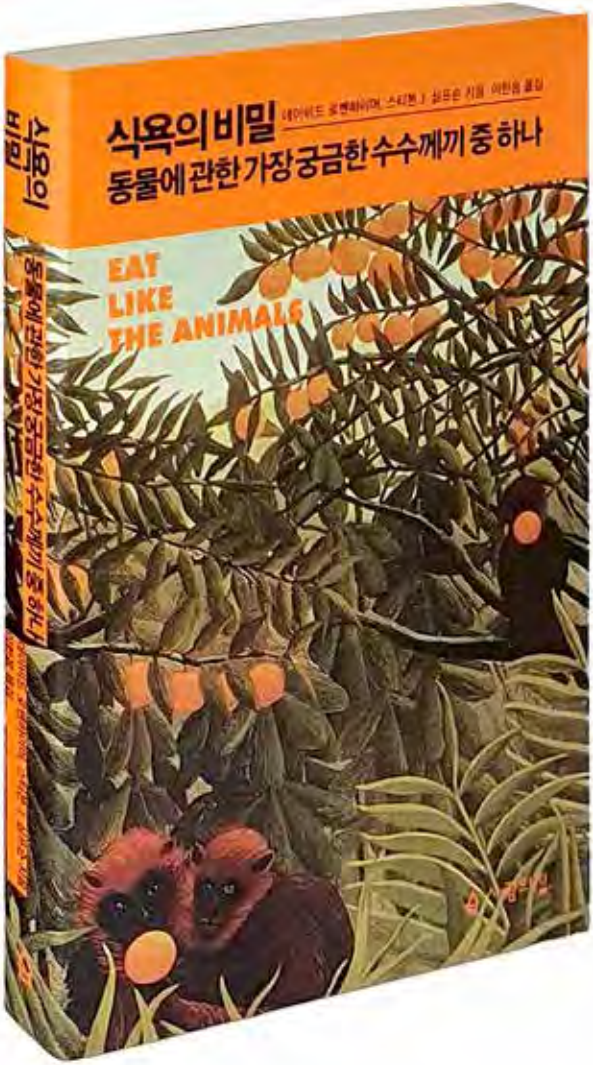
1997년 『뉴욕 타임스』로부터 〈프로이트 이후 출간된 가장 중요한 정신 의학서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으며 등장한 이 책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전문 용어로 불리는 한 정신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 해방의 역사라는 도덕적, 정치적 차원의 이야기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 책은 인간이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보여준다.

식욕의 비밀 동물에 관한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 중 하나

2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스티븐 J. 심프슨 | 이한음 지음 | 2022년 | 312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영양 생태학의 선두적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벤하이머와 시드니 대학교 찰스 퍼킨스 센터를 이끄는 생명환경과학 교수 스티븐 J. 심프슨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


식욕의 비밀
동물에 관한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 중 하나
EAT
LIKE
THE ANIMALS

한 〈식욕의 비밀〉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들은 과학자로서 사는 내내, 특히 32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공동 연구를 시작한 뒤로 처음 20년 동안, 자연의 가장 영구한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기 위해 〈곤충〉을 연구했다. 수수께끼는 바로 〈생물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이다.

불안은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 신판

앤드리아 피터슨 | 박다솜 옮김 | 2022년 | 408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eBook

이 책은 불안 장애란 무엇인지, 불안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조감한다. 불안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상쾌하고 솔직한 저자의 고백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이 실체 없는 대상으로부터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보여 준다.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과 탐구의 기록이자 불안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용감한 삶의 고백이다.

저탄고지 바이블 탄수화물1:단백질2:지방7

3

아이버 커민스, 제프리 거버 | 이문영 옮김 | 2022년 | 656면 | A5변형 연장정 | 28,000원 eBook

책의 제목이 괜히 〈바이블〉이 아니다. 지금까지 체중 감량의 비밀과 건강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파헤친 책은 없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에 관하여 이렇게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룬 책은 없었다. 단순하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저탄고지 가이드북을 원하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원하든 상관없이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침서다.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과 건강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제목은 〈저탄고지 바이블〉이지만 내용은 〈건강 바이블〉이다.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신판

8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22년 | 296면 | B6변형 견장정 | 17,000원 eBook

프랑스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이자 지금까지 33만여 권의 판매 기록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 미셸 시메스가 오랜 세월 축적한 결실이다. 비교적 짧은 글로 구성했지만 때로는 단 몇 줄로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후딱 다 읽을 수 있지만 즉각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 풍부하므로 두고두고 다시 들춰 보게 될 것이다. 건강에 이로운 식품들의 구체적 효능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생활 습관과 운동법 등을 알려 준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 신판

4

김경철, 김해영 | 2022년 | 400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근거 중심의 영양 치료에 앞장서는 가정의학 전문의들이 전하는 영양과 인간 몸의 면역 시스템에 관한 친절한 안내서.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중심으로 최신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항바이러스 임상 시험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영양소와 영양제의 섭취 방법 및 주의할 점을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시한다.

17
Books

코코넛 오일의 기적 신판

9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 2022년 | 368면 | A5변형 연장정 | 18,000원

미국에서 2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이 책은 남녀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탁월한 건강 지침서이자, 코코넛 오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최신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체중 감량을 촉진하고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며, 체내에 쌓인 독을 빼주는 등 우리 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코코넛 오일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필립 K. 딕 나는 살아 있고, 너희는 죽었다 1928–1982

에마뉘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 2022년 | 520면 | A5변형 견장정 | 25,000원 eBook

SF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작가, 작가들의 작가인 필립 K. 딕에 관한 평전. 어린 시절부터 딕의 소설을 읽고 자라며 영향을 받은 카레르는 그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필립 K. 딕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눈을 감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를 소설처럼 재현해 낸다. 또한 딕의 일생을 그의 작품과 나란히 시기별로 배치하여 그의 대표작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지켜볼 수 있다.

1일無식

안드레아스 미할젠, 주잔 키르슈너 브로운스 | 2021년 | 480면 | A5변형 연장정 | 22,000원 eBook

유럽 최대의 대학 병원인 샤리테 베를린 대학 병원 자연 요법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드레아스 미할젠이 〈영양과 단식〉을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리한 책이다. 우리 몸의 작용 원리와 자기 치유 능력과 그 원리를 돕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각종 단식법에 의한 질병 치유의 과정을 알기 쉽게 밝힌다.

송해 1927

송해, 이기남 | 2021년 | 312면 | A5변형 견장정 | 15,800원 eBook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을 촬영하면서 송해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꾸밈없이 담은 책이다. 여러 번으로 나눠서 진행된 송해와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과 희극인 후배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의 악단장이 말하는 송해에 관한 숨은 이야기도 기록하였다. 속 깊은 인터뷰에는 송해가 평생 안으로 삼켜 온 슬픔과 응어리도 함께 들어가 있어 읽는 사람을 애타게 만들고 또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한다.

오시는 길 Direction

자가용: 파주출판도시 장월IC로 진입 혹은 〈열린책들〉 검색

버스: 〈심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2200(합정), 200(일산)

By Car: After entering Jangwol IC for Paju Book City, Search for 〈OpenBooks〉

By Bus: Bus 2200 (from Seoul) or bus 200 (from Ilsan); bus stop: Simhakgyo

개관 시간 Opening Hours

전시 (수-일) / 카페, 북앤아트숍 (수-일)

Exhibitions (Wed-Sun) / Café, Book & Art Shop (Mon-Sun)

11월부터 4월까지 November-April (11.1- 4.30) ▶ 10:00-18:00

5월부터 10월까지 May-October (5.1-10.31) ▶ 10:00-19:00

Mimesis Art Museum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동아일보, 「스페이스」 선정 〈한국 최고의 현대 건축〉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열린책들이 파주출판도시에 세운 미술관으로, 열린책들의 예술 서적 전문 브랜드 〈미메시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2009년 완공된 이 미술관은 〈건축의 시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를 맡아 아시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미술관〉 프로젝트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대지 1,450평에 연면적 1,100평으로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여러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긴 설계로 유명하다.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의 전시 공간은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이 건축물은 건축 자체만으로도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개관 전부터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이탈리아의 『카사벨라』, 영국의 『월페이퍼』, 일본의 『GA 도큐먼트』 등 각종 해외 잡지에 크게 보도되었다.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브라질의 이베리 카르마구 재단 미술관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건축 사진작가 페르난두 게하의 말처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세계의 건축학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도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말에 개관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알바루 시자 Álvaro Siza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의 건축가.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을 추구한다. 대표작으로 포르투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 아베이루 대학교 도서관, 리스본 엑스포 파빌리온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포함하여, 안양예술공원 알바루 시자 홀, 경기 용인시 아모레퍼시픽 연구동을 설계한 바 있다. 1992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고, 같은 해에 미스 반데어로에 재단 유럽건축상, 2001년 울프 예술상, 2002년과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2017년 포르투갈 공공교육명령 대십자 훈장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반복적인 문과 창, 조명이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하나의 공허한 세계와 같았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의 점, 선, 면이 모여 입체적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종의 고요하고 깨끗한 의미의 선(禪)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었다. 비어 있는 듯하지만 가득 차 있다.

뤼징런(중국 북 디자이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감을 주는 공간임에 틀림없다.

배리 클라크(영국 출판인)

열린 공간 없이 서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은 무질서하고 화려하게만 디자인된 사무용 빌딩들 속에서 단연 돋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낸다.

타데이 글라슈르(슬로베니아 건축가)

가슴 두근거리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주요한 건축물이 될 운명이다.

이언 태버너(미국 건축가)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창은 붓, 벽은 캔버스…… 풍요로운 빛의 향연

한국의 현대 건축 〈9〉 최고의 미술관들

환기, 리움, 미메시스, 의재. 한국 최고의 현대 건축 20선에 이름을 올린 미술관은 모두 사립 미술관들이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9위)은 〈급경사 지형에 맞춰 내외부 공간을 밀도 있게 표현했다〉(김현섭 고려대 교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11위)은 〈개성이 뚜렷한 스타 건축가 3인의 조화로운 협업으로 완성도가 높다〉(윤창기 경암 대표)는 호평을 받았다.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16위)은 〈건축의 감성적 가능성을 절제된 재료와 색채로 종합했다〉(윤승현 인터커드 대표), 광주 동구 운림동 의재미술관(17위)은 〈조형적으로 과도함 없이 무등산이라는 환경에 잘 조화시켰다〉(강병국 동우건축소장)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미술관들이 호평을 받은 반면 정부가 설립한 미술관이 순위에 들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술관은 주택이나 공장과는 달리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건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회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최고의 현대 건축 20선에 미술관 4개가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악의 현대 건축으로 두 개의 국립 박물관이 지목됐다. 국립민속박물관(최악 15위)은 전통의 어설픈 〈흉내 내기〉를 강요했던 시대의 산물로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최악의 건축물 17위로 선정된 것은 의외다. 경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최악은 아니지만 최고의 건축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립〉 타이틀을 가진 큰 규모의 건축물이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건축가들이 큰 규모의 건물을 다루는 일에 미숙한 탓도 있겠지만, 계획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수많은 관료적 절차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고의 건축으로 선정된 작은 미술관들은 규모를 뛰어넘는 독특한 개성을 보여 준다. 미술관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예술 작품을 보관, 전시하고 이를 다수의 대중이 관람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술관의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시와 관람이라는 대단히 단순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단순한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미술관이 탄생하게 되며, 이러한 해석의 다양함은 각 미술관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경험의 풍요로움으로 귀결된다.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1891～1977)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무등산 자락에 지은 의재미술관(2001년)은 조성룡과 김종규라는 노장과 젊은 건축가의 합작품이다. 미술관을 둘러싼 아름다운 숲의 전경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여 작품과 자연 관람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미술관 전시동 입구에서 차 마시는 곳을 거쳐 전시장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 압권이다. 이 길은 평지도 있고 경사도 있는 그런 고즈넉한 숲길을 걸어가는 느낌을 정제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의재 미술의 전주곡이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환기미술관(1994년)은 재미 건축가 우규승의 수작이다. 가장 흥미로운 장소는 1층의 주 전시실이다. 관람객은 전시물을 관람하고 주 전시실을 둘러싼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주 전시실을 내려다볼 수 있다. 관람객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며 관람객 스스로가 전시물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되새기는 〈반추〉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곳의 강렬한 기억 때문에 이어지는 다른 전시 공간들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쉽다.
경기 파주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2010년)은 포르투갈의 알바루 시자와 김준성의 합작품이다. 외관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다. 그러나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실내에 가득 찬 빛의 향연을 보는 순간 건물 형태가 지닌 난해함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다양한 형태와 높이의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그리고 이 빛을 받아 주는 다양한 벽의 형태로 더욱 풍요로워진 빛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가히 〈빛의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전시물이 없을 때 더 그럴듯하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리움(2004년)의 관람 포인트는 세계적인 건축가 3명(네덜란드의 렘 콜하스, 프랑스 장 누벨, 스위스 마리오 보타)이 각자의 건물을 설계하고 이들이 모여 하나의 미술관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재료, 형태, 공간의 느낌을 동시에 만나면서 세계 현대 건축의 흐름을 단편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다. 건축가들의 명성에 맞는 참신한 경험을 아쉬워하는 관람객이 있다면 국보급 소장품들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좋은 소장품만으로 좋은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소장품으로 가득 찬 〈국립〉의 경우를 보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기무사 건물 터에 짓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올해 완공된다. 이 미술관이 국립 미술관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 미술관으로서 최고의 건축물로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

최윤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동아일보』, 2013.6.19.

2013

박진화전: 시야
2013.4.9-6.30

작가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녹여내는 그림이다. 멋진 형상이 아니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더 절박했고, 답답함을 누를 어떤 의미에 천착했다. 시기에 따라 관심이 변했겠지만 늘 위보다는 아래였다. 요즘은 자연의 변화에서 붓의 폭을 넓힐 궁리를 해보고 있다. 박진화의 그림의 적(敵)은 굳음이다. 굳어진 미학은 도그마인 것이다. 도그마는 강제다. 결국 그의 관심은 일관되게 그 굳음을 깨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직성전: 이 세상과 나
2013.10.5-11.17

정직성의 연립 주택 시리즈는 망원동, 성내동, 신림동 등지의 영세민을 위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 공간을 담는다. 작가는 창, 지붕, 계단의 크기와 개수, 면적에 따라 연립 주택의 유형을 단순화시킨다. 다세대 주택은 철거에서 살아 남은 단독 주택이 스스로 진화를 시작한 결과이기 때문에 골목길 속 단독 주택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다.

불안: 포르투갈적 표현 양식들
2013.11.26-2014.2.9

알바루 시자는 가히 대표작으로 꼽을 만한 건물 — 전시될 작품에 온전한 빛을 부여해 줄 기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흰색의 정결하고도 섬세한 걸작 — 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탄생시켰다. 매체와 형태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지점에서 — 비슷한 욕망과 우발적 요인들로부터 — 출발하는 이 포르투갈적인 특성을 보여 주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공간도 없을 듯하다.

2014

박찬용 조각전: 박제된 폭력의 기억
2014.3.1-5.11

박찬용이 표현하는 인간은 폭력으로 일궈 낸 문명을 고뇌하는 주체이다. 그가 천착하고 있는 구상 조각들은 한국 현대 사회를 집어삼킨 폭력을 영원불멸한 박제물로

변이시킨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 한국 사회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동물의 왕국임을 암시하고 있다. 박찬용의 전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라는 모더니즘적 미학을 간직한 전시 공간을 대형동물의 박제와 투견 조각으로 가득 찬 〈박물관〉으로 번안한다. 고대 그리스 사원이나 인도의 신전이 주술적 대상이라면, 박찬용의 조각들은 폭력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폭로다.

홍순명전: 스펙터클의 여백
2014.6.28-8.28

「사이드스케이프」는 전통적 풍경화와 태도를 달리한다. 「사이드스케이프」는 무거운 사회 옆에 있는 풍경 혹은 주목 받지 못한 채 존재하는 자연을 담는다. 「홍순명전: 스펙터클의 여백」은 「사이드스케이프」 연작과 함께 「메모리스케이프」라는 타이틀의 신작 설치 작업들도 함께 한다. 어설프게 서 있는 유기적 형태의 조각물 내부는 대중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소소한 사연이 담긴 사물들로 채워진다. 관객은 물체 고유의 형태가 사라진 또 하나의 구조물을 전시장에서 위태롭게 마주한다.

민병헌 흑백사진전
2014.9.6-12.14

민병헌의 사진은 관념적이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며 감성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지한 것이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과정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움직이고 변화한다. 회화적 사유를 한다. 사진적 추상이다. 그 사진 속의 형식은 무엇인가 보여 준다는 도해적 의미에서 추상되어, 즉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산만하고 습한 빛들로 가득 차 있는 새벽녘, 반투명의 하늘은 빛과 그림자의 차이를 줄이고 공간을 부드러운 밝은 빛으로 균일하게 번져 나가게 한다.

2015

이슬기전: 분화석!
2015.3.7-5.5

이슬기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전시 공간을 두 개의 날개로 나눠 오른쪽 날개를 〈안〉이라 이름 붙이고 10개의 누비이불 작품을 눕혔다. 왼쪽 날개는 〈밖〉이라 이름 붙이고 진흙으로 만든 분화석 조각을 세웠다. 〈안〉은 10개의 한국 속담 의미를 기하학적 무늬로 도상화한 누비이불 작업이다. 〈밖〉은 이슬기의 신작 「분화석!COPROLITHE!」이다. 작가는 똥Merde이라는 프랑스 욕에서 착상하여 분화석Coprolithe이란 새로운 〈욕〉을 제안한다. 분화석은 똥의 화석이자 욕의 화석인 것이다.

박은하전: 완전한 유물
2015.8.8-8.30

박은하의 작품은 현실 속의 이야기를 초현실적 공간의 이야기로 재편집함으로써 이상화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플라나리아 패턴〉이라 독특한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는데, 이는 굳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내재된 힘을 분출시켜 가시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강석호전: 독백
2015.8.8-9.29

강석호는 1999년 뒤셀도르프 유학 시절부터 정사각형에 가까운 캔버스에 토르소를 반복적으로 그려 왔다. 토르소가 그리스 시대에 뚜렷한 입체감과 완벽한 미를 가진 인체를 구현한 조각 작품에 유래한다면, 강석호의 토르소는 평평한 신체를 감싼 물결치듯 이어지는 체크무늬 셔츠의 패턴이나 속옷의 주름이 드러나는 청바지의 질감을 표현한다. 몸 자체를 인식하기보다는 그 몸을 감싼 의복의 무늬나 질감에 집중한다. 스스로를 〈미학 탐구자〉라 부르는 강석호는 캔버스를 매개로 대상과 자신, 구상과 추상 사이를 복잡하게 가로지는 모종의 회로를 끊임없이 탐구한다.

전미래전: 삼합, 발효의 연식술
2015.9.5–9.29

유라시아의 우뇌적 성향 중에 하나가 〈발효〉 감각인데, 이것은 전미래의 2014년 숭고한 삼합에서 〈홍어〉라는 〈그로테스크한 맛〉(시인 송수권)의 스펙트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발효〉라는 스스로 부여한 감각적 코드가 어떻게 강렬한 체험이 될 수 있는지, 그 〈삭히는 시간〉의 권능이 신체적 소멸과 재생의 기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늘〉이 있는 소리, 〈그늘〉이 있는 춤, 〈그늘〉이 있는 삶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세현전: 레드–개꿈
2015.10.10-12.20

2006년 런던 첼시 예술 대학 대학원 졸업 전시 두 달 전부터 이세현은 한국의 산천을 붉은색 하나로 캔버스에 담은 연작 「붉은 산수」를 시작했다. 유학 시절 내내 유럽의 유화라는 거대한 미술사적 전통을 극복하는 창작 방법을 고민하던 작가는 겸재 정선이나 표암 강세황을 비롯한 조선 시대의 대가들의 작품에서 그 근원을 찾았다. 화면 곳곳 배치된 군함, 포탄 그리고 쓰러져가는 건물 등은 분단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정체와 편린들을 역력히 드러낸다.

2016

제여란전: 그리기에 관하여
2016.8.20-10.16

제여란의 예술 세계는 〈물감〉과 더불어 시작된다. 제여란은 모티브를 좇아 그리지 않으며, 현실이나 상상의 그 어떤 주제로부터 출발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소재나 주제들은 그녀의 창작 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그녀는 캔버스와 붓 그리고 물감으로 〈회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포착해야 하거나 모방하거나 혹은 표현해야 하는 외부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의 유일한 무기인 물감으로 캔버스에 창작해야 하는 회화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2017

이재삼전: 달빛
2017.6.17-8.27

이재삼은 30여 년간 〈나무를 태워서 숲을 환생시킨 영혼〉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목탄만으로 달빛에 비친 자연을 그린다. 버드나무나 포도나무를 태워서 생긴 목탄 입자는 광목천 위에 끊임없이 쌓아 올려져 검은 그림으로 완성된다. 대부분 1천 호가 넘는 그의 작품에는 서구식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가 개발한 〈공기 원근법〉을 통해 생략되거나 번지는 부분이 없는, 중심과 주변이 존재하지 않는 전경이 펼쳐진다.

김태호전: 사라진 풍경
2017.10.21-12.17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전시에서 김태호는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 공간을 드로잉하듯이 채웠다. 넓은 공간은 그의 작품으로 조금씩 여백이 지워져 갔다. 공간 속의 작은 풍경화들은 여럿이 모여 다시 하나의 커다란 풍경을 이룬다. 그 안에는 안개가 자욱한 날의 아침도, 햇살이 반짝이는 날의 오후도 담겨 있다. 사라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김태호는 말한다.

2018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1: 리얼리티 쇼
이지영, 우정수, 박기일
2018.11.28-2019.1.3

MIMESIS AP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도발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아티스트 프로젝트이다. 그 첫 번째 전시인 「리얼리티 쇼」는 어둡고 부조리한 사회의 이슈와 무거운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가볍게 풀어낸다. 이지영은 사회 제도에 길들여진 인간상을 동물원에 비유해 세밀한 연필화 연작으로, 우정수는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문학과 성경, 신화와 민담과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서브컬처(하위문화)를 통해, 박기일은 캔버스 안의 캔버스 그리고 그림 속의 캔버스에는 캔버스 밖만큼이나 리얼한 풍경을 담아낸다.

2019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2: 플랫, 낫 플랫
김성국, 장재민, 최윤희
2019.6.27-8.11

「플랫, 낫 플랫」은 평면적이고 물질적인 캔버스를 대하는 작가적 태도에 주목하여, 회화의 방법론을 다양하게 실험하며 캔버스 안에 다중적 구조를 담는 작가를 소개한다. 작가들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번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각 작가들의 전체적인 작업 흐름과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3: 픽처레스크 시티
권영성, 김효숙, 최은정
2019.11.28-2020.1.27

「픽처레스크 시티」는 인간과 자연의 미적 관계를 다양하게 픽처레스크의 관점으로 바라본 도시를 표현하는 작가를 선정했다. 세 명의 작가는 〈관계 그래프〉, 〈부유하는 도시〉, 〈익명의 풍경〉과 같은 주제로 작업을 해왔고, 각기 다른 소재를 모티브로 차용하여 공간을 표현하며 환상, 욕망, 비물질, 제도의 개념들을 얽히고 설킨 〈선〉으로 해체하거나 명료하게 정리 된 도시의 풍경으로 그려 낸다.

2020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4: 밍글 혼재
김윤섭, 박석민, 유현경
2020.11.19-2021.2.14

「밍글 혼재」는 〈바라 보는 자〉의 시선에 대면하는 다양한 시공간의 사물, 사람 혹은 풍경을 표현하는 작가들을 소개한다. 김윤섭은 회화의 정통성을 연구하며, 박석민의 작업 세계는 물리적 관념적으로 거대한 거과 사소한 것, 먼 것과 가까운 것이 복합적으로 응시되며, 유현경은 붓이 캔버스 위에 닿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작가의 내면이 충돌하면서 어우러지는 풍경을 그려낸다.

2021

보이는, 보이지 않는
김현수, 강현선, 정우재, 정중원
2021.7.14-9.12

현실 세계를 기계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포착하여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과 환영 사이를 오가며 시각의 문제를 던지는 극사실주의 미술은, 모사된 이미지(시뮬라크르)가 현실을 대체하고 있는 복제 이미지 시대를 살피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극사실주의적 방법으로 재현된 이미지 속에 투영된 환영과 서사, 실재와 가상의 문제를 다룬다.

2022

심연의 리듬
심우현 개인전
2022.2.12-4.24

심우현의 회화는 유년 시절 자주 뛰어놀았던 숲속에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숲속의 기운과 그 속에서 느낀 묘한 공포와 신비로움은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붓질과 어지러운 원색의 향연으로 표출되었다. 역동적인 드로잉이 구현하는 몽환적 세계에서 감각으로 충만한 본성이 지배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윤새롬전: 어느 날의 조각들 03
2022.8.12-10.16

윤새롬은 구름의 상호 작용, 잔물결 치는 파도, 얼어붙은 풍경과 나무껍질의 표면 등 자연의 흐름과 질감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영감은 필리핀에 거주했던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만난 〈어느 날의〉 서정적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의 기억에 남은 아름다운 자연의 색은 평범한 소재인 아크릴을 영롱한 빛을 머금은 크리스털의 물성으로 변신하게 한다.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5: 틈의 풍경
김세은, 라선영, 송수민, 황원해
2022.10.19-2023.1.24

김세은은 자신의 신체적 감각을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 붓질 등 에너지 넘치는 회화적 언어로 표현한다. 라선영은 현대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투박한 나무와 세라믹으로 조형하여 그 속에 있는 개별적 욕망과 집단의 익명성을 들추어낸다. 송수민은 자연 풍경과 재난의 광경을 수집하고 재현한 후 각각의 이미지를 결합, 분산시킴으로써 일상의 고요 속에 스며든 불안을 패턴화시킨다. 황원해는 수없이 재개발되는 도시 풍경을 다층 이미지로 파편화하고 평면화하여 환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들이 연출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틈과 균열에서 끄집어낸 불편하고도 생경한 풍경들이다.

도서 발행 연보

Open Books Timeline 1986–2023

37

2023

- 4월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세트, 제5회 인스퍼 어워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신간 10종, 14권, 총 11종, 15권 발행

안도 다다오, 건축을 살다
미야케 리이치 | 위정훈 옮김
2023.3.30 | 528면 | A5변형 | 25,000원

죄와 벌(디 에센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홍대화 옮김
2023.03.30 | 960면 | B6 | 30,000원

도스토옙스키의 철도, 칼, 그림 : 석영중 교수의 「백치」 강의
석영중
2023.3.20 | 416면 | A5신 | 20,000원

신성한, 이혼
강태경
2023.3.5 | 전5권 | 각312면 | A5변형 | 각15,800원

3분의 행복
강석호
2023.3.1 | 264면 | A5변형 | 28,000원

수확자(수확자 시리즈1)
닐 셔스터먼 | 이수현 옮김
2023.2.10 | 512면 | B6 | 18,500원

선더헤드(수확자 시리즈2)
닐 셔스터먼 | 이수현 옮김
2023.2.10 | 576면 | B6 | 18,500원

종소리(수확자 시리즈3)
닐 셔스터먼 | 이수현 옮김
2023.2.10 | 736면 | B6 | 18,500원

짱 교수의 바로 아는 수맥 이야기
장병식
2023.1.30 | 240면 | A5변형 | 30,000원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
국제 청소년 글쓰기 센터 연맹 | 김마림 옮김
2023.1.15 | 480면 | 크라운판변형 | 35,000원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
조나탕 베르베르 | 정혜용 옮김
2023.1.10 | 624면 | B6 | 17,800원

2022

- 2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심연의 리듬: 심우현 개인전〉 전시 개최
- 2월 에마뉘엘 카레르가 쓴 평전 〈필립 K. 딕〉 출간
- 3월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세트(전20권) 출간
- 3월 힐러리 클린턴, 루이즈 페니 공동 집필 〈스테이트 오브 테러〉 출간
- 3월 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 제4회 인스퍼 어워드 골든 페이퍼상 수상
- 4월 폴 오스터 자선 산문집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출간
- 5월 베르베르 신간 〈행성〉 출간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IMAGE 11 강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버지니아 울프,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그래픽노블〉 전시 개최
- 6월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전4권) 출간
- 8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윤새롬전: 어느 날의 조각들 03〉 전시 개최
- 10월 움베르토 에코 강연 모음집 〈에코의 위대한 강의〉 출간
- 10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MIMESIS AP5: 틈의 풍경 between, behind, beyond〉 전시 개최
- 신간 54종, 58권, 총 87종, 95권 발행

스탈린의 전쟁
제프리 로버츠 | 김남섭 옮김
2022.12.30 | 744면 | B5변형 | 45,000원

마약 중독과 전쟁의 시대
노르만 올러 | 박종대 옮김
2022.12.25 | 400면 | A5변형 | 22,000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포그, 나이스 캥 | 김희진 옮김
2022.12.20 | 144면 | B5변형 | 22,000원

지상의 양식·새 양식(세계문학284)
앙드레 지드 | 최애영 옮김
2022.12.20 | 360면 | B6 | 11,8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22.12.20 | 264면 | A5변형| 16,800원

선물이 있어
은모든
2022.12.10 | B6변형 | 14,800원

얼굴 빨개지는 아이·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세트(전2권, 2022리커버)
장자크 상페 | 김호영, 최영선 옮김
2022.12.5 | 각 122, 96면 | B5변형 | 39,800원

장미의 이름(디 에센셜, 2022리커버)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22.11.30 | 960면 | B6 | 31,500원

자기만의 방(세계문학283)
버지니아 울프 | 공경희 옮김
2022.11.10 | 216면 | B6 | 10,800원

셜록 홈스의 모험(세계문학282)
아서 코넌 도일 | 오숙은 옮김
2022.10.30 | 456면 | B6 | 14,800원

인공 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박종대 옮김
2022.10.25 | 288면 | A5변형 | 18,000원

앙겔라 메르켈
우르줄라 바이덴펠트 | 박종대 옮김
2022.10.15 | 376면 | A5변형 | 25,000원

에코의 위대한 강연
움베르토 에코 | 이세진 옮김
2022.10.15 | 496면 | A5변형 | 28,000원

7월 14일
에리크 뷔야르 | 이재룡 옮김
2022.10.5 | 216면 | B6 | 14,800원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신판)
카트린 레퀴예 | 김유경 옮김
2022.10.1 | 192면 | A5변형 | 15,800원

신화의 시대(세계문학281)
토머스 불핀치 | 박중서 옮김
2022.9.20 | 664면 | B6 | 21,800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22.9.15 | 288면 | A5변형 | 18,000원

안녕하세요, 성령님!(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22.9.15 | 304면 | A5변형 | 18,000원

드라큘라(일러스트판)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2022.9.10 | A5신 | 13,800원

도박 중독자의 가족
이하진
2022.9.5 | 488면 | A5변형 | 18,800원

고함과 분노(세계문학280)
윌리엄 포크너 | 윤교찬 옮김
2022.8.25 | 520면 | B6 | 16,800원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 | 대니얼 김 옮김
2022.8.15 | 264면 | A5변형 | 20,000원

항행력
캐스 R. 선스타인 | 박세연 옮김
2022.8.10 | 136면 | B6 | 14,000원

작은 아씨들(세계문학278~279, 전2권)
루이자 메이 올콧 | 허진 옮김
2022.7.20 | 각 408, 464면 | B6 | 각 14,800원

오너러블 스쿨보이(전2권)
존 르카레 | 허진 옮김
2022.7.20 | 각 528, 472면 | B6 | 각 17,800원

뮤지엄 건축 기행
최우용
2022.7.10 | 304면 | 크라운판변형 | 24,000원

홍지웅

Timeline

폴 오스터 컬렉션 4종 세트
(2022리커버, 전4권)
폴 오스터 | 황보석, 김석희 옮김
2022.7.10 | 각 472, 440, 384, 280면 | B6 | 63,200원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
최정화
2022.7.5 | A5변형 | 13,800원

히어로 코드
윌리엄 H. 맥레이븐 | 이경식 옮김
2022.7.1 | 184면 | A5변형 | 14,000원

침대부터 정리하라
윌리엄 H. 맥레이븐 | 고기탁 옮김
2022.7.1 | 144면 | A5변형 | 14,000원

바로크 최고의 시인 루이스 데 공고라
안영옥
2022.6.30 | 248면 | A5변형 | 16,800원

트라우마(신판)
주디스 루이스 허먼 | 최현정 옮김
2022.6.30 | 544면 | A5변형 | 24,000원

인간 실격·사양(세계문학277)
다자이 오사무 | 김난주 옮김
2022.6.25 | 336면 | B6 | 13,800원

식욕의 비밀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스티븐 J. 심프슨 | 이한음 옮김
2022.6.15 | 312면 | A5변형 | 18,000원

버지니아 울프
리우바 가브리엘레 | 천지은 옮김
2022.6.5 | 128면 | B5변형 | 16,800원

어린 왕자(2022리커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2022.6.5 | 136면 | A5변형 | 11,800원

집 안의 천사 죽이기(버지니아 울프 산문선1)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22.6.10 | 264면 | B6변형 | 13,800원

문학은 공유지입니다(버지니아 울프 산문선2) –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22.6.10 | 280면 | B6변형 | 13,800원

어느 보통 독자의 책 읽기(버지니아 울프 산문선3)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22.6.10 | 256면 | B6변형 | 13,800원

존재의 순간들(버지니아 울프 산문선4)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22.6.10 | 248면 | B6변형 | 13,800원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레슬리 컨 | 황가한 옮김
2022.5.30 | 304면 | A5변형 | 18,000원

행성(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22.5.30 | 각 376, 312면 | A5변형 | 각 16,800원

생태의 시대
요아힘 라트카우 | 김희상 옮김
2022.5.20 | 1,040면 | B5 변형 | 23,000원

독일은 왜 잘하는가
존 캠프너 | 박세연 옮김
2022.5.15 | 456면 | A5변형 | 23,000원

재생력
조성환
2022.5.15 | 264면 | B5변형 | 24,000원

불안은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신판)
앤드리아 피터슨 | 박다솜 옮김
2022.5.10 | 408면 | A5변형 | 18,000원

SF의 유령
로베르트 볼라뇨 | 박세형 옮김 | 최용준 감수
2022.5.5 | 264면 | B6 | 15,800원

채널을 돌리다가
곽재식
2022.4.30 | 392면 | A4변형 | 16,000원

저탄고지 바이블
아이버 커민스, 제프리 거버 | 이문영 옮김
2022.4.20 | 656면 | A5변형 | 28,000원

닥터 지바고(세계문학39~40, 전2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 홍대화 옮김
2022.4.15 | 각 480, 592면 | B6 | 각 15,800원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클라인, 리베카 스테포프 | 이순희 옮김
2022.4.15 | 336면 | A5변형 | 18,000원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폴 오스터 | 김석희, 민승남, 이종인, 황보석 옮김
2022.4.10 | 488면 | A5변형 | 17,800원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신판)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2022.4.1 | 296면 | B6변형 | 17,000원

신곡(개정판)
단테 알리기에리 | 김운찬 옮김
2022.3.30 | 1,088면 | A5변형 | 36,000원

트라우마 클리너
세라 크래스너스타인 | 김희정 옮김
2022.3.30 | 464면 | A5변형 | 23,000원

해파리의 노래(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억
2022.3.25 | 176면 | B6변형 | 3,800원

진달래꽃(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소월
2022.3.25 | 224면 | B6변형 | 3,800원

님의 침묵(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한용운
2022.3.25 | 160면 | B6변형 | 3,800원

정지용 시집(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정지용
2022.3.25 | 168면 | B6변형 | 3,800원

영랑 시집(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영랑
2022.3.25 | 80면 | B6변형 | 3,800원

사슴(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백석
2022.3.25 | 72면 | B6변형 | 3,800원

망향(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상용
2022.3.25 | 56면 | B6변형 | 3,800원

청마시초(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유치환
2022.3.25 | 96면 | B6변형 | 3,800원

백록담(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정지용
2022.3.25 | 120면 | B6변형 | 3,800원

청록집(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2022.3.25 | 88면 | B6변형 | 3,800원

카프 시인집(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창술, 권환, 임화, 박세영, 안막
2022.3.25 | 104면 | B6변형 | 3,800원

현해탄(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임화
2022.3.25 | 200면 | B6변형 | 3,800원

낡은 집(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이용악
2022.3.25 | 72면 | B6변형 | 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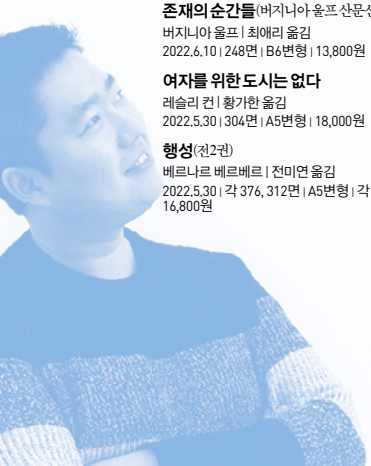
헌사(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오장환
2022.3.25 | 56면 | B6변형 | 3,800원

와사등(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광균
2022.3.25 | 64면 | B6변형 | 3,800원

태양의 풍속(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김기림
2022.3.25 | 184면 | B6변형 | 3,800원

초롱불(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박남수
2022.3.25 | 48면 | B6변형 | 3,800원

육사 시집(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이육사
2022.3.25 | 56면 | B6변형 | 3,800원



홍예빈

오랑캐꽃(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이용악
2022.3.25 | 80면 | B6변형 | 3,800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윤동주
2022.3.25 | 88면 | B6변형 | 3,800원

스테이트 오브 테러
힐러리 로댐 클린턴, 루이즈 페니 | 김승욱 옮김
2022.3.20 | 568면 | A5변형 | 17,800원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신판)
김경철, 김해영
2022.3.15 | 400면 | A5 변형 | 18,000원

코코넛 오일의 기적(신판)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2022.3.15 | 368면 | A5 변형 | 18,000원

탁석산의 공부 수업
탁석산
2022.3.10 | 320면 | A5변형 | 18,000원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어
손수현, 신승은
2022.3.5 | 256면 | B6 | 14,800원

상페의 스케치북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22.2.25 | 240면 | B5 변형 | 16,800원

계속 버텨!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22.2.25 | 120면 | B5 변형 | 17,800원

필립 K. 딕
에마뉘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2022.2.25 | 520면 | A5변형 | 25,000원

반反종차별주의
에므리크 카롱 | 류은소라 옮김
2022.2.20 | 456면 | A5변형 | 22,000원

마음(세계문학 276)
나쓰메 소세키 | 양윤옥 옮김
2022.2.20 | 344면 | B6 | 12,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22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22.2.10 | 464면 | A5변형 | 8,800원

유령 이야기
세레넬라 콰렐로, 마우리치오 콰렐로 | 박세형 옮김
2022.1.5 | 136면 | B6변형 | 12,800원

2021

- 1월 홍예빈 대표이사 취임
- 1월 움베르토 에코 유작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출간
- 4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IMAGE 9: 스타의 탄생〉 전시 개최
- 5월 베르베르 신작 〈문명〉 출간
- 7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시 개최
- 8월 열린책들 창립 35주년 기념 세계문학 중단편 세트 출간
- 11월 열린책들의 새 브랜드 사람의집(전기·자서전· 의학) 런칭. 『송해 1927』 첫 출간
- 11월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전10권), 알라딘 특별판(전11권) 출간
- 11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BOOK+IMAGE 10: 도스토옙스키, 영혼의 탐험가〉 전시 개최
- 12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어판, 누계 3천 쇄 돌파
- 신간 54종 56권, 총 89종 103권 발행

생태의 시대와 DMZ(손안의 통일 11)
최재천
2021.12.30 | 184면 | B6 | 10,000원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손안의 통일 12)
고재열
2021.12.30 | 224면 | B6 | 12,000원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손안의 통일 13)
강성률
2021.12.30 | 216면 | B6 | 12,000원

DMZ를 보고합니다(손안의 통일 14)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외
2021.12.30 | 224면 | B6 | 12,000원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손안의 통일 15)
정진헌
2021.12.30 | 232면 | B6 | 12,000원

갈증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21.12.25 | 160면 | B6 | 12,800원

1일無식
안드레아스 미할젠, 주잔 키르슈너 브로운스 박종대 옮김
2021.12.1 | 480면 | A5변형 | 22,000원

평범한 인생(세계문학 275)
카렐 차페크 | 송순섭 옮김
2021.12.10 | 280면 | B6 | 12,800원

모파상 단편선(세계문학 274)
기 드 모파상 | 임미경 옮김
2021.11.30 | 400면 | B6 | 12,800원

도스토옙스키 컬렉션(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알라딘 특별판) **–전11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석영중, 홍대화, 김근식, 박혜경, 이대우
2021.11.22 | 5968면 | A5변형 | 110,000원

송해 1927
송해, 이기남
2021.11.17 | 312면 | A5변형 | 15,800원

생각이란 무엇인가
마르쿠스 가브리엘 | 전대호 옮김
2021.11.15 | 568면 | A5변형 | 22,000원

죄와 벌(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전2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홍대화 옮김
2021.11.11 | 각 520, 632면 | A5

백치(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전2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김근식
2021.11.11 | 각 632, 656면 | A5

악령(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전2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박혜경 옮김
2021.11.11 | 각 688, 712면 | A5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전2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 이대우 옮김
2021.11.11 | 각 872, 928면 | A5

죄와 벌
바스티앙 루키아 | 김희진 옮김
2021.11.10 | 176면 | A4변형 | 18,8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확장판)
이세욱, 임호경, 전미연 옮김
2021.11.10 | 752면 | A5변형 | 17,800원

도스토옙스키의 명장면 200
석영중
2021.10.30 | 304면 | A5변형 | 20,000원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석영중
2021.10.30 | 400면 | A5변형 | 20,000원

의무란 무엇인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박종대 옮김
2021.10.15 | 176면 | B6 | 13,800원

전쟁에서 살아남기(2021진중문고)
메리 로치 | 이한음 옮김
2021.10.12 | 352면 | B6 |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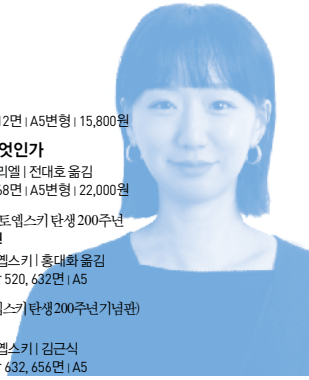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큰글자판)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21.9.20 | 672면 | B6 | 15,800원

수전노 외(세계문학 273)
몰리에르 | 신정아 옮김
2021.9.15 | 424면 | B6 | 12,800원

쿠사마 야요이
엘리사 마첼라리 | 김희진 옮김
2021.9.15 | 136면 | A5변형 | 14,800원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21.9.5 | 520면 | B6 | 15,800원

근대 조선과 세계
최덕수
2021.8.30 | 320면 | A5변형 | 18,000원



홍유진

2021 - 2022

아이네이스 2
베르길리우스 | 김남우 옮김
2021.8.30 | 272면 | B6 | 12,800원

너의 심장을 쳐라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21.8.20 | 200면 | B6 | 12,800원

대서울의 길
김시덕
2021.8.15 | 512면 | A5변형 | 20,000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렌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 김수현 옮김
2021.8.5 | 256면 | B6변형 | 13,800원

어린 왕자(35주년 기념 세트 NOON 1)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동물 농장(35주년 기념 세트 NOON 2)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2021.8.1 | 160면 | B6 | 3,500원

노인과 바다(35주년 기념 세트 NOON 3)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자기만의 방(35주년 기념 세트 NOON 4)
버지니아 울프 | 공경희 옮김
2021.8.1 | 168면 | B6 | 3,500원

행복한 왕자(35주년 기념 세트 NOON 5)
오스카 와일드 | 최애리 옮김
2021.8.1 | 144면 | B6 | 3,500원

토니오 크뢰거(35주년 기념 세트 NOON 6)
토마스 만 | 홍성광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벨낀 이야기(35주년 기념 세트 NOON 7)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21.8.1 | 144면 | B6 | 3,500원

백야(35주년 기념 세트 NOON 8)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21.8.1 | 128면 | B6 | 3,500원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35주년 기념 세트 NOON 9)
아서 코넌 도일 | 오숙은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푸른 십자가(35주년 기념 세트 NOON 10)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 이상원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변신(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1)
프란츠 카프카 | 홍성광 옮김
2021.8.1 | 128면 | B6 | 3,500원

이방인(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2)
알베르 카뮈 | 김예령 옮김
2021.8.1 | 176면 | B6 | 3,500원

인간 실격(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3)
다자이 오사무 | 김난주 옮김
2021.8.1 | 152면 | B6 | 3,500원

도둑맞은 편지(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4)
에드거 앨런 포 | 김석희 옮김
2021.8.1 | 120면 | B6 | 3,500원

이반 일리치의 죽음(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5)
레프 똘스또이 | 석영중, 정지원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비곗덩어리(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6)
기 드 모파상 | 임미경 옮김
2021.8.1 | 136면 | B6 | 3,500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7)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조영학 옮김
2021.8.1 | 120면 | B6 | 3,500원

죽은 사람들(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8)
제임스 조이스 | 이강훈(영문학) 옮김
2021.8.1 | 128면 | B6 | 3,500원

6호 병동(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9)
안똔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21.8.1 | 168면 | B6 | 3,500원

타임 머신(35주년 기념 세트 MIDNIGHT 10)
허버트 조지 웰스 | 김석희 옮김
2021.8.1 | 192면 | B6 | 3,500원

친구
시그리드 누네즈 | 공경희 옮김
2021.7.25 | 256면 | B6 | 12,800원

명작을 읽는 기술
박경서
2021.7.15 | 432면 | A5변형 | 18,000원

7월 14일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21.7.10 | 256면 | B5변형 | 20,000원

슈퍼히어로의 단식법
샘 J. 밀러 | 이윤진 옮김
2021.7.10 | 456면 | A5변형 | 15,800원

우리는 독점 기업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비드 데이옌 | 유강은 옮김
2021.6.25 | 536면 | A5변형 | 25,000원

생명의 물리학
찰스 코켈 | 노승영 옮김
2021.6.20 | 488면 | A5신 | 25,000원

나의 여왕
장바티스트 앙드레아 | 양영란 옮김
2021.6.15 | 240면 | B6 | 12,800원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세계문학272)
에드거 앨런 포 | 김석희 옮김
2021.6.5 | 392면 | B6 | 11,800원

문명(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21.5.30 | 각 336, 352면 | B6 | 각 14,800원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 박세연 옮김
2021.5.25 | 464면 | A5변형 | 23,000원

벌꿀 공장
위르겐 타우츠, 디드리히 슈텐 | 유영미 옮김
2021.5.15 | 320면 | A5변형 | 16,000원

심판의 날의 거장(세계문학271)
레오 페루츠 | 신동화 옮김
2021.5.10 | 264면 | B6 | 12,800원

일본은 어디로 향하는가 헤이세이 30년의 기록
사토 마사루, 가타야마 모리히데 | 송태욱 옮김
2021.5.10 | 528면 | A5변형 | 22,000원

강주은이 소통하는 법
강주은
2021.4.30 | 336면 | A5신 | 15,800원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캐스 R. 선스타인 | 박세연 옮김
2021.4.15 | 472면 | A5변형 | 22,000원

한국적인 것은 없다
탁석산
2021.4.15 | 208면 | A5변형 | 15,000원

햄릿/로미오와 줄리엣(2021리커버)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도해자 옮김
2021.4.15 | 424면 | B6 | 15,800원

세계를 창조하는 뇌 뇌를 창조하는 세계
디크 스왑 | 전대호 옮김
2021.4.1 | 744면 | 크라운변형 | 45,000원

신곡(2021리커버)
단테 알리기에리 | 김운찬 옮김
2021.3.30 | 960면 | A5변형 | 30,000원

미래가 불타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2021.3.25 | 424면 | A5변형 | 22,000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개정7판)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21.3.25 | 520면 | B6 | 14,800원

밤불의 딸들
야아 지야시 | 민승남 옮김
2021.3.15 | 456면 | B6 | 15,800원

앤디 워홀
타이펙스 | 김마림 옮김
2021.3.15 | 564면 | B5변형 | 35,000원

헤어숍 성공의 법칙
박정아
2021.3.10 | 296면 | A5변형 | 18,000원

독재자가 되는 법
프랑크 디쾨터 | 고기탁 옮김
2021.3.1 | 496면 | A5변형 | 22,000원

공포로의 여행(세계문학270)
에릭 앰블러 | 최용준 옮김
2021.2.25 | 376면 | B6 | 13,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21
편집부 편
2021.2.20 | 448면 | A5변형 | 7,800원

푸코의 진자(세계문학267~269, 전3권)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21.2.20 | 각 392, 384, 416면 | B6
각 13,800원

나 혼자
데이비드 스몰 | 김승일 옮김
2021.2.15 | 416면 | 크라운변형 | 22,000원

완벽한 스파이(전2권)
존 르카레 | 김승욱 옮김
2021.2.5 | 각 520, 560면 | B6 | 각 15,800원

로드 짐(세계문학266)
조지프 콘래드 | 최용준 옮김
2021.1.30 | 608면 | B6 | 15,800원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 박종대 옮김
2021.1.30 | 320면 | B6 | 14,800원

인디 워커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박승오, 홍승완
2021.1.30 | 296면 | A5변형 | 15,000원

돈키호테
롭 데이비스 | 김마림 옮김
2021.1.15 | 296면 | B5변형 | 22,000원

2020

- 3월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출간
- 4월 쥐스킨트 작품집 전권 신판 발행
- 5월 베르베르 신작 〈기억〉 출간
- 8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 + IMAGE 8: 예술가의 삶〉 전시 개최
- 10월 〈프로이트 전집〉(전15권) 신판 발행
- 11월 〈수용소군도〉(전6권) 세계문학으로 재출간
- 11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4: MINGLE 혼재〉 전시 개최
- 12월 〈배움의 발견〉 2020년 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책
- 12월 〈기억〉 알라딘 선정 올해의 책
- 12월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 시사인 선정 올해의 책
- 신간 57종 60권, 총 89종 95권 발행

북한 뉴스 바로 보기 (손안의 통일 6)
구본권
2020.12.30 | 184면 | B6변형 | 10,000원

아빠와 딸, DMZ를 걷다(손안의 통일 7)
최동군
2020.12.30 | 208면 | B6변형 | 12,000원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손안의 통일 8)
김춘석, 이태호, 임헌조, 정한울
2020.12.30 | 184면 | B6변형 | 10,000원

100년 전 역사에서 통일을 묻다
(손안의 통일 9)
함규진
2020.12.30 | 152면 | B6변형 | 10,000원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손안의 통일 10)
박계리
2020.12.30 | 248면 | B6변형 | 12,000원

유리 열쇠(세계문학265)
대실 해밋 | 홍성영 옮김
2020.12.30 | 328면 | B6 | 10,800원

끌림(개역판)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20.12.20 | 544면 | B6 | 17,800원

돈키호테(2020알라딘리커버, 전2권)
세르반테스 | 안영옥 옮김
2020.12.20 | 각 784, 936면 | A5신 각 15,800원

티핑 더 벨벳(개역판)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20.12.20 | 632면 | B6 | 17,800원

심판(2020진중문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20.12.14 | 224면 | B6 | 6,400원

러시아의 시민들
백민석
2020.12.10 | 304면 | B6 | 14,800원

한순간에
수전 레드펀 | 김마림 옮김
2020.12.10 | 496면 | B6 | 14,800원

사냥꾼, 목동, 비평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박종대 옮김
2020.11.30 | 344면 | A5변형 | 20,000원

스웨덴 기사(세계문학264)
레오 페루츠 | 강명순 옮김
2020.11.30 | 336면 | B6 | 13,800원

한국의 맹자, 언론가 이율곡
임철순
2020.11.25 | 280면 | A5변형 | 20,000원

수용소군도(세계문학 258~263, 전6권)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옮김
2020.11.20 | 각 448 내외 | B6 | 각 13,800원

바스키아
파올로 파리시 | 김마림 옮김
2020.11.15 | 136면 | A5변형 | 17,800원

로미오와 줄리엣(세계문학257)
윌리엄 셰익스피어 | 도해자 옮김
2020.10.30 | 200면 | B6 | 8,800원

정신분석 강의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홍혜경 옮김
2020.10.30 | 712면 | A5변형 | 22,000원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홍혜경 옮김
2020.10.30 | 320면 | A5변형 | 22,000원

히스테리 연구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미리혜 옮김
2020.10.30 | 472면 | A5변형 | 22,000원

꿈의 해석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인순 옮김
2020.10.30 | 840면 | A5변형 | 22,000원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
지크문트 프로이트 | 이한우 옮김
2020.10.30 | 432면 | A5변형 | 22,000원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지크문트 프로이트 | 박종대 옮김
2020.10.30 | 336면 | A5변형 | 22,000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지크문트 프로이트 | 박종대 옮김
2020.10.30 | 392면 | A5변형 | 22,000원

꼬마 한스와 도라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재혁 옮김
2020.10.30 | 384면 | A5변형 | 22,000원

늑대 인간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명희 옮김
2020.10.30 | 448면 | A5변형 | 22,000원

불안과 억압
지크문트 프로이트 | 황보석 옮김
2020.10.30 | 368면 | A5변형 | 22,000원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윤희기, 박찬부 옮김
2020.10.30 | 560면 | A5변형 | 22,000원

문명 속의 불만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석희 옮김
2020.10.30 | 424면 | A5변형 | 22,000원

종교의 기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이윤기 옮김
2020.10.30 | 496면 | A5변형 | 22,000원

예술, 문학, 정신분석
지크문트 프로이트 | 정장진 옮김
2020.10.30 | 656면 | A5변형 | 22,000원

과학과 정신분석학
지크문트 프로이트 | 박성수, 한승완 옮김
2020.10.30 | 584면 | A5변형 | 22,000원

수술의 탄생
린지 피츠해리스 | 이한음 옮김
2020.10.25 | 344면 | A5변형 | 18,000원

논리의 기술 이해못 할 세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유지니아 청 | 김성훈 옮김
2020.10.20 | 464면 | A5변형 | 22,000원

상페의 음악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20.10.15 | 232면 | 크라운변형 | 22,000원

조지 오웰 산문선(세계문학256)
조지 오웰 | 허진 옮김
2020.9.30 | 424면 | B6 | 13,800원

나치 의사 멩겔레의 실종
올리비에 게즈 | 윤정임 옮김
2020.9.20 | 344면 | B6 | 13,800원

아이를 위한 정신의학
다키카와 가즈히로 | 김경원 옮김
2020.9.20 | 680면 | A5변형 | 30,000원

중국과 협상하기
헨리 폴슨 | 고기탁 옮김
2020.9.10 | 616면 | A5변형 | 25,000원

정희라

Timeline

시지프 신화(세계문학255)
알베르 카뮈 | 박언주 옮김
2020.8.30 | 264면 | B6 | 11,800원

심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20.8.30 | 224면 | B6 | 12,800원

배움의 발견(2020교보문고리커버)
타라 웨스트오버 | 김희정 옮김
2020.8.20 | 520면 | A5변형 | 18,000원

나의 미녀 인생
프랑수아 베고도, 세실 기야르 | 김희진 옮김
2020.8.15 | 200면 | B5변형 | 18,000원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김경철, 김해영
2020.8.10 | 384면 | A5신 | 15,000원

올랜도(세계문학254)
버지니아 울프 | 이미애 옮김
2020.7.30 | 376면 | B6 | 13,800원

단지 흑인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다
제임스 볼드윈 | 박다솜 옮김
2020.7.20 | 160면 | B6 | 12,800원

빌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
제임스 볼드윈 | 고정아 옮김
2020.7.20 | 304면 | B6 | 13,800원

인도로 가는 길(세계문학253)
E M 포스터 | 민승남 옮김
2020.7.20 | 552면 | B6 | 14,800원

기나긴 이별(세계문학252)
레이먼드 챈들러 | 김진준 옮김
2020.6.30 | 600면 | B6 | 14,800원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셀린 알바레즈 | 이세진 옮김
2020.6.30 | 400면 | A5변형 | 18,000원

우주 만두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20.6.30 | 320면 | 크라운변형 | 22,000원

역사의 끝까지
루이스 세풀베다 | 엄지영 옮김
2020.6.20 | 320면 | B6 | 13,800원

디저트를 만드는 아이
장자크 상페, 알랭 뒤카스 | 이원희 옮김
2020.6.10 | 152면 | A5변형 | 14,800원

기억(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20.5.30 | 각 400면 | B6 | 각 14,800원

어센든, 영국 정보부 요원
(세계문학251)
서머싯 몸 | 이민아 옮김
2020.5.30 | 416면 | B6 | 13,800원

의학 박사 미할젠의 자연으로 치료하기
안드레아스 미할젠 | 박종대 옮김
2020.5.20 | 440면 | A5신 | 22,000원

전투의 심리학(2020진중문고)
데이브 그로스먼 | 박수민 옮김
2020.5.12 | 624면 | B6 | 12,500원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
데이비드 엡스타인 | 이한음 옮김
2020.5.10 | 464면 | A5신 | 20,000원

스파이의 유산
존 르카레 | 김승욱 옮김
2020.4.30 | 456면 | B6 | 15,800원

폭풍우(세계문학250)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2020.4.30 | 176면 | B6 | 8,800원

베르가모의 페스트 외(세계문학249)
옌스 페테르 야콥센 | 박종대 옮김
2020.4.25 | 208면 | B6 | 11,800원

하퍼 리의 삶과 문학
김욱동
2020.4.25 | 360면 | B6 | 14,800원

로시니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20.4.20 | 400면 | A5변형 | 14,800원

비둘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2020.4.20 | 104면 | A5변형 | 12,800원

사랑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20.4.20 | 288면 | A5변형 | 14,800원

승부
파트리크 쥐스킨트 | 박종대 옮김
2020.4.20 | 80면 | A5변형 | 12,800원

좀머 씨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2020.4.20 | 128면 | A5변형 | 12,800원

콘트라바스
파트리크 쥐스킨트 | 박종대 옮김
2020.4.20 | 80면 | A5변형 | 12,800원

향수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20.4.20 | 400면 | A5변형 | 14,800원

불멸의 파우스트
안진태
2020.4.15 | 1000면 | A5신 | 45,000원

깊이에의 강요
파트리크 쥐스킨트 | 김인순 옮김
2020.4.10 | 88면 | A5변형 | 12,800원

디미트리오스의 가면(세계문학248)
에릭 앰블러 | 최용준 옮김
2020.3.30 | 424면 | B6 | 13,800원

코로나19
타일러 J. 모리슨 | 홍유진 옮김
2020.3.30 | 296면 | B6변형 | 12,000원

어린 왕자(2020알라딘리커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2020.3.20 | 148면 | B6변형 | 10,800원

유럽의 죽음 다문화의 대륙인가? 사라지는 세계인가?
더글러스 머리 | 유강은 옮김
2020.3.20 | 512면 | A5신 | 25,000원

하찮은 취향
김기열
2020.3.10 | 200면 | B6변형 | 16,800원

편집가가 하는 일
피터 지나 | 박중서 옮김
2020.3.5 | 552면 | A5변형 | 22,800원

Reality, No Reality
리아킴
2020.3.5 | 460면 | A5변형 | 25,000원

뷔히너 전집(당통의 죽음 외)
(세계문학247)
게오르크 뷔히너 | 박종대 옮김
2020.2.25 | 400면 | B6 | 12,800원

이 한 줄의 가사
이주엽
2020.2.25 | 272면 | B6변형 | 14,000원

대지의 슬픔
에리크 뷔야르 | 이재룡 옮김
2020.2.20 | 176면 | B6 | 12,800원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프레드 포드햄 | 이상원 옮김
2020.2.15 | 288면 | B5변형 | 22,000원

렉시콘
맥스 배리 | 최용준 옮김
2020.2.10 | 592면 | B6 | 17,800원

악령(세계문학57~59, 전3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혜경 옮김
2020.1.30 | 각 328, 408, 528면 | B6
각 11,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20
편집부 편
2020.1.30 | 448면 | A5변형 | 7,800원

나디아 이야기
브릿 베넷 | 정연희 옮김
2020.1.20 | 440면 | B6 | 15,800원

문래금속가공공장들의문장디자인
강수경
2020.1.20 | 408면 | B6변형 | 16,800원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 김희정 옮김
2020.1.5 | 520면 | A5변형 | 18,000원

2019

- 1월 주식회사 열린책들과 미메시스 정식 합병
- 5월 베르베르 신작 〈죽음〉 출간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IMAGE 7: before reading〉 전시 개최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2: FLAT, NOT FLAT〉 전시 개최
- 10월 홍지웅 대표, '책의 날' 기념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 서훈

- 11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3: Picturesque City〉 전시 개최
- 12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조선일보 선정 올해의 책
- 12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예스24 독자 선정 올해의 책
- 12월 〈죽음〉 한겨레 올해의 북 디자인 선정
- 신간 57종 59권, 총 64종 68권 발행

권은경

2018 - 2019

더나은통일을위한대화(손안의통일 1)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2019.12.25 | 256면 | B6변형 | 10,000원

우리의 소원은 평화(손안의 통일 2)
인디고서원
2019.12.25 | 176면 | B6변형 | 10,000원

북한에서 사업하기(손안의 통일 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임을출
2019.12.25 | 208면 | B6변형 | 10,000원

혐오 시대 헤쳐가기 (손안의 통일 4)
김태형
2019.12.25 | 200면 | B6변형 | 10,000원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 (손안의 통일 5)
정은찬
2019.12.25 | 184면 | B6변형 | 10,000원

은돌아, 산책 갈까?
문수지
2019.12.25 | 224면 | A5신 | 14,800원

천일야화(2019알라딘리커버, 전2권)
앙투안 갈랑 | 임호경 옮김
2019.12.25 | 960, 976면 | A5변형 | 각 38,000원

각성(세계문학 246)
케이트 쇼팽 | 한애경 옮김
2019.12.10 | 272면 | B6 | 10,800원

드라큘라 치과
조성민
2019.12.10 | 400면 | B6변형 | 13,800원

9시에서 9시 사이
레오 페루츠 | 신동화 옮김
2019.11.30 | 352면 | B6 | 14,800원

굿 라이어
니컬러스 설 | 이윤진 옮김
2019.11.30 | 544면 | B6 | 16,800원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윤형택
2019.11.25 | 280면 | A5변형 | 16,800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2019알라딘리커버)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19.11.20 | 448면 | B6 | 13,000원

반 고흐와 나
바바라 스톡 | 류동익 옮김
2019.11.10 | 160면 | A5변형 | 14,800원

브라운 신부의 순진(세계문학 245)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 이상원 옮김
2019.11.10 | 336면 | B6 | 12,800원

아는 척에 딱 좋은 단위, 원소, 수식
나이스크 | 위정훈 옮김
2019.11.5 | 360면 | A5변형 | 16,800원

모리스(세계문학 244)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19.10.30 | 408면 | B6 | 13,800원

태평양 전쟁
유진 B. 슬레지 | 이경식 옮김
2019.10.30 | 560면 | A5변형 | 25,000원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박종대 외 옮김
2019.10.30 | 784면 | A5변형 | 22,000원

조반니의 방
제임스 볼드윈 | 김지현 옮김
2019.10.25 | 352면 | B6 | 14,800원

좁은 문(세계문학 243)
앙드레 지드 | 김화영 옮김
2019.10.25 | 250면 | B6 | 10,800원

죽음 1(2019진중문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19.10.20 | 328면 | B6 | 7,000원

갈등 도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시민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김시덕
2019.10.10 | 512면 | A5변형 | 20,000원

에디의 끝
에두아르 루이 | 정혜용 옮김
2019.10.10 | 296면 | B6 | 14,800원

둥지
신시아 다프리 스위니 | 조동섭 옮김
2019.9.30 | 552면 | B6 | 16,800원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19.9.25 | 528면 | B6 | 14,800원

와일딩 홀
엘리자베스 핸드 | 이경아 옮김
2019.9.10 | 312면 | B6 | 12,800원

드라큘라 일러스트판
(2019알라딘리커버)
브램 스토커, 페르난도 비센테 | 이세욱 옮김
2019.8.30 | 656면 | A5신 | 24,800원

살인 세대
데이브 그로스먼 | 오수원 옮김
2019.8.30 | 328면 | A5변형 | 16,000원

한여름 밤의 꿈(세계문학 242)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2019.8.30 | 160면 | B6 | 8,800원

오늘의 퀴즈
유세윤, 유민하
2019.8.25 | 320면 | B6 | 12,000원

호텔 하데스
카타리나 그레베 | 박종대 옮김
2019.8.20 | 136면 | A5변형 | 13,800원

테베의 태양
돌로레스 레돈도 | 엄지영 옮김
2019.8.10 | 720면 | A5변형 | 18,800원

열기
조제프 인카르도나 | 장소미 옮김
2019.7.25 | 232면 | B6 | 12,800원

1918
다니엘 쉰플루크 | 유영미 옮김
2019.7.20 | 344면 | A5변형 | 18,000원

그날의 비밀
에리크 뷔야르 | 이재룡 옮김
2019.7.20 | 176면 | B6 | 12,800원

재윤의 삶
정재윤
2019.7.1 | 144면 | A5신 | 13,800원

마에스트라
L. S. 힐턴 | 이경아 옮김
2019.6.30 | 520면 | B6 | 15,800원

정글 북(세계문학 241)
러디어드 키플링 | 오숙은 옮김
2019.6.30 | 272면 | B6 | 10,800원

피터 팬(세계문학 240)
제임스 매슈 배리 | 최용준 옮김
2019.6.20 | 272면 | B6 | 9,800원

손들지 않는 기자들
임철순
2019.6.15 | 376면 | A5변형 | 15,000원

죽음(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19.5.30 | 각 328면 | B6 | 각 14,000원

전후 유럽 1945~2005 (신판, 전2권)
토니 주트 | 조행복 옮김
2019.5.30 | 각 856, 736면 | A5변형 | 각 35,000원

수레바퀴 아래서(세계문학 239)
헤르만 헤세 | 강명순 옮김
2019.5.25 | 272면 | B6 | 9,800원

꿈라뱔 지금을 고민하는 나에게
유정민
2019.4.30 | 304면 | B6 | 14,800원

문명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견뎌 낼 수 있을까
놈 촘스키 | 강주헌 옮김
2019.4.30 | 296면 | B6 | 15,000원

프리다 칼로
반나 빈치 | 이현경 옮김
2019.4.25 | 160면 | B5변형 | 15,800원

할리우드
찰스 부코스키 | 박현주 옮김
2019.4.25 | 352면 | B6 | 13,800원

파더 판다
훗한나
2019.4.20 | 200면 | A4변형 | 14,800원

화재의 색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2019.4.10 | 624면 | B6 | 14,800원

Timeline

도스토옙스키
비탈리 콘스탄티노프 | 박종대 옮김
2019.3.30 | 72면 | B5변형 | 12,800원

지금, 여기, 프랑스
김선미
2019.3.25 | 368면 | B5변형 | 14,800원

매핑 도스토옙스키
석영중
2019.3.15 | 440면 | A5신 | 16,800원

유리병 편지(전2권)
유시 아들레르올센 | 정장진 옮김
2019.3.10 | 각 424면 | B6 | 각 13,800원

질의응답
니나 브로크만, 엘렌 스퇴켄 달 | 김명남 옮김
2019.3.8 | 448면 | A5변형 | 14,800원

논문 잘 쓰는 방법(2019리커버)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19.3.5 | 336면 | A5신 | 13,000원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
박은영, 이상필
2019.3.1 | 432면 | 크라운변형 | 22,000원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 | 이한음 옮김
2019.2.25 | 512면 | A5변형 | 20,000원

앵무새 죽이기(2019리커버)
하퍼 리 | 김욱동 옮김
2019.2.20 | 544면 | B6 | 12,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19
편집부 편
2019.2.15 | 448면 | A5변형 | 7,800원

경험 수집가의 여행
앤드루 솔로몬 | 김명남 옮김
2019.1.25 | 760면 | A5변형 | 25,000원

살갗
그자비에 뮈사 | 윤진 옮김
2019.1.20 | 256면 | B5변형 | 25,000원

큐레이팅을 말하다
반이정, 전승보 외
2019.1.15 | 448면 | B6변형 | 22,000원

블러디 프로젝트
그레임 맥레이 버넷 | 조영학 옮김
2019.1.15 | 400면 | B6 | 13,800원

2018

- 4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IMAGE 5: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인문학당 〈문제적 건축: 한국 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강연 개최
- 6월 미메시스 한국 단편 문학선 〈테이크아웃〉 시리즈(총20종) 발행 시작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아트 앤 칠드런 마켓〉 개최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건축 놀이: 나만의 공간 만들기〉 진행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시각서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컬렉션〉 전시 개최
- 8월 〈장미의 이름〉 리커버 출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8월 〈피카소〉 클레망 우브르리 부천국제만화축제 참가
- 8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 갤러리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특별 초청전 개최
- 9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IMAGE 6: 임수민, 무심한 거리가 좋아서〉 전시 개최
- 10월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방한
- 10월 〈블랙박스〉 이토 시오리 방한, 『한겨레』 단독 인터뷰
- 11월 〈하우스프라우〉 유영번역상 수상
- 11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인문학당 〈문제적 건축: 한국 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강연 개최
- 12월 미메시스 〈테이크아웃〉 시리즈(총 20권) 완료
- 12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1: 리얼리티 쇼〉 전시 개최
- 12월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제24회 한국출판평론상 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65〉
- 신간 74종 78권, 총 98종 102권 발행

피뢰침
헬렌 디윗 | 김지현 옮김
2018.12.30 | 448면 | B6 | 13,800원

고양이(전2권, 2018진중문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18.12.30 | 각 240, 248면 | B6 | 각 6,400원

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 노승영 옮김
2018.12.20 | 536면 | A5신 | 22,000원

푸코의 진자(리커버)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18.12.15 | 1152면 | B6 | 32,000원

이반 일리치의 죽음 · 광인의 수기
(세계문학 238)
레프 똘스또이 | 석영중, 정지원 옮김
2018.12.15 | 232면 | B6 | 9,800원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뇌 사용법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2018.12.15 | 344면 | B6 변형 | 17,000원

아무도 없는 숲
김이환, 박혜미
2018.12.1 | 96면 | A6 변형 | 8,800원

부케를 발견했다
최정화, 이빈소연
2018.12.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이코
정용준, 무나씨
2018.12.1 | 2018년 | 96면 | A6 변형 | 8,800원

너 자신을 알라(철학사 3부작 2)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박종대 옮김
2018.11.20 | 720면 | A5변형 | 25,000원

프랑스 스케치(2018신판)
장자크 상페
2018.11.15 | 124면 | B5변형 | 14,800원

친구들과의 대화
샐리 루니 | 허진 옮김
2018.11.15 | 440면 | B6 | 13,800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전2권)
케빈 콴 | 이윤진 옮김
2018.11.10 | 각 408, 416면 | B6 | 각 13,800원

직업으로서의 음악가
김묵인
2018.11.5 | 264면 | B6 | 13,000원

목격
김엄지, 람한
2018.11.1 | 80면 | A6 변형 | 7,800원

꿈은, 미니멀리즘
은모든, 이방
2018.11.1 | 88면 | A6 변형 | 7,800원

목견
임현, 김혜리
2018.11.1 | 72면 | A6 변형 | 6,800원

낭만적인 개들
로베르토 볼라뇨 | 김현균 옮김
2018.10.30 | 248면 | B6 | 12,800원

제0호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18.10.30 | 336면 | B6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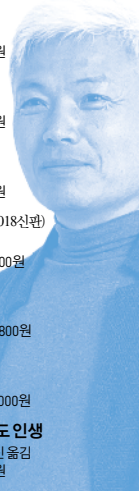
악의 비밀
로베르토 볼라뇨 | 박세형 옮김
2018.10.30 | 232면 | B6 | 12,800원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2018신판)
장자크 상페
2018.10.15 | 80면 | B5변형 | 14,800원

돌풍과 소강(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18.10.15 | 124면 | B5변형 | 14,800원

무한을 넘어서
유지니아 쳉 | 김성훈 옮김
2018.10.10 | 384면 | A5변형 | 18,000원

메르타 할머니의 우아한 강도 인생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정장진 옮김
2018.10.10 | 632면 | B6 | 14,800원



이석준

이람

2017 - 2018

누나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8.10.10 | 216면 | B5 변형 | 19,800원

끓인 콩의 도시에서
한유주, 오혜진
2018.1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팬텀 이미지
정지돈, 최지수
2018.1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문학의 새로운 세대
손아람, 성립
2018.10.1 | 88면 | A6 변형 | 7,800원

추남, 미녀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18.9.20 | 232면 | B6 | 11,800원

핵무기와 국제정치(2018증보판)
안준호
2018.9.15 | 360면 | A5신 | 18,000원

마주 보기(2018신판)
장자크 상페 | 배영란 옮김
2018.9.15 | 120면 | B5변형 | 14,800원

각별한 마음(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18.9.15 | 108면 | B5변형 | 14,800원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구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2018.9.15 | 320면 | B6 변형 | 16,800원

박찬용: 조각가로 산다는 것
박찬용
2018.9.1 | 200면 | 크라운판 변형 | 20,000원

묶
최은영, 손은경
2018.9.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비상문
최진영, 변영근
2018.9.1 | 88면 | A6 변형 | 7,800원

사랑하는 토끼 머리에게
오한기, 이소냐
2018.9.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안나 까레니나(전2권)
레프 똘스또이 | | 이명현 옮김
2018.8.30 | 각 800, 736면 | B6 | 각 14,800원

나는 뇌가 아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 | 전대호 옮김
2018.8.25 | 456면 | B6 | 18,000원

어느 독일인의 삶
브룬힐데 폼젤 토레 D. 한센 | 박종대 옮김
2018.8.15 | 328면 | B6 | 15,000원

겹겹의 의도(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18.8.15 | 104면 | B5변형 | 14,800원

아름다운 날들(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18.8.15 | 104면 | B5변형 | 14,800원

맥파이 살인 사건
앤서니 호로비츠 | 이은선 옮김
2018.8.10 | 624면 | B6 | 15,800원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
임수민
2018.8.10 | 424면 | B6 변형 | 14,800원

부산 이후부터
황현진, 신모래
2018.8.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뷰티.풀
박민정, 유지현
2018.8.01 | 76면 | A6 변형 | 6,800원

장미의 이름(리커버)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18.7.25 | 912면 | B6 | 25,000원

외도 보타니아
최호숙, 외도 보타니아
2018.7.20 | 224면 | A5변형 | 38,000원

오늘 내 기분은요
황정하
2018.7.20 | 520면 | B6 연장정 | 12,800원

얼굴 빨개지는 아이(신판)
장자크 상페 | 김호영 옮김
2018.7.20 | 128면 | B5변형 | 11,800원

뉴욕 스케치(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정장진 옮김
2018.7.15 | 96면 | B5변형 | 14,800원

파리 스케치(2018신판)
장자크 상페
2018.7.15 | 124면 | B5변형 | 14,800원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토머스 프랭크 | 고기탁 옮김
2018.7.10 | 400면 | A5변형 | 17,000원

불안에 대하여
앤드리아 피터슨 | 박다솜 옮김
2018.7.05 | 440면 | B6 | 16,000원

정선
최은미, 최지욱
2018.7.01 | 72면 | A6 변형 | 6,800원

우리는 사랑했다
강화길, 키미앤일이
2018.7.01 | 88면 | A6 변형 | 7,800원

밤이 아홉이라도
전석순, 훈한나
2018.7.01 | 148면 | A6 변형 | 9,800원

다운빌로 스테이션(전2권)
CJ 체리 | 최용준 옮김
2018.6.30 | 각 452, 456면 | B6 | 각 14,800원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2018.6.20 | 296면 | B6 변형 | 15,000원

어린왕자(2018진중문고)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2018.6.20 | 136면 | B6 | 4,900원

어설픈 경쟁(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이건수 옮김
2018.6.15 | 104면 | B5변형 | 14,800원

거창한 꿈(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18.6.15 | 104면 | B5변형 | 14,800원

분노의 시대
판카지 미슈라 | 강주헌 옮김
2018.6.15 | 464면 | A5신 | 22,000원

서울 선언
김시덕
2018.6.10 | 416면 | A5변형 | 18,000원

우리집 강아지
김학찬, 권신홍
2018.6.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춤추는 사신
배명훈, 노상호
2018.6.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섬의 애슐리
정세랑, 한예롤
2018.6.01 | 96면 | A6 변형 | 7,800원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신판)
장자크 상페 | 최영선 옮김
2018.5.30 | 96면 | B5변형 | 11,800원

고양이(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18.5.30 | 각 240, 248면 | B6 | 각 12,800원

식탁의 길
마일리스 드 케랑갈 | 정혜용 옮김
2018.5.25 | 160면 | B6 | 10,800원

블랙박스
이토 시오리 | 김수현 옮김
2018.5.25 | 252면 | A5 변형 | 13,800원

사치와 평온과 쾌락(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18.5.15 | 104면 | B5변형 | 14,800원

세상을 알라(철학사 3부작 1: 고대와 중세 철학)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 박종대 옮김
2018.5.15 | 680면 | A5변형 | 25,000원

속 깊은 이성 친구(2018신판)
장자크 상페 | 이세욱 옮김
2018.5.15 | 88면 | B5변형 | 14,800원

얼굴 빨개지는 아이
(알라딘리커버2018)
장자크 상페 | 김호영 옮김
2018.5.10 | 128면 | B5 | 12,800원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알라딘리커버2018)
장자크 상페 | 최영선 옮김
2018.5.10 | 96면 | B5 | 12,800원

개념에서 건축으로
김준성
2018.5.01 | 432면 | 크라운판 변형 | 26,000원

변신 이야기(세계문학 235)
오비디우스 | 이종인 옮김
2018.4.30 | 632면 | B6 | 15,800원

블랙 어스
티머시 스나이더 | 조행복 옮김
2018.4.30 | 616면 | A5변형 | 28,000원

Timeline

표범
브레흐트 에번스 | 임명주 옮김
2018.4.20 | 132면 | A4 변형 | 22,000원

사흘 그리고 한 인생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2018.4.15 | 320면 | B6 | 12,800원

노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2018.4.15 | 384면 | A5신 | 17,000원

식물 그리고 사람
손정민
2018.3.30 | 176면 | A5 변형 | 15,800원

돈키호테의 말
안영옥
2018. 3.30 | 304면 | B6 | 13,800원

미술을 알아야 산다
정장진
2018.3.20 | 432면 | B6 변형 | 22,000원

프랑켄슈타인(예스24리커버)
메리 셸리 | 오숙은 옮김
2018.3.20 | 320면 | B6 | 9,800원

그리고 신은 내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스 라트 | 박종대 옮김
2018.3.20 | 328면 | B6 | 13,800원

아름답고 죽은 그녀
로사 몰리아소 | 양영란 옮김
2018.3.20 | 184면 | B6 | 10,800원

왕국
엠마뉘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2018.3.10 | 704면 | B6 | 16,800원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조지프 스티글리츠 | 김홍식 옮김
2018. 3.5 | 368면 | B6 | 15,000원

만화 오르부아르
피에르 르메트르, 크리스티앙 드 메테르
임호경 옮김
2018.2.25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18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18.2.25 | 448면 | A5 변형 | 7,800원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전병근
2018. 2.10 | 600면 | B6 | 18,000원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부른다
빅토리아 페프, 레이철 홈스, 에이미 애넷,
마사 모스, 앨리스 스트라이드 | 박다솜 옮김
2018. 1. 31 | 312면 | B6 | 15,000원

공유 경제
마화텅, 장샤오롱, 쑨이, 차이슝산
양성희 옮김
2018.1.20 | 448면 | A5 변형 | 22,000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박은영
2018.1.25 | 384면 | A5 변형 | 16,800원

한국 동시대 미술 1998–2009
반이정
2018.1.10 | 560면 | B6 변형 | 25,000원

만화 타나토노트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18.1.10 | 184면 | 타블로이드판 | 16,800원

위대한 중서부의 부엌들
J. 라이언 스트라돌 | 이경아 옮김
2018.1.10 | 496면 | B6 | 14,800원

2017

- 5월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필두로 〈큰글자판〉 출간 시작
- 5월 〈일본의 대외 전쟁〉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진행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인문학당 〈건축, 잃어버린 시간들〉 강연 개최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재삼전: Moonscape 달빛〉 전시 개최
- 8월 크레이그 톰슨 부천국제만화축제 참가
- 7월 〈전쟁의 문헌학〉 문화 체육 관광부 세종도서 학술 부문 선정
- 8월 〈피카소〉 부천국제만화축제 해외 작품상 수상
- 10월 블루컬렉션 발행 시작
- 10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김태호전: 사라진 풍경〉 전시 개최
- 12월 『수용소군도』 22년 만에 한정판 재간
- 12월 홍지웅 대표의 글과 인터뷰를 묶은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출간
- 신간 56종 57권 발행, 총 72종 79권 발행

얼어붙은 바다
이언 맥과이어 | 정병선 옮김
2017.12.30 | 424면 | B6 | 13,800원

스타워즈로 본 세상
캐스 R. 선스타인 | 장호연 옮김
2017. 12. 25 | 320면 | B6 | 15,000원

침대부터 정리하라
윌리엄 H. 맥레이븐 | 고기탁 옮김
2017. 12. 20 | 128면 | A5 | 12,000원

수용소군도(전6권)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2017.12.10 | 각 448, 456, 480, 480, 512, 384면 | B6 | 59,800원

유로
조지프 스티글리츠 | 박형준 옮김
2017. 12.5 | 552면 | A5 변형 | 25,000원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홍지웅, 열린책들 편집부
2017.12.1 | 560면 | A5 변형 | 12,500원

나를 발견한 순간
로빈 브론크 | 김마림 옮김
2017.11.20 | 224면 | 크라운판 변형 | 22,000원

한국 건축의 정체성
이상헌
2017.11.15 | 512면 | A5 변형 | 22,000원

노르웨이의 나무
라르스 뮈팅 | 노승영 옮김
2017. 11. 15 | 280면 | A5 | 15,800원

프랑스 대통령의 모자
앙투안 로랭 | 양영란 옮김
2017.10.30 | 288면 | B6 | 10,000원

투쟁 영역의 확장
미셸 우엘벡 | 용경식 옮김
2017.10.30 | 232면 | B6 | 10,000원

오후 네시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2017.10.30 | 232면 | B6 | 10,000원

두 해 여름
에리크 오르세나 | 이세욱 옮김
2017.10.30 | 240면 | B6 | 10,000원

암퇘지
마리 다리외세크 | 정장진 옮김
2017.10.30 | 224면 | B6 | 10,000원

밑줄 긋는 남자
카롤린 봉그랑 | 이세욱 옮김
2017.10.30 | 208면 | B6 | 10,000원

저물녘 맹수들의 싸움
앙리프레데리크 블랑 | 임희근 옮김
2017.10.30 | 192면 | B6 | 10,000원

달리기
장 에슈노즈 | 이재룡 옮김
2017.10.30 | 160면 | B6 | 10,000원

건축의 색
이선민
2017.10.25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 19,800원

배반
폴 비티 | 이나경 옮김
2017.10.20 | 408면 | B6 | 13,800원

수상한 레스토랑 세컨즈
브라이언 리 오말리 | 박중서 옮김
2017.10.10 | 328면 | A5 변형 | 25,000원

침팬지와의 대화
로저 파우츠, 스티븐 투켈 밀스 | 허진 옮김
2017.9.15 | 506면 | A5 변형 | 25,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일란 파페 | 유강은 옮김
2017. 9. 5 | 568면 | B6 | 25,000원

내가 말해 줄게요
강주은
2017.8.25 | 416면 | A5 | 13,800원

김규훈

느빌 백작의 범죄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17.8.20 | 144면 | B6 | 11,800원

마제스틱 호텔의 지하
조르주 심농 | 임호경 옮김
2017.8.20 | 256면 | B6 변형 | 11,800원

매그레와 벤치의 사나이
조르주 심농 | 최애리 옮김
2017.8.20 | 256면 | B6 변형 | 11,800원

전쟁에서 살아남기
메리 로치 | 이한음 옮김
2017.8.15 | 352면 | A5 변형 | 16,000원

하우스프라우
질 알렉산더 에스바움 | 박현주 옮김
2017.7.20 | 416면 | B6 | 13,800원

코메 프리마: 예전처럼
얄프레드 | 이상해 옮김
2017.7.15 | 232면 | B5 변형 | 19,800원

상어와 헤엄치기
요리스 라위언데이크 | 김홍식 옮김
2017.7.10 | 416면 | B6 변형 | 17,000원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피에르 아도 | 이세진 옮김
2017.7.5 | 552면 | B6 변형 | 25,000원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마일리스 드 케랑갈 | 정혜용 옮김
2017.6.30 | 352면 | B6 | 12,800원

진정한 우정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17.6.30 | 164면 | B4 변형 | 13,800원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외(리커버)
존 르카레 | 김석희 · 최용준 옮김
2017.6.30 | 576면 | B6 | 14,800원

여기서
리처드 맥과이어 | 홍유진 옮김
2016.6.30 | 298면 | B5 변형 | 16,800원

문화 대혁명
프랑크 디쾨터 | 고기탁 옮김
2017.6.20 | 600면 | A5 변형 | 25,000원

레스토랑에서
크리스토프 리바트 | 이수영 옮김
2017.6.10 | 352면 | B6 변형 | 15,000원

조각가
스콧 맥클라우드 | 김마림 옮김
2017.6.10 | 49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진작 알았어야 할 일
진 한프 코렐리츠 | 김선형 옮김
2017.6.10 | 684면 | B6 | 14,800원

거대한 불평등
조지프 스티글리츠 | 이순희 옮김
2017.5.30 | 576면 | A5 | 25,000원

잠(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17.5.30 | 각 336, 328면 | B6 | 각 13,800원

러시아 소설
엠마뉘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2017.5.30 | 432면 | B6 | 13,800원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
스노우캣
2017.5.20 | 256면 | B6 변형 | 13,800원

죄와 벌(큰글자판, 전2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2017.5.10 | 각 624, 768면 | B6 | 각 14,800원

향수(큰글자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17.5.10 | 480면 | B6 | 14,800원

그리스인 조르바(큰글자판)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17.5.10 | 688면 | B6 | 14,800원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큰글자판)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17.5.10 | 704면 | B6 | 14,800원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
이광래
2017.4.25 | 624면 | A5신 | 29,800원

폭정
티머시 스나이더 | 조행복 옮김
2017.4.20 | 168면 | B5 변형 | 12,000원

차가운 계산기
필립 로스코 | 홍기빈 옮김
2017.4.20 | 384면 | A5신 | 17,000원

마오의 대기근
프랑크 디쾨터 | 최파일 옮김
2017.4.10 | 600면 | A5신 | 25,000원

우리의 미니멀 생활 일기
SE 편집부 | 오연경 옮김
2017.4.5 | 280면 | B6 변형 | 13,800원

스탠드 아웃
도리 클라크 | 박세연 옮김
2017.3.30 | 328면 | B6 | 15,000원

1984년/동물 농장
조지 오웰 | 박경서
2017.3.30 | 576면 | B6 | 14,800원

벙커 다이어리
케빈 브룩스 | 오숙은 옮김
2017.3.30 | 368면 | B6 | 12,800원

메르타 할머니, 라스베이거스로 가다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정장진 옮김
2017.3.25 | 480면 | B6 | 13,800원

이비쿠스
알렉세이 N. 톨스토이 | 파스칼 라바테 그림 이상해 옮김
2017.3.20 | 53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루이스 세풀베다 | 엄지영 옮김
2017.3.15 | 112면 | B6 | 10,800원

제여란: 그리기에 관하여
제여란
2017.3.10 | 216면 | 크라운판 변형 | 20,000원

전쟁의 문헌학
김시덕
2017.2.28 | 560면 | A5신 | 28,0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17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17.2.25 | 456면 | A5 변형 | 6,000원

난쟁이 백작 주주
에브 드 카스트로 | 정장진 옮김
2017.2.25 | 480면 | B6 | 13,800원

일상 속의 성차별
로라 베이츠 | 안진이 옮김
2017.2.15 | 424면 | A5 변형 | 16,800원

알렉산드르 블로크
최종술
2017.2.15 | 188면 | A5 변형 | 22,000원

동급생
프레드 울만 | 황보석 옮김
2017.2.10 | 160면 | B6 | 10,800원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마르쿠스 가브리엘 | 김희상 옮김
2017.1.30 | 344면 | B6 | 16,000원

언어와 정신(개정증보판)
허발
2017.1.30 | 632면 | A5신 | 27,000원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
에릭 부스 | 오수원 옮김
2017.1.25 | 520면 | A5신 | 25,000원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2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7.1.20 | 592면 | B6 | 18,000원

온라인 걸, 투어를 떠나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2017.1.15 | 480면 | B6 변형 | 13,800원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2017.1.15 | 492면 | B6 변형 | 13,800원

우리는 거짓말쟁이
E. 록하트 | 하윤숙 옮김
2017.1.10 | 312면 | B6 | 12,800원

2016 - 2017

2016

- 1월 교보문고가 지난 10년간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작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발표
- 2월 움베르토 에코(1932년생)와 하퍼 리(1926년생) 타계
- 2월 17일 미메시스 신사옥 완공, 이전
- 2월 미메시스 물류 센터 오픈
- 5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과 조선일보 주최 Asian Leadership Conference 공동 초청으로 방한.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연.

김지연

Timeline

Asian Leadership Conference 강연(2회), 미디어 인터뷰(EBS, jtbc, TV조선, 채널A 등), 팬 사인회(교보문고 광화문점, 서울문고 강남점 각 1회), 프로야구 시구 등 행사

- 6월 1일 한국 출판사 최초로 페이스북 페이지 팬 30만 명 돌파
- 6월 앙투안 로랭 주한 프랑스 문화원 초청으로 방한. 서울국제도서전과 프랑스 문화원에서 강연 및 팬 사인회, 미디어 인터뷰 등 행사
- 6월 미메시스 문화 공간 〈M314〉 오픈
- 7월 〈틀리지 않는 법〉 미래창조과학부 우수과학도서 선정
- 8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제여란전: 그리기에 대하여〉 전시 개최
- 8월 M314 파트너, 키즈 패션 브랜드 The Animal Observatory 쇼케이스
- 9월 창립 30주년 기념 대표 작가 12인 세트 출간
- 10월 〈M314〉 201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히트예감브랜드〉 선정
- 12월 〈틀리지 않는 법〉 한겨레신문 선정 올해의 책
- 12월 〈틀리지 않는 법〉 아태이론물리센터 선정 올해의 과학 도서
- 12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한겨레신문 선정 올해의 책
- 12월 〈틀리지 않는 법〉, 〈면역에 관하여〉 매일경제신문·교보문고 선정 2017년을 여는 베스트북
- 신간 51종 52권 발행, 총 69종 70권 발행

한국의 촬영 감독들
(사)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2016.12.25 | 496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샴페인 친구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16.12.25 | 192면 | B6 | 11,800원

위대한 멈춤
박승오, 홍승완
2016.12.15 | 552면 | A5신 | 22,000원

전문가의 독재
윌리엄 이스털리 | 김홍식 옮김
2016.12.5 | 592면 | A5신 | 25,000원

지하로부터의 수기 외(리커버:K)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계동준 외 옮김
2016.11.30 | 632면 | B6 | 14,800원

소송·변신 외(리커버:K)
프란츠 카프카 | 김재혁 · 홍성광 옮김
2016.11.30 | 656면 | B6 | 14,800원

무기여 잘 있거라 외(리커버:K)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2016.11.30 | 640면 | B6 | 14,800원

면역에 관하여
울라 비스 | 김명남 옮김
2016.11.25 | 312면 | B6 | 15,000원

디자인의 예술
도미니크 포레스트 외 6인 | 문경자, 이원경, 임명주 옮김
2016.11.20. | 928면 | 크라운판 변형 | 11,800원

성장을 넘어서
허먼 데일리 | 박형준 옮김
2016.11.15 | 472면 | A5 | 25,000원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들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16.11.10 | 456면 | B6 | 14,800원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
마리 다리외세크 | 임미경 옮김
2016.10.30 | 364면 | B6 | 12,800원

피카소의 파리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 임명주 옮김
2016.10.25. | 144면 | B5 변형 | 14,800원

피카소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 임명주 옮김
2016.10.25. | 364면 | B5 변형 | 25,000원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브라이언 스티븐슨 | 고기탁 옮김
2016.10.25 | 504면 | A5변형 | 17,000원

노래의 책(세계문학 234)
하인리히 하이네 | 이재영 옮김
2016.10.10 | 384면 | B6 | 13,800원

카인드 스토리
대니얼 루베츠키 | 박세연 옮김
2016.10.5 | 376면 | A5신 | 16,000원

세상과 나 사이
타네하시 코츠 | 오숙은 옮김
2016.9.15 | 248면 | B6 | 13,800원

장미의 이름(창립 30주년 기념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16.9.15 | 912면 | B6 | 10,000원

향수(창립 30주년 기념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16.9.15 | 384면 | B6 | 10,000원

꿈의 해석(창립 30주년 기념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인순 옮김
2016.9.15 | 912면 | B6 | 10,000원

죄와 벌(창립 30주년 기념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2016.9.15 | 1,040면 | B6 | 10,000원

어머니(창립 30주년 기념판)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2016.9.15 | 624면 | B6 | 10,000원

그리스인 조르바(창립 30주년 기념판)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16.9.15 | 528면 | B6 | 10,000원

개미(창립 30주년 기념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6.9.15 | 488면 | B6 | 10,000원

갈레 씨, 홀로 죽다 외(창립 30주년 기념판)
조르주 심농 | 임호경 옮김
2016.9.15 | 776면 | B6 | 10,000원

핑거스미스(창립 30주년 기념판)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16.9.15 | 912면 | B6 | 10,000원

소설(창립 30주년 기념판)
제임스 A. 미치너 | 윤희기 옮김
2016.9.15 | 696면 | B6 | 10,000원

뉴욕3부작(창립 30주년 기념판)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16.9.15 | 512면 | B6 | 10,000원

야만스러운 탐정들(창립 30주년 기념판)
로베르토 볼라뇨 | 우석균 옮김
2016.9.15 | 1,000면 | B6 | 10,000원

모터사이클로 유라시아
손현
2016.9.10. | 496면 | B6 변형 | 15,800원

일본의 대외 전쟁
김시덕
2016.8.25 | 560면 | A5신 | 28,000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큰글자판) 박봉식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16.8.20 | 672면 | B6 | 14,800원

해방의 비극
프랑크 디쾨터 | 고기탁 옮김
2016.8.10 | 544면 | A5 | 25,000원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루이스 세풀베다 | 엄지영 옮김
2016.7.20 | 104면 | B6 | 10,800원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재런 러니어 | 노승영 옮김
2016.7.15 | 560면 | A5 변형 | 25,000원

건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비톨트 립친스키 | 서경욱 옮김
2016.7.15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컬처 맵
에린 메이어 | 박세연 옮김
2016.6.30 | 352면 | A5 변형 | 15,000원

글로벌 아트마켓 크리틱
정연심 외
2016.6.30 | 240면 | A5 | 18,000원

모든 일이 드래건플라이 헌책방에서 시작되었다
셸리 킹 | 이경아 옮김
2016.6.25 | 360면 | B6 | 12,800원

시호와 러스티
백수현
2016.6.20 | 240면 | B6 변형 | 13,800원

프랑스 대통령의 모자
양투안 로랭 | 양영란 옮김
2016.6.15 | 272면 | B6 | 11,800원

빨간 수첩의 여자
양투안 로랭 | 양영란 옮김
2016.6.15 | 256면 | B6 | 11,800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 이순희 옮김
2016.6.15 | 800면 | A5신 | 33,000원

비우
이대미
2016.5.30 | 220면 | A5 변형 | 14,800원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
카트린 레퀴예 | 김유경 옮김
2016.5.25 | 192면 | A5 변형 | 13,000원

싱글로 산다
리즈 투칠로 | 김마림 옮김
2016.5.1 | 632면 | A6 변형 | 14,800원

제3인류 5, 6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전미연 옮김
2016.4.30 | 전6권 | 각 400, 384면 | B6
각 13,800원

틀리지 않는 법
조던 엘렌버그 | 김명남 옮김
2016.4.25 | 616면 | A5 변형 | 25,000원

호밀빵 햄 샌드위치
찰스 부코스키 | 박현주 옮김
2016.4.20 | 424면 | B6 | 13,800원

소년
이승욱
2016.4.15 | 224면 | B6 | 13,000원

콩고
크리스티앙 페리생 | 톰 티라보스코 그림
양영란 옮김
2016.3.30 | 184면 | A4 변형 | 16,800원

지상의 마지막 여친
사이먼 리치 | 이윤진 옮김
2016.3.25 | 272면 | B6 | 10,800원

와이 넛지? 똑똑한 정부는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
캐스 선스타인 | 박세연 옮김
2016.3.25 | 232면 | A5 변형 | 15,000원

광고로 읽는 미술사
정장진
2016.3.20 | 340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앵무새 죽이기(2016진중문고)
하퍼 리 | 김욱동 옮김
2016.3.15 | 544면 | B6 | 6,400원

핑거스미스(신판)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16.3.15 | 832면 | B6 | 16,800

돈키호테를 읽다(석탑교양총서 2)
안영옥
2016.3.15 | 360면 | A5 변형 | 18,000원

내면 보고서
폴 오스터 | 송은주 옮김
2016.3.10 | 368면 | B6 | 13,800원

디어 존, 디어 폴
폴 오스터, J. M. 쿳시 | 송은주 옮김
2016.3.10 | 336면 | B6 | 13,800원

호모 주리디쿠스(석탑교양총서 1)
손병석
2016.3.10 | 256면 | A5 변형 | 15,000원

앵무새 죽이기(2016진중문고)
하퍼 리 | 김욱동 옮김
2016.2.23 | 544면 | B6 | 6,400원

대번영의 조건
에드먼드 펠프스 | 이창근, 홍대운 옮김
2016.2.20 | 576면 | A5 변형 | 25,000원

예술 판독기
반이정
2016.2.20 | 360면 | A5 변형 | 22,000원

미술 철학사 3
이광래
2016.2.15 | 832면 | A5 변형 | 28,000원

미술 철학사 2
이광래
2016.2.15 | 832면 | A5 변형 | 28,000원

미술 철학사 1
이광래
2016.2.15 | 992면 | A5신판 변형 | 28,000원

브루클린(신판)
콜럼 토빈 | 오숙은 옮김
2016.2.5 | 376면 | B6 | 12,800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정장진 옮김
2016.1.30 | 536면 | B6 연장정 | 14,800원

스트리트 페인터
수신지
2016.1.30 | 592면 | B5 연장정 | 14,800원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마이클 캐롤런 | 배현 옮김
2016.1.30 | 456면 | A5신 | 25,000원

2015

- 3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슬기전: 분화석!〉 전시 개최
- 4월 미메시스 신사옥 착공
- 7~8월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하퍼 리의 〈파수꾼〉, 〈앵무새 죽이기〉 동시 진입(6주 연속)
- 8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강석호전: 독백〉 〈박은하전: 완전한 유물〉 전시 개최
- 9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전미래전: 삼합 발효의 연식술〉 전시 개최
- 10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세현전: 레드~개꿈〉 전시 개최
- 11월 7~13일 피에르 르메트르 주한 프랑스 문화원 초청으로 방한, 기자 간담회, 독자와의 만남(서울 주한 프랑스 문화원), 팬 사인회, 미디어 인터뷰 등 행사
- 11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YES24 선정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 11월 〈20세기를 생각한다〉 문화체육 관광부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 12월 〈개미〉, 〈앵무새 죽이기〉, 〈장미의 이름〉 「조선일보」 Books 선정 20년 이상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 12월 홍지웅 대표 제11회 〈자랑스러운 문과대인상〉 수상
- 12월 미메시스 신사옥 준공
- 12월 〈파수꾼〉 YES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신간 63종 67권 발행, 총 72종 77권 발행

내 친구 다머
더프 백더프 | 강수정 옮김
2015.12.30 | 236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스타타이드 라이징(전2권)
데이비드 브린 | 최용준 옮김
2015.12.30 | 각 400, 384면 | B6 | 12,800원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존 소렐 외 | 오수원 옮김
2015.12.25 | 160면 | B6 | 12,000원

여장 남자와 살인자
클로에 크뤼쇼데 | 김희진 옮김
2015.12.25 | 168면 | B5 변형 | 18,000원

젖은 모래 위의 두 발
안도핀 질리앙 | 이세진 옮김
2015.12.15 | 256면 | A5 변형 | 11,800원

마윈
류스잉, 펑정 | 양성희 옮김
2015.11.30 | 616면 | A5신 | 25,000원

유로피아나
파트리크 오우르제드니크 | 정보라 옮김
2015.11.30 | 176면 | B6 | 10,800원

데일리 픽션
노상호
2015.11.30 | 248면 | A5 변형 | 17,000원

악마도 때론 인간일 뿐이다
한스 라트 | 박종대 옮김
2015.11.25 | 328면 | B6 | 12,800원

부자들의 폭력
미셸 팽숑, 모니크 팽숑-샤를로 | 이상해 옮김
2015.11.25 | 280면 | B5 변형 | 19,800원

오르부아르
피에르 르메트르 | 임호경 옮김
2015.11.10 | 680면 | B6 | 14,800원

2015 - 2016

김효근

김승중

Timeline

소셜 미디어 2,000년
톰 스탠디지 | 노승영 옮김
2015.11.10 | 408면 | A5신 | 19,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제8판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15.10.25 | 440면 | B6 | 6,000원

리얼리스트
아사프 하누카 | 이예원 옮김
2015.10.25 | 128면 | 크라운판 변형
13,800원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황현산 옮김
2015.10.20 | 136면 | A5신 | 9,800원

글래머의 힘
버지니아 포스트렐 | 이순희 옮김
2015.10.10 | 480면 | A5신 | 25,000원

토레 다비드
어반 싱크 탱크 외 | 김마림 옮김
2015.10.10 | 480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유료 서비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2015.9.30 | 304면 | A5 변형 | 19,800원

스포츠 유전자
데이비드 엡스타인 | 이한음 옮김
2015.9.25 | 496면 | A5신 | 22,000원

전설의 땅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 | 오숙은 옮김
2015.9.25 | 480면 | B5 | 55,000원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맷 타이비 | 이순희 옮김
2015.9.5 | 544면 | A5신 | 22,000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문학 233)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 김인순 옮김
2015.9.5 | 464면 | B6 | 11,800원

거대한 수염을 가진 남자
스티븐 콜린스 | 이경아 옮김
2015.8.25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16,800원

앤디 워홀의 철학(신판)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2015.8.25 | 288면 | 규격외 | 16,800원

요령 있게 삽시다
댄 마셜 | 안진이 옮김
2015.8.20 | 304면 | B6 변형 | 12,000원

근대 조선과 일본
조경달 | 최덕수 옮김
2015.8.15 | 320면 | A5신 | 15,000원

일러스트 공산당 선언
카를 마르크스 외 | 박종대 옮김
2015.8.10 | 184면 | A5 변형 | 11,800원

파수꾼
하퍼 리 | 공진호 옮김
2015.7.15 | 424면 | B6 | 12,800원

자꾸 생각나
송아람
2015.7.15 | 620면 | B6 변형 | 15,800원

야망의 시대
에반 오스노스 | 고기탁 옮김
2015.7.10 | 568면 | A5신 | 19,800원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 김욱동 옮김
2015.6.30 | 544면 | B6 | 12,800원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신판)
스노우캣(권윤주)
2015.6.20 | 112면 | A5 | 12,800원

스노우캣의 지우개(신판)
스노우캣(권윤주)
2015.6.20 | 164면 | A5 | 13,800원

뉴욕의 스노우캣(신판)
스노우캣(권윤주)
2015.6.20 | 204면 | A5 | 13,800원

파리의 스노우캣
스노우캣(권윤주)
2015.6.20 | 176면 | A5 | 13,800원

9990개의 치즈
빌렘 엘스호트 | 박종대 옮김
2015.6.20 | 184면 | B6 | 10,800원

20세기를 생각한다
토니 주트 | 조행복 옮김
2015.6.15 | 520면 | A5신 | 25,000원

체 게바라(전2권, 신판)
존 리 앤더슨 | 허진 옮김
2015.6.15 | 각 792, 800면 | B6 | 18,000원

자살 특공대 피자 가게
에트가르 케레트, 아사프 하누카 | 이원경 옮김
2015.6.10 | 104면 | AB 변형 | 13,800원

군인
볼프 슈나이더 | 박종대 옮김
2015.6.5 | 584면 | A5신 | 25,000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카미유 앙솜 | 양영란 옮김
2015.5.30 | 296면 | B6 | 11,800원

작가들이 사는 동네(전2권)
공살루 M. 타바리스 | 엄지영 옮김
2015.5.25 | 각 328면 | A5 변형
각 13,800원

돌풍과 소강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15.5.25 | 120면 | B4 변형 | 24,000원

스칸디맘
헬레나 슈츠 | 홍유진 옮김
2015.5.20 | 400면 | A5 변형 | 16,800원

대면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2015.5.10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 14,800원

우리는 우리 뇌다
디크 스왑 | 신순림 옮김
2015.4.30 | 568면 | A5신 | 25,000원

생쥐와 친구가 된 고양이
루이스 세풀베다 | 엄지영 옮김
2015.4.15 | 88면 | B6 | 10,800원

오스카 와일드, 아홉 가지 이야기
오스카 와일드 | 최애리 옮김
2015.4.15 | 280면 | B6 | 10,800원

라스트맨(전2권)
발락, 상라빌,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5.4.10 | 각 216면 | A5 | 9,800원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한스 라트 | 박종대 옮김
2015.4.3 | 320면 | B6 | 12,800원

토끼와 거북이
제리 핑크니 | 김예환 옮김
2015.3.25 | 40면 | B4 변형 | 10,800원

성(세계문학 232)
프란츠 카프카 | 이재황 옮김
2015.3.15 | 554면 | B6 | 12,800원

자아와 방어 기제
안나 프로이트 | 김건종 옮김
2015.3.10 | 240면 | B6 | 15,000원

0초 사고
아카바 유지 | 이영미 옮김
2015.3.5 | 224면 | A5 변형 | 11,800원

아자젤
아이작 아시모프 | 최용준 옮김
2015.3.5 | 360면 | B6 | 12,800원

하우스와이프 2.0
에밀리 맷차 | 허원 옮김
2015.3.5 | 432면 | B5 변형 | 16,800원

프린트&패턴 키즈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2015.3.5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 19,800원

뮤지컬(신판)
스티븐 시트론 | 정재왈, 정명주 옮김
2015.2.25 | 416면 | 규격외 | 28,000원

세계 영화 대사전(신판)
제프리 노웰 스미스 지음 | 이순호 옮김
2015.2.20 | 1000면 | A4 변형 | 32,000원

엄청멍충한
한승재
2015.2.15 | 296면 | B6 | 12,800원

괴테 문학 강의
안진태
2015.2.15 | 592면 | A5신 | 28,000원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
박웅현
2015.2.10 | 224면 | B6 변형 | 12,800원

인티사르의 자동차
페드로 리에라, 나초 카사노바 | 엄지영 옮김
2015.2.10 | 208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웰컴, 삼바
델핀 쿨랭 | 이상해 옮김
2015.1.30 | 352면 | B6 | 12,800원

럭키 짐
킹슬리 에이미스 | 김선형 옮김
2015.1.20 | 384면 | B6 | 12,800원

기억의 집
토니 주트 | 배현 옮김
2015.1.15 | 240면 | A5신 | 13,000원

리모노프
엠마뉘엘 카레르 | 전미연 옮김
2015.1.15 | 528면 | B6 | 13,800원

수중 용접공
제프 르미어 | 박중서 옮김
2015.1.15 | 224면 | 크라운판 변형 | 15,800원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 테오의 13일
로렌차 젠틸레 | 천지은 옮김
2015.1.12 | 224면 | B6 | 11,800원

나를 디자인하라(신판)
카림 라시드 | 이종인 옮김
2015.1.15 | 312면 | A5신 | 16,800원

부모와 다른 아이들(전2권)
앤드루 솔로몬 | 고기탁 옮김
2015.1.2 | 각 872, 760면 | A5신 | 22,000원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링북
오연경
2015.1.1 | 112면 | A5 변형 | 7,500원

2014

- 1월 23일 열린책들 신사옥 완공 및 이전
- 2월 〈죄와 벌〉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대학 신입생 추천 도서 선정
- 3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박찬용 조각전〉 전시 개최
- 4월 세계문학 앱(안드로이드) 출시
- 5월 밀로시 우르반 주한체코 문화원 초청으로 방한. 출판 기념회, 독자와의 만남(주한체코문화원 캐슬프라하), 체코 영화제 〈산티니의 말〉 상영 및 저자와의 대화(서울아트시네마),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가해 팬 사인회, 미디어 인터뷰 등 행사
- 6월 〈실패가 우리를 가르친다〉, 〈이데올로기〉 문화 체육 관광부 세종도서 학술 부문 선정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홍순명전: 스펙터클의 여백〉 전시 개최
- 7월 홍지웅 열린책들 대표 카바쿠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으로부터 포르투갈 문학 출판과 미술전 개최 등 교류를 증진한 공로로 엔리케 훈장 수훈
- 7월 세계문학 앱 네이버 앱스토어 출시, 전체 다운로드 1위
- 7~8월 교보문고, YES24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종합 베스트셀러 1위(7주 연속)
- 7~8월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동시 진입(10주 연속)
- 8월 21일 열린책들 페이스북 페이지 팬 20만 명 돌파(출판계 1위)
- 9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YES24 선정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계의 작가-오늘을 사는 작가 부문〉 1위
- 9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민병헌 흑백사진전〉 전시 개최
- 10월 2015년 다이어리 31종 출시
- 11월 미메시스 첫 e-book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 출간
- 11월 『돈키호테』 1,700면 완역판 출간
- 12월 〈제3인류〉,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YES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12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YES24 예스블로거 선정 〈올해의 책〉, 인터파크 독자 선정 〈골든북 어워즈〉
- 신간 71종 78권, 총 76종 83권 발행

천국 주식회사
사이먼 리치 | 이윤진 옮김
2014.12.10 | 320면 | B6 | 12,800원

살아야 할 이유
제니퍼 마이클 헥트 | 허진 옮김
2014.12.5 | 328면 | A5 변형 | 18,000원

달리
보두앵 | 윤진 옮김
2014.12.1. | 168면 | B5 변형 | 16,800원

여인의 초상(전2권, 세계문학 230, 231)
헨리 제임스 | 정상준 옮김
2014.11.25 | 각 520, 532면 | B6 | 12,800원

페스트(세계문학 229)
알베르 카뮈 | 최윤주 옮김
2014.11.20 | 424면 | B6 | 12,800원

가을
존 맥노트 | 홍유진 옮김
2014.11.20 | 64면 | A4 변형 | 13,800원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
윌리 오스발트 | 김희상 옮김
2014.11.15 | 176면 | B6 | 11,800원

돈키호테(전2권)
미겔데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 안영옥 옮김
2014.11.15 | 각 784, 936면 | A5 변형
각 15,800원

반 고흐
바바라 스톡 | 이예원 옮김
2014.11.10 | 144면 | 크라운판 변형 | 13,800원

나는 빼빼로가 두려워
박생강
2014.10.30 | 256면 | B6 | 11,800원

빚으로 지은 집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 박기영 옮김
2014.10.30 | 320면 | A5 변형 | 15,000원

두이노의 비가(세계문학 228)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손재준 옮김
2014.10.25 | 496면 | B6 | 12,800원

철학 한입 더 철학자 편
데이비드 에드먼즈, 나이젤 워버턴
노승영 옮김
2014.10.25 | 360면 | A5 변형 | 16,800원

가시내
마리 다리외세크 | 최정수 옮김
2014.10.20 | 344면 | B6 | 13,800원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
알베르 카뮈 | 호세 무뇨스 그림 | 김화영 옮김
2014.10.20 | 400면 | 크라운판 변형 | 14,800원

포르투갈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2014.10.10 | 264면 | A4 변형 | 22,8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4: 삶이 좀 엉켰어
토마 카덴 외 | 김희진 옮김
2014.10.10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배고픔의 자서전(신판)
아멜리 노통브 | 전미연 옮김
2014.10.10 | 280면 | B6 | 11,800원

머큐리(신판)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14.10.10 | 256면 | B6 | 11,800원

불쏘시개(신판)
아멜리 노통브 | 함유선 옮김
2014.10.10 | 120면 | B6 | 10,800원

두려움과 떨림(신판)
아멜리 노통브 | 전미연 옮김
2014.10.10 | 200면 | B6 | 11,800원

적을 만들다
움베르토 에코 | 김희정 옮김
2014.9.25 | 320면 | A5 변형 | 17,000원

푸른 수염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14.9.15 | 196면 | B6 | 11,800원

뭉크
스테펜 크베넬란 | 권세훈 옮김
2014.9.15 | 288면 | B5 변형 | 22,000원

일본의 제품 디자인
나오미 폴록 | 곽재은 옮김
2014.9.15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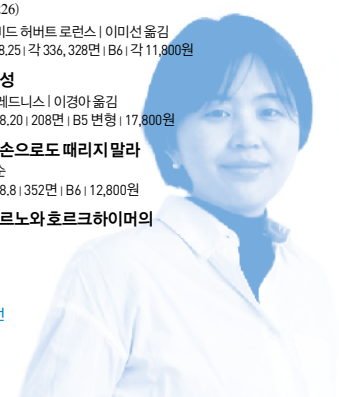
데미안(세계문학 227)
헤르만 헤세 | 김인순 옮김
2014.9.1 | 272면 | B6 | 10,800원

채털리 부인의 연인(전2권, 세계문학 225, 226)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 | 이미선 옮김
2014.8.25 | 각 336, 328면 | B6 | 각 11,800원

방사성
로렌 레드니스 | 이경아 옮김
2014.8.20 | 208면 | B5 변형 | 17,800원

효자손으로도 때리지 말라
임철순
2014.8.8 | 352면 | B6 | 12,800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김행선

Timeline

오뒷세이아
클로디 아멜 | 프레데릭 코셰 그림
이세진 옮김
2014.8.5 | 176면 | A5 변형 | 13,500원

버스
폴 커시너 | 이예원 옮김
2014.8.4 | 128면 | 규격외 | 10,800원

자살 클럽(세계문학 224)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임종기 옮김
2014.7.30 | 280면 | B6 | 10,800원

다운타운
노엘 랑, 로드리고 가르시아 | 엄지영 옮김
2014.7.30 | 136면 | AB 변형 | 12,800원

헤겔의 눈물
올리비아 비앙키 | 에두아르 바리보 그림
김동훈 옮김
2014.7.25 | 192면 | A5 변형 | 13,500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세계문학 223)
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 | 윤새라 옮김
2014.7.20 | 464면 | B6 | 11,800원

재평가
토니 주트 | 조행복 옮김
2014.7.20 | 616면 | A5신 | 28,000원

코코넛 오일의 기적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2014.7.15 | 433면 | B6 | 14,500원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14.7.15 | 544면 | B6 | 14,800원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서경욱 외
2014.7.5 | 512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예쁜 여자
권용득
2014.6.30 | 192면 | 크라운판 변형 | 12,800원

문화유전자 전쟁
칼레 라슨, 애드버스터스 | 노승영 옮김
2014.6.20 | 432면 | A5 변형 | 28,000원

일곱 성당 이야기
밀로시 우르반 | 정보라 옮김
2014.6.20 | 496면 | B6 | 13,800원

엄마 말대로 하면 돼
알렉스 컨스 | 강무성 옮김
2014.6.20 | 192면 | 크라운판 | 12,800원

샤리바리
윤선자
2014.6.10 | 472면 | A5신 | 25,000원

안녕, 청키 라이스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14.6.5 | 128면 | 크라운판 변형 | 9,800원

희망의 불꽃
조너선 코졸 | 이순희 옮김
2014.6.5 | 392면 | A5신 | 17,000원

의적 메메드(전 2권)
야샤르 케말 | 오은경 옮김
2014.5.30 | 각 304, 312면 | B6 | 각 11,800원

브라보, 나의 삶
보두앵, 트롬스 | 정혜용 옮김
2014.5.25 | 136면 | 크라운판 변형 | 12,800원

볼라뇨 전염병 감염자들의 기록
에두아르도 라고 외 | 신미경 옮김
2014.5.25 | 320면 | B6 | 2,666원

아이스링크
로베르토 볼라뇨 | 박세형 옮김
2014.5.15 | 288면 | B6 | 13,800원

살인 창녀들
로베르토 볼라뇨 | 박세형, 이경민 옮김
2014.5.15 | 296면 | B6 | 13,800원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오연경
2014.5.10 | 496면 | A5 변형 | 20,000원

영국 전투
마이클 코다 | 이동훈 옮김
2014.4.30 | 352면 | A5신 | 20,000원

늑대 인간
리차드 아피냐네시, 스와바 하라시모비치
이예원 옮김
2014.4.25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아이웨이웨이 | 오숙은 옮김
2014.4.15 | 520면 | A5 변형 | 25,000원

위대한 유산(전 2권, 세계문학 221, 222)
찰스 디킨스 | 류경희 옮김
2014.4.5 | 각 432, 448면 | B6 | 각 11,800원

봄꽃도 한때
심흥아, 서윤아, 박문영, 이지나, 노영미
2014.4.5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 9,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14
열린책들 편집부
2014.3.30 | 424면 | A5 변형 | 6,000원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줄리언 어산지 외 | 박세연 옮김
2014.3.25 | 240면 | A5 변형 | 14,000원

상페의 어린 시절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14.3.25 | 288면 | 크라운판 변형 | 22,000원

제3인류 4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4.3.20 | 336면 | B6 | 13,800원

자연을 거슬러
토마스 에스페달 | 손화수 옮김
2014.3.20 | 236면 | B6 | 11,800원

비극의 탄생(세계문학 220)
프리드리히 니체 | 김남우 옮김
2014.3.20 | 304면 | B6 | 12,800원

에펠 스타일
마르틴 뱅상, 브리지트 뒤리 외 | 배영란 옮김
2014.2.25 | 280면 | B5 변형 | 26,000원

안트베르펜
로베르토 볼라뇨 | 김현균 옮김
2014.2.24 | 142면 | B6 | 10,800원

노예 12년
솔로몬 노섭 | 오숙은 옮김
2014.2.22 | 336면 | B6 | 10,800원

마의 산(전 3권, 세계문학 217~219)
토마스 만 | 윤순식 옮김
2014.2.20 | 각 496면 | B6 | 각 11,800원

늑대의 꼬리
마리노 네리 | 천지은 옮김
2014.2.20 | 144면 | A5 변형 | 9,800원

돌을 취하여 보배를 짓다
최규명
2014.2.19 | 300면 | 규격외 | 45,000원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쓰키아시 다쓰히코 | 최덕수 옮김
2014.2.5 | 496면 | A5신 | 28,000원

제3인류 3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4.1.22 | 336면 | B6 | 13,800원

왜 책을 만드는가?
맥스위니스 편집부 | 박중서, 곽재은 옮김
2014.1.22 | 408면 | 크라운판 변형 | 26,800원

예술 애호가들
브레흐트 에번스 | 박중서 옮김
2014.1.20 | 224면 | A4 변형 | 22,000원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
프랑크 비베 | 박종대 옮김
2014.1.20 | 304면 | A5 변형 | 13,800원

겨울 일기
폴 오스터 | 송은주 옮김
2014.1.15 | 256면 | B6 | 11,800원

이데올로기
김광현
2014.1.10 | 480면 | A5신 | 22,000원

김하늬

2013

- 2월 세계문학 앱(iOS) 출시, 앱스토어 매출1위, 다운로드 1위
- 3월 동아일보와 「스페이스」 선정,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 16위에 선정
- 4월 매경 모바일 브랜드 대상 (세계문학 앱 핫 100선 선정)
- 4월~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박진화전: 시야〉 〈이혜승: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 원화전〉 전시 개최
- 5월 〈셰익스피어 역사극〉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 선정
- 5월 〈선셋 파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 9월~10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전자책 리디북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2012 - 2013

- 10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정직성전〉 전시 개최
- 11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초청으로 방한. 미디어 인터뷰, 플라톤아카데미 주최 강연(청중 3천 명, SBSCNBC 방영)외 1회, 사인회(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각 1회), 독자와의 만남(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등 행사
- 11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3인류〉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11월 〈제3인류〉 전자책, 교보문고 전자책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11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전자책 전집 앱(iOS) 출시, 앱스토어 도서 부문 다운로드 및 매출 1위
- 11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불안: 포르투칼적 표현 양식들〉 전시 개최
- 12월 〈제3인류〉 알라딘 선정 〈올해의 책〉
- 12월 열린책들 페이스북 페이지 팬 10만 명 돌파(출판계 1위). 기념 아카이브 도서 〈열린책들 페이스북 리포트〉 시리즈 3종 출간(〈폴 오스터, 페친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열린책들 온마담입니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고전 명작 속 한 문장〉)
- 12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YES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12월 〈불평등의 대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선정 〈올해의 책〉
- 12월 〈플루토크라트〉 「매일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시사인』 선정 〈올해의 책〉
- 전자책 누적 발행종수 239권
- 신간 49종 56권, 총 57종 71권 발행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파블로 엘게라 | 고기탁 옮김
2013.12.30 | 144면 | B6 | 11,000원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유디트 바니스텐달 | 이원경 옮김
2013.12.20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2666(전5권)
로베르토 볼라뇨 | 송병선 옮김
2013.12.19 | 1752면 | B6 | 66,600원

짝 이룬 남녀는 서로 사랑한다
프레데릭 파작 | 레아 룬트 그림 | 정혜용 옮김
2013.12.15 | 388면 | A5 변형 | 13,800원

팽 선생
로베르토 볼라뇨 | 남진희 옮김
2013.11.30 | 192면 | B6 | 11,800원

그래픽 모비 딕
맷 키시 | 강수정 옮김
2013.11.30 | 608면 | 크라운판 변형 | 32,000원

센티멘털 포르노그래피
지미 볼리 외 | 이상해 옮김
2013.11.15 | 292면 | A5 | 16,800원

마주 보기
장자크 상페 | 배영란 옮김
2013.11.15 | 120면 | B4 변형 | 24,000원

프린트&패턴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2013.10.28 | 624면 | B5 변형 | 35,000원

제3인류 1, 2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3.10.21 | 각 448, 336면 | B6 | 각 13,800원

더블린 사람들(세계문학 216)
제임스 조이스 | 이강훈 옮김
2013.10.20 | 336면 | B6 | 10,8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3: 들통 날 거짓말
토마 카덴 | 뱅상 소렐 외 20명 그림
김희진 옮김
2013.10.15 | 208면 | B5 변형 | 16,800원

플루토크라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 박세연 옮김
2013.10.10 | 488면 | A5 변형 | 20,000원

만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3
베르나르 베르베르 | 김수박 그림 | 이세욱, 임호경 옮김
2013.10.10 | 216면 | B5 변형 | 12,800원

참을 수 없는 가우초
로베르토 볼라뇨 | 이경민 옮김
2013.9.30 | 192면 | B6 | 10,800원

파란색은 따뜻하다
쥘리 마로 | 정혜용 옮김
2013.9.9 | 160면 | A5 | 14,800원

아버지들의 아버지(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3.9.5 | 각 280, 296면 | B6 | 각 11,800원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3.8.15 | 144면 | B5 변형 | 12,800원

모비 딕(전2권, 세계문학 214, 215)
허먼 멜빌 | 강수정 옮김
2013.8.15 | 각 464, 488면 | B6 | 각 11,800원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캐서린 헤일스 | 허진 옮김
2013.8.10 | 568면 | A5 변형 | 25,000원

내 눈 안의 너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옮김
2013.8.5 | 136면 | B5 변형 | 14,800원

뇌(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3.7.30 | 각 328, 320면 | B6 | 각 11,800원

오연경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임호경 옮김
2013.7.25 | 512면 | B6 | 13,800원

실패가 우리를 가르친다
박설호
2013.7.20 | 352면 | A5 | 18,000원

하비비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13.7.20 | 672면 | 크라운판 변형 | 24,800원

개의 심장(세계문학 213)
미하일 불가꼬프 | 정연호 옮김
2013.7.10 | 338면 | B6 | 10,800원

안정효의 오역 사전
안정효
2013.6.15 | 832면 | A5 변형 | 28,000원

레논
다비드 포앙키노스 | 이상해 옮김
2013.6.15 | 256면 | B6 | 각 11,800원

제3제국
로베르토 볼라뇨 | 이경민 옮김
2013.6.15 | 400면 | B6 | 12,800원

등대로(세계문학 212)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13.6.10 | 328면 | B6 | 10,8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생기론
장용순
2013.5.30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 이순희 옮김
2013.5.30 | 624면 | A5 변형 | 25,000원

타나토노트(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3.5.30 | 각 424, 416면 | B6 | 각 12,800원

개미(전5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3.5.30 | 각 456, 360, 344, 512, 456면
B6 | 각 12,800원

워털루와 트라팔가르
올리비에 탈레크
2013.5.25 | 64면 | B5 변형 | 13,000원

한 사람
레이 폭스 | 이원경 옮김
2013.5.25 | 176면 | A4 변형 | 14,800원

전투의 심리학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W. 크리스텐슨
박수민 옮김
2013.5.15 | 624면 | A5 변형 | 25,000원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
홍지웅
2013.5.11 | 640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만화가의 여행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13.4.30 | 228면 | A5신 | 12,8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2: 수상한 친구들
토마 카덴, 바스티앙 비베스, 마누엘레 피오르 외 16인 | 김희진 옮김
2013.4.30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Timeline

말테의 수기(세계문학 211)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안문영 옮김
2013.4.10 | 320면 | B6 | 10,800원

사랑의 파괴(신판)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2013.4.5 | 224면 | B6 | 10,800원

최악의 동반자
장피에르 필리유, 다비드 베 | 임순정 옮김
2013.3.30 | 128면 | B6 변형 | 14,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13
열린책들 편집부
2013.3.30 | 424면 | A5 변형 | 6,000원

B형 간염의 치료 (증보판)
현철수
2013.3.20 | 224면 | A5 변형 | 10,800원

선셋 파크
폴 오스터 | 송은주 옮김
2013.3.20 | 336면 | B6 | 12,800원

엎지른 모유
시쿠 부아르키 | 남진희 옮김
2013.3.10 | 224면 | B6 | 10,800원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 백경미 옮김
2013.3.5 | 240면 | A5 변형 | 13,000원

타인들의드라마#01: 로또 맞은 여대생
토마 카뎬, 바스티앙 비베스, 뱅상 소렐 외 14인 | 김희진 옮김
2013.2.25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이노베이터의 탄생
토니 와그너 | 고기탁 옮김
2013.2.25 | 472면 | A5 변형 | 18,000원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
리처드 거버 | 안진희 옮김
2013.2.20 | 272면 | A5 변형 | 14,000원

언어와 정신
허발
2013.2.20 | 568면 | A5신 | 27,000원

페드르와 이폴리트(세계문학 210)
장 라신 | 신정아 옮김
2013.2.15 | 200면 | B6 | 9,800원

인간과 초인(세계문학 209)
조지 버나드 쇼 | 이후지 옮김
2013.2.5 | 320면 | B6 | 10,800원

길고양이 콩가
잉그리드 리 | 김유진 그림 | 정희성 옮김
2013.1.25 | 216면 | A5신 | 9,800원

아이네이스 1
베르길리우스 | 김남우 옮김
2013.1.15 | 256면 | B6 | 11,800원

프라하의 묘지(전2권)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13.1.15 | 각 392, 408면 | B6 | 각 13,800원

홍현영

2012

- 3월 조선일보 기획 기사 〈101 파워 클래식〉(101명의 명사가 추천하는 고전) 리스트에 열린책들 보유 도서 29종 포함,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과 〈그리스인 조르바〉가 추천인수 최다 공동 1위(9명 추천), 〈죄와 벌〉이 공동 7위(4명 추천)를 기록
- 3월 종로1가 M스퀘어에서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북콘서트 개최. 노문학자 석영중 강연, 연극인 이상구 낭송, 독자 50여 명 참여
- 4월 미메시스 그래픽노블 홍보 매체 〈리트머스〉 1호 발행
- 〈예술의 사회 경제사〉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선정
- 5월 종로1가 M스퀘어에서 〈그리스인 조르바〉 북콘서트 개최. 광고인 박웅현 강연, 독자 80여 명 참여
- 5월 〈그리스인 조르바〉 교보문고 외국 소설 베스트셀러 1위
- 10월 〈출판저널〉에서 실시한 장병 독서 실태 조사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도서들이 〈장병들이 추천하는 책 Top 10〉에 〈개미〉(3위), 〈뇌〉(5위), 〈신〉(5위) 등 3종, 장병들이 읽고 싶은 책 Top 7에 〈개미〉(1위), 〈신〉(3위), 〈뇌〉(5위), 〈타나토노트〉(6위), 〈웃음〉(7위) 등 5종 포함
- 10월~11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
- 전자책 31종 43권 출시
- 신간 72종 79권, 총 82종 90권 발행

개성의 힘
마르쿠스 헹스트슐레거 | 권세훈 옮김
2012.12.20 | 216면 | A5신 | 13,000원

홀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스티븐 홀 | 이원경 옮김
2012.12.5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저술 출판 독서의 사회사(신판)
존 맥스웰 해밀턴 | 승영조 옮김
2012.12.5 | 576면 | A5 변형 | 22,000원

트라우마
주디스 허먼 | 최현정 옮김
2012.12.5 | 456면 | A5신 | 18,000원

공격(2판)
아멜리 노통브 | 김민정 옮김
2012.11.30 | 240면 | B6 | 10,800원

오후 네시(3판)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2012.11.20 | 256면 | B6 | 10,800원

시간의 옷(2판)
아멜리 노통브 | 함유선 옮김
2012.11.20 | 240면 | B6 | 10,800원

담요
크레이그 톰슨 | 박여영 옮김
2012.11.20 | 592면 | B5 변형 | 24,800원

길 끝에서 만난 이야기
루이스 세풀베다 | 엄지영 옮김
2012.11.10 | 288면 | B6 변형 | 10,800원

가재걸음
움베르토 에코 | 김희정 옮김
2012.11.5 | 456면 | A5 변형 | 18,000원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오가와라 히로유키 | 최덕수, 박한민 옮김
2012.10.30 | 480면 | A5신 | 28,000원

죽음의 계산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2.10.25 | 432면 | B6 | 10,800원

곰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
필립 C. 스테드 | 에린 E. 스테드 그림
이예원 옮김
2012.10.25 | 32면 | B4 변형 | 10,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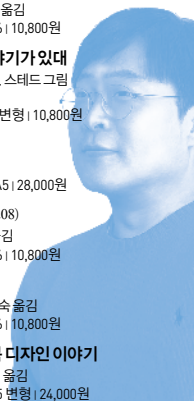
하늘의 문(신판)
이윤기
2012.10.23 | 1088면 | A5 | 28,000원

유토피아(세계문학 208)
토머스 모어 | 전경자 옮김
2012.10.20 | 274면 | B6 | 10,800원

남쪽으로
다니 라페리에르 | 박명숙 옮김
2012.10.15 | 312면 | B6 | 10,800원

좌충우돌 펭귄의 북 디자인 이야기
폴 버클리 엮음 | 박중서 옮김
2012.10.15 | 376면 | B5 변형 | 24,000원

아버지 죽이기
아멜리 노통브 | 최정수 옮김
2012.10.10 | 176면 | B6 | 10,800원



김영정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박우수
2012.9.20 | 402면 | A5 | 24,000원

그해 여름
다비데 레비아티 | 임순정 옮김
2012.9.20 | 352면 | B5 변형 | 19,800원

13일
로버트 케네디 | 박수민 옮김
2012.9.15 | 224면 | A5 변형 | 13,000원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한 속도 1권
제롬 로장발롱 | 브누아 프레트세이 그림
성기현 옮김
2012.9.5 | 168면 | A5 변형 | 13,500원

디클레어(전2권)
팀 파워스 | 김민혜 옮김
2012.9.5 | 각 416, 424면 | B6 | 각 12,800원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콜랑 가리그 그림
최정수 옮김
2012.9.5 | 32면 | B4 변형 | 8,500원

호랑이들이 제 세상인 나라(전2권)
장마리 블라 드 로블레스 | 김병욱 옮김
2012.8.30 | 각 528, 512면 | B6 | 각 13,800원

철학 한입
데이비드 에드먼즈, 나이젤 워버턴
석기용 옮김
2012.8.25 | 352면 | A5신 | 14,800원

3분 아인슈타인
폴 파슨스 | 존 그리빈 서문 | 김명남 옮김
2012.8.20 | 160면 | B5 변형 | 15,000원

너 좋아한 적 없어(신판)
체스터 브라운 | 김영준 옮김
2012.8.15 | 196면 | A5신 | 13,000원

똑똑, 리틀 맨(신판)
체스터 브라운 | 김희진 옮김
2012.8.15 | 1926면 | A5신 | 13,000원

엮임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 대학원
2012.8.15 | 548면 | A5신 | 13,000원

햄릿
바르바라 킨더만 | 빌리 글라자우어 그림
김완균 옮김
2012.8.15 | 36면 | A4 | 10,800원

타르튀프(세계문학 207)
몰리에르 | 신은영 옮김
2012.8.5 | 408면 | B6 | 10,800원

흉터
브루스 로워리 | 이윤희 그림 | 김예령 옮김
2012.7.30 | 240면 | A5신 | 9,800원

북극 허풍담(전3권)
요른 릴 | 백선희 옮김
2012.7.20 | 각 216, 216, 248면 | B6 | 각 9,800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전2권, 세계문학 205, 206)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2012.7.15 | 각 414, 392면 | B6 | 각 10,800원

나치와 이발사
에트가 힐젠라트 | 배수아 옮김
2012.7.10 | 584면 | A5 변형 | 13,800원

반짝반짝 작은 별
제리 핑크니 | 이예원 옮김
2012.7.10 | 36면 | B4 변형 | 10,800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거장들
데이비드 다운턴 | 안진이 옮김
2012.6.25 | 224면 | A4 | 28,000원

이솝 우화
장 필리프 모주네 | 장 프랑수아 마르탱 그림
최정수 옮김
2012.6.25 | 64면 | B4 변형 | 10,800원

넌 정말 소중해
김동연
2012.6.20 | 32면 | B4 변형 | 11,800원

야만스러운 탐정들(전2권)
로베르토 볼라뇨 | 우석균 옮김
2012.6.15 | 각 480, 528면 | B6 | 각 13,800원

곤충 극장(세계문학 204)
카렐 차페크 | 김선형 옮김
2012.6.10 | 360면 | B6 | 9,800원

엄마의 가슴
이사벨 미뇨스 마르틴스 |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그림 | 그레고리 림펜스 옮김
2012.5.25 | 32면 | A4 변형 | 9,000원

한 여자
아니 에르노 | 정혜용 옮김
2012.5.25 | 112면 | B6 | 9,800원

3그램
수신지
2012.5.20 | 184면 | A4 변형 | 12,800원

미의 기원
요제프 H. 라이히홀프 | 박종대 옮김
2012.5.20 | 376면 | A5 | 18,000원

유럽의 붓다, 니체
야니스 콩스탕티니데스 | 다미앵 맥도널드 그림 | 강희경 옮김
2012.5.20 | 200면 | A5 변형 | 13,500원

모히칸족의 최후 (세계문학 203)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 | 이나경 옮김
2012.5.20 | 512면 | B6 | 11,800원

남자의 자리
아니 에르노 | 임호경 옮김
2012.4.30 | 136면 | B6 | 10,800원

세 개의 그림자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2012.4.25 | 280면 | B5 변형 | 15,000원

주홍 글자(세계문학 202)
너새니얼 호손 | 곽영미 옮김
2012.4.25 | 360면 | B6 | 9,800원

봄이다!
줄리 폴리아노 | 에린 E. 스테드 그림
이예원 옮김
2012.4.20 | 32면 | A4 변형 | 10,800원

끌림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12.4.20 | 512면 | B6 | 15,000원

파라다이스(신판, 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임희근 옮김
아이완 외 그림
2012.4.20 | 각 296, 304면 | B6 | 각 11,800원

우리였던 그림자
루이스 세풀베다 | 엄지영 옮김
2012.4.10 | 246면 | B6 | 9,800원

100.art.kr
아르코 미술관
2012.3.30 | 624면 | A4 | 65,000원

런던 필즈(전2권)
마틴 에이미스 | 허진 옮김
2012.3.30 | 각 432, 408면 | B6 | 각 11,800원

오래오래
에리크 오르세나 | 이세욱 옮김
2012.3.30 | 616면 | B6 | 13,800원

디스코 하렘
브레흐트 에번스 | 최현아 옮김
2012.3.20 | 192면 | A4 변형 | 19,800원

문화 타임라인
김종호
2012.3.20 | 352면 | A5 | 13,000원

페르소나
그웨나엘 오브리 | 임미경 옮김
2012.3.20 | 232면 | B6 | 9,800원

일곱 마리 까마귀
그림 형제 | 리스베트 츠베르거 그림
윤혜정 옮김
2012.3.15 | 32면 | B4 변형 | 9,000원

엄지아가씨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 리스베트 츠베르거 그림 | 윤혜정 옮김
2012.3.10 | 40면 | B4 변형 | 9,000원

열린책들 편집 메뉴얼 2012
열린책들 편집부
2012.3.10 | 424면 | A5 변형 | 6,000원

뉴욕의 상페
장자크 상페 | 허지은 옮김
2012.3.5 | 344면 | B5 변형 | 24,000원

조약의 국가승계
이순천
2012.3.1 | 360면 | A5 | 22,000원

리어 왕(세계문학 201)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2012.3.1 | 232면 | B6 | 8,800원

서푼짜리 오페라(세계문학 200)
베르톨트 브레히트 | 이은희 옮김
2012.2.20 | 320면 | B6 | 9,800원

무기여 잘 있거라(세계문학 199)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2012.2.15 | 464면 | B6 | 10,800원

노인과 바다(세계문학 198)
어니스트 헤밍웨이 | 이종인 옮김
2012.2.10 | 320면 | B6 | 9,800원

여자들
찰스 부코스키 | 박현주 옮김
2012.2.10 | 452면 | B6 | 11,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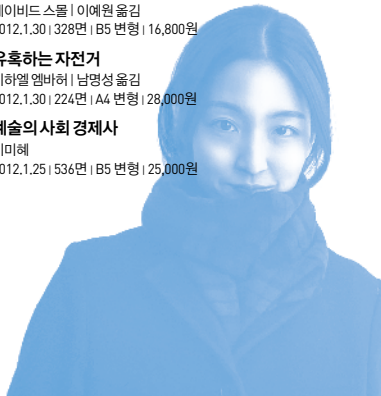
우체국
찰스 부코스키 | 박현주 옮김
2012.2.10 | 256면 | B6 | 9,800원

죽음의 손길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2.2.10 | 256면 | B6 | 10,800원

바늘땀
데이비드 스몰 | 이예원 옮김
2012.1.30 | 328면 | B5 변형 | 16,800원

유혹하는 자전거
미하엘 엠바허 | 남명성 옮김
2012.1.30 | 224면 | A4 변형 | 28,000원

예술의 사회 경제사
이미혜
2012.1.25 | 536면 | B5 변형 | 25,000원



김이재

Timeline

초현실주의 선언
앙드레 브르통 | 황현산 옮김
2012.1.20 | 296면 | B5 변형 | 18,000원

번역 논쟁
정혜용
2012.1.20 | 344면 | B6 | 15,000원

세 개의 키워드로 본 일본인
스와 하루오 | 이명옥 옮김
2012.1.20 | 216면 | B6 | 10,800원

매그레
조르주 심농 | 성귀수 옮김
2012.1.20 | 216면 | B6 변형 | 9,800원

오레스테이아(세계문학 197)
아이스킬로스 | 두행숙 옮김
2012.1.20 | 336면 | B6 | 9,800원

비즈니스
이언 뱅크스 | 박현주 옮김
2012.1.10 | 448면 | B6 | 11,800원

2011

- 1월 70년 전통의 이탈리아 건축 전문지 〈Casa Bella〉에 열린책들 미메시스 뮤지엄 14면에 걸쳐 소개
- 2월 열린책들 마케팅 팀장 〈올해의 자랑스런 영업인상〉 수상
- 4월 〈도스또예프스끼 전집〉을 필두로 전자책 발행 시작
- 3월 버즈북 2 〈조르주 심농〉 발행
- 5월 조르주 심농의 매그레 시리즈 발행 시작
- 〈도스또예프스끼와 여성〉, 〈프랙털 이론과 금융 시장〉 문화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선정
- 6월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 선정
- 8월 작가 베르베르, 라이브러리 & 리브로 조사 〈중고생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1위
- 9월 〈카산드라의 거울〉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
- 10월 체코 외무부 장관 메달 수상
- 10월 〈수상한 라트비아인〉 간행물윤리위원회 〈디자인이 아름다운 책〉 우수상 수상
- 10월 〈하자르 사전〉 알라딘 선정 이달의 소설
- 11월 〈웃음〉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
- 12월 〈웃음〉 종합 베스트셀러 4위
- 12월 〈웃음〉 교보문고 선정 이달의 책
- 12월 〈카산드라의 거울〉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12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인터파크 독자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
- 전자책 123종 158권 출시
- 총 판매부수 누계 2천만 부 돌파 (2,027만부)
- 신간 116종 123권, 총119종 128권 발행

위대한 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폴라 마린콜라 엮음 | 조주현 옮김
2011.12.30 | 256면 | B5 변형 | 16,000원

자성록(세계문학 19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박민수 옮김
2011.12.30 | 240면 | B6 | 9,800원

나의 안토니아(세계문학 195)
윌라 캐더 | 전경자 옮김
2011.12.25 | 368면 | B6 | 9,800원

악평
빌 헨더슨, 앙드레 버나드 편집 | 최재봉 옮김
2011.12.20 | 264면 | B6 | 12,000원

폴리나
바스티앙 비베스 | 임순정 옮김
2011.12.20 | 208면 | A4 변형 | 18,000원

소송(세계문학 194)
프란츠 카프카 | 김재혁 옮김
2011.12.20 | 376면 | B6 | 9,800원

오셀로(세계문학 193)
윌리엄 셰익스피어 | 권오숙 옮김
2011.12.20 | 216면 | B6 | 8,800원

제1호 수문(매그레 18)
조르주 심농 | 이상해 옮김
2011.12.20 | 224면 | B6 변형 | 9,800원

리버티 바(매그레 17)
조르주 심농 | 임호경 옮김
2011.12.20 | 232면 | B6 변형 | 9,800원

나사의 회전(세계문학 192)
헨리 제임스 | 이승은 옮김
2011.12.15 | 256면 | B6 | 9,800원

메뚜기의 날(세계문학 191)
너새니얼 웨스트 | 김진준 옮김
2011.12.15 | 280면 | B6 | 9,800원

이탈리아 일기 1
다비드 B. | 임미경 옮김
2011.11.25 | 160면 | B5 변형 | 13,000원

웃음(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11.11.23 | 각 440, 464면 | B6 | 각 10,800원

죽여도 가족
살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1.11.20 | 408면 | B6 | 10,800원

안개의 항구(매그레 16)
조르주 심농 | 최애리 옮김
2011.11.20 | 272면 | B6 변형 | 9,800원

베르주라크의 광인(매그레 15)
조르주 심농 | 이상해 옮김
2011.11.20 | 208면 | B6 변형 | 9,800원

소네트집(세계문학 190)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2011.11.15 | 192면 | B6 | 9,800원

젊은 예술가의 초상(세계문학 189)
제임스 조이스 | 성은애 옮김
2011.11.15 | 374면 | B6 | 9,8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3: 용해와 내재성
장용순
2011.11.15 | 264면 | B5 변형 | 15,000원

히페리온의 몰락
댄 시먼스 | 최용준 옮김
2011.11.10 | 744면 | B6 | 15,000원

수치
살만 루슈디 | 김선형 옮김
2011.10.30 | 432면 | B6 | 11,800원

93년(전2권, 세계문학 187, 188)
빅또르 위고 | 이형식 옮김
2011.10.25 | 각 288, 360면 | B6 | 각 9,800원

과학의 미래
버트런드 러셀 | 석기용 옮김
2011.10.25 | 368면 | B6 | 15,000원

플랑드르인의 집(매그레 14)
조르주 심농 | 성귀수 옮김
2011.10.20 | 216면 | B6 변형 | 9,800원

생피아크르 사건(매그레 13)
조르주 심농 | 성귀수 옮김
2011.10.20 | 232면 | B6 변형 | 9,800원

건축은 왜 중요한가
폴 골드버거 | 윤길순 옮김
2011.10.15 | 304면 | B5 변형 | 18,000원

투명 인간(세계문학 186)
허버트 조지 웰스 | 김석희 옮김
2011.10.10 | 288면 | B6 | 9,800원

조용한 혼돈
산드로 베로네시 | 천지은 옮김
2011.10.10 | 496면 | B6 | 1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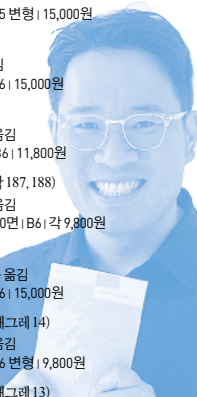
엘제 양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2011.10.10 | 88면 | B5 변형 | 12,500원

곰돌이 푸와 숲 속 친구들
데이비드 베네딕터스 | 마크 버제스 그림
정회성 옮김
2011.10.10 | 216면 | B5 변형 | 9,800원

안톤 이야기
브리기테 윙거 | 박초목 그림 | 윤혜정 옮김
2011.9.30 | 152면 | B5 변형 | 9,000원

테스(전2권, 세계문학 184, 185)
토머스 하디 | 김문숙 옮김
2011.9.25 | 각 392, 336면 | B6 | 각 9,800원

아이웨이웨이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 윤길순 옮김
2011.9.25 | 288면 | B6 | 9,800원


최연욱

창가의 그림자(매그레 12)
조르주 심농 | 이상해 옮김
2011.9.20 | 216면 | B6 변형 | 9,800원

센 강의 춤집에서(매그레 11)
조르주 심농 | 임호경 옮김
2011.9.20 | 232면 | B6 변형 | 9,800원

007 데블 메이 케어
시배스천 폭스 | 김진준 옮김
2011.9.20 | 344면 | B6 | 11,800원

하자르 사전(세계문학 183)
밀로라드 파비치 | 신현철 옮김
2011.9.10 | 488면 | B6 | 10,800원

유리의 도시(신판)
데이비드 마추캘리 그림 | 폴 오스터 원작
폴 카라식 글 | 황보석 옮김
2011.9.10 | 152면 | B5 변형 | 10,800원

만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2
베르나르 베르베르 | 김수박 그림 | 이세욱, 임호경 옮김
2011.9.5 | 216면 | B5 변형 | 10,800원

우신예찬(세계문학 182)
에라스무스 | 김남우 옮김
2011.8.30 | 296면 | B6 | 9,800원

작은 우주, 아톰
아이작 아시모프 | 안준호 옮김
2011.8.30 | 360면 | A5신 | 15,000원

벨벳 토끼 인형
마저리 윌리엄스 | 겐다니 스피린 그림
김완균 옮김
2011.8.30 | 48면 | A4 변형 | 10,800원

비숍 살인 사건(세계문학 181)
S. S. 밴 다인 | 최인자 옮김
2011.8.25 | 456면 | B6 | 10,800원

죽고 사라지다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1.8.25 | 352면 | B6 | 10,800원

게물랭의 댄서(매그레 10)
조르주 심농 | 성귀수 옮김
2011.8.20 | 248면 | B6 변형 | 9,800원

타인의 목(매그레 09)
조르주 심농 | 최애리 옮김
2011.8.20 | 232면 | B6 변형 | 9,800원

파스타의 기하학
카즈 힐드브란드 디자인 | 제이콥 케네디 글 | 차유진 옮김
2011.8.20 | 288면 | B5 변형 | 18,000원

일본, 한국 병합을 말하다
미야지마 히로시, 조경달 외 | 최덕수 외 옮김
2011.8.15 | 584면 | A5신 | 28,000원

사랑은 혈투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혜정 옮김
2011.8.5 | 96면 | A5 변형 | 9,800원

초속 5000킬로미터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2011. 8. 5 | 148면 | B5 변형 | 12,500원

유니언 애틀랜틱
애덤 해즐릿 | 박산호 옮김
2011.8.5 | 368면 | B6 | 10,800원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2011.7.30 | 544면 | A5신 | 25,000원

호텔 월드
앨리 스미스 | 이예원 옮김
2011.7.30 | 304면 | B6 | 10,800원

나 아닌 다른 삶
엠마뉘엘 카레르 | 전미연 옮김
2011.7.30 | 376면 | B6 | 10,800원

독사를 물리친 어린 몽구스
제리 핑크니 | 오숙은 옮김
2011.7.25 | 48면 | B4 변형 | 9,800원

공범
이언 뱅크스 | 이예원 옮김
2011.7.25 | 392면 | B6 | 10,800원

신(신판, 전3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임호경 옮김
2011.7.25 | 각 580, 640, 624면 | B6
각 14,800원

선원의 약속(매그레 08)
조르주 심농 | 이상해 옮김
2011.7.20 | 224면 | B6 변형 | 9,800원

네덜란드 살인 사건(매그레 07)
조르주 심농 | 성귀수 옮김
2011.7.20 | 240면 | B6 변형 | 9,800원

사물의 안타까움성
디미트리 베르휠스트 | 배수아 옮김
2011.7.20 | 320면 | B6 | 10,800원

식인귀를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유병수 옮김
2011.7.15 | 32면 | B4 변형 | 8,500원

엠마(전2권, 세계문학 179, 180)
제인 오스틴 | 이미애 옮김
2011.7.15 | 각 336, 360면 | B6 | 각 9,800원

목로주점(전2권, 세계문학 177, 178)
에밀 졸라 | 유기환 옮김
2011.7.5 | 각 336, 336면 | B6 | 각 9,800원

피그말리온(세계문학 176)
조지 버나드 쇼 | 김소임 옮김
2011.6.30 | 248면 | B6 | 9,800원

바다로 간 캥거루와 바다사자
노르베르트 라베 | 파울로 프리츠 그림
정성원 옮김
2011.6.30 | 32면 | B4 변형 | 9,000원

교차로의 밤(매그레 06)
조르주 심농 | 이상해 옮김
2011.6.20 | 224면 | B6 변형 | 9,800원

누런 개(매그레 05)
조르주 심농 | 임호경 옮김
2011.6.20 | 232면 | B6 변형 | 9,800원

죽는 게 나아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1.6.15 | 416면 | B6 | 10,800원

예루살렘
공살루 M. 타바리스 | 엄지영 옮김
2011.6.15 | 280면 | B6 | 10,800원

루진(세계문학 175)
이반 투르게네프 | 이항재 옮김
2011.6.5 | 264면 | B6 | 9,800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세계문학 174)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조영학 옮김
2011.5.30 | 320면 | B6 | 9,800원

하나뿐인 친구
실뱅 뫼니에 | 엘리자베스 E. 파스칼 그림
유병수 옮김
2011.5.30 | 96면 | B5 변형 | 8,500원

완두콩 위의 롤라
아네테 미어스바 | 슈테파니 하르예스 그림
김완균 옮김
2011.5.30 | 248면 | B5 변형 | 9,000원

미라마르(세계문학 173)
나기브 마푸즈 | 허진 옮김
2011.5.25 | 288면 | B6 | 9,800원

핵무기와 국제 정치
안준호
2011.5.20 | 328면 | A5신 | 15,000원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매그레 04)
조르주 심농 | 이상해 옮김
2011.5.20 | 208면 | B6 변형 | 9,800원

생폴리앵에 지다(매그레 03)
조르주 심농 | 최애리 옮김
2011.5.20 | 216면 | B6 변형 | 9,800원

갈레 씨, 홀로 죽다(매그레 02)
조르주 심농 | 임호경 옮김
2011.5.20 | 264면 | B6 변형 | 9,800원

수상한 라트비아인(매그레 01)
조르주 심농 | 성귀수 옮김
2011.5.20 | 272면 | B6 변형 | 9,800원

이방인(세계문학 172)
알베르 카뮈 | 김예령 옮김
2011.5.15 | 200면 | B6 | 8,800원

포트폴리오 선택과 금융 시장
윌리엄 F. 샤프 | 김중근 옮김
2011.5.10 | 360면 | A5신 | 15,000원

게임의 명수
이언 M. 뱅크스 | 김민혜 옮김
2011.5.10 | 496면 | B6 | 15,000원

택시
할레드 알하미시 | 허진 옮김
2011.5.5 | 224면 | B6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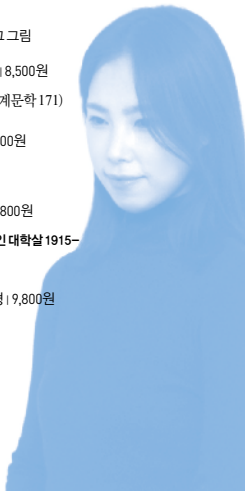
곰
뱅상 소렐 | 김희진 옮김
2011.4.30 | 128면 | B5 변형 | 9,800원

해적을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롤랑 가리그 그림
유병수 옮김
2011.4.30 | 32면 | B4 변형 | 8,500원

느릅나무 아래 욕망(세계문학 171)
유진 오닐 | 손동호 옮김
2011.4.30 | 168면 | B6 | 8,800원

브루클린
콜럼 토빈 | 오숙은 옮김
2011.4.25 | 352면 | B6 | 10,800원

메즈 예게른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1915–1916
파울로 코시 | 이현경 옮김
2011.4.25 | 144면 | B5 변형 | 9,800원



함지은

Timeline

우리는 시체들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1.4.25 | 424면 | B6 | 10,800원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가 말하는 집의 의미와 설계
안도 다다오 | 송태욱 옮김
2011.4.25 | 400면 | B5 변형 | 25,000원

이토록 긴 편지(세계문학 170)
마리아마 바 | 백선희 옮김
2011.4.20 | 192면 | B6 | 9,800원

배빗(세계문학 169)
싱클레어 루이스 | 이종인 옮김
2011.4.15 | 520면 | B6 | 11,800원

표류자들의 집(세계문학 168)
기예르모 로살레스 | 최유정 옮김
2011.4.10 | 208면 | B6 | 8,800원

풀잎(세계문학 167)
월트 휘트먼 | 허현숙 옮김
2011.4.10 | 280면 | B6 | 9,800원

책의 우주
움베르토 에코, 장클로드 카리에르 대담
장필리프 드 토낙 사회 | 임호경 옮김
2011.4.10 | 384면 | B6 | 14,000원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
다니엘 지라르댕, 크리스티앙 피르케르
정진국 옮김
2011.4.10 | 320면 | A3 | 39,000원

제인 에어(전2권, 세계문학 165, 166)
샬럿 브론테 | 이미선 옮김
2011.4.5 | 각 392, 384면 | B6 | 각 9,800원

세 마리 아기 고양이
제리 핑크니 | 유병수 옮김
2011.3.31 | 40면 | B4 변형 | 9,000원

유령을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롤랑 가리그 그림
유병수 옮김
2011.3.25 | 32면 | B4 변형 | 8,500원

미스 괴물 선발 대회
마르크 드 벨 | 스테븐 돈트 그림
김율희 옮김
2011.3.25 | 136면 | B5 변형 | 9,000원

타임머신(세계문학 164)
허버트 조지 웰스 | 김석희 옮김
2011.3.20 | 296면 | B6 | 9,800원

로빈슨 크루소(세계문학 163)
대니얼 디포 | 류경희 옮김
2011.3.20 | 456면 | B6 | 10,800원

노래도 늙는구나
임철순
2011.3.20 | 472면 | B6 | 14,000원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필립 C. 스테드 | 에린 E. 스테드 그림
유병수 옮김
2011.3.18 | 32면 | B4 변형 | 9,000원

조르주 심농(버즈북 2)
조르주 심농 외 | 성귀수, 이상해, 임호경, 최애리 옮김
2011.3.13 | 224면 | B6 | 750원

아Q정전(세계문학 162)
루쉰 | 김태성 옮김
2011.3.10 | 320면 | B6 | 9,800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임호경 옮김
2011.3.3 | 632면 | A5 변형 | 15,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11
열린책들 편집부
2011.2.25 | 416면 | A5 변형 | 5,000원

위대한 개츠비(세계문학 161)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 한애경 옮김
2011.2.20 | 280면 | B6 | 각 9,800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DK 퍼블리싱 | 손향구 옮김
2011.1.31 | 304면 | A4 | 28,000원

프랑켄슈타인(세계문학 160)
메리 W. 셸리 | 오숙은 옮김
2011.1.30 | 320면 | B6 | 9,800원

아들과 연인(전2권, 세계문학 156, 157)
D. H. 로런스 | 최희섭 옮김
2011.1.30 | 각 464, 440면 | B6 | 각 10,800원

도스또예프스끼 평전
E. H. 카 | 김병익, 권영빈 옮김
2011.1.30 | 416면 | B6 변형 | 15,000원

도스또예프스끼가 말하지 않은 것들
시미즈 마사시 | 이은주 옮김
2011.1.30 | 344면 | B6 변형 | 15,000원

도스또예프스끼와 여성
마르크 슬로님 | 이종진 옮김
2011.1.25 | 344면 | B6 변형 | 15,000원

보이지 않는
폴 오스터 | 이종인 옮김
2011.1.25 | 336면 | B6 | 12,800원

미덕의 불운(세계문학 159)
싸드 | 이형식 옮김
2011.1.20 | 248면 | B6 | 9,800원

에식스 카운티
제프 르미어 | 박중서 옮김
2011.1.15 | 512면 | B5 변형 | 26,800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계문학 158)
하인리히 뵐 | 홍성광 옮김
2011.1.10 | 272면 | B6 | 9,800원

2010

- 2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Wallpaper〉지에 서울의 뛰어난 건축물의 하나로 소개
- 3월~4월 베르베르의 〈파라다이스〉 인터파크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올해의 자랑스런 출판 경영인상〉 수상
- 신간 홍보 매체 〈버즈북〉 제1호 〈볼라뇨, 로베르토 볼라뇨〉 발행
- 로베르토 볼라뇨 작품 발행 시작
- 4월 대한출판문화협회 조사 〈가장 만나고 싶은 외국 작가〉 1위 베르나르 베르베르
- 5월 문구회사 〈미메시스 디자인〉 설립
- 5월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초청으로 베르베르 방한
- 에코 마니아 컬렉션, 출판 편집자들이 뽑은 〈주목할 만한 올해의 북디자인〉 선정
- 〈파라다이스〉 YES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문학 부문 1위
- 「한겨레신문」 올해의 책 20선 볼라뇨의 〈칠레의 밤〉 선정
- 11월 미메시스 아트 하우스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 열린책들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우수상 수상
- 12월 업무 공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지하층으로 통합
- 신간 82종 96권, 총 111종 133권 발행

암, 그렇고말고
박태열
2010.12.30 | 320면 | B6 | 11,000원

스피노자의 동물 우화
아리엘 수아미 | 알리아 다발 그림 | 강희경 옮김
2010.12.30 | 168면 | A5 변형 | 13,500원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디디에 오타비아니 | 이자벨 브와노 그림
심세광 옮김
2010.12.30 | 168면 | A5 변형 | 12,000원

맥베스(세계문학 155)
윌리엄 셰익스피어 | 권오숙 옮김
2010.12.30 | 168면 | B6 | 8,800원

햄릿(세계문학 154)
윌리엄 셰익스피어 | 박우수 옮김
2010.12.25 | 248면 | B6 | 8,800원

레우코와의 대화(세계문학 153)
체사레 파베세 | 김운찬 옮김
2010.12.30 | 280면 | B6 | 9,800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전3권, 세계문학 148~150)
마거릿 미첼 | 안정효 옮김
2010.12.30 | 각 552, 568, 568면 | B6
각 11,800원

임금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과장에게 접근하는 기술과 방법
조르주 페렉 | 이충훈 옮김
2010.12.20 | 120면 | B6 | 8,800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세계문학 152)
오스카 와일드 | 윤희기 옮김
2010.12.20 | 368면 | B6 | 9,800원

돌아올 수 없는 죽음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0.12.15 | 440면 | B6 | 10,800원

아스테리오스 폴립
데이비드 마추캘리 | 박중서 옮김
2010.12.15 | 344면 | A4 | 26,800원

80일간의 세계 일주(세계문학 147)
쥘 베른 | 고정아 옮김
2010.12.10 | 344면 | B6 | 9,800원

기탄잘리(세계문학 151)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 장경렬 옮김
2010.12.5 | 224면 | B6 | 8,8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2: 은유와 생성
장용순
2010.11.25 | 280면 | B5 변형 | 15,000원

강의 왕
마리노 네리 | 이현경 옮김
2010.11.25 | 80면 | B5 | 6,800원

카산드라의 거울(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임호경 옮김
홍작가 그림
2010.11.25 | 각 472, 464면 | B6 | 각 11,800원

삶과 죽음의 시
아모스 오즈 | 김한영 옮김
2010.11.20 | 176면 | B6 | 9,800원

만만치 않은 놈, 이대장(별천지판)
김순이 | 김병하 그림
2010.11.20 | 128면 | B5 | 9,000원

한방으로 고치는 갑상선 질환(3판)
윤영석
2010.11.15 | 336면 | A5 | 15,000원

권력과 영광(세계문학 146)
그레이엄 그린 | 김연수 옮김
2010.11.10 | 384면 | B6 | 9,800원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
이순천
2010.10.30 | 268면 | A5 | 12,000원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세계문학 145)
윌라 캐더 | 윤명옥 옮김
2010.10.30 | 352면 | B6 | 9,800원

누드 사진 예술과 기법
파스칼 바텐스 | 김문호 옮김
2010.10.30 | 256면 | A4 | 38,000원

천로 역정(세계문학 144)
존 버니언 | 이동일 옮김
2010.10.30 | 424면 | B6 | 10,800원

궁극의 리스트
움베르토 에코 | 오숙은 옮김
2010.10.30 | 408면 | B5 | 45,000원

영원한 친구
존 르카레 | 박현주 옮김
2010.10.20 | 520면 | B6 | 12,800원

오만과 편견(세계문학 143)
제인 오스틴 | 원유경 옮김
2010.10.20 | 480면 | B6 | 10,800원

도롱뇽과의 전쟁
카렐 차페크 | 김선형 옮김
2010.10.10 | 444면 | B6 | 11,800원

아홀로틀 로드킬
헬레네 헤게만 | 배수아 옮김
2010.9.30 | 336면 | B6 | 10,800원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함께하는 우리 몸 탐구 HUMAN BODY BOOK
리차드 워커 | 닉 아바치스 그림 | 이한이 옮김
2010.9.30 | 96면 | A4 | 19,500원

위대한 질문
레셰크 코와코프스키 | 석기용 옮김
2010.9.30 | 304면 | A5 | 13,000원

보물섬(세계문학 135)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최용준 옮김
머빈 피크 그림
2010.9.30 | 352면 | B6 | 9,800원

아버지와 아들(세계문학 142)
이반 투르게네프 | 이상원 옮김
2010.9.20 | 320면 | B6 | 9,800원

전화
로베르토 볼라뇨 | 박세형 옮김
2010.9.10 | 320면 | B6 | 10,800원

만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1
베르나르 베르베르 | 김수박 그림
2010.8.30 | 208면 | B5 변형 | 10,800원

빨간 모자
제리 핑크니 | 윤한구 옮김 | 제리 핑크니 그림
2010.8.10 | 30면 | B4 변형 | 9,800원

허클베리 핀의 모험(세계문학 132)
마크 트웨인 | 윤교찬 옮김
2010.7.30 | 408면 | B6 | 10,800원

부활(전2권, 세계문학 133, 134)
레프 톨스또이 | 이대우 옮김
2010.7.30 | 각 304, 408면 | B6 | 각 9,800원

프랙털 이론과 금융 시장
브누아 만델브로트 외 | 이진원 옮김
2010.7.30 | 424면 | A5 | 18,000원

천일야화(전6권, 세계문학 136~141)
앙투안 갈랑 | 임호경 옮김
2010.7.25 | 각 350면 내외 | B6 | 각 9,800원

나이팅게일
제리 핑크니 | 윤한구 옮김
2010.7.20 | 36면 | B4 변형 | 9,800원

꼬꼬댁 꼬꼬는 무서워!(별천지판)
한병호
2010.7.15 | 34면 | B5 | 8,000원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리 드 라로슈푸코 | 로랑 코르베지에 그림
김희진 옮김
2010.7.15 | 46면 | B4 변형 | 9,800원

칸 침묵과 빛의 건축가 루이스 칸
데이비드 B. 브라운리, 데이비드 G. 드 롱
김희진 옮김
2010.7.10 | 288면 | B5 변형 | 18,000원

살라미나의 병사들(세계문학 127)
하비에르 세르카스 | 김창민 옮김
2010.6.30 | 296면 | B6 | 9,800원

어느 작가의 오후(세계문학 122)
페터 한트케 | 홍성광 옮김
2010.6.20 | 152면 | B6 | 8,800원

먼 별
로베르토 볼라뇨 | 권미선 옮김
2010.6.15 | 208면 | B6 | 9,800원

악어 외(세계문학 131)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혜경 외 옮김
2010.6.15 | 312면 | B6 | 9,800원

상처받은 사람들(전2권, 세계문학 129, 130)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윤우섭 옮김
2010.6.15 | 각 296, 392면 | B6 | 각 9,800원

삐쩨르부르그 연대기 외(세계문학 128)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항재 옮김
2010.6.10 | 296면 | B6 | 9,800원

백야 외(세계문학 126)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외 옮김
2010.6.10 | 400면 | B6 | 9,800원

곤두박질(세계문학 125)
마이클 프레인 | 최용준 옮김
2010.6.10 | 528면 | B6 | 10,800원

알코올(세계문학 120)
기욤 아폴리네르 | 황현산 옮김
2010.6.10 | 352면 | B6 | 9,800원

완전히 죽다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0.6.10 | 400면 | B6 | 10,800원

헨젤과 그레텔
주잔네 얀센 | 김희진 옮김
2010.6.10 | 54면 | B4 변형 | 11,800원

네또츠까 네즈바노바(세계문학 124)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재만 옮김
2010.5.30 | 316면 | B6 | 9,800원

아저씨의 꿈(세계문학 123)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종소 옮김
2010.5.30 | 304면 | B6 | 9,800원

지하로부터의 수기(세계문학 121)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덕형 옮김
2010.5.30 | 252면 | B6 | 9,800원

마녀를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롤랑 가리그 그림
유병수 옮김
2010.5.25 | 32면 | B4 변형 | 8,500원

부적
로베르토 볼라뇨 | 김현균 옮김
2010.5.20 | 200면 | B6 | 9,800원

영원한 남편(세계문학 119)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정명자 옮김
2010.5.10 | 240면 | B6 | 9,800원

인형의 집(세계문학 118)
헨리크 입센 | 김창화 옮김
2010.5.10 | 264면 | B6 | 9,800원

2009 - 2010

조은화

Timeline

가난한 사람들(세계문학 117)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10.5.10 | 248면 | B6 | 9,800원

분신(세계문학 116)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10.5.10 | 256면 | B6 | 9,800원

플랑드르 거장의 그림(세계문학 115)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정창 옮김
2010.5.10 | 512면 | B6 | 10,800원

라이트 미국 건축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브루스 브룩스 파이퍼 | 이종인 옮김
2010.5.10 | 256면 | B5 변형 | 18,000원

카트린 M의 성생활(신판)
카트린 밀레 | 이세욱 옮김
2010.5.10 | 336면 | B6 | 11,800원

미운 오리 새끼
제리 핑크니 | 윤한구 옮김
2010.4.30 | 40면 | B4변형 | 4,5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1: 위상학
장용순
2010.4.30 | 288면 | B5 변형 | 15,000원

스페빤치꼬보 마을 사람들
(세계문학 114)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변현태 옮김
2010.4.30 | 416면 | B6 | 9,800원

마법사(전2권, 세계문학 112, 113)
존 파울즈 | 정영문 옮김
2010.4.30 | 각 512, 544면 | B6 | 각 11,800원

밤으로의 긴 여로(세계문학 111)
유진 오닐 | 강유나 옮김
2010.4.30 | 240면 | B6 | 9,800원

성 앙투안느의 유혹(세계문학 110)
귀스타브 플로베르 | 김용은 옮김
2010.4.25 | 528면 | B6 | 11,800원

미성년(전2권, 세계문학 108, 109)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상룡 옮김
2010.4.25 | 각 512, 544면 | B6 | 각 9,800원

소유(전2권, 세계문학 106, 107)
앤토니어 수전 바이어트 | 윤희기 옮김
2010.4.20 | 각 440, 480면 | B6 | 각10,800원

천장 위의 오르탕스
오로르 칼리아스 | 김희진 옮김
2010.4.20 | 45면 | B4 | 10,800원

물푸레, 물푸레, 물푸레(별천지판)
조호상 | 이정규 그림
2010.4.20 | 104면 | B5 변형 | 8,000원

로빈슨 크루소
알베르토 모랄레스 아후벨 | 레오나르도 파두라 해설 | 고인경 옮김
2010.4.15 | 176면 | B5 변형 | 15,000원

한국인의 위장·간 질환(신판)
현철수
2010.4.15 | 288면 | A5 변형 | 13,000원

대수학자(전2권)
이언 M. 뱅크스 | 김민혜 옮김
2010.4.10 | 각 368, 472면 | B6 | 각 10,800원

염소의 맛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혜정 옮김
2010.3.31 | 144면 | B5 | 12,800원

달리기
장 에슈노즈 | 이재룡 옮김
2010.3.30 | 168면 | B6 | 8,800원

알라디노의 램프
루이스 세풀베다 | 권미선 옮김
2010.3.30 | 232면 | B6 | 8,800원

죽음의 집의 기록(세계문학 105)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덕형 옮김
2010.3.30 | 528면 | B6 | 9,800원

10$\frac{1}{2}$ 장으로 쓴 세계 역사
(세계문학 104)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10.3.30 | 456면 | B6 | 10,800원

버마 시절(세계문학 103)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2010.3.25 | 400면 | B6 | 9,800원

파라다이스(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임희근 옮김
아이완 외 그림
2010.3.22 | 각 296, 304면 | A5신 | 각 9,800원

독일 문학과 사상
안진태
2010.3.15 | 720면 | A5신 | 35,000원

늑대 개, 하얀 엄니
잭 런던 원작 | 장피에르 케를로크 글
카르멘 세고비아 그림 | 함정임 옮김
2010.3.10 | 48면 | B5 변형 | 9,800원

사자와 생쥐
제리 핑크니 | 윤한구 옮김
2010.3.10 | 32면 | B4 변형 | 9,000원

바스커빌가의 개(세계문학 102)
아서 코넌 도일 | 조영학 옮김
2010.3.5 | 264면 | B6 | 9,800원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최덕수 외
2010.2.28 | 1008면 | A5신 | 48,000원

나의 마지막 장편소설(전2권)
존 파울즈 | 이종인 옮김
2010.2.20 | 각 508, 664면 | B6 | 각 15,000원

죽어 버린 기억
살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10.2.20 | 416면 | B6 | 10,800원

2010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10.2.10 | 400면 | A5 변형 | 5,000원

황금 곤충의 비밀
에드거 앨런 포 원작 | 장피에르 케를로크 글
세바스티앙 무랭 그림 | 함정임 옮김
2010.2.10 | 48면 | B5 변형 | 9,800원

칠레의 밤
로베르토 볼라뇨 | 우석균 옮김
2010.2.5 | 176면 | B6 | 9,800원

키리냐가(세계문학 101)
마이크 레스닉 | 최용준 옮김
2010.2.5 | 464면 | B6 | 10,800원

번역한다는 것(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10.1.30 | 592면 | B6 | 20,000원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별천지판)
김중미 | 유동훈 그림
2010.1.30 | 125면 | B5 변형 | 8,000원

모이메 할아버지와 나
매기 슈나이더 | 재키 글라이히 그림
윤혜정 옮김
2010.1.25 | 80면 | B5 변형 | 9,000원

천일야화(전6권)
앙투안 갈랑 엮음 | 임호경 옮김
2010.1.25 | 각 350면 내외 | B6 | 각 9,800원

최후의 유혹(전2권, 세계문학 099, 100)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2010.1.20 | 각 408, 400면 | B6 | 각 10,800원

하워즈 엔드(세계문학 098)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10.1.20 | 508면 | B6 | 10,800원

노름꾼(세계문학 097)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재필 옮김
2010.1.20 | 312면 | B6 | 9,800원

볼라뇨, 로베르토 볼라뇨(버즈북 1)
로베르토 볼라뇨 | 박세형, 오숙은 옮김
2010.1.20 | 272면 | B6 | 66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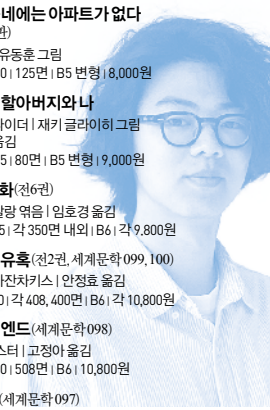
게리 프랭크 게리가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 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엮음 | 이종인 옮김
2010.1.15 | 240면 | B5 변형 | 15,000원

각별한 마음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10.1.10 | 108면 | B4 변형 | 18,000원

거창한 꿈(3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2010.1.10 | 108면 | B4 변형 | 18,000원

사치와 평온과 쾌락(2판)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10.1.10 | 108면 | B4 변형 | 18,000원

어설픈 경쟁(3판)
장자크 상페 | 이건수 옮김
2010.1.10 | 108면 | B4 변형 | 18,000원



김정우

2009

- 〈신〉 YES24 독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표지〉
- 1월~2월 베르베르의 〈신 1, 2〉 종합 베스트셀러 2위
- 3월 베르베르의 〈신 3〉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4월 베르베르의 〈신 4〉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5월 미메시스 아트 하우스 오픈
- 5월 〈베르베르 과학 만화 팀〉 미메시스 아트 하우스에서 신설

- 6월 아동 출판사 〈별천지〉 설립
- 6월~8월 북숍 〈나무에 열린 책들〉 운영
- 9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방한
- 10월 열린책들 파주 사옥 이전
- 10월 〈에코 마니아 컬렉션〉 25권 발행
- 〈앤디워홀 일기〉 제50회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편집상 수상
- 〈르네상스 예술에서 괴테를 읽다〉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선정
- 〈열린책들 세계문학〉 001~096 발행
- 신간 41종 45권, 총 137종 165권 발행

그곳에는
마리루이즈 피츠패트릭 | 윤한구 옮김
2009.12.30 | 32면 | B4 변형 | 9,000원

빠빠라기
투이아비 | 에리히 쇼이어만 엮음
강무성 옮김
2009.12.30 | B6 | 208면 | 8,8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기욤 아르토 그림
이세욱 옮김
2009.12.20 | 248면 | A5 변형 | 10,800원

교수(세계문학 096)
샬럿 브론테 | 배미영 옮김
2009.12.20 | 368면 | B6 | 9,800원

신곡(전3권, 세계문학 093~095)
단테 알리기에리 | 김운찬 옮김
2009.12.20 | 각 292, 296, 320면 | B6
각 9,800원

미사고의 숲(세계문학 092)
로버트 홀드스톡 | 김상훈 옮김
2009.12.20 | 416면 | B6 | 10,800원

무엇을 할 것인가(전2권, 세계문학 088, 089)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서정록 옮김
2009.12.20 | 각 360, 404면 | B6 | 각 9,800원

예브게니 오네긴(세계문학 079)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9.12.20 | 320면 | B6 | 9,800원

검의 대가(세계문학 078)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김수진 옮김
2009.12.20 | 362면 | B6 | 9,800원

거장과 마르가리따(전2권, 세계문학 075, 076)
미하일 불가꼬프 | 홍대화 옮김
2009.12.20 | 각 364, 328면 | B6 | 각 9,800원

쾌걸 조로(세계문학 074)
존스턴 매컬리 | 김훈 옮김
2009.12.20 | 316면 | B6 | 9,800원

파우스트(세계문학 073)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김인순 옮김
2009.12.20 | 560면 | B6 | 10,800원

적과 흑(전2권, 세계문학 068, 069)
스탕달 | 임미경 옮김
2009.12.20 | 각 376, 368면 | B6 | 각 9,800원

드라큘라(전2권, 세계문학 065, 066)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2009.12.20 | 각 340, 332면 | B6 | 각 9,800원

몰타의 매(세계문학 063)
대실 해밋 | 고정아 옮김
2009.12.20 | 300면 | B6 | 9,800원

악령(전3권, 세계문학 057~059)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연경 옮김
2009.12.20 | 각 324, 396, 484면 | B6
각 9,800원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세계문학 054)
볼테르 | 이봉지 옮김
2009.12.20 | 224면 | B6 | 8,800원

산도칸 몸프라쳄의 호랑이
(세계문학 047)
에밀리오 살가리 | 유향란 옮김
2009.12.20 | 428면 | B6 | 10,800원

프랑스 중위의 여자(전2권, 세계문학 032, 033)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2009.12.20 | 각 344, 340면 | B6 | 각 9,800원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전3권, 세계문학 029~031)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대우 옮김
2009.12.20 | 각 496, 496, 448면 | B6 | 각 9,800원

시라노(세계문학 027)
에드몽 로스탕 | 이상해 옮김
2009.12.20 | 252면 | B6 | 10,800원

그리스인 조르바(세계문학 021)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09.12.20 | 488면 | B6 | 10,800원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세계문학 020)
토마스 만 | 홍성광 옮김
2009.12.20 | 424면 | B6 | 9,800원

1984년(세계문학 017)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2009.12.20 | 384면 | B6 | 9,800원

소설(전2권, 세계문학 004, 005)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2009.12.20 | 각 280, 364면 | B6 | 각 9,800원

최초의 인간(세계문학 003)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옮김
2009.12.20 | 384면 | B6 | 9,800원

달에서 발견된 비행 일기
파블로 베르나스코니 | 고인경 옮김
2009.12.15 | 32면 | B4 변형 | 9,000원

인간과 상징(개정판)
카를 구스타프 융 외 | 이윤기 옮김
2009.12.15 | 520면 | B5 | 35,000원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영범
2009.12.1 | 376 | B5 변형 | 18,000원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
(전2권, 세계문학 090, 091)
조르지 아마두 | 오숙은 옮김
2009.11.30 | 각 328, 308면 | B6 | 각 9,800원

아웃 오브 아프리카(세계문학 087)
카렌 블릭센 | 민승남 옮김
2009.11.30 | 464면 | B6 | 9,800원

웃는 남자(전2권, 세계문학 085, 086)
빅토르 위고 | 이형식 옮김
2009.11.30 | 각 472, 488면 | B6 | 각 10,800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세계문학 084)
나쓰메 소세키 | 김난주 옮김
2009.11.30 | 538면 | B6 | 10,800원

여자를 안다는 것(세계문학 083)
아모스 오즈 | 최창모 옮김
2009.11.30 | 280면 | B6 | 9,800원

향수(세계문학 082)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09.11.30 | 370면 | B6 | 10,800원

장미의 이름(전2권, 세계문학 080, 081)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9.11.30 | 각 440, 442면 | B6 | 각 12,800원

순수의 시대(세계문학 077)
이디스 워튼 | 고정아 옮김
2009.11.30 | 434면 | B6 | 9,800원

지상에서 영원으로(전3권, 세계문학 070~072)
제임스 존스 | 이종인 옮김
2009.11.30 | 각 396, 380, 388면 | B6 | 각 9,800원

서부 전선 이상 없다(세계문학 067)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 홍성광 옮김
2009.11.30 | 328면 | B6 | 9,800원

마야꼬프스끼 선집(세계문학 064)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09.11.30 | 320면 | B6 | 9,800원

몽유병자들(전2권, 세계문학 061, 062)
헤르만 브로흐 | 김경연 옮김
2009.11.30 | 각 400, 384면 | B6 | 각 9,800원

의심스러운 싸움(세계문학 060)
존 스타인벡 | 윤희기 옮김
2009.11.30 | 340면 | B6 | 9,800원

플로베르의 앵무새(세계문학 056)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9.11.30 | 256면 | B6 | 9,800원

도적 떼(세계문학 055)
프리드리히 폰 실러 | 김인순 옮김
2009.11.30 | 256면 | B6 | 9,800원

동물 농장(세계문학 053)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2009.11.30 | 196면 | B6 | 8,800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년
(세계문학 052)
아르까지, 보리스 스뜨루가츠끼
석영중 옮김
2009.11.30 | 224면 | B6 | 8,800원

세설(전2권, 세계문학 050, 051)
다니자키 준이치로 | 송태욱 옮김
2009.11.30 | 각 392, 384면 | B6 | 각 9,800원

윤미희

Timeline

그리고 죽음(세계문학 049)
짐 크레이스 | 김석희 옮김
2009.11.30 | 224면 | B6 | 8,800원

기적의 시대(세계문학 048)
보리슬라프 페키치 | 이윤기 옮김
2009.11.30 | 416면 | B6 | 10,800원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세계문학 046)
존 르카레 | 김석희 옮김
2009.11.30 | 360면 | B6 | 9,800원

최후의 세계(세계문학 045)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 | 장희권 옮김
2009.11.30 | 264면 | B6 | 9,800원

백년보다 긴 하루(세계문학 044)
친기즈 아이뜨마또프 | 황보석 옮김
2009.11.30 | 552면 | B6 | 10,800원

뿌리(전2권, 세계문학 042, 043)
알렉스 헤일리 | 안정효 옮김
2009.11.30 | 각 400, 448면 | B6 | 각 10,800원

고리오 영감(세계문학 041)
오노레 드 발자크 | 임희근 옮김
2009.11.30 | 448면 | B6 | 9,800원

닥터 지바고(전2권, 세계문학 039, 040)
보리스 빠스쩨르나끄 | 박형규 옮김
2009.11.30 | 각 400, 506면 | B6 | 각 9,800원

뉴욕 3부작(세계문학 038)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9.11.30 | 368면 | B6 | 12,800원

우리들(세계문학 037)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자마찐 | 석영중 옮김
2009.11.30 | 240면 | B6 | 8,800원

영혼의자서전(전2권, 세계문학 035, 036)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2009.11.30 | 각 352, 396면 | B6 | 각 10,800원

소립자(세계문학 034)
미셸 우엘벡 | 이세욱 옮김
2009.11.30 | 438면 | B6 | 9,800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세계문학 026)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김인순 옮김
2009.11.30 | 232면 | B6 | 8,800원

젊은 사자들(전2권, 세계문학 024, 025)
어윈 쇼 | 정영문 옮김
2009.11.30 | 각 416, 408면 | B6 | 각 10,800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세계문학 019)
루이스 캐럴 | 최용준 옮김
2009.11.30 | 324면 | B6 | 9,800원

백치(전2권, 세계문학 015, 016)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근식 옮김
2009.11.30 | 각 500, 520면 | B6 | 각 9,800원

죄와 벌(전2권, 세계문학 001, 002)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2009.11.30 | 각 408, 500면 | B6 | 각 9,800원

뉴욕 스케치(2판)
장자크 상페 | 정장진 옮김
2009.11.20 | 96면 | B4 변형 | 18,000원

속 깊은 이성 친구(3판)
장자크 상페 | 이세욱 옮김
2009.11.20 | 88면 | B4 변형 | 18,000원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2판)
장자크 상페
2009.11.20 | 80면 | B4 변형 | 18,000원

이상한 도둑 벨루토
실바나 단젤로 | 안토니오 마리노니 그림
이현경 옮김
2009.11.20 | 50면 | B4 변형 | 9,800원

오바마의 신화는 눈물이었다
김성수
2009.11.15 | 272면 | A5신 | 12,000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존 러스킨 | 김석희 옮김
2009.11.10 | 224면 | B6 | 12,000원

우리 아빠는 엉뚱해(신판)
파트리크 모디아노 | 장자크 상페 그림
이세욱 옮김
2009.11.10 | 112면 | A5 | 9,000원

전망 좋은 방(세계문학 028)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9.11.10 | 342면 | B6 | 9,800원

연애 소설 읽는 노인(세계문학 023)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9.11.10 | 184면 | B6 | 8,800원

벚꽃 동산(세계문학 022)
안톤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09.11.10 | 328면 | B6 | 9,800원

수용소군도(세계문학 018)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옮김
2009.11.10 | 468면 | B6 | 9,800원

원수들, 사랑 이야기(세계문학 014)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 | 김진준 옮김
2009.11.10 | 384면 | B6 | 9,800원

바다의 침묵(세계문학 013)
베르코르 | 이상해 옮김
2009.11.10 | 256면 | B6 | 9,800원

대위의 딸(세계문학 012)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9.11.10 | 232면 | B6 | 8,800원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세계문학 011)
로저 젤라즈니 | 김상훈 옮김
2009.11.10 | 424면 | B6 | 10,800원

변신(세계문학 010)
프란츠 카프카 | 홍성광 옮김
2009.11.10 | 452면 | B6 | 9,800원

어머니(세계문학 009)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2009.11.10 | 538면 | B6 | 10,800원

댈러웨이 부인(세계문학 008)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09.11.10 | 288면 | B6 | 9,800원

우주 만화(세계문학 007)
이탈로 칼비노 | 김운찬 옮김
2009.11.10 | 336면 | B6 | 9,800원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세계문학 006)
안톤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09.11.10 | 368면 | B6 | 9,800원

죽은 자 클럽
샬레인 해리스 | 송경아 옮김
2009.11.5 | 344면 | B6 | 10,800원

꼬마 인형(신판)
가브리엘 뱅상
2009.10.30 | 80면 | A4 | 9,000원

어느 개 이야기(신판)
가브리엘 뱅상
2009.10.30 | 72면 | A4 | 9,000원

가짜 전쟁(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정하 옮김
2009.10.30 | 464면 | B6 | 20,000원

거짓말의 전략(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192면 | B6 | 9,000원

구조의 부재(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광현 옮김
2009.10.30 | 640면 | B6 | 25,000원

기호: 개념과 역사(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광현 옮김
2009.10.30 | 320면 | B6 | 15,000원

기호학과 언어 철학(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성도 옮김
2009.10.30 | 456면 | B6 | 20,000원

나는 독자를 위해 글을 쓴다
(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504면 | B6 | 20,000원

논문 잘 쓰는 방법(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424면 | B6 | 13,000원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296면 | B6 | 15,000원

매스컴과 미학(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윤종태 옮김
2009.10.30 | 552면 | B6 | 20,000원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344면 | B6 | 13,000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09.10.30 | 144면 | B6 | 9,000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09.10.30 | 448면 | B6 | 13,000원

신문이 살아남는 방법
(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160면 | B6 | 9,000원

애석하지만 출판할 수

최연

없습니다(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이현경 옮김
2009.10.30 | 256면 | B6 | 12,000원

언어와 광기(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정신 옮김
2009.10.30 | 208면 | B6 | 9,000원

예술과 광고(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효정 옮김
2009.10.30 | 592면 | B6 | 20,000원

이야기 속의 독자(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392면 | B6 | 18,000원

일반 기호학 이론(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536면 | B6 | 20,000원

작가와 텍스트 사이(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손유택 옮김
2009.10.30 | 232면 | B6 | 12,000원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9.10.30 | 136면 | B6 | 9,000원

중세의 미학(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손효주 옮김
2009.10.30 | 248면 | B6 | 12,000원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
(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9.10.30 | 360면 | B6 | 13,000원

칸트와 오리너구리(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박여성 옮김
2009.10.30 | 624면 | B6 | 25,000원

하버드에서 한 문학 강의
(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손유택 옮김
2009.10.30 | 280면 | B6 | 12,000원

해석의 한계(에코 마니아판)
움베르토 에코 | 김광현 옮김
2009.10.30 | 512면 | B6 | 20,000원

집행자 어느 교도관의 첫 사형 집행기
김영옥
2009.10.30 | 304면 | B6 | 9,800원

어느 날 외톨이가 된 당나귀, 발타자르
잉에 미스케르트 | 마리케 쿠넨 그림
김희정 옮김
2009.10.10 | 40면 | A4 | 9,000원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신판)
장자크 상페 | 최영선 옮김
2009.9.30 | 96면 | A5 | 9,000원

얼굴 빨개지는 아이(신판)
장자크 상페 | 김호영 옮김
2009.9.10 | 128면 | 크라운판 변형 | 9,000원

공룡을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롤랑 가리그 그림
유병수 옮김
2009.9.10 | 32면 | B4 변형 | 8,500원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롤랑 가리그 그림
유병수 옮김
2009.9.10 | 32면 | B4 변형 | 8,500원

늑대를 물리치는 방법
카트린 르블랑 | 롤랑 가리그 그림
유병수 옮김
2009.9.10 | 32면 | B4 변형 | 8,500원

얼굴 빨개지는 아이(신판)
장자크 상페 | 김호영 옮김
2009.9.10 | 128면 | 크라운변형 | 9,000원

히페리온
댄 시먼스 | 최용준 옮김
2009.8.30 | 616면 | B6 | 15,000원

인간(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9.8.15 | 192면 | B6 | 9,800원

앤디 워홀 일기
앤디 워홀 | 팻 해켓 엮음 | 홍예빈 옮김
2009.8.10 | 980면 | A4 변형 | 29,500원

신 5, 6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9.7.10 | 각 336, 336면 | A5신 | 각 9,800원

라미아가 보고 있다
팀 파워스 | 김민혜 옮김
2009.6.25 | 640면 | B6 | 15,000원

지우개 by SNOW CAT
권윤주
2009. 5. 30 | 164면 | B5 변형 | 13,000원

SNOW CAT의 혼자놀기(개정증보판)
권윤주
2009. 5. 30 | 120면 | B5 변형 | 10,000원

벨벳 애무하기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09. 5. 25 | 552면 | B6 | 15,000원

건축을 말한다
에이드리언 포티 | 이종인 옮김
2009. 5. 10 | 552면 | B5 변형 | 30,000원

댈러스의 살아 있는 시체들
샬레인 해리스 | 최용준 옮김
2009. 5. 5 | 336면 | B6 | 10,800원

신 4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9. 4. 25 | 352면 | A5신 | 9,800원

신 3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9. 3. 30 | 352면 | A5신 | 9,800원

다리
이언 뱅크스 | 이예원 옮김
2009. 3. 30 | 432면 | B6 | 11,800원

토마스 만 문학론
안진태
2009. 3. 30 | 640면 | A5신 | 35,000원

르네상스 예술에서 괴테를 읽다
김선형
2009. 3. 20 | 288면 | 규격외 | 13,000원

통의동에서 책을 짓다
홍지웅
2009. 3. 10 | 848면 | B5 변형 | 19,500원

한국의 예술 지원사
류주희 외
2009. 2. 28 | 392면 | B5 변형 | 15,000원

2009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09. 2. 25 | 384면 | A5 변형 | 5,000원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2009. 1. 30 | 536면 | A5신 | 25,000원

사랑, 그리고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9. 1. 20 | 316면 | B6 | 10,800원

조범호

2007 - 2008

2008

- 1월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08〉 출간
- 3월 세계 최초로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 전30권 발간
- 9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홍지웅 대표의 파주 사옥 건축일기 원본을 확대 전시하다(큐레이터 최문규)
- 11월 12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1〉 종합 베스트셀러 2위
- 12월 움베르토 에코의 〈추의 역사〉 출간
- 〈해체주의와 그 이후〉, 〈문학적 기억의 탄생〉 2008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
- 〈고종 시대의 리더십〉 2008년 문화 체육 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
- 〈추의 역사〉 간행물윤리위원회 〈12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
- 신간 50종 64권, 총 57종 71권 발행

추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 | 오숙은 옮김
2008.12.30 | 456면 | B5 | 55,000원

나를 디자인하라
카림 라시드 | 이종인 옮김
2008.12.30 | 272면 | A5신 | 12,800원

통증 이렇게 다스린다
강석만
2008.12.30 | 240면 | 규격외 | 13,000원

공공성
현진권 외
2008.12.10 | 300면 | 규격외 | 12,000원

거장과 마르가리따(전2권, 미스터 노

Timeline

세계문학)
미하일 불가꼬프 | 홍대화 옮김
2008.11.30 | 각 292, 264면 | B6 | 각 7,800원

신 1, 2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8.11.20 | 각 268, 280면 | A5신 | 각 9,800원

순수의 시대(미스터 노 세계문학)
이디스 워튼 | 고정아 옮김
2008.10.31 | 360면 | B6 | 7,800원

만리장성과 책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 정경원 옮김
2008.10.15 | 376면 | B6 | 15,000원

레몬 테이블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8.9.25 | 312면 | B6 | 10,800원

B형 간염, 잡을 수 있다(신판)
현철수
2008.9.20 | 200면 | 규격외 | 12,000원

아웃오브아프리카(미스터노세계문학)
카렌 블릭센(아이작 디네센) | 민승남 옮김
2008.9.20 | 376면 | B6 | 7,800원

어둠 속의 남자
폴 오스터 | 이종인 옮김
2008.9.5 | 256면 | B6 | 9,800원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 강의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2008.8.30 | 520면 | A5신 | 25,000원

지역 예술 운동
잰 코언 크루즈 | 권영진 옮김
2008.8.22 | 328면 | 규격외 | 12,000원

고리오 영감(미스터 노 세계문학)
오노레 드 발자크 | 임희근 옮김
2008.8.10 | 364면 | B6 | 7,800원

유리 속의 소녀
제프리 포드 | 이수현 옮김
2008.8.5 | 384면 | B6 | 10,800원

최후의 알리바이
로맹 사르두 | 전미연 옮김
2008.7.30 | 440면 | B6 | 10,800원

당뇨병 이렇게 다스린다(신판)
강석만
2008.7.20 | 320면 | 규격외 | 15,000원

융: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디어드리 베어 | 정영목 옮김
2008.7.20 | 1168면 | A5신 | 48,000원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전2권)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08.7.1 | 각 372, 368면 | B6 | 각 10,800원

산도칸 몸프라쳄의 호랑이
에밀리오 살가리 | 유향란 옮김
2008.7.1 | 424면 | B6 | 10,800원

시라노
에드몽 로스탕 | 이상해 옮김
2008.7.1 | 248면 | B6 | 10,800원

고종 시대의 리더십
오인환
2008.6.20 | 448면 | A5신 | 20,000원

자비의 힘(신판)
달라이 라마 | 김석희 옮김
2008.5.25 | 252면 | B6 | 9,800원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신판)
가토 다이조 | 송현아 옮김
2008.5.20 | 224면 | B6 | 10,800원

지상에서 영원으로(전3권, 미스터 노 세계문학)
제임스 존스 | 이종인 옮김
2008.5.20 | 각 396, 380, 392면 | B6 | 각 7,800원

밑줄 긋는 남자(문고본)
카를린 봉그랑 | 이세욱 옮김
2008.5.1 | 216면 | B6 | 5,000원

두려움과 떨림(문고본)
아멜리 노통브 | 전미연 옮김
2008.5.1 | 188면 | B6 | 5,000원

마틴 프로스트의 내면의 삶
폴 오스터 | 김경식 옮김
2008.4.25 | 180면 | B6 | 8,800원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
(전2권, 미스터 노 세계문학)
조르지 아마두 | 오숙은 옮김
2008.4.10 | 각 328, 312면 | B6 | 각 7,800원

카잔차키스의 편지(전2권)
엘레니 카잔차키 엮음 | 안정효 옮김
2008.3.30 | 각 520, 488면 | B6 | 각 10,800원

소돔과 고모라 외
니코스 카잔차키스 | 송무 옮김
2008.3.30 | 464면 | B6 | 10,800원

크노소스 궁전
니코스 카잔차키스 | 박경서 옮김
2008.3.30 | 356면 | B6 | 10,800원

알렉산드로스 대왕
니코스 카잔차키스 | 민승남 옮김
2008.3.30 | 388면 | B6 | 10,800원

영혼의 자서전(전2권)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2008.3.30 | 각 352, 388면 | B6 | 각 10,800원

전쟁과 신부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2008.3.30 | 412면 | B6 | 10,800원

성자 프란체스코(전2권)
니코스 카잔차키스 | 김영신 옮김
2008.3.30 | 각 308, 304면 | B6 | 각 10,800원

최후의 유혹(전2권)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2008.3.30 | 각 408, 396면 | B6 | 각 10,800원

미할리스 대장(전2권)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08.3.30 | 각 336, 324면 | B6 | 각 10,800원

수난(전2권)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창식 옮김
2008.3.30 | 각 320면 | B6 | 각 10,800원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08.3.30 | 488면 | B6 | 10,800원

붓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 신재실 옮김
2008.3.30 | 320면 | B6 | 10,800원

모레아 기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종인 옮김
2008.3.30 | 232면 | B6 | 10,800원

영국 기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종인 옮김
2008.3.30 | 376면 | B6 | 10,800원

오디세이아(전3권)
니코스 카잔차키스 | 안정효 옮김
2008.3.30 | 각 532, 528, 492면 | B6 | 각 10,800원

일본·중국 기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종인 옮김
2008.3.30 | 468면 | B6 | 10,800원

돌의 정원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종인 옮김
2008.3.30 | 352면 | B6 | 10,800원

토다 라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 오숙은 옮김
2008.3.30 | 312면 | B6 | 10,800원

러시아 기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 오숙은 옮김
2008.3.30 | 384면 | B6 | 10,800원

지중해 기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 송은경 옮김
2008.3.30 | 248면 | B6 | 10,800원

스페인 기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 송병선 옮김
2008.3.30 | 320면 | B6 | 10,800원

향연 외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종인 옮김
2008.3.30 | 360면 | B6 | 10,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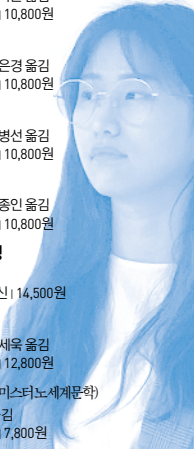
문학적 기억의 탄생
변학수
2008.3.20 | 264면 | A5신 | 14,500원

나무(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8.3.10 | 312면 | B6 | 12,800원

원수들, 사랑 이야기(미스터노세계문학)
아이작 싱어 | 김진준 옮김
2008.2.29 | 324면 | B6 | 7,800원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2008
열린책들 편집부 엮음
2008.2.10 | 360면 | A5 변형 | 3,500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미스터 노 세계문학)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김인순 옮김
2008.1.30 | 240면 | B6 | 7,800원



이소영

2007

- 2월 〈도스또예프스끼 전집〉 보급판 전18권 출간
- 3월 〈도스또예프스끼 전집〉

수집가용 한정판 210질 출간

- 4월 쥐스킨트의 〈향수〉, 4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영화 「향수」 한국 관객 110만 돌파
- 7월 베르베르의 〈파피용〉, 1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연간 베스트셀러 2위
- 12월 〈테마와 운동 시리즈〉의 〈미술과 페미니즘〉, 〈예술가의 몸〉 출간
- 예스24 독자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표지〉로 〈파피용〉 선정
- 〈수의 문화사〉, 〈협력형 통치〉,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 2007년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
- 신간 40종 43권, 총 63종 73권 발행

예술가의 몸
아멜리아 존스 | 심철웅 옮김
2007.12.31 | 304면 | 규격외 | 68,000원

침구학 강의(신판)
노윤혁 엮음 | 김영진, 이태후 감수
2007.12.31 | 608면 | A5신 | 25,000원

한국의 보약(신판)
최태섭 | 안덕균, 이태후 해설
2007.12.31 | 648면 | A5신 | 25,000원

몽유병자들(전2권, 미스터 노 세계문학)
헤르만 브로흐 | 김경연 옮김
2007.12.30 | 각 400, 384면 | B6 | 각 7,800원

벚꽃 동산(미스터 노 세계문학)
안톤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07.12.30 | 292면 | B6 | 7,800원

레제르(전2권)
레제르 | 최영선, 이재형 옮김
2007.12.30 | 각 248, 308면 | A4
각 18,000, 22,000원

세설(전2권, 미스터 노 세계문학)
다니자키 준이치로 | 송태욱 옮김
2007.12.20 | 각 392, 384면 | B6 | 각 7,800원

도끼와 바이올린
알랭 플레셰르 | 임호경 옮김
2007.11.30 | 488면 | B6 | 9,800원

1984년(미스터 노 세계문학)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2007.11.30 | 304면 | B6 | 7,800원

파피용(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07.11.30 | 440면 | B6 | 13,800원

만화 개미(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7.11.20 | 104면 | B6 | 6,000원

플레바스를 생각하라
이언 뱅크스 | 김민혜 옮김
2007.11.20 | 612면 | B6 | 14,500원

중세사상사
클라우스 리젠후버 | 이용주 옮김
2007.11.15 | 360면 | A5신 | 18,000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미스터 노 세계문학)
루이스 캐럴 | 최용준 옮김
2007.10.30 | 328면 | B6 | 7,800원

어느 섬의 가능성
미셸 우엘벡 | 이상해 옮김
2007.9.28 | 480면 | B6 | 9,800원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미스터 노 세계문학)
안톤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07.9.20 | 296면 | B6 | 7,800원

해체주의와 그 이후
이광래
2007.9.15 | 384면 | A5신 | 18,000원

미술과 페미니즘
헬레나 레킷 편저 | 페기 펠런 개관
오숙은 옮김
2007.8.30 | 304면 | 규격외 | 68,000원

예술사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구트 | 정장진 옮김
2007.8.20 | 288면 | B5 변형 | 12,000원

샹그리라
이케가미 에이이치 | 권남희 옮김
2007.8.10 | 720면 | A5 변형 | 13,000원

Snowcat in New York
권윤주
2007.8.10 | 204면 | B5 변형 | 14,500원

몰타의 매(미스터 노 세계문학)
대실 해밋 | 고정아 옮김
2007.8.10 | 304면 | B6 | 7,800원

변신(미스터 노 세계문학)
프란츠 카프카 | 홍성광 옮김
2007.7.31 | 344면 | B6 | 7,800원

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 김운찬 옮김
2007.7.31 | 624면 | A5신 | 18,000원

죽은 자에게 걸려 온 전화
존 르카레 | 최용준 옮김
2007.7.20 | 240면 | B6 | 8,800원

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 전미연 옮김
2007.7.10 | 400면 | A5신 | 9,800원

리옹 도르의 여인
시배스천 폭스 | 이예원 옮김
2007.6.30 | 332면 | B6 | 9,800원

나의 지중해식 인사
이강훈
2007.6.30 | 284면 | B6 | 9,800원

도적 떼(미스터 노 세계문학)
프리드리히 실러 | 김인순 옮김
2007.6.20 | 260면 | B6 | 7,800원

물결을 스치며 바람을 스치며
아모스 오즈 | 정영문 옮김
2007.6.10 | 284면 | B6 | 8,800원

프랑스 스케치
장자크 상페
2007.6.5 | 124면 | B4 변형 | 18,000원

수용소군도(미스터 노 세계문학)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옮김
2007.6.5 | 364면 | B6 | 7,800원

폴 오스터의 뉴욕 통신
폴 오스터 | 이종인 옮김
2007.5.30 | 352면 | 규격외 | 9,800원

사라진 도서관
루치아노 칸포라 | 김효정 옮김
2007.5.20 | 200면 | A5신 | 10,000원

앤디 워홀의 철학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2007.5.10 | 280면 | 규격외 | 15,000원

메트로랜드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7.4.30 | 280면 | B6 | 9,800원

뮤지컬(신판)
스티븐 시트론 | 정재왈, 정명주 옮김
2007.4.20 | 416면 | 규격외 | 25,000원

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철학적 이해
존 힉 | 김장생 옮김
2007.3.30 | 408면 | A5신 | 20,000원

기록실로의 여행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7.3.30 | 232면 | B6 | 8,800원

카프카 문학론
안진태
2007.3.25 | 656면 | A5신 | 25,000원

독소 전쟁사
데이비드 글랜츠, 조너선 마우스
권도승 외 옮김
2007.3.20 | 512면 | A5신 | 25,000원

그림 형제 최악의 스토리
루이스 세풀베다 | 권미선 옮김
2007.3.10 | 268면 | B6 | 8,800원

스키다마링크
기욤 뮈소 | 이승재 옮김
2007.2.5 | 400면 | B6 | 9,800원

도스또예프스끼 읽기 사전(신판)
조유선 편저
2007.2.5 | 776면 | B6 | 18,000원

미성년(전2권, 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상룡 옮김
2007.2.5 | 각 512, 544면 | B6 | 각 7,800원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전2권, 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대우 옮김
2007.2.5 | 각 704, 736면 | B6 | 각 7,800원

악령(전2권, 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연경 옮김
2007.2.5 | 각 600면 | B6 | 각 7,800원

영원한 남편 외(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정명자 옮김
2007.2.5 | 440면 | B6 | 7,800원

박정윤

Timeline

분신, 가난한 사람들(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07.2.5 | 440면 | B6 | 7,800원

죄와 벌(전2권, 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2007.2.5 | 각 408, 504면 | B6 | 각 7,800원

지하로부터의 수기 외(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덕형 옮김
2007.2.5 | 696면 | B6 | 7,800원

상처받은 사람들(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윤우섭 옮김
2007.2.5 | 592면 | B6 | 7,800원

백치(전2권, 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근식 옮김
2007.2.5 | 각 504, 520면 | B6 | 각 7,800원

스페빤치꼬보 마을 사람들(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변현태 옮김
2007.2.5 | 416면 | B6 | 7,800원

백야 외(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07.2.5 | 576면 | B6 | 7,800원

노름꾼 외(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혜경 옮김
2007.2.5 | 536면 | B6 | 7,800원

아저씨의 꿈 외(보급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종소 옮김
2007.2.5 | 528면 | B6 | 7,800원

댈러웨이 부인(미스터 노 세계문학)
버지니아 울프 | 최애리 옮김
2007.2.5 | 288면 | B6 | 7,800원

미치광이 사촌들
에드워드 고리 | 박수진 옮김
2007.1.30 | 32면 | A5 변형 | 6,500원

독이 든 사탕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7.1.30 | 56면 | A5 변형 | 6,500원

오래전의 방문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7.1.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비밀 다락방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7.1.30 | 124면 | A5 변형 | 6,500원

푸코의 진자 3(4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7.1.25 | 396면 | B6 | 9,800원

푸코의 진자 1, 2(4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7.1.10 | 각 396, 384면 | B6 | 각 9,800원

2006

- 2월 〈Mr. Know 세계문학〉 30권 출간
- 3월 〈열린책들 철학 전공자 장학금〉 신설, 매년 1명 등록금 전액 1년간 지원
- 3월 〈E. M. 포스터 전집〉 전7권 완간
- 제38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일반문화부문-대통령상) 수상
- 11월 파주출판도시 열린책들 사옥, 한국 건축가 협회상 수상
- 신간 44종 47권, 총 80종 88권 발행

이상한 소파
에드워드 고리 | 윤희기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불운한 아이
에드워드 고리 | 박수진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쓸모 있는 조언
에드워드 고리 | 윤희기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윌로데일 핸드카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동물 농장(미스터 노 세계문학)
조지 오웰 | 박경서 옮김
2006.12.30 | 196면 | B6 | 7,800원

바보의 알파벳
시배스천 폭스 | 오숙은 옮김
2006.12.30 | 384면 | B6 | 9,800원

웃는 남자(전2권)
빅토르 위고 | 이형식 옮김
2006.12.20 | 각 472, 488면 | B6 | 각 9,800원

베네치아에서의 죽음(미스터 노 세계문학)
토마스 만 | 홍성광 옮김
2006.12.20 | 336면 | B6 | 7,800원

젊은 사자들(전2권, 미스터 노 세계문학)
어윈 쇼 | 정영문 옮김
2006.12.15 | 각 416, 408면 | B6 | 각 7,800원

번역의 윤리
로런스 베누티 | 임호경 옮김
2006.12.10 | 360면 | A5신 | 14,500원

에보니 타워
존 파울즈 | 정영문 옮김
2006.11.20 | 424면 | B6 | 9,800원

B형 간염, 잡을 수 있다
현철수
2006.11.20 | 192면 | A5신 | 9,800원

사십 일
짐 크레이스 | 김석희 옮김
2006.11.10 | 344면 | B6 | 9,800원

마야꼬프스끼선집(미스터 노 세계문학)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06.10.30 | 320면 | B6 | 7,800원

드라큘라(미스터 노 세계문학)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2006.9.30 | 520면 | B6 | 7,800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06.9.30 | 304면 | A5 변형 | 8,500원

안녕하세요 성령님(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06.9.30 | 320면 | A5 변형 | 8,500원

핑거스미스
세라 워터스 | 최용준 옮김
2006.9.30 | 728면 | B6 | 15,000원

말의 색채
마르그리트 뒤라스 | 유지나 옮김
2006.9.10 | 264면 | B5 변형 | 15,000원

매혹
크리스토퍼 프리스트 | 김상훈 옮김
2006.8.30 | 432면 | B6 | 9,800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미스터 노 세계문학)
아르까지, 보리스 스뜨루가츠끼 | 석영중 옮김
2006.8.20 | 224면 | B6 | 7,800원

Sexually Innocent
김중만
2006.7.25 | 112면 | B4 변형 | 50,000원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방법
이명진
알렉산더 폰 쉰부르크 | 김인순 옮김
2006.7.20 | 224면 | A5 변형 | 9,800원

어두워지면 일어나라
샬레인 해리스 | 최용준 옮김
2006.7.20 | 396면 | B6 | 9,800원

대위의 딸(미스터 노 세계문학)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6.7.20 | 232면 | B6 | 7,800원

서부전선이상없다(미스터 노 세계문학)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 홍성광 옮김
2006.7.20 | 248면 | B6 | 7,800원

인간과 사물의 기원
김진송
2006.7.20 | 400면 | B6 | 9,800원

13번째 마을
로맹 사르두 | 이승재 옮김
2006.7.15 | 512면 | B6 | 9,800원

논문 잘 쓰는 방법(증보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6.7.10 | 328면 | A5신 | 10,000원

나를 만나기 전 그녀는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6.6.20 | 272면 | B6 | 9,800원

10 $\frac{1}{2}$ 장으로 쓴 세계 역사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6.6.20 | 448면 | B6 | 9,800원

성서의 역사
크리스토퍼 드 하멜 | 이종인 옮김
2006.6.20 | 352면 | B5 | 45,000원

출판 프로젝트 X
나가오카 요시유키 | 김성민 옮김
2006.6.10 | 256면 | A5신 | 12,000원

제로
마쓰다 유키마사 | 고현진 옮김
2006.6.5 | 288면 | A5 변형 | 18,000원

배고픔의 자서전
아멜리 노통브 | 전미연 옮김
2006.5.10 | 224면 | B6 | 8,500원

치티치티 뱅뱅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언 플레밍 | 김경미 옮김
2006.4.30 | 144면 | B5 변형 | 8,500원

조르조 바사리
롤랑 르 몰레 | 임호경 옮김
2006.4.25 | 688면 | A5신 | 28,000원

협력형 통치
이문영
2006.4.20 | 696면 | A5신 | 29,000원

그대로 두기
다이애나 애실 | 이은선 옮김
2006.4.20 | 224면 | A5신 | 12,000원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초밥(전2권)
메리언 키스 | 민승남 옮김
2006.4.20 | 각 360, 296면 | A5 변형 | 각 8,500원

뇌(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6.4.10 | 각 328면 | B6 | 각 8,800원

장미의 이름(전2권, 신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6.3.30 | 각 464, 456면 | B6 | 각 9,800원

천사들도 발 딛기를 두려워하는 곳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6.3.20 | 248면 | B6 | 9,000원

콜로노스의 숲
E. M. 포스터 | 이종인 옮김
2006.3.20 | 368면 | B6 | 9,500원

기나긴 여행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6.3.20 | 464면 | B6 | 9,500원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신판)
제프리 노웰-스미스 책임편집 | 김경식, 이순호, 전찬일 옮김
2006.3.20 | 1000면 | B5 | 29,500원

유리의 도시
폴 오스터, 카라식, 마추켈리 | 황보석 옮김
2006.3.20 | 152면 | B5 변형 | 7,500원

스탁
콘웨이 로이드 모건 | 오숙은 옮김
2006.3.10 | 240면 | B5 변형 | 18,000원

연애소설읽는노인(미스터노세계문학)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6.2.25 | 184면 | B6 | 7,800원

플로베르의앵무새(미스터노세계문학)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6.2.25 | 256면 | B6 | 7,800원

최초의인간(미스터노세계문학)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옮김
2006.2.25 | 304면 | B6 | 7,800원

소립자(미스터노세계문학)
미셸 우엘벡 | 이세욱 옮김
2006.2.25 | 352면 | B6 | 7,800원

닥터 지바고(전2권, 미스터노세계문학)
보리스 빠스쩨르나끄 | 박형규 옮김
2006.2.25 | 각 304, 392면 | B6 | 각 7,800원

전망 좋은 방(미스터노세계문학)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6.2.25 | 296면 | B6 | 7,800원

검의 대가(미스터노세계문학)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김수진 옮김
2006.2.25 | 296면 | B6 | 7,800원

최후의 세계(미스터노세계문학)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 | 장희권 옮김
2006.2.25 | 264면 | B6 | 7,800원

뉴욕 3부작(미스터노세계문학)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6.2.25 | 368면 | B6 | 7,800원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미스터노세계문학)
존 르카레 | 김석희 옮김
2006.2.25 | 288면 | B6 | 7,800원

새의 노래(미스터노세계문학)
시배스천 폭스 | 황보석 옮김
2006.2.25 | 624면 | B6 | 7,800원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미스터노세계문학)
로저 젤라즈니 | 김상훈 옮김
2006.2.25 | 424면 | B6 | 7,800원

그리고 죽음(미스터노세계문학)
짐 크레이스 | 김석희 옮김
2006.2.25 | 224면 | B6 | 7,800원

장미의 이름(전2권, 미스터노세계문학)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6.2.25 | 각 344면 | B6 | 각 7,800원

소설(미스터노세계문학)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2006.2.25 | 500면 | B6 | 7,800원

의심스런 싸움(미스터노세계문학)
존 스타인벡 | 윤희기 옮김
2006.2.25 | 336면 | B6 | 7,800원

백년보다 긴 하루(미스터노세계문학)
친기즈 아이뜨마또프 | 황보석 옮김
2006.2.25 | 420면 | B6 | 7,800원

우주 만화(미스터노세계문학)
이탈로 칼비노 | 김운찬 옮김
2006.2.25 | 336면 | B6 | 7,800원

기적의 시대(미스터노세계문학)
보리슬라프 페키치 | 이윤기 옮김
2006.2.25 | 416면 | B6 | 7,800원

개미(미스터노세계문학)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6.2.25 | 368면 | B6 | 7,800원

여자를 안다는 것(미스터노세계문학)
아모스 오즈 | 최창모 옮김
2006.2.25 | 280면 | B6 | 7,800원

그리스인 조르바(미스터노세계문학)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06.2.25 | 384면 | B6 | 7,800원

어머니(미스터노세계문학)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2006.2.25 | 472면 | B6 | 7,800원

향수(미스터노세계문학)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06.2.25 | 296면 | B6 | 7,800원

우리들(미스터노세계문학)
예브게니 자마찐 | 석영중 옮김
2006.2.25 | 240면 | B6 | 7,800원

뿌리(전2권, 미스터노세계문학)
알렉스 헤일리 | 안정효 옮김
2006.2.25 | 각 400, 448면 | B6 | 각 7,800원

프랑스중위의여자(미스터노세계문학)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2006.2.25 | 544면 | B6 | 7,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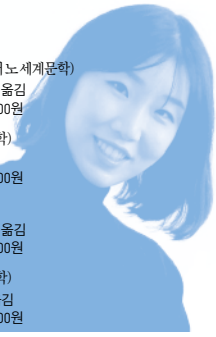
인도로 가는 길
E. M. 포스터 | 민승남 옮김
2006.2.20 | 456면 | B6 | 9,500원

사랑을 생각하다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06.2.15 | 104면 | B6 | 7,500원

사랑의 추구와 발견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06.2.15 | 208면 | B6 | 8,500원

자서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이종인 옮김
2006.1.15 | 632면 | B5 변형 | 28,000원

하워즈 엔드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6.1.15 | 504면 | B6 | 9,500원



전효선

2004 - 2006

2005

- 1월 〈말벌 공장〉을 필두로 이언 뱅크스 작품 발간 시작
- 1월 〈정신분석 사전〉 출간
- 1월 〈옥스퍼드 세계영화사〉 출간
- 7월 미메시스 브랜드로 출간 시작
- 7월 존 르카레 작품 발간 시작
- 8월 줄리언 반스 작품 발간 시작
- 신간 43종 43권, 총 51종 51권 발행

가구의 책
우치다 시게루 | 고현진 옮김
2005.12.25 | 280면 | B5 변형 | 20,000원

전망 좋은 방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5.12.15 | 344면 | B6 | 9,500원

Timeline

모리스
E. M. 포스터 | 고정아 옮김
2005.12.15 | 360면 | B6 | 9,500원

브루클린 풍자극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5.12.15 | 400면 | B6 | 9,500원

우리들
예브게니 자마찐 | 석영중 옮김
2005.11.20 | 240면 | B6 | 7,800원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김운찬
2005.11.10 | 240면 | A5신 | 15,000원

가스통 갈리마르 프랑스 출판 반세기
피에르 아술린 | 강주헌 옮김
2005.10.20 | 520면 | A5신 | 18,000원

고슴도치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5.10.15 | 232면 | B6 | 8,500원

미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 | 이현경 옮김
2005.9.30 | 432면 | B5 | 39,000원

카사노바는 책을 더 사랑했다
존 맥스웰 해밀턴 | 승영조 옮김
2005.9.15 | 464면 | A5신 | 18,000원

일본 문학과 몸
요로 다케시 | 신유미 옮김
2005.9.10 | 200면 | A5신 | 15,000원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
장자크 상페
2005.9.10 | 80면 | A4 | 12,000원

베르테르의 영혼과 자연(신판)
안진태
2005.8.30 | 248면 | A5신 | 15,000원

새의 노래
시배스천 폭스 | 황보석 옮김
2005.8.25 | 688면 | B6 | 12,000원

초록 돌고래의 거리
시배스천 폭스 | 이예원 옮김
2005.8.25 | 500면 | B6 | 9,500원

완전한 죽음
기욤 뮈소 | 이승재 옮김
2005.8.20 | 440면 | B6 | 9,500원

내 말 좀 들어봐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5.8.15 | 352면 | B6 | 9,500원

태양을 바라보며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5.8.15 | 312면 | B6 | 9,500원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존 르카레 | 김석희 옮김
2005.7.30 | 320면 | B6 | 8,500원

나는 Dada다
만 레이 | 김우룡 옮김
2005.7.30 | 512면 | B5 변형 | 25,000원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카림 라시드 | 김승욱 옮김
2005.7.30 | 252면 | B4 변형 | 35,000원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존 르카레 | 이종인 옮김
2005.7.20 | 552면 | B6 | 9,500원

움베르토 에코를 둘러싼 번역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 외 | 송태욱 옮김
2005.7.15 | 224면 | A5신 | 12,000원

머큐리
아멜리 노통브 | 이상해 옮김
2005.7.10 | 192면 | B6 | 7,500원

공격
아멜리 노통브 | 김민정 옮김
2005.7.10 | 176면 | B6 | 7,500원

거창한 꿈(신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05.6.10 | 104면 | B6 | 7,500원

겹겹의 의도(신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05.6.10 | 104면 | B6 | 7,500원

파리 스케치(신판)
장자크 상페
2005.6.10 | 128면 | B6 | 7,500원

어설픈 경쟁(신판)
장자크 상페 | 이건수 옮김
2005.6.10 | 104면 | B6 | 7,500원

아름다운 날들(신판)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05.6.10 | 104면 | B6 | 7,500원

Snowcat의 혼자 놀기(신판)
권윤주
2005.6.10 | 112면 | B5 변형 | 7,500원

칸트와 오리너구리
움베르토 에코 | 박여성 옮김
2005.5.30 | 616면 | B6 | 18,000원

마호가니
보리스 빌냐끄 외 | 석영중 옮김
2005.5.20 | 224면 | B6 | 7,500원

소외
루이스 세풀베다 | 권미선 옮김
2005.5.20 | 224면 | B6 | 8,500원

핫 라인
루이스 세풀베다 | 권미선 옮김
2005.5.20 | 112면 | B6 | 7,500원

번역과 번역가들
쓰지 유미 | 송태욱 옮김
2005.5.10 | 248면 | A5신 | 12,000원

적
엠마뉘엘 카레르 | 윤정임 옮김
2005.5.10 | 224면 | B6 | 8,500원

달라이 라마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달라이 라마 | 김석희 옮김
2005.4.30 | 220면 | A5신 | 8,500원

플로베르의 앵무새
줄리언 반스 | 신재실 옮김
2005.4.15 | 312면 | B6 | 9,500원

움베르토 에코의 문학 강의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5.3.20 | 472면 | B6 | 15,000원

속병 클리닉
현철수
2005.3.20 | 272면 | A5신 | 12,000원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마이클 디버 | 정유섭 옮김
2005.3.15 | 232면 | A5신 | 12,000원

왜 쓰는가?
폴 오스터 | 김석희 옮김
2005.2.20 | 104면 | B6 | 6,500원

호텔 캘리포니아
김진태
2005.2.10 | 152면 | B5 변형 | 7,500원

둠스데이 북
코니 윌리스 | 최용준 옮김
2005.2.10 | 824면 | B6 | 13,500원

정신분석의 탄생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진수 옮김
2005.2.10 | 384면 | B6 | 15,000원

수의 문화사
카를 메닝거 | 김량국 옮김
2005.1.30 | 640면 | A5신 | 35,000원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
제프리 노웰-스미스 책임편집 | 김경식, 이순호, 전찬일 옮김
2005.1.20 | 1000면 | B5 | 59,000원

말벌 공장
이언 뱅크스 | 김상훈 옮김
2005.1.10 | 304면 | B6 | 8,500원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진수 옮김
2005.1.5 | 344면 | B6 | 15,000원

정신분석 사전
장 라플랑슈,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임진수 옮김
2005.1.5 | 600면 | A5신 | 35,000원

2004

- 1월 〈한국 대표 시인 초간본 총서〉 전20권 완간
- 10월 〈희망의 원리〉 전5권 완간
- 〈인간〉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예스24)
-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사〉, 〈독일 담시론〉 2004년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
- 총 판매부수 누계 1천만 부 돌파(1088만부)
- 신간 59종 65권 발행

최은미

키스 스미스의 북아트
키스 스미스 | 김나래 옮김
2004.12.30 | 416면 | B5 변형 | 35,000원

초콜릿
조앤 해리스 | 김경식 옮김
2004.12.30 | 320면 | B6 | 7,500원

불쏘시개
아멜리 노통브 | 함유선 옮김
2004.12.10 | 88면 | B6 | 7,000원

인간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4.11.30 | 160면 | B6 | 8,800원

작은 일기
움베르토 에코 | 이현경 옮김
2004.11.30 | 232면 | B6 | 8,500원

움베르토 에코 평전
다니엘 살바토레 시페르 | 임호경 옮김
2004.11.30 | 328면 | A5신 | 15,000원

너 좋아한 적 없어
체스터 브라운 | 김영준 옮김
2004.11.30 | 192면 | B5 변형 | 7,500원

똑똑, 리틀 맨
체스터 브라운 | 김희진 옮김
2004.11.30 | 184면 | B5 변형 | 7,500원

뿌리(전2권)
알렉스 헤일리 | 안정효 옮김
2004.11.10 | 각 408, 456면 | B6 | 각 7,500원

빨간 공책
폴 오스터 | 김석희 옮김
2004.10.30 | 136면 | B6 | 7,000원

소멸
폴 오스터 | 윤희기 옮김
2004.10.30 | 176면 | B6 | 7,500원

하이 크라임스
조지프 파인더 | 이창식 옮김
2004.10.20 | 400면 | B6 | 7,500원

희망의 원리(전5권)
에른스트 블로흐 | 박설호 옮김
2004.10.20 | 각 600면 내외 | B6
전권 90,000원

행복한 페인의 하루
베르너 엔케 | 이영희 옮김
2004.10.10 | 296면 | B6 | 8,500원

곤두박질
마이클 프레인 | 최용준 옮김
2004.9.20 | 528면 | B6 | 9,500원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새뮤얼 스텀프 | 이광래 옮김
2004.9.10 | 792면 | A5신 | 27,000원

검의 대가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김수진 옮김
2004.9.10 | 352면 | B6 | 9,500원

카프카의 프라하
클라우스 바겐바흐 | 김인순 옮김
2004.8.10 | 152면 | A5 변형 | 9,500원

카사노바의 베네치아
로타르 뮐러 | 이용숙 옮김
2004.8.10 | 168면 | A5 변형 | 9,500원

벚꽃 동산
안똔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04.8.10 | 280면 | B6 | 7,500원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안똔 체호프 | 오종우 옮김
2004.8.10 | 272면 | B6 | 7,500원

블랙박스
아모스 오즈 | 곽영미 옮김
2004.7.20 | 368면 | B6 | 9,500원

두 해 여름
에리크 오르세나 | 이세욱 옮김
2004.7.20 | 200면 | B6 | 8,500원

미네르바 성냥갑(전2권)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4.6.25 | 각 328면 | B6 | 각 9,500원

겹겹의 의도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04.6.1 | 104면 | B4 변형 | 18,000원

파리 스케치
장자크 상페
2004.6.1 | 124면 | B4 변형 | 18,000원

아름다운 날들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04.6.1 | 104면 | B4 변형 | 18,000원

나는 아버지가 하느님인 줄 알았다
폴 오스터 엮음 | 윤희기, 황보석 옮김
2004.5.30 | 320면 | A5 변형 | 8,800원

프랑스 중위의 여자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2004.5.30 | 616면 | B6 | 12,000원

신탁의 밤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4.5.10 | 320면 | B6 | 9,500원

만티사
존 파울즈 | 김석희 옮김
2004.5.10 | 296면 | B6 | 8,500원

독일 문학은 없다
하인츠 슐라퍼 | 변학수 옮김
2004.5.10 | 224면 | A5신 | 10,000원

외면
루이스 세풀베다 | 권미선 옮김
2004.4.15 | 320면 | B6 | 8,500원

폴 오스터: 인터뷰와 작품 세계
이노 도모유키, 아키모토 다카후미
김경원 옮김
2004.3.5 | 304면 | A5신 | 8,500원

베르베르 독자들이 쓴 나무 2
강창모 외
2004.2.20 | 368면 | A5신 | 9,500원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
에리코 로 | 김난주 옮김
2004.2.20 | 224면 | B6 변형 | 7,500원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
가토 다이조 | 송현아 옮김
2004.2.20 | 216면 | B6 변형 | 7,500원

성경 이야기
레기네 쉰틀러 | 조원규 옮김
2004.1.20 | 280면 | B4 변형 | 49,000원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나왈 알싸으다위 외 | 문애희 옮김
2004.1.10 | 440면 | B6 | 9,500원

해파리의 노래
김억
2004.1.5 | 192면 | B6 변형 | 6,500원

진달래꽃
김소월
2004.1.5 | 248면 | B6 변형 | 6,500원

님의 침묵
한용운
2004.1.5 | 184면 | B6 변형 | 6,500원

카프 시인집
김창술 외
2004.1.5 | 120면 | B6 변형 | 6,500원

정지용 시집
정지용
2004.1.5 | 200면 | B6 변형 | 6,500원

영랑 시집
김영랑
2004.1.5 | 96면 | B6 변형 | 6,500원

사슴
백석
2004.1.5 | 88면 | B6 변형 | 6,500원

현해탄
임화
2004.1.5 | 248면 | B6 변형 | 6,500원

낡은 집
이용악
2004.1.5 | 88면 | B6 변형 | 6,500원

망향
이용악
2004.1.5 | 64면 | B6 변형 | 6,500원

헌사
오장환
2004.1.5 | 64면 | B6 변형 | 6500원

와사등
김광균
2004.1.5 | 80면 | B6 변형 | 6,500원

태양의 풍속
김기림
2004.1.5 | 208면 | B6 변형 | 6,500원

청마시초
유치환
2004.1.5 | 120면 | B6 변형 | 6,500원

초롱불
박남수
2004.1.5 | 64면 | B6 변형 | 6,500원

백록담
정지용
2004.1.5 | 152면 | B6 변형 | 6,500원

Timeline

청록집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2004.1.5 | 104면 | B6 변형 | 6,500원

육사시집
이육사
2004.1.5 | 72면 | B6 변형 | 6,500원

오랑캐꽃
이용악
2004.1.5 | 96면 | B6 변형 | 6,500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2004.1.5 | 112면 | B6 변형 | 6,500원

2003

- 1월 주식회사 열린책들 법인 설립
- 9월 〈프로이트 전집〉 신판 전15권 완간
- 〈나무〉, 2003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나무〉, 2003년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 〈나무〉, 2003년 예스24에 독자서평이 가장 많은 책 1위
- 〈나무〉, 2003년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1위
- 신간 29종 31권, 총 53종 56권 발행

다리 위의 룰루
폴 오스터 | 김경식 옮김
2003.12.30 | 304면 | B6 | 8,500원

타자기를 치켜세움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3.12.30 | 80면 | B6 | 7,500원

환상의 책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3.12.30 | 424면 | B6 | 9,500원

교수
샬롯 브론티 | 배미영 옮김
2003.11.30 | 400면 | B6 | 9,500원

Snowcat의 혼자 놀기(신판)
권윤주
2003.11.25 | 112면 | A5 변형 | 7,000원

지금은 자연과 대화할 때
서정록
2003.11.20 | 360면 | A5신 | 9,500원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피에르 그리말 | 최애리 외 옮김
2003.11.10 | 864면 | A5신 | 35,000원

에코 기호학 비판 열림의 이론을 향하여
박상진
2003.10.30 | 272면 | A5 변형 | 15,000원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오인환
2003.10.20 | 552면 | A5 변형 | 18,000원

한국의 서양 사상 수용사
이광래
2003.9.30 | 440면 | A5신 | 18,000원

정신분석학 개요(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박성수, 한승완 옮김
2003.9.30 | 560면 | B6 | 15,000원

예술, 문학, 정신분석(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정장진 옮김
2003.9.30 | 632면 | B6 | 15,000원

종교의 기원(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이윤기 옮김
2003.9.30 | 480면 | B6 | 15,000원

문명 속의 불만(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석희 옮김
2003.9.30 | 400면 | B6 | 15,000원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윤희기, 박찬부 옮김
2003.9.30 | 552면 | B6 | 15,000원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황보석 옮김
2003.9.30 | 352면 | B6 | 15,000원

늑대 인간(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명희 옮김
2003.9.30 | 432면 | B6 | 15,000원

꼬마 한스와 도라(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재혁, 권세훈 옮김
2003.9.30 | 368면 | B6 | 15,000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정일 옮김
2003.9.30 | 416면 | B6 | 15,000원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인주 옮김
2003.9.30 | 328면 | B6 | 15,000원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이한우 옮김
2003.9.30 | 416면 | B6 | 15,000원

꿈의 해석(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인순 옮김
2003.9.30 | 800면 | B6 | 15,000원

히스테리 연구(신판)
브로이어, 프로이트 | 김미리혜 옮김
2003.9.30 | 456면 | B6 | 15,000원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홍혜경 옮김
2003.9.30 | 296면 | B6 | 15,000원

정신분석 강의(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홍혜경 옮김
2003.9.30 | 680면 | B6 | 15,000원

권력(신판)
버트런드 러셀 | 안정효 옮김
2003.8.30 | 296면 | A5신 | 12,000원

천사들의 제국(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3.8.30 | 각 328, 336면 | B6 | 각 8,500원

시간의 옷
아멜리 노통브 | 함유선 옮김
2003.8.15 | 192면 | B6 | 7,500원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3.8.10 | 224면 | B6 | 7,500원

소설(신판)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2003.7.30 | 592면 | B6 | 13,000원

나무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3.6.30 | 304면 | A5신 | 8,800원

지구 끝의 사람들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3.5.30 | 164면 | B6 | 7,500원

무엇을 할 것인가(신판)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서정록 옮김
2003.5.20 | 712면 | B6 | 13,500원

아름다운 의사 삭스
마르탱 뱅클레르 | 윤정임 옮김
2003.5.15 | 640면 | B6 | 9,800원

꼬마 인형
가브리엘 뱅상
2003.4.20 | 80면 | B5 변형 | 7,500원

거대한 알
가브리엘 뱅상
2003.4.20 | 48면 | B5 변형 | 7,500원

떠돌이 개
가브리엘 뱅상
2003.4.20 | 72면 | B5 변형 | 7,500원

뉴욕 3부작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3.3.30 | 488면 | B6 | 9,500원

소립자
미셸 우엘벡 | 이세욱 옮김
2003.3.25 | 484면 | B6 | 9,500원

러시아 현대 희곡(전3권)
류드밀라 라주모프스까야 외 | 이주영, 홍대화 옮김
2003.3.25 | 각 232, 216, 208면 | A5신 | 각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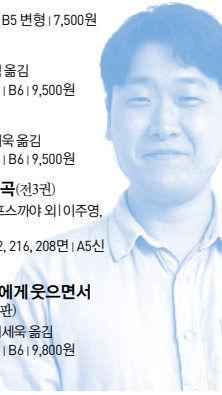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신판)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2003.3.25 | 408면 | B6 | 9,800원

독일 담시론
안진태
2003.3.10 | 376면 | A5신 | 16,000원

광고 캠페인 전략
도널드 패런티 외 | 조병량, 한상필 옮김
2003.3.10 | 472면 | A5신 | 20,000원

카트린 M의 전설
자크 앙리크 | 김병욱 옮김
2003.2.25 | 288면 | B6 | 9,500원

발레 소녀 카트린(신판)
파트리크 모디아노 | 이세욱 옮김
2003.2.25 | 112면 | B5 변형 | 7,500원



김창민

탈출! 만성 피로
윤상희
2003.2.20 | 256면 | A5신 | 10,000원

낯설게 하기의 즐거움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3.2.20 | 160면 | B6 | 7,500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맙시다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3.2.20 | 152면 | B6 | 7,500원

무엇을 믿을 것인가(신판)
움베르토 에코,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이세욱 옮김
2003.2.20 | 120면 | B6 | 7,500원

카트린 M의 성생활(신판)
카트린 밀레 | 이세욱 옮김
2003.2.20 | 336면 | B6 | 9,500원

이중간첩
구본한, 심혜원
2003.1.20 | 456면 | B6 | 9,500원

투쟁 영역의 확장
미셸 우엘벡 | 용경식 옮김
2003.1.15 | 200면 | B6 | 7,500원

문화로 읽는 한국 사회
김종호
2003.1.15 | 312면 | A5신 | 10,000원

2002

- 4월 〈도스또예프스끼 전집〉 보급판 전18권 발간
- 4월 열린책들 통의동 사옥 완공·입주
- 7월~10월 〈뇌〉 베스트셀러 1위
- 12월 출판인회의 선정 〈올해의 출판인상〉 수상
- 월간 북새통 집계 〈독자가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출판사 1위〉
- 신간 17종 19권, 총 36종 43권 발행

톡 쏘는 영어회화 150
도야마 켄 | 홍구희 옮김
2002.12.30 | 232면 | B6 | 6,000원

회화로 배우는 영어 숙어 600
바바라 게인즈 | 홍구희 옮김
2002.12.30 | 200면 | B6 | 6,000원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로저 젤라즈니 | 김상훈 옮김
2002.11.30 | 504면 | B6 | 9,500원

재외 한국인의 국적 문제
하병욱 | 홍구희 옮김
2002.11.30 | 254면 | A5 변형 | 15,000원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신판)
장자크 상페 | 최영선 옮김
2002.11.10 | 96면 | B5 변형 | 7,500원

그 겨울의 끝
이디스 워튼 | 김욱동 옮김
2002.10.30 | 208면 | B6 | 7,500원

그리고 죽음
짐 크레이스 | 김석희 옮김
2002.9.20 | 312면 | B6 | 8,500원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2002.9.15 | 392면 | A5 변형 | 18,000원

메트로폴리스
김원갑
2002.9.10 | 628면 | A5 변형 | 24,000원

도스또예프스끼 읽기 사전
조유선 편저
2002.8.20 | 776면 | B6 | 25,000원

여행의 책(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2.8.20 | 160면 | B6 | 7,500원

뇌(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2.7.10 | 각 304, 314면 | A5신 | 각 8,500원

폐허의 도시
폴 오스터 | 윤희기 옮김
2002.6.15 | 288면 | B6 | 12,800원

사랑의 파괴(신판)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2002.6.15 | 176면 | B6 | 7,500원

두려움과 떨림(신판)
아멜리 노통브 | 전미연 옮김
2002.6.15 | 152면 | B6 | 7,500원

바우돌리노(전2권)
움베르토 에코 | 이현경 옮김
2002.4.30 | 각 416, 424면 | B6 | 각 9,500원

머리 사냥과 문화 인류학
김용환
2002.4.25 | 296면 | A5 변형 | 12,000원

미성년(전2권, 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상룡 옮김
2002.4.20 | 각 512, 544면 | B6 | 각 8,500원

돈을 다루는 사람의 돈 이야기
이정식, 이정욱 공저
2002.4.10 | 248면 | A5 변형 | 8,000원

〈장미의 이름〉 창작 노트(신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2.3.25 | 128면 | B6 | 6,500원

백야 외(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이항재, 석영중 외 옮김
2002.3.15 | 576면 | B6 | 9,500원

아저씨의 꿈 외(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재만, 박종소 옮김
2002.3.15 | 528면 | B6 | 8,500원

지하로부터의 수기 외(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덕형, 계동준 옮김
2002.3.15 | 696면 | B6 | 9,500원

유령들의 탄생
마리 다리외세크 | 권명희 옮김
2002.2.25 | 176면 | B6 | 7,500원

플랑드르 거장의 그림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 정창 옮김
2002.2.25 | 512면 | B6 | 9,500원

안네 슈네펜의 한국 일기
안네 슈네펜 | 권혁준 옮김
2002.2.25 | 304면 | A5 변형 | 10,000원

영원한 남편 외(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정명자, 박현섭 옮김
2002.2.25 | 440면 | B6 | 8,500원

노름꾼, 악어 외(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심성보, 박혜경, 이재필 옮김
2002.2.15 | 536면 | B6 | 8,500원

상처받은 사람들(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윤우섭 옮김
2002.2.15 | 592면 | B6 | 9,500원

로시니(신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02.1.30 | 392면 | B6 | 8,500원

분신, 가난한 사람들(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옮김
2002.1.25 | 440면 | B6 | 8,500원

스쩨빤치꼬보 마을 사람들(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변현태 옮김
2002.1.25 | 416면 | B6 | 8,500원

백치(전2권, 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근식 옮김
2002.1.10 | 각 504, 520면 | B6 | 각 8,500원

악령(전2권, 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연경 옮김
2002.1.10 | 각 600면 | B6 | 각 9,500원

죄와 벌(전2권, 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2002.1.10 | 각 408, 504면 | B6 | 각 8,500원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전2권, 신판)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대우 옮김
2002.1.10 | 각 704, 736면 | B6 | 각 9,500원

2001

- 3월 루이스 세풀베다 작품 발간 시작
- 8월 이우일 등 국내 만화가의 작품 출간 시작
- 신간 29종 29권, 총 48종 54권 발행

Timeline

수와 신비주의
존 킹 | 김량국 옮김
2001.12.20 | 392면 | A5 변형 | 12,000원

카트린 M의 성생활
카트린 밀레 | 이세욱 옮김
2001.12.15 | 320면 | A5신 | 8,500원

잠의 제국
앙리 프레데릭 블랑 | 임희근 옮김
2001.12.10 | 296면 | B6 | 7,500원

전날의 섬(신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1.11.15 | 712면 | B6 | 13,000원

미사고의 숲
로버트 홀드스톡 | 김상훈 옮김
2001.9.30 | 416면 | B6 | 9,800원

개는 말할 것도 없고
코니 윌리스 | 최용준 옮김
2001.9.30 | 752면 | B6 | 13,000원

꽃피는 한반도
김동환
2001.9.10 | 200면 | B6 | 비매품

고려인이 사는 나라 까자흐스딴
권영훈
2001.8.30 | 288면 | A5신 | 10,000원

신화학 강의
안진태
2001.8.30 | 632면 | A5신 | 18,000원

프로이트와 현대 철학
알프레트 쇠프 | 김광명, 김정현, 홍기수 옮김
2001.8.25 | 272면 | A5신 | 12,000원

장난감 코끼리 몽크
이우일
2001.8.15 | 72면 | B5 | 8,500원

아버지들의 아버지(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1.8.15 | 각 288, 296면 | B6 | 각 8,500원

SNOWCAT의 혼자 놀기
권윤주
2001.8.15 | 112면 | B5 변형 | 5,800원

고독의 발명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1.7.15 | 312면 | B6 | 12,800원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폴 오스터 | 김경식 옮김
2001.7.15 | 392면 | B6 | 8,800원

뮤지컬 기획 제작 공연의 모든 것
스티븐 시트론 | 정재왈, 정명주 옮김
2001.7.15 | 464면 | B5 변형 | 18,000원

예술의 역사
폴 콕스 | 전미연 옮김
2001.6.20 | 176면 | A5신 | 9,800원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1.6.15 | 272면 | A5 변형 | 8,500원

최초의 인간(신판)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옮김
2001.5.30 | 432면 | B6 | 9,500원

주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01.5.20 | 256면 | B6 | 7,500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01.5.20 | 256면 | B6 | 7,500원

안녕하세요 성령님(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01.5.20 | 272면 | B6 | 7,500원

세상의 근원
크리스틴 오르방 | 함유선 옮김
2001.5.15 | 192면 | B6 | 7,500원

잠 안 오는 밤에 쓴 시(신판)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1.5.10 | 416면 | B6 | 9,500원

청동 기마상(신판)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1.5.10 | 448면 | B6 | 9,500원

예브게니 오네긴(신판)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1.5.10 | 324면 | B6 | 8,500원

보리스 고두노프(신판)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1.5.10 | 256면 | B6 | 8,500원

벨낀 이야기(신판)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1.5.10 | 288면 | B6 | 8,500원

대위의 딸(신판)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2001.5.10 | 256면 | B6 | 8,500원

거창한 꿈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2001.4.25 | 104면 | B4 변형 | 12,000원

어설픈 경쟁
장자크 상페 | 이건수 옮김
2001.4.25 | 104면 | B4 변형 | 12,000원

코앞의 영단어
고단샤 인터내셔날 | 장웅 옮김
2001.4.25 | 224면 | B6 | 5,800원

미국 여행 키워드
앤드류 호버트 | 홍구희 옮김
2001.4.25 | 240면 | B6 | 5,800원

안 돼! 이런 영어는
렌토 다카코 | 장웅 옮김
2001.4.25 | 176면 | B6 | 5,800원

여자를 안다는 것
아모스 오즈 | 최창모 옮김
2001.4.20 | 352면 | B6 | 8,500원

영화의 형식과 기호(개정판)
유리 로뜨만 외 | 오종우 옮김
2001.4.20 | 288면 | A5신 | 12,000원

닥터 지바고(전2권, 신판)
보리스 빠스쩨르나끄 | 박형규 옮김
2001.4.15 | 각 424, 528면 | B6 | 각 12,000원

사고 혁명
루디 러커 | 김량국 옮김
2001.3.20 | 448면 | A5 변형 | 12,000원

논문 잘 쓰는 방법(신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2001.3.15 | 320면 | B6 | 9,500원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1.3.15 | 192면 | B6 | 7,500원

감상적 킬러의 고백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1.3.15 | 192면 | B6 | 7,500원

귀향
루이스 세풀베다 | 정창 옮김
2001.3.15 | 224면 | B6 | 7,500원

암탉지(신판)
마리 다리외세크 | 정장진 옮김
2001.3.10 | 184면 | B6 | 7,500원

오후 네시(신판)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2001.3.10 | 200면 | B6 | 7,500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신판)
에바 헬러 | 김인순 옮김
2001.3.10 | 488면 | B6 | 8,500원

개미 4, 5(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1.2.15 | 각 472, 424면 | B6 | 각 8,500원

개미 1, 2, 3(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1.1.30 | 각 464, 368, 342면 | B6 | 각 8,500원

겨울 아이(신판)
엠마뉘엘 카레르 | 전미연 옮김
2001.1.20 | 192면 | B6 | 7,500원

콧수염
엠마뉘엘 카레르 | 전미연 옮김
2001.1.20 | 228면 | B6 | 7,500원

2000

- 6월 〈도스또예프스끼 전집〉 출간
- 신간 37종, 47권, 총 55종 69권 발행

축제 만들기
김승현
2000.12.30 | 192면 | A5신 | 12,000원

백년보다 긴 하루(신판)
친기즈 아이뜨마또프 | 황보석 옮김
2000.12.20 | 560면 | B6 | 12,000원

천사들의 제국(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0.12.10 | 각 296, 304면 | A5신 | 7,500원

내 안의 프로방스(신판)
피터 메일 | 황보석 옮김
2000.12.10 | 528면 | B6 | 9,500원

복수한 다음에 인생을 즐기자
에바 헬러 | 김인순 옮김
2000.11.1 | 424면 | B6 | 8,500원

밑줄 긋는 남자(신판)
카롤린 봉그랑 | 이세욱 옮김
2000.10.30 | 192면 | B6 | 7,500원

기호
움베르토 에코 | 김광현 옮김
2000.10.20 | 288면 | A5신 | 12,000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사랑을 원한다
소담
2000.10.10 | 240면 | A5신 | 7,500원

푸코의 진자(전3권, 신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0.9.25 | 각 416, 400, 416면 | B6 | 각 8,500원

타나토노트(전2권, 신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0.9.15 | 각 432, 416면 | B6 | 각 8,500원

키리냐가 유토피아의 우화(전2권)
마이크 레즈닉 | 최용준 옮김
2000.9.15 | 각 288, 260면 | B6 | 각 8,500원

스퀴즈 플레이
폴 오스터 | 김석희 옮김
2000.8.30 | 322면 | B6 | 12,800원

동행
폴 오스터 | 윤희기 옮김
2000.8.30 | 256면 | A5신 | 12,800원

빵 굽는 타자기
폴 오스터 | 김석희 옮김
2000.8.30 | 320면 | B6 | 12,800원

향수(신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2000.8.15 | 392면 | B6 | 8,5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외계인 백과사전
기욤 페이에 | 김주열 옮김
2000.7.25 | 208면 | A5신 | 8,500원

장미의 이름(전2권, 신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2000.7.10 | 각 480, 472면 | B6 | 8,500원

미메시스 번역서 가이드북 2000
2000.6.20 | 672면 | A5신 | 12,000원

분신 외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외 옮김
2000.6.15 | 552면 | B6 | 16,000원

삐쩨르부르그 연대기 외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항재 옮김
2000.6.15 | 312면 | B6 | 9,000원

백야 외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석영중 외 옮김
2000.6.15 | 432면 | B6 | 12,500원

네또츠까 네즈바노바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재만 옮김
2000.6.15 | 344면 | B6 | 10,000원

아저씨의 꿈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종소 옮김
2000.6.15 | 336면 | B6 | 10,000원

스페빤치꼬보 마을 사람들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변현태 옮김
2000.6.15 | 528면 | B6 | 15,000원

상처받은 사람들(전2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윤우섭 옮김
2000.6.15 | 각 328, 424면 | B6 | 각 10,000원

죽음의 집의 기록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덕형 옮김
2000.6.15 | 624면 | B6 | 18,000원

지하로부터의 수기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계동준 옮김
2000.6.15 | 296면 | B6 | 9,000원

악어 외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박혜경 옮김
2000.6.15 | 336면 | B6 | 10,000원

노름꾼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재필 옮김
2000.6.15 | 336면 | B6 | 10,000원

죄와 벌(전2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홍대화 옮김
2000.6.15 | 각 536, 632면 | B6 | 각 15,000원

백치(전2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근식 옮김
2000.6.15 | 각 664, 656면 | B6 | 각 19,000원

악령(전3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김연경 옮김
2000.6.15 | 각 412, 520, 592면 | B6
각 15,000원

영원한 남편 외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정명자 외 옮김
2000.6.15 | 576면 | B6 | 16,500원

미성년(전2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상룡 옮김
2000.6.15 | 각 648, 672면 | B6 | 각 20,000원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전3권)
표도르 도스또예프스끼 | 이대우 옮김
2000.6.15 | 각 632, 512, 656면 | B6
각 17,000원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 이윤기 옮김
2000.4.25 | 568면 | B6 | 9,800원

드라큘라(신판)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2000.4.15 | 688면 | B6 | 12,000원

사치와 평온과 쾌락
장자크 상페 | 이원희 옮김
2000.4.15 | 104면 | B5 변형 | 6,500원

기호인가 기만인가
김광현
2000.3.20 | 336면 | A5신 | 9,800원

우연의 음악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0.3.15 | 356면 | B6 | 8,500원

거대한 괴물(신판)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0.3.15 | 424면 | B6 | 12,800원

공중 곡예사(신판)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0.3.15 | 408면 | B6 | 8,500원

달의 궁전(신판)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2000.3.15 | 456면 | B6 | 12,800원

비둘기(신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2000.2.20 | 120면 | B6 변형 | 6,500원

콘트라베이스(신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2000.2.20 | 112면 | B6 변형 | 6,500원

깊이에의 강요(신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김인순 옮김
2000.2.20 | 104면 | B6 변형 | 6,500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신판)
니꼴라이 오스뜨로프스끼 | 김규종 옮김
2000.1.30 | 656면 | B6 | 12,000원

기적의 시대(신판)
보리슬라프 페키치 | 이윤기 옮김
2000.1.30 | 576면 | B6 | 12,000원

어머니(신판)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2000.1.30 | 672면 | B6 | 12,000원

나는 어떻게 할리우드에서 백 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푼도 잃지 않았는가
로저 코먼 | 김경식 옮김
2000.1.25 | 328면 | B5 변형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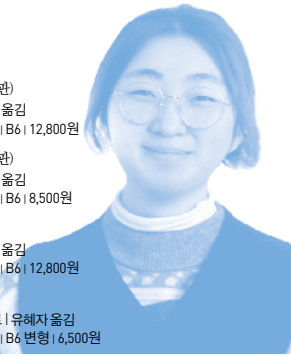
까트린 이야기(신판)
파트리크 모디아노 | 이세욱 옮김
2000.1.20 | 112면 | B6 변형 | 6,500원

소토의 안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다
필립 지앙 | 김철 옮김
2000.1.10 | 420면 | A5신 | 7,500원

만화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2000.1.10 | 56면 | A4 | 6,000원

우리 아빠
레제르 | 최영선 옮김
2000.1.10 | 64면 | A4 | 5,000원

두려움과 떨림
아멜리 노통브 | 전미연 옮김
2000.1.10 | 168면 | A5신 | 6,800원



황희영

1998 - 2000

1999

- 3월 〈뿌쉬낀 문학작품집〉 전6권 출간
- 〈개미〉 100쇄 돌파
- 5월 번역서 가이드북 〈미메시스〉 출간

Timeline

- 한국일보 한국백상출판문화상 (프로이트 전집)
- 신간 30종 32권, 총 32종 34권 발행

랑베르 씨의 신분 상승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1999.12.20 | 112면 | B5 변형 | 6,500원

5세 이전 아이의 성본능이 평생을 좌우한다
안나 프로이트 | 정인석 옮김
1999.12.20 | 144면 | A5신 | 6,500원

문화를 알면 영어가 쉽다
이영수
1999.12.20 | 240면 | A5신 | 6,800원

좀머 씨 이야기(신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1999.12.10 | 128면 | B6 변형 | 6,500원

대안은 열린 애국주의다
최병권
1999.11.20 | 248면 | A5신 | 8,000원

빨간 귀
레제르
1999.10.30 | 56면 | A4 | 5,000원

원시인(전2권)
레제르
1999.10.30 | 각 64, 72면 | A4 | 각 5,000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옮김
1999.10.10 | 448면 | A5신 | 9,500원

당뇨병 이렇게 다스린다
강석만
1999.9.20 | 340면 | A5신 | 10,000원

랑베르 씨
장자크 상페 | 윤정임 옮김
1999.9.10 | 112면 | B5 변형 | 6,500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신판)
아르까지, 보리스 스뚜르가츠끼
석영중 옮김
1999.9.10 | 230면 | A5신 | 6,800원

수단 항구
올리비에 롤랭 | 우종길 옮김
1999.8.20 | 168면 | A5신 | 5,800원

한국사학보(제6호)
고려사학회 편
1999.7.30 | 312면 | A5신 | 12,000원

아버지들의 아버지(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9.6.20. | 각 272면 | A5신 | 각 6,500원

스키 캠프에서 생긴 일
엠마뉘엘 카레르 | 전미연 옮김
1999.5.30 | 216면 | A5신 | 6,800원

제로 전투기
파스칼 로즈 | 김주열 옮김
1999.5.30 | 160면 | A5신 | 5,800원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자크 상페 | 김호영 옮김
1999.5.30 | 128면 | B5 변형 | 6,500원

미메시스 번역서 가이드북 1999
1999.5.15 | 568면 | A5 변형 | 9,500원

매일 다샤 언덕을 지나며
게오르기 쯔베또프 편 | 박현섭 외 옮김
1999.4.20 | 416면 | A5신 | 9,500원

반박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1999.4.20 | 224면 | A5신 | 6,800원

최후의 세계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 | 장희권 옮김
1999.3.30 | 352면 | A5신 | 7,800원

잠 안 오는 밤에 쓴 시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416면 | A5신 | 7,500원

청동 기마상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448면 | A5신 | 7,500원

예브게니 오네긴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328면 | A5신 | 6,500원

보리스 고두노프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256면 | A5신 | 6,500원

벨낀 이야기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296면 | A5신 | 6,500원

대위의 딸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248면 | A5신 | 6,500원

알렉산드르 뿌쉬낀 문학 작품집
알렉산드르 뿌쉬낀 | 석영중 옮김
1999.3.10 | 1800면 | A5신 | 39,000원

파우스트의 여성적 본질
안진태
1999.2.25 | 600면 | A5신 | 16,000원

저물녘 맹수들의 싸움
앙리 프레데릭 블랑 | 임희근 옮김
1999.1.20 | 176면 | A5신 | 5,800원

암퇘지
마리 다리외세크 | 정장진 옮김
1999.1.20 | 200면 | A5신 | 5,800원

사랑의 파괴
아멜리 노통브 | 김남주 옮김
1999.1.20 | 184면 | A5신 | 5,800원

1998

- 7월 〈속 깊은 이성 친구〉를 필두로 상페 작품 출간 시작
- 〈좀머 씨 이야기〉 정부 수립 후 최대 베스트셀러 50권 중 하나로 선정
- 신간 17종 21권, 총 21종 25권 발행

현대 아랍 문학 강의
문애희
1998.12.10 | 432면 | A5신 | 12,000원

개의 심장
미하일 불가꼬프 | 정연호 옮김
1998.12.10 | 296면 | A5신 | 7,500원

뉴욕 스케치
장자크 상페 | 정장진 옮김
1998.11.30 | 152면 | B5 변형 | 6,500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움베르토 에코,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이세욱 옮김
1998.11.30 | 136면 | A5신 | 5,800원

체질과 한방약(신판)
후지하라 겐 외 | 윤영석 옮김
1998.10.20 | 292면 | A5신 | 8,500원

손발 지압 백과(신판)
스테파니 릭 | 이일남 옮김
1998.10.20 | 238면 | A5신 | 8,500원

한국사학보(제5호)
고려사학회 편
1998.9.30 | 368면 | A5신 | 12,000원

라울 따뷔랭(신판)
장자크 상페| 최영선 옮김
1998.9.25 | 96면 | B5 | 5,000원

속 깊은 이성 친구(신판)
장자크 상페 | 이세욱 옮김
1998.9.20 | 88면 | B5 | 5,000원

라울 따뷔랭
장자크 상페 | 최영선 옮김
1998.7.25 | 96면 | A4 | 7,800원

속 깊은 이성 친구
장자크 상페 | 이세욱 옮김
1998.7.20 | 88면 | A4 | 7,800원

여행의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8.7.20 | 152면 | A5신 | 5,000원

소설의 숲으로 여섯 발자국
움베르토 에코 | 손유택 옮김
1998.6.20 | 272면 | A5신 | 9,800원

중세의 미와 예술
움베르토 에코 | 손효주 옮김
1998.6.20 | 280면 | A5신 | 9,800원

'아' 다르고 '어' 다른 영어
이영수
1998.6.10 | 400면 | A5신 | 8,500원

이집트 판관(전3권)
크리스티앙 자크 | 유정희 옮김
1998.4.30 | 각 496, 512, 464면 | A5신
각 7,800원

한국사학보(제3-4호)
고려사학회 편
1998.3.31 | 472면 | A5신 | 12,000원

김나연

러시아 희곡(전2권)
제니스 폰비진 외 | 조주관 외 옮김
1998.3.30 | 각 512, 400면 | A5신 | 각 10,000원

기호와 현대예술
움베르토 에코 | 김광현 옮김
1998.3.10 | 616면 | A5신 | 17,000원

도스또예프스끼 소설 연구
러시아사학연구회 편저
1998.2.20 | 360면 | A5신 | 9,500원

또 하나의 삶(전2권)
이렌 프랭 | 우종길 옮김
1998.1.10 | 각 352, 368면 | A5신 | 각 7,000원

1997

- 12월 〈프로이트 전집〉 전20권 완간
- 총 판매부수 누계 500만부 돌파(532만부)
- 신간 25종 29권, 총 26종 30권 발행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인주 옮김
1997.12.20 | 336면 | A5신 | 11,500원

무의식에 관하여
지크문트 프로이트 | 윤희기 옮김
1997.12.20 | 320면 | A5신 | 10,000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지크문트 프로이트 | 이한우 옮김
1997.12.10 | 432면 | A5신 | 11,500원

로시니 혹은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잔인한 문제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1997.11.10 | 360면 | A5신 | 6,800원

꼬마 한스와 도라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재혁, 권세훈 옮김
1997.10.30 | 376면 | A5신 | 10,500원

예술과 정신분석
지크문트 프로이트 | 정장진 옮김
1997.10.30 | 328면 | A5신 | 11,000원

옐찐과 21세기 러시아
정철훈
1997.10.20 | 416면 | A5신 | 12,000원

문 팰리스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1997.10.10 | 408면 | A5신 | 7,000원

꿈의 해석(전2권)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인순 옮김
1997.9.30 | 각 436, 440면 | A5신
각 12,500원

정신분석 강의(전2권)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홍혜경 옮김
1997.9.30 | 각 348, 376면 | A5신
각 10,500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신판)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정일 옮김
1997.9.20 | 424면 | A5신 | 12,500원

러시아 고대문학 선집(합본)
L. A. 드미뜨리예프 편 | 조주관 옮김
1997.9.10 | 582면 | A5신 | 13,000원

정신분석 운동
지크문트 프로이트 | 박성수 옮김
1997.9.10 | 328면 | A5신 | 10,000원

개미 혁명 3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7.6.20 | 320면 | A5신 | 6,500원

종교의 기원
지크문트 프로이트 | 이윤기 옮김
1997.6.10 | 488면 | A5신 | 13,500원

문화와 아방가르드
르네 웰렉, 조지 기비안 찰스마 편
문석우 옮김
1997.5.30 | 344면 | A5신 | 9,500원

개미 혁명 1, 2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7.5.30 | 각 312면 | A5신 | 각 6,500원

해석이란 무엇인가
움베르토 에코 외 스테판 콜리니 편
손유택 옮김
1997.5.30 | 216면 | A5신 | 7,500원

쾌락 원칙을 넘어서
지크문트 프로이트 | 박찬부 옮김
1997.5.30 | 296면 | A5신 | 10,0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마법의 백과사전
까트린 끄노 | 이재형 옮김
1997.4.20 | 280면 | A5신 | 7,500원

러시아 현대 소설 선집 1
니꼴라이 루브쪼프 외 | 최선 외 옮김
1997.4.10 | 456면 | A5신 | 9,500원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지크문트 프로이트 | 황보석 옮김
1997.4.10 | 368면 | A5신 | 10,500원

히스테리 연구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미리혜 옮김
1997.4.10 | 480면 | A5신 | 13,5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저승의 백과사전
마르크 볼린느 | 유정희 옮김
1997.3.10 | 288면 | A5신 | 7,500원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미하일 레르몬또프 | 임채희 옮김
1997.3.10 | 208면 | A5신 | 4,500원

나의 이력서
지크문트 프로이트 | 한승완 옮김
1997.2.20 | 288면 | A5신 | 9,500원

문명 속의 불만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석희 옮김
1997.2.20 | 416면 | A5신 | 12,500원

1996

- 10월 〈늑대 인간〉을 필두로 〈프로이트 전집〉 간행 시작
- 한국일보 한국출판문화상 출판상(인간과 상징)
- 한국문인협회 〈가장 문학적인 출판인상〉 수상
-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히트 상품〉(좀머 씨 이야기)
- 한국일보 선정 〈올해의 문화 상품〉(좀머 씨 이야기)
- 전체 베스트셀러 1위(좀머 씨 이야기)
- 비소설부문 베스트셀러 1위(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 신간 26종 27권 발행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유리 로뜨만 외 | 고대노어노문학회 옮김
1996.12.10 | 384면 | A5신 | 9,500원

전날의 섬(전2권)
움베르트 에코 | 이윤기 옮김
1996.12.1 | 각 360, 320면 | A5신 | 각 6,500원

자살하고픈 슬픔
안나 야흐마또바 | 조주관 옮김
1996.11.10 | 152면 | A5신 | 4,000원

오늘은 불쾌한 날이다
오시쁘 만젤쉬땀 | 조주관 옮김
1996.11.10 | 144면 | A5신 | 4,000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정일 옮김
1996.10.25 | 416면 | A5신 | 7,500원

늑대 인간
지크문트 프로이트 | 김명희 옮김
1996.10.15 | 408면 | A5신 | 8,500원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지크문트 프로이트 | 임홍빈, 홍혜경 옮김
1996.10.15 | 304면 | A5신 | 7,500원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지크문트 프로이트 | 정장진 옮김
1996.10.15 | 352면 | A5신 | 7,500원

베르테르의 영혼과 자연
안진태
1996.8.30 | 248면 | A5신 | 7,500원

소설 속의 독자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1996.8.30 | 396면 | A5신 | 8,500원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열린책들 편집부 편역
1996.8.20 | 364면 | A5신 | 7,500원

우리들
예브게니 자먀찐 | 석영중 옮김
1996.7.30 | 304면 | A5신 | 6,500원

까트린 이야기
파트리크 모디아노 | 이세욱 옮김
1996.7.20 | 112면 | A5신 | 4,500원

리바이어던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1996.7.20 | 348면 | A5신 | 6,500원

인간과 상징
칼 융 외 | 이윤기 옮김
1996.7.15 | 332면 | A4 | 24,000원

기, 흐르는 신체
이시다 히데미 | 이동철 옮김
1996.6.28 | 304면 | A5신 | 7,500원

태열 아토피, 고칠 수 있대요
윤영석
1996.6.10 | 252면 | A5신 | 6,500원

사랑의 기교
오비디우스 | 김영락 옮김
1996.5.25 | 192면 | A5신 | 5,000원

깊이에의 강요
파트리크 쥐스킨트 | 김인순 옮김
1996.5.20 | 100면 | A5신 | 4,000원

37.2도 아침
필립 지앙 | 우종길 옮김
1996.4.30 | 450면 | A5신 | 7,800원

클래식의 쾌락
열린책들 편집부 편역
1996.4.20 | 364면 | A5신 | 7,500원

백위군
미하일 불가꼬프 | 유승만 옮김
1996.3.30 | 400면 | A5신 | 7,000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오강남
1996.2.29 | 260면 | A5신 | 6,500원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
오강남
1996.2.29 | 288면 | A5신 | 6,500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6.1.30 | 232면 | A5신 | 6,500원

클래식의 거장들
열린책들 편집부 편역
1996.1.30 | 380면 | A5신 | 7,500원

1995

- 12월 〈미스터 버티고〉를 필두로 폴 오스터 소설 간행 시작
- 책모임 선정 〈가장 잘 기획된 책 9〉(개미)
- 〈올해의 자랑스런 출판경영인상〉 수상
- 신간 19종 25권, 총 22종 35권 발행

증상으로 아는 돋보기 건강학
이기수
1995.12.20 | 448면 | A5신 | 8,500원

미스터 버티고
폴 오스터 | 황보석 옮김
1995.12.15 | 376면 | A5신 | 6,500원

한국 영화 씻김
삼성영상사업단 편
1995.11.25 | 296면 | A5신 | 9,000원

19세기 러시아 소설의 이해
한국 슬라브학회 편
1995.11.15 | 328면 | A5신 | 8,000원

괴테 문학의 여성미
안진태
1995.11.5 | 656면 | A5신 | 12,000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전2권)
르네 벨레토 | 우종길 옮김
1995.10.5 | 각 264, 224면 | A5신 | 각 4,500원

러시아 고대문학선집(전2권)
조주관 편역
1995.9.25 | 각 320, 272면 | A5신 | 각 7,000원

영화 형식과 기호
유리 로뜨만 외 | 오종우 옮김
1995.9.15 | 260면 | A5신 | 6,000원

두 개의 소설 혹은 두 개의 거짓말
정장진
1995.9.5 | 368면 | A5신 | 6,500원

호텔 파스티스(전2권)
피터 메일 | 황보석 옮김
1995.8.15 | 각 296, 260면 | B6 | 각 5,800원

푸코의 진자(전3권, 개역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1995.7.15 | 각 368, 360, 376면 | A5신 각 6,000원

해석의 한계
움베르토 에코 | 김광현 옮김
1995.6.10 | 472면 | A5신 | 10,000원

기계(전2권)
르네 벨레토 | 우종길 옮김
1995.5.25 | 각 288, 272면 | A5신 | 각 5,800원

향수(개역판)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1995.5.15 | 336면 | A5신 | 5,800원

연어와 여행하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 원재길 옮김
1995.4.25 | 272면 | A5신 | 5,500원

공자 사상의 계승
공자학회 편
1995.4.15 | 432면 | A5신 | 9,500원

수용소군도(전6권, 신판)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옮김
1995.4.15 | 각 360면 내외 | A5신 | 각 6,000원

우리 참새들
요르단 디미트로프 라디치코프 | 최권진 옮김
1995.3.25 | 184면 | A5신 | 4,500원

강변(전2권)
유리 본다레프 | 전성희 옮김
1995.3.15 | 각 368, 336면 | A5신 | 각 6,500원

하얀 옷(전2권)
블라지미르 두진체프 | 백용식 옮김
1995.2.15 | 각 512, 368면 | A5신 | 각 6,500원

최초의 인간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옮김
1995.1.15 | 400면 | A5신 | 6,500원

아이들의 입에서
카롤린 봉그랑 | 우종길 옮김
1995.1.10 | 160면 | A5신 | 3,800원

1994

- 11월 열린책들 초청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방한
- 월간 『책』 선정 〈출판기자가 뽑은 올해의 좋은 책 베스트 5〉(〈하늘의 문〉)
- 월간 『책』 선정 〈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 12선〉(〈개미〉)
- 신간 17종 20권, 총 18종 21권 발행

길벗들의 대화
오강남
1994.12.15 | 308면 | A5신 | 5,500원

나를 살리신 하나님
케네스 혜긴 | 정충영 옮김
1994.12.15 | 176면 | A5신 | 3,800원

코스미코미케
이탈로 칼비노 | 김운찬 옮김
1994.12.10 | 384면 | A5신 | 6,000원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한국 슬라브학회 편
1994.11.15 | 452면 | A5신 | 9,500원

대중의 슈퍼맨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1994.10.25 | 264면 | A5신 | 6,000원

시의 이해와 분석
유리 로뜨만 외 | 조주관 옮김
1994.10.20 | 436면 | A5신 | 9,500원

타나토노트(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4.9.20 | 각 384, 376면 | A5신 | 각 5,500원

하늘의 문(전3권)
이윤기
1994.8.15 | 각 368, 368, 464면 | A5신 각 5,500원

10일간의 성지순례
안준호
1994.6.30 | 192면 | A5신 | 3,500원

한방으로 고치는 갑상선질환(개정판)
윤종흠, 윤영석
1994.6.20 | 272면 | A5신 | 8,500원

한방 외용약
신광호
1994.6.10 | 448면 | A5신 | 12,000원

오줌싸개의 한방치료
이진용
1994.5.10 | 288면 | A5신 | 5,800원

비둘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1994.5.10 | 104면 | A5신 | 3,000원

밑줄 긋는 남자
카롤린 봉그랑 | 이세욱 옮김
1994.4.25 | 160면 | A5신 | 3,800원

논문 작성법 강의
움베르토 에코 | 김운찬 옮김
1994.3.31 | 312면 | A5신 | 6,500원

한방 성의학
최현
1994.3.31 | 408면 | A5신 | 8,500원

한국의 영화감독 13인
이효인
1994.2.15 | 424면 | A5신 | 8,500원

단순한 믿음
찰스 R. 스윈돌 | 김경선 옮김
1994.2.1 | 296면 | A5신 | 4,800원

1993

- 6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출간, 베스트셀러 1위가 됨
- 9월 〈마야꼬프스끼 선집〉 출간
- 신간 18종 22권, 총 22종 28권 발행

거리에서
니꼴라이 네끄라소프 | 임채희 옮김
1993.11.25 | 168면 | A5신 | 3,000원

오,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신판)
알렉산드르 블로끄 | 임채희 옮김
1993.11.25 | 144면 | A5신 | 3,000원

닥터 지바고(전2권, 개역판)
보리스 빠스쩨르나끄 | 박형규 옮김
1993.11.15 | 각 360, 464면 | A5신
각 5,500원

신비의 두충요법(신판)
안덕균
1993.11.10 | 104면 | A5신 | 5,000원

하나님께 수표를 청구하셨나요
로버츠 리어돈 | 안준호 옮김
1993.10.15 | 174면 | A5신 | 3,500원

주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1993.10.15 | 208면 | A5신 | 3,800원

미스 쩨리야 부프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김규종 옮김
1993.9.15 | 448면 | A5신 | 8,000원

좋아!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석영중 옮김
1993.9.15 | 408면 | A5신 | 6,000원

나는 사랑한다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석영중 옮김
1993.9.15 | 408면 | A5신 | 6,000원

다시 쓰는 소련 현대사
드미트렌코 외 | 이인호 외 옮김
1993.9.10 | 344면 | A5신 | 7,500원

개미 3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3.7.20 | 328면 | A5신 | 5,000원

개미 2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3.7.10 | 336면 | A5신 | 5,000원

개미 1
베르나르 베르베르 | 이세욱 옮김
1993.6.25 | 400면 | A5신 | 5,500원

신동의보감
안덕균
1993.5.25 | 461면 | A5신 | 13,000원

이문열 중단편집(전2권, 신판)
이문열
1993.5.25 | 각 408, 392면 | A5신 | 각 5,500원

기적의 시간(전2권)
보리슬라프 페키치 | 이윤기 옮김
1993.5.15 | 각 272, 296면 | A5신 | 각 4,500원

신실학의 탐구
윤사순 외
1993.5.15 | 280면 | A5신 | 6,000원

다른 남자를 꿈꾸는 여자(신판)
에바 헬러 | 김인순 옮김
1993.4.20 | 418면 | A5신 | 5,000원

러시아 해학별곡
알렉산드르 아파나셰프 | 서정범 편역
1993.4.15 | 338면 | A5신 | 5,000원

소설(전2권, 신판)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1993.4.10 | 각 270, 368면 | A5신 | 각 4,500원

러시아 시강의
조주관 편저
1993.3.25 | 680면 | A5신 | 9,500원

콘트라베이스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1993.3.10 | 110면 | A5신 | 2,800원

정통 사주 신해
후지 다쯔히꼬 | 김효순 옮김
1993.2.10 | 456면 | A5신 | 9,000원

축농증·비염이 골치라고요?
윤영석
1993.1.15 | 320면 | A5신 | 6,000원

1992

- 11월 쥐스킨트의 〈좀머 씨 이야기〉 출간
- 교보문고 제3회 북디자인상 장려상 〈알기쉬운 침구학〉
- 신간 14종 17권, 총 17종 21권 발행

〈장미의 이름〉 창작 노트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1992.12.25 | 112면 | A5신 | 5,500원

사랑은 선택
미너스 마이어 | 양은순 옮김
1992.12.15 | 344면 | A5신 | 4,500원

좀머 씨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 유혜자 옮김
1992.11.25 | 128면 | A5신 | 5,000원

신천년왕국 어떻게 올 것인가
팻 로버트슨 | 박상천 옮김
1992.10.15 | 376면 | A5신 | 4,800원

면역과 한방
낙화생 | 안덕균 편역
1992.9.20 | 312면 | A5신 | 8,500원

드라큘라(전2권)
브램 스토커 | 이세욱 옮김
1992.7.25 | 각 328면 | A5신 | 각 4,500원

장미의 이름(전2권, 개역판)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1992.6.25 | 각 408, 392면 | A5신 | 각 7,000원

발바닥 박사의 발바닥 이야기
조슈 고쿠시인 | 한상덕 옮김
1992.6.15 | 184면 | A5신 | 4,000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1992.5.25 | 256면 | A5신 | 3,800원

러시아·소련·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한종만 외 옮김
1992.4.25 | 624면 | A5신 | 12,000원

온 나라가 시끌시끌(전3권)
야누슈 꼬르차끄 | 강경자 옮김
1992.4.20 | 각 192면 내외 | A5신 | 각 3,000원

엄마손 약손(증보판)
최현
1992.4.20 | 272면 | A5신 | 5,500원

엄마손 약손(초판)
최현
1992.4.15 | 268면 | A5신 | 4,500원

영화학 어떻게 할 것인가
오몽 외 | 강한섭 옮김
1992.3.25 | 392면 | A5신 | 6,500원

목마른 계절(신판)
박완서
1992.2.15 | 366면 | A5신 | 4,500원

Timeline

소설
제임스 미치너 | 윤희기 옮김
1992.2.15 | 576면 | A5신 | 6,800원

도교와 불로 장수 의학
요시모토 쇼오지 | 도광순 옮김
1992.1.25 | 462면 | A5신 | 8,500원

1991

- 12월 〈향수〉를 필두로 쥐스킨트 작품 출간 시작
- 신간 17종 17권, 총 19종 20권 발행

향수
파트리크 쥐스킨트 | 강명순 옮김
1991.12.25 | 336면 | A5신 | 4,500원

안녕하세요 성령님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1991.12.15 | 264면 | A5신 | 3,800원

굿나잇
안드레이 시냐프스끼 | 황보석 옮김
1991.11.30 | 464면 | A5신 | 5,500원

손발 지압 백과
스테파니 릭 | 이일남 옮김
1991.10.20 | 238면 | A5신 | 4,000원

스트레스병과 화병의 한방 치료
조홍건
1991.10.10 | 534면 | A5신 | 8,500원

이탈리아 이야기
막심 고리끼 | 신윤곤 옮김
1991.8.20 | 384면 | A5신 | 4,500원

누구의 죄인가
알렉산드르 게르쩬 | 박현섭 옮김
1991.8.10 | 336면 | A5신 | 4,500원

아르바뜨의 아이들(전2권, 신판)
아나똘리 리바꼬프 | 홍지웅, 이갑수 옮김
1991.7.20 | 각 440, 416면 | A5신 | 각 5,000원

남회귀선
헨리 밀러 | 정성환 옮김
1991.7.15 | 392면 | A5신 | 4,800원

그 후의 세월
아나똘리 리바꼬프 | 이대우 옮김
1991.6.30 | 448면 | A5신 | 5,000원

고백
막심 고리끼 | 신윤곤 옮김
1991.5.20 | 304면 | A5신 | 4,000원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샤탈린 외 | 한종만 옮김
1991.4.30 | 446면 | A5신 | 7,500원

외길보기 두길보기
이윤기
1991.4.15 | 216면 | A5신 | 3,500원

알기 쉬운 침구학
북한의학 출판사 | 김영진 감수
1991.3.25 | 560면 | A5신 | 9,500원

폭탄과 장군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1991.3.1 | 64면 | A5신 | 3,000원

무엇을 할 것인가(신판)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서정록 옮김
1991.2.25 | 612면 | A5신 | 6,000원

나에게 맞는 한방약
후지하라 겐 외 | 윤영석 옮김
1991.2.20 | 292면 | A5신 | 4,500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에바 헬러 | 김인순 옮김
1991.1.20 | 418면 | A5신 | 4,200원

밥의 경제학 사람의 경제학
오정근
1991.1.10 | 322면 | A5신 | 4,000원

1990

- 1월 안덕균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를 필두로 건강 의약 신서 출간 시작
- 5월 체르니셰프스끼의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 출간. 〈쉬또젤라찌 총서〉 출간 시작
- 교보문고 제2회 북디자인상 장려상 〈한국의 보약〉
- 신간 12종 15권, 총 14종 17권 발행

안개 내리는 강(전2권)
정소성
1990.12.20 | 각 440, 404면 | A5신 | 각 4,000원

이미지의 모험: 에이젠쉬제인
세르게이 에이젠쉬제인 | 전양준 옮김
1990.12.5 | 400면 | A5신 | 8,500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니꼴라이 오스뜨로프스끼 | 김규종 옮김
1990.10.25 | 534면 | A5신 | 8,000원

어머니(2판)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1990.10.15 | 528면 | A5신 | 9,000원

갑상선 질환 이렇게 고친다
윤종흠, 윤영석
1990.10.10 | 216면 | A5신 | 3,500원

푸코의 추(전2권)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1990.7.20 | 각 424, 416면 | A5신 | 각 5,000원

의심스러운 싸움
존 스타인벡 | 윤희기 옮김
1990.6.25 | 352면 | A5신 | 4,000원

현대인의 두충 건강법
안덕균
1990.6.15 | 144면 | A5신 | 2,500원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신윤곤 옮김
1990.5.20 | 160면 | A5신 | 2,800원

소련의 이해(신판)
하까마다 시게끼 | 정성환 옮김
1990.5.20 | 184면 | A5신 | 2,800원

백년보다 긴 하루
친기즈 아이뜨마또프 | 황보석 옮김
1990.4.15 | 434면 | A5신 | 6,500원

한국의 보약
최태섭 | 안덕균 해설
1990.3.1 | 538면 | A5신 | 15,000원

닥터 지바고(전2권)
보리스 빠스쩨르나끄 | 박형규 옮김
1990.2.25 | 각 388, 324면 | A5신 | 각 3,800원

건강하게 삽시다
안덕균
1990.1.15 | 344면 | A5신 | 4,200원

1989

- 8월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출간
- 교보문고 제1회 북디자인상 장려상 〈소설의 발생〉
- 신간 12종 14권, 총 14종 16권 발행

끌림 쌈긴의 생애(전2권)
막심 고리끼 | 황보석 옮김
1989.12.15 | 각 356, 360면 | A5신 | 각 4,000원

이 세상에 옛애인은 없어요
안드레이 보즈네센스끼 | 조주관 옮김
1989.11.15 | 180면 | A5 변형 | 2,500원

나는 위조지폐라도 찍어 낼 테다
예브게니 예프뚜센꼬 | 윤희기 옮김
1989.11.15 | 180면 | A5 변형 | 2,500원

소비에뜨 문학이론
게르만 예르몰라예프 | 김민인 옮김
1989.9.10 | 312면 | A5신 | 4,500원

어머니
막심 고리끼 | 최윤락 옮김
1989.8.15 | 466면 | A5신 | 4,200원

성숙해지는 여름
도도 시즈꼬 | 박철우 옮김
1989.8.10 | 202면 | B6 | 3,200원

오,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
알렉산드르 블로끄 | 임채희 옮김
1989.7.10 | 148면 | A5 변형 | 2,000원

나의 누이 나의 삶
보리스 빠스쩨르나끄 | 박형규 옮김
1989.6.20 | 182면 | A5 변형 | 2,500원

러시아 리얼리즘론
게오르기 프리들렌제르 | 이항재 옮김
1989.4.10 | 332면 | A5신 | 4,500원

소련현대문학사
마르크 슬로님 | 임정석, 백용식 옮김
1989.4.10 | 456면 | A5신 | 6,500원

모나히
이오시프 깔리니꼬프 | 이갑수 옮김
1989.4.5 | 414면 | A5신 | 3,800원

낯설은 얼굴들처럼
최욱경
1989.3.10 | 148면 | A5 변형 | 2,500원

무엇을 할 것인가(전2권)
니꼴라이 체르니셰프스끼 | 서정록 옮김
1989.2.20 | 각 320, 336면 | A5신 | 각 3,500원

내가 아는 한 노동자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스끼 | 이득재 옮김
1989.2.20 | 130면 | A5 변형 | 2,000원

1988

- 7월 〈아르바뜨의 아이들〉 출간, 7월, 8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국내 최초로 소련과 저작권 계약 체결
- 신간 12종 19권 발행

우리 동네 아이들
나지브 마흐푸즈 | 문애희 옮김
1988.12.15 | 468면 | A5신 | 3,800원

귀두산에는 낙타가 산다
이문열
1988.12.10 | 348면 | A5신 | 3,800원

소련 오해받고 있다
하까마다 시게끼 | 정성환 옮김
1988.11.10 | 312면 | A5신 | 3,500원

광고 기호론
쥬디스 윌리엄스 | 조병량 옮김
1988.10.20 | 280면 | A5신 | 5,500원

소설의 발생
이언 와트 | 전철민 옮김
1988.9.10 | 400면 | A5신 | 5,500원

아르바뜨의 아이들(전3권)
아나똘리 리바꼬프 | 홍지웅, 이갑수 옮김
1988.7.20 | 각 316, 224, 288면 | A5신 각 3,500원

종말 전 10억 년
아르까지, 보리스 스뜨루가츠끼 | 석영중 옮김
1988.5.20 | 220면 | A5신 | 2,800원

백정
정동주
1988.5.20 | 316면 | A5신 | 3,500원

수용소군도 6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외 옮김
1988.4.20 | 372면 | A5신 | 3,500원

수용소군도 5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외 옮김
1988.4.10 | 360면 | A5신 | 3,500원

수용소군도 4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외 옮김
1988.3.25 | 368면 | A5신 | 3,500원

수용소군도 3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외 옮김
1988.3.10 | 360면 | A5신 | 3,500원

바흐찐의 소설미학
미하일 바흐찐 | 이득재 옮김
1988.2.20 | 312면 | A5신 | 3,800원

수용소군도 2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외 옮김
1988.2.20 | 352면 | A5신 | 3,500원

수용소군도 1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김학수 외 옮김
1988.2.1 | 348면 | A5신 | 3,500원

러시아 모더니즘
조지 기비안, 윌리엄 찰스마 편 | 문석우 옮김
1988.1.20 | 224면 | A5신 | 3,000원

권력
버트런드 러셀 | 안정효 옮김
1988.1.10 | 276면 | A5신 | 3,200원

1987

- 신간 11종 20권 발행

나의 별과 램프
오탁번, 김은자 엮음
1987.12.25 | 204면 | A5신 | 2,500원

새하곡
이문열
1987.12.25 | 384면 | A5신 | 3,600원

목마른 계절
박완서
1987.11.15 | 308면 | A5신 | 3,200원

소리없는 노래
요시프 브로드스끼 | 박형규 옮김
1987.11.5 | 144면 | A5 변형 | 2,000원

비평과 이데올로기
테리 이글튼 | 윤희기 옮김
1987.9.25 | 280면 | A5신 | 3,200원

열린 사회
윤석진 외
1987.8.25 | 448면 | A5신 | 3,800원

효과적인 광고관리
러셀 콜리 | 조한웅, 윤선길 옮김
1987.7.15 | 190면 | A5신 | 3,000원

솔제니찐 전집 1~7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고려대학교 러시아문화연구소 편
1987.5.25 | 각 292, 336, 320, 296, 308, 320, 308면 | A5신 | 각 5,700원

붉은 수레바퀴 7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7.5.25 | 308면 | A5신 | 3,000원

붉은 수레바퀴 6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7.5.20 | 320면 | A5신 | 3,000원

붉은 수레바퀴 5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7.4.25 | 308면 | A5신 | 3,000원

붉은 수레바퀴 4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7.4.10 | 296면 | A5신 | 3,000원

도스또예프스끼 연구
르네 웰렉 | 고대노어노문학회 옮김
1987.3.25 | 312면 | A5신 | 3,800원

아버지 코리아
郭早苗 | 김기실 옮김
1987.2.25 | 280면 | A5신 | 3,000원

1986

- 1월 7일 창립
- 2월 솔제니찐의 〈붉은 수레바퀴〉를 필두로 러시아 문학 시리즈 출간 시작
- 5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필두로 에코 라이브러리 출간 시작
- 신간 10종 12권 발행

도스또예프스끼와 연인들
나까무라 겐노스께 | 김기실 옮김
1986.12.20 | 224면 | A5신 | 2,800원

마케팅 전쟁
앨 리스 외 | 코래드광고전략연구소 옮김
1986.11.25 | 238면 | A5신 | 3,000원

여성 백만장자들
뽈 루 쉴리쩨르 | 권향미 옮김
1986.11.20 | 224면 | A5신 | 2,500원

성의 재발견
알렉스 콤포트 | 김종규 옮김
1986.10.15 | 200면 | A5신 | 3,800원

고독한 아빠 자랑스런 아버지
빌 코스비 | 정성호 옮김
1986.7.15 | 200면 | A5신 | 2,500원

철학자의 사생활
金森誠也 | 김하림 옮김
1986.7.12 | 240면 | A5신 | 2,800원

리얼리즘의 시학
게오르기 프리들렌제르 | 이항재 옮김
1986.7.10 | 332면 | A5신 | 3,800원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 이윤기 옮김
1986.5.20 | 568면 | A5신 | 4,500원

붉은 수레바퀴 3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6.5.10 | 320면 | A5신 | 3,000원

붉은 수레바퀴 2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6.3.30 | 328면 | A5신 | 3,000원

소련의 작가와 사회
마르크 슬로님 | 임정석, 백용식 옮김
1986.3.15 | 444면 | A5신 | 5,000원

붉은 수레바퀴 1
알렉산드르 솔제니찐 | 정장진 옮김
1986.2.15 | 288면 | A5신 | 3,000원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 페르난두 게하

열린책들/미메시스 직거래 서점

교보문고(41지점, 대학구내)
대표전화 1544-1900

가든파이브 바로드림센터
강남점
경성대 · 부경대 센터
건대스타시티 바로드림센터
광교 월드스퀘어센터
광교점
광주 상무센터
광화문점
대구점
대전점
동대문 바로드림센터
디큐브시티 바로드림센터
목동점
부산점
부천점
분당점
세종 바로드림센터
센텀시티점
송도 바로드림센터
수유 바로드림센터
신논현점
영등포점
울산점
은평 바로드림센터
인천점
일산점
잠실점
전주 바로드림센터
창원점
천안점
천호점
청량리 바로드림센터
칠곡 센터
판교점
평촌점
합정점
해운대센터
서울대 교내서점
이화여대 교내서점
전북대 교내서점
포항공대 교내서점

영풍문고(44지점)
대표전화 1544-9020

가산 마리오점
02-2067-3820
강남 포스코점
02-3452-3112
강남역점
02-569-9070
경산 이마트점
053-815-0451
광복 롯데점
051-678-4100
광주 터미널점
062-364-0210
구리롯데아울렛점
031-8034-2172
구미 롯데마트점
054-462-9050
군산 롯데아울렛점
063-447-0372
김포공항 롯데점
02-6116-5543
대구역 롯데점
053-242-2277
대전 터미널점
042-623-4914
동탄 롯데점
031-8036-3525
마산 롯데점
055-240-5690
목포 터미널점
061-273-9555
미아 롯데점
02-944-2651
부산 남포점
051-255-9744
부산대점
051-590-8300
부산 하단점
051-999-7122
분당 서현점
031-8017-9162
사당역점
02-3487-6213
세종점
044-867-0358
센텀시티점
051-745-1250
수원 NC점
031-267-5555
스타필드 고양점
031-5173-3065
스타필드 안성점
031-8092-1610
스타필드 코엑스점
02-6002-2718
스타필드 하남점
031-8072-8450
스타필드 위례점
031-8097-1291
신림 타임스트림점
02-889-9675
여의도 IFC몰점
02-6137-5255
왕십리역점
02-2200-1600
용산아이파크몰점
02-2012-0828
유성점
042-384-4400
의정부 신세계점
031-8082-0743
인천 스퀘어원점
032-456-4021

인천 터미널점
032-422-5900
전주 터미널점
063-252-9161
종각 종로본점
02-1522-2776
죽전 이마트점
031-898-1293
천안 불당점
041-566-9009
청주점
043-716-0002
포항 남구점
054-274-5670
홍대점
02-2250-7733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1544-1900
알라딘
1544-2514
예스24
1544-3800

도매 서점

㈜북센
031-955-6735
㈜북플러스
070-4726-2900
한국출판협동조합
02-716-5616

소매 서점

경인문고
032-624-6687
노원문고
02-951-0633
대동서점 본점
031-406-6666
대동서점 중앙점
031-485-7770
한양문고 주엽점
031-919-9511
한양문고 화정점
031-978-7330
홍익문고
02-392-2020

지방 서점

계룡문고(대전)
042-222-4600
남포문고(부산)
051-245-8911
대신서적(창원)
055-256-6031
문학사(충주)
043-856-3000
세원출판유통(대구)
053-422-5441
영광도서(부산)
051-816-9500
원주북새통문구서점(원주)
033-764-6760
중부서적판매(대전)
042-224-7755
(주)춘천광장서적(춘천)
033-252-6585
학문당(창원)
055-246-2925
(주)한성서적(부산)
051-312-8383
학원사(포항)
054-284-8250
한일서적(대구)
053-423-0781
중앙서점(순천)
061-723-8000
말글터(강릉)
033-641-3000
대한서림(인천)
032-762-6337

열린책들/미메시스 제작처

종이
두성종이 이해원 대표
02-3470-0001
원방드라이보드 조재우 대표
031-955-3800
월드페이퍼 최재웅 대표
031-906-8711
진영지업 김동국 대표
02-468-0671
한솔피엔에스 강준석 대표
02-772-5100

인쇄
상지사피앤비 김종하 대표
031-955-3636
영림인쇄 이홍일 대표
031-955-3900
영신사 홍사희 대표
031-580-3700
한승문화사 임한준 대표
031-904-5155

제본
경일제책사 이선재 대표
031-945-8238
상지사피앤비 김종하 대표
031-955-3636
영신사 홍사희 대표
031-580-3700

라미네이팅
북웨어 강희제 대표
031-955-0400

박
이레 박경우 대표
031-903-2366

래핑
희망 김희종 대표
031-955-2222

박스 제작
나성지기 정만수 대표
031-944-6971

Facebook facebook.com/openbooks.kr

Twitter @openbooks21

Instagram @openbooks21
@openbooks_mimesis

Naver post.naver.com/openbooks21
blog.naver.com/openbooks21

Youtube youtube.com/user/TheOpenbooks21

열린책들/미메시스를 만든 사람들

강무성, 강유진, 강희진, 고영래, 곽고운, 곽윤경, 권순나, 권향미, 그레고리 림펜스, 길혜숙, 김갑식, 김난주, 김뉘연, 김다미, 김대연, 김도헌, 김동준, 김미금, 김미정, 김민기, 김민정, 김민해, 김상석, 김석중, 김선호, 김소원, 김수연, 김영수, 김영준, 김영희, 김유진, 김은경, 김은미, 김은주, 김정현, 김주성, 김준영, 김태권, 김태균, 김현우, 김형진, 김호주, 남수빈, 노승현, 노영근, 노희호, 문정자, 박경숙, 박문혁, 박성열, 박소영, 박송이, 박수진, 박윤규, 박종욱, 박주현, 박지혜, 박현정, 배차선, 배현숙, 백소연, 서대진, 서향남, 석윤이, 손무원, 신기영, 신재익, 안성열, 엄혜연, 오주리, 우선영, 원준형, 유미애, 유병수, 윤세미, 윤한구, 윤희기, 이갑수, 이경아, 이민경, 이소영, 이소현, 이승욱, 이승환, 이양선, 이영아, 이영일, 이정수, 이정원, 이주애, 이주현, 이혜인, 이혜정, 임선영, 임영록, 장미경, 장수영, 정수경, 정승원, 정은경, 정은미, 조동신, 조영아, 조예슬, 조중언, 주영화, 주영훈, 주지현, 진봉철, 채영진, 최기준, 최미영, 최보리, 최순영, 최영진, 최지영, 최혜진, 최화명, 한상출, 한수정, 한은혜, 한장수, 한정덕, 허 단, 허현숙, 현승헌, 홍상희, 홍승범, 홍영완, 홍혁진

열린책들/미메시스/사람의집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홍지웅, 홍예빈, 홍유진 / 이명진, 김영정, 권오운, 박정윤 /
권은경, 이람, 김정우, 김이재, / 오연경, 조은화, 윤미희 /
최은미 / 최연욱, 김효근, 전효선, 조범호 / 김하늬 / 김행선, 김지연 /
함지은, 박봉식, 김창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김규훈, 홍현영, 황희영, 김나연, 이석준/
정희라, 최연, 이소영, 김승중, 최승준

열린책들에서 만든 책들

발행인 홍예빈 · 홍유진 **발행처** 주식회사 열린책들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파주출판도시
대표전화 031-955-4000 **팩스** 031-955-4004 **홈페이지** www.openbooks.co.kr
발행일 2023년 4월 30일 초판 1쇄

Copyright (C) 주식회사 열린책들, 2023, *Printed in Korea.*
ISBN 978-89-329-2337-6 03010

비매품